장편소설

령사의 상심앞에

장 수 봉

평 양 출 판 사
주체107(2018)년

나오는 사람들

리경식 주인공, 물질문화보존협회 리사

박상열 도쬬 《구다라서림》 주인

서만옥 오사까 《아라이스시》 주인

엄길호 총련 도쬬도본부 일군

우달근 오사까에서 사는 재일동포

김순분 주인공의 안해

쯔보이 히사꼬 물질문화보존협회 회원

하또리 류따로 일본 문예평론가

가루베 신조 일본인 도굴군

아라기 사다오 A급전범자, 구일본의 륙군대신

장편소설 **력사의 상처앞에**

이 땅의 문화재들을 파괴하고 략탈한 일제의 죄행은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통한으로 새겨진 쓰라린 상처이다.

북이건 남이건 그 어데서 살건 분렬의 아픔을 안고 사는 이 겨레의 한 성원이라면 어느때건 마음을 가다듬고 력사의 그 상처앞에 한번 서보시라.

그러면 그대들은 저도 모르게 하나의 생각을 달리게 될것이다.

차 례

제 1 장

1. 분계선이 없는 곳에서 …… 3
2. 고마무라의 별장(1) …… 14
3. 조국이 부르는 소리 …… 22
4. 하또리 류따로 …… 41
5. 고마무라의 별장(2) …… 52
6. 비운의 시절에 …… 64
7. 한겨울의 육개장 …… 83
8. 백제의 후손 …… 99
9. 격노한 사무라이 …… 116

제 2 장

1. 력사의 상처앞에서 …… 138
2. 옛 관헌의 일장춘몽 …… 147
3. 《백자》 차집에서 …… 164
4. 일본《호리야》 …… 176

5. 《다마무시주점》 주인 …… 193
6. 미궁속을 헤치며 …… 219
7. 오사까의 비뿌리는 밤에 ……236
8. 야꾸자의 소굴을 찾아 …… 251
9. 쓰라린 대결 ……265

제 3 장

1. 《바나나족》 ……291
2. 고백하고싶어지는 때 ……301
3. 어둠속에서 번뜩이는 비수 ……323
4. 인생을 다스리는것 ……337
5. 샘물은 퍼낼수록 깨끗해진다 ……359
6. 진도집녀인 ……387
7. 판가리시각을 앞두고 ……408
8. 《조선인들의 일이니까요》 …… 417
9. 그들이 함께 부른 《아리랑》 ……440
10. 모두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456

제 1 장

1. 분계선이 없는 곳에서

느닷없이 전시회장은 류다른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어디서 왔는지 학자풍의 수많은 관람객들이 밀려들었던것이다.

백발을 날리는 로학자들도 있었고 홍안의 젊은 학자들도 있었다. 경건한 명상에 잠긴 모습들이 보이는가 하면 훈훈한 기쁨과 감흥으로 달아오른 모습들도 보였다. 이따금 들려오는 흥뜬 목소리들, 화기어린 웃음소리들, 무랍없이 오고가는 북쪽말씨들과 남쪽말씨들… 어디라 할것없이 전시회장에 신선한 흥분과 랑만적인 기분이 떠돌고있었다.

그들은 잠시후 열리게 될 일제략탈문화재반환을 위한 토론회에 참가하러 온 북과 남의 력사학자들이였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이곳 조선미술박물관으로 모여든 그들은 박물관의 1층홀에 한 해외동포가 기증해온 민족유물들이 전시되여있다는것을 알고 찾아온것이였다. 그러고보면 평양에서 열리고있는 교포의 유물전시회는 북과 남의 유별난 관심사로 되였으니 행운을 만난셈이였다.

전시된 유물들은 다양했다. 세나라시기의 불상과 기와들이며 고려시대의 자기들 그리고 조선봉건왕조시대의 서적들과 치레거리들도 있었다.

《박선생, 여기 고대시기의 유물도 있구만요!》

《정말 그렇군요!》

아득한 태고적의 유물앞에서 40대쯤 돼보이는 두 사나이가 감동을 터치고있었다. 그것은 크기가 손바닥만 한 둥근 모양의 청동거울이였다. 앞이마가 도도록한 사나이가 거울을 눈여겨보더니 옆의 사나이에게 물었다.

《문선생은 문화재를 전문하시니 잘 아시겠군요. 제 보건대는 고조선시대의 거울 같은데 대략 어느 시기의것으로 추정됩니까?》

그 물음에 옆사나이는 직업적흥미가 동했는지 박물관의 규정도 잊고 거울을 손에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는것이였다. 얼마동안 찬찬히 거울을 들여다보던 사나이가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좀 보십시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렇게 표면이 반들거리고 무늬가 잘 남아있는걸 봐서 방부제를 칠한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거울뒤면의 이 무늬들을 보십시오. 가는 선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원둘레와 직선들이 하나도 찌그러지거나 맞붙은게 없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박선생의 생각이 옳습니다. 이 거울은 고조선시기의 거울이 분명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거울을 두고 <잔줄무늬거울>이라고 부르지요.》

《아!》

듣고있던 사나이의 입에서 감탄사가 새여나왔다.

그들 역시 토론회에 참가하러 온 학자들이였다. 방금 설명한 사람은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문성민실장이였고 《박선생》이라고 불리운 사람은 서울의 어느 대학에서 박물관을 맡아보고있다는 박인규관장이였다. 두사람은 이미 토론회차로 여러번 만난적이 있는 구면들이다.

《거참,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들여다보았을 이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쳐보니 감정이 이상해지는군요.》

이윽토록 거울을 들여다보며 문성민이 천천히 하는 말이였다. 그 말에 느껴지는바가 있는듯 박인규가 뒤를 달았다.

《허허… 듣고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허다한 선조들의 얼굴이 그 거울에 비쳐졌을테지요.》

문성민은 생각에 잠겨 박인규의 말을 받았다.

《어찌 선조들뿐이겠습니까. 이 거울에 비낀 오늘의 우리 모습을 두고 천년후의 후손들은 또 뭐라고 말들 할지 궁금하구만요.》

침묵이 흘렀다. 서로 말이 없는 공간속에서 두사람은 자신들의 심혼과 많은 말을 하고있었다.

그럴 때였다. 불현듯 녀인의 석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뜻이 깊은 말씀들을 나누고계시는군요.》

은백발의 한 녀인이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서있었다. 두리두리한 얼굴에 로인같지 않게 둥근 어깨가 퍽 당당해보이는 모습이였다. 사나이들이 얼떠름해하자 녀인은 웃으며 다가와 자기소개를 하는것이였다.

《이야기들을 나누시는데 끼여들어서 미안합니다. 전 카나다에서 온 서만옥이라는 늙은이라오.》

대뜸 두사람의 눈길이 녀인에게로 모아졌다. 문성민이 먼저 나서며 녀인에게 물었다.

《그럼 이 유물들을 기증하신 교포어머님이 아니십니까?》

스스럼없이 흘러나온 어머니라는 부름에 녀인은 감동의 빛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사람은 환성을 올리며 녀인을 에워쌌다. 생존경쟁의 란무장에서 홀몸으로 기업을 운영해오는 속에서도 자기가 조선사람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민족유물을 수집해왔다는 녀인, 녀인의 미거는 토론회참가자들에게 이미 알려져있었던것이다. 주위에 있던 다른 관람객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렇게 만나뵈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민족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기쁨과 감복, 반가움에 넘친 찬사들이 꽃보라인양 녀인에게 쏟아졌다. 녀인이 어쩔바를 몰라하며 손사래를 쳤다.

《이러지들 마세요. 전 그런 찬사를 받을만 한 사람은 못되는걸요. …》

비단필같이 흘러내리는 부드러운 조명빛에 녀인의 눈이 불꽃처럼 반짝였다. 얼마후 박인규가 호기심을 누를수 없었던지 녀인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 청동거울은 어디서 찾아오셨습니까?》

그러자 녀인은 문성민에게서 거울을 받아들고 생각을 더듬다가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이 거울은 베네찌아의 어느 상인에게서 산겁니다. 그 사람은 취미삼아 동서고금의 갖가지 거울들을 수집하고있었는데 고대에짚트의 청동거울로부터 요즘 나오는 거울에 이르기까지 없는것이 없었답니다. 언젠가 초청을 받고 그의 집을 방문했더니만 자랑삼아 내게 자기가 모아들인 거울들을 보여주는게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이 청동거울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해방전에 조선에서 흘러나온것인데 일본을 거쳐 유럽의 여기저기로 옮겨지다가 결국은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되였다더군요. 그 사람이 절대 내놓을수 없다는걸 겨우 설복했습니다.》

녀인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한점한점의 유물마다에 스며있는 남모르는 진정과 수고가 헤아려져 누구나 감심어린 빛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는데 녀인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누구에게라 없이 조용히 외우는것이였다.

《실은 이자 지나가댔는데 거울을 보면서 학자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발목을 붙잡더군요. 가만히 새겨보니 그 말씀인즉 제 얼굴이 어떤가 하는건 거울을 보고 알수 있지만 자기가 살아온 한평생이 어떤가 하는건 자손들앞에 서봐야 알수 있다는 뜻 같았어요. 왜 그런지 제 마음도 이상해지더란 말입니다.》

녀인의 목소리는 무겁게 울렸다. 오늘과 래일에 대하여, 자신과 후손들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생각해보게 하는 말이였다. 문성민도 박인규도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도 녀인이 한 말을 음미해보며 깊은 묵념에 잠겨있었다.

갑자기 거울을 들고있던 녀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안경을 낀 한 로학자가 전시품들을 돌아보며 이리로 다가오는 모습이 거울에 비쳐왔던것이다. 비록 머리는 은빛으로 세였어도 정신적인 체중이 느껴지는 걸음걸이에서는 아직 힘과 자신심이 엿보이고있었다.

《선생님!》

이렇게 소리쳐부르며 먼저 다가간 사람은 박인규였다. 그를 알아보았는지 로학자도 무등 반가움을 금치 못하는것이였다.

《오, 자넨가! 평양에 왔다는 말을 들었네.》

두사람은 서로 부여잡고 부자간인양 따뜻이 회포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왜 이번에 오시지 못했나? 전번에 금강산에서 만났을때 이번 토론회에 꼭 참가하겠다구 나한테 다짐했는데.》

로학자가 서운한 기색을 드러내며 묻는 말이였다. 박인규도 허전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평양으로 떠나올 때 아버님이 몹시 섭섭해하셨습니다. 사실 아버님은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려고 방북신청까지 다 냈었는데 그만에야 일본에서 백제사에 대한 순회강연을 해달라고 초청해오는 바람에… 아쉽기는 하지만 일본사람들의 잘못된 력사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시면서

대신 저를 평양으로 떠밀어 보내셨습니다. 아버님은 저더러 선생님을 만나거들랑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인규의 대답에 로학자가 헌헌히 웃으며 뜻모를 소리를 했다.

《허허허… 역시 <구다라징>다운 처사야.》

그들의 관계를 이미 알고있는듯 뒤에서 벙글거리던 문성민이 로학자가 다가오자 인사를 했다. 로학자가 그를 알아보고 반색을 한다.

《문실장도 왔구만.》

문성민이 로학자에게 동포녀인을 소개했다.

《선생님, 이분이 바로 여기 전시된 유물들을 조국에 기증하신 서만옥어머님이십니다.》

《아, 그렇소!》

로학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로학자는 녀인에게 다가서서 정중히 례를 차렸다.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컸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애국적소행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로학자의 인사에 서만옥도 고개를 숙이며 화답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저보다 더 애를 쓰시는분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녀인의 거동이 어딘가 당황해하는듯싶었다.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져있었고 눈길도 불안스럽게 허둥거리고있었다. 웬 일인지 그러는 서만옥을 바라보는 로학자의 눈빛도 점점 굳어져갔다. 로학자는 처음엔 안경을 거쳐, 다음에는 안경너머로, 나중에는 안경을 벗고 녀인을 눈여겨보다가 망설이며 묻는것이였다.

《저, 실례입니다만 카나다에서 오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곳에서 사신지는 오래되였는가요?》

서만옥의 낯빛이 해쓱해졌다. 녀인은 힘겹게 몰숨을 내긋고나서

외마디로 대답했다.

《예.》

문성민과 박인규가 두사람을 의아스럽게 바라보는데 토론회가 곧 시작된다고 알리는 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토론회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뭔가 할 말을 미처 못한듯 머뭇거리던 로학자도 별수없이 녀인과 서먹한 인사를 나누고는 자리를 떴다.

문성민이 동포녀인에게 작별인사를 하자 녀인이 말했다.

《실은 나도 토론회에 방청으로 초청받았답니다.》

그 말에 문성민도 박인규도 다같이 기뻐했다. 박인규가 반가운 나머지 어려움도 잊고 녀인의 팔을 잡아끌었다.

《거참, 잘됐습니다. 어머님,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들의 허물없는 친절에 녀인은 시름없이 웃으며 따라나섰다. …

토론자의 격앙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퍼지고있었다.

《… 이렇듯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규칙 제27조와 제28조, 제56조 그리고 1935년과 1954년의 문화재보호에 관한 헤그협약에 비추어볼 때 명백히 알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수많은 문화재들에 대한 일제의 파괴와 략탈은 국제법을 철저하게 유린한 특대형범죄이며 인류가 두고두고 기억하여야 할 만행중의 만행인것입니다. …》

력사는 단지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다. 누가 말했던가. 력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현재란 다름아닌 과거의 산물이고 오늘의 영광과 오욕은 어제와 하나로 잇닿아있기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나간 과거는 오늘과 래일을 후손들에게 일깨워주며 묵묵히 서있는것이다.

곁에서 기관총을 쏘아대듯이 빠른 말씨로 속삭이는 박인규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력사분야에서는 남과 북의 사료가 서로 일치합니다.》

문성민 역시 연단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들먹거리는 심정으로 그의 말을 받았다.

《같은 민족이니 사료도 같을수밖에요.》

《음,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분석입니다.》

그러고보니 스스로도 생각되는바가 있어 성민은 금방 한 말을 마음속으로 다시금 되새겨보았다. 민족이 같으니 사료도 같다!

너무도 당연하다. 국토가 량단되여 6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에게는 공유하고있는것이 너무도 많다. 하나의 피줄과 하나의 언어, 하나의 풍습을 공유하고있고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하나로 공유하고있다. 지금 여기에 모여앉은 수많은 참가자들을 두고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하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어느 누가 선뜻 말할수 있으랴.

여기에는 분계선이 없다. 언어의 장벽도, 풍습의 장벽도, 리념의 장벽도 없다. 민족수난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며 민족의 활로를 함께 모색해나가려는 하나된 지향만이 온 장내에 맥맥히 흐르고있었다.

실로 6.15시대가 열린이래 례사롭게 볼수 있는 광경들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력사학계에서만도 북과 남을 오가며 얼마나 활발한 토론들이 벌어졌던가. 일제의 조선강점불법성과 강제련행에 관한 토론회, 《일본해》표기의 부당성과 C-K영문표기문제에 관한 토론회 그리고 이 시각 진행되고있는 일제략탈문화재반환을 위한 토론회… 북과 남의 력사학자들이 모여 년례행사처럼 벌려온 그 하나하나의 공동학술토론회들은 그대로 일제의 저주로운 죄악을 한목소리로 단죄하는 온 겨레의 성토였고 파란많은 분렬의 세월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은 민족의 끈진 동질성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였다.

또 한차례의 토론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올랐다. 대지를 후련하게 두들기는 비줄기마냥 장내를 흔드는 우렁찬 박수소리가 삼천리에 굽이치는 민족자주의식의 분출로, 민족공조의식의 분출로 메아리쳐온다.

박인규도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며 달아오른 심정을 토로하는것이였다.

《오래간만에 박수를 제대로 쳐보는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론문들이 다 훌륭합니다.》

문성민은 혈조가 번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동감을 표시했다.

언제 보나 목소리가 박새처럼 쟁쟁하고 시인처럼 흥분하기 잘하는 박인규, 그는 일제와 사대주의사가들에 의해 매몰되였던 우리나라의 상고사를 복원하기 위해 한생을 바쳐가는 사람이였다. 아직까지도 일제가 부식시켜놓은 식민지사관에 포로되여 우리의 상고사를 회의적으로 대하는 일부 얼간이학자들을 대할 때면 그는 《력사는 애국심의 원천이다. 고로 사필이 강하여야 민족이 강하고 사필이 용감하여야 민족이 용감하다.》고 한 단재 신채호의 말로 그들을 갈파하군 한다고 한다. 민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주견이 있는 학자였다.

성민이 그와 함께 토론들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있는데 사회자가 다음 토론자를 소개하는것이였다.

《다음은 조선력사학학회 부회장 리경식교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 리교수님이군요.》

박인규의 얼굴가에 대뜸 반색이 떠올랐다. 문성민도 류다른 관심을 가지고 연단쪽을 바라보았다. 전시회장에서 그들이 만났던 로학자가 연단으로 나왔다.

《교수님은 여전하시군요.》

나직이 들려오는 박인규의 말에 문성민은 머리를 끄덕였다.

량귀가 벗어져올라간 이마며 기름한 얼굴에 붓으로 그은듯 한 서리내린 장미… 교수의 모습에서 풍겨오는 기품과 무게는 여든살이 넘은 오늘에도 예전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리경식교수의 서가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발표한 문성민의 첫 론문이 꽂혀있다. 사회과학원에서 문화재연구의 걸음마를 떼던 시절 성민은 리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학위론문을 준비했었다. 그 나날 그는 교수에게서 삶의 걸치레와 허명을 모르는 과학자의 바른 자세를 보았고 조국과 겨레앞에 지닌 력사학자의 본분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도 하였다.

한번은 그가 교수에게 어째서 우리 조상들은 유럽의 콜로세움이나 파르테논 같은 세계적인 건축유적들을 못 남겼는지 모르겠다고 푸념조로 말한적이 있었다. 그때 리교수가 노기어린 어조로 질책하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성민은 얼굴이 뜨거워지군 한다.

《그럼 유럽엔 팔만대장경이 있다던가? 에밀레종이 있다던가? 금속활자를 발명한 사람들도 우리 조상들이고 철갑선을 처음 만든 사람들도 우리 조상들일세. 외적의 략탈과 전란만 아니였더라면 세계적인 건축유적들도 우리 나라에 수두룩했을거네. 어째서 우리에게 없는것만 보고 있는건 보지 못하는가. 자존심이 없는 력사가는 청맹과니가 되고마네. …》

흔히 력사가는 상상력이 풍부해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체험이 깊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 모든것에 앞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긍지야말로 력사가가 지녀야 할 필수자질이라는 철리를 그 나날 리교수는 성민에게 새겨주었다. …

이윽고 연단쪽에서 귀에 익은 리경식교수의 웅글진 음성이 들려

오기 시작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도이칠란드는 2차대전직후 200만점에 달하는 략탈문화재들을 해당 국들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일본만은 반세기가 넘도록 그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죄도 없이 략탈한 문화재들을 계속 차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 그 반환에 대해 어떤 담보나 약속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를 둘러보았다. 조명등의 강렬한 반사광이 교수의 안경에 부딪쳐 섬광을 일으킨다. 저으기 흥분한 듯 잠시 숨을 고루던 리교수는 얼마후 강개한 어조로 토론을 계속하는것이였다.

《조선문화재를 파괴하고 략탈한 일제의 죄행은 아직도 아물지 못한 상처로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뿌리깊이 남아있으며 일본당국의 철면피한 처사는 전체 조선민족의 의분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

궁글고 심각한 교수의 목소리가 비분의 절규인양 긴 여운을 남기며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고있었다. 문성민에게는 교수의 토론이 학술토론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고문서의 기록들을 인용해가며 지나간 사실을 객관적으로 론증하는 학술토론이기 전에 사랑과 증오로 온몸을 태우며 력사를 살아온 한 체험자의 피끓는 증언이라 해야 할것이다.

《저분도 한때 일본에서 살면서 어머님처럼 민족유물을 수집하시던분이랍니다.》

박인규가 곁에 앉은 동포녀인에게 조용히 알려주는 말이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녀인의 눈길이 리교수에게 붙박혀 떨어질줄을 몰랐다.

문성민도 언젠가 교수에게서 문화재를 수집하던 나날의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었다. 문득 그의 눈앞에 하나의 광경이 떠올랐다.

양복도 못 입은 와이샤쯔바람에 민족유물이 가득찬 트렁크 두개만 량손에 든채 조국의 품에 안기던 리교수의 그 모습이였다. 일본땅에서 넝마장사를 하면서 한점두점 피타게 민족의 재부를 모아들인 그의 애국적소행은 이미 세상에 널리 소개되였다. 하지만 그 나날 리교수가 겪은 기쁨과 괴로움, 고뇌와 환희에 대해 자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 못할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의미가 새로워지는 이야기들이 있다. 리교수의 이야기도 그러한 이야기들중의 하나라고 문성민은 생각했다.

불현듯 서만옥이 긴숨을 몰아쉰다. 조국과 겨레를 위해 한생을 맥박쳐온 한 인간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그의 가슴에도 뜨겁게 메아리쳐오는걸가. …

2. 고마무라의 별장(1)

고마무라는 일본 도꾜에서 기차로 1시간가량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있는 사이다마현의 한 마을이다. 고마역에서 내려 농가들이 모여있는 야산들을 지나 한적한 길로 사오십분쯤 걸어가느라면 삼나무며 느티나무들이 들어선 안침진 곳이 나진다.

그전에 이곳에는 서양식으로 지은 2층짜리 돌집이 하나 서있었다. 중세기의 성곽마냥 거무칙칙한 담장을 두르고 주변의 민가들과 대조되게 궁륭식으로 솟은 건물의 오만한 자태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못 서느러운 위압감을 안겨주군 하였다.

1960년 어느 가을날 오후 후릿한 키에 기골이 실해보이는 30대의 한 사나이가 건물의 대문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있었다. 머리는

기름을 발라 빗자국이 선명하게 뒤로 빗어넘겼는데 양복에 구두를 받쳐신은 차림새로 보아 도회지에서 온 사람 같았다.

안에서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가 자발스럽게 들리더니 기모노를 입은 중년의 하녀가 구리쇠를 두른 대문을 열고 나왔다. 사나이는 깍듯이 인사를 하며 하녀에게 말을 붙였다.

《오구라 분지입니다. 자주 폐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아니, 또 오셨는가요?》

하녀는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사나이의 인사에 린색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러거나말거나 사나이는 의연한 태도로 하녀에게 부탁한다.

《오늘은 일이 성사되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낮아도 꾹꾹 눌러짚는 웅글은 어조에서는 쉬이 물리치기 어려운 끈질긴 집념과 의지가 내비치고있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하녀는 어쩔수 없었던지 사나이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안으로 사라졌다.

사나이는 대문앞을 무겁게 거닐기 시작하였다. 하관이 긴편인 그의 묵직한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비껴흐르고있었다.

한줄기의 가을바람이 썰렁하니 지나갔다. 대문곁에 기우듬히 서있는 벚나무가지들에서 누런 락엽들이 어수선하게 내려앉았다. 사나이는 소슬한 가을바람에 몰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락엽들을 묵묵히 바라본다.

이 건물의 주인은 구일본의 륙군대신과 문부대신을 력임하였던 아라기 사다오이다. 패전후 A급전범자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무기형을 언도받은 아라기 사다오는 스가모형무소에서 복역하던중 병보석으로 출옥하여 여기 고마무라의 자기 별장에서 생의 말년을 보내고있었다.

요행 살아남은 풀벌레 한마리가 마지막기운을 다하여 기승스럽게 울어대고있었다. 마치도 버림받은 생을 하소하는것만 같았다.

얼마후 대문열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사나이의 긴장된 눈길이 대문쪽으로 향해졌다. 그런데 하녀는 문을 채 열지도 않고 머리만 반쯤 내민채 랭랭하게 이르는것이였다.

《각하께서는 면회를 거절하십니다. 그만 돌아가주세요.》

《잠간…》

다급히 사나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였지만 대문은 이미 굳게 닫겨져있었다. 사나이는 금시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오르는듯 울대뼈밑에 조여맨 뭉툭한 넥타이매듭을 거칠게 끄당겨 늦구었다. 여간만 락심해하는 빛이 아니였다.

류창한 일본말로 오구라 분지라고 자기소개를 한 이 사나이는 다름아닌 조선사람 리경식이였다. 도꾜에서 이곳까지 아라기를 만나기 위해 그는 벌써 두달째나 걸음을 해오고있었다. 하건만 오늘의 열한번째 걸음도 역시 허탕이였다. 이러다가 끝내 아라기의 얼굴조차 못 보고마는것이 아닌가 하는 위구심이 경식의 마음속에서 어지러이 맴돌아쳤다.

리경식이 그토록 고심하며 아라기 사다오를 만나려고 하는데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

넉달전이였다. 뜻밖에도 작곡가 구만영이 경식을 찾아왔다. 일본에서 살면서도 겨레의 넋을 지켜 우리의 가락과 장단을 살린 민요풍의 많은 노래들을 작곡해온 그는 동포사회에 널리 알려진 민족음악가였다. 그런 음악가가 불쑥 생면부지의 자기를 찾아온 사실앞에 경식은 저으기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구만영은 리경식이 문화재분야에 조예가 깊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고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리선생, 혹시 <조선향악보>라는 고서에 대해 들은적이 있습니까?》

《<조선향악보>요?…》

지금껏 조선문화재를 수집하면서 수많은 유물들을 보아왔지만 그런 고서적은 여태 본적도 들은적도 없는 경식이였다. 얼떨떨해서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경식에게 구만영은 가슴이 터지도록 모두숨을 몰아쉬며 이런 말을 터놓는것이였다.

《<조선향악보>는 500여년간 조선봉건왕조의 궁중에서 사용한 전통적인 민족음악을 수록한 악보집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유산을 해방전에 일제가 략탈하여갔습니다. 중세조선음악연구에서 없어서는 안될 민족의 귀중한 재보가 현재 일본에 있다는걸 안 순간부터 난 향악보를 찾아 정신없이 헤매다녔습니다. 하건만 오늘까지도 향악보의 행방은 좀체로 알길이 없구만요. 며칠후면 전 귀국선에 올라야 합니다. 자나깨나 그리워하던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된 지금 기쁜 마음이야 더 말해 뭣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일제에게 빼앗긴 우리 겨레의 유산을 끝끝내 찾지 못하고 떠난다고 생각하니 실로 통분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동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는가고 두루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리선생의 이름을 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라면 리선생을 만나 상론해보는게 좋겠다고 말입니다. …》

구만영은 눈물이 그렁해서 경식의 손을 부여잡고 어떻게 하나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인 《조선향악보》를 꼭 찾을수는 없는가고 간절히 부탁하는것이였다. 리경식의 가슴속에 울컥 피가 솟구쳐올랐다. 음악가의 간청은 그대로 자기에게 하는 겨레의 부탁으로, 절절한 호소로 심장을 쳐왔던것이다. 산악같은 사명감이 천근만근으로

온몸에 실려오는것을 가슴 뻐근하게 느끼며 경식은 작곡가의 손을 뜨겁게 마주잡았다.

경식은 그길로 총련 도꾜도본부 일군이며 귀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엄길호를 찾아갔다. 일본에서 지금껏 형처럼 믿고 의지해온 그와 의논해보기 위해서였다. 경식이 불을 토하듯 찾아온 사연을 쏟아놓자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길호가 말을 건네왔다.

《자네 벌써 결심을 한게로군.》

리경식은 누구에게라 없이 격한 어조로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결심하구말구가 있습니까. 민족음악연구에 꼭 필요한 우리 문화재가 일본땅에 파묻혀있다는데 그걸 알고서야 어떻게 가만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어이 <조선향악보>를 되찾아야지요. 제가 나서서 찾겠습니다.》

엄길호는 머리를 끄덕였다.

《하긴 그 분야에선 자네만 한 적임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서인지 엄길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였다.

《아니, 형님! 오늘은 웬 일이시우. 그래 이 리경식이를 믿지 못하시겠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본땅에서 함께 고생해온탓에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아는 엄길호의 그런 태도가 경식에게는 못마땅하기 그지없었다. 한동안 머리를 수굿하고 무엇인가 생각하던 엄길호는 따지는듯 한 눈길로 경식을 지켜보며 조용히 묻는것이였다.

《정말 괜찮겠나? 자네야 다음달에 귀국해야 할 몸이 아닌가?》

그제서야 경식은 엄길호의 심중을 깨달을수가 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경식의 가족은 이미 귀국명단에 올라있었고 리경식본인은 귀국성원들의 부단장으로 내정되여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향악보를 찾자면 부득불 시간이 요구되였고 결국 귀국을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되였던것이다.

경식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조국의 품에 안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요즘은 노상 명절기분으로 들떠있는 안해와 자식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밟혀왔다.

그러나 다음순간 경식은 자신을 다잡았다. 민족의 소중한 유산을 일본땅에 남겨두고 떠날수는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향악보를 찾아가지고 조국에 가야 한다.

경식은 결연한 어조로 엄길호에게 대답했다.

《귀국을 미루겠습니다. 집사람도 리해해줄겁니다.》

엄길호는 미더운 눈길로 경식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장하네. 귀국을 눈앞에 두고도 민족을 위해 스스로 산같은 짐을 걸머지고 나서는 자네 마음을 나도 아네. 내 자네의 결심을 총련조직에 보고하겠네.》

《고맙습니다. 산같은 믿음이 있기에 산같은 짐을 걸머지고나서는게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두사람은 소리내여 웃었다.

리경식은 그길로 향악보의 행방을 찾아나섰다. 문자그대로 풀숲에서 바늘찾기였다. 경식은 이미전부터 련계가 있던 골동상인들과 고서점주인들, 조선관계 전문가들과 줄을 달면서 온 일본땅이 좁다하게 뛰여다녔다.

그러던중 마침내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날아왔다. 구일본의 문부대신이였던 아라기 사다오가 수십만부의 장서를 별장에 보관하고있는데 《조선향악보》도 필경 그속에 있을거라는것이였다. 하지만 기뻐하기는 일렀다. 그 다음이 문제였다.

아라기 사다오로 말하면 군국주의와 민족배타주의사상이 골수에까지 들어찬자로서 일본을 파쑈화와 침략전쟁에로 떠몰아간 주되는

원흉의 하나였던것이다. 극우익군부세력의 반란으로 여러 정부요인들이 살해되거나 중상을 입은 1936년 2.26사건의 막후조종자가 바로 아라기 사다오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자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파쇼군벌인가 하는것을 여실히 알수 있었다. 그러한자인만큼 조선의 문화재가 조선사람에게 반환되는것을 절대로 허용치 않으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였다.

여러가지로 방도를 모색하던 리경식은 물질문화보존협회 리사의 신분으로 아라기를 찾아갔다.

일본에서 문화재수집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일본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고 더우기 민족차별의식이 뿌리깊이 남아있는 일본땅에서 조선사람의 신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여간 힘겨운것이 아니였다. 그리하여 경식은 유물수집의 나날에 뜻을 같이하는 일본인들과 함께 물질문화보존협회라는 민간단체를 내오게 되였고 때로는 리경식이라는 본명으로, 때로는 오구라 분지라는 통명으로 사업해왔던것이다.

경식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조선향악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단지 《력사연구와 공익을 위해 장서를 정리하게 해달라.》고 아라기에게 요구했다. 아라기는 리경식을 만나주지조차 않았다.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라기의 장서를 정리하려고 찾아왔다가 그런 랭대를 받았다는것을 잘 알고있기에 경식은 별로 실망하지 않았다.

두번… 세번… 경식은 끈질기게 아라기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과는 매한가지였다. 조바심과 불안감이 경식의 마음속에서 점점 머리를 쳐들었다. 혹시 자기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아라기가 눈치라도 챈것은 아닐가. 아니면 애당초 장서정리문제 같은것은 론하지도 않겠다는 심산인지도 몰랐다. …

육중하게 닫겨있는 대문을 바라보던 경식은 저도 모르게 불한숨을 토했다. 생각할수록 피가 뻗쳐오르는 일이였다. 여기가 만일 조국땅이였더라면 벌써 아라기에게 쳐들어가 도적질해간 민족의 재보를 당장 내놓으라고 추상같이 호통치고도 남았을것이다. 허나 여기는 일본땅이였다. 다른 나라에서 략탈해온 보물들이 《국가와 국민의 재산》으로 번듯하니 등록되여 《법》의 보호를 받고있는 세상, 죄악에 찬 과거를 반성할줄 모르는 도덕적저렬성이 온 사회에 만연하고있는 일본의 현실이 혐오스럽기 그지없었다. 경식은 주먹을 그러쥐였다.

(물러설수 없다. 백번 찍어 안 넘어가면 천번을 찍어서라도 반드시 아라기의 장서를 손에 넣어야 한다.)

아라기의 별장을 노려보는 경식의 우묵한 두눈에 쇠빛이 번쩍였다.

리경식은 도쬬로 발길을 돌렸다. 방도를 찾아야 한다. 정면공격이 통하지 않으면 우회공격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이런 궁리를 하며 길을 걷는데 갑자기 앞에서 자전거종소리가 들려왔다. 경식은 생각에서 깨여나 눈길을 쳐들었다.

동그란 얼굴에 테가 굵은 대모테안경을 낀 암팡진 몸집의 사나이가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고있었다. 눈여겨보니 경식이처럼 아라기의 장서에 관심을 두고 별장에 오군 하는 사람이였다. 성이 가네다라던가. … 도쬬에서 고서점일을 본다고 했다.

경식은 고마무라에 드나들던 첫날부터 그와 몇번 마주친적이 있었지만 동업자들사이의 경쟁의식때문이였던지 두사람사이에는 별로 이야기가 오간적이 없었다. 아무튼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로 찾아오는것을 보면 그 역시 여간 검질긴 사람이 아닌것 같았다.

가네다도 이쪽을 알아보았는지 자전거의 발디디개를 잽싸게 밟아대며 아는체를 한다.

《하, 오늘도 또 헛걸음을 하신 모양입니다.》

금속성의 여운이 울리는 챙챙한 목소리였다. 경식은 대답대신 쓴웃음만 지었다. 그러는 그의 모습을 가네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재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경식은 멀어져가는 가네다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3. 조국이 부르는 소리

리경식이 도죠 아다찌구의 자기 집앞에 이르렀을 때는 밤이 이슥해서였다. 어느새 인기척을 들었는지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불빛을 등에 지고 안해의 자태가 나타났다.

《인제 오세요.》

반색이 력력한 안해의 귀익은 목소리가 피로해진 경식의 몸을 포근하게 감싸는듯 했다.

《음, 좀 늦었소.》

경식은 따스하고 익숙된 온기를 피부로 느끼며 방안에 들어섰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있었다. 방 한구석에는 금방까지도 안해가 삯바느질을 하댔는지 토목공사장에서 쓰는 어깨받치개들이 무드기 쌓여있었다. 숫되고 조용한 성미여도 살림살이에 들어서는 남들이 혀를 찰만큼 손부리가 영글고 당찬 안해였다. 그렇지만 따지고보면 집안일을 줄창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안해이니 달리될수는 없는노릇이 아닌가. 외지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설 때면 늘 그

러하듯이 미안한 생각부터 앞섰다. 경식은 긴숨을 내쉬며 곁에 있는 안해를 돌아보았다.

안해는 피로가 엿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서있었다. 가량가량한 그 녀자의 얼굴이 애틋한 그리움과 기대감으로 하여 발그스름히 상기되여있었다. 경식은 장난기굻은 소년마냥 씽그레 웃으며 안해의 이마전에 드리운 머리칼을 정겹게 걷어올려주었다. 남편을 쳐다보는 안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안해는 방바닥에 널린 실밥들을 얼른 쓸어모으고나서 부엌으로 나갔다.

경식은 아이들에게로 다가갔다. 네살잡이 막내녀석은 반듯이 누워 제법 가릉가릉 코까지 골고있는데 일곱살 난 맏딸 수영이는 이불을 차버린채 엎드려 자고있었다. 수영이를 바로눕히고 이불을 여며주는데 머리맡에 딸애가 그리다만 그림 한장이 눈에 띄였다. 푸른 바다우에 배 한척이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떠가는 그림이였다. 아마 귀국선을 그리려고 한것 같았다.

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다음순간 어린것이 얼마나 조국땅을 밟고싶으면 저러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찌르르해났다.

귀국을 미루자고 했을 때 그렇게도 떼를 쓰며 성화를 먹이던 수영이였다. 하기야 조국에서 학교공부를 하게 되였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뽐내고 다니던 애였으니 실망인들 오죽 컸으랴. 어린 마음에 그늘을 남긴걸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알찌근해오군 한다.

《아버지한테 보이겠다구 수영이가 그린거예요.》

밥상을 차려들고 들어오며 안해가 하는 말이였다.

《그래, 날 원망하는거겠지.》

경식의 어두운 대답에 안해는 체념어린 미소를 지으며 밥상을 내려놓았다.

《어서 식사하세요.》

그제서야 경식은 옷을 벗고 밥상앞에 마주앉았다. 두사람분의 밥상이였다. 아무리 늦어도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저녁을 들지 않는 안해였던것이다. 상우에 놓여있는 오지뚝배기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있었다. 경식이 좋아하는 이면수토막도 올라있었다. 남편은 안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면수반찬이 놓인 그릇을 밀어놓았다.

《아이들에게나 주오.》

그리고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곁들여 밥 한술을 껄끄러운 입속에 몰아넣었다. 안해는 남편의 밥먹는 모양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생각난듯 알려주는것이였다.

《참, 히사꼬가 왔다갔어요. 수영이 아버지가 출장가신걸 모르고 왔더군요. 돌아오시면 부탁하신 조사를 다 마쳤다고 전해달라 했어요.》

《히사꼬가?》

경식은 천천히 숟갈을 놀리며 중얼거렸다. 히사꼬는 리경식의 협회에서 일하는 처녀였다. 얼마전에 그에게 야마구찌현 대학들의 조선고서적소장실태를 조사해봐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벌써 일을 끝낸 모양이다. 늘 그렇게 책임감이 높고 일솜씨가 빠른 처녀였다.

헌데 무슨 실마리라도 잡힌건 없는가? 아라기의 장서를 보기 위해 갖은 노력을 쏟아붓고는 있지만 정말로 거기에 향악보가 있다고는 아직 장담할수 없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경식은 발이 닳게 고마무라에 다니는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각 방면으로 향악보의 행방을 찾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있었던것이다. 히사꼬에게 부탁하여 조선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야마구찌현에 눈길을 돌려보게 한것도 그때문이였다.

경식이 두서없이 찾아드는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있는데 머뭇거리

며 물어보는 안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가셨던 일이 시원치 않은가보지요?》

경식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여보이고나서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당신과 아이들은 먼저 귀국했어야 했을걸 그랬나보오.》

그러자 안해의 유순한 얼굴에 대뜸 놀라워하는 기색이 떠돌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영이 아버지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귀국한단 말이예요?》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는 안해를 보느라니 경식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강원도 강릉이 고향인 그의 안해 김순분은 부모들의 등에 업혀 현해탄을 건너온 뒤 히로시마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며 자라온 불우한 녀인이였다. 미군이 떨군 원자탄으로 졸지에 부모형제를 잃은 순분은 천애의 고아로 일본땅을 헤매다가 리경식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였다. 하기에 순분에게 있어서 경식은 단지 남편만인것이 아니라 아버지였고 오빠였고 이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경식은 안해를 위해 너무도 해준것이 없었다. 온 식구를 먹여살리기 위해 안해가 아라강바닥에서 자갈을 춰내고 파솜을 튀길 때에도 경식은 가정의 모든 부담을 안해의 연약한 어깨우에 떠맡긴채 오로지 문화재수집에만 골몰해왔다. 그래도 안해는 모든것을 리해해주었다. 순분에게는 남편의 꿈이자 자기의 꿈이였고 남편의 기쁨이자 곧 자기의 기쁨이였던것이다.

경식은 그러한 안해를 행복하게 해주고싶었다. 귀국의 배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 제일먼저 그의 가슴을 설레이게 한것도 다름아닌 인제는 안해를 행복하게 해줄수 있게 되였구나 하는 생

각이였다. 하건만 아직까지도 처자들을 이역땅에서 고생시키고있으니 그로서는 날이 지나갈수록 안해를 대하기가 민망스러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저녁상을 물리고난 경식은 괴로운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한채 웃방으로 올라갔다.

웃방은 누비돗자리를 깐 크지 않은 방이였다. 한켠에는 책시렁밑에 앉은뱅이책상이 놓여있었고 다른 한켠에는 오동나무상자들이 방안의 절반나마 차지하고있었다.

경식은 차곡차곡 쌓아놓은 오동나무상자들을 찬찬히 더듬어보았다. 크고작은 상자들마다에는 그가 모아들인 문화재들이 소중히 보관되여있었다. 값으로 치면 수백만엔은 넉넉히 나갈 보물들이였지만 언제 한번 그 보물들을 돈으로 여겨본적이 없는 경식이였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하나의 문화재들은 자신의 피와 땀이 스민 목숨같은 살붙이들이였고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겨레의 고고한 혼이였던것이다.

부엌에서 안해의 설겆이소리가 간간이 들려온다. 경식은 남편의 일을 두고 고심하는 안해의 번민을 마음속으로 읽으며 천천히 상자 한개를 열었다.

겹겹이 솜으로 둘러싸인 꽃병 하나가 상자안에 들어있었다. 푸른빛이 도는 고려청자였다. 경식은 조심히 청자를 꺼내여 책상우에 가져다놓고는 여느때의 습관대로 몇발자국 뒤로 물러나 앉았다.

청청한 가을날 옥계수우에 비낀 자태런듯 운치롭게 새겨넣은 버들가지며 학이 청자의 맑은 사기물을 통하여 은은히 비쳐왔다. 한쪽벽에 비스듬히 등을 기댄채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경식의 두눈에 따뜻한 정기가 일렁인다.

이런 때가 그에게는 제일로 좋았다. 정신없이 일에 다몰려 살다

가도 웃방에 홀로 앉아 청자를 마주하고있느라면 번거로운 시름들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리고 마음마저 청자의 비취옥색으로 고즈넉이 물드는것이였다.

불쑥 고향생각이 났다. 고향 개뚝가에도 저런 물버들이 한벌 덮였었지. 바람결에 풍겨오던 쑥내, 마당가에 피여나군 하던 하얀 조팝꽃, 누렁개 한마리가 한가로이 누워 딩굴던 뒤뜰의 장독대… 무언지 모를 싱그럽고 눈물겨운 향기가 가슴 한가득 밀려온다. …

리경식의 고향은 평양 삼석리이다. 묘향산줄기의 여세를 타고 남쪽으로 물결쳐온 청룡산줄기가 평양준평원으로 떨어지는 곳에 대성산과 함께 솟아있는 청운산, 그 산자락에 자리잡은 당골이라는 마을이 증조부대로부터 살아온 선산의 땅이였다.

서낭당이 있다 하여 당골이라 불리우는 고향마을은 스무나문채의 농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크지 않은 동네였다.

경식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일찌기 성안에 들어가 학문을 깨치고 사립학교 교사를 하던 아버지는 학생들에게 독립사상을 주입했다는 《죄》로 왜놈경찰서에 끌려가 한달나마 졸경을 치르다가 경식이 젖도 떼기 전에 숨을 거두었다.

경식의 뇌리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밭김을 매다가도 이따금 정처없이 허공중을 더듬군 하던 구슬픈 눈빛과 깊은 밤마다 소리죽여 흐느끼던 여린 어깨였다. 그러던 어머니마저 경식이가 여섯살 잡히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부모를 여의고나서 큰아버지네 집에 얹힌 경식은 할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라났다.

리경식의 어린시절은 가난속에서 흘러갔다. 큰아버지네는 얼마 안되는 밭을 소작으로 부치고있었는데 가을에 소작료를 물고나면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내외 그리고 아이들까지 일곱식구의 반년식량도

되나마나하였다. 흔히 먹는것이란 보리겨를 물에 버무려 빚은 겨떡이였고 비린것이란 들판에서 잡아 구운 메뚜기나 번데기맛이 고작이였다. 경식은 주린 배를 달래기 위해 뒤를 참아서 배힘을 만든다든가 잠으로 허기를 때우는 법을 너무도 일찌기 알게 되였다.

사실 리경식의 가문도 원래부터 제땅이 없은것은 아니였다. 허나나라를 잃은 뒤 왜놈들이 만든 《법》을 몰라서 빼앗기고 알고서도 빼앗기고 하다보니 결국은 남의 땅에 명줄을 걸고 살아가는 소작농의 신세가 되여버리고만것이였다.

살림은 이렇듯 어려웠지만 시골의 뼈대있는 유생이였던 경식의 할아버지는 소반이나 두리반을 만드는 목공일을 하면서도 힘에 눌려서 굽신거리는것을 제일로 타매하는 도고한 늙은이였다. 언젠가 소작땅을 떼우지 않으려고 씨암탉을 잡아 지주집에 가져다 바치려는 큰아버지에게 벼락같이 화를 내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경식은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있었다.

할아버지는 왜놈들을 누구보다도 증오하는분이였다. 조상의 땅을 강탈하고 아들까지 앗아간 왜놈들에게 얼마나 원한이 컸으면 왜놈세상에서는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면서 세면할 때조차 고개를 뻣뻣이 쳐든채 물을 찍어 얼굴을 씻군 하였겠는가.

가족들은 물론 동네사람들도 그런 할아버지를 저으기 어려워하였다.

하지만 범같이 지엄하고 조상전래의 도리를 하늘처럼 여기는 할아버지도 경식이에게만은 례외였다. 큰아버지에게는 경식이 말고도 1남2녀의 자식들이 있었건만 부모없이 자라는 막동이손자가 가엾었던지 할아버지의 애정은 류달리 경식이에게로 기울어지군 하였다. 간혹 별식이 생겨 큰어머니가 할아버지의 밥상에 놓아드리면 할아버지는 경식이를 불러 겸상을 하였고 맏손자가 잘못하면 엄하

게 회초리를 안기면서도 막내손자에게만은 몇마디 꾸중으로 대신하군 하였다.

철이 들자 경식은 할아버지에게서 국문과 천자문을 익혔고 우리나라의 옛이야기들이며 아버지를 빼앗아간 왜놈들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훈훈한 인정이 피여오르는 질화로가에 아이들을 둘러앉히고 김응서장군과 계월향이 왜장의 목을 베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청운산마루에 올라 대성산의 옛성터를 가리켜보이며 대륙을 진감하던 고구려선조들에 대해 들려주기도 하던 할아버지…

리경식이 문화재와 뗄래야 뗄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된것도 실은 할아버지때문이 아니였던가.

그것은 경식이 여덟살 나던 해 여름에 있은 일이였다.

어느날 경식이가 마을애들과 휩쓸려 동구밖에서 놀고있는데 노상 배꼽노리를 드러내놓고 다녀서 《배꼽따라지》라고 불리우는 아이가 그들에게로 뛰여왔다.

《이것 봐, 나 알사탕 먹는ㅡ다아!》

그애는 이렇게 뽐내며 입안에서 굴리던것을 보란듯이 쑥 빼여무는것이였다. 아이들은 눈이 퀭해졌다. 간식이라고 해야 기껏해서 오디나 아카시아꽃을 따먹는것으로 만족해온 변두리마을 아이들이였던지라 《배꼽따라지》가 물고있는 말눈깔사탕은 쉽게 구경하기 힘들었던것이다.

《너 거 웬거가?》

아이들중 누군가가 이렇게 묻자 《배꼽따라지》는 적삼아래 드러난 배꼽을 긁적거리며 사탕알을 입에 문채 으시대듯 대답했다.

《힝, 뭐하구 바꿔치기했거덩.》

《뭣하구?》

아이들의 궁금증을 간질이려는듯 새물새물 웃기만 하던 《배꼽

따라지》가 한참만에야 등뒤에 감추었던것을 불쑥 내미는것이였다.

《이런거하구.》

아이들은 대번에 어리둥절해졌다. 뜻밖에도 그것은 기와쪼각이였던것이다. 십리밖 대성산부근에 가면 발에 걸리는게 저런 기와쪼각들이였다. 진짜 저런걸 주고 알사탕을 바꾸었을가?… 암만해도 믿어지지 않아 경식이는 눈살이 꼿꼿해서 《배꼽따라지》에게 따져물었다.

《너 꽝포칠래?…》

그러자 그애가 발끈해서 대들었다.

《쳇, 내기걸잔? 이런거 주어오문 알사탕 또 준다 했거덩.》

정말 모를 일이였다. 호기심에 끌린 아이들은 《배꼽따라지》를 쫓아 한달음에 달려갔다. 마을에서 대성산쪽으로 나가는 산모퉁이길을 돌아서니 정말 그애의 말대로 어른들 서넛이 소나무숲속의 오래된 무덤곁에서 서성대고있는 모습이 눈에 띄였다. 시끌시끌한 일본말소리들이 들려왔다.

아이들은 더럭 겁이 났다. 시퍼런 대낮에 으슥한 숲속에서 쇠꼬챙이로 무덤을 찔러보기도 하고 삽으로 파헤치기도 하며 돌아치는 사람들을 보니 꼭 옛말에 나오는 도깨비들이 련상되였던것이다. 모두들 두려운 생각에 주춤거리고있는데 《배꼽따라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듯 신명이 나서 달려가는것이였다.

《아저씨, 이거 또 가져왔어요.》

그제서야 다른 아이들도 용기를 내여 다가갔다. 사나이들중 나비넥타이같은 코수염을 기른 왜인 하나가 이쪽을 알아보았는지 《오, 네가 또 왔느냐.》 하며 갑삭갑삭 걸어왔다.

《배꼽따라지》가 으쓱해서 기와쪼각을 내보였다. 한동안 기와쪼각을 눈여겨보던 코수염쟁이는 얼마후 입가에 만족한 웃음을 실으

며 《배꼽따라지》의 뒤더수기를 두드려주었다.

《핫하하, 좋아.》

그러더니 품에 간수했던 종이봉지에서 말눈깔사탕 두알을 꺼내 그애에게 주는것이였다.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래져 그 모양을 바라보았다.

사탕 두알을 받아들자마자 《배꼽따라지》는 당장 누구에게 뗴울가봐서인지 눈깜박할 사이에 통채로 입안에 밀어넣었다. 량볼이 미여지게 사탕알을 물고 와작와작 씹어대는 소리가 아이들의 허기진 창자를 참기 바쁘게 자극했다. 모두들 군침을 삼키며 멍청하니 서있는데 살가우면서도 능갈친 눈빛으로 아이들을 지켜보던 코수염쟁이의 입에서 류창한 조선말이 흘러나왔다.

《이런걸 가져오면 너희들에게도 사탕을 준다. 꼭 기와쪼각이 아니라도 좋다. 에또? 저런걸 가져오는 아이에겐 사탕을 더 많이 주겠다.》

그리고는 얼마쯤 떨어진 소나무밑으로 가서 보퉁이 하나를 가져오더니 아이들앞에 펼쳐놓았다. 자기로 된 옛날그릇들과 술잔들, 초대며 벼루집들…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어디서 본듯 한 낯익은 물건들이였다. 그중에서도 경식이의 눈길은 보자기의 한 귀퉁이에 놓여있는 조그마한 종지에 박힌채 떨어질줄을 몰랐다.

집에도 간장이나 고추장을 담는 그런 종지들이 여러개 있었던것이다. 불쑥 자기 집 부엌에 있는 나무궤가 떠올랐다. 그 궤속에는 사발이며 놋그릇 같은것들과 함께 종지들도 여러개 들어있었는데 가끔가다가 집안어른들이 향불을 피우고 제사를 지낼 때에나 꺼내쓰군 하는것들이였다. 거기서 간장종지 하나를 슬쩍 빼내오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쳐들었다. 그런다 해도 욕할 사람은 없을것 같았다. 1년치고 별반 쓰는 일이 없는 그런 흔한 물건을

사탕과 바꿔먹으면 어른들은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할것만 같았다.

궁리가 예까지 이르고보니 불이라도 난듯 속이 달아왔다. 한시바삐 알사탕을 입에 물고싶었다. 그래서 우쭐대는 《배꼽따라지》에게 자기도 한번 뻐기고싶은 충동에 가슴이 들먹거렸다.

경식이는 종주먹을 부르쥐고 집으로 달려갔다. 다들 밭일을 나갔는지 집안은 텅 비여있었는데 다만 허청간쪽에서 할아버지의 자귀질소리만 들려올뿐이였다. 경식이는 발자국소리를 죽여가며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부엌 한구석 정결한 자리에 외따로 놓인 나무궤를 열고는 빈 종지 하나를 꺼내가지고 밖을 나섰다.

숨이 턱에 닿아 달려온 경식이에게서 종지를 받아든 코수염쟁이는 희읍스름한 젖빛이 도는 물건을 걸탐스럽게 이리저리 뜯어보는것이였다. 그러던 그자의 입에서 탄성비슷한 소리가 새여나왔다.

《요로시(좋다)!》

코수염쟁이는 경식이에게 말눈깔사탕을 다섯알이나 주었다. 경식이는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하며 큼직한 말눈깔사탕 한알을 입안에 넣고 빨아보았다. 어찌나 달콤한지 혀를 깨물어도 모를 지경이였다.

경식이는 사탕알이 빨리 녹을가봐 조금씩 빨아먹으며 마을로 돌아왔다. 볼이 불룩하게 사탕을 물고 돌아다니는 경식이를 동네아이들은 부러움에 차서 바라보았다. 그렇게 뽐내며 여기저기로 뛰여다니던 경식이는 호주머니에 사탕이 한알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야 집으로 들어갔다. 마침 온 식구가 둘러앉아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였다.

《할아버지—》

경식이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서자바람으로 할아버지부터 찾았다. 그러는 막내손자를 대견스레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벙

글 웃음을 피웠다.

《오냐, 우리 막동이가 인제야 오는구나. …》

경식이는 호주머니에 남아있던 사탕 한알을 꺼내서 할아버지앞에 장한듯이 내보였다.

《할아버지, 이거 잡숴요.》

《엉? 이게 웬거냐?》

《바꿨어요. 간장종지하구…》

《간장종지?》

할아버지도 식구들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데 철부지막내손자는 응석기어린 목소리로 제가 저지른 일을 자랑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런데 웬 일인가. 손자의 말을 채 듣지도 않고 할아버지가 밥상을 걷어차며 일어서는것이였다.

《뭣이 어쨌다구? 제사에 쓰는 귀물을 왜놈의 알사탕과 바꾸다니?! 에끼, 후레자식 같으니라구!…》

채수염을 떨며 노성을 터뜨리는 할아버지의 낯빛은 꺼멓게 질려있었다.

경식이는 창졸간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렇게 화를 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았던것이다.

《아버님, 고정하십시오. 제가 나가서 찾아오겠습니다.》

큰아버지가 어쩔바를 몰라하며 만류하였지만 할아버지의 노여움은 가라앉을줄 몰랐다. 경식이는 울상이 되여 할아버지앞에서 비실비실 뒤걸음을 쳤다.

한동안 노기충천하여 펄펄 뛰던 할아버지는 점심도 들지 않은채 휭하니 밖으로 나갔다. 그바람에 경식이는 물론이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도 그리고 사촌들까지도 모두 끼니를 건늬고말았다.

그날 경식이는 오후내껏 집안에 갇혀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얼마쯤 지나면 누그러질줄 알았던 할아버지는 한번도 손자를 찾는 일없이 밖에서 묵묵히 일만 하고있을뿐이였다.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가? 어른들한테 알리지 않고 집안물건을 꺼내갔다고 그러시는걸가? 하지만 이전엔 그보다 더한 장난을 쳤을 때도 한두마디 꾸지람이 고작이였는데…

한겻이 지났을무렵 큰아버지가 마당에 들어서며 할아버지에게 종지를 가져간자들을 끝내 찾지 못했다고 사뢰는 소리가 들려왔다. 땅이 꺼지게 몰아쉬는 긴 한숨소리에 이어 기침소리가 터졌다. 가슴을 우벼내는듯 한 할아버지의 기침소리에 경식이는 금시 사지가 오그라드는것만 같았다.

아무리 머리를 기웃거려봐도 알수 없는 일이였다.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거나 담는 종지가 그렇게도 귀한 물건일가? 알사탕을 주고 기와쪼각이랑 종지를 바꿔간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가?…

하긴 철없는 경식이로서는 자기가 조선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훔쳐가는 왜놈사기군들의 얼림수에 속아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리가 없었다.

당시 조선에 와있던 일본인골동상인들과 이른바 수집가들은 일제의 조선문화말살정책에 편승하여 혹심한 사기적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수많은 문화재들을 도적질해가고있었다. 이자들은 평양을 비롯하여 옛 기와가 나오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알사탕을 몇알씩 주고 기와를 거두어갔는가 하면 세상물정에 어두운 외진 시골벽지들을 싸다니며 불상이나 자기 같은것을 몇십전, 몇원이라는 헐값으로 사들여가지고는 돌아앉아 몇십, 몇백원에 팔아먹군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산자는 다시 일본에 가지고 가서 그 몇배, 몇십배의 폭리를 얻고있었던것이다.

경식이가 왜놈에게 얼리워 가져다준 종지도 다름아닌 우리 나라의 옛 자기였다. 말눈깔사탕 다섯알에 1전을 하던 때였으니 결국 조상대대로 물려내려오는 남의 집 가보를, 그것도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이 수재나 화재를 당할 때 집세간보다 먼저 돌봐야 하는것으로 간주해오는 제사그릇을 단 1전에 뺏아간 왜놈들의 날강도짓에 할아버지가 어찌 통분해하지 않을수 있었으랴.

그런 리치를 알기에는 아직 너무도 어린 경식이였다. 할아버지의 성이 가라앉기를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며 방바닥에 드러누워 이리저리 꿍싯대던 경식이는 어느새 솔곤히 잠들어버리고말았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던지… 자기를 찾는 소리에 경식이는 눈을 비비며 깨여났다. 할아버지가 문밖에 서있었다.

《따라오너라.》

경식이는 어디로 가는가고 물을념도 못하고 어정어정 할아버지를 따라나섰다.

금방 비가 쏟아질것 같았다. 트레트레한 먹구름이 겹겹이 엉켜들며 머리우로 천천히 움직여가고있었다.

마을을 벗어나 뒤산에 이른 할아버지는 산길을 타고 오르기 시작하였다. 먼 우뢰질소리가 메아리쳐오는데 우중충하게 솟은 부엉바위쪽에서 장끼가 깃을 치며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할아버지를 따라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경식이는 차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자기를 어데로 데려가는걸가? 혹시 범이 나온다는 깊은 산속에 끌고 가 혼쌀이라도 내주려는게 아닐가?

벌렁벌렁 뛰는 가슴을 가까스로 누르며 할아버지를 따라가던 경식이는 갑자기 버쩍 마른 괴물이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소스라치며 물앉아버렸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긴긴 세월 비바람에 부대껴

험상스럽게 뒤틀리고 구새먹은 고목이였다.

《할아버지—》

경식이는 온몸을 덜덜 떨며 할아버지를 찾았다. 하건만 할아버지는 손자의 부름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 응대도 없이 내처 걷고만 있었다. 으슥한 산속에 혼자 떨어질가봐 두려워진 경식이는 허겁지겁 일어나 할아버지를 따라섰다.

우무개고개를 넘어서니 상여집이 나졌다. 돌쩌귀에 겨우 매달려 있는 상여집 문짝이 바람이 불 때마다 찌그덕찌그덕 이상한 소리를 내고있었다. 경식이는 또다시 머리칼이 쭈뼛 일어서는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곳은 동네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여서 야밤에 상여집에 혼자 갔다올수 있는 애는 아이들속에서 영웅으로 떠받들렸다.

어데선가 퍼뜻하는 번개불의 여광에 상여집의 어수선한 자태가 시퍼렇게 드러났다. 그 모양이 영낙없이 귀신처럼 느껴져 경식이는 다시금 질겁하며 퍼더앉고말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다가와 손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얼른 일어서지 못할가.》

경식이는 할아버지에게 끌리다싶이 하며 산중턱 어느 한 공지에 이르렀다. 그제서야 비로소 경식이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증조할아버지의 무덤앞에 데려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꼼짝 말고 여기 서있거라.》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못박듯 이렇게 이르고는 수풀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할아버지가 없는 외진 산속은 도깨비나 상여집보다도 더 무서웠다. 솨아— 산발을 내리훑는 바람소리가 짐승떼의 울부짖음마냥 사납게 들려왔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자기를 버려두고 내려가

지 않았나? 가슴이 덜컥했다. 경식이의 심장은 공포에 질려 금시 얼음덩이가 돼버리는듯싶었다.

얼마후 할아버지가 수풀을 헤치고 나타났다. 경식이는 할아버지의 손에 굵직한 회초리 너덧개가 들려있는것을 알아보았다. 오늘은 자기도 영낙없이 종아리를 맞게 되였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오금이 저려오는데 할아버지는 회초리를 내려놓고 증조할아버지의 무덤앞에 무너지듯 엎드리는것이였다.

《아버님, 불초자식의 막내손자가 오늘 조상의 귀물을 욕되게 하였소이다. 손자놈을 신칙하지 못한 그 벌을 아버님앞에서 받을가 하오니 하량하옵소서.》

비통한 어조로 조상앞에 이렇게 고하고난 할아버지는 일어서더니 자기의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렸다. 그리고는 부들부들 떨고있는 손자에게 분부하는것이 아닌가.

《회초리로 내 종아리를 치거라.》

순간 경식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할아버지의 종아리를 치다니… 잘못은 자기가 저질렀는데 어째서 종아리는 할아버지가 맞아야 하나? 경식이는 시르죽어가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빌었다.

《다… 다신 안 그럴께요. … 할아버지?》

그러나 할아버지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고집스럽게 되뇌였다.

《조상앞에서 두말하는 법은 없다. 어서 내 종아리를 치거라. 그러기 전엔 집에 못 돌아가.》

《…》

《어서 회초리를 들지 못할가!》

두텁게 뒤덮인 먹장구름을 찢으며 시퍼런 불채찍이 눈을 후려쳤다. 뒤이어 산신령의 노성인양 꽈르릉ㅡ 하는 천둥소리가 머리우

에서 터졌다. 경식이는 겁에 질려 울먹울먹하며 회초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마 할아버지의 종아리를 칠수 없어 회초리를 가져다 대는 시늉만 하는데 할아버지가 와락 회초리를 나꿔채더니 손자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후려갈기는것이였다. 경식이의 입에서 비명이 튀여나왔다.

《종아리는 이렇게 쳐야 해.》

할아버지가 닥달하는 말이였다. 경식이는 울며 겨자먹기로 회초리에 힘을 실어 할아버지의 종아리를 다시 쳤다.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회초리를 빼앗아 시범을 보여주며 더 세게 치라고 손자를 다몰아세웠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차츰 그 강도가 더해져 나중에 경식이는 할아버지가 해보이는대로 회초리를 힘껏 휘두르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회초리가 부러져나갔다. 할아버지의 종아리에서 터져나온 피방울이 얼굴에 선뜩하니 튕겨오는 순간 경식이는 그만 으앙ㅡ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말았다. 그러는 손자를 할아버지가 다시 일으켜세웠다.

《계속 치거라.》

경식이는 자기를 내려다보는 할아버지의 서늘한 눈길에 질려 흑흑 느껴가며 어쩔수없이 두번째 회초리를 집어들었다.

장대같은 비줄기가 소란스럽게 땅을 갈기며 쏟아져내리기 시작하였다. 자기의 육신같지 않게 덜덜 떨리기만 하는 팔을 가까스로 놀리며 경식이는 몰박아 쏟아지는 비발속에서 할아버지의 종아리를 계속 쳤다.

할아버지는 신음소리 한번 없이 손자의 회초리에 종아리를 내맡긴채 돌비석마냥 우뚝 서있었다. 흐트러진 흰머리칼은 오욕을 참아내는듯 꾹 감고있는 두눈을 가리우고있었는데 고통스럽게 이그러

진 할아버지의 얼굴로는 비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줄기가 어지러이 번져서 흘러내리고있었다.

두번째, 세번째 회초리도 부러져나갔다. 마지막 회초리까지 부러지고나서야 경식이는 할아버지에게서 놓여날수가 있었다. 파리해져서 떨고있는 경식이의 귀전에 억수로 퍼붓는 비소리와 뒤섞여 할아버지의 비탄에 찬 곡성이 들려왔다.

《아버님! 불초한 이놈 죽어야 마땅하오이다. 왜놈들한테 아들녀석을 빼앗기고도 모자라 조상의 얼마저 욕보였으니 제 어찌 하늘아래서 머리를 쳐들고 살수 있으오리까. 죽어야 하오이다. 개돼지보다도 못난 이놈 죽어야 마땅하오이다!…》

증조할아버지의 상돌을 부여잡고 꺼이꺼이 목놓아 통곡하는 할아버지를 보느라니 왜서인지 설음이 북받쳐올라 경식이도 엉엉 따라울었다. 하지만 철모르던 그 시절에는 할아버지의 피눈물나는 심정을 다 알리 만무하였다.

그후 할아버지는 한번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여러해가 지난 뒤 일본땅에 끌려가 갖은 수모를 당하며 넝마주이로 연명해가던 나날에야 리경식은 할아버지에 대해 적으나마 리해할수가 있었다.

넝마자루를 지고 이역의 뒤골목을 헤매던 어느날 경식은 한 일본인의 집에 들렸다가 퇴마루 한켠구석에 딩구는 깨여진 종지 하나를 보게 되였다. 유심히 종지를 눈여겨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종아리가 터져나가는것 같은 예리한 동통이 느껴졌다. 피방울이 튕겨나오던 할아버지의 종아리가 뼈를 에이는듯 한 아픔속에 떠올랐다. 이상한 일이였다. 회초리에 맞은것은 할아버지의 종아리인데 어째서 자기의 종아리가 그토록 아파왔을가. 경식의 눈굽에 핑그르르 눈물이 고였다. 세월의 운무가 두텁게 서린 젖빛갈의 그 종지는 분

명 너무도 눈에 익은 고국의 자기였던것이다.

부옇게 흐려지는 눈앞에 두고 온 고향이 못견디게 안겨왔다. 호박넝쿨 흐드러진 돌담이며 추녀밑에 늘쌍 걸려있던 할아버지의 뒤웅박, 한평생 땅을 그러안고 씨름질해가는 고향사람들의 흙빛얼굴들과 아래도리를 드러내놓고 자갈밭에서 뒹굴던 소꿉시절의 개구쟁이들… 그리고 조상의 무덤앞에서 피가 나도록 자신의 종아리를 치게 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사무치게 밟혀왔다.

가슴시린 그리움에 목이 메여오고 쓰라린 상실의 아픔이 심장을 비틀었다. 깨여지고 먼지에 뒤덮인채 이국의 처마아래 나딩구는 백자기의 모습에서 경식은 망국노의 멍에를 걸머지고 타향에서 버림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으며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재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였다.

그날 일본인을 설복하여 종지를 손에 넣은 경식은 하숙방에 돌아오자마자 깨여진 자기쪼각들을 정성껏 붙여놓았다. 그리고는 왜놈들에게 빼앗겼던 조상의 귀물을 되찾은것만 같아 자기가 가져온 고국의 백자기를 밤깊도록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리경식은 그때부터 찢겨져나간 제 살점들을 찾는 심정으로 일제가 략탈해간 조선의 문화재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골동품은 부르는게 값이라는데 넝마주이나 하는 처지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겠느냐고 도리질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지만 쇠고집같은 경식의 집념을 꺾을수가 없었다.

때로 지치고 고향생각이 날 때면 리경식은 자기가 수집해온 도자기들을 오래도록 들여다보군 하였다. 그러느라면 불현듯 도자기가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것이였다. 피줄을 타고 퍼져오는 귀에 익은 소리를 들으며 경식은 흉벽을 천천히 치받는 심장의 흥분을 느끼군 하였다.

그것은 다름아닌 조국이 부르는 소리였다. 이역만리의 자식을 목메여 찾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

4. 하또리 류따로

《저길 좀 보오. 다리아가 얼마나 청초한가…》

하또리가 어린애마냥 탄성을 올리며 앞을 가리켜보였다. 가을볕이 내려쪼이는 꽃밭우에 하얀 다리아꽃들이 소담하게 피여있었다. 하또리는 뭉실하게 살찐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그리로 재빨리 걸어가더니 크고 둥근 다리아 한송이를 꺾어들었다. 드레진 가슴을 부풀리며 꽃향기를 들이키는 그의 얼굴은 가을빛에 취한듯 벌기우리하니 상기되여있었다.

《도시의 기하학적인 환경속에 갇혀살다가 이렇게 자연미가 넘쳐나는 곳에 오면 어느새 아이가 돼버리거던. 가끔 난 자연이야말로 또 다른 신의 이름이 아닐가 하고 생각해보군 하오. …》

하또리는 저으기 들뜬 어조로 이렇게 말하며 다시금 소로길을 앞서 걷기 시작하였다.

락엽이 무수히 깔린 우에노공원의 소로길은 인적없는 구슬픔과 늦가을의 정취를 한껏 풍기고있었다. 그 분위기에 심취되였는지 하또리는 시라도 읊듯 자기의 감상을 계속 터놓았다.

《역시 가을은 서글픈 계절인가보오. 시들어가는 풀밭에 팔베개를 베고 누워서 유리알처럼 파아랗게 개인 하늘을 고요히 쳐다보고있노라면 까닭없이 마음이 서글퍼지거던. 가을에만 느낄수 있는 순수한 감정이라 할지… 리선생, 이거 내가 마치 자아에 도취된 염

세주의자처럼 보이지 않소? 허허허…》

하또리는 구레나룻을 기른 퉁투무레한 얼굴에 허구픈 웃음을 실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무슨 생각에 골몰해있는지 고개를 수굿한 채 천천히 따라오는 리경식의 모습이 보였다.

《허? 오늘은 내가 리선생에게 방해가 되는것 같구만.》

하또리가 짐짓 노여운체 하며 이런 말을 건네서야 리경식은 생각에서 깨여나 머리를 쳐들었다.

《아, 미안하게 되였습니다.》

경식은 애써 흔연한 미소를 지으며 하또리에게로 다가갔다.

《<조선향악보>때문에 그러오?》

하또리의 물음에 경식은 무겁게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이즈음 경식은 앉으나서나 그 생각뿐이였다. 아라기의 완고한 태도앞에 번번이 실패를 거듭할수록 불안과 초조감은 더해갔고 그럴수록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조선향악보》를 찾아내고야말겠다는 집념이 그의 마음속에서 바위처럼 굳어져가고있었다.

하또리는 피로한 기색이 떠도는 리경식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저로서도 안타까운듯 중얼거렸다.

《소문대로 아라기 사다오의 괴벽이 여간 아닌게구만.》

그러더니 불쑥 이런 말을 꺼내는것이였다.

《리선생, 차라리 아라기에게 장서를 정리하려는 사연을 그대로 털어놓고 협조를 구하는게 어떨가? 악인도 죽음에 가까워지면 마음이 착해진다는데 혹 그 늙은이도 인생말년에 와서 개심하고있을는지 알겠소?!》

하또리의 말에 리경식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도리를 저었다.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아라기 같은 일본의 파쇼우두머리들이 지난날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얼마나 광분했습니까. 말과

글을 빼앗는것으로도 모자라 조선사람의 성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과연 그게 쉽사리 뉘우칠수 있는 한때의 광기였을가요. 극단적인 국수주의와 민족배타주의는 력사적으로 형성되여온 그자들의 고질적인 근성이라고 선생님도 어느 글에선가 쓰시지 않았습니까. …》

무심결에 자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음을 느끼자 경식은 더 말을 잇지 않았다. 하또리도 할 말이 없는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였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두사람은 또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가을바람이 건듯 불어왔다. 허허롭게 지나가는 한줄기 바람결에 누렇게 황이 든 나무잎들이 또 한차례 우수수 떨어져내린다. 자연의 순리를 거역할수 없다는듯 허공중에 흩날리며 내려앉는 그 락엽들을 보면서 리경식은 하또리에게 다하지 못한 말을 마음속으로 쏟아놓고있었다.

조선사람들이 자신의 력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조상들의 《무능》과 《악행》을 들추어내고 과장해서 조선인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한 조선총독 사이또의 망발은 단순히 일시적인 오만과 망녕에서 나온것이 아니였다.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조선인들을 깡그리 어느 외딴섬에 격리시켜 거세해버려야 한다고, 우생학상으로 보더라도 렬등민족은 멸망해야 한다고 떠벌인 일제의 법무대신 야나가와의 악담을 어찌 한때의 광증이라고 할수 있단 말인가.

결코 아니였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일본파쇼광들의 골수를 이루고 정신적유전자가 되여버린 《황국사관》과 《야마또우월주의》의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해야 마땅할것이다. 그러하기에 나무잎들은 가을이 오면 저렇듯 제절로 스러져도 일본반동들의 뿌

리깊은 배타주의와 조선민족에 대한 적대감정은 쉽게 뉘우쳐질수도, 꺼져버릴수도 없는 체질화된 악습이라는것을 경식은 조금도 의심치 않고있었다.

리경식의 그런 생각을 읽기라도 한듯 곁에서 하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하긴 아직도 일본인들의 머리속에 조선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식이 농후하게 남아있는건 사실이요. 패전한지 십오년이 넘는 오늘날까지도 침략을 <진출>이라 표현하는가 하면 과거 식민지통치를 철길도 놓아주고 학교도 세워주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작자들이 왕왕 눈에 띄우는 형편이니 아라기 같은자야 더 말해 뭘 하겠소. … 하지만 리선생, 일본땅에도 바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걸 잊지 말아주기 바라오.》

진지한 빛이 도는 하또리의 모습앞에 리경식은 미안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소 누그러진 어조로 하또리에게 진정을 담아 말했다.

《저도 일본땅에 선생님과 같은 량심적인분들이 적지 않다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의 도움을 청하러 온게 아닙니까.》

두사람사이에 믿음어린 눈길이 오고갔다.

하또리 류따로는 전쟁전에 교또대학을 나온 일본문예계의 한다하는 평론가였다. 오랜 호족가문의 넉넉한 환경속에서 자라난 지식인에게 있어서 일본을 참혹하게 란도질한 파시즘과 전쟁은 잔인한 충격이 아닐수 없었다. 전후 하또리는 《천황》제와 국수주의를 배격하고 일본의 민주화를 주장해나섰으며 오래동안 일본인들의 머리우에 군림하여온 야만적인 군국주의문화에 반발하여 《만인이 자유롭게 공유할수 있는 전 지구적인 문화》를 제창하는 사람으로

되였다.

리경식이 그를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5년전이였다. 어느날 도꾜의 한 골동품상점에 들렸던 경식은 청자 하나를 두고 주인과 고객사이에 오가는 말을 듣게 되였다.

《선생님, 이건 틀림없는 고려청자라니까요. …》

주인이 몇번이고 이런 말을 곱씹고있었지만 풍채좋은 몸집에 구레나룻을 멋스럽게 기른 고객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듯 연신 고개를 기우뚱거리는것이였다.

《내 보기엔 아닌것 같은데…》

《하? 선생님, 이래 뵈도 벌써 10여년째 골동품을 만져온 저올시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글쎄, 그래도 어쩐지…》

리경식이 그 자기를 살펴보니 고려청자는 아니였다. 민족의 문화재가 오인당하는것을 그냥 지나칠수가 없어 경식은 그들의 말에 끼여들었다.

《이 자기는 고려청자가 아니라 중국청자입니다.》

그러자 고객도 주인도 어리둥절해서 경식을 쳐다보았다. 경식은 그들에게 차근차근 시비를 가려주었다.

《고려청자나 중국청자나 다 동양이 자랑하는 우수한 보물들이지만 같은 청자라 해도 품격에서는 제나름의 특징들이 뚜렷합니다. 고려청자의 모양은 부드럽고 경쾌하지만 중국청자는 그 최고봉이라고 하는 북송시대의 여관요청자를 놓고보아도 모양새가 예리하고 적절한 과장이 있어서 랭엄한 기품을 느끼게 됩니다. 색갈을 보아도 마찬가집니다. 고려청자의 칠물은 진하지 않으나 비취옥과 같이 록색이 비치고 칠물안에 미세한 기포가 많아서 섬세한 오목새김과 돋을새김이 바탕색과 함께 은은히 나타납니다. 반면에 중국청자는

칠물은 얇아도 투명하지 않아 오목새김이나 돋을새김이 보일리 없고 바탕색 또한 칠물을 통해 전혀 비쳐보이지 않습니다. 비유해 말한다면 고려청자의 색은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이나 모시발과 같아서 산뜻하고 은은하고 투명하다면 중국청자의 색은 황하의 물과도 같이 불투명하고 두터운 비단발을 드리운것처럼 보인다고 할가요. 그래서 송나라학자 태평로인도 자기의 저서에서 고려청자의 비색을 천하제일로 꼽았던게 아니겠습니까. …》

경식의 설명이 끝나자 모여들었던 고객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 고려청자의 특색이 바로 거기에 있었구만.》

《참 박식한 젊은이요.》

그러는 사람들의 경탄어린 눈빛을 받으며 리경식이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가 바삐 그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좀전에 주인과 마주서있던 구레나룻의 고객이였다. 고객은 무작정 자기의 명함장부터 내보이며 성급히 말을 붙이는것이였다.

《오늘 참으로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선생의 명함을 꼭 알고싶어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례를 하게 되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또리 류따로였다. 이미전부터 일본문화의 뿌리인 조선문화에 대해 류다른 동경을 품고있던 하또리는 그리도 류창하게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설명해주는 리경식의 남다른 조예에 감복한 나머지 그만에야 부랴부랴 경식을 따라섰던것이였다. 리경식은 하또리의 청에 못이겨 근처에 있는 차집으로 들어갔다.

《도자기에 대한 조예가 이만저만 깊으신것 같지 않은데 혹 그 방면을 전문하시기라도…》

자리에 앉기 바쁘게 하또리가 던지는 물음이였다. 경식은 하또리의 의중을 짚어보며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자기 조상들이 남긴 유물인데 그만한것도 모르겠습니까.》

《아, 그러니 조선인이군요!》

하또리는 대뜸 반색을 하더니 잇달아 묻는것이였다.

《저, 헌데 대학은 어델 나오셨는지요?》

경식은 호기심이 비낀 하또리의 얼굴에서 꾸밈없는 진정과 호감을 읽을수가 있었다. 세상에는 서로 어색한감을 주지 않고 처음부터 스스럼없이 마음을 열어보일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쩐지 하또리도 그런 사람처럼 느껴져 경식은 자기가 징용으로 끌려온 사람이라는것과 가난때문에 대학은커녕 중학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해 자습으로 중학강의록을 뗐다는것, 그리고 현재는 고물장사를 하면서 일본땅에 흩어져있는 고국의 문화재들을 수집하고있다는것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하또리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하여 굳어져버렸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듯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는 그의 표정에 리경식은 소리없이 웃고말았다.

종종 이런 경우를 당하군 하는 경식이였다. 전문교육도 받지 못한 한낱 고물상의 입에서 대학졸업생들도 아연해질만큼 해박한 문화재지식이 거침없이 쏟아져나올 때면 누구나 다 머리를 기웃거리며 의혹을 감추지 못해하였던것이다.

사실 민족유물수집의 길에 처음 나설 때만 하여도 리경식이 문화재에 대해 알고있는것이라고는 극히 단편적인것들에 불과하였다. 기껏해서 유적이 많은 평양에서 나서자랐다는것과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옛이야기들 그리고 고향에서 깨친 천자문이나 사략 같은것이 어느 정도 밑천으로 되였을뿐이였다.

그런 그였지만 높은 학력이나 전문지식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소중한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두고 온 고향과 정든 피붙이

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였다.

사랑할 때라야만 참답게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법이다. 이역땅에 널려져있는 민족의 문화재들을 볼 때마다 경식은 가슴 미여지는 쩌릿한 향수와 함께 조선사람된 본분을 후더운 피의 설레임속에 느끼군 하였다.

돈도 경험도 미약했던 초기에 그가 수집한것은 주로 값이 싸면서도 조그마한 문화재들이였다. 경식은 문화재를 구입한 다음에는 반드시 솜으로 싸서 얼마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리고는 틈틈이 그것을 꺼내여 들여다보며 유물의 진가를 판별해보군 하였다.

해당 시대의 정치와 경제, 풍속이 비껴있는 문화재에 대한 감식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일이여서 어떤것은 한달이 넘도록 그의 호주머니신세를 면치 못하는것들도 있었다. 때로는 문화재에 새겨진 명문 하나를 해독하기 위해 서점가를 누비며 관계서적들을 파헤치기도 하고 때로는 유물의 제작년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이나 일본의 발굴보고서들까지 구해들여 잠을 깎아가며 비교해보기도 하였다. 아마 그가 독학을 해가며 씨름질하고 탐독한 한서들과 고고학서적들만 하여도 수집한 문화재수량의 몇곱절은 실히 될것이다. 그러는 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문리가 트였다고 할가. 결국 리경식이 지니고있는 넓은 문화재안목은 한점한점의 민족유물마다에 기울여온 그의 애정과 지칠줄 모르는 노력의 당연한 결과라고 해야 할것이다.

경식이 그런 사연을 하또리에게 대강 설명해주자 하또리는 감동의 빛을 금치 못하며 찬사를 터뜨리는것이였다.

《그러니 리선생은 되글을 배워서 말글로 풀어쓰시는셈이군요. 하, 정말 놀랍습니다. 리선생을 대하고보니 나라는 존재가 퍽 졸아드는것 같습니다. …》

그날 하또리가 너무도 잡아이끄는 바람에 경식은 별수없이 그의 집에까지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또리의 집은 도쬬의 중심부에서 얼마간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자리잡고있었는데 주인의 방에 들어서니 외국의 이름난 고전그림들과 모더니즘류파의 그림들이 널다란 벽면을 다채롭게 채우고있었다. 집주인의 개방적인 취향을 력력히 느끼며 그림들을 돌아보던 경식은 어느 한 족자앞에서 그만 걸음을 멈춰버리고말았다.

족자에는 먹으로 쓴 붓글이 담겨있었는데 행서로 기백있게 내달린 붓글의 맨아래에 뜻밖에도 《김옥균》이라는 락관이 새겨져있는것이 아닌가. 몇번이나 다시 눈여겨봐도 분명 갑신정변의 지도자 김옥균의 자필이 틀림없었다.

《아니, 이런게 어떻게?…》

자못 놀라워하는 경식에게 하또리가 구레나룻을 쓰다듬으며 다가왔다.

《역시 리선생이 진품을 알아보시는군요. 그 붓글은 증조부가 물려준 우리 집안의 가보입니다.》

《증조부가요?》

영문을 알수 없다는듯 경식이 이렇게 되묻자 하또리는 사연을 터놓았다.

… 갑신정변에서 실패한 김옥균이 일본에 망명해와있을 때 얼마동안 증조부의 집에서 류숙한적이 있었다고 한다. 명치정부의 관리로 있던 하또리의 증조부는 조선의 개화선구자 김옥균을 개인적으로 퍽 동정한 사람이였다. 당시로 말하면 김옥균을 해치기 위해 수구파가 갖은 흉계를 꾸미고있었고 또 일본정부도 그의 존재를 부담스럽게 여기고있던 때였다. 하지만 증조부는 어려운 때 김옥균선생과 같은 의로운 렬사를 도와드리는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면

서 선생의 생활을 성심껏 방조하였다고 한다. 붓글은 김옥균이 집을 떠나면서 하또리의 증조부에게 남긴것이였다. …

《그러고보면 나의 증조부도 김옥균선생과 같은 의로운 렬사인셈이지요. 하하하…》

이런 말을 하는 하또리의 어조에는 선조에 대한 긍지가 다분히 배여있었다. 경식은 생각에 잠겨 김옥균의 붓글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창항청해령백약청(暢缸淸骸領白葯靑)》

항아리는 텅 비고 몸은 여위여도 옷깃은 깨끗하고 새싹은 푸르러라고 읊조린 붓글의 글귀들을 새겨보느라니 청운의 뜻을 이루지 못한채 력사의 뒤길로 덧없이 사라져간 한 선지자의 구슬픈 운명이 어려와 어느새 마음이 추연해졌다. 경식이 좀처럼 족자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데 그 모양을 바라보던 하또리가 슬며시 이르는것이였다.

《마음에 들면 리선생에게 내드리겠소.》

경식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대를 물리며 전해온 집안의 귀한 가보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놓겠다는 하또리의 말이 선뜻 믿어지지 않아서였다. 그의 그러한 심정을 알겠다는듯 하또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정색해서 말했다.

《나는 리선생 같은분들과 사귀는걸 인생의 제일 큰 락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공자가 그랬던가요? 자기보다 못한자를 벗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리선생, 저 족자를 이 사람의 진실한 우애의 표시로 받아주신다면 더 고마울것이 없겠습니다.》

리경식은 가슴속에서 뭉클한것이 솟구치는것을 느끼며 하또리의 손을 힘껏 마주잡았다.

자정이 넘도록 술병을 기울이며 서로의 세계를 기탄없이 나누던

그날 밤 경식은 하또리에게 일본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민족차별정책과 그로 인하여 당하는 재일조선인들의 고통에 대해 의분에 넘쳐 토로하였다. 그때 혈색이 피여오른 얼굴에 분개한 빛을 띠고 하또리가 하던 말이 기억에 생생하다.

《재일조선인문제는 결국 일본인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조선인들을 보면 죄인같은 기분이 들어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인들의 괴상한 편협성과 배타성에 막 신물이 난다니까요. 내가 자신을 일본인이 아니라 세계인이라고 자부하며 다니는것도 그때문입니다. 리선생, 난 폐쇄성이 강한 일본문화에 앞으로 보다 넓은 보편성과 다양성을 부여할 잠재력이 바로 당신들, 재일조선인들속에 숨어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요. …》

두사람의 친분은 이렇게 맺어졌다. 그들은 서로 민족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판이했지만 인간의 선과 량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인류의 진보적문화에 대한 공통된 애착과 열정으로 하여 오래지 않아 절친한 사이가 되였다.

그후 경식은 하또리에게 조선의 유구한 문화전통과 우수한 문화재들에 대해 아는껏 소개해주었고 하또리 역시 리경식보다 십년이나 년장이였지만 즐겨 흉금을 터놓으며 성의껏 도와주군 하였다. 더우기 문벌가의 후손이요, 명망있는 석학인데다가 활달한 사교성으로 하여 일본사회의 여러 계층속을 자유분방하게 누비고 다니는 하또리 류따로의 풍부한 인맥관계는 경식의 문화재수집사업에 여러모로 요긴한 방조를 주었다. 오늘 리경식이 하또리와 만난것도 그러한 인맥관계의 도움으로 아라기 사다오의 고집을 꺾어보자는 생각에서였던것이다. …

경식은 하또리의 손을 꽉 부여잡으며 다시금 당부했다.

《지금 저에겐 선생님의 도움이 어느때보다도 필요됩니다. 아무

튼 꼭 부탁합니다.》

그러자 하또리는 호인다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는것이였다.

《리선생이 그리도 간절히 하는 부탁이니 힘자라는껏 노력해보겠소. 석가도 말했다지 않소. 쉬지 않으면 마침내 이루어지리라고 말이요. 제아무리 완고한 아라기라 할지라도 리선생의 그 끈질긴 집념만은 당해내지 못할거요. 하하하…》

하또리의 흔쾌한 웃음에 리경식도 따라웃고말았다.

5. 고마무라의 별장(2)

그로부터 몇주일이 지나 하또리에게서 련락이 왔다. 문부성관리로 있는 친구를 내세워 수차례 교섭한 결과 마침내 아라기로부터 장서의 정리를 허락받았다는것이였다.

리경식은 한달음에 고마무라로 달려갔다. 이번까지 꼭 스무번째 되는 걸음이였다. 그동안 아라기의 장서를 손에 넣기 위해 그가 겪은 고뇌는 얼마였고 수모와 랭대는 또 얼마였던가. 허나 고생스럽긴 했어도 드디여 목적한바를 이루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경식은 향악보를 되찾기라도 한듯 벌써부터 가슴이 부풀어올랐고 그럴수록 하또리에 대한 고마운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경식을 알아본 별장의 하녀는 주인의 분부가 있었던지 그제서야 비로소 그를 안으로 들여놓았다.

대문을 넘어서는 경식의 눈앞에 초겨울의 설핀 해볕이 비낀 정원의 광경이 다가들었다. 삼나무며 단풍나무들 그리고 지난날의 영화를 말해주듯 욕심스레 잔가지들을 펼치고 서있는 아름드리 느티

나무들… 추위에 거칠어지고 앙상해진 나무가지들사이로 길다란 창문들이 박힌 별장의 자태가 바라보였다.

정원의 한가운데는 련못이 있었다. 침몰선의 마스트와도 같이 물우에 드러나있는 말라버린 련꽃대들이 저으기 음울한 느낌을 자아내고있었다. 리경식은 하녀를 따라 굵다란 홍송들이 늘어선 련못가를 에돌아 현관으로 들어갔다.

하녀가 그를 데려간 곳은 응접실인듯싶어보이는 어느 한 방이였다. 경식은 코트를 벗고나서 방안에 들어섰다. 다음순간 그는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새 와있었는지 가네다라는 사나이가 쏘파에 걸터앉아 신문을 뒤적거리고있는것이 아닌가.

《당신이 어떻게?…》

그러자 가네다도 경식을 알아보고 흠칫 놀라며 몸을 일으키는것이였다.

《그러니 당신도 장서때문에?…》

대모테안경을 추스르며 엉거주춤해서 이렇게 되묻는 가네다의 얼굴에 당황해하는 빛이 력연하였다.

하녀가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경식은 줄이 간 양복을 차려입은 가네다의 여느때없이 미끈한 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결국 이 고서점주인 역시 끝끝내 아라기의 동의를 받아냈단 말인가. 놀라움과 불안감으로 뒤엉킨 눈빛들이 오가는 가운데 두사람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가네다가 먼저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침묵을 깼다.

《인제 보니 형씨도 여간이 아니시군요.》

리경식도 시무룩이 웃으며 가네다의 말에 응수했다.

《피차일반이지요.》

그들은 자리에 앉아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가네다쪽에서 분위기를 눙치려는듯 화제를 걸어왔다.

《참, 문화재수집가라고 하셨지요. 그럼 고서적에도 관심이 많으시겠는데 혹 1930년대에 일본에서 한정판으로 출판된 <고원화동>이라는 책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고원화동>이요?》

경식은 얼떠름해서 가네다에게 반문했다. 처음 들어보는 책이름이였던것이다. 가네다는 그럴줄 알았다는듯 웃음을 지으며 앞에 놓인 신문을 가리켜보이는것이였다.

《실은 나도 이 신문에 실린 고서소개란을 보고서야 그런 책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하하… 정말 별난 책도 다 있지요. 글쎄, 일본에서 사용되여온 남녀성기의 별칭들을 집대성한 대작이라나요. 놀라운건 그 책에 녀자들의 성기를 가리키는 말만 해도 무려 300여개나 올라있다는겁니다. 중국어나 영어에는 그런 말이 불과 20여개안팎이라는데 말입니다. 허 참… 하긴 언젠가 나도 매춘부를 지칭하는 일본어휘가 자그만치 400여개나 된다는 말을 들은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러고보면 호색문화에서는 일본을 따를 나라가 별로 없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가네다는 표정과 억양을 재치있게 바꿔가며 챙챙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펼쳐나갔다. 하지만 경식은 당겨진 활줄처럼 팽팽히 긴장된 그의 속마음을 읽고있었다. 부르쥔 주먹을 련상시키는 암팡진 몸집이며 고집통같은 되박이마, 눈꼬리가 째진 자그마한 눈에 담기와 꾀가 비쳐보이는것이 보통내기가 아닌것 같았다.

이 사나이를 대할 때마다 석연치 않은 느낌이 머리를 쳐들군 하는것은 무엇때문일가. 자기와 다름없이 아라기의 장서에 관심을 쏟고있다는데서 오는 경쟁의식때문일가. 아니, 왜서인지 사연의 실마

리는 그보다 훨씬 전의 어느 과거속에 묻혀있는것만 같았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가?…

자기도 모르게 이상스러운 생각에 빠져있던 경식은 그만에야 버쩍 정신을 차렸다. 이럴 겨를이 없었다. 당장 아라기와 맞서야 할 판인데 황당한 일에 머리를 쓰고있는 자신이 어처구니없었다.

곁에서는 여전히 가네다가 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고있었다. 경식은 그의 사설을 건성으로 들어넘기며 방안을 주의깊게 둘러보았다.

묵직한 휘장들이 창문마다 반나마 드리워있어 방안은 퍼그나 침침해보였다. 한쪽벽에는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칙칙해진 도꾸가와 시대의 화조그림들이 걸려있었고 다른쪽 벽에는 사이고 다까모리의 초상이 흑갈색벗나무액틀에 싸여 걸려있었다. 류달리 눈길을 끄는 것은 맞은켠 벽에 엇걸려있는 두자루의 군도였다. 군도의 아래쪽에는 키가 큰 국화꽃을 담은 단지가 놓여있었고 웃쪽에는 한자로 《우국》이라고 휘갈겨쓴 시뻘건 붓글이 큼직하게 붙어있었다. 그 붓글때문에 방안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보였다.

경식은 등골로 뻗쳐오는 서느러운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살기였다. 그와 고향사람들 그리고 온 겨레의 숨통을 지지누르던 광포무도한 살기였다.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이 왜놈의 저 칼날아래 피흘리며 쓰러졌던가. 비단 조선사람들만이 아니였다. 수천만의 아시아인민들이 사무라이들의 흉악무도한 칼날아래 몸서리치는 재난을 당하지 않았던가.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올랐다.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에 절은 죄악의 칼을 가보인양 뻐젓이 내걸고있는 철면피한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누를길 없는 증오에 숨이 막히는것만 같았다. 경식은 마음속의 울분을 토하듯 모두숨을 내쉬며 가까스로 흥

분을 눅잦히고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더니 기모노우에 하오리를 걸쳐입은 늙은이가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아라기 사다오였다. 지금껏 줄사설을 펴놓던 가네다가 어느 틈에 날쌔게 일어나 인사치레를 하는것이였다.

《도꾜에서 고서업을 하는 가네다 마사또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하를 뵙게 되여 더없이 기쁩니다.》

리경식도 뒤따라 일어서며 자기소개를 하였다.

《물질문화보존협회 리사 오구라 분지입니다.》

아라기의 사무러운 눈길이 두 사나이를 찬찬히 더듬었다. 팔십객의것이라고는 선뜻 느껴지지 않는 매몰찬 눈빛이였다. 잠시후 약간 쇠진한듯 한 아라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장서가 탐나서 뻔질나게 찾아온다는 작자들이 자네들인가.》

아라기는 자기를 부축하는 하녀의 손을 뿌리치더니 지팽이를 짚으며 벽난로가 있는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비록 몸집은 보잘것없이 작고 머리는 하얗게 세였어도 도고하게 쳐들린 고개며 꼿꼿한 몸자세, 과장되게 다듬은 카이제르수염에서는 《먹지 않고도 이를 쑤신다.》는 사무라이들의 거만에 찬 패기가 짙게 풍기고있었다.

하녀가 벽난로앞에 팔걸이의자를 가져다놓자 아라기는 의자우에 거드름스럽게 걸터앉았다. 난로안에서는 마른 장작들이 탁탁 불티를 튕기며 타고있었다. 두사람의 존재를 무시해버린듯 한동안 그 모양을 바라보던 아라기는 이윽해서야 벽난로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못마땅하게 얼굴을 찡그리며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요즘 젊은것들은 하나같이 뜻이 옹졸하구 나약하거던. 나한테 다께오라는 손주놈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모자라는 녀석이 분명해. 대학을 졸업하고 몽골력사를 전문한다기에 내 호기심

이 동해 몇마디 물어보았더니 한다는 수작이 자긴 몽골말안장만 수집할뿐 다른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거야. 고작해서 꿈이라는 게 몽골말을 타고 울란바따르서부터 도꾜까지 려행해보는거라나. 허, 기가 막혀서… 만주를 호령하구 씨비리를 넘보던 우리들에 비하면 그런걸 어찌 남아의 꿈이라 할수 있겠는가. 보나마나 자네들두 마찬가질테지. …》

아라기의 랭랭한 야유에 이번에도 가네다가 잽싸게 나섰다.

《각하께서 갖은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제국력사와 관련한 수많은 문헌들을 고이 보관해오신데 대해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각하,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기개가 부족한것은 그들이 력사를 모르고 선배들이 남긴 뜻을 모르기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책은 만인을 위한것이라 하였습니다. 각하께서 간수해오신 수많은 장서들을 세상에 널리 돌린다면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간 사실들을 돌이켜보게 하고 각하의 공덕을 알게 하는 좋은 일로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가네다는 달변가였다. 아라기도 그의 말이 싫지 않았던지 천천히 이쪽으로 눈길을 돌리는것이였다. 하지만 늙은이의 표정은 여전히 랭담했다.

《자네 말주변이 좋군. 허나 무턱대구 많이 읽는건 좋은게 못돼. 책이라구 해서 아무 책이나 모조리 믿고 읽는다면 차라리 하나도 읽지 않느니만 못한거지. 책은 벗을 고르는것과 같이 많지는 않다 해도 똑바루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거야.》

아라기는 제법 심오한 철학이라도 푸는것처럼 한마디한마디 끄집어내는듯 한 말투로 훈시를 늘어놓았다. 그러는 아라기에게 경식은 이때라고 생각하고 넌지시 뒤를 달았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각하의 장서를 정리하고저 하는

근본취지도 구경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나 하나의 시대가 불과 몇권의 책에 의해 지배된 실례는 얼마든지 들수 있지 않습니까.》

경식의 말에 아라기는 알릴듯말듯 머리를 끄덕였다. 가네다가 은연중 동료의식을 느꼈던지 경식에게 슬며시 눈을 끔뻑해보였다. 다시금 아라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옳은 말이야. 이를테면 후꾸자와 유기찌의 <탈아론>이 그렇지. 명치시대이후로 행해진 제국의 모든 대외로선은 실상 <탈아론>에서 비롯되였다고 해두 과언이 아니니까. …》

《탈아론》은 일본인들속에서 《근대일본이 낳은 최대의 사상가, 교육자》로 불리우고있는 후꾸자와 유기찌가 1885년에 발표한 글이였다. 당시 일본인들의 대외관점은 크게 두가지로 갈라져있었다. 하나는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련대하여 유미렬강의 침략을 막는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렬강들의 대아시아정책에 편승하여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는것이였다. 후꾸자와는 《탈아론》에서 조선이나 중국과 같이 뒤떨어진 이웃나라들은 일본에 한 터럭의 도움도 안되기때문에 일본은 아시아의 대렬에서 벗어나 서양의 문명을 수용하고 조선이나 중국을 대하는 방법도 렬강들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력설했다. 바꿔말하면 미국이 군함을 몰고와 일본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였던것처럼 일본도 군함을 끌고 가 이웃나라들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해야 한다는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후꾸자와였기에 조선인을 위하여 조선의 멸망을 바란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던것이다.

《탈아론》은 근대일본인들의 아시아관형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으며 일본의 팽창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근 한세기전 후꾸자와 유기찌가 제창하던 《탈아시아주의》의 구호는 결코 과거

의 망령이 아니였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몰상식한 편견과 무지, 황당한 우월감은 오늘날까지도 일본인들의 머리속에 부적마냥 남아있지 않는가.

경식의 이런 생각을 알리 없는 아라기는 뚝뚝 떨어지는 비방울처럼 띠염띠염 말을 이어가고있었다.

《선각자들이 마련해준 <세계웅비>의 경륜과 그들이 흘린 피가 없었더라면 비록 한때였을망정 어찌 섬나라에 불과한 우리 일본이 광대한 대륙의 판도를 석권하고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꿀수 있었겠는가. 일본인들은 자기의 영웅들을 알아야 해. 도요또미 히데요시, 사이고 다까모리, 이또 히로부미… 실로 그들이야말로 죽음도 불사하는 <충성>과 철저한 극기를 미덕으로 안 사무라이의 전형들이였지. 그들을 망각한다면 그건 일본인이 아니야.》

늙은이의 이마우에 힘줄이 불거져올랐다. 아라기는 병적인 열기가 내비치는 눈을 들어 벽우에 걸린 사이고 다까모리의 초상을 쳐다보는것이였다.

(도요또미 히데요시, 사이고 다까모리, 이또 히로부미…)

경식은 아라기가 부른 이름들을 속으로 다시 외워보았다.

생각할수록 기이한 일이였다. 조선사람들에게는 침략의 원흉으로 지탄받고있는 괴수들이 일본사에서는 례외없이 위인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고있는것이다. 무법불법의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이또 히로부미는 《일본을 근대화한 주역》으로 일본사에서 칭송을 받고있으며 자기에게 10개 대대만 주어 파견한다면 하루아침에 전조선을 《정복》할수 있노라고 부르짖은 《정한론》의 주창자 사이고 다까모리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무라이》로 지금도 도꾜의 우에노공원에 커다란 동상으로 서있다.

그런가 하면 임진왜란을 일으킨 침략의 괴수 도요또미 히데요시는 또 어떠한가. 일본인들은 그를 가리켜 란세를 잠재우고 치세의 기틀을 마련한 무장이며 그 여세를 몰아 대륙에 진출하여 세계를 호령하려 했던 《영웅》이라고 추어올리고있다. 반대로 도요또미가 문을 멸망시킨 도꾸가와 이에야스에 대해서는 매우 음험한 인물로 묘사하던 나머지 《도꾸가와 이에야스를 저주하는 회》라는것까지 결성되여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되여 두 나라의 력사관이 이렇게까지 판이하게 상반되는것인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주되는 요인은 일본의 력대 통치배들이 광신적인 국수주의와 침략주의사상을 국민들의 의식속에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부식해온데 있다고 경식은 생각했다.

도요또미 히데요시만 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었다. 히데요시에 대한 숭배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조장되기 시작한것은 명치시대에 이르러서였다. 끝없는 팽창야욕에 부풀어있던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을 위협한 히데요시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일본인들이 어릴 때부터 부르게 하였다. 히데요시의 《재능》, 《무용담》 그리고 조선침략을 포함한 《업적》 등이 력사소설과 연극, 대중소설 같은것들을 통하여 일본인들의 가슴속에 강렬하게 새겨지게 되였다. 더욱 기이한것은 히데요시의 인기가 패전후에도 계속 유지되여왔다는것이다. 보통 력사상의 인물들은 시대적환경이 변하는데 따라 그 평가도 달라지건만 히데요시만은 영화나 텔레비죤 같은 영상매체들을 통하여 《립신출세의 화신》으로, 《대국지향의 선구자》로 변함없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있었다.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바뀌였어도 일본인들은 아라기 같은자들이 심어놓은 국수주의적이며 팽창주의적인 사고관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

고있는것이다.

방안이 괴괴한 관속같이 여겨졌다. 경식은 낡은 가구들의 냄새가 떠도는 후덥지근한 공기에 혐오감을 느끼며 아라기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라기는 열뜬 눈초리로 벽난로안을 지꿎게 들여다보고있었다. 지렁이마냥 구불구불한 피줄이 아라기의 관자노리에서 꿈틀거리는데 벽난로의 불길이 너울거리며 늙은이의 얼굴에 기괴한 그림자를 던지고있었다. 얼마후 짓눌린듯 한 아라기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우리를 보구 전범자라고 비난들 하지. 전범자?… 흥, 자네들은 강자를 반대해서 싸우는 재판을 본 일이 있는가? 만일 재판관이 힘에 거역한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결은 집행되지 않을거네. 강자에겐 적이 없구 약자에겐 피할 곳이 없는게 세상리치야. 인간은 멸시를 받아야 할수도 있구 정당하지 않을수도 있지. 허나 칼은 멸시할수 없어. 칼은 항상 정의니까. …》

아라기의 울대뼈가 무섭게 두드러졌다. 늙은이의 회색빛눈망울이 푸르스름한 독을 품고 번뜩이고있었다.

《우리 일본이 전쟁에서 진것두 결국은 힘이 약했기때문이지. 조선놈들을 보라구. 한땐 대일본제국의 발굽밑에서 숨두 크게 쉬지 못하던것들이 지금은 얼마나 기가 올라서 날치는가. 조선인이나 중국인에게 지배되는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일본인들은 자신과 아이들을 죽이구 모든걸 끝장내는게 더 나을걸세.》

사레가 들렸는지 갑자기 가네다가 곤두기침을 깊었다. 경식은 피가 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패전에 대한 앙심깊은 복수심, 타민족에 대한 지독한 배타적태도, 인류를 멸살시키고서라도 기어이 자기존재를 확인하려는 파시스트의 욕망… 저것이 바로 일본군국주의

자들의 진면모였다.

당장이라도 증오의 웨침이 터져나올것만 같아 경식은 얼굴이 벌개지도록 넥타이매듭을 치켜올려 목을 조여맸다. 그러는데 수건으로 코를 문지르고난 가네다가 결례를 사과하듯 미소를 그려보이며 아라기에게 공손히 말을 붙이는것이였다.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일본이 항복하자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순국의 길을 택한것도 그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라기의 입가에 경멸의 빛이 떠돌았다.

《자네 날 비웃는구만. 어째서 아라기 당신은 제국과 함께 운명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거겠지. 흥, 하긴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면 죽음보다 더 큰 수치가 따른다는게 일본의 자살관이기도 하지. 하지만 난 배를 가르는 식의 책임모면은 하고싶지 않아. 그건 한갖 비겁한 도피에 불과하거던.》

아라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경식은 마디마디에 그루를 박으며 웅글게 부르짖었다.

《력사는 후세의 심판을 받기마련이지요.》

그 말을 제나름으로 해석한듯 아라기는 머리를 끄덕였다.

《옳네. 자손들이 우리를 리해해주겠지. 우린 앙심을 품구 다시 일어서야 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결코 포기할수 없단 말이야. 우리가 와신상담의 각오를 품구 분골쇄신할 때 야스구니의 혼백들이 흘린 피는 기필코 보상받을걸세.》

늙은이의 온몸에서 광포한 기운이 뻗쳐나왔다. 와신상담을 떠벌이는 그 모양을 보느라니 《참기 어려운것을 참고 견디기 어려운것을 견디여…》라고 하던 왜왕의 항복연설이 떠올랐다.

경식은 목구멍으로 치밀어오르는 쓰거운 웃음을 삼켰다. 불가능한 목적을 추구하는자에게는 그 대가로 절망이 차례지는 법이다.

팔십고개를 넘어선 오늘에 이르도록 천하는 힘센자의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자의것이라는 력사의 순리조차 변변히 깨닫지 못한채 헛된 망상을 부여안고 잔명을 이어가는 군국주의망녕객의 모습이 보면 볼수록 가련하게 여겨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밖에서 서리발을 품은듯 한 찬바람이 불었다. 바람에 부러져나간 나무가지 하나가 기울기울 떨어져내리며 창유리를 두드렸다.

《날씨가 추워지려는가보구나.》

오한을 느꼈는지 몸을 움츠리며 아라기가 하는 소리였다. 하녀가 다가가 아라기에게 말했다.

《피곤하신것 같습니다, 각하.》

《그래, 좀 누워야겠다.》

아라기는 맥빠진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는 끙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더니 경식이네쪽을 바라보며 생각난듯 이렇게 덧붙이는것이였다.

《참, 장서를 정리하게 해달랬던가. 하긴 옛날부터 책과 꽃 그리구 녀자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할 자신이 있으면 훔쳐두 좋다고 했지. 좋아, 래일 아침에 내 서기를 만나 서재열쇠를 받으라구. 각별한 부탁들두 있었지만 그보다 자네들의 그 검질긴 성격이 마음에 들어.》

아라기는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방에서 나갔다. 복도쪽에서 침울하게 중얼거리는 늙은이의 목소리가 느릿느릿 들려왔다.

《우린 할수 있는껏 다했어. 그 다음은 할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

리경식은 아라기가 사라진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거듭 되뇌고있었다.

(존재할 리유가 없으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6. 비운의 시절에

얼마후 리경식은 아라기의 별장을 나섰다. 가네다가 함께 가자고 따라나섰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래일부터 장서정리를 함께 해야 할 처지였던만큼 별수없이 경식은 그와 동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정작 밖으로 나왔지만 가슴속의 번열은 좀처럼 가셔지지 않았다. 경식은 후ㅡ 하고 긴숨을 내긋고나서 고마역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말라죽은 풀들이 찬바람에 나붓긴다. 기울어가는 태양이 비스듬히 구름뒤에 걸려 피곤하고 싸늘한 어스름빛을 던져주고있었다.

한동안이 지나도록 두사람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말수가 많아보이던 가네다 역시 어찌된 일인지 묵묵히 걸음만 옮기고있을뿐이다.

삼나무들이 늘어선 들길에 나서자 고마천의 물소리가 한가하게 따라왔다. 완만한 구릉으로 둘러싸인 고마무라의 모습이 눈앞에 안겨왔다. 고마천이 굽이져 도는 곳에 자리잡은 주머니모양의 논이며 경사가 느린 산중턱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농가들… 농가들의 뾰족한 지붕우로 가느다란 연기가 솟아오르고있었다.

평화로운 그 정경을 바라보느라니 달아올랐던 마음이 다소나마 가라앉는것 같았다. 문득 《고마무라》라는 이 지방의 지명이 리경식에게 새삼스러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것이였다.

일본인들은 《고마》라는 말을 한자로 《高麗(고려)》라고 표기한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 다시말해서 《고마》는 일본인들이 흔

히 《고우라이》라고 부르는 918년에 성립된 고려가 아니라 그 이전시대의 고구려를 가리키는 말이였다. 고대일본인들이 고구려를 《고마》라고 부르고 때로는 백제와 신라를 포함한 조선반도전체를 가리켜서도 《고마》라고 부르게 된데는 단군의 어머니가 곰이였다는데로부터 예로부터 곰을 신성시해온 우리 조상들의 유습이 일본에까지 전해진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었다. 결국 《고마무라》란 《고구려촌》이라는 의미였다.

경식은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그 어떤 충동을 느끼며 느닷없이 가네다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다.

《가네다씨, 혹 <고마무라>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 알고계시는지요?》

뜻밖의 질문인듯 가네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정쩡해보이는 태도로 대답하는것이였다.

《글쎄요. 지명의 뜻을 보아서는 조선반도와 그 어떤 련관이 있어보이는듯 합니다만…》

경식은 그 말에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옳습니다. 나도 언젠가 력사책을 보다가 알았는데 거기엔 흥미있는 사연이 깃들어있습니다. 7세기 후반기에 고구려가 멸망하자 약광이라는 고구려왕족이 가족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왔답니다. 그 후 도꾜주변에 흩어져 살던 고구려유민들이 무인지경이였던 무사시노벌판에 모여들어 고려군을 설치하고 약광을 군장으로 올려앉혔다고 하더군요.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건너오는 유민들에게 환대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그건 이들이 말타기와 농업기술을 비롯해서 선진문화를 일본에 보급해주었기때문이지요. 고구려사람들의 영향으로 개척된 무사시노벌판은 명치시대에 이르러 일본에서 쌀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곡창지대로 되였고 <고마무라>라는 지명도 바

로 그런데서 생긴것이라고 합니다.》

《아!》

가네다는 감심한듯 탄성을 뽑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과연 이 지방에선 <고마>라는 말을 흔히 찾아볼수가 있군요. <고마천>, <고마신사>, <고마고개>, <고마산>… 참, 고마역에 내려 제일먼저 눈에 뜨이는 <천하대장군>과 <지하녀장군>이라는 표말도 꼭 조선의 마을어구들에 세워진 장승을 보는것만 같습니다.》

《아니, 조선의 장승들을 보신적이 있는가요?》

경식은 저으기 놀라 이렇게 묻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자 가네다는 한순간 쭈밋거리는것 같더니 다시금 말을 이어나갔다.

《아, 그저 좀… 그러고보면 일본어의 <고마>(망아지, 말)나 <고마게다>(일본 나막신의 하나), <고마이누>(신사나 사찰앞에 사자 비슷하게 형상하여 마주놓은 한쌍의 돌조각) 같은 낱말들도 모두 <고마>(고구려)와 련관이 있을듯싶군요.》

경식은 가네다의 재빠른 머리회전에 내심 혀를 차며 그의 말을 수긍하였다.

《적지 않은 일본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하기야 일본에 건너온 조선사람들의 흔적이 어디 이 고장에만 남아있는가요. 8세기에 야마또국가의 수도였던 <나라>의 지명도 국가를 의미하는 조선말 <나라>를 그대로 옮긴것이고 도쬬도와 사이다마현을 포괄하는 옛 지명인 <무사시노>도 <모시씨>라는 조선말에서 유래된것이라고 합니다. 모시풀의 씨를 심었던 곳의 이름이 점차적으로 퍼져 마침내 넓은 무사시노의 지명이 되였다는거지요. 결국 누구든 조금만 눈여겨 살펴보면 고대시기부터 일본에 영향을 미쳐온 조선문화의 자취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수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

어지간히 성수가 오른 리경식의 얼굴에서는 무의식적인 긍지가 력력히 흐르고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이 시각 경식은 이런 이야기를 가네다가 아니라 다름아닌 아라기 사다오에게 쏟아놓고싶은 심정이였다. 허황한 과대망상과 자고자대에 환장이 되여 조선민족을 함부로 릉멸하는 그자에게 저들이 우상처럼 떠받들고있는 《황국사관》과 《야마또우월주의》가 얼마나 위선에 찬 허구인가 하는것을 낱낱이 까밝히고싶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살아오면서 동방문화를 찬란히 꽃피워온 조선민족을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었다.

《하하하…》

경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골똘한 생각에 잠겨 걷던 가네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경식이 의아해서 돌아보자 가네다는 여전히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오구라씨의 말을 듣고나니 아라기 사다오라는 령감이 퍼그나 희극적인 존재로 느껴지는군요. 조선사람들이 개척해놓은 땅에서 살면서 조선사람들을 멸시하니 말입니다.》

가네다의 굵은 대모테안경속에서 총기있는 작은 눈이 민첩하게 깜빡이고있었다. 경식의 마음은 슬며시 긴장되였다. 가네다가 자기의 속을 환히 꿰뚫어보고있는듯 한감을 느꼈던것이다. 이 사나이는 도대체 어떤자일가? 한날한시에 이곳에서 만난것이 단순한 우연일가? 과연 이 사나이가 아라기의 장서에서 노리는것은 무엇일가? 지나치게 속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경계감이 불쑥 솟구쳐올라 경식은 대수롭지 않은듯 가네다의 말을 받았다.

《그 늙은이는 워낙 군인출신인지라 력사에 대해선 그닥 아는게 없겠지요.》

다음순간 웃음기가 떠돌던 가네다의 두눈에 야유의 빛이 스쳐갔다. 가네다는 누구에겐지 모를 코웃음을 치고는 짧게 도리를 흔

들었다.

《과연 아라기가 력사를 몰라서일가요. 설사 알려준다고 해도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문명을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바엔 차라리 모래판에 혀를 박고 죽자고 할겁니다. 일본은 신의 자손인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요, <천황>의 나라는 세계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하는자들이니까요. 한마리의 개가 잘못 짖어대면 천마리의 개들이 따라짖는다더니 그런자들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의 력사의식은 아직까지도 <황국사관>이라는 황당무계한 허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가네다의 물음에서는 의문부호가 느껴지지 않았다. 경식은 의혹이 비낀 눈길로 가네다의 동그란 얼굴을 바라보았다. 약빠른 고서업자인줄로만 알았던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다니… 도무지 속을 알수 없는 사나이였다.

《정말 보통이 아니시군요. 헌데 일본인으로서는 좀 지나친 사고가 아닐가요. 그러다가 비국민이라는 소리를 듣겠습니다.》

경식의 말에 가네다는 소리없이 웃더니 심상한 어조로 대꾸하는것이였다.

《아무리 일본인이라 해도 진실이야 어디까지나 진실이지요. … 더우기 난 일본인은 아니니 비국민으로 몰릴 념려는 없습니다.》

경식은 그만 어리벙벙해지고말았다. 너무도 뜻밖이였던것이다.

《일본인이 아니라니, 그럼?…》

가네다의 두눈에 능청스러운 불꽃이 타올랐다.

《혹 <구다라징>이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는지요?》

《<구다라징>?》

경식은 가네다의 말을 얼결에 받아외우며 미간살을 모았다. 무엇인가 예감 같은것이 서서히 가슴을 두드려온다. 세월의 갈피속

에 묻혀있던 어슴푸레한 기억들이 보일듯말듯 뇌리에 어른거렸다.

웬 일인지 가네다가 안경을 벗어들었다. 그러자 눈등에 난 흠집이 유표하게 드러났다. 유심히 그 모습을 눈여겨보던 경식의 입에서 갑자기 놀라움에 찬 소리가 새여나왔다.

《아, 이께부꾸로역앞에서 만났던 그 <구다라징>!》

《허허, 인제야 날 알아보시겠소.》

가네다가 히죽이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분명 그것은 조선말이였다. 경식은 저도 모르게 눈굽이 화끈해졌다.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소, 친구!》

두 사나이는 으스러지게 손을 그러잡았다.

… 그들의 인연은 비분처절했던 스무해전의 그 시절에 맺어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중일전쟁의 수렁속에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게 되자 일제는 《전쟁완수》라는 간판밑에 《국민징용령》을 공포하고 15살부터 50살까지의 로동능력있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죽음의 고역장에 닥치는대로 끌어갔다. 중세기의 노예사냥을 방불케 하는 가혹한 장면들이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매일과 같이 펼쳐졌다. 길을 가던 사람들, 밭에 있던 농민들, 집에서 잠을 자던 청년들이 영문도 모르고 붙들려갔다. 지어 결혼식상을 받던 신랑까지도 그 자리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판이였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리경식에게도 어느날 마른하늘의 벼락같이 징용장이 날아들었다. 그날 밤 큰아버지는 경식이앞에서 넉두리마냥 하소하는것이였다.

《어려서 부모잃은 너한테 잔뼈가 굵기두 전에 호미자루를 들게 했는데 인제 징용까지 보내야 하니 내 죽어서 돌아간 네 부모들을 어떻게 대한단 말이냐. …》

큰어머니도 그리고 폐결핵을 앓고있어 징용에서 면제된 사촌형이며 사촌누이들도 눈물속에 온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할아버지는 그때 몸져누워있었다. 막내손자에게 징용장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할아버지는 초약그릇도 밀어놓고 벽을 향해 돌아누운채 거치른 숨만 하염없이 몰아쉬였다. 그러던 할아버지가 다음날 징용터로 끌려나가는 경식이를 부여잡고 식구들이 울음을 터뜨렸을 때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나 앉으며 가슴속에서 이글거리던 천불을 와락 터뜨리는것이였다.

《썩 그치지들 못할가! 엎어진 둥지에 성한 알이 어디 있을고!》

밤새 주름고랑이 더욱 깊어지고 눈시울이 벌겋게 부어오른 할아버지의 얼굴은 한많은 세상에 대한 뿌리깊은 적의와 울분으로 하여 경련하듯 푸들거리고있었다. 경식이가 할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하직인사를 올리자 피줄이 불거져나온 할아버지의 여윈 손이 손자의 손을 꽉 그러쥐였다.

《경식아, 늑대한테 물려가도 제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어디 가든지 조상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야 하느니라.》

준절하게 울려온 할아버지의 마지막당부였다. 순사들에게 끌리워 동구밖을 나서던 경식이 집쪽을 돌아보니 사립문을 붙잡고 서서 멀어져가는 손자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안겨왔다. 파뿌리모양 세여버린 할아버지의 머리칼이 강쇠바람에 마른 풀잎같이 흩날리고있었다. 할아버지의 두눈이 물에 젖은 돌처럼 번쩍이였다. 경식은 참을길 없는 흐느낌에 숨을 헐떡거리며 할아버지와 정든 사람들을 향해 다시한번 꾸벅 절을 올렸다.

그렇게 골육들과 생리별을 당한 경식은 수많은 젊은이들속에 끼여 일본으로 끌려갔다.

왜놈들의 총칼에 떠밀리우며 낯설은 이역땅에 내린 그들은 부두

의 가설건물에 갇혀 하루밤을 보내고나서 이튿날 기차에 올랐다. 기차는 북쪽을 향해 달렸다. 화물칸에 짐짝처럼 실려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속절없이 끌려가는 조선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원한과 절망, 체념의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있었다. 누군가가 북해도에 끌려가는것 같다고, 북해도에 가면 꼼짝없이 죽는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말을 듣는 경식의 피줄로 차디찬 전률이 줄달음쳤다. 숨이 꺽 막혀왔다. 이대로 왜놈들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타향의 외진 곳에 무주고혼으로 묻혀야 한다고 생각하니 설음인지 공포인지 모를 그 무엇이 덩어리로 뭉쳐 목구멍을 꽉 메우는것만 같았다.

지루하게 달리던 기차가 어느 한 곳에 잠시 멈춰섰을 때였다. 화물칸의 틈새로 밖을 내다보던 옆사람이 동경인것 같다고 중얼거리는것이였다. 그 순간 경식은 도꾜에서 산다는 이종사촌형의 주소가 떠올랐다. 기회를 봐서 거기로 찾아가라며 고향을 떠나오기 전에 큰아버지가 알려주었던것이다. 억누를길 없는 격렬한 욕구가 온몸을 휘감았다. 살아야 한다는, 기어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심장의 거치른 웨침소리에 경식은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말았다.

기차가 다시 도꾜를 떠나 얼마간 달렸을 때 경식은 왜놈보초에게 찾아가 변소에 가겠다고 말했다. 보초는 처음에는 안된다고 눈을 부라리다가 경식이가 죽는 시늉을 하며 사정을 하자 그러면 옷을 벗어놓고 가라고 호통을 쳤다. 별수없이 경식은 아래도리의 속옷만 내놓고는 입었던 옷을 모두 벗어놓을수밖에 없었다. 변소간에 쭈그리고 앉아 동정을 엿보니 보초는 옷까지 벗어놓은 경식이가 설마 달아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는지 이쪽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게다가 놈들은 더웠던지 승강구의 문까지 열어놓고있었다.

경식은 이때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레 번소를 나와 승강대에 다가섰다. 칠흑같은 야밤이였다. 기차는 컴컴한 들판우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있었다. 평소 같으면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정황이였지만 당장이라도 놈들이 달려와 뒤덜미를 덮칠것만 같아 경식은 이를 악물고 허공중에 몸을 내던졌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가 뛰여내린 곳은 도죠교외의 한 고구마밭이였다. 뛰여내릴 때 쇄골과 한팔이 부러져 제대로 운신할수 없게 된 경식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차가 온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또 갔다. 그러던 그는 어느 길섶에 이르러 그만 의식을 잃고말았다.

다음날 아침 누군가가 툭툭 몸을 건드리는 바람에 경식은 정신을 차렸다. 그를 발견한 사람은 짐차를 몰고 지나가던 일본인운전사였다. 옷도 걸치지 못한채 피투성이가 되여 쓰러져있는 모습에서 사연을 짐작한 그 일본인은 경식을 조선사람들이 있는 근처의 함바로 데려다주었다. 그곳에서 경식은 엄길호를 비롯한 동포들을 만나게 되였다.

그때 토목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고있던 엄길호는 리경식을 친동생처럼 극진히 돌봐주었고 경식이가 대준 이종사촌형의 주소에 소식도 띄워주었다. 며칠후 이종사촌형이 나타나 경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도죠의 뒤골목에서 자전거포를 운영하던 이종사촌은 사지판에서 자기를 믿고 찾아온 경식을 위해 여러모로 애를 써주었다. 그의 도움으로 경식은 경찰이 발급한 신분증을 손에 넣게 되였고 어지간히 몸도 추세울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얹혀살수만은 없어 몇달후 경식은 이종사촌에게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되여 들어간 곳이 일본인이 운영하는 어느

고물회사였다.

회사에는 스무명가량의 인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기서 먹고자는 대신 정해진 량의 고물들을 날마다 모아들여야만 했다. 아침이면 주인은 인부들이 밥술을 놓기 바쁘게 손수레를 하나씩 맡겨 밖으로 내몰았다. 그러면 인부들은 손수레를 끌고 집집을 돌며 낡은 옷가지나 그릇붙이, 유리병 등 돈이 될만 한 잡다한 고물들을 수집하군 하였다.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보로(넝마)장사》라는게 바로 이런 일이였다.

얼핏 보기엔 단순한것 같아도 막상 경식이 그 일을 하자니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우선 일본말을 변변히 못하는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제대로 알아본다는것이 쉬운 일은 아니여서 어떤 날에는 종일토록 모은 고물들이 아무 쓸모없는 물건짝들인지라 하루 밥벌이는커녕 주인의 욕바가지만 뒤집어쓰는 경우도 드문하였다. 그래도 그런것은 날이 감에 따라 점차 요령도 트이고 반토막이나마 일본말도 그럭저럭 번질수 있게 되여 어느 정도 넘길수 있었지만 넝마장사군을 천시하는 일본인들의 멸시어린 태도만은 정말 참기 어려운것이였다.

어떤 때는 고물수레에 자전거가 좀 긁혔다고 무작정 따귀를 얻어맞기도 하였고 또 어떤 때는 고물이 아닌 쓰레기를 내다주며 이런거라도 주니 먹고사는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는 모멸에 찬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경식은 당장에 모든것을 엎어버리고싶은 생각이 불끈불끈 치솟았지만 어쩌는수가 없었다. 조선사람이라면 최하층의 존재로 치부하는 일본사회에서 어데 가도 《센징》들에게 처음 차례지는 일이란 토공일이나 넝마주이 같은것이 고작이였기에 경식은 등어리를 지겹게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여나갔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던 그해 여름날에 있은 일이다. 온종일 골목골목을 누비던 경식은 해질무렵에야 고물수레를 끌고 회사로 돌아가고있었다. 그날따라 물건들이 많았던지라 수레를 끌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목에서는 단내가 풍기고 수그린 얼굴에서는 땀줄기가 구불구불 흘러내리고있었다.

그렇게 수레를 끌며 이께부꾸로역앞을 지나는데 야단법석대는 사람들의 무리가 앞을 가로막았다. 군대에 징집되여나가는 일본인들이 가족이며 친구들과 작별하고있었던것이다.

《대의멸친》, 《진충보국》, 《출정군인들을 축원한다!》 등의 글들이 씌여진 크고작은 기발들이 바람에 나붓기는데 징집자들의 어깨우에는 하나같이 《무운장구》라든가 《출정영광》과 같은 글들이 수놓아진 《센닌바리》가 걸쳐져있었다. 《센닌바리》란 천명의 녀인들이 표백한 흰 천에 한뜸씩 붉은 실로 글을 수놓은것이였다. 천사람의 바늘뜸을 받은 속옷을 입히면 총알을 맞지 않는다는 미신에 홀려 가족들이 근처의 녀인들에게 간청하여 만든 일종의 호신부였다 할지…

《너의 목숨은 이미 <천황>폐하께 바친것이다. 백목으로 만든 관에 들어 돌아오너라. 내가 이곳에서 너의 충골을 받아안겠다!》

《국민복》에 전투모를 쓴 늙은 아버지가 《온 가정 영광》이라고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아들에게 훈계하는 말이였다. 뒤이어 들려오는 아들의 살기찬 대답소리.

《아버지,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는 성전에서 사꾸라꽃처럼 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쪽에서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는 녀인의 목메인 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돌아오는건 백목상자라고 하지만 아무튼 넌 몸성히 돌아

와야 한다. 널 믿고 홀로 살아온 이 에밀 생각해서라도 제발…》

《어머니, 그만하세요. 남들이 듣겠어요. 제 어떻게든지 전공을 세우고 빨리 돌아와서…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도 울먹거리고있었다. 어디선가 군가가 터져나왔다.

갓떼 구루소또 이사마시꾸
지갓떼 구니오 데다까라와
…

그들의 지글거리는 열기와 살벌한 광기로 하여 한여름의 대기는 더욱 달아오르는듯 하였다. 경식은 금시 질식해버릴것만 같아 허둥지둥 그들속을 빠져나왔다.

온 일본렬도가 광란적인 전쟁열에 들끓고있었다. 남자는 《<천황>의 용맹한 방패》가 되여 전쟁에서 죽는것이 무상의 영광으로 례찬되였고 녀자는 《야스구니의 처》로 되는것이 최고의 영예로 찬미되는 세월이였다. 하지만 저들이 그처럼 《감격분기》하여 달려나가는 전쟁터라는게 사실은 아무런 정당한 리유도 없이 개처럼 죽어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던가.

일본인들은 도대체 리해할수 없는 족속들이라고 생각하며 경식이 얼마쯤 갔을 때였다. 갑자기 앞에서 왁자하니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길을 들어보니 무뢰배들로 보이는 한무리의 왜인들이 누군가를 목말에 태운채 목이 찢어져라 《반자이》를 웨쳐대며 내달려오는것이 아닌가. 목말에 올라탄자는 기가 올라 목검까지 휘두르고있었는데 병졸복을 입고있는걸 보니 징집된 동료를 바래러 나온 패거리 같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황황히 물러

섰다. 경식이도 서둘러 비켜서려고 하였지만 워낙 수레가 무거웠던지라 얼른 자리를 내줄수가 없었다. 그바람에 지랄치듯 달려오던 무리들이 경식의 수레에 걸채여 와그르르 나가넘어지고말았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스미마셍(미안합니다), 스미마셍…》

경식은 창황실색하여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목말을 탔던 병졸복차림의 녀석이 한켠에 나동그라져 끙끙거리는것을 보자 경식은 그리로 달려가 그자를 부축해주었다. 그런데 다음순간 그자는 일어나며 다짜고짜로 경식의 뺨을 후려갈기는것이였다.

《빠가야로!》

뒤따라 일어선 다른자들도 경식에게 달려들어 분풀이를 해댔다. 졸지에 날아드는 무지막지한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해낼수가 없어 경식은 그만 거꾸러지고말았다.

억이 막혔다. 번잡한 큰길복판에서 난탕을 치다 그리되고도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행패질을 하다니… 악물린 경식의 입술사이로 저도 모르게 《개새끼들!》이라는 조선말이 튀여나왔다.

《뭣이? 이자 뭐라고 했는가?》

병졸복을 입은 신병이 우악하게 툭 불거진 눈망울을 디룩거리며 물었다. 얼굴은 박박 얽은 곰보였는데 《돌격지상》이라고 쓴 머리띠가 총알처럼 생긴 그자의 머리에 동여져있었다. 곁에서 유까다를 걸친 녀석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저자가 센징 같습니다.》

《센징?》

곰보의 눈자위가 비웃듯이 번뜩거렸다. 그러자 유까다를 입은 녀석이 한발 나서더니 위세를 돋구었다.

《흥, 조센징인 주제에 건방지게 우리 형님의 길을 가로막아. 오

이, 우리 형님으로 말한다면 대일본제국을 위해 적탄을 만나러 나가는 출정용사이시다. 당장 무릎꿇고 용서를 빌라! 빨리!》

유까다를 입은자가 눈알을 독스럽게 굴리면서 기세를 올리는데 곰보는 목검을 눌러짚고 서서 입가에 방자한 조소를 띠웠다.

《아아, 스즈끼, 네놈은 언제 봐야 성미가 급하단 말이다. 그렇게 몰아대지 않아도 된다. 조센징은 워낙 비굴한 족속들이니까. 핫하하…》

그자의 웃음에 다른 놈들도 곁따라 키득거렸다.

쓰러져있는 경식의 심장은 분노의 아픔에 조여들었다. 관자노리에서 피가 뛰는 소리를 들으며 경식은 불이 이는 눈으로 놈들을 노려보았다. 혐오와 경멸속에 이글거리는 경식의 거센 눈빛을 보자 스즈끼라는자는 칼날같이 독이 올라 더욱더 날치였다.

《건방진 놈! 빨리 빌지 못하겠는가?》

금시 검푸른 피가 뿜어나올듯 한 상통으로 으르딱딱거리던 놈은 부아가 뒤집혔던지 와락 달려들어 경식의 수레를 냅다 차버렸다. 그통에 수레가 자빠지면서 그안에 있던 물건들이 거리바닥에 산산이 내동댕이쳐졌다.

순간 경식은 걷잡지 못할 격노에 몸을 떨며 벌떡 일어났다. 그는 그달음으로 달려가 스즈끼의 동가슴을 힘껏 걷어찼다. 스즈끼가 헉ㅡ 하고 허파 터지는 소리를 지르며 저만치 나딩굴었다. 경식은 달려드는자들을 치고 차넘기며 서리찬 분격을 터뜨리고 또 터뜨렸다. 비단 그놈들만이 아니라 조선사람을 업수이여기는 온갖 왜놈들을 모조리 두드려패고싶었다. 그래야만 벼락치는 울분을 조금이나마 삭일것 같았다.

온몸이 찢기고 터지면서 놈들과 맞붙어 한창 싸우고있을 때였다.

모여든 사람들속에서 분연히 누군가가 뛰쳐나오며 놈들을 밀막

는것이였다.

《이게 무슨짓이요?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소?!》

그 서슬에 경식에게 달라붙었던 패거리들이 엉거주춤 굳어져버렸다. 오달지게 생긴 한 청년이 놈들앞에 앙버티고 서있었다. 검정색학생복을 입은 청년이였다. 동그란 얼굴의 작은 눈에서는 열기가 팔팔 끓고있었는데 눈등에 있는 흠집이 류별나게 눈에 띄였다.

어안이 벙벙해있던 놈들은 상대가 학생이라는것을 알아보자 웬 놈이냐는듯 눈을 희번득거렸다. 곰보가 어지간히 지쳐빠졌던지 입귀로 침을 비질비질 내보이며 씨벌였다.

《고노야로, 네가 무슨 상관인가!》

그러는 놈에게 학생이 되알진 어조로 따지듯 들이댔다.

《잘못은 당신들이 저지르고 왜 함부로 사람을 치는거요?》

《사람?》

곰보는 빈정대듯 이렇게 되뇌더니 목검으로 경식을 가리키며 조롱했다.

《흥, 정어리가 물고긴가? 조센징도 사람인가?》

둘러선 무리들속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경식은 온몸을 태우는 분노와 수치감에 부르르 치를 떨었다. 그는 터져나오는 통곡을 가까스로 눌러삼키며 상가집 개만도 못한 망국노의 운명을 저주했다. 가증스러운 저 왜놈을 당장에 결딴내지 못하는 자신에게 끝없는 저주를 퍼부었다.

그럴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별안간 학생이 달려들며 목검을 짚고 서서 으시대는 곰보의 면상을 죽어라 하고 받아넘겼던것이다. 곰보는 비명도 지를 사이없이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너무도 창졸간에 당한 일이라 졸개녀석들도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한놈이 떠듬대며 학생에게 묻는것이였다.

《네놈… 네놈도 센징이지?》

학생의 입에서 조선말이 당당히 튀여나왔다.

《아니다! 난 <구다라징>이다!》

《<구다라징>?》

놈들은 영문을 몰라 멍하니 얼굴만 마주보았다. 경식이도 그 뜻을 알수 없었지만 불길마냥 학생의 입에서 터져나온 우리 말은 세찬 메아리가 되여 그의 가슴을 두들겨주었다. 곰보의 패거리들도 뒤미처 그것을 눈치챘던지 야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일시에 한짝이 된 경식이와 학생은 흉악한 살기를 내뿜으며 덤벼드는 놈들과 맞서 피투성이싸움을 벌렸다. 갈범처럼 윽윽대며 주먹을 휘두르던 학생이 놈들의 뭇매에 얻어맞고 먼저 거꾸러졌다. 놈들이 쓰러진 학생을 미친듯이 차고 때렸지만 그는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고 애걸도 하지 않았다. 먼지와 땀, 피로 얼룩진채 악에 받쳐 이그러져있는 동료의 모습앞에 경식의 온몸은 증오의 불길로 황황 타번졌다. 그는 성난 맹수마냥 거세게 울부짖으며 놈들과 뒤엉켜 죽기내기로 싸웠다.

지나가던 순사 둘이 칼자루를 절컥거리며 달려온것은 그무렵이였다.

《무슨 일인가?》

몰풍스럽게 생긴 순사 하나가 이렇게 묻자 경식이 나서며 피범벅이 된채 쓰러져있는 학생을 가리켜보였다.

《죄없는 사람을 저자들이 어떻게 만들어놨는가 보시오.》

순사의 앙칼진 시선이 곰보의 패거리에게 향해졌다.

《사실인가?》

그러자 스즈끼라는자가 악의에 차서 부르짖었다.

《아니요! 저 센징놈들이 출정용사를 구타했소!》

《뭣이? 출정용사를…》

그제서야 놈들은 코피를 줄줄 흘리면서 한켠에 주저앉아있는 병졸복차림의 곰보를 알아보았다. 순사들의 몸이 대번에 꼿꼿해졌다. 그도 그럴것이 철두철미 군국주의로 일관되여있던 당시의 일본제국에서 현역군인이라면 경관들도 쩔쩔매는 대상이였다. 젊은이들이 징병장만 받아도 일본경찰은 벌써 공손해졌고 징집된 사람들이 군복을 입기도 전에 경관을 때려눕혀도 경찰은 감히 어쩌지 못하는 때였던것이다. 하물며 천한 《센징》따위가 일본군인을 구타했다니 더 말해 무엇하랴.

경식을 노려보는 순사들의 몸에서 살기가 뻗쳐나왔다.

《칙쇼ー 감히 출정용사를 모독하는걸 보니 네놈은 틀림없는 불령선인(일제에 반항하는 조선인)이다!》

순사들의 가차없는 매질이 경식에게로 날아들었다. 거기다가 곰보의 패거리들까지 기승이 올라 합세하는 바람에 경식은 순식간에 곤죽이 되여버리고말았다.

학생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삼켰지만 어찌할수가 없었다.

《친구, 기운을 내라구.》

놈들에게 묶이워 끌려가는 순간 경식이 학생을 돌아보며 남긴 말이였다. 비통하게 주고받는 눈길속에서 두사람은 무참히 짓뭉개여진 서로의 심장을 보고있었다. …

경식은 그때 학생이 던진 《구다라징》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해가 지나서야 깨닫게 되였다.

일본인들은 《百濟(백제)》를 일본식한자음인 《하꾸사이》라고 읽는것이 아니라 《구다라》라고 읽는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문화가 발전한 백제는 옛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오랜 기

간 동경의 대상이였고 은인의 나라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본인들은 일본에 건너간 백제계이주민들이 자기 모국을 가리켜 부르는대로 백제를 《큰 나라》라는 조선말로 불렀으며 그것이 《군나라》, 《구다라》로 전해져온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일본말에는 《시시하다》, 《쓸모없다》는 뜻의 《구다라나이》라는 어휘가 있다. 《구다라나이》를 직역하면 《백제가 아니다.》인데 백제의것이 아니면 시시하고 쓸모없다는 일본인들의 옛 관념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흔적이라 해야 할것이다. 결국 자신을 《구다라징》(백제인)이라고 자부한 학생의 말속에는 먼 옛날부터 일본인들이 《은인의 나라》로, 《큰 나라》로 섬겨온 조선의 자손이라는 긍지와 자존심이 도고하게 꿈틀거리고있었던것이다.

그 《구다라징》을 이렇게 다시 만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생각하면 할수록 어째서 그를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가 하는 의문이 가슴을 후벼왔다. 스무해라는 세월이 흘러서일가. 아니면 그새 그가 안경까지 낀데다가 줄곧 일본인으로 자처해왔기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도 고마무라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무턱대고 그를 경원시해오기만 한 자신의 지나친 선입견탓인것 같았다. 미안하다는 말을 몇번이고 외우는 경식에게 《구다라징》은 거듭 손을 내흔들었다.

《미안하긴 나도 마찬가지요. 먼저 알아봤지만 혹 그새 마음이 변해서 귀화라도 한 사람은 아닐가 하고 망설여왔더랬으니까요. 실은 좀전에 고마무라의 유래를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당신의 태도를 보고서야 마음을 놓았던거요. 날 나삐 생각지 말아주오.》

두사람은 헌헌한 웃음속에 오해를 풀었다. 그들은 지나온 사연을 주고받으며 다정하게 길을 걸어갔다. 그뒤 어떻게 되였는가 하는 경식의 물음에 《구다라징》은 자기도 왜놈경찰서에 붙잡혀가 죽도록

매를 맞았다는것과 몇해후 학도병으로 남양전선에 끌려가 사지판을 넘나들던 일들을 두서없이 터놓았다. 그의 말을 들으며 경식은 망국노의 운명은 누구나 다를바없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고물을 모으며 연명해가던 리경식 역시 끝내 일제의 징용에 다시 걸려 규슈의 찌꾸호탄광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지 않았던가.

쓰라린 체험을 함께 한것으로 하여 그들은 서로에 대해 친근감을 느꼈다. 더우기 《구다라징》이 고서점을 운영하면서 일제에게 략탈당한 민족고전들을 수집하고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경식의 반가움은 곱절로 커졌다. 이역의 한적한 고장에서 뜻이 통하는 동포를 만나게 되였다는 기쁨을 누를수 없어 경식은 자기도 민족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며 일본에서 수집한 문화재들을 평양에 있는 력사박물관에 전시하는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숨김없이 이야기하였다.

불현듯 《구다라징》의 얼굴에 불안해하는 기색이 떠돌았다. 얼굴에 넘쳐나던 반색을 슬그머니 지우며 한동안 잠자코 있던 그는 얼마후 경식에게 조심스럽게 묻는것이였다.

《그러니 거긴 조총련계인가요?》

순간 경식도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조총련이라는 말은 《민단》과 일본우익반동들이 쓰는 말이였던것이다.

《그럼 당신은 <민단>?…》

불시에 두사람사이에는 커다란 심연이 가로놓인듯 하였다. 방금전까지 흥글벙글하던 사람 같지 않게 경계의 빛을 감추지 못하는 《구다라징》을 보니 경식은 마음이 서글퍼졌다. 그는 서먹서먹해진 분위기를 가시고싶어 흔연한 어조로 말했다.

《왜 갑자기 심각해서 그러는거요. 어차피 우리야 다 같은 조선사람들이 아니요.》

그의 말은 진정이였다. 사실 《민단》계동포들속에도 민족의 넋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경식은 《구다라징》도 그런 사람일거라고 믿고싶었다.

《그 말이 옳소. 뭐니뭐니해도 뜻이 같은 친구를 알게 된게 제일로 반갑소.》

경식의 심정을 읽었던지 《구다라징》이 다소 밝아진 어조로 하는 말이였다. 그들은 흔쾌히 웃으며 걸음을 다우쳤다.

그날에야 비로소 경식은 스무해전에 만났던 옛친구와 통성명을 하였다. 그의 본명은 박상열이였다.

7. 한겨울의 육개장

리경식과 박상열은 보름이 넘도록 아라기 사다오의 서재안에 붙박혀 지냈다. 그 과정에 그들이 얻은 소득은 적지 않았다. 리경식만 하여도 장서를 정리하면서 두차분에 달하는 수많은 고서들과 자료들을 수집할수가 있었던것이다. 그중에는 아라기가 문부대신으로 있을 당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과 주고받은 편지들과 조선총독부의 시정문건들을 비롯하여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의 리면을 낱낱이 고발해주는 귀중한 력사자료들도 있었다. 경식은 정리한 장서가운데서 조선관계자료들을 따로 모아 조국으로 보냈다.

박상열 역시 퍼그나 많은 수확물들을 도쬬의 자기 고서점으로 발송하였다. 장서정리를 마감하고 아라기의 별장을 나서던 날 그는 득의한 빛을 감추지 못하며 경식에게 자기의 기쁨을 소란스럽게 표현하는것이였다.

《여보게, 난 이번에 노다지를 잡았네. 글쎄, 아라기의 곰팡내

나는 장서더미속에서 구한국 말기의 외교문서들이 나질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나. 통감으로 있던 이등박문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 숱한 문헌들을 훔쳐내갔다고 하더니만 필경 그 문서들도 그때 도적질당한것들이겠지. 그것뿐이 아닐세. 황도파니, 통제파니 하는 군벌관계자료들도 적지 않게 손에 넣었거던. 파쇼일본의 군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걸 알면 아마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올거네. 하하하… 고생한 보람이 있는것 같아, 친구!》

박상열의 흥이 오른 사설은 고마무라에서 맺어진 친분을 기념하여 둘이 함께 사진관에 들려 사진을 찍고 도꾜행 기차에 오를 때까지 그쳐지지 않았다. 하건만 경식의 마음은 좀처럼 가벼워질줄 몰랐다. 상열의 들뜬 기분을 리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였다. 그동안 참빗으로 훑듯 아라기의 장서를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그가 그토록 고심하며 찾는 《조선향악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던것이다. 나중에 장서를 관리하는 아라기의 서기에게까지 물어보았지만 리경식이 들은 소리란 그런 책을 본적이 없다는 무심한 대답뿐이였다.

결국 향악보가 아라기에게 있다던 말은 한갖 뜬소문에 불과하였단 말인가. 경식은 좌절감으로 하여 금시 온몸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여태껏 쏟아부어온 그 모든 고심과 노력이 죄다 헛일로 되고말았다는 기막힌 사실앞에 눈앞이 캄캄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차창밖으로는 낮추 드리워진 납빛구름아래로 한겨울의 메마른 벌판이 흘러가고있었다. 물웅뎅이같이 뿌옇게 흐린 하늘을 쳐다보느라니 경식의 마음은 더더욱 무거워졌다.

인제는 어찌해야 하는가. 《조선향악보》의 행방을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인가. 향악보를 찾는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니 고마무라에서 얻은 적지 않은 소득들도 리경식

의 마음을 별로 기쁘게 해주지 못하였고 이 시각 박상열의 흥뜬 목소리도 그의 귀전에 제대로 와닿을리 만무하였다.

줄곧 자기 이야기에만 열중해있던 상열은 뒤늦게야 경식의 밝지 못한 기색을 알아보고 의아해서 물어왔다.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어두운가?》

경식은 그제서야 번거로운 상념에서 깨여나 대답대신 시무룩이 웃었다. 그러는 경식에게 상열이 물음표마냥 고개를 기우뚱하며 다시금 물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게 아닌가?》

자기를 지켜보는 상열의 눈길에서 진지한 빛을 읽은 경식은 구태여 숨기고싶지 않아 《조선향악보》를 찾지 못해 그런다고 솔직히 터놓았다.

《<조선향악보>? 아라기의 장서에서 찾던 그 고서말인가?》

장서정리를 시작할 때 경식으로부터 함께 찾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던지라 상열은 대뜸 말귀를 알아들었다. 그는 별수없지 않느냐는듯 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찌겠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나지지 않는걸. 대신 자네도 이번에 퍼그나 되는 자료들을 입수하지 않았나. 그걸로 위안을 삼는 수밖에…》

그 말에 경식은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하긴 상열에게는 책제목밖에 일러준것이 없으니 십분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어려운 일을 말아안고 귀국까지 미루어온 경식에게 있어서 향악보는 쉽사리 포기할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그가 아라기의 장서를 점령하기 위해 그토록 고심참담한 노력을 쏟아부은것도 기본은 그때문이 아니였던가.

한동안 묵묵히 차창밖을 바라보던 경식은 자신을 다잡기라도 하

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왜놈들이 뺏어간 향악보를 되찾는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닐세. 그 고서를 찾지 못하면 난 떳떳한 마음으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없단 말이네.》

순간 박상열의 얼굴에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구만. 그 책이 그다지도 귀한 보물이란 말인가?》

경식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여보이자 상열은 궁금증이 치받쳐오르는지 조급히 안경을 추슬러올리며 경식에게 다우쳐묻는것이였다.

《대체 <조선향악보>란 어떤 고서인데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나?》

경식은 호기심과 의혹의 빛이 가득 떠도는 상열의 얼굴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고마무라에서 적지 않은 기간을 함께 지내는 나날에 그는 박상열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민족의 력사와 관계되는 귀중한 자료들을 발견할 때마다 어린애마냥 환성을 터치던 상열의 꾸밈없는 모습에서 그리고 누렇게 바랜 페지들에 새겨진 일제의 죄악을 목격할 때마다 분노를 금치 못하던 달아오른 그 얼굴에서 경식은 자기 겨레를 소중히 여기는 한 량심인의 심장을 느끼군 하였다. 경식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상열의 불같은 성격이 마음에 들었고 박상열도 리경식을 뜻이 통하는 친구로 마음 터놓고 대하게 되였다. 게다가 두사람의 나이까지 엇비슷했던지라 그들은 어느 사이에 너나들이하는 관계가 되여버리고말았다.

불쑥 이 친구에게도 향악보에 대해 이야기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경식의 머리속에 갈마들었다. 고서업자인 그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다는 반지빠른 타산에서가 아니였다. 박상열 역시 자기 민족의 소중한 재부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그것을 되찾아야 할 의

무가 있는 민족의 한 성원이 아닌가.

리경식은 정색해진 낯빛으로 상열에게 향악보에 대해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사실 나자신도 향악보를 찾아나서면서야 그 가치에 대해 다소나마 알게 되였네. 한마디로 말한다면 <조선향악보>는 우리의 민족음악사를 연구하는데서 사료적의의가 매우 큰 고문헌이라고 할 수 있지.》

조용히 말머리를 뗀 경식의 목소리에 차츰 힘이 실려왔다.

향악이란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 궁중음악의 한 갈래로서 예로부터 전해져온 우리 나라의 고유한 음악을 이르는 말이다. 중세시기 우리 나라의 궁중음악에는 다른 나라와의 문화교류과정에 생긴 아악(궁중의식음악), 당악(중국민간음악)과 함께 유구한 세월을 내려오며 창조된 우리 민족고유의 향악이 있었다. 당시 봉건통치배들은 왕궁에서 진행하는 각종 제사와 례식에 쓰던 아악만을 바른 음악 즉 《정악》이라고 하면서 궁중음악에 인입된 전통적인 민간음악인 향악을 《속악》(속된 음악)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레의 삶의 토양속에 깊숙이 뿌리박고있던 향악은 긴긴 세월 사대와 전횡의 발굽밑에 갖은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면면히 자기 발전의 길을 이어왔다. 특히 15세기에 이르러서는 박연을 비롯한 애국적인 음악가들에 의하여 앞선 시기에 창작된 향악곡들이 수집정리되고 새로운 향악곡들이 창작되였으며 아악분야에서도 불비한 외래아악대신 향악에 기초한 신정아악, 조선식아악을 창제하는데 이르렀다. 비록 향악은 민속악이 궁중안에 흘러들어가 봉건통치배들의 비위에 맞게 변화된 궁중음악형식의 하나였으나 민족적인 형식과 인민적인 요소가 적지 않게 포함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귀중한 음악유산으로 남았으며 중세조선음악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되였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후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이 로골화되자 우리의 민족음악가들은 겨레의 고유한 음악전통을 보존계승하려는 애국적일념밑에 력대로 전해져오던 소중한 향악곡들을 악보집으로 묶어 정리하였다. 그것이 다름아닌 《조선향악보》였다.

벌써 우리 나라를 집어삼키기 수십년전부터 진행되여온 일제의 조선에 대한 연구는 강점이후 각 방면에 걸쳐 더욱 심화되였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민속과 문화에 대한 연구는 무서우리만큼 철저한것이였다. 조선의 력사와 문학예술, 도덕, 풍습 등은 물론이고 지어 속담과 수수께끼, 옛말 같은것들까지 속속들이 조사하기 위해 갖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네들의 저의는 무엇이였던가.

과연 그것이 일제가 세상에 대고 광고하던대로 《조선문화의 창달》을 위해서였던가. 아니였다. 단지 식민지에 대한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데 그네들의 진의도가 있었을따름이였다. 이를테면 반만년의 력사속에서 형성되고 굳어진 우리 민족의 원형질을 낱낱이 조사분석함으로써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유리한것은 남겨두고 폐단이 될것은 거세해버리려고 하였던것이다.

조선을 병탄한 일제가 이른바 《조사》와 《연구》라는 미명하에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인 《조선향악보》를 깡그리 파헤친것도 결국은 그때문이였다. 그런데 수백여년세월 전해져온 조선봉건왕조의 궁중음악유산들과 함께 겨레의 숨결과 혼백이 깃들어있는 《조선향악보》마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패망직전에 송두리채 앗아가버린것이다. 결과 현재 고국에는 민족음악연구에 절실히 필요한 향악자료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하니 실로 일제식민지통치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남긴 상처는 얼마나 가혹하고 뼈아픈것인가.

이야기를 마치는 리경식의 우묵한 눈확에 비분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기가 막히는 일이구만. 제땅에 선조들의 음악유산을 연구할 변변한 자료조차 남아있는게 없다니…》

목굽밑까지 찬 불만과 원한을 터뜨리듯 이렇게 중얼거리던 박상열은 가슴속에 울보채는 울분을 누를길 없는지 갑자기 경식의 두손을 와락 부여잡는것이였다.

《아무렴, 왜놈들에게 도적질당한 조상의 재보를 그대로 내버려둘수야 없지. 친구, 이게 어떻게 자네 혼자만 애쓸 일이겠나. 인제부터 나도 향악보를 찾는 일에 발벗고 나서겠네.》

리경식은 가슴이 뻐근했다. 박상열이 그렇게 나오리라고 짐작하지 못한바는 아니였지만 막상 불같은 그의 호응을 대하고나니 세찬 충동이 새삼스럽게 흉벽을 쳐왔던것이다. 그것은 왜적에게 수난당하고 치욕당한 모든 조선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고있는 민족적의분과 사명감이였다.

경식은 투지의 빛이 넘쳐흐르는 상열의 열띤 모습을 미덥게 지켜보다가 웅글게 한마디 했다.

《고맙네.》

그 말에 상열이 제편에서 펄쩍 뛰였다.

《고맙다니? 건 무슨 가당찮은 소린가? 자네나 내나 단군의 후손들이기야 마찬가지가 아닌가.》

자못 노여움을 금치 못해하는 상열의 태도앞에 경식은 당황하여 웃음으로 굼때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느덧 그들은 도꾜에 와닿았다. 박상열은 기차에서 내리자바람으로 다짜고짜 경식을 자기 집으로 잡아끄는것이였다.

《눈치가 발바닥이라고 날 욕할테지. 하지만 아무리 처자생각이 굴뚝같대도 우리 집에 먼저 들렸다 가게. 이대로 자네와 헤여지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걸세.》

실은 리경식의 심정도 다를바가 없었다. 어쩐지 박상열과의 인연이 례사롭지 않게 여겨져 그는 별로 뿌리침없이 상열을 따라나섰다.

상열은 지요다구에 있는 한 서점거리로 경식을 데려갔다. 류달리 고서점들이 집중되여있고 가끔가다 고서시장이 열리기도 하는 이 거리를 경식은 이미전부터 잘 알고있었다.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한 거리를 따라 처마를 나란히 잇댄채 저저마다 제나름의 특색을 광고하며 늘어서있는 고서점들이 눈앞에 안겨왔다. 서양책이나 한서를 전문으로 파는 곳, 의학이며 공학 등의 기술서적만을 취급하는 곳, 그런가 하면 종교관계서적만 파는 서점도 있었다. 띄염띄염 신간도서들을 취급하는 책방들도 눈에 뜨인다. 상열은 《구다라서림》이라는 간판을 내건 목조건물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이 바로 박상열의 고서점이자 집이였던것이다.

뒤로 돌아가니 《가네다 마사또》라는 통명옆에다 《박상열》이라는 본명을 뚜렷이 새긴 문패가 경식의 눈길을 끌었다. 비록 교제상의 필요로 불가피하게 통명은 사용하나 자기가 조선사람임을 이웃들에게 떳떳이 드러내고 살아가는 집주인의 배심이 느껴져 마음이 절로 흐뭇해왔다.

상열이 문을 여는데 투박한 억양의 경상도사투리로 반기는 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그나, 인규 아부지 오십니껴.》

푸성귀냄새가 풍기는 퉁실퉁실한 몸을 흔들며 안주인이 허둥허둥 달려나왔다. 후덕스러워보이는 녀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남편을 만나는 반가움이 한가득 실려있었다. 하건만 상열은 안해와 인사를 나눌새도 없이 제잡담 경식이부터 소개하는것이였다.

《여보, 어서 인사하오. 전번에 내가 말한 그 리선생이요.》

그러자 안주인이 대뜸 아는체를 했다.

《아유, 리선상님얘길 주인에게서 들었십니더. 인규 아부지가 마음을 나눌만 한 친구분을 만났다구 어찌나 좋아허시는지…》

경식은 푸접좋게 늘어놓는 녀인의 말에서 진정을 느꼈다. 뒤따라 인규라고 부르는 아들애도 달려나와 두사람에게 꾸벅 절을 한다. 척 보기에 수영이또래쯤 됐을것 같았다. 자연히 친척집에 들린것 같은 생각이 들어 경식은 스스럼없이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는 경식을 상열이 잡아이끌었다.

《자, 어서 들어가자구.》

경식은 상열을 따라 집안에 들어섰다. 집구조는 2층으로 되여있었다. 10평가량 되는 아래층에는 고서점이 차려져있었고 집주인들은 웃층에 자리잡고있었다. 상열은 안해에게 얼른 술부터 받아오라고 다그어대더니 자기 방으로 올라가자며 경식을 웃층으로 이끌었다.

상열의 방에 들어서던 경식은 눈이 둥그래지고말았다. 방안의 네 벽이 온통 책들로 메워져있었던것이다.

《자네 웃층에까지 고서점을 차려놓았나?》

영문을 몰라 묻는 경식에게 상열이 싱글거리며 대답했다.

《원 고서점이라니. 여기 있는 서적들은 지금껏 내가 모아온 민족고전들일세.》

《민족고전?》

경식은 호기심이 동해 벽에 가득찬 서가들을 찬찬히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느라니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박상열이 그렇게 많은 민족고전들을 수집했으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것이다. 《고려사》, 《동국통감》, 《증보문헌비고》, 《해동고승전》, 《대전회통》… 경식이 처음 보는 고전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는 어디서 구해들였는지 중세시대의 고문서들이

서가가 휘여지도록 무드기 쌓여있었다.

《자네 이런걸 본적이 있나?》

곁에서 상열이 고서 하나를 꺼내보이며 뽐내듯 물어왔다.

《<청구명적>! 그러니 조선의 이름있는 필적들을 모은 책이라는 건가?》

경식이 겉가위에 씌여진 책이름을 제나름으로 해독하자 상열은 제꺽 맞장구를 치는것이였다.

《옳네. 주로 중종왕(1506년—1544년)때 활동한 명인들의 필적을 모아놓은 서첩일세. 16세기의 대유학자였던 리황이랑 기묘사화때 훈구파들에 의해 살해당한 조광조를 비롯해서 24명의 필적이 들어있네. 감식가들에게 여러차례 확인시켜봤는데 본인들의 자필이 틀림없다더군.》

《정말 귀한걸 얻었구만.》

경식은 감탄조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상열에게서 넘겨받은 책을 조심스레 번져나갔다. 닥나무종이로 된 책장의 갈피마다에 옛사람들의 글씨가 새겨져있었다. 부모나 친구들에게 쓴 편지들도 있었고 짤막한 시구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류배지에서 썼거나 류배에서 풀려난 뒤에 쓴것이여서 조정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이 많았다. 당대의 사회정치환경과 세태를 연구하는데 참고가 될 자료라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경식은 마치 자기가 보물을 얻기라도 한것처럼 뿌듯해지는 심정을 느끼며 상열에게 물었다.

《이 서첩에 수록된 글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건가?》

《대다수의 글들이 그렇네. 내 알기론 이남의 경우만 봐도 고려시대까지의 필적유물이 10점 되나마나하고 조선봉건왕조시기의것도 16세기이전의것은 거의 없다고 들었네. 임진왜란때 대부분 불탄데다가 그나마 남은것마저도 일본인들이 죄다 략탈해갔기때문이지. 그

러다나니 모국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우리의 옛 서첩들이 일본에는 무려 200여첩이나 된다고 하더군. 그중에는 14세기의 정몽주나 정도전의 필적이 있는가 하면 지어 신라때의 김생과 최치원의 필적도 들어있다는걸세. 허허…》

박상열이 텅 빈 웃음을 지었다. 마음의 아픔을 짓씹는것 같은 웃음이였다. 경식은 가슴속에서 치밀어오르는 번열을 삼키며 말머리를 돌렸다.

《아무튼 자네 수완이 보통이 아닐세. 이런 희귀본을 손에 넣는다는게 어디 수월한노릇인가.》

그러자 상열은 말도 말라는듯 잽싸게 손을 내저었다.

《수완같은 소린 하지도 말라구. 다만 고서업을 하는 덕택에 이따끔 기회가 나지군 하는거지. 거저 줏다싶이 얻은 횡재를 두고 일본인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나. <호리다시>라고… 투기가 통하지 않는 고서업이라고 하지만 오래 하느라면 알게 모르게 그런 <호리다시>가 생기군 하는것 같네. 언젠가는 무식한것들이 파지값으로 내다 판 서적더미속에서 생각밖의 큰 수확을 얻은적도 있었네. 좀처럼 구경하기 힘든 진본들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왔거던. 개천 치다 금 줏는다고 그 재미에 여태껏 고서업을 털어버리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네. 하하하…》

상열의 넌덕스러운 고백에 리경식도 허허 웃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는데 박상열은 어느새 또 맞은켠 서가쪽으로 옮겨가 경식을 찾는것이였다.

《이리로 오라구.》

어지간히 신이 오른것 같았다. 경식이 그리로 다가가자 상열은 서가의 웃쪽에 놓여있던 보꾸레미를 조심스럽게 내리우더니 보자기를 풀어헤쳤다. 보자기안에서 붉은 밤빛바탕에 자개물림으로 참대

를 그려넣은 칠함이 나타났다.

상열이 함뚜껑을 열어보이는 순간 경식은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윽한 고풍이 느껴지는 기와막새 한개가 하얀 명주솜에 싸여 함안에 놓여있는것이 아닌가.

《이건 기와막새가 아닌가?…》

어리둥절해서 경식이 중얼거리자 자못 긍지가 어린 상열의 설명이 뒤따랐다.

《이게 바로 백제기와막새일세.》

《백제?!》

그러고보니 둥그런 테두리안에 련꽃무늬를 새긴 모양새가 이전에 어느 일본인호사객의 집에서 본적이 있는 백제시대의 기와막새와 너무도 비슷하였다. 리경식은 가슴에 일렁이는 야릇한 파문을 느끼며 천여년세월의 년륜이 서리서리 얽힌 기와막새를 이윽토록 들여다보았다.

기와막새란 골기와지붕의 처마끝에 놓이는 암기와나 수기와의 마구리부분으로서 비바람이나 날짐승의 침습으로부터 처마의 기와밑을 막아주며 장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구려는 벽화로, 신라는 석조로, 백제는 기와로 남았다.》는 말도 있듯이 백제의 기와는 왕조의 흥망성쇠와 륭성했던 당대 문화의 일단을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전해져오고있는것이다. 더우기 백제시대에 《와박사》라고 불리우던 기와전문기술자들이 멀리 일본에까지 초빙되여가 법륭사며 법흥사를 비롯한 아스까문화의 사원건축에 크게 이바지한것으로 하여 백제기와는 오늘날의 일본인들속에서도 찬탄과 경의의 대상으로, 값진 보물로 간주되고있었다. 경식은 기와막새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감동에 겨워 말했다.

《이 련꽃무늬를 좀 보게. 고구려문화가 씩씩하고 날카롭다면 백

제문화는 둥글고 부드러우면서도 소박한게 특징이라 할가.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배인 이런 보물들을 볼 때마다 난 낡아도 낡지 않는것이 참된 새로움이 아닐가 하는 생각을 해보군 하네.》

이런 말을 하는 리경식의 모습은 어덴가 탈속한 사람처럼 보였다. 상열은 감심어린 빛을 숨기지 못하며 경식의 어깨를 쳤다.

《역시 임자와는 말이 통하거던. 하하…》

경식이 벙글거리며 말을 돌렸다.

《이 보물도 <호리다시>한건가?》

그 물음에 상열이 히죽이 웃었다.

《그런 보물이야 누가 거저 내놓겠나. 실은 몇달전에 시부야구에 사는 메리야스공장주인에게서 구입한걸세. 물론 헐한 일은 아니였지만…》

더 듣지 않아도 경식은 상열이 겪었을 고충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박상열의 체험이자 지난날 그자신이 겪어온 체험이 아니던가. 그래서인지 더더욱 기와막새며 퇴색되고 보풀이 인 하나하나의 고서적들을 리경식은 무심히 스쳐지날수가 없었다. 조상들의 체취가 슴배인 고서적들을 펼쳐보기도 하고 쓸어보기도 하며 경식이 오래동안 서가에서 떨어질줄 모르는데 안주인이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바삐 들어왔다.

《시장들 하겠십니더.》

녀인은 미안스러워하는 어조로 이렇게 말하며 들고 온 밥상을 방한가운데 내려놓았다. 뜻밖에도 상우에는 어느새 준비했는지 보기에도 군침이 도는 육개장이 김을 문문 피워올리고있었다.

《에크, 귀한 손님이 왔다구 이 사람이 생색을 냈구만.》

상을 들여다보며 너스레를 피우는 박상열의 목소리는 자못 흥그럽게 울렸다. 아마 경식을 데려온다고 안주인에게 미리 선통해놓았

던듯싶었다. 리경식은 집주인들에게 이끌려 상앞에 나앉았다. 안주인이 서글서글한 태도로 되병에 가득 받아온 소주를 두사람의 잔에 따라붓자 상열이 술잔을 쳐들며 기세를 뽑았다.

《자, 우선 쭈욱 내고 이 사람 솜씨가 어떤지 좀 보자구.》

경식은 상열이 하자는대로 단숨에 첫 잔을 성큼 비웠다. 그리고나서 뚝배기에 담겨진 뜨거운 국물을 훌훌 불다가 조심스럽게 한술 떠삼켰다. 다음순간 그만에야 그의 입에서 웅글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어ㅡ 기가 막힌걸. 아주머니의 솜씨가 여간 아닙니다.》

경식의 말은 과장이 아니였다. 얼벌벌하면서도 달큼하고 후더분한 육개장의 맛은 정말 별맛이였던것이다. 경식이 찬사를 련발하자 은근히 나그네의 동정을 지켜보던 주부가 기뻐하는 빛을 감추지 못했다. 박상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지 안경을 추스르며 넌지시 말곁을 달았다.

《내 장모가 경상도 대구출신인지라 이 사람이 육개장 만드는 솜씨 하나만은 제대로인것 같네. 원래 난 짜고 매운 경상도음식은 영 질색인데 어찌된건지 이 육개장만은 싫지 않거던.》

그제서야 경식은 알만 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였다. 푹 삶은 소고기에 양념을 무치고 국물을 부어 단고기국처럼 만들었다고 하여 육개장이라고 부르는 이 음식은 조선땅 어디를 가나 맛볼수 있는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경상도 대구지방이 유명하였다. 옛날부터 대구사람들은 무더운 여름철에 땀을 흘려가면서도 뜨거운 육개장을 즐겨 먹었고 대구에 오는 사람들은 너나없이 이 지방의 소문난 육개장을 먹고서야 돌아갔다고 한다. 그래서 육개장을 두고 일명 《대구탕》이라고도 불러오지 않았던가.

상열이 이번에는 깍두기가 담긴 공기를 경식의 앞에 가져다놓

는다.

《하지만 한겨울에야 뭐니뭐니해도 이 깍두기맛이 제일이지. 우리 집사람이 공주깍두기를 흉내내본건데 한번 맛보라구. 경상도녀자가 충청도맛을 제대로 냈을리는 만무하지만…》

슬그머니 빈정대는듯 한 상열의 말에 안주인이 념량좋게 대꾸했다.

《에그, 또 충청도량반행세를 하시는깁니껴.》

《아무튼 충청도음식에 비하면 경상도음식은 한참 멀었어.》

《우리 경상도음식이 어쨌다는깁니껴?》

경식은 이전에도 례사였던듯 한 부부의 입다툼을 웃음을 머금고 듣다가 자기도 한마디 끼여들었다.

《하긴 깍두기야 공주깍두기가 유명하지. 들으니 깍두기가 처음 생겨난 곳도 공주라면서?》

그 물음에 상열이 도리를 젓더니 저가락으로 깍두기 하나를 집어들며 이런 말을 들려주는것이였다.

《이전에 우리 할머님이 대주시기를 깍두기는 옛날 왕궁에서 먹던 음식이였다더구만. 조선봉건왕조때 강직을 당해서 충청도 공주로 내려간 벼슬아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려가서도 궁중에 있을 때 먹던 깍두기생각이 간절했다누만. 그래서 제절로 무우깍두기를 담그어 먹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이 간단한지라 인차 민간에 널리 퍼졌다는걸세. 공주에서부터 항간에 알려진데다가 나라안에서도 공주의 깍두기가 제일 유명한 까닭에 흔히 사람들은 깍두기 하면 충청도 공주를 발생지로 알고있는거지.》

《그렇구만.》

경식이 상열의 어지간한 상식에 내심 감탄하는데 안주인은 더 듣지 못하겠는지 남편을 핀잔했다.

《인규 아부지요, 손님 앉혀놓고 무슨 말씀이 그리두 오랩니껴. 어서 드십시오, 선상님. 우리 주인한테서 선상님의 고향이 북이라 들었는데 남도음식이 입에 맞으시겠는지 모르겠십니더.》

경식은 그러는 녀인의 인정이 고마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원 별말씀을… 북이든 남이든 타고난 조선사람의 입맛이야 어델 가겠습니까.》

《백번 옳은 말일세.》

다시금 성수가 난듯 상열이 경식의 말을 제꺽 받았다.

《이 육개장만 보라구. 흔히들 육개장은 삼복철에나 먹는걸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한겨울에 내놓아도 마다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던. 그만큼 우리 민족은 더운 음식을 좋아한다는거지. 옛날부터 북이든 남이든 팔도강산 어딜 가나 흙으로 빚어 만든 뚝배기를 즐겨 써온것도 필경 그때문이 아니겠나. 반대로 서양인들은 어떤가.》

《인규 아부지!》

안주인이 거듭 밀막아서야 상열은 또 한바탕 풀어놓으려던 말주머니를 주춤 거두었다.

《하, 이거 오랜만에 통하는 벗과 마주앉다보니 내 좀 푼수를 잃은가보군. 자, 어서 들자구.》

상열은 유쾌한 롱조로 자기의 실책을 얼버무리며 경식에게 음식을 권했다. 얼마후 안주인이 나가고 방안에는 두사람만 남았다. 련이어 술잔이 오가는 가운데 그들사이에는 또다시 이야기판이 펼쳐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고서적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조선의 유명짜한 서화가들이 오르내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왕인(5세기초 일본에 건너가 문화발전에 기여한 백제출신학자)이며 백제칠지도(백제왕이 일본의 후왕에게 하사한 백제시기의 칼)가 튀여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는 두사람의 모습은 척 보기에도 대조를 이

루고있었다.

화약처럼 곧잘 흥분하여 쉴새없이 달변을 쏟아놓는 박상열이 다혈질형의 인간이라면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다가 이따금 꾹꾹 눌러 짚는듯 한 어조로 자기의 생각을 터놓군 하는 리경식은 툭하면서도 묵직해보이는 점액질형의 인간이였다. 허나 비록 두사람의 성미는 판달랐어도 두고 온 고국과 겨레를 못 잊어하는 뜻과 감정이 하나같았기에 그들은 서로를 확인하고 공감하는 즐거움에 사로잡혀 밤이 깊어가는것도 잊은채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었다.

8. 백제의 후손

술과 이야기가 어우러져 흐르는 속에 퍼그나 시간이 흘러서였다. 문득 리경식은 이미전부터 궁금하던것이 떠올라 느닷없는 물음을 상열에게 던졌다.

《헌데 어떻게 돼서 자넨 백제에 대해 그리도 애착을 가지게 되였나?》

《엉?》

박상열은 뜻밖의 질문이였던지 한동안 경식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누구에겐지 모를 허거픈 웃음을 흩뿌리더니 천천히 담배 한대를 붙여무는것이였다. 벌기우리하니 달아오른 상열의 얼굴우로 담배연기가 굼실굼실 흩날려갔다. 얼마후 독백을 하듯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글쎄,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한두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들구만. 허허…》

술에 멍멍해진 상열의 두눈이 허공중의 어느 한 곳을 하염없이 더듬는다. 그러는 그의 얼굴가에는 차츰 구슬픈 빛이 서리여오고 있었다.

《자네 말이 옳네. 나에게서 백제는 한낱 묻혀버린 과거가 아닐세.

내 고향은 충청도 부여라네. 자네 부여에 와본적이 있나?… 그 옛날엔 소부리로 불리우던 백제의 도읍지였던지라 사람들은 흔히 부여라고 하면 옛적의 재보를 많이 간직하고있는 고장일거라고 짐작들 하지. 하건만 엇비슷한 시대의 도읍지였던 경주에 비해볼 때 부여가 내보일만 한 문화재란 너무도 보잘것없는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네. 그럴수밖에. 신라와는 달리 마지막까지 격렬하게 외세에 저항했던 백제는 그 대가로 철저한 파괴와 로략질을 당하였으니까. 백제문화의 광휘를 뿌리던 궁궐이며 사찰들은 모두 불타버리고 남아있는것이라군 주추돌이나 기와쪼각정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걸세. 그래서 <경주는 눈으로 보고 부여는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는 말도 생긴거겠지.

난 태여나 일곱해밖에 고향에서 살지 못했네. 그렇지만 유년시절에 본 고향의 정경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 푸르무레한 들, 아담한 곡선을 그리며 자리잡은 나직한 구릉들, 기암절벽들사이로 유유히 흐르던 백마강의 푸른 물결과 백제유민들의 한많은 넉두리인양 어디선가 들려오던 <산유화가>의 길고 처량한 가락소리… 그런가 하면 형들을 따라 부소산에 놀러 갔다가 계곡으로 흘러내려온 백제의 기와쪼각을 처음으로 만져보던 일이랑 구두레나루에서 어머니의 치마자락에 매달려 나루배를 타던 일도 눈앞에 선히 안겨오네. 참, 일본인들이 백제를 <구다라>라고 부르게 된것도 백제가 일본에 선진문물을 건네줄 때 관문역할을 했던 구두레나루에 연원

을 두고있다는 일설도 있더구만.

우리 집안은 부여고을에서 십대가 넘게 살아온 퇴락한 량반의 가문이였네. 한때는 대제학을 배출할 정도로 가운이 번창했던적도 있었다지만 증조부가 망국의 <을사5조약>날조에 통분을 느끼고 자결해버리신 뒤로는 점차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더군.

난 삼형제중에 막내로 태여났네. 집안어른들의 강요로 마음에도 없이 우리 어머니와 살아야 했던 아버지는 내가 세살적에 서울에 공부하러 간다는 말을 남긴채 홀연히 일본으로 건너가버리셨지. 난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철이 들기 시작했네. 우리 어머니의 장농우에는 낳은 순서로 자식들의 태줄이 매여있었는데 어느 자식이 병에 걸리면 어머니는 그 자식의 태줄을 내려놓고 정화수를 떠서 기도를 올리시군 했다네. 그렇듯 자식사랑이 지극한분이였지만 아버지가 떠나가버린 후 두해가 지나자 다섯살밖에 잡히지 않던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형제모두를 작은할아버지가 훈장으로 있던 서당으로 내모시더구만. 아마 자식들이 아비없이 막 자란 후레자식이라는 말을 들을가봐 강심을 먹으셨던 모양이야.

일찌기 우리 할아버지가 없고나서 문중의 좌장노릇을 맡아온 작은할아버지는 랭수를 마시고도 큰기침을 하는 꼬장꼬장하고 엄한 선비시였지. 허허… 마치 어제일처럼 생각되네그려. 글공부중에 내가 헛눈이라도 팔면 당장에 산죽뿌리로 된 작은할아버지의 서산대가 종아리에 떨어지군 하던 일이랑 책 한권을 뗄 때마다 책씻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떡을 빚어 동네에 돌리던 일들이 말일세.

더더욱 잊혀지지 않는건 왜놈들의 폭정밑에서 기를 못 펴고 살아가던 고향사람들의 모습이네. 거 그전에 학질을 떼기 위해 <염라대왕>과 <어영대장>이라는 무서운 이름을 써서 이마에 붙이는 주술료법이 있더랬지. 글쎄, 어찌나 왜놈들이 못되게 굴었던지 우리 고장

사람들은 학질에 걸리면 조선총독이나 파출소장의 이름을 이마에 써붙이군 했다니까. 어느해인가 옆집 임신부가 밀주단속 나온 왜놈 순사의 발길에 채워 피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린 마음에도 <쪽발이새끼들!>이란 욕설이 저절로 튀여나오더구만. 그때부터 난 왜놈들만 보면 겁보다도 분한 마음이 앞서군 했네.

내가 일곱살 되던 해였네. 몇해동안 소식 한장 없던 아버지가 불쑥 고향에 편지를 보내왔더군. 일본에서 무사히 지내고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였네. 어머니는 편지내용을 전해듣자마자 동네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없이 세 자식을 거느리고 일본으로 떠나셨네. 휑뎅그렁한 들판에 마른바람이 슬프게 불던 가을날이였지. 목메인 고동소리를 울리며 떠나던 관부련락선 3등실에서 둥근 선창에 얼굴을 갖다대고 멀어져가는 부산부두를 바라보며 눈물지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가슴을 에이군 하네.

아버지가 거처하신다는 오사까근처의 히라가따라는 도시에 우리 모자일행이 이른것은 여러날이 지나서였네. 너무도 뜻밖이였던지라 아버지는 기가 차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더구만. 가문의 종손된 도리를 영 외면할수가 없어 문중어른들께 안부 몇자 적어보낸 일이 그렇게까지 번져질줄은 아버지도 미처 생각지 못한 모양이야. 그래도 어찌겠나. 세 자식까지 앞세우고 현해탄을 건너 수천리길을 찾아온 어머니를 차마 문전박대할수 없었던지 아버지는 다른 말을 못하고 우릴 받아들이셨네.

그 당시 아버지는 고철상을 하고계셨네. 후날 이야기를 들으니 문중사람들에게서 걷어모은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온 아버지는 처음에 공부를 해보려고 했지만 민족차별이 격심한 일본사회를 체험하면서 인츰 환멸을 느끼셨다더군. 그렇다고 다시 고향에 돌아갈 체면도 없었던지라 아버지는 모든것을 다 포기해버린채 혹

가이도에서 시꼬꾸까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녀자를 사귀고 도박을 즐기셨다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아무곳에나 머물러 날품팔이를 하시고 돈이 생기면 또다시 내키는대로 떠나군 하셨지. 타락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불행을 숙명으로 알고 살수밖에 없었던 망국노의 못난 몸부림이라고 해야 할지… 그렇게 정처없이 헤매다니던 아버지는 어느날 우연히 만난 삼촌벌 되는 한 친척분에게서 호된 꾸중을 듣고서야 비로소 방랑을 그만두게 되시였다는걸세.

하지만 우리가 일본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의 방랑벽은 재차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네. 아버진 매일같이 집을 비우고 어데론가 나갔다가는 밤이 이슥해서야 곤드레만드레 취한 몸을 난파선처럼 기우뚱거리면서 들어오군 하셨네. 그리고는 까닭없이 어머니와 우리들에게 역정을 내기도 하시고… 정말이지 술이 없으면 한 순간도 살아갈수 없는분 같더라니까.

별수없이 생계는 어머니와 형님들이 걸머지지 않으면 안되였네. 어머니는 걸레며 밀대 같은 청소도구를 만들어 병원에 납품하는 일을 얻어하셨고 두 형님은 때이르게 손수레를 끌고 파철을 모으러 다녔지. 그런 속에서도 어머니는 막내자식 하나만은 공부를 시켜보려고 나를 근처의 국민학교에 보내시더군.

허나 일본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배운것이란 쓰디쓴 렬등감과 비굴한 인내심뿐이였네. 아침마다 교장은 철부지학생들을 운동장에 정렬시키고 히노마루를 가리키며 묻군 했지. <저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러면 아이들은 일제히 대답했네. <히노마루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조선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럼 중국사람인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일본사람입니다!>. 교장이 반복하여 물을수록 아이들은 더욱 기세가 올라서 자기들은 <일본사람>이라고 목청껏 떠들어댔네. 그러는 학생들

속에는 나 같은 조선아이들도 섞여있었건만 다른 민족에 대한 교육적배려는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조선사람이 조선사람으로 될수 없는 마당이였지.

조선아이라고 따돌리는 일본애들의 <이지메>(집단적으로 몰아주는 것)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것이였네. 내가 일본말을 서툴게 하면 아이들은 제가끔 흉내를 피워 날 조롱했고 내가 고무신이라도 신고 있는걸 보면 <쬥꼬, 쬥꼬>(일본인들이 조선사람을 멸시하여 부르는 말) 하면서 못살게 굴었네. 그럴 때마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골백번 꿈틀거렸지만 자식 하나를 학교에 보내놓고 늘 대견해 하시는 어머니앞에서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더구만.

난 일본애들의 놀림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네. <조센징 닌니꾸 구사이>(조선사람 마늘냄새 고약하다.)라고 경멸하는 왜놈애들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마늘이나 고추장 같은건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네. 그뿐이겠나. 날마다 손으로 코를 부여잡고 열심히 일본말의 코소리를 련습하기도 했지. 난 조선을 모국으로 갖고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네. 일본땅에서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조센징>이라는 말을 듣는것이 죽기보다 더 괴로웠네.

어느날 있은 일이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더랬지. 아이들은 왁자그르 떠들며 집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네. 나도 애들속에 끼워 정신없이 달음박질치는데 불현듯 길모퉁이에서 누군가가 내 손목을 붙잡더구만. 돌아보니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마중나오신것이였네. 억수로 쏟아져내리는 비발속에서도 어머니가 신고계시는 흰고무신이 유표하게 내 눈을 찔러왔네. 순간 학급애들의 눈에 띄울가봐 더럭 겁이 나더군. 난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뺐네. 온몸에 차가운 비를 맞으며 어쩔줄 몰라 망연히 서계시는 어머니를 등뒤에 남긴채 말일세. …

정말 울고싶도록 슬픈 순간이였네.》

박상열의 말은 돌우에 부딪친 비방울처럼 흐트러지고말았다. 상열은 수치를 가리우려는듯 고개를 떨구더니 안경을 벗고 축축하게 젖어든 눈구석을 주먹으로 찍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경식의 가슴도 뻐근한 아픔으로 저려났다. 한동안이 흘러서야 상열은 이마전에 내배인 땀을 훔치며 다시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날 밤이였네. 아버지는 여느때보다 더 만취해서 들어오셨는데 글쎄 나를 보자마자 불이 나게 따귀를 후려갈기시는게 아니겠나.

<이놈아! 제 부모가 그렇게도 창피하면 래일부터 당장 게다짝이나 걸치고 다녀라!>

이렇게 고함을 지르시는 아버지의 얼굴은 쓰라린 분노와 노여움으로 하여 괴롭게 이그러져있었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날 우연히 거리를 지나가던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를 뿌리치고 달아나는 꼴을 죄다 지켜보셨다는걸세. 난 너무 얼이 나가 코피가 터져 흐르는것도 닦을념을 못하고 아버지앞에서 벌벌 떨기만 했네. 늘쌍 어머니와 우리를 싫어하시는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의 돌같은 가슴속에 그처럼 격렬한 감정이 숨어있는줄이야 어찌 알았겠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가 날 때린건 단지 어머니에 대한 동정심때문만이 아니였던것 같네. 난 그 시절의 아버지가 왜 밥상앞에 마주앉으면 기어코 된장찌개부터 찾군 하셨는지, 그런가 하면 고향을 버리고 오시면서도 어째서 가문의 족보책만은 고집스레 품에 안고 오셨는지 오늘에야 어렴풋이 알것 같네. 그러이. 고향과 문중사람들한테서 불효자식이라고 지탄을 받아온 우리 아버지도 결국은 민족의 아들이였네.

그날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쫓겨난 나는 온밤을 밖에서 보낼수밖에 없었네. 우리 집의 대고리짝속엔 가문의 족보인 <반남박씨세

보>가 들어있었는데 다음날부터 난 아버지의 지엄한 명에 따라 저녁마다 족보의 전체 내용을 소리내여 읽고 옮겨베끼지 않으면 안되였지. 허허허…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아버지의 처사가 선뜻 리해되지 않더구만. 이따금 심부름을 갔다가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인마을의 정경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멸시받는 겨레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조센징>이라는 렬등의식은 못견디게 나의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군 했네.

그러던 나의 마음속에 배달민족의 기가 살아오르기 시작한건 중학교 1학년때였지. 내가 다니던 학교에 미야자끼라는 량심적인 교원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선생이 력사시간에 이런 내용의 말을 하더구만.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나라는 구다라(백제)다. 불교만이 아니라 일본의 온갖 문화가 거기서 건너왔다. 따라서 구다라는 일본문화의 은인이요, 뿌리라고 할수 있다. …>

미야자끼선생의 이야기를 듣는 나의 온몸엔 환희와 감동이 전류마냥 흐르고있었네. 이튿날부터 난 시내의 도서관들을 찾아다니면서 구다라와 관련된 서적들을 뒤져보기 시작했네. 정말 놀랍더구만. 일본의 지명들과 낱말들, 력사와 문화의 갈피들마다에서 구다라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았을 때, 더구나 운명적인 인연이라 해야 할지 내가 살고있는 히라가따라는 고장이 백제신사며 왕인묘 같은 백제인들의 자취를 많이 간직하고있는 까닭에 <일본속의 백제>로 불리운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나의 충격은 이루 말할수가 없었네. 자랑할것이라군 아무것도 없는줄 알았던, 그래서 멸시를 받을수밖에 없는줄 알았던 우리 민족에게 그렇듯 가슴벅찬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앞에 어린 나의 심장은 미칠듯이 높뛰였네.

자기 민족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길 때 생각지 못한 힘이 솟구치는것 같네. 난 평소에 날 <조센징>이라고 멸시하며 못살게 굴던 일본애들에게 가슴을 펴고 당당히 선언했네. <난 구다라징이다!> 하고 말일세. 그때부터 난 학급애들중에 누가 날 <조센징>이라고 놀려주면 젖먹은 힘까지 다 내서 달려들군 했더랬지. 내 눈등에 난 흠집도 그래서 생긴거구. 허허허… 중학시절에 내가 학교야구팀의 투수로 맹활약을 할수 있은것도 그리고 힘겨운 조건을 무릅쓰고 고등학교까지 다닐수 있은것도 따지고보면 <난 백제의 후손이다. 그러니 일본애들한테 눌리면 절대로 안된다.>는 오기와 뚝심때문에 가능했던것 같네. 난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백제인으로 성장해갔네.

중학을 마치고 도꾜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백제에 대한 나의 애착은 여전했네. 동료들이 류행을 따른다고 괴테의 <파우스트>나 앙드레 지드의 소설책을 멋삼아 겨드랑이에 끼고 다닐 때도 난 항상 백제와 관련된 서적만 고집스럽게 품고 다녔으니까. 고백하건대 침략당하고 모욕당한 약소민족의 후예였던 나에게 있어서 백제는 자기를 버티여내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걸세. …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듬해 태평양전쟁이 터졌지. 온 일본땅이 <멸사봉공>과 <야마또정신>으로 강다짐되고 내인들마저 몸뻬차림에 죽창을 들고다녀야 하던 그 살벌했던 시절은 떠올리기조차 소름이 끼치는구만. 자네도 겪었겠지만 그때 왜놈들의 발악이 오죽이나 심했나. 결국은 나도 학도병으로 남양군도에 끌려나가지 않으면 안되였지. 비참하고 지겨웠던 전쟁터에서 어떻게 내가 죽지 않았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놀랍기만 하네. 그때 내 머리속에는 오로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짓밟고 짓이겨도 살아나고 석달을 가물

어도 살아나는 길짱구처럼 악착스럽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뿐이였네.

마침내 그처럼 갈구하던 해방의 날이 왔네. 우리 겨레에게 24시간 내내 태양이 떠있던 그날의 감격은 자네에게도 마찬가지였을테지. 내가 사지판에서 살아오니 어머니랑 징용터에서 돌아온 두 형님이 나를 부여안고 온밤 울며웃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더구만. 하지만 식구들속에 아버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네. 술에 절어 오욕의 세월을 근근히 견디여오던 아버지는 온몸에 푸르딩딩 간독이 올라 해방을 몇달 앞두고 불이 꺼지듯 세상을 떠나셨다는게 아니겠나. 달래김치가 먹고싶다는 고별의 말을 남기시고 말일세. …

난 형님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에 돌아갈 차비를 서둘렀네. 하건만 어디 배를 구할수가 있어야지. 들려오는 소문이 일본전국에서 물밀어드는 동포들바람에 시모노세끼며 오사까항은 사람사태가 날 지경이고 수많은 동포들이 한지에서 며칠을 기다려봐도 배편이 차례지지 않아 아우성이라는것이였네. 거기다가 전염병까지 발생해서 무리로 사람들이 쓰러지고있다는 소식에 우리일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슴만 태우고있더랬지. 그럴즈음이였네. 하루는 어떤 동포유지가 찾아와서 대뜸 날더러 히라가따동포상조회의 부회장사업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것이였네. 8.15직후 일본도처에서 재일동포들의 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지 않았나. 히라가따동포상조회도 그런 단체들중의 하나였지. 취지를 들어보니 히라가따시에 사는 동포들의 귀환대책과 민생방조를 목적으로 무은 단체였는데 내가 젊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한데다가 구변까지 좋아 적임자라던지. 허허…

난 두말없이 응해나섰네. 당장 귀국할 길이 막연해서였기도 했지만 해방된 세상에서 나도 민족을 위해 뭔가 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젊은 혈기가 막 북받쳐오르는것을 어쩔수 없더구만. 난 힘든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여다녔네. 일터를 잃고 실업상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미군공습으로 불타버린 시가지의 한쪽귀퉁이를 빌려 자그마한 간이점포들을 꾸려놓는 일도 도와주었고 장사할 힘이 없는 동포들을 위해서는 전쟁통에 폐허가 된 곳을 정리하는 막로동도 알선해주었지. 그런가 하면 상조회간부들과 함께 시청으로 몰려가 당국자들의 민족차별정책에 항의를 들이대기도 했더랬네.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치는데 뜻밖에 고향에서 편지가 날아오질 않겠나. 고종사촌형이 내 소식을 전해듣고 인편으로 보내온 편지였네. 사연인즉 해방이 되자 그 형님이 고향의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향토사를 연구정리할 목적으로 <부여문화동호회>라는걸 내왔다더구만. 헌데 글쎄 일을 시작하자고보니 중요한 사료의 하나인 <부여읍지>를 왜놈들이 략탈해갔다는게 아닌가. 고향의 사적을 기록해놓은 그 책이 없이는 향토사연구가 곤난하니 아무쪼록 환국하기 전에 <부여읍지>의 행방을 꼭 알아봐달라는 부탁이였네.

그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왜 그리도 가슴이 울렁거리던지… 마치 내자신이 사명당이라도 된것 같더구만. 난 이튿날부터 지체없이 읍지를 찾는 일에 달라붙었네. 인젠 해방이 됐는데 산인들 떠옮기지 못하랴 하는 배심으로 말일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야 난 그 일이 진창길에 흘린 좁쌀알을 찾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걸 깨닫게 됐네. 하지만 포기할수가 없었네. 단순히 고향사람들의 부탁을 외면할수 없다는 도리때문만이 아니였네. 그보다 더 내 결심을 요지부동으로 만든건 읍지의 행방을 찾아헤매는 과정에 목격한 기막힌 현실이였네. 글쎄, 우리 민족의 귀한 고문헌들은 죄다 일본에 와있더라니까. 고서업계에 눈이 트이면서야 난 임진왜란때 왜적들이 <조선본>이라고 하는 우리 서적들을 거의 씨를 말릴 지경으로 도

적질해갔다는걸 알게 됐네. 어찌 그뿐이겠나. 이등박문과 데라우찌를 비롯한 비렬한들이 왕조의 실록이랑 규장각의 장서를 비롯해서 수많은 민족고전들을 몰래 빼돌린 사실도 자상하게 알수 있었지. 오죽하면 일본인들자신이 조선의 민족고전을 구하려면 오히려 일본에서 찾아보는게 낫다는 말까지 하고있겠나.

참으로 통탄할 일이지. 난 번번이 헛물을 켤적마다 왜놈들이 도적질해간 우리의 고서제목들을 아는껏 속으로 외워보면서 강심을 도슬러먹군 했네. 어느새 두달 남짓한 시일이 흘러갔네. 그새 귀국하는 배편도 여러차례 나섰건만 나때문에 어쩔수 없었던 두 형님은 더 참을수 없었던지 어머니를 모시고 어서 떠나자고 불같이 독촉했네. 사실 해방된지 몇달이 되도록 아버지의 유해를 고향에 모시지 못하고 어머니마저 여적 이역의 찬바람을 맞으시게 하였으니 난들 자식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왜 없었겠나. 고심끝에 난 어머니와 형님들에게 내 걱정일랑 말고 먼저 귀국하라고 힘겹게 말을 뗐네. 두말할것없이 식구들이 펄쩍 뛰더군. 어머니는 아무 말씀없이 한숨만 쉬시는데 형님들은 날더러 실성한 놈이라느니, 그 놈의 공부가 웬쑤라느니 하며 갖은 욕설을 다 퍼붓는거네. 그래도 난 마음을 바꿀수가 없었네. 해방된 땅에서 왜적에게 유린당했던 제 고장의 력사부터 떳떳이 바로세우고싶어하는 고향사람들앞에 어떻게 빈손으로 나설수 있단 말인가. 사비성과 황산벌에 묻혀있는 백제의 원혼들이 날더러 뭐라고 하겠는가 말일세. 이대로 물러서는건 숱한 우리 재부를 로략질하고도 뻔뻔스레 시치미만 떼고있는 왜놈들에게 무릎을 꿇는거라 생각하니 울화가 치밀어올라 더더구나 단념할수가 없었네.

나중에 어머니와 형님들은 소 만마리가 끌어도 돌려세우기 힘든 녀석이라고 도리를 저으며 나앉더구만. 하지만 막상 오사까부두에

서 가족들과 리별할 땐 눈물이 쏟아져나오는걸 겨우 참았네. 헤여지는 순간까지 막내자식의 손을 부여잡고 놓으실줄 모르시던 어머니에게 난 인츰 따라가겠다고, 인츰 가겠으니 념려하지 마시라는 말씀밖에 더 드릴수가 없었네. …

어머니와 형님들이 귀국길에 오른 뒤 난 상조회사업에서 아주 손을 떼고 히라가따에 조그마한 고서점을 하나 차려놓았네. 전적으로 <부여읍지>를 찾는 일에만 몰두하기 위해서였지. 그런데 고서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게 어디 쉬운 일인가. 지금껏 난 고서상인들가운데서 떼돈을 번 사람은 본적이 없네. 여느 고물업과는 달리 고서점이라는게 주로 가난한 서생들만 상대해야 하니 그럴수밖에. 거기다가 주위에서 시퍼렇게 젊은 녀석이 할 일이 없어서 케케묵은 고서더미속에 파묻혀 지내나 하는 소리들이 들려올 때면 솔직한 말로 남보기 뭣한 때도 없지 않더구만. 하지만 난 고향의 재보를 되찾아가지고 귀향할 그날만을 꿈꾸며 모든것을 참고 견디여나갔네. 그렇네, 내겐 꿈이 있었네. 백만장자의 재산과도 바꾸기 싫고 이 세상 온갖 유혹과 비웃음에도 무너질수 없는 내딴의 소중한 꿈이 말일세. 그런 꿈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귀국도 미룬채 겨우내 불한번 제대로 지필수 없는 랭돌같은 자취방과 흙바람 맵짠 이역의 골목길에서 가난한 고서업자로 살아갈수 있었겠나.

그러는 동안 고향에선 수십번도 넘게 귀국을 독촉하는 편지가 왔었네. 헌데 그 편지들이 나에겐 오히려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게 하는 엄한 채찍질로 여겨지더구만. 난 편지를 받을 때마다 기어코 뜻을 이루고서야 환국하겠다는 결심을 새삼스럽게 가다듬군 했지.

두해가 지나고 세해가 지나도 내 고집이 흔들리지 않자 어머니는 생각을 달리하셨던지 어느날 난데없이 혼처를 정해서 알려오시더구만. 문중사람의 소개로 들어온 혼처였는데 도꾜에서 크지 않은 음

식점을 운영하는 한 동포상인의 딸이라는것이였네. 너무도 청천벽력이였지만 어머니앞에 불효막심해온 나로서야 무슨 군소리를 할수가 있었겠나. 그렇게 돼서 안사람과 만나게 되였네. 결혼을 하고나서 도꾜로 자리를 옮긴 뒤 난 또다시 여기에 고서점을 차려놓았지. 저 사람이 질색을 했지만 말일세. 허허허…》

박상열은 물그릇을 들고 들어서는 안주인을 가리키며 헌거롭게 웃었다. 그러자 안주인이 그들앞에 물그릇을 가져다놓으며 너름새좋게 끼여드는것이였다.

《에그, 말씀도 마이소. 지가 처음엔 참말로 기절하는줄 알았십니더. 글쎄, 함께 길을 가다가도 홀지에 지나가는 고물장사군의 손수레를 뒤지질 않나, 집안을 왼통 빈대천지로 만들질 않나. … 한번은 그놈의 빈대때문에 우리 친정집까지 발칵 뒤집어놓은적이 있지 않습니껴.》

《핫하하…》

상열이 안주인의 말에 한바탕 웃음보를 터뜨렸다.

《빈대라니?》

경식은 영문을 몰라 그들 내외를 바라보는데 얼마후 상열이 여전히 웃음집이 흔들거리는 어조로 설명을 달았다.

《빈대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아닌게 아니라 헌책을 구입하다보면 그놈때문에 골치를 앓게 되는 때가 한두번이 아닐세. 내 언젠가 고서 몇권을 구해가지고 오다가 일이 생겨 근처의 처가에 맡겨두었던적이 있었네. 그런데 뜻밖에 그속에서 빈대무리가 쓸어나올줄이야. 처가에선 빈대소동으로 대판 란리가 터지고 1년 내내 그놈들을 박멸하느라고 고생개나 해야만 했지. 그 일이 있은 후로 처켠 사람들은 묵은 서적을 보기만 해도 질겁을 하고 달아난다네. 하하하…》

듣고보니 리경식도 웃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흔연스러운 웃음에 가리워져있는 박상열의 도고한 뜻과 고심겨운 노력이 헤아려져 가슴이 뭉클해왔다. 속물근성이 성행하는 이 일본땅에서 저렇게 살아간다는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식은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어디 가나 무자비한 생존경쟁이 란무하고 돈과 권세와 향락에 대한 욕구만이 번성하는 자본주의세계에서 세상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에 매달릴 대신 소귀신처럼 자기가 결심한 일에 일생을 걸고 겨레와 후손들을 위해 제나름으로 젊음을 태워가는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어깨를 그러안을수 있는 소중한 벗들이 아니겠는가.

리경식은 박상열이 겪어온 그 모든 고초와 희생을 함께 나누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그에게 물었다.

《<부여읍지>는 여태 찾지 못했나?》

경식의 물음에 상열은 히죽이 웃더니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실은 몇해전에 규슈에 사는 한 동포가 읍지를 찾아 고향에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네. 그 말을 처음 전해들었을 땐 손맥이 다 풀리더구만. 지금껏 기울여온 노력이 고스란히 헛공사로 된것만 같더라니까. 하지만 곰곰히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구. 일본인들에게서 되찾아야 할 재보가 어찌 <부여읍지> 하나뿐이겠나. 아까 자네도 봤지만 읍지를 찾느라 헤매다니는 과정에 내가 구입한 민족고전들만 해도 퍼그나 된다네. 난 이왕 이 길에 들어선바엔 일본땅에 널려있는 우리의 옛책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가지고 귀향하리라 마음먹었지. 그러다나니 오늘까지 차일피일 귀국을 미루어온거구. …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벌써부터 이남의 대학들과 연구기관들에선 수집한 장서를 기증해달라는 청탁을 내게 뻔질나게 들이대고있다네. 그럴 때마다 좀 성가시긴 해도 기분은 나쁘지 않더구만. 금의환향이라고까지 말하긴 뭣하지만 아무튼 나도 빈손으

로 고향에 돌아가진 않게 되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흐뭇해지군 하네. 허허허…》

박상열의 동그란 얼굴에 소년같은 천진스러운 웃음이 떠돌았다. 그런데 곁에서 안주인의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쯧쯧, 듣자니 이남땅에서두 돈과 빽이 없으면 죽은 목숨 한가지라던데 인규 아부지의 그 수고를 누가 제대로 알아나주겠습니껴. 지발 가족들 걱정버럼 하시문 좋겠십니더.》

우선우선한 태도로 건네는 푸념이였어도 녀인의 말속에는 집일을 돌보지 않는 남편에 대한 야속함이 짙게 슴배여있었다. 경식은 문득 안해생각이 났다. 그의 안해 역시 가정살림을 혼자 떠안고 남모르는 마음고생을 얼마나 해왔던가. 저도 모르게 측은한 생각이 들어 경식은 안주인에게 위안삼아 말했다.

《그간 아주머니고생이 많았겠습니다.》

안주인은 경식의 말에 속이 물컹했던지 무랍없는 하소연을 터놓았다.

《고생이라기보담 이따금 서러운 생각이 들어 그럽니더. 남들은 빠찡꼬를 차린다, 면옥을 해본다 하며 눈에 피발이 서서 뛰여다니건만 저 어른은 예나 지금이나 늘쌍 헌책들만 뒤지고계시니 참말로 속타는 일이 아입니껴. 도대체 거기서 돈이 나옵니껴, 밥이 나옵니껴.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른 장사를 시작하겠다문 본가에서랑 기꺼이 뒤를 대주겠다는데도 고집이십니더.》

하건만 상열의 입에서는 시를 읊조리듯 배포유한 소리만 흘러나올뿐이다.

《허, 창공을 날으는 기러기의 뜻을 제비며 참새들이 어찌 알리오. 더구나 대장부가 체통도 없이 처가집에나 매달려 살가.》

옛날 유생들마냥 올방자를 틀고앉아 바라진 몸집을 흔드적거리

는 박상열의 거동에서는 자못 거드름스러운 가장의 위엄이 번져흐르고있었다. 남편의 그런 모습에 기가 차는지 안주인이 또다시 응수를 했다.

《그라문 여직껏 우리가 이 고서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껴. 여기서 얻는 수입으론 집세도 대기 힘이 든다는걸 인규 아부지도 잘 아시지 않습니껴. 사실 이 고서점도 누가 장만해준깁니껴. 다달이 턱없이 모자라는 가계비는 누가 보태주고요. 지는 그것이 섭섭하다는깁니더. 왜 우리 부모님들의 성의를 그리두 무시하시는가 말입니더. …》

상열은 심기가 불편한지 안경을 벗어 닦으며 연신 엉치를 들먹거린다. 그러거나말거나 안주인의 푸념은 그칠줄 몰랐다.

《전번에 기와인지 막새인지 하는걸 들여오실 때도 그렇십니더. 아무리 백제물건이 중하다한들 어떻게 그러실수 있습니껴. 그기 어떤 돈입니껴. 우리가 점포라도 따로 마련해서 가계에 보태라구 친정아버님이 피나게 벌어 보내주신 돈이 아입니껴. 그런 돈을 그렇게 한마디 상론도 없이 훌떡 꺼내가시문 지가 인제 부모님들께 머락꼬 변명하는가 말입니더.》

《아, 듣기 싫어!》

그만에야 가장이 버럭 역정을 냈다. 박상열은 얼굴이 시뻘개서 충청도특유의 억양으로 말까지 더듬으며 안해를 욱박지르는것이였다.

《그렇게 돈을 내기 아까우면 말이여, 엉!… 뭐, 뭣때문에 신라가 외적을 끌어들여가지구 백제를 멸망시켰는가 말이여! 엉!》

그러니 자기는 백제인이고 경상도출신의 처켠 사람들은 신라인이라는건가. 긴장된 속에서도 웃음이 솟구쳐나와 경식은 그만 폭소를 터뜨리고말았다.

《하하하…》

그바람에 박상열부부도 제풀에 어이가 없었던지 허거프게 따라 웃지 않을수 없었다.

9. 격노한 사무라이

《각하께서 자넬 만나시겠다네.》

가루베는 잘못 듣지 않았나 해서 서기의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인제는 개들도 꼬리를 칠만큼 고마무라에 걸음을 했건만 여직 만나주지조차 않던 주인이 아닌가. 그런 주인을 두고 죽일놈의 두상태기라고 뒤욕인들 얼마나 많이 퍼부었던가. 그런데 별안간 이렇게 불러들이다니?…

어리뻥해 서있는 가루베에게 서기가 불안을 감추지 못하며 귀띔했다.

《헌데 주의하라구. 각하께선 자네 말을 전해듣고 심기가 매우 불편해하시네.》

가루베는 그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그런즉 아라기 사다오가 자기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단 말이지. 행여나 해서 서기에게 던진 한마디 말이 요지부동이던 령감의 마음을 움직여놓았다는게 스스로도 놀랍기만 했다. 금시 목구멍이 말라들고 오한이라도 만난듯 온몸이 떨려났다. 가루베는 흐드득 솟구쳐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삼켜버렸다.

심기가 불편해한다구? 하긴 미꾸라지국 먹고도 룡트림을 하는 령감이 하루아침에 망신거리가 되였으니 그럴만도 하지. … 노발대발

할 두상의 모습이 방불하게 떠올랐다. 그때문에 첫 대면부터 거북살스레 될건 뻔했지만 아무튼 일은 제대로 돼가는셈이였다. 가루베는 길고짧은건 대봐야 안다고 생각하며 급히 서기를 따라나섰다.

서기의 방에서 나온 두사람은 정원으로 향했다. 볼에 닿는 바람이 차거웠다. 누런 겨울해살이 정원을 비치는데 석류나무의 엉성한 가지우에서 참새들이 귀찮게 재잘대고있었다. 그래도 손질하느라 애쓴 관목들이며 산보길을 보니 말년의 고독과 애수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보려는 늙은 주인의 서글픈 모지름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새도 죽음에 이르면 울음소리가 구슬퍼진다던가. …

은연중 찾아든 이런 애상에 가루베의 퉁방울눈은 제법 눅눅해왔다. 그러던 그의 걸음이 갑자기 비칠거렸다. 가마니에 싸인채 정원 한구석에 처박혀있는 종려나무 두그루를 보았던것이다. 아무리 눈여겨봐야 지난가을에 자기가 보낸 나무들이 헨둥하지 않은가. 가루베는 그만 소태먹은 우거지상이 돼버렸다. 아라기에게 희귀한 수종의 정원수를 진상하느라 수천리 떨어진 규슈남단에까지 가서 돈인들 좀 많이 썼던가. 그렇게 갖은 품을 들여가며 구해온 나무들이 개밥에 도토리취급을 당하고있는 꼴을 보니 참기 어려운 수모감에 기가 꺽 막혀왔다.

하지만 가루베는 꼭두까지 치미는 부아통을 애써 삭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다른 도리가 없었다. 아라기 사다오 같은 큰 인물을 상대하자니 어차피 감수해야 할 수모라고 그는 생각했다.

(참을인자 셋이면 큰사람이 된다 했겠다. 참자, 이런 천대를 참고 견디느라면 언제건 반드시 되갚을 날이 올테지.)

가루베는 킁킁 코그루를 박으며 육중한 몸을 엉큼엉큼 움직여갔다.

련못근처에 이르러 소로길에 들어서니 느럭느럭 게다를 끄는 소리

가 들려왔다. 메마른 꽃나무가지들사이로 아라기가 산보하는 모양이 어른거렸다. 덧옷을 든 하녀가 공손히 뒤따르고있었다. 한손으로는 지팽이를 짚고 등뒤에 얹은 다른 한손으로는 빈 가위를 찰깍거리며 꽃나무들을 돌아보는 늙은이의 모습은 생각했던것과는 달리 퍼그나 한가해보였다. 가루베는 잠시 멈춰서서 안경을 고쳐낀다, 대머리를 다듬는다 뒤설레를 떨고나서 황급히 서기의 뒤를 쫓아갔다.

《데려왔습니다.》

서기가 아라기에게 다가가 짤막하게 여쭈자 강대처럼 갱핏한 늙은이의 몸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 순간 가루베는 저도 모르게 사지가 움츠러들고말았다. 몸서리치도록 매몰찬 눈길이 그에게로 날아들었던것이다. 무서운 눈빛이였다. 주위의 모든것을 얼어붙게 하는 저토록 살기찬 기운이 팔십객의 노닥다리한테서 쏟아져나온다는 사실앞에 가루베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게다가 아라기는 오늘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구일본군의 륙군대장제복까지 걸치고있지 않는가. 심사가 뒤틀릴 때마다 해묵은 군복을 걸쳐입군 한다는 아라기의 괴벽에 대해 들은바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목격하기는 처음이였다. 그 군복에서 뻗쳐나오던 불가항력의 질식감, 온 렬도를 악패듯이 휘둘러대던 절대권력의 살벌했던 기상이 전률속에 떠올랐다. 대번에 범 본 개마냥 주눅이 든 가루베는 유들진 얼굴에 비굴한 웃음을 띠우며 아라기에게 굽신거렸다.

《가루베 신조라고 합니다. 각하께 이렇게 직접 문안을 올리게 된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라기는 그러는 방문객을 대충 훑어보고는 허드레손이나 대하듯 이내 머리를 돌려버렸다. 그리고는 어딘가를 바라보며 딴소리를 한다.

《한겨울에 용케도 피여나는구나.》

늙은이가 느적느적 그리로 걸어갔다. 가루베도 서기며 하녀와 함께 시중군인양 뒤를 따랐다. 발가우리하게 부풀어오른 동백꽃망울들이 듬성듬성 가지끝에 붙어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아라기는 꽃을 고르려는지 손가위를 찰깍대며 동백나무들 주위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꽃망울들을 들여다보며 심드렁하니 묻는것이였다.

《그래, 뭐가 어찌되였다구?》

꾸어온 보리자루처럼 엉거주춤하니 서있던 가루베는 서기가 바삐 눈짓해서야 령감이 다름아닌 자기에게 묻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고개를 지르숙이는 가루베의 입언저리에 쓴웃음이 스쳐갔다. 그러고보니 겉으로는 저렇게 아닌보살을 해도 령감이 서기한테서 말을 전해듣고 젖먹은 밸까지 뒤집혀있는것이 분명했다. 기미를 눈치챈 가루베는 아래배에 그득히 힘이 실리는것을 느끼며 좀전에 서기에게 퉁겨주었던 말을 아라기에게 다시금 뱉아놓았다.

《각하, 여쭈옵기 송구합니다만 달포전에 각하의 장서를 정리하러 왔던자들이 저… 조선인들이라고 합니다.》

아라기가 깔보는듯 한 눈찌로 가루베를 흘깃했다. 네깟놈이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묻는것 같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가루베가 우물거리는데 고맙게도 서기가 약삭바르게 나서주었다.

《이 가루베군은 오랜 문화재전문가여서 그 분야에선 소식통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가루베 신조는 이른바 《백제고고학의 권위자》로 자처하는 대학강사였다. 아라기에게 연줄을 놓으려고 벌써 이태째나 고심분투해오는 그였지만 거만스럽기 짝이 없는 왕년의 군벌은 비위살이 떡판같은 이 불청객을 상대할념도 하지 않았다. 다행히 아라기의 서기가 그런대로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품들여 삶아

놓은 덕에 서기는 주인의 기분상태며 움직임 같은것을 가루베에게 자상히 알려주었고 또 기회가 나질 때마다 주인에게 가루베에 대한 소리를 조심조심 여쭈군 하였다.

얼마전 가루베가 서기로부터 아라기의 장서를 정리하러 왔던자들에 대해 얻어들을수 있은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다. 서기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범상히 흘린 말이였고 가루베도 처음에는 어느 고서장사치나 학자나부랭이들이 왔댔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하면서도 수십여년간 골동품을 다루어온 가루베인지라 호기심이 동해 대체 어떤자들이 왔댔는지 인맥을 동원해 슬그머니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이게 어찌된 감투끈인가. 천만뜻밖에도 아라기의 장서를 정리해간자들이 조선인들이라는것이 아닌가.

가루베는 도무지 갈피끈을 찾을수가 없었다. 로망이 들지 않고서야 조선인들이라는걸 뻔히 알면서 아라기 사다오령감이 자기의 장서를 통채로 내보였을리 만무한것이다. 그러니 눈뜬 소경노릇을 했다는건가. 서기가 들려주던 말을 되씹어보니 필시 조선인들에게 얼리운 꼬라지였다. 사태의 진상을 깨닫는 순간 가루베는 깨고소해지는 기분을 금할수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지금껏 아라기한테서 오죽이나 업수임을 당했던가.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조선인들에게 속아넘어갔다는 사실을 아라기에게 알려주고 오만무례한 령감의 오장이 뒤집히는 꼴을 잘코사니야 구경하고싶었다.

그러나 뒤미처 먼 번개발의 어렴풋한 섬광 같은것이 가루베의 뇌리에 어른거렸다.

(옳아, 정말로 조선인들이 왔댔다는걸 일러바치면 꽤 재미있겠는걸. 두상이 불맞은 늑대처럼 지랄발광할게야. 아마 그 자리에서 날 불러들이라구 불호령을 내릴지도 모르지. 결국 일은 제대로 되는셈이 아닌가.)

궁하면 통한다고 급작스레 튀여오른 그럴듯한 묘책에 가루베의 가슴은 상사말 뛰듯 투닥거렸다. 불을 콱 싸질러서라도 아라기의 관심을 자기한테 끄당길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런다고 아라기가 웬걸 움직이겠나 하는 회의심도 컸지만 도굴군시절의 투기심이 되살아나 가루베는 오늘 또다시 걸음을 한 기회에 자기가 알아낸 사실을 서기에게 일러버렸다. 궁여지책이였다 할지… 헌데 거짓말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리도 마이동풍이던 두상이 덥석 미끼를 받아물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 모든것을 아라기에게 그대로 털어놓을수가 없어 가루베는 적당히 골라가며 사연을 설명해주었다. 늙은이의 움푹 패인 관자노리가 피상하게 울근거렸다. 고통, 수치, 분노와 앙심이 싸늘하게 굳어져가는 늙은이의 눈망울속에서 사납게 맞부딪치고있는듯 하였다. 가루베가 설명을 마쳤지만 아라기는 눈꼬리에 독이 올라 꽃망울들만 노려보고있었다. 숨가쁜 침묵이 흘렀다. 한동안이 지나 아라기의 입에서 가느다라면서도 짓눌리운듯 한 소리가 새여나왔다.

《대체 어찌된거냐?》

이번에는 서기에게 던지는 물음이였다. 살얼음우에 서있는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던 서기가 접시물에라도 빠져죽고싶다는 표정을 지어보이며 변명했다.

《죄송합니다, 각하. 워낙 문부성과 옛 지기들쪽에서 각별히 부탁해온데다가 각하께서도 수차례 장서를 정리해버리라고 분부하셨던지라 제가 미처 그자들의 신상에 대해 자세히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각하!》

아라기의 얼굴에 피기가 번져갔다. 서기는 기가 질려 어쩔바를 몰라하며 황황히 덧붙였다.

《각하, 너무 상심마십시오. 당장 그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각하의 장서를 되찾아오겠습니다. 각하께서 화를 당하셨다는걸 알면 필경 법조계에서도 발벗고 나설겁니다.》

《허ㅡ》

갑자기 아라기가 허파에서 바람새는 소리를 쏟았다. 야멸찬 웃음을 입가에 사려문채 늙은이는 서기를 흘겨보며 뜨직뜨직 말했다.

《법에 고소한다?! 그러니 대일본제국의 륙군대신이 법정에 나서서 센징따위들과 아웅다웅한단 말이지. 흠, 그것 참 가관이겠구나. 그 꼴을 세상사람들이 보면 뭐라 할가? 저 아라기가 인젠 갈데 없는 송장이구나 하구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가? 이봐 서기, 군도 인젠 총기가 흐려지는가보군.》

악에 받쳐 시까스르는 늙은 주인의 조롱에 서기의 낯빛은 창백하게 질려버리고말았다. 아라기는 상처입은 짐승마냥 씨근벌떡대며 울화통을 터뜨릴 대상을 찾는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는 늙은이의 꼴을 가루베는 두려움속에 지켜보았다.

가루베의 생각에도 서기의 방도라는게 신통해보이지 않았다. 아라기가 조선인들의 말만 듣고 장서정리를 맡겼다면 몰라도 기본동기야 어디까지나 유력가들의 청탁때문이 아니였던가. 또한 아무리 민족차별이 통하는 일본사회라 해도 조선사람과 상대하면 안된다고 감히 법조항에까지 쪼아박지는 못한 형편에서 무턱대고 조선인들을 사기죄로 몰수도 없는노릇이였다. 하긴 아라기의 이름을 대면 법관들도 모른다 하지는 않을테지. 허나 조선인들을 보증한 유력가들 역시 각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텐데 과연 일이 손바닥 뒤집듯이 뜻대로 될가? 설사 그리된다 해도 소송과정에 구일본륙군대신의 가련한 말년이 말짱히 드러나고 아라기의 체면이 여지없이 구겨박힐건 불을 보듯 뻔했다.

이러나저러나간에 불집을 터뜨린 장본인이였던지라 이 시각 가루베는 여간만 뒤가 저려나지 않았다. 이러다가 엉뚱한 불똥이 자기 한테로 튀여올것만 같아 속이 뒤숭숭해오는데 독기를 품고 주절거리는 아라기의 혼자소리가 가루베를 긴장시켰다.

《헌데 이상하구나. 그 조선놈들이 무엇때문에 내 장서에 그다지도 눈독을 들였을가?》

가루베가 풀어주어야 할 의문이였다. 침먹은 지네모양 이렇게 오금을 못 펴고있을 때가 아니였다. 모처럼 맞다든 기회에 지랄을 써서라도 아라기의 환심을 사야 한다고 도스르며 가루베는 입을 열었다.

《각하, 이번에 제가 문화재를 다루는 사람들을 두루 만나 좀 알아낸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왔던 두 조선인중 한자가 오래전부터 <조선향악보>라는 고서의 행방을 수소문해왔는데 각하의 장서를 노린것도 분명 그때문일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자들이 현재도 계속 그 책을 찾고있다는걸 보면 아직까지 목적을 이루지 못한가 봅니다.》

《<조선향악보>?》

아라기의 눈섭이 송충이처럼 꿈지럭거렸다. 잔뜩 시르죽어있던 서기도 그 말을 듣자 수선을 부리며 끼여들었다.

《아, 저도 생각납니다. 장서정리가 끝나갈무렵에 한자가 나한테 와서 그런 책제목을 물은적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라기는 호들갑을 떠는 서기를 아니꼽게 가로보더니 가루베를 향해 캐물었다.

《대체 건 뭘 하는 책인가?》

다행히 가루베는 늙은이의 그 질문에도 대답할 준비가 되여있었다.

《각하, 저도 그런 책이 있다는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조선향악보>는 <합방>이전에 조선궁중에서 쓰이던 민족음악을 기록한 악보집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민족음악을 연구하는데서 자못 가치있는 자료인데 <대동아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으로 들어온것으로 보아집니다.》

《흠, 그래서 조선놈들이 혈안이 돼서 찾는단 말이지.》

손가위를 쥔 손으로 카이제르수염을 비틀어꼬며 아라기가 묘한 웃음을 지었다. 차겁고 섬찍한 웃음이였다.

늙은이는 한동안 입을 앙다문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불쑥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가루베쪽을 바라보며 거만하게 묻는것이였다.

《문화재를 전문한다 했던가?》

(그러면 그럴테지.)

가루베는 속으로 무르팍을 탁 쳤다. 마침내 령감이 슬금슬금 이쪽을 넘보기 시작한것이다. 그는 능글맞은 웃음을 입가에 바르며 아라기에게 대답했다.

《예, 제국시절에 조선에 건너가 살면서부터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라기의 얼굴에 대뜸 랭소가 떠오르는게 아닌가.

《흥, 보아하니 조선에서 골동거래라도 한가보군. 하긴 그때 반도로 건너간 일본인가운데 적지 않은자들이 그런노릇을 하면서 제법 재미를 봤다지?》

《?》

가루베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말았다. 내흉스럽기 짝이 없는 이 령감이 벌써 자기의 구린 뒤를 다 알고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속이 켕겨왔다.

(어떻게 해서든 두상앞에 그럴듯한 모양으로 나서야 할텐데…)

안달이 난 가루베는 오뉴월 쉬파리마냥 넉살스레 아라기에게 달라붙었다.

《각하, 비록 골동품들을 다루었다 해도 자부심은 자못 큽니다. 동양의 우수한 보물들을 모조리 우리 일본에 걷어모으려 한것도 따지고보면 전장에서 무훈을 세운것 못지 않은 애국충정의 소행이 아니겠습니까.》

《흐흐…》

늙은이가 쓰거운 웃음을 흘렸다.

《마치 내앞에 흑룡회의 지사라도 와있는것 같구나.》

아라기는 야유조로 이렇게 빈정대더니 가루베의 늘어진 볼살이 역겹다는듯 골살을 찌프리며 외면해버렸다. 순간 가루베는 참기 어려운 모멸감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괘씸한 두상태기! 다 망해빠진 주제에 이 가루베 신조를 조롱하려들어!)

금방이라도 고래고래 악다구니소리가 튀여나올것만 같았다. 뭐 대일본제국의 륙군대신이라구? 저 늙다리가 기껏 했다는짓이 도대체 뭔데? 병졸들이 전장에서 무리로 죽어나갈 때 후방 한가운데 틀고앉아선 화약내도 맡아본적 없는 애숭이장교들을 추켜 쿠데타를 일으킨자가, 그것두 백주에 정부대신들을 기관총으로 쏴죽이게 한자가 륙군대신은 뭐 말라죽은 륙군대신이야! 늙다리가 걸치고있는 저 륙군대장제복이란건 또 몇푼어치나 나가기에?…

패전직후 가루베는 폐허가 된 도꾜의 어느 저자골목에서 저런 제복을 본적이 있었다. 요란한 훈장들로 치장된 제국의 륙군대장제복이 누구도 돌따보지 않는 헌옷가지들속에 끼워 장마당에 걸려있던 꼴이란… 그 꼬락서니를 저 령감이 한번 봤더라면 환장을 했

을테지. 에잇, 썩어문드러질 두상태기! 벼락이나 맞아 콱 뒈질 놈의 두상태기!…

분통이 터져와 미친듯이 속으로 쌍욕을 퍼부어대던 가루베는 불현듯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호되게 뒤통수를 후려쳐왔던것이다.

(이쯤한데 발끈하다니. 고마무라에 드나들면서 여태껏 당한 수모가 얼마라구.)

혹시나 눈치채지 않았는가 해서 가루베는 불안스레 령감의 동정을 엿보았다. 아라기의 가시돋힌 눈길이 아까부터 꽃나무들에 박힌채 움직일줄 모르고있었다. 가루베는 슬그머니 안도의 숨을 내쉬며 뻣뻣하게 굳어졌던 안면근육을 애써 풀었다.

그가 이처럼 곤욕을 참고 견디며 아라기에게 잘 보이려고 갖은 신고를 다 하는데는 그럴 까닭이 있었다.

제정때 조선에서 살던 가루베는 골동거간군들과 짜고 무려 수천여기에 달하는 백제무덤들을 도굴하여 일확천금한 사나이였다. 일본은 패망하였어도 식민지시절은 비천했던 한 일본인에게 부귀영달을 가져다주었다. 조선의 옛무덤들에서 파낸 부장품들로 일약 벼락부자가 된 가루베는 전후 자기의 도굴품들을 세상에 내놓아 일본학계의 관심을 모았고 나중에는 《백제고고학의 권위자》로 대학의 강단에까지 오르게 되였다.

허나 말 타면 종 두고싶다고 재부와 명성을 그러쥔 가루베의 가슴속에서는 차츰 새로운 엉뚱한 욕망이 불붙기 시작하였다. 정계에 나서고싶었던것이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 온갖 위선과 기만으로 막대한 치부를 하는 일본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는 정치야말로 제일 큰 장사이고 권력이자 곧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것을 부러움속에 깨달았다. 가루베는 망상에 부풀어올라 고향인 후꾸오까

현의 다가와시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할 결심을 하였다.

하건만 제아무리 갑작졸부라 해도 근본이 허약한 어제날의 시정배가 일본정계에 발을 들이밀겠다는것은 지렁이 룡꿈꾸는 격이 아닐수 없었다. 일본에서 정치무대에 나서려면 《3방》 즉 《간판》, 《지반》, 《가방》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간판》은 집안래력이나 학벌, 정당관계이고 《지반》은 지역기반 그리고 《가방》은 돈지갑을 의미하는바 일본말로는 《간방》, 《지방》, 《가방》이라고 발음하는데로부터 《3방》이라고 하는것이다. 이 《3방의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여나는 정치인들이 다름아닌 세습의원들이다. 일본국회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세습의원들은 선대에게서 지역을 관리하는 후원단체들을 모조리 물려받는것은 물론이고 후원단체들의 돈줄까지도 고스란히 상속받는 행운아들이였다. 그런 정치인들에 비해볼 때 자기가 가지고있는 돈과 배경이라는게 얼마나 초라한것인가를 가루베는 뼈저리도록 통감해야만 했다.

그래도 그는 물러설념을 안했다. 도요또미 히데요시도 미천한 농부의 자식이였고 이또 히로부미 역시 사무라이의 보잘것없는 하졸이 아니였던가. 미꾸라지도 천년이면 룡이 된다는데 자기라고 정치를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가루베는 꺼질줄 모르는 야망으로 배꼽을 달구며 정계진출에 필요한 인맥을 만들기 위해 죽기내기로 뛰여다녔다.

그러던중 뜻밖의 호박이 굴러들었다. 우연한 기회에 륙촌매부가 대학동창인 아라기의 서기를 소개해주었던것이다. 가루베는 이게 웬 떡이냐고 쾌재를 올렸다. 왜 그러지 않으랴. 자기 처지에서 아라기 사다오 같은 우익거물에게 붙을 길이 생겼다는게 어디 흔히 차례질수 있는 행운인가.

일본정치에 뻗쳐있는 우익세력의 검은손이 얼마나 막강한가 하는

것은 다소라도 정치에 관심하는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였다. 패전후 일시 움츠러들었다가 미점령당국의 비호밑에 활기를 되찾은 우익세력은 일본의 도처에서 악성종양처럼 창궐하고있었다. 정계와 재계는 물론이고 폭력단체에 이르기까지 우익세력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으며 《정계, 재계, 우익의 3위1체》라는 말이 나돌 지경으로 일본의 우익세력은 특권층과 긴밀히 유착되여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우익세력들의 뒤에는 바로 제국시대의 골동들이 웅크리고 앉아있었던것이다. 전쟁시기 긁어모은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하여 정계의 막뒤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고다마 요시오도 일본의 수급전범자였고 자민당 총재와 수상을 력임한 기시 노부스께도 도죠내각에서 전쟁경제를 주도했던 수급전범자였다. 고마무라에 은둔해있는 아라기 사다오 역시 우익세력을 뒤에서 조종하고있는 흑막속의 거물이 아닌가.

가루베는 떡 본 도깨비마냥 아라기에게 명줄을 걸었다. 그런 거물을 정치적대부로 업을수만 있다면 말그대로 룡이 여의주를 얻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태동안 그가 별별 랭대와 굴욕을 다 당하면서도 문안을 한다, 선물을 마련한다 하며 아라기에게 발길을 끊지 않은것이 그때문이였다.

(지금껏 쏟아부은 공력과 시간을 나무아미타불로 만들수야 없지. 암, 둔갑할줄 모르구야 무슨 정치를 할수 있담.)

어느새 가루베의 얼굴은 느글느글한 표정으로 돌아가있었다. 그러느라니 좀전에 아라기가 문화재를 전문했는가고 묻던것이 생각났다. 난데없이 령감이 그건 왜 물었을가?… 안경알속에서 퉁방울눈을 디룩거리던 가루베에게 피끗 짐작되는것이 있었다.

(가만, 이 두상이 내 손을 빌려서 장서를 도루 뺏어오겠다는 수작이 아닐가? 그럴법도 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니까 자기 체

면을 구기지 않고도 일을 원만히 수습할거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 그렇구말구. 그런 일에 들어서야 골샌님같은 저런 서기 열을 합친들 이 가루베를 당할수 있을라구.)

다른 일은 몰라도 장물거래와 관련된 일에서만은 첫손가락에 꼽히지 못하면 입맛을 잃을 그였다. 령감에게 자기의 수완을 보일 생각을 왜 진작 못했을가 하는 후회에 혀를 깨물며 가루베는 엄벙덤벙 아라기앞에 나섰다.

《각하, 분부만 하신다면 조선인들이 가져간 각하의 장서를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심려하지 마십시오. 쥐도 새도 모르게 그자들과 은밀히 교섭하겠습니다.》

살통을 만났다는듯 서기의 얼굴이 금시 밝아졌다. 헌데 정작 당사자인 늙은이는 그 말을 들었는지 먹었는지 여전히 꽃나무들만 지꿎게 쏘아보고있을뿐이였다. 가루베는 등이 달아 아라기에게 충성스럽게 덧붙였다.

《각하, 가루베 신조를 믿어주십시오! 각하의 혁혁한 명성에 티끌 한점 묻지 않게 하겠다는걸 이 자리에서 목숨걸고 확약합니다!》

졸지에 늙은이의 입에서 시들먹한 외마디소리가 튕겨나왔다.

《바보!》

가루베는 한순간에 멍청해지고말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러니 이번에도 빗맞혔다는건가? 춤을 춰야 할지 곡을 해야 할지 통 짐작할수가 없었다. 김이 새여버린 풍선꼴로 휘주근해있는 가루베의 귀에 경멸조로 중얼대는 령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까짓 케케묵은 장서나 다시 찾아선 뭘 해. 뭐, 조선놈들과 교섭을 한다구? 쓸개빠진것들!》

가루베의 입에서 맥빠진 소리가 새여나왔다.

《그럼 어찌했으면 좋을지?…》

아라기는 손가위로 꽃망울들을 톡톡 건드려보고있었다. 먹이감을 고르는 맹수마냥 늙은이의 눈자위가 악의에 번득거리고있었다. 불쑥 령감이 누구에게라 없이 묻는다.

《그 조선놈들이 찾고있다는 책이름이 뭐라구?》

서기가 얼떠름해서 상기시켰다.

《<조선향악보>말씀입니까, 각하?》

그러자 아라기가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맞았다. 난 그걸 가져야겠다.》

늙은이는 가루베를 돌아보며 따져물었다.

《내앞에 그 물건을 가져다놓을수 있느냐?》

아라기의 매몰찬 눈이 대답을 요구하고있었다. 가루베는 얼친 물고기처럼 입을 하 벌린채 늙은이를 바라보았다. 대관절 무슨 꿍꿍이셈인가? 애당초 음악이라는것과는 담을 쌓고 살아왔을 이 두상이 《조선향악보》를 가져다간 대체 뭘 하려구? 늙어지면 회상으로 산다더니 갑자기 조선의 옛 음악책을 뒤적거리면서 식민지시절을 되돌아보고싶은 생각이라도 들었는가? 늙은이의 변덕에 머리가 어찔어찔했지만 언제 그런 의문이나 붙들고있을 경황이 아니였다. 가루베는 때가 늦을세라 거품같은 찬사를 아라기앞에 아낌없이 터뜨렸다.

《각하, 제가 미처 각하의 그 고명하신 뜻을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각하께서 이렇듯 조선의 옛 음악에까지 각별한 애정을 품고계실줄은… 황송합니다, 각하!》

아라기의 두눈에서 비웃는듯 한 광채가 희번득였다.

《애정?》

심술궂게 입을 비틀며 그 말을 되받아외우던 아라기가 별안간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으하하하…》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 발작에 가까웠다. 강마른 몸뚱이를 뒤틀며 실성한듯 뿜어대는 늙은이의 목갈린 웃음소리는 까마귀의 울음소리같이 으쓸하고 청승궂기 짝이 없었다. 가루베도 서기도 그리고 하녀까지도 공포에 질려 그 소리를 듣고있었다.

늙은이는 시작할 때처럼 홀연히 웃음을 거두었다. 그리고는 짚고있던 지팽이를 하녀에게 맡기고나서 느적느적 동백나무의 가지 하나를 휘여잡았다. 금방 피여날듯 부풀어오른 동백꽃망울이 가지끝에 붙어있었다. 아라기는 꽃망울을 들여다보며 이죽거렸다.

《각별한 애정이라… 그럴듯한 소리야.》

다음 순간이였다. 뜻밖에도 아라기가 손가위를 들더니 통통하게 물오른 꽃망울의 중둥을 싹독 베여버리는것이 아닌가. 조금도 거침없는 무자비하고 랭혹한 솜씨였다. 반동강이 나버린채 누데기마냥 붙어있는 꽃망울을 보며 모두가 아연실색해있는데 아라기는 도륙과 학대를 소일거리로 삼던 륙군대신시절의 변태심리가 발작했던지 남은 반동강마저 계속해서 싹독싹독 썰어버리는것이였다. 그러는 늙은이의 입가에는 잔인한 통쾌감이 서려돌고있었다. 종내 가지끝에서 꽃망울을 형체도 없이 지워버리고나서야 아라기는 가위질을 멈췄다. 마구 잘리워진 꽃망울쪼박들이 어지러이 발밑에 흩어져있었다.

《그 조선놈들이 향악보인가 뭔가 하는걸 찾아다닌다구 했지. 헌즉 내가 먼저 그 물건을 손에 넣으면 필경 그것들이 이리루 찾아들게 아니냐. 흠, 그리되면 내 조선놈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이 꼴루 만들테다. 이렇게 말이야!》

피방울인양 흩뿌려진 꽃망울쪼박들을 느릿느릿 게다짝으로 지르뭉개며 아라기가 뇌까리는 소리였다.

그제서야 가루베는 령감의 안속에 어떤 돌같은 앙심이 꿈틀거리

고있는지 알수 있을것 같았다. 부어오른듯 한 눈두덩아래서 늑대마냥 안광이 튀는 사무라이의 격노한 모습은 볼꼴없는 한갖 간상배의 오금을 얼어붙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런 속에서도 가루베는 부러웠다. 아직까지도 늙다리의 온몸에 서슬 시퍼렇게 남아있는 어제날의 위엄이 부러웠고 자기 뜻을 거스르는자라면 누구든 벌레밟듯 짓밟으려드는 광포한 그 기백이 두려우면서도 부럽기 그지없었다. 가루베도 그런 위엄을 떨쳐보고싶었다. 생사여탈권을 거머쥐고 만사람의 머리우에 틀고앉아 부귀와 권세를 한껏 누려보고싶었다. 가슴속에서 검붉은 피가 울꺽 치밀어오르는것을 느끼며 그는 모주먹은 돼지 껄때청으로 아라기에게 다짐했다.

《각하, 모든 일이 각하의 뜻대로 될것입니다. 제 반드시 <조선향악보>를 가져와 각하의 분을 풀어올리고야말겠습니다.》

아라기의 눈살이 다소 풀리는듯 했다. 조소가 비낀 표정으로 가루베를 피뜩 보고난 아라기는 하녀에게서 다시 지팽이를 넘겨받아짚으며 천천히 게다를 끌기 시작하였다. 잠시후 늙은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여전히 힐난조였다.

《아마 자네들은 저 늙다리가 복수심때문에 환장한거라구 생각하겠지. 흥, 뻔할테지. 물론 복수도 해야지. 허나 중요한건 그게 아니야.》

가루베는 서기와 함께 뒤를 따르며 어리벙벙해서 령감의 말을 듣고있었다. 그러는데 느닷없이 아라기가 물어왔다.

《<사무라이로 된자 그 뜻을 세워야 사무라이정신을 발휘한다.> 누구의 말이던가?》

선뜻 떠오르는게 없어 가루베가 당황해하는데 다행히 서기가 발빠르게 대답했다.

《저, 요시다 쇼인선생님의 훈계라고 알고있습니다마는…》

아라기는 수긍하듯 머리를 끄덕거렸다. 서기의 대답을 들으니 가루베도 얼핏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요시다 쇼인이라면 대표적인 《정한론》자의 한사람이고 이또 히로부미의 은사가 아닌가. 헌데 밑도 끝도 없이 요시다 쇼인소리는 왜 꺼내는가? 엉큼한 령감이 또 어떤 메주를 먹일지 알길없어 가루베는 잔뜩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윽고 령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자네들의 꼴을 보니 절로 그 말이 떠오르는군. 산이 커야 그늘이 크고 뜻이 커야 대사를 이룰수 있거늘 생각하는 꼴들이 그리 쪼물짝해가지구두 뭐 큰일을 해보겠다구?》

아라기는 어림도 없다는듯 채머리를 흔들더니 뒤를 돌아보았다. 늙은이의 사무러운 눈길이 다시금 자기에게로 날아들자 가루베는 간이 덜컹해서 저도 모르게 주춤거렸다. 아라기가 랭소를 머금고 시까슬렀다.

《듣자니 제국시절에 조선에서 적지 않은 보물들을 수집했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네 같은자들이 인제 와서 아무리 애국심을 운운한다 해도 제국의 전적인 뒤받침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렇게 하는게 식은 죽 먹기였을가?》

《예? 무, 물론… 대일본제국이 뒤에 없었더라면 겨, 결코…》

급작스러운 질문에 가루베가 황겁해서 쩔쩔매는데 야멸차게 대답을 무질러버리며 아라기의 물음이 또다시 잇달았다.

《하다면 대일본제국이 단지 조선의 보물을 탐내서라든가 자네 같은것들의 치부를 거들어주기 위해서만 그랬다고 생각하는가?》

《?》

가루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우물거렸다. 그 모양을 못마땅해서 지켜보던 늙은이가 낯을 찡그리며 돌아서버린다. 아라기는 걸음을 옮기며 화가 난듯 중얼거렸다.

《한심한 놈들. 제국의 뜻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것들이 일본을 위해 구실을 하면 얼마나 할고.》

《죄송합니다, 각하!》

《엄히 편달해주십시오, 각하!》

가루베도 서기도 말끝마다 《각하》를 개여올리며 연송 굽신거렸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령감의 눈밖에 난다는것은 곧 끈 떨어진 갓신세를 의미하였던것이다. 자기를 신주 모시듯 하는 태도들이 싫지 않았던지 아라기는 얼마간 누그러진 어조로 훈시를 늘어놓았다.

《과거 우리가 반도에서 시행한 식민지정책의 알맹이가 뭐였겠는가? 명치이래 쟁탈한 일본의 식민지들가운데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집요하게 항거해나선 곳이 바로 조선이였네. 하기야 우리만 쓴맛을 본건 아니지. 옛적에 천하의 중심을 자처하던 중원의 황제들두 그렇구 세계의 절반을 정복했던 칭기스한의 대군까지도 조선만은 끝끝내 굴복시키지 못했으니까. 왜서였겠는가? 그건 다름아닌 조선인들의 강렬한 뿌리의식때문이였네. 조상에 대한 깊은 효도심과 끈질긴 혈연관념이라든가, 오랜 정착생활과정에 배인 향토에 대한 류다른 집착, 거기다가 유래가 긴 민족사와 고유문화에 대한 긍지… 이런것들이 없었더라면 수천년동안 큰 나라들의 틈바구니에 끼여서 끊임없이 시달려온 그들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정복되거나 동화됨이 없이 민족성을 고수해올수 있었겠는가. 오또기를 생각해보라구. 아무리 뒤집어놓아두 손만 떼면 본래대루 제꺽 일어나 앉군하는 묘한 물건이지. 헌데 그속에 있는 철심만 빼보지. 다시는 일어날념을 못하구 치면 치는대로 나가넘어지지 않는가. 반도를 통치하는 전기간 일본이 실시한 정책도 요점은 거기에 있었던거야. …》

가루베의 눈빛이 음침하게 타오르고있었다. 옛 문부대신의 말이

백번 옳았다. 무엇때문에 대일본제국이 그토록 기를 쓰며 조선의 고대사를 깎아내렸던가. 조선인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자기의 말과 글마저 못쓰게 강박한것은 또 무엇때문이였던가. 지어 조선의 기가 살아나지 못하게 한다면서 명산대처의 중요혈마다에 쇠말뚝까지 박아놓지 않았던가. 결국 그 모든것이 조선인들에게서 뿌리를, 고유한 얼을 송두리채 거세해버리려는 제국의 신중한 의도에서 출발하였다는것이다. 그 시대를 조선에서 체험했던 가루베인지라 령감의 주장에 선뜻 수긍이 가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게 보면 조선에서 옛무덤들을 파헤치며 돌아치던 자기라는 존재 역시 대일본제국의 식민지정책에 리용된 일개 도구에 불과했을뿐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레 머리를 쳤다.

함께 저지른 범죄는 부정한 야합에로 이어지기마련이다. 가루베는 어쩔수없이 동류의식을 느끼며 뜨직뜨직 이어가는 령감의 말에 귀를 강구었다.

《비록 패망은 했어도 우린 꿈을 남겼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꿈을 말이야. 일본이 살아갈 길은 그 길밖에 없네. 우리의 후손들은 또다시 조선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걸세. 일본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에서 선배들이 남긴 뜻과 경험은 큰 밑천이 될거야. 인젠 왜 내가 향악보인가 하는 조선책을 찾는지 알겠는가? 진정한 사무라이의 후예들에게 있어서 조선의 혼이 깃든 그런 문화재는 감상이나 연구의 대상이기 전에 절멸의 대상이 되여야 한다는걸 알았는가 말일세.》

《각하의 소중한 가르치심을 뼈에 새기겠습니다!》

병졸마냥 군턱을 당겨 부동자세를 취하며 가루베가 내뽑는 대답소리였다. 그 대답에서 어지간한 각오를 느꼈던지 아라기는 머리를 끄덕거리며 얼마쯤 더 걸어갔다. 그러던 령감이 우뚝 멈춰섰다. 아

라기는 자기의 뜻을 재삼 강조하려는듯 돌연히 지팽이로 땅을 두드리며 부르짖는다.

《조선놈들은 아예 불알을 뽑아버려야 해!》

팔십객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치고는 지내 야비한 언사였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얼을 뽑아버려야 한다는 선행자들의 유지를 그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울거라고 가루베는 생각했다. 그는 령감에게서 광란하던 제국시절의 열광을, 그앞에서는 인간적인 모든 리성이 통하지 않던 과거시대의 미친듯 한 흥분상태를 읽었다. 패전으로 굴욕당한 사무라이들의 가슴속에 잉걸불처럼 이글거리는 그 광기는 거역할수 없는 불호령이 되여 가루베의 머리우에 떨어졌다. 아라기의 호령을 따라야 했다. 그것만이 하찮은 간상배가 일본정계에 들어설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출세와 영달을 담보하는 확실한 길이라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가루베는 마치 출전명령을 기다리는 가미가제특공대원인양 비장한 기분에 사로잡혀 상전을 지켜보았다.

어느덧 동백나무들이 지나가고 랍매의 가지들이 늘어져있는 곳에 들어섰다. 아라기는 손가위로 꽃이 핀 랍매의 가지를 둬개 잘라 하녀에게 주며 차실에 가져다가 꽂으라고 일렀다. 그러더니 불쑥 눈길을 돌리며 묻는것이였다.

《가루베라고 했던가?》

순간 가루베는 너무나 감지덕지하여 숨이 다 막히는것 같았다. 령감이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었던것이다. 육중한 몸을 연신 굽석거리며 가루베는 황공해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각하!》

아라기는 쓸모를 가늠해보는듯 가루베의 얼굴을 빤히 눈여겨보다가 말했다.

《난 사람들을 두가지로 갈라보군 하지. 나한테 쓸모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말이야. 그중에서 난 늘쌍 첫째 부류의 사람들과만 대상하거던.》

어쩌다가 던져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늙은이의 으름장이였다.

(기회라는건 날새와 같아서 날아가기 전에 꽉 붙잡아야 한다구 했지.)

가루베는 으스러지게 손아귀를 틀어쥐며 온몸의 기를 모아 아라기에게 다짐했다.

《각하, 절 믿어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조선향악보>를 기어이 각하의 발밑에 가져다놓겠습니다!》

남의 땅에서도 숱한 보물을 긁어모은 자기가 아닌가. 하물며 제 땅에서 그깐 조선고서 하나쯤 손에 넣는게 무슨 대수라구. 가루베는 자기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가루베의 호언장담에 늙은이는 시들하니 손만 내흔들뿐이다. 인젠 귀찮으니 물러가라는 시늉같았다.

《자넬 지켜보겠네.》

하녀의 부축을 받아 별장으로 들어가며 아라기가 남긴 말이였다. 가루베는 주린듯이 그 말을 부둥켜잡았다. 그는 대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멀어져가는 령감의 등뒤에 대고 의기양양해서 부르짖었다.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각하!》

제 2 장

1. 력사의 상처앞에서

그것은 여러겹의 련꽃잎우에 앉아있는 거부기를 본딴 주전자였다. 거부기의 주둥이는 주전자의 부리를 대신하고있었고 주전자의 아구리부분은 거부기의 등우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련잎으로 형상되여있었다. 그런가 하면 거부기의 꼬리부분에는 련꽃대를 틀어서 만든듯 한 손잡이가 달려있었다. 착상이 재미난데다가 청아하고 투명한 푸른색칠물이 고르롭게 입혀져있고 모양새와 크기, 색갈 등이 부드러운 조화를 이루고있는 그 주전자는 누가 보아도 공예적가치가 뛰여난 명품이라는것을 쉬이 알아볼수가 있었다.

문성민의 눈길은 사진밑에 붙인 설명문에 가닿았다.

《청자거북모양주전자. 이또 히로부미가 일본왕에게 진상한 고려청자.》

입이 쓰거워났다. 문득 20세기 초엽의 비화 하나가 떠오른다.

《을사5조약》날조후 일제는 리왕족들의 불만을 눅잦히기 위해 창덕궁에 서양식박물관이라는것을 만들어놓았는데 어느날 진렬품들을 구경하던 고종이 고려청자들을 가리키며 《이 푸른 그릇들은 어디서 만들어진것이오?》 하고 의아해서 물었다고 한다. 곁에 있던 이또가 이 나라의 고려시대것이라고 설명하자 고종은 《이런 물건은 이 나라에는 없는것이오.》 하며 자못 어리둥절해하더라는

것이였다. 그러는 고종앞에서 이또는 더 설명을 못하고 침묵해버리고말았다.

아무리 철면피한 도적의 괴수라 할지라도 진렬대우에 올려놓은 청자들이 백주에 남의 조상묘를 파헤치고 훔쳐온 물건들이라는것을, 더우기 그러한 날강도짓을 적극 조장시킨 장본인이 다름아닌 자기라는 사실은 선뜻 털어놓기가 바빴던 모양이다.

통감자리에 들어앉은 이또 히로부미가 고려자기들을 마구 사들여 자기네 《천황》과 고관대작들에게 무더기로 선사하던 시기에 고려의 옛무덤들에 대한 일본인도굴군들의 만행은 절정을 이루었고 일본사회에서 고려자기수집의 대류행이 일어났다는것은 이미 력사에 생생히 기록되여있는 사실이다. 하기에 일찌기 안중근렬사도 자기의 옥중자서전에서 《일본의 침략이 마침내 우리 선조의 백골에 이르렀다.》고 통분을 터뜨리지 않았던가.

천천히 다음 사진앞으로 걸음을 옮기느라니 이번에는 무참하게 도굴된 가야시대 옛무덤들의 참상이 눈앞에 다가들었다. 험상궂게 파헤쳐진 봉토, 깨여져나간채 반나마 드러나있는 돌곽, 도굴범들을 저주하는 조상들의 원혼인양 퀭하니 쳐다보는 무덤의 검은 구멍들…

비단 고려와 가야의 옛무덤들뿐이 아니였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옛무덤들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선조들의 백골이 왜적의 릉멸과 략탈로 말미암아 저렇듯 이 땅의 산과 들에 무주고혼으로 나딩굴었던가. 지어 일제는 움직여갈수 있는 조선의 문화재들을 닥치는대로 갈취해가고도 모자라 룡강군의 쌍기둥무덤에서와 같이 움직일수 없는 고구려벽화까지 벽체채로 뜯어가는 짓거리마저 서슴지 않고 감행하지 않았던가. 설사 기적을 낳는다는 현대의 과학기술로 파괴된 유적유물들을 원상대로 복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슴배여있

던 력사의 숨결까지야 어떻게 되살릴수 있으랴.

쓰라린 아픔이 불길마냥 가슴을 지져왔다. 금시라도 터져나올것 같은 분노의 웨침을 성민은 피를 삼키듯 삼켜버렸다.

그 혼자만의 심정이 아닐것이다. 토론회끝에 사진전시회를 돌아보는 북남학자들모두의 심정도 자기와 마찬가지일거라고 성민은 생각했다. 한장한장의 사진마다에 새겨진 일제의 략탈문화재들은 한갖 도난품들이 아니였다. 그것은 침략자들에게 사정없이 물어뜯기운 우리 민족의 살점들이였고 뼈아픈 상처들이였다. 반세기가 넘은 오늘까지도 아물지 않은, 아니 먼 후날에 가서도 쉬이 아물지 못할 참담한 상처들이였다.

온몸을 짓누르는듯 한 압박감에 성민이 저도 모르게 큰숨을 몰아쉬고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박인규가 동포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문성민이 그리로 갔더니 박인규는 앞에 있는 사진을 가리키는것이였다.

《이걸 좀 보십시오.》

사진을 들여다보니 도꾜에 있는 네즈미술관의 정원이였다. 세나라시기의 아담한 돌탑을 비롯하여 고려무덤앞에 서있었던듯싶은 돌사람과 돌짐승 그리고 고려시기의 우아한 부도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동부처며 동종 같은것들이 정원의 여기저기에 버젓이 차려져있었다. 네즈라는 일본자본가가 조선의 옛 미술품들을 많이 략탈해갔다는 사실은 이미전에 알고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제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진귀한 문화재들이 이역의 한복판에 전리품마냥 즐비하게 놓여있는 광경을 대하니 자연 슬퍼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문성민이 침울한 기분으로 사진을 보고있는데 등뒤에서 동포녀인의 석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몇해전에 난 저기에 가본적이 있었더랬지요. 그때 미술관 책임

자에게 우리 문화재들을 소장하게 된 경위를 물었더니 그 사람은 제정시대에 골동상인에게서 구입했다고만 말할뿐 다른 대답을 더 못하더군요. 물론 미술관에는 문화재들의 원래 위치나 유래 같은 것을 기록해놓은 자료도 없었습니다. 력사적가치는 안중에도 없다는거겠지요. 그런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도꾜에 오꾸라호텔이라고 있는데 그 호텔의 뒤에 가보면 왜정때 일본인들이 빼내온 고려석탑이 3개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평남도 대동군에서 가져온 8각석탑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 리천에 있던 5층석탑이라는데 일본인들은 중요문화재로 지정해놓고도 보호시설은커녕 안내판조차 세우지 않았더군요. 그런즉 우리의 문화재들이 일본에 실려가 호텔장식품으로 취급받고있는셈이지요. 참…》

녀인은 더 말하기가 괴로운지 쓴입만 다셨다. 그의 말에 수긍을 표시하며 성민은 토론회장의 사면벽에 전시된 사진들을 묵묵히 둘러보았다. 그래도 여기에 소개된 문화재들은 대부분이 소재라도 파악하고있는 유물들이다. 하건만 비할바없이 하많은 문화재들은 행방조차 알길이 없지 않은가. 왜정시대에 처참하게 도굴당한 수천기를 헤아리는 대동강류역 옛무덤들의 유물들은 어디 가서 찾아야 하며 금강산 유점사의 금동불상들과 불국사 다보탑의 돌사자들을 비롯하여 원통하게 도난당한 겨레의 재보들은 어디서 볼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일제의 야만적인 파괴로 하여 사명대사의 기적비며 전등사의 동종과 같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으니 생각하면 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불을 토하듯 쏟아놓는 누군가의 거치른 목소리가 성민의 심장을 때렸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일본이 얼마나 결정적방해로 되였는가

하는건 근현대사를 대략적으로 훑어봐도 한눈에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

눈길을 돌려보니 저쯤에서 리경식교수를 비롯한 북과 남의 로학자들이 모여 소감을 나누고있었다. 방금 말을 뗀 사람은 근대사가 전공이라는 전남대학교의 강교수였다. 거쿨스러운 체구에 관골이 두드러진 강교수는 이따금 이마우에 엉기성기 드리워진 반백의 머리칼을 버릇처럼 쓸어넘기며 울화를 터놓는것이였다.

《개화기의 동학혁명을 철저히 분쇄한것도 일본이였고 조선봉건정부에 처음으로 불평등조약을 강요한것도 일본이 아니였던가요. 일본의 침략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겐 식민지시대도, 남북분단시대도 없었을것입니다. 국토분단이야말로 일본의 식민지시대가 남겨놓은 최악의 유산이라고 말할수 있지요. 따라서 이 최악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한데 오늘날 일본이 우리의 통일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살펴보면 그 또한 한심하기 그지없을뿐입니다. 실로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만신창으로 만들고 국토까지 강탈했던 일본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 기록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할것입니다. 문화재문제도 그래요. 여기에 전시된 자료들이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지요. 남과 북을 통털어서 고분들이건 사찰이나 석물들이건 변변하게 남아있는게 과연 몇이나 됩니까. 알려진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일제시대에 여지없이 도둑맞히고 파괴당하지 않았습니까. 헌데 기가 막힌건 타민족의 력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듯 꺼리낌없는 일본이 대조적으로 자국의 전통과 력사보존에는 광적일 정도로 집착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교또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여있지 않습니까. …》

강교수는 억이 막히는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머리를 수굿한채 듣고있던 리경식교수가 무거운 어조로 그의 말을 받았다.

《문제는 일제의 조선문화재략탈행위가 유럽이나 아메리카주의 력사에서와 같은 개별적사람들의 일반적인 재산략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탐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을 영영 없애버리려는 중세기적인 인종멸살사상과 <야마또민족> 관에 기초한 철저한 문명파괴행위였고 타민족말살국가범죄였습니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파괴와 략탈이 구일본의 국가적정책으로 강행되였던만큼 그에 대한 국가적사죄와 배상을 다하는건 일본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함께 뼈저린 민족수난을 통해 얻은 피눈물의 교훈을 후손들이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것 또한 우리모두의 막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을 고루며 조용히 하는 말이였어도 리교수의 궁근 음성에서는 강쇠를 두드리는것 같은 서리찬 기운이 느껴졌다. 성민은 교수의 말에 공감이 갔다.

어찌 지나간 세월의 자랑거리들만이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력사이겠는가. 우리 민족의 찬란했던 시대들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발굽밑에 치욕당했던 식민지노예시대 역시 민족사의 한페지가 아닐 수 없다. 불행했던 과거를 잊는자는 과거를 되풀이할 벌을 받는다는 말도 있듯이 침략자들에게 유린당하였던 쓰디쓴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겨레의 가슴속에 피멍으로 남아있는 수난과 오욕의 상처는 결코 망각하여서는 안될, 대를 물려가며 후손들에게 거짓없이 새겨주어야 할 력사의 값비싼 교훈이 아니겠는가.

성민이 이런 생각을 달리는데 이번에는 차분히 가라앉은 목소리가 귀전에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토론회에서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실태에 대해 발표했던 성균관대학교의 최교수였다. 표정이 적고 선이 곧은 얼굴의 최교수는 말도 수판알을 다루듯 깐깐스럽게 따져가며 하는 학자였다.

《그런 의미에서 1965년의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은 중대한 문제점들을 야기시켰습니다. 흔히 <한일문화재협정>으로 불리우는 이 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일제식민지시기의 문화재반출이 불법적행위라는 선언을 협정에 쪼아박지 않은 점입니다. 우리 문화재를 점유하고있는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당시의 <총독부 법령>에 따라 등록된것이라는 리유로 저들의 소유를 합법화해나서고있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말해줍니까. 일본의 식민지통치자체가 불법의 침략행위에 근거한것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식민지지배를 법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협정이라면 당연히 모든것에 앞서 식민지지배하에서의 일제의 문화재반출행위를 불법행위로 선언했어야 할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일본에 략탈문화재들에 대한 사죄와 반환의무를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지우지 못한것입니다. <한일문화재협정>은 일본으로 하여금 략탈해간 수십만점의 문화재가운데서 불과 1 400여점만 인도하는것으로서 과거의 범죄를 불문에 붙이고 반환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게 해주었지요. 그 얼마 안되는 반환문화재를 뽑는데서도 일본은 국가소유품에만 한정하고 공유품이나 개인소유품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개인소유나 공공단체소유의 문화재가 국가소유의 문화재보다 수량적으로 훨씬 많고 가치에 있어서도 릉가하는것이 많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국유품가운데서도 국보는 물론이고 국보보다 한급 떨어지는 중요문화재지정품조차 제외시켰는가 하면 지어 그 나머지중에서도 같은 종류가 2개이상 있는것들만 반환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결국 반환된 문화재들이라야 태반이 웬만한 일본학교의 유물진렬장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그런것들일수밖에요.

문화재반환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국보급문화재들은

여전히 일본땅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례컨대 일제시대에 헤아릴수 없이 많은 석탑이며 석등 같은것들이 일본으로 실려나갔건만 <한일문화재협정>에 따른 반환문화재가운데 석탑류는 하나도 포함되여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개인소유로 되여있다는것이 일본정부가 내건 리유였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량산부부총에서 나온 수백여점의 진귀한 유물들은 반환대상에서 송두리채 빠진채 아직도 도꾜국립박물관에 속절없이 머물러있고 이등박문이 규장각에서 빼내간 문헌들도 도꾜 궁내청 서릉부(일본황실의 족보와 도서, 묘의 관리를 맡은 부서)에 소장되여있는것으로 알려졌지만 반환문화재들속에는 한권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세인들의 눈길이 곱지 않음을 느꼈던지 일본정부는 일본국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있는 략탈문화재를 자발적으로 기증하는것은 권장할것이라고 협정에 덧붙여놓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런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엄금하고있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말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걸과 속이 판이한 위선입니까. 과연 일본의 이런 태도를 두고 과거죄행에 대한 속죄의식이 조금이나마 있다고 누가 말할수 있겠습니까. …》

《외교단절각오로 대처해야 합니다!…》

머리로 피가 뻗치는듯 강교수가 다시금 기염을 내뿜는다.

《일본의 후안무치가 계속된다면 남쪽으로선 외교단절도 불사해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배짱을 못 내미는가 하는겁니다. 전체 조선민족이 등뒤에 산악처럼 서있지 않습니까. … <한일국교정상화>때를 떠올리면 절로 부아가 치밀어오릅니다. 일제 36년의 대가라는게 고작 3억딸라였지 않아요. 왜 36년만이겠습니까. <을사5조약>때부터 치면 자그만치 40여년입니다. 그 세월 얼마나 많은 겨레들이 죽음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부원과 문화재가 략탈

당했습니까. 헌데 그 값이 기껏해서 3억딸라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애당초 출발부터가 잘못되였던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도 일본은 걸핏하면 력사를 외곡하고 독도를 제땅이라고 우겨대지 않습니까. …》

강교수는 벌어진 어깨를 들먹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였다. 최교수가 하던 말을 계속했다.

《<한일협정>때 졸속으로 처리된 일본의 략탈문화재반환문제는 앞으로 있게 될 조일수교과정에서 반드시 응당한 해결을 보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때 가서 반환대상의 범위는 비단 일제시대의 것만이 아니라 임진왜란때 략탈당한 무수한 문화재들까지도 포함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에 있는 국가소유의 우리 문화재들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소장의 략탈문화재들도 전부 반환목록에 올려야 마땅하겠지요.》

어지간히 흥분했는지 깔끔해보이던 최교수의 어조도 저으기 달아있었다.

《그러자면 온 민족의 지략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게 무엇보다 긴절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루를 박듯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리경식교수였다. 모여선 학자들이 찬동하듯 고개들을 끄덕였다. 자기들의 어깨마다에 지워진 민족적사명을 가늠해보듯 좌중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데 얼마후 리교수가 자신과 이야기하듯 조용히 뇌이는것이였다.

《잃기는 쉬워도 되찾기는 어려운게 민족의 문화재인가 봅니다.》

흘러간 인생을 지긋이 음미해보는듯 멀리를 둘러보던 리교수의 눈길이 어느 한곳에 이르러 우뚝 굳어져버렸다. 교수의 눈길이 못박힌 곳에 다름아닌 서만옥이 서있었다. 추억을 더듬는 두사람의 눈길이 허공에서 부딪치고있었다. …

2. 옛 관헌의 일장춘몽

리경식이 아라기의 별장에서 헛물을 켜고 돌아온지 여러달 지난 이듬해 초봄이였다.

그날은 간또지방을 돌며 고물장사를 하던 경식이 보름만에 도꾜로 돌아온 날이였다. 물질문화보존협회를 내온 이후 사람들과의 접촉이 보다 잦아졌지만 리경식은 겨를이 생기면 그렇게 고물행상의 길에 나서군 하였다. 한것은 자금마련에도 목적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문화재와 관련한 이런저런 소식들도 얻어들을수 있었고 또 뜻하지 않게 유리한 기회들도 이따금 만나군 하였기때문이였다.

이번에도 경식은 자전거를 끌고 바다가를 따라 이바라기현쪽으로 올라가서는 다시 내륙쪽으로 꺾어들어 도찌기현과 군마현, 사이다마현을 거치며 간또일대를 한바퀴 돌고 오는 참이였다. 여기저기 들려 고물을 사들이며 길을 가다가 어느 정도 모으면 근처의 도매상에 가져다 팔고 그러고나서 다시 길을 떠나군 하느라니 수입도 일정하게 생기고 조선문화재들도 몇점 구입할수 있었지만 정작 그가 애타게 찾고있는 《조선향악보》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였다.

오후에야 도꾜에 이른 경식은 그간 혹 다른 소식이 없는가 해서 협회부터 들렸다. 그런데 조그마한 어느 시계점의 2층방을 세내여 쓰고있는 협회사무실에 들어서니 히사꼬가 반색을 하며 그를 맞는것이였다.

《아이, 선생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요?》

경식이 얼떠름해서 묻자 히사꼬는 새소리같이 맑은 특유의 고음으로 희색이 만면해서 대답했다.

《하또리선생님이 리사선생님을 만나시겠다구 몇번이나 찾아왔었습니다.》

《하또리선생님이?…》

《예, 조선에서 향악자료들을 가지고 건너온 사람을 찾았답니다.》

《엉, 향악자료들이라구?》

경식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게 정말이요? 누구요? 대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오?》

경식은 너무도 놀라운김에 희고 동글갸름한 처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줄도 모르고 히사꼬를 부여잡은채 숨가삐 다우쳐물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 다만 하또리선생님이 부탁하셔서 니시다 요시오라는분의 주소를 알아보았을뿐입니다.》

히사꼬의 대답이였다. 니시다 요시오? 경식이 어리둥절해서 기억을 더듬어보았지만 생각나지 않았다. 처음 듣는 이름이였다.

얼마후 그들 두사람은 어느 한 차집에서 하또리 류따로를 만났다.

《조선에 가있던 음악관계자들을 수소문하다가 입수한 정보요. 제정때 니시다 요시오라는 학자가 리왕직아악부에서 향악관계자료들을 전문으로 조사하였다는구만. 패전후 그 학자는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십중팔구 <조선향악보>를 그가 가져왔을거라는거요. 현재 그 학자가 구니다찌에서 살고있다더군. 주소는 히사꼬양이 알아보았소. 리선생, 이번에는 틀림없을것 같소.》

하또리가 구레나룻을 기세좋게 갈라제끼며 하는 말이였다.

《리왕직아악부》란 일제시기 리왕직에 소속되여있으면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궁중음악과 관련된 일들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던 기관이였다. 조선강점직후 일제는 몰락한 리씨왕실과 왕족들의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동태를 계속 감시하고 장악관리할 목적으로 서울의 창덕궁안에 《리왕직》이라는 기구를 내왔었다. 리왕직을 조작한 일제는 옛 왕실의 일체 재산은 물론 제례의식까지도 철저히 관할통제하는 한편 조선사람들에 대한 회유책으로 수백여년간 전해져온 궁중음악을 장려한다는 광고아래 리왕직안에 아악부를 내오도록 《선심》을 베풀었던것이다. 그러한 리왕직아악부에서 향악자료들을 다루던 인물이라면 꽤 희망이 있어보일만도 한 일이 아닌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경식이 고마운 심정을 달리 표현할길 없어 하또리의 손을 붙잡고 놓을줄 모르는데 하또리가 정색해서 뒤말을 잇는것이였다.

《인사는 나보다도 엄선생에게 해야 될것 같소. 고마무라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뒤에 엄선생이 날 찾아와 절절히 부탁하더구만. 리선생의 일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말이요. 비단 나만이 아니라 일본진보계의 여러 인사들이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하오. 그러고보면 리선생은 나보다는 훨씬 행복한 사람이요. 자기 동포들이 뒤에서 억척같이 받쳐주고있지 않소.》

엄선생이란 엄길호를 이르는 말이였다. 리경식의 소개로 알게 된 여러해전부터 엄길호와 하또리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일본의 민주화 등 서로의 공통된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사심없이 협력해오고있었던것이다. 향악보를 찾기 위해 자기 못지 않게 진심을 기울이고있는 엄길호의 숨은 노력을 알게 되자 경식은 피가 뜨거워났다. 하또리의 말이 백번 옳았다.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해도 자기뒤에는 언제나 미더운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이 지켜서있지 않는가. 하거늘 두려울것이 무엇이고 주저할것이 무엇이랴.

더 지체할것이 없었다. 리경식은 그길로 히사꼬와 함께 니시다를 찾아 떠났다.

도꾜 중심부에서 전철을 타고 25분가량 가다가 다시 내려서 30분쯤 걸으니 구니다찌라는 곳이 나졌다.

(정말 여기서 향악보를 찾게 될가?)

수시로 떠오르는 이런 의문에 경식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조마조마해났다. 정말 하또리의 말대로라면 얼마나 좋으랴. 설사 향악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니시다가 해방전에 조선향악을 조사한 사람이라니 하다못해 행처는 알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금까지 뜬소문을 듣고 헛된 기대를 걸었던 경우가 어디 한두번이였던가.

그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곁에서 히사꼬가 대기를 가득 채운 봄내에 취한듯 시 한구절을 외운다.

처마끝으로 비쳐드는 해살 따사로운 봄날에
하염없는 내 마음 잡아흔들며 꽃잎은 흩날려
떨어지도다

겉멋이 섞이지 않은 꾸밈없는 랑송을 듣고 경식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히사꼬는 시인이 돼야 할걸 그랬나보오.》

그러자 처녀는 고개를 젓히며 까르르 웃더니 무람없이 경식의 손을 잡아끌었다.

《선생님, 서둘러요. 날이 저물기 전에 그 학자를 찾아야 할텐데…》

아닌게 아니라 서쪽하늘가에서 뉘엿뉘엿 해가 기울어가고있었다. 리경식은 자기 일처럼 신이 나서 걸음을 재촉하는 처녀를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순진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듯 입가에 늘 어려있는 맑은 웃음, 이쁘장한 깜장눈에서 쉬임없이 약동하는 발랄한 서정과 랑만, 연미색코트를 입은 가뜬한 봄차림새며 목에 차랑거리는 중발머리, 통통 튕겨나는듯 한 걸음걸이에서 풍겨오는 싱싱한 젊음… 자그마하고 따스한 처녀의 손에서 허물없는 친밀감이 느껴졌다.

대학을 나온 뒤 얼마간 잡지사에서 일하던 히사꼬는 한해전부터 협회에 들어와 고서목록수집을 맡아보고있었다. 그의 계획은 가까운 앞날에 조선의 전통도자기에 대한 연구론문을 완성하는것이였다. 원래 대학에서 일본도자기의 발전사를 전공하던 그는 차츰 조선의 옛 도자기가 일본도자기의 원류이며 따라서 조선도자기사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일본도자기사연구가 불가능하다는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히사꼬가 그런 인식을 가지기까지에는 력사학자인 아버지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것 같았다. 일본문화의 많은 부분이 조선에서 넘어왔다고 확신하는 처녀의 아버지는 평소에도 일본이 감행한 식민지통치를 통렬히 비판하면서 조선에서 략탈해온 모든 문화재들을 조선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문화재에 대한 남다른 안목에 반해서인지 혹은 사람됨에 끌려서인지 협회에 들어온 후 히사꼬는 인츰 경식을 스승처럼 존경하고 맏오빠처럼 따르기 시작하였다. 리경식도 그런 처녀에 대해 따뜻한 믿음을 느끼고있었다. 의롭고 선량한것을 동경하는 처녀, 로학자들의 손때가 묻은 낡은 책장을 번지며 탐구에 전념하다가도 여가가 생기면 즐겨 시를 써보군 한다는 다정다감한 처녀였다. 자기도 조국을 사랑하지만 거짓으로 엮어진 《황국사관》에는 혐오를 느낀다

던 처녀의 스스럼없는 고백에서, 불의와 허위가 살판치는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깃 하나 흐트리지 않은 학처럼 의연하게 살아온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오연한 그 태도에서 경식은 고루한 국수주의의 구습과 황금만능의 사회악에 반발하는 일본청년들의 새로운 지향을 찾아볼수가 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경식은 처녀와 이야기하는것이 즐거웠고 처녀가 연구론문을 원만히 완성하도록 여러가지로 왼심을 써왔던것이다.

히사꼬가 알아낸 주소를 찾아 이 골목, 저 골목을 헤매던 그들은 드디여 《니시다 요시오》라는 문패가 달린 집을 발견할수가 있었다. 검정색판자벽을 둘러친 허름한 목조단층집이였다. 밑둥이 썩어가는 판자울타리며 물러앉은 지붕의 한쪽추녀 그리고 창가림을 대신하듯 유리창에 낀 뿌연 먼지를 보니 주인의 손길이 덜 미친 집이라는것을 한눈에 알수 있었다. 집안이 비여있는지 문에는 낡아빠진 자물쇠 하나가 데룽 매달려있었다. 마침 지나가는 동네로인이 있어 집주인의 행방을 물었더니 얼마쯤 떨어진 곳에 보이는 점포를 가리키며 거기에 있을거라고 대주는것이였다.

리경식은 히사꼬와 함께 총총히 그리로 찾아갔다. 쇠잔한 락조가 비껴드는 자그마한 간이점포안에서 늙수그레한 사람 하나가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외로이 소주병을 기울이고있었다. 히사꼬가 점포주인을 통해 그가 바로 니시다라는것을 확인하였다.

미간으로 모아든 경식의 두눈섭이 소리없이 꿈틀거렸다. 그는 긴장되는 마음을 지그시 다잡으며 니시다에게 다가가 자기소개를 하였다.

《실례합니다. 물질문화보존협회 리사 오구라 분지라고 합니다. 니시다 요시오씨지요?》

반나마 희여버린 니시다의 머리가 천천히 쳐들려지더니 속을 꿰

뚫어볼수 없는 공허한 눈길이 멍청하니 경식을 더듬었다. 창백한 얼굴에 겨릅같이 바싹 마른 체소한 사람이였다. 천식증이 있는지 그 사람은 이따금 헐헐 느끼며 어깨숨을 몰아쉬군 하였는데 푹 꺼진 한쪽볼편에는 자다가 나온듯 베개에 눌리운 뻘건 자리가 흠집처럼 남아있었다.

별다른 대꾸없이 망연히 쳐다보기만 하는 니시다에게 히사꼬가 조바심이 났던지 좀더 큰소리로 되물었다.

《이전에 리왕직아악부에서 근무하셨다는 니시다선생이 옳으신지요?》

그래도 니시다의 얼굴은 여전히 탈바가지인양 변화가 없었다. 그 사람은 감각이 마비된 사람마냥 다시 머리를 푹 떨구더니 얼마 남지 않은 소주를 잔에 말끔히 부어넣었다. 마치 술을 내놓고는 세상만사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 같았다. 상우에는 절임무우 몇쪼각과 말린물고기 반토막만이 댕글하니 놓여있을뿐이였다.

경식은 점포주인에게 일러 술과 안주를 더 내오고나서 니시다의 앞에 마주앉았다. 점포안의 흐리터분한 공기에 질려 잠시 주저하던 히사꼬도 호기심을 누를수 없었는지 조심스럽게 경식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경식은 여러 말 않고 니시다에게 술부터 권했다.

《니시다씨, 오늘은 내가 낼테니 량껏 마십시다.》

그러는 경식을 멀끄러미 바라보던 니시다는 한동안이 지나서야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들었다. 한잔, 두잔… 그렇게 연거퍼 몇잔이 들어가자 파김치처럼 늘어졌던 니시다의 몸에 일시나마 생기가 도는것 같았다. 마침내 니시다가 입을 열었다.

《나한테 용건이라도 있는지요?》

잠자코 그의 잔에 술을 부어주기만 하던 경식은 이윽고 넌지시 화제를 꺼냈다.

《실은 니시다씨가 리왕직아악부에서 조선봉건왕조시대의 궁중음악조사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니시다의 반응은 덤덤하였다. 경식은 관자노리가 팽팽해지는것을 느끼며 한걸음 더 다가갔다.

《주로 향악관계자료들을 많이 다루었다면서요?》

니시다는 대답대신 느른히 고개만 끄덕거린다. 경식은 들먹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직방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럼 <조선향악보>의 행처에 대해서도 잘 알겠군요?》

그러자 부석부석 부어오른 니시다의 눈거죽속에서 흐리멍텅해있던 두눈이 야릇하게 반짝거렸다. 니시다는 뭔가 잘 리해되지 않는지 고개를 찌붓한채 경식을 눈여겨보다가 누구에게라 없이 투덜거리는것이였다.

《모를 일인데요. 근래에 들어와 벌써 세번째로 받는 질문이니 말입니다.》

《?》

경식은 그만 머리가 뗑해지고말았다. 세번째라니? 그렇다면 자기처럼 향악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주위에 또 있단 말인가? 리경식도 히사꼬도 한방망이 얻어맞은것처럼 어리벙벙해서 서로 얼굴만 마주보는데 니시다의 웅얼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한달전엔가 이찌가와인지 하는 사람이 찾아와 그런걸 물었더랬지요. 그뒤로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대학강사를 한다는 사람이 여기에 왔다갔구요. 소개들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내 보건대 다들 골동장사군들 같더군요. 당신들도 마찬가질테지요. 흐흐… 그야 아무렇든 아직도 이 일본땅에 그런 문화재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게 나로선 놀랍기만 한걸요.》

니시다는 흐물흐물 쓰거운 웃음을 지으며 또다시 술잔을 입에 가져갔다. 경식의 심정은 여간 착잡하지 않았다. 이찌가와란 누굴가? 향악보의 행방을 탐문하는 나날에 그런 사람과 마주쳤던 일은 없었다. 그럼 대학강사는 또 어떤 사람이고?… 통 짐작이 가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불안이 먹물처럼 피여올랐다.

날이 저물자 한무리의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들어왔다. 그 바람에 점포안은 꽤 소란스러워졌다. 하건만 니시다는 수염터가 꺼칠한 턱으로 술이 번져 흐르는것도 모른채 어딘가를 멍히 바라보고있었다. 꿈길을 헤매는양 하염없이 건둥거리는 그 눈길을 붙잡으려고 경식이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니시다는 얼마후에야 스르시 두눈을 감더니 고백이라도 하듯 조용히 중얼거리는것이였다.

《조선… 리왕직아악부… 허, 참말로 그 시절이 일장춘몽처럼 여겨지는군요.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고있느라면 내가 살던 서울의 본정거리가 못견디게 떠오르군 합니다. 거긴 일본인들이 모여살던 번화한 거리였지요. 큰길을 따라 늘어서있던 번듯한 집들도 모두 일본인들의 집이였고 오가는 행인들도 거의가 일본사람들이였습니다. 거리에 나서면 귀익은 일본말들과 게다끄는 소리들이 그칠새없이 들려오는가 하면 선민의식에 도취된 일본녀자들이 화사하게 차려입고 거니는 광경은 얼마나 유유자적하던지 꼭 도꾜의 어느 거리에 와있는것 같았다고 할가. 참, 꿈같은 시절이였지요.》

니시다가 심호흡으로 가슴을 부풀리며 천천히 눈을 떴다. 경식은 쓰거운것을 삼키느라 말없이 술을 들이켰다. 잠시후 니시다는 간간이 가쁜숨을 툐으며 지나온 생의 누래진 페지들을 다시금 주섬주섬 번져나갔다.

《당신들의 말이 옳습니다. 난 그때 리왕직아악부에서 조선향악들을 전문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는 나날에 조선의 음악과 류

다른 인연을 맺었다고 할지… 원래 무단통치시대에 일본의 조선인 지배론리는 그야말로 단면적이고 무자비했었지요. 조선인은 당파나 씨족, 계층간의 갈등때문에 절대로 단결할수 없다, 따라서 총칼만으로도 능히 그들의 질서를 바로잡을수 있다는게 당시 데라우찌나 하세가와를 비롯한 일본정치가들의 통념이였다고 말할수 있지요. 허나 1919년의 3.1만세운동을 계기로 일본인들이 단정하고있던 분렬의 조선인상은 산산이 깨여지고말았습니다. 결국 무단통치의 한계를 절감한 조선총독부는 문화통치를 새롭게 표방하면서 본토의 학자들을 대거 불러들여 조선에 대한 보다 집요한 조사연구에 달라붙었습니다. 내가 총독부 촉탁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리왕직아악부에 들어가 조선의 향악유산들을 조사하게 된것도 그런 연유에서였지요.

그런데 기나긴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향악을 조사해가는 과정에 난 가히 향토예술의 주옥이라고 할만 한 그 내용과 표현력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조선민족의 전통음악을 가리켜 향락적이요, 염세적이요, 도피적이요 하는 일부 일본학자들의 주장은 편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갖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여내며 끈질기게 저항해온 민족의 소박하고 강의한 정서가 담겨져 있다고 할가요. 음악형태를 보아도 조선의 전통음악은 고유한 자기 얼굴을 가지고있습니다. 서양음악의 표현형태가 론리적이고 계산적이라면 일본음악은 약간 가벼운듯 하면서도 골만 파는 효과를 좋아하지요. 그런가 하면 중국의 경우는 구성과 꾸밈음이 현란스럽다고 할가요. 하지만 조선사람들은 산과 골이 적당하게 어울려 은근한 편안함을 주는 음악형태를 즐겨하더군요. 난 조선인들의 음악에서 유구한 문화국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식민지민족의 음악까지도 영악하게 점령하려는 문화통치의 정교함에 내심 혀를 차기도 했구요. …》

니시다의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었다. 저들의 어용학자들을 동원하여 조선의 전래음악을 샅샅이 조사하게 한 일제의 진의도는 력사에 기록된 그 리면사를 들여다보면 너무도 뻔드름히 드러난다. 강점초기부터 조선사람들의 골수에 슴배여있는 우리의 가락과 장단을 거세해버리려고 각방으로 책동하던 일제는 침략전쟁이 본격화되자 조선사람들에게 조선말로 된 노래는 일체 엄금하고 일본노래만 부르도록 강요해나섰다. 지어 총알을 만든다고 하면서 각 마을마다 하나정도는 보관하고있던 징이요 꽹과리 같은 풍물까지도 닥치는대로 빼앗아가지 않았던가. 한편 반만년의 문화를 순식간에는 매몰할 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던 일제는 조선음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면서도 한군데서만은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었는바 그것이 바로 권번(기생학교)이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머리속에 서양음악만이 진짜음악이고 가야금을 타거나 장고를 두드리는것은 기생들이나 하는 천한 음악이라는 외곡된 인식을 부식하려고 하였으니 실로 일제의 조선문화말살정책은 이렇듯 교활하고 악랄하였던것이다.

니시다가 가르릉거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쨌든 나에게는 그때가 황금시절이였습니다. 선배들은 날더러 리왕직아악부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중세동양음악에 대한 학위론문을 쓰라고 권고했지요. 그런가 하면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조사사업이 완료되는 차제로 자기네한테 들어오라고 여러번 청탁이 왔었구요. 물론 그만큼 타인들의 질시도 많이 받아야 했던 시절이였답니다. 허허…

그런데 그 모든 환락이 소낙비처럼 가뭇없이 지나가버릴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궁성요배>니, <황국신민서사>니 하는 갖은 요란법석도, 가미가제특공대의 단말마적인 육탄돌격도 종당에는 기울어져가는 시운을 바로잡을수가 없었지요. <천황>의 항복연설을 듣

고났을 때 난 모든것이 큰 파도에 씻긴 뒤와도 같은 공허감에 빠져버리고말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혔다는게 그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이더군요. 한쪽에서는 창씨개명을 강요당했던 조선인들이 저저마다 일본이름의 문패를 아궁에 처넣으며 열광하는데 다른쪽에서는 전날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일본인들이 서리맞은 메뚜기마냥 이리 쫓기우고 저리 몰리웠지요. 하기야 그 시각 조선인들의 가슴마다에 끓어넘치던 민족재생의 감격을 나라고 리해하지 못할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환희에 달아오른 그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왜 그리도 쓰라렸던지…

인과응보라고 우리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앞에 치르어야 할 대가는 자못 크다고 말해야 옳겠지요. 허나 난 리왕직아악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모은 향악자료들만은 조선인들의 손에 넘겨주고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뜻 내놓기에는 반도에서 보낸 나의 청춘시절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십여일간의 고생끝에 요행 배편을 만나게 된 나는 조선에서 얻었던 수많은 귀중한것들을 죄다 포기한채 간신히 일본으로 돌아올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조선향악보> 하나만 호신부인양 부둥켜안고 말입니다.》

히사꼬가 앗ㅡ 하고 신음소리를 내였다. 리경식이 저도 모르게 곁에 앉아있는 그의 손을 꽉 그러잡았던것이다. 드디여 그토록 찾아헤매던 향악보의 행처를 알게 되자 경식의 온몸은 살을 메운 활처럼 금시 팽팽해졌다. 하건만 그런것을 알리 없는 니시다는 오그라든 볼편을 푸들거리며 여전히 사설을 늘어놓고있었다.

《보나마나 당신들은 내가 뭉치돈을 바라고 그랬다고 생각할테지요. 허지만 난 한번도 향악보를 돈벌이수단으로 생각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조선에 건너왔던 한 일본인이 금강산의 어느 불상을 보고 너무도 감동된 나머지 그앞에 끓어앉아 하루밤을 지새웠

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조선의 옛 향악곡들 역시 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였지요.》

경식은 마치 상형문자라도 연구하듯 니시다의 얼굴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무엇때문에 니시다는 우리의 문화재에 그리도 지꿎은 애욕을 품어왔던가. 정말로 니시다가 조선을 동정이라도 해서였단 말인가.

경식은 마음속으로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그것은 다만 일본제국주의의 관료정신의 표현일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식민지의 재산관리를 맡은 총독부관헌으로서 자기 직분에 마지막까지 충실하려는 검질긴 책임감에 불과한것이다. 어찌 보면 그것은 총칼보다도 더 지독한 식민지통치의 힘이 아니였던가.

《그러니 현재 <조선향악보>를 니시다선생께서 소장하고계시겠군요?》

다짐이라도 받으려는지 히사꼬가 바투 들이대는 물음이였다. 그런데 웬 일인가. 니시다의 눈길이 향방을 잃고 허둥거리는것이 아닌가. 갑자기 얼어붙어버린 그의 입술에 무엇인가 처량스럽고 우울한 빛이 떠돌았다. 얼마후 니시다는 머리를 떨구더니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힘없이 중얼거렸다.

《유감스럽지만 나에겐 향악보가 없습니다.》

순간 경식의 눈섭이 의문부호처럼 찌부러졌다. 이건 대체 무슨 소린가? 니시다가 잔꾀를 부리는건가? 그게 아니라면 앞서 왔었다는 사나이들에게 향악보를 벌써 넘겨주었다는 소린가?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들었다. 따지고들듯 크게 뜬 리경식의 우묵한 두눈에서 이마빼기를 꿰지르는것 같은 거센 빛이 튀여나왔다.

니시다는 정신없이 연신 술만 들이키고있었다. 피로운듯 이그러진 그의 이마는 앓는 사람마냥 파리해보였고 술에 젖은 입귀는 투

덜거릴 때처럼 아래로 축 처져있었다. 한참만에야 니시다는 기울거리는 몸체를 가까스로 유지하며 음울히 사연을 털어놓는것이였다.

《당신들도 체험했겠지만 패전후 일본인들의 처지가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간난신고를 겪으며 일본으로 돌아온 나에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지요. 도꾜역근처에 있던 본래의 집은 미군공습에 가산 하나 건지지 못한채 깡그리 불타버렸는데 처와 딸자식은 용케 살아남아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며 배를 곯고있더군요. 요행 친척의 주선으로 여기 구니다찌에서 허름한 세집 한채는 빌릴수 있었지만… 허, 그때까지 음악 하나밖에 모르고 살아온 나 같은 사람이 전후의 혼란속에서 졸지에 무슨 수로 처자들을 먹여살릴수 있었겠습니까. 배급만으로는 도저히 연명할수가 없어서 어떤 땐 말린 풀로 가루를 봉아 빵을 만들어 먹기까지 하였지요. 난 입고있던 옷가지를 싸들고 농촌에 나가보기도 했고 자존심도 다 줴버린채 알만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손을 내밀어보기도 했지만 형편은 점점 어려워만졌습니다. 정말로 살아갈 길이 캄캄하더군요.

생각다 못해 장사라도 해보려고 외켠으로 사촌벌이 되는 나까야마 모리오를 찾아갔더랬지요. 전쟁때 만주에서 운송업자노릇을 하던 나까야마는 그 당시 자기 처를 미군장교들에게 섬겨바치는 대가로 적산물자를 빼내서 팔아먹던 한심한 작자였지요. 하긴 몇푼 안되는 돈이나 휴대용야전음식을 얻으려고 혀짧은 영어로 아부하며 점령군에게 몸을 팔던 일본녀인들이 패전직후 어디 한둘이였던가요.

가늘고 약해보이지만 의외로 강인해서 <나데시꼬(패랭이꽃)>로 상징되던 일본녀인들의 자존심이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졌던 시절이였지요. 허지만 사흘 굶어 담 넘지 않을 놈 없다고 그땐 그런걸 가릴 경황이 없었습니다. 내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사정하니 나까

야마는 단마디로 거절하더군요. 아무리 친척지간이라도 나 같은 백면서생에게 무슨 담보로 돈을 꾸어주겠느냐는것이였습니다. 별수없이 난 수중에 있던 유일한 재산인 <조선향악보>를 나까야마에게 저당물로 맡길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돈밖에 모르는 그 무식쟁이에겐 돼지앞에 보석이나 다를바없었지만 말입니다. 향악보의 가치에 대해 내가 입이 닳도록 곱씹어 설명해줘서야 나까야마는 뭔가 돈이 될만 한 물건이라고 짐작했던지 마지못해 5천엔을 꾸어주는것이였습니다. 그 5천엔으로 잎담배장사라는걸 시작했지요. 허나 웬 걸요. … 얼마 못 가서 난 본전도 못 건지고 빈털털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난 어떻게 하나 향악보만은 되찾고싶어 있는 힘을 다해보았습니다. 나까야마에게 허리를 굽히고 찾아가 수없이 애원도 해보았구요. 하건만 그 수전노에게 그런게 통할리 있었겠습니까. 이듬해 나까야마는 식구들도 내버린채 집안의 돈을 다 걷어가지고 어디론가 종적을 감춰버리고말았습니다. 물론 향악보도 빼놓지 않고 말입니다. 결국 난 조선에서 수십여년세월을 바쳐 얻은 천금같은 문화재보를 단돈 5천엔에 팔아먹는 멍청이짓을 한셈이지요. 흐하하…》

니시다의 목구멍에서 쓰거운 웃음소리가 발작적으로 튀여나왔다. 수치와 모멸감에 못이겨 자기를 학대하는 그 웃음소리는 리경식에게 피할 길 없는 진실을 일깨워주고있었다. 경식은 허탈에 빠진듯한 니시다의 낯빛을 침울한 눈길로 응시하다가 잠시후 화를 꿀꺽 삼키며 한마디 캐여물었다.

《나까야마의 그후 행방은 아는게 없는가요?》

니시다가 맥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모릅니다. 언젠가 오사까에서 산다는 소문을 들은적이 있긴 합니다만… 앞서 왔던 사람들도 이런 말을 듣더니만 다들 난감해

하는 눈치더군요.》

경식의 온몸은 바람이 새여버린 공처럼 후줄근해지고말았다. 설사 소문대로 나까야마가 오사까에서 살고있다 하더라도 수백만의 인총이 붐비는 그 복잡한 도시에서 어떻게 그자를 찾아낸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막연하기 그지없어 저도 모르게 한숨만 나갔다. 히사꼬도 경식의 시꺼매진 모습을 보며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하고있는데 거나하게 취해버린 니시다가 소주병을 움켜잡으며 허꼬부라진 소리로 호기를 부리는것이였다.

《자, 또 마십시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난건 먹었던탓이지 결코 마셨던탓은 아니지요. 흐흐흐…》

후들거리는 손으로 두사람의 잔에 술을 붓고난 니시다는 병에 남은 소주를 되는대로 입안에 털어넣더니 힘겹게 숨을 툐으며 또다시 하소연을 늘어놓는것이였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난 생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말았습니다. 모든것이 자신없고 귀찮기만 했지요. 난 짚불처럼 스러진 운명을 한탄하며 술만 찾았습니다. 잠시나마 소주의 기운을 빌어 현실에서 도피하는것외엔 내 생활에 아무런 욕망이나 즐거움도 끼여들 여지가 없었단 말입니다. … 그러다나니 집세는 다달이 쌓여만가고 식구들의 입에 거미줄이 쓸 지경이 됐지요. 주정뱅이남편과 딸자식을 안해가 먹여살리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 사람이 고생개나 했지요. 헌데 어느날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와보니 안해는 딸애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더군요. 미안하다는 글쪽지 하나만 남기고 말입니다.》

떨리며 흐려져가던 니시다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어지고말았다. 그제서야 경식은 니시다의 짓숙인 얼굴에 어지러이 번져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알아보았다. 일본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되여 쓰라린 비

애와 고독속에 인생의 황혼길을 걸어가는 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느라니 한편으로는 측은한 감정도 없지 않았다. 경식이 위안삼아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읽기라도 한듯 니시다가 지친 동작으로 한손을 내저었다. 그것은 자포자기의 나락속에 빠져 희망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자살자의 몸짓과도 흡사하였다.

분간키 어려운 목소리가 간간이 끊기는 흐느낌속에 들려왔다.

《하기야 그들이 날 버린게 아니지요. 내가… 내가 그들을 버린거나 마찬가지지요. 난 안해를 탓하지 않습니다. 난… 난 그 녀자를… 탓하지 않습니다. 흑흑…》

니시다는 새여나오는 통곡소리를 억제하려고 주먹을 입에다 눌러댄채 울고있었다. 어망결에 경식의 손을 더듬어 붙잡는 히사꼬의 손이 가늘게 떨린다. 자욱한 담배연기속에서 싸우듯이 소리치며 이야기하는 취객들로 하여 점포안은 퍽 어수선했다. 리경식은 더 앉아있기가 피로워 히사꼬와 함께 일어나고말았다.

밖에 나온 경식은 답답한 가슴을 식히고싶어 한껏 숨을 들이그었지만 정작 폐부에 와닿는것은 매연에 찌든 미적지근한 밤공기뿐이였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도 구름이 끼였는지 별 하나 보이는것이 없었다. 울울한 심사를 달랠길 없어 발밑을 내려다보며 우두커니 서있는데 곁에서 히사꼬의 나직한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처녀는 코트깃을 올리며 몸을 옹송그렸다.

《춥소?》

경식이 묻자 히사꼬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쩐지 으슬으슬하군요. 꼭 늦가을밤 같은게…》

저으기 피로한듯 한 처녀의 목소리에서는 인생의 방황과 고민이 느껴졌다. 아마 니시다의 이야기가 감수성이 예민한 처녀의 마음속

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킨것 같았다. 신음소리를 내며 황막한 암흑속을 방랑하는 한 인간의 외로운 넋이 경식의 뇌리에서도 쉬이 떠나지 않았다. 경식은 서글프게 처져있는 처녀의 동그스름한 어깨를 위로하듯 쓰다듬었다. 히사꼬가 어린애마냥 경식의 팔에 매여달리며 몸을 기대왔다. 말없는 침묵속에 그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경식이 처녀에게 후회하는 빛을 내비쳤다.

《미안하게 됐소. 이럴줄 알았더라면 나 혼자 오는건데…》

그러자 처녀의 살눈섭이 의문을 머금고 쳐들려졌다. 히사꼬는 서운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하는것이였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전 선생님에 대해 고맙게 생각할뿐인데…》

경식은 헌거롭게 웃어보였다. 그렇지만 마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다. 향악보를 가졌다는 나까야마는 어데로 사라졌을가? 니시다에게 찾아왔던 두 사나이들도 이 시각 나까야마의 행방을 추적하고있는것만 같이 느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리경식은 두 사나이에 대해 줄곧 생각하고있었다.

3. 《백자》차집에서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다. 한달쯤 지난 뒤 경식이 고서점 몇곳을 돌아보고있는데 히사꼬가 달려와 숨가삐 알려주는것이였다.

《여기 계시는걸 모르고 한참이나 찾아다녔습니다. 선생님, 가루베상이 선생님을 찾아왔었습니다.》

《누구라구?》

《니시다씨를 찾아와 향악보의 행처를 물었다는 그 대학강사 말입니다. 가루베 신조라고 알고보니 제정때 조선에서 백제고적들을 연구하시던분이더군요.》

아닌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하는 소리에 경식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그가 좀더 차근히 말해보라고 일러서야 히사꼬는 몇시간전에 가루베가 경식을 만나기 위해 협회사무실에 찾아왔었다는것과 향악보때문에 상론할 문제가 있으니 꼭 만났으면 한다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향악보때문에 말이요?》

이렇게 되묻는 경식의 얼굴은 저으기 굳어져있었다.

그럴만도 하였다. 가루베 신조라면 면식은 없어도 리경식이 어느정도 리면을 알고있는 인물이였다. 해방전 공주에서 의사노릇을 하던 가루베는 골동상인 자기 형과 함께 공주부근의 백제무덤들을 중류급에서부터 왕류급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도굴하기로 작정하고 해마다 수백기씩 도굴하였다고 한다. 언젠가 라지오방송에 나와 자기가 조선에서 《백제고분 약 2천기를 발굴하였는데 수년전에 소장품들을 전문가에게 평가시켜보았더니 무려 3억 수천만엔에 이르더라.》고 자랑하던 그자의 말이 생각났다. 그 정도로 파렴치한자가 《조선향악보》에 눈독을 들이고있다니 그 의도야 불보듯 뻔한것이 아니겠는가.

(그자가 왜 나와 만나자는걸가? 내가 향악보를 찾는다는걸 눈치채고 훼방을 놓자는건가? 혹시 어느새 벌써 향악보를 가로채고 흥정을 하자는 심산이라면…)

이런 생각까지 하느라니 금시 가슴에 화살이 날아와 박히는것만 같았다. 경식은 거칠어지는 숨결을 애써 눅잦히며 히사꼬에게

물었다.

《만날 시간과 장소는 약속했소?》

《예, 가루베상은 래일 오후 4시 35분에 도꾜대학옆에 있는 <백자>차집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겠답니다.》

《<백자>차집…》

리경식도 몇번 들린적이 있는 차집이였다. 오후 4시 35분이라. …착잡한 심경이였지만 굳이 끌자리에 5분을 붙여야만 안심하는 일본인들의 가늘고 꼬밀꼬밀한 시간관념에 은연중 혀를 털지 않을수 없었다.

다음날 경식은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앞서 히사꼬와 함께 《백자》차집에 들어섰다. 가루베는 아직 오지 않은것 같았다. 애상적인 선률이 흐르고있는 차집안에서는 퍼그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떠돌고있었다. 이 차집에서 류달리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것은 벽면에 진렬된 조선봉건왕조시대의 백자기들이다. 손님들이 그 자기들을 감상하며 차를 마시도록 함으로써 차집의 품위를 돋구고 고객들의 인기를 끌어보려는 주인의 그럴듯한 착상이였다. 그래서 차집이름도 《백자》라고 달아놓은것이다.

《여긴 어느때 와보아도 아취가 느껴집니다.》

곁에서 히사꼬가 감흥어린 어조로 속살거린다.

《이 차집을 잘 아오?》

경식이 이렇게 묻자 히사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들리군 합니다. 와서는 시간가는줄 모르고 저 백자들을 감상하다가 일어서군 하는걸요. 그럴 때마다 저… 뭐라고 했으면 좋을지… 어떤 먼곳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해야겠는지… 하여튼 그런 감정에 마음이 이상하게 젖어들군 합니다. …》

하긴 조선의 자기들을 연구하는 히사꼬로서는 충분히 그럴만한

일이였다. 경식은 긴 살눈섭사이로 꿈꾸듯 내다보는 처녀의 눈동자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벽앞으로 다가갔다.

감귤빛벽면우에 잔이며 접시, 주전자와 문방구 같은 조선의 옛 백자기들이 드문드문 보기 좋게 차려져있었다. 갸름한 목고개를 다소곳이 수그린채 앉아있는 자기가 있는가 하면 둥실한 어깨를 건드러지게 추스르며 서있는 자기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동산에 떠오르는 달덩이마냥 온몸이 둥그스름한 항아리도 보였다. 자기들은 하나같이 흰빛을 띠고있었다. 그러나 다시금 눈여겨보면 그냥 흰빛이 아니다. 포근하게 내려쌓인 함박눈우에 맑은 새벽해살이 비친듯 깨끗한 담청기가 어려있는 흰빛도 있고 풀벌레소리 유정한 산촌의 밤에 안개발너머로 어슴푸레 돋아오는 달빛과도 같은 흰빛도 있었다. 비와 이슬에 씻기우고 바람과 먼지에 절로 바래진 빛갈, 다감하고 순후한 사람들의 인정과 체온이 얼룩져있는 아늑한 자태, 그것이 바로 조선사람들이 만든 백자의 꾸밈없는 태깔이요, 마음이 아니겠는가.

경식이 백자들을 바라보며 이런 상념에 잠겨있는데 히사꼬가 듣기 좋은 고음으로 살며시 말을 붙여왔다.

《고려청자에는 귀족적인 풍모가 비껴있고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백자에는 소탈한 서민적모습이 있다고 하던 누군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단출하고 멋부린 태가 없는데도 얼마나 고고한 멋이 풍겨옵니까. 투박한 서방인들의 눈에는 백자가 처음엔 재미가 없거나 단조롭게 보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대리석처럼 차분히 가라앉은 광채의 미묘한 변화에 차츰 익숙해지느라면 새로운 시각적즐거움을 느끼게 될겁니다. 간결한 모양새와 흰색만으로 빚어내는 저런 운치는 오로지 조선사람들만이 그려낼수 있는 독특한 미의 경지가 아닐가요. 게다가 하나하나의 자기들은 또 얼마나 개성

적입니까. …》

경식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히사꼬를 돌아보았다. 애젊은 일본처녀가 조선의 자기들에 대해 그 정도로까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줄은 미처 몰랐던것이다. 아는것이 적으면 사랑하는것도 적은 법이다.

《허? 그동안 히사꼬가 퍼그나 깊이 연구했구만.》

《아이참, 선생님도…》

경식의 칭찬을 듣자 히사꼬의 얼굴에 꽃물처럼 고운 홍조가 확 피여올랐다. 경식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히사꼬의 천진한 얼굴을 미소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그가 하던 말을 받았다.

《조선의 옛 물건들은 팔기 위해서라기보다 자기가 쓰려고 만들었기때문에 물건마다 개성이 나타날수밖에…》

리경식은 앞에 있는 차잔 하나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 차잔을 좀 들여다보오. 입언저리가 약간 보로통한데다가 송편을 빚은것처럼 도공의 손자국도 그대로 남아있는걸… 정확한 계산에 의해 매끄럽게 다스려진 유럽의 옛 그릇들에 비해볼 때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이요. 그러면서도 그 자태속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변화와 리듬이 조화롭게 흐르고있소. 담백하고 소박하면서도 어딘가 익살스러운 조선봉건왕조시대 백자들의 저런 모습들을 보느라면 기계가 아닌 인간의 손으로 빚은 소담한 때맛과 가식없는 진실성을 느끼게 되지.》

《과연 그렇군요.》

히사꼬가 감탄하며 공감을 표시했다.

《16세기 말엽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원인중의 하나도 조선의 우수한 도자기들에 대한 오랜 욕망때문이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그때 일본으로 끌려온 수많은 조선인도공들에 의해 일본

의 도자기산업은 비로소 획기적인 발전기에 들어설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문록, 경장의 역>(일본에서 임진왜란을 이르는 말)을 가리켜 <도자기전쟁>이라든가 <다완(차그릇)전쟁>이라고 부르는 리유가 십분 리해됩니다.》

《어찌 도자기뿐이겠소. 일본학자들자신도 히데요시의 침략전쟁을 가리켜 <조선문화를 깡그리 일본에 날라간 문화략탈전쟁>, <사치스러운 해외류학>이였다고 실토하더구만.》

씁쓸히 웃으며 하는 경식의 말이였다. 불현듯 두사람사이에 거북스러운 침묵이 흐르는데 출입문쪽에서 컬컬하고 쉬지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 이거 내가 좀 늦었는가 봅니다.》

눈길을 돌리니 목이 밭은데다가 배우에 공을 올려놓은것처럼 앞배가 불쑥 나온 대머리 하나가 상아손잡이가 달린 단장을 슬쩍슬쩍 옮겨짚으며 이리로 오고있었다. 고급세루직양복차림에 금테안경을 끼고 받쳐입은 넓은 양복조끼에 금시계줄을 늘어뜨린 그 사람의 행색은 퍼그나 호사스러워보였다.

《가루베상이 오셨습니다.》

히사꼬가 반색을 하며 그에게 경식을 소개했다.

《가루베선생님, 이분이 우리 협회의 리사선생님이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볼이 축 처진 부얼부얼한 얼굴에 한껏 웃음을 바르며 경식을 향해 고개를 갑삭이는것이였다.

《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 정말 감사합니다. 가루베 신조라고 합니다.》

《리경식입니다.》

경식도 간단히 풋인사를 건네며 가루베라는 인물을 주의깊게 여겨보았다. 경력으로 보아서는 쉰고개가 넘었겠는데도 윤택이 흐르

는 불깃불깃한 얼굴이며 향수내가 물씬거리는 살집좋은 체구에서는 아직도 걸찬 정력이 느껴졌다. 수족관의 유리처럼 두터운 금테안경 뒤에서 능글맞게 희번덕거리는 가루베의 퉁방울눈이 은근히 경식의 마음을 긴장시켰다.

《헌데 두분은 무슨 이야기를 그리 재미나게 하시더랬나요?》

가루베가 훌렁 벗겨진 대머리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비위좋게 던지는 물음에 히사꼬가 벽에 전시된 백자들을 가리켜보였다.

《방금 리선생님한테서 조선의 옛 백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던 참이였습니다.》

《오, 그래요?!》

가루베는 대뜸 호기심을 나타내며 경식에게 말을 걸어왔다.

《리선생이 문화재에 조예가 깊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좋은 물건은 좋은 벗과 함께 보면서 즐길 때 그 진미가 더 각별한 법이지요. 이 기회에 나도 선생의 고견을 듣고싶군요.》

경식에게는 그러는 가루베의 과장된 겸양과 인격자연한 꾸밈이 너울처럼 느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구태여 그와 문화재에 대해 거론하고싶은 생각이 없어 경식은 에둘러 가루베의 청을 물리쳤다.

《명작에 무슨 해설이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느끼고 즐거워하면 그만이지요.》

경식의 대꾸에 가루베는 둥실한 배집을 흔들며 느끼하게 껄껄거렸다.

《흐하하… 듣고보니 명담이군요. …》

조금후 세사람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 향긋한 내가 나는 차가 나왔다. 살펴보니 따스한 록차가 담겨진 차종들도 모두 조선봉건왕조시대의 백자기들이였다. 가루베가 차종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아는체를 한다.

《허, 역시 이 차집은 간판값을 하는군요.》

가루베는 다이야몬드반지가 번쩍거리는 손으로 조그마한 차숟갈을 쥐더니 다도(차를 달이거나 마실 때의 법식과 례의)라도 행하려는듯 차종의 전을 가벼이 두드려보는것이였다.

《에도시대엔 조선에서 건너온 이런 차종 하나가 한개 성이나 쌀 1만섬과 맞바꿀 정도로 신비로운 기물이였다더군요. 하기야 지금도 조선의 옛 자기를 차그릇으로 가지고있는 일본인들은 어깨를 으쓱거리지만서도 말입니다.》

혼자소리처럼 이렇게 중얼대던 가루베는 천천히 차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일본의 어느 관광지에 가든지 2평 남짓한 전통다실(차를 마시는 방)을 하나쯤은 볼수 있지요. 일본처녀들은 아직도 기모노 입는 법과 함께 다도를 열심히 배우고있구요. 무사도가 죽음의 예술이라고 한다면 다도는 삶의 예술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차문화는 일본문화의 대표적인 유산으로 전해져왔습니다. 헌데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 조선의 자기문화가 끼친 문화적충격은 무시할수 없는것이라 할가요. …사실 일본문화사의 갈피에 <고려차완>이라고 기록된 조선의 차그릇들이 널리 보급되면서부터 일본의 차문화는 개화기에 들어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오늘 여기에 들리니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하하…》

차종 하나를 두고 제법 현학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낸 가루베는 스스로도 자기의 구변에 만족했던지 흐무러진 웃음을 지었다. 가루베를 쳐다보는 히사꼬의 맑은 두눈에도 랑만적인 불꽃이 고요히 일고있었다. 하지만 경식은 느글느글한 웃음뒤에서 탐조등처럼 자기를 뜯어보는 가루베의 엉큼한 눈길을 놓치지 않고있었다.

잠시 말이 없는 가운데 세사람은 제가끔 차맛을 음미해보았다.

《차맛이 깊습니다.》

선량한 미소를 머금으며 히사꼬가 터놓는 느낌이였다. 혼기가 다된 지금까지도 소녀시절처럼 생활에 대한 서정적태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있는 처녀여선지 호젓이 차를 마시며 문화재이야기를 듣는 이 자리가 사뭇 즐겁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가루베가 느근한 웃음을 입가에 문채 히사꼬의 말을 받았다.

《인연이 깊으면 차맛도 깊은 법이지요.》

가루베는 차 한모금을 더 마시고나서 다시금 입을 열었다.

《동호인들과 마주앉아서 그런지 이 자리가 별로 서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며 삶의 여유와 향기를 함께 나누게 된것도 연분이라면 연분이겠지요. 불가에서 말하기를 옷깃 한번 스치는것도 전생에 삼천년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 했은즉 아마 우린 삼만년의 인연쯤은 될것 같습니다. 하하하…》

가루베의 너스레웃음에 히사꼬가 따라웃으며 명랑하게 수긍했다.

《저도 <백제고고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가루베선생님을 뵙게 되여 기쁩니다. 저, 제가 듣기에 선생님은 조선에 계실 때 의업에 종사하셨다는데 어떻게 돼서 고고학에 관심을 돌리게 되셨습니까?》

처녀의 흥이 오른 깜장눈에 그다운 호기심이 한가득 떠돌고있었다. 가루베는 지나친 찬사는 말라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히사꼬의 태도가 싫지 않았던지 흠흠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처녀에게 대답하는것이였다.

《실은 내 고고학연구라는게 골동품을 수집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고 말해야 할것 같소. 이전부터 골동품수집에 취미를 붙인 사람들중에 의사나 판검사가 많은데 그게 다 리유가 있는거요. 히사꼬양은 잘 모를테지만 의사란 직업은 참 단조롭다 하지 않을수 없소. 하루종일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상대하다나니 스트레스

를 많이 받거던. 또 그런 점에선 판검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식히려고 골동품수집에 열을 올리는거지. 나도 처음엔 스트레스나 해소해보려고 골동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한노릇이 나중엔 이렇게 고고학자가 돼버리고말았구려. 허허…》

경식은 쓴웃음을 억지로 삼켰다. 스트레스나 취미라는 말로 자기의 흑심을 분칠하는 가루베의 넉적은 소리가 역스럽게 들려왔던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면박이라도 한방 먹이고싶었지만 아직까지 가루베의 속내를 알수가 없어 궁글게 헛기침만 하였다.

(대관절 이자가 무슨 소릴 하려고 이다지 뜸을 들이는걸가? 내가 향악보에 대한 말을 먼저 꺼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심산인가?…)

아무리 보아도 능갈친자가 틀림없어 경식이 단단히 마음을 다 조이는데 가루베는 의자등받이에 젖버듬히 기대앉아 경식을 건너다보며 계속 딴전을 부리고있었다.

《그 시절에 난 저런 백자기들도 적지 않게 수집했더랬지요. 에, 기억해보건대 그게 공주의 어느 골동포에서였을겝니다. 내가 조선에서 옛 백자를 처음으로 접하던 곳이 말입니다. 그때 먼지를 뒤집어쓴채 진렬장 한구석에 놓여있던 옛 자기의 희부연 빛갈에서 난 이름할수 없는 애수를 느꼈습니다. 사라져가고있는것의 슬픈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할지, 퇴색한 동양문명의 마지막여광을 보았다고 할지… 아마도 15세기이후 활발히 만들어지기 시작한 조선의 옛 백자들의 흰 빛갈은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쌓여온 슬픔과 한의 무의식적인 표현이 아닌가 봅니다. 어떤지요, 리선생의 생각은?》

가루베가 명상에 잠긴 철학가같은 표정을 지으며 슬그머니 말자루를 경식에게 밀어던졌다. 경식을 화제에 끌어들여 분위기를 눙치면서 그의 됨됨이를 타진해보겠다는 속구구같았다.

리경식은 한동안 아무 대꾸도 안했다. 하지만 그렇게 가만히 있

으려니 문화재에 스며있는 겨레의 얼을 제멋대로 외곡하는 가루베의 횡설수설이 괘씸하기 그지없었다. 더우기 자기를 쳐다보는 히사꼬의 단순하고 선명한 눈길을 의식하는 순간 경식은 가루베앞에서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솟구쳤다. 이윽고 경식은 가루베를 지그시 바라보며 무뚝뚝한 어조로 말문을 뗐다.

《그런 견해는 식민주의적인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일본제국주의에 충실하였던 어용학자들이 우리 민족의 문화적재보들을 어둡고 우울하게 묘사하군 했지요. 그래야만 자고로 조선민족이 불행많고 슬픔많은 초라한 약소민족이였다는 저들의 주장을 안받침할수 있었으니까요.》

한순간 가루베의 얼굴에 당황해하는 빛이 떠올랐다. 그러거나말거나 경식은 하던 말을 계속했다.

《사실 도자기만큼 한 민족의 생활과 밀착되여 거기서 우러나오는 미감을 순수하게 나타내는것은 없을겁니다.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흰색을 숭상해왔습니다. 백의민족이라는 말도 있듯이 옷도 흰옷을 즐겨 입어왔지요. 한데 흰옷은 조금만 때가 묻어도 볼모양이 없는지라 입자면 많은 품을 들여야 합니다. 어지러워지면 빨아서 말리고 정성껏 풀을 먹여 다시 말립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반드럽게 윤기가 나도록 다듬이질까지 해야 합니다. 사나흘이 지나면 그런 일을 또 반복하고요. 일제때 총독부관리들의 눈에는 이러한 우리 겨레의 흰옷이 아마도 무언의 항거로 비쳤던가 봅니다. 얼마나 비위에 거슬렸으면 시골 장터의 입구마다 검정물을 담은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놓고 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흰옷에 검정물까지 끼얹으면서 못되게 굴었겠습니까. 허나 수백수천년을 이어온 조선사람들의 <번거롭고 불편한> 전통을 끝끝내 허물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때문이겠습니까. 그건 깨끗함과 순박함을 좋아하는 조선사람들의

생활정서가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흰빛과 어울려 하나의 민족성으로 자리잡았기때문입니다. 조선봉건왕조시대 백자의 흰 빛갈에도 바로 우리 겨레의 그와 같은 정결한 미의식이 담겨져있습니다. 조선봉건왕조시대의 실학자였던 리규경이 우리의 자기를 가리켜 <깨끗함에 그 장점이 있고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오히려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것이라든가 왕실에서는 물론이고 사대부와 일반백성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채색자기가 아니라 색택이 우아한 순백자를 제일로 여겼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우리 민족의 독특한 미감을 여실히 느낄수 있지 않을가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보니 순백의 아름다움을 류달리 사랑한 조선사람들의 고상한 뜻을 리해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에 흥분했는지 히사꼬가 기꺼운 어조로 화답하는 소리였다. 언제 보나 감수성이 빠르고 배우려는 의욕이 강한 처녀의 솔직한 태도에 경식의 마음이 훗훗해지는데 가루베도 리해가 간다는듯 짐짓 머리를 끄덕거린다.

《<순백의 아름다움>이라… 허, 꿈보다 해몽이라고 역시 문화재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격이 천양지차로 오르내리는가 봅니다. 흐흐…》

가루베의 내리깐 눈길이 비웃는것처럼 보였다. 경식은 속이 울컥했으나 애써 눌렀다. 더이상 가루베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직방 본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오늘 만나자고 한 용건은 뭔데요?》

경식의 돌연한 질문에 가루베는 굳어지는듯 하더니 인츰 느글느글한 웃음을 또다시 얼굴에 그리며 차를 몇모금 들이키는것이였다. 식탁우에 놓여있는 상수건을 들어 느릿느릿 입을 문지르고난 가루베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내놓았다.

《실은 리선생과 긴요하게 상론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경식은 온몸이 바싹 긴장해졌다. 그의 그런 속마음을 꿰뚫어보고있는지 가루베의 눈이 음침하게 빛났다. 가루베는 다음 말을 이을 대신 상대방의 초조감을 한껏 간질일 속셈인양 흥클한 미소를 입가에 띠운채 손가락에 낀 다이야몬드반지만 만지작거렸다. 그러다가 얼마간이 지나서야 비대한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상반신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춰 쑥덕거렸다.

《듣자니 리선생이 <조선향악보>의 행처를 알아냈다면서요?》

경식은 졸지에 뻥뻥해지고말았다. 너무도 예상밖의 소리였던것이다.

4. 일본《호리야》

(내가 향악보의 행처를 알아냈다구? 이건 무슨 그믐밤의 홍두깨같은 소린가?…)

안경알속에서 탐욕스럽게 희번득이는 가루베의 눈망울을 보는 순간 문뜩 이자가 자기를 떠보려 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뇌리에 파고들었다.

《실없는 소문이군요.》

시답지 않은 투로 이렇게 대꾸하고난 경식은 가루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가루베가 짧은 눈시울로 눈망울을 덮으며 껄껄 웃었다.

《핫하하… 이래 뵈도 내가 문화재분야에선 귀가 꽤 밝은편인

걸요.》

그래도 경식이 미심쩍어하는 기색을 털어버리지 않자 가루베는 아무래도 안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실토정을 하는것이였다.

《허, 이거 별수가 없구만요. 리선생이 날 믿지 못하니 진실을 말할수밖에… 딴은 이찌가와씨에게서 리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찌가와?》

리경식의 눈섭이 구붓하니 곤두섰다. 그가 알고있는 일본인동료들중에 그런 성을 가진 사람은 없었던것이다. 선뜻 짚이는데가 없어 경식이 머리를 기우뚱거리는데 갑자기 히사꼬가 놀라며 소곤거렸다.

《아, 니시다씨가 말하던…》

경식은 그만 굳어져버리고말았다. 그럼 향악보때문에 니시다를 찾아왔었다던 그 이찌가와란 말인가. 아연함을 금치 못하는 두사람에게 가루베가 능글거리며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옳습니다. 그도 니시다씨를 만난적이 있다더군요. 며칠전에 난 그 이찌가와라는 사람을 찾아갔더랬지요.》

가루베는 히벌쭉이 웃더니 다음 말을 이었다.

《그의 말인즉 리선생이 향악보를 가지고 사라진 나까야마의 행방을 알아냈다는겁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리선생의 거처며 래력까지도 이찌가와씨에게서 얼마간 들을수가 있었습니다. 인젠 내 말이 믿어지겠지요. 하하… 아무튼 리선생의 재주가 놀랍군요. 나도 나까야마를 찾자고 사처에 수소문해보았건만 아직 아무런 단서도 쥐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보매 가루베의 말은 사실인것 같았다. 경식은 뭐가 뭔지 통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대체 이찌가와란 어떤 사람인가? 얼굴 한번

마주한적 없는 생면부지의 그 사람이 어떻게 날 알고있는걸가? 게다가 내가 나까야마를 찾아냈다는 왕청같은 소리는 가루베에게 왜 했을가?… 꼬리를 물고 솟구치는 의문들을 종잡을수 없어 경식은 속으로 랭가슴을 앓았다.

사실 니시다를 만나고 온 이후 그자신도 나까야마의 행방을 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여오고있는터였다. 총련조직과 동포들이 그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하건만 여태 신통한 소식을 듣지 못해 속을 썩이고있는데 터무니없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것이다. 가루베와 이찌가와… 니시다를 찾아갔던 두 사나이들과 묘하게 맞다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착잡하게 얼크러진 정황속에서도 한가지만은 비슷하게 넘겨짚을수 있었으니 그것은 가루베도 이찌가와도 아직까지는 나까야마의 행처를 모르고있다는것이였다. 구태여 자기의 허점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경식은 일부러 흔연스러운 태도를 취하며 가루베에게 말을 건넸다.

《글쎄요,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가루베씨가 그 문제와 무슨 련관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러자 가루베의 눈가에 능청스러운 빛이 떠돌았다. 잠시후 가루베는 량팔을 십자형으로 가슴우에 틀어얹더니 천연히 본심을 드러내는것이였다.

《터놓고 말하면 나 역시 리선생과 마찬가지로 <조선향악보>에 관심이 큰 사람이니까요.》

금시 피가 머리우로 올리뻗쳤다. 하지만 가루베의 속심을 더 들여다봐야겠기에 경식은 못 알아들은체 하고 물었다.

《아니, 가루베씨도 말인가요?… 그건 어째서요?》

가루베가 흔연히 대답한다.

《거야 물론 학술연구때문이지요.》

《그럼 선생님은 고고학외에 옛 음악도 연구하십니까?》

히사꼬의 순진한 물음에 가루베는 머밀머밀하다가 어물쩍 넘어갔다.

《에, 거 뭐라 할가… 우물을 깊이 파려면 자리를 넓게 잡으라는 말도 있지 않소. 하하…》

스님처럼 아닌보살하는 가루베의 거동을 보니 경식은 피씩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다.

(허, 학술연구라구?…)

가루베의 과거를 잘 알고있는 경식에게 그런 기만이 통할리 만무하였다. 총칼을 앞세우고 조선의 옛무덤들을 도굴할 때 저들은 《학술연구》를 운운했었다. 도자기며 돌탑을 비롯한 조선의 수많은 문화재들을 치부의 수단으로 빼돌릴 때에도 저들은 이른바 《학술연구》를 위해서라고 떠벌이지 않았던가. 날강도들이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해 내걸군 하던 《학술연구》라는 간판을 아직도 버젓이 들고다니는 가루베의 뻔뻔함에 경식은 욕지기가 치미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러는데 가루베가 하나둘 너울을 벗어던지며 끈덕지게 달라붙기 시작하였다.

《리선생,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난 리선생이 향악보때문에 귀국도 미루고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또 자기 조국에 대해 깊은 감정을 가지고있다는것도 알고있고요. 헌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지요. 설사 리선생이 향악보를 가지고있는 사람을 찾아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쉽사리 향악보를 내놓을것 같은가요?》

《…》

《모름지기 리선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값을 요구할겁

니다. <조선향악보>의 가치에 대해선 나보다 더 잘 아실테니 긴 설명은 필요없겠지요.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난 여기로 오기전에 당신의 자금사정에 대해서도 대충 알아보았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일본에서야 돈이 모든걸 결정하니까요. 한마디로 리선생의 현재 형편에서 향악보를 손에 넣는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걸 이야기하고싶습니다.》

경식은 묵묵히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없었다. 급작스레 뒤바뀐 화제에 놀랐는지 히사꼬가 불안스러운 눈길로 경식을 쳐다보았다. 분위기가 이쯤되자 가루베는 더욱 기세를 피웠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리선생, 그 일을 내게 양보하는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조선향악보>를 사들일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찌가와씨가 나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은것도 그 점을 계산했기때문입니다. 대신 내가 향악보를 입수하면 자기에게 제일먼저 열람시켜달라는 조건부를 걸었지만 말입니다. 자긴 동양음악을 연구하는 아마츄어전문가라나요. 흐흐… 령리한 사람이지요. 그러니 리선생, 진심으로 부탁하건대 나에게 나까야마의 거처지를 알려주시오. 아무래도 뻔한 승부를 두고 공연한 시간과 정력을 랑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식의 목구멍에서는 쓰거운것이 연송 치밀어오르고있었다. 그것을 꿀꺽꿀꺽 삼키며 가타부타 말을 안하는데 가루베가 그의 침묵을 제나름으로 짐작했던지 다소 여유작작한 태도를 보이며 눙치려들었다.

《물론 리선생이 향악보때문에 고생이 많았다는걸 모르는바 아닙니다. 마땅히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하겠지요. 원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당신이 섭섭치 않을만큼 현금으로 사례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실언을 했나보군요. 리선생 같은분이야 다

른걸 바라실테지요. 소원이라면 내가 수집한 조선문화재들가운데서 몇점을 당신에게 양도할수도 있습니다. 풍문을 들으니 얼마전에 세계적인 미술품경매시장인 미국의 <소더비>경매장에서 고려청자 하나가 2만 5천딸라에 팔렸다더군요. 내가 소장하고있는 문화재들 역시 그만한 값은 나가고도 남으리라는걸 장담합니다. 아무튼 당신에게 조금도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걸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리선생?》

가루베의 추근추근한 눈길이 리경식의 얼굴에 지끈게 늘어붙어 좀처럼 떨어질줄 몰랐다.

경식은 두손으로 얼굴을 문다지며 큰숨을 내쉬였다. 인젠 가루베의 배속에 어떤 시커먼 야욕이 웅크리고있는지 알만 하였다. 참으로 낯가죽이 발바닥같은자였다. 한 인간의 량심을 어렵지 않게 돈으로 환산하려는짓도 철면피했지만 도적질해간 재부를 제것인양 내들고 주인에게 천연덕스럽게 흥정을 거는 저 뻔뻔스러운 행태야말로 얼마나 후안무치한가. 더우기 저런자가 학자의 탈까지 쓰고있다니 실로 기가 막히는 일이였다.

가슴속에서 검붉은 화염이 피여오르는것을 누르며 경식은 곁에서 가슴을 조이는 히사꼬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어떻소, 히사꼬. 방금 가루베씨가 응분의 보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고작해서 문화재 몇점정도로 향악보를 양보한다면 내가 너무 밑지는게 아니요?》

히사꼬가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데 가루베는 뜻밖이라는듯 입을 쩍 벌렸다.

《허? 인제 보니 리선생 욕심도 여간 아니군요. 좋습니다. 당신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만족시키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내겐 당신의 구미를 돋굴만 한 진품들이 적지 않답니다. 흐흐…》

그래도 경식은 도리질만 할뿐이다. 은근히 초조해났는지 가루베가 다우쳐물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직도 부족하신게 있는가요?》

안경알너머로 흰 눈자위를 디룩거리는 가루베에게 경식은 히죽이 웃어보였다.

《글쎄요, 내 생각엔 가루베씨가 소장하고있는 조선문화재들을 통채로 내놓는다 해도 부족할것 같은데요.》

잠시 멍해있던 가루베가 배꼽이 하품할 소리라는듯 밭은 목을 제끼고 껄껄거렸다.

《흐하하… 익살이 여간 아니신데요. 리선생은 아직 이 가루베 신조를 잘 모르시는것 같군요. 흐하하…》

기가 등등해서 너털거리는 가루베를 보느라니 관자노리로 피가 세차고도 아프게 뿜어올랐다. 그렇지만 경식은 내색함이 없이 태연히 대꾸했다.

《왜 모르겠습니까. 가루베씨가 가지고있는 조선문화재들을 다 합치면 남들이 깜짝 놀랄만큼 엄청난 액수라는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가루베씨, 그 모든것들이 실지로 당신의 합법적소유물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가요?》

《그, 그건 무슨 뜻인지요?》

《당신이 주인들에게서 정정당당하게 넘겨받은 문화재들인가 하는겁니다. 내 알기에 당신이 자랑하는 문화재들은 대개가 식민지시절 조선의 옛묘들을 파헤치고 꺼낸 부장품들이라던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남의 무덤을 팔 때 자손들의 허락이라도 받았는가요?》

《…》

그처럼 너스레를 부리던 가루베의 입이 대번에 얼어붙고말았다. 경식은 얼나간 모양으로 멍청해있는 가루베를 드립다 조겨댔다.

《대답을 못하는걸 보니 주인 몰래 부장품들을 빼내왔다는건데 그렇게 모아들인 물건들을 가지고 과연 자기것처럼 행세할수가 있을가요? 경우를 따지면야 가루베씨로선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골백번 사죄를 해도 모자랄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지고있는 조선문화재들은 전부 주인에게 되돌려주는게 당연한 도리가 아닐가요?》

가루베의 살찐 볼따귀가 팽팽해지고 불거져나온 눈망울이 싸늘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잠간뿐이였다. 가루베는 이내 표정을 누그러뜨리더니 빈정대듯 선하품을 집어삼키며 자기 손을 배우에 얹었다. 그리고는 건방진 조소를 입가에 담고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흠, 그건 너무 지나친 생각인데요. <아름다움은 그것을 발견한 자의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고려자기 하나만 봐도 그렇게 말할수 있는걸요. 에, 솔직한 말로 우리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전에야 조선인들은 고려자기의 존재조차 모르고있지 않았던가요. 비록 도자기를 만든 사람들은 조선인들이였지만 그 가치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일본인들이였습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조선속담도 있듯이 조선문화재에 대한 애정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당신네보다 결코 못하진 않을것 같은데요.》

《허허허…》

경식은 그만 억이 막혀 궁글은 소리로 웃고말았다. 정말 저런자들에게는 력사의 진실을 리해할 능력이 선천적으로 결핍되여있는것인가. 사물현상의 본말을 저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자꾸 흐트러뜨리기때문에 과거를 외곡하는 망언을 떡먹듯이 되풀이하는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리경식은 랭소를 지으며 가루베의 말을 받았다.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이 하는 가장 심한 욕이 무언지 아는가요? <굴총할 놈>이라는 소립니다. 조상숭배가 고유종교라고 할 정도로 선조에 대한 공경심이 남달리 깊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상의

묘에 손을 댄다는건 꿈에서라도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제일 못된짓이였거든요. 이자 당신의 말대로 일본의 침략이 미치기 이전에 조선의 땅우에서는 단 한점의 고려자기도 구경조차 할수 없었던 리유가 다름아닌 그때문이 아니였던가요. 그런데 19세기 말엽이 되자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에 편승해서 <굴총할 놈>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굴총하는 놈>들이 바다를 건너 떼지어 밀려들기 시작했지요. 가만, 거 일본말로 그런 놈팽이들을 뭐라고 하던가요? 아, <호리야>(<도굴쟁이>라는 일본말)라고 부르지요. 바로 그 일본<호리야>들이 조선의 방방곡곡을 돌아치면서 우리 조상들의 령혼이 잠들고 있는 옛묘들을 마구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고구려의 도읍지였던 평양에서만 봐도 당시 평양에 살던 일본인치고 고분에서 파낸 옛 거울이나 그릇 같은것을 갖고있지 않으면 머저리취급을 당했다는 기록이 남을 정도였으니까요. 고려자기를 비롯한 조선의 유구한 문화재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다는건 당신이 말한 그대로라 할수 있습니다.

하다면 가루베씨, 정녕 당신은 그때 일본인들이 조선문화재에 대한 애정때문에 그런짓들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까? 백주에 다이나마이트까지 터뜨리면서 남의 왕릉을 도굴해간 강도짓을 두고 애정에 못이겨서였다고 변명한다면 삶은 소대가리도 웃지 않을가요? 남의 조상묘를 굴총해서 벼락부자가 된 인간들을 가리켜 조선문화재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자들이라고 부른다면 세살 난 애도 얼굴을 붉힐겁니다. 명백히 그 모든 짓거리들은 탐욕이 낳은 만행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였습니다. 전기회사의 우두머리로 조선에 건너와있던 오구라 다께노스께의 경우만 상기해봐도 충분하겠지요. 조선의 옛무덤들을 얼마나 파헤치고 다녔는지 두더지라는 별명으로까지 불리운 그자도 패전후 도꾜에 돌아와서 조선문화재들을 팔아먹으면서

여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건 그자가 파낸 대다수의 조선문화재들에 <출처불명>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다는겁니다. 그러한자들에게 있어서 옛묘들과 사찰들을 비롯한 우리 나라 각처의 유적지들은 오로지 노다지금광과도 같은 략취와 치부의 대상일따름이였지요. 본국에서는 가진것이 없어 알몸으로 건너왔지만 조선문화재들을 훔쳐내고 팔아먹은 덕에 밑천 한푼 안 들인채 일확천금을 한 일본인들이 적지 않다는거야 나보다도 당신이 더 잘 알텐데요? 당신이 말하는 기른 정이라는게 바로 그런걸 념두에 두는건가요?》

가루베의 목덜미가 노기로 부풀어올랐다. 가루베는 성난듯이 벌름거리는 코구멍으로 킁킁 코그루를 박더니 간신히 얼굴에 웃음을 바르느라 입귀를 실룩거렸다. 얼마후 그자의 입에서 또다시 궤변이 흘러나왔다.

《조선의 문화재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폐단들이 있었다는건 나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허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일본인들의 소행에 불과한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에 대한 구일본의 문화재보호정책은 좋은것이였다고 해야 하지 않을가요? 데라우찌 초대총독이 조선에서 해놓은 일만 놓고보아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 조선인들은 데라우찌라고 하면 가혹했던 무단통치부터 떠올리지만 문화재분야에서는 그도 조선을 위해 여러가지 치적들을 남겼습니다. 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공포한것도 그렇고 총독부박물관을 세워 훌륭한 출토품들은 현지에 보관토록 한것도 그렇지요.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진상받은 진귀한 소장품들중 일부를 총독부박물관에 기증하였다는 한가지 일화를 통해서도 일본이 일관하게 견지했던 조선문화재보호정책의 진정성을 여실히 엿볼수 있습니다. 에, 물론 조선의 문화재들중 많은 부분이 일본으로 반

입된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발굴비용을 대체로 일본사람들이 대주었다는 사정도 있었거니와 세계를 둘러보면 그러루한 사례야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지요. 대표적인 실례로 지난 시기 영국 같은 나라는 식민지였던 인디아나 에짚트에서 얼마나 많은 문화재들을 본국으로 날라갔습니까. 설사 경위에서 다소 유감한 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것이 학술연구를 추동하고 해당 나라들의 력사와 문화를 널리 소개하는데 이바지하지 않았던가요. 그런 점들을 생각할 때 과거 우리 일본인들이 한 일들을 두고 굳이 비난만 해야 할 리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가루베는 비둥비둥 살찐 어깨를 으쓱해보이며 입을 삐쭉거렸다.

뻑뻑한 경련이 경식의 목굽으로 치받쳐올랐다. 불쑥 명성황후를 살해한 범인들이 본국의 법정에서 무죄석방되였을 때 일본전국이 환호를 지르며 살인괴수 미우라를 일약 《국민적영웅》으로 떠받들었다던 지난 세기의 암울한 일화가 떠올랐다. 지금 가루베가 하듯이 자기들 일방의 리익에 부합되는것이라면 저질러놓은 죄악도 스스럼없이 분칠하고 망각하는 도덕적철면피속에서만 일본민족의 생존은 보장되는것인가.

다음순간 팽팽하게 긴장된 분위기에 질려 두사람의 동정만 숨죽인채 살피고있는 히사꼬의 모습이 눈에 안겨왔다. 경식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순진한 저 처녀는 아직 가루베와 같은자들에 대해 모르는것이 너무도 많을것이다. 그렇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이러한 대결이 결코 조선민족과 일본민족간의 대결이 아니라는것을,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고 량심과 파렴치의 대결이라는것을 똑바로 알려주어야 한다.

리경식은 심장의 둔탁한 웨침소리를 들으며 준절한 어조로 가루베의 허울을 발가놓았다.

《가루베씨의 말을 들으니 <거짓말도 방편>이라는 일본속담이 떠오르는군요. 하지만 력사라는게 마음에 안 들면 아무때고 갈아입을수 있는 옷가지가 아니지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위해 그렇게도 가상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데라우찌가 조선에서 빼돌린 수많은 문화재들로 자기 고향인 야마구찌에 <조선관>이라는 진렬관까지 세워놓은 사실은 왜 함구무언하는가요? 게다가 데라우찌의 그 진렬관이라는게 서울의 경복궁을 야금야금 헐어다가 지은 건물이라는 사실은 력사에서 얼마든지 생략할수 있는 한갖 사말사에 불과한것인가요? 비단 데라우찌뿐이 아니지요. 권력과 돈으로 우리의 문화재들을 송두리채 갈취해가려던 일본제국주의통치배들의 죄행을 꼽자면 몇백날이 걸려도 모자랄겁니다.

당신은 과거 일본이 조선의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정책을 베푼것처럼 묘사하는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 해서 애국명장들을 칭송한 옛 비돌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해버린것이 과연 좋은 정책인가요? 침략전쟁에 쓸 총포탄을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전해져오던 전국의 종들과 지어는 사원의 불상이며 불기들까지 닥치는대로 용해로에 처넣은 정책이 어떻게 좋은 정책일수 있는가요? 가루베씨, 어디 한번 대답해보시지요. 단군관계서적을 포함한 고대사부문의 력사책들을 수십만부나 불살라버리고 우리 겨레에게서 조상마저 없애버리려고 한 일본제국주의의 정책을 좋은 정책이였다고 강변한다면 조선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것 같은가요? 반만년의 력사와 문화를 말살하려고 그처럼 야비한짓을 다하면서도 겉으로는 선전을 위해 조선민족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비용의 극히 보잘것없는 몫을 떼서 박물관을 차려준다, 보수를 해준다 하고 위선을 부렸으니 일제의 조선문화재정책이라는것이야말로 실로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정책의 극치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방금 세계를 둘러보면 그런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 일본이 조선사람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한것처럼 영국이 인디아인들을 영국인으로 만들려고 했었는가요? 영국이 인디아인들에게 성과 이름마저 영국식으로 바꾸라고 강요했는가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세계사를 훑어봐도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일본식민주의의 악랄성이 있는거지요. 단순히 남의 재보를 략탈하는데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겨레의 민족성을 깡그리 거세해버리자는것이 일본이 감행한 조선문화재정책의 궁극적목적이 아니였던가요?!》

가루베의 퉁방울눈이 충혈되여 부어올랐다. 그자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려고 했지만 웃음은 그의 목안에서 걸리고말았다. 경식의 목소리가 더더욱 강개해졌다.

《가루베씨, 지금 우리앞에는 일본의 전후세대가 앉아있습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무엇을 담아도 변해버리기마련이지요. 당신이 진정으로 일본의 건전한 미래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죄많은 지난날과 단연히 결별하도록 새 세대들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가요? 마땅히 당신들은 후대들앞에서 싫든좋든 과거의 진실을 숨김없이 털어놔야 한다고 봅니다.》

《건방진 소리!》

가루베가 광포해진 눈을 부릅뜨며 버럭 거친소리를 내질렀다. 차를 마시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당신이 극언을 퍼부어도 조선에서 내가 진행한 모든 발굴은 철저히 학자로서의 진지한 연구적태도로 일관된 과학적발굴이였다고 나는 떳떳하게 말하는바요! 내가 가지고있는 조선문화재들도 법에 의해 인정된 당당한 내 재산들이구! 이게 바로 과거의 진실이요! 당신은 이걸 인정해야 해!》

받으려는 황소마냥 머리를 수굿한채 길길이 날뛰는 가루베를 보

자 경식의 부르쥔 주먹이 참을수 없이 찡찡 울었다. 꽝! 경식은 식탁을 내려치며 그자를 향해 가슴속에서 이글거리는 분노를 불길처럼 내뿜었다.

《무엇이 어쨌다구? 당신 같은자가 감히 과학적발굴을 운운할 체면이나 있는가! 실지로 과학적발굴을 했다면 응당 실측도와 사진들로 안받침된 상세한 발굴보고서들을 세상에 내놨어야 할게 아닌가! 헌데 당신은 무려 2천기에 달하는 백제무덤들을 파헤치면서 똑똑한 보고서 하나 내놓은게 있는가 말이요! 결국 당신이 참혹하게 파헤친 그 많은 옛무덤들은 본래의 모습을 두번다시 볼수 없게 되였으니 다름아닌 그런게 도굴이지 뭐가 도굴인가! 그러고도 훔쳐낸 부장품들이 법에 의해 인정된 당신 개인의 재산이라구? 도대체 그 법이라는게 어떤것이였소? 강탈을 하든 매수를 하든 일단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빼내간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류나 수량, 경위를 불문하고 그들의 소유권을 보호해준 침략자들의 날강도법이 아니였는가! 그렇게 정정당당한 재산이라면 무엇때문에 당신은 략취한 우리 문화재들을 후꾸오까현의 모처에 감추어두고있는거요? 가루베씨, 말이야 바른대로 당신 같은자들은 학자가 아니라 <호리야>라고 불러야 제격이 아니겠소. 그렇소! 당신이야말로 전형적인 일본<호리야>요!》

《으음—》

가루베의 악물린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일그러졌다. 경식은 풀길 없는 앙심이 꿈틀거리는 가루베의 면상을 가차없는 눈매로 찍어보며 꾸짖었다.

《아직도 우리를 무력하고 어질어빠진 약소민족으로 아는 모양인데 천만에! 오늘의 조선사람들은 어제날의 조선사람들이 아니라는걸 똑똑히 명심하는게 좋을거요!》

경식은 분연히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가루베씨, 아무래도 우린 서로 인연이 닿지 않는것 같소. 가기요, 히사꼬!》

마지막말을 뱉고나서 그가 히사꼬와 함께 얼마쯤 걸어나오는데 뒤에서 가루베의 코웃음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흥, 거야 두고봐야지. 당신이 별의별 모지름을 다 써봤댔자 어차피 <조선향악보>는 내 손에 들어오고야말걸. 흐하하핫…》

돌아보니 가루베가 입술을 비틀며 악의에 차 웃고있었다. 경식은 불이 펄펄 타는 눈길로 가루베를 노려보다가 차집을 나왔다.

거리에 나서자 화끈 달아오른 얼굴에 해질녘의 선기가 미쳐왔다. 경식은 허우대큰 몸을 꿋꿋이 펴고 활개짓을 하며 씨엉씨엉 걸어갔다. 지은 죄를 정당화하며 마지막까지 기승을 부리던 가루베의 가증맞은 상통이 눈앞에서 좀처럼 사라질줄 몰랐다.

얼마나 뻔뻔스럽기 그지없는자인가. 그자도 일본인이니 대부분의 일본인가정들에서 다 그러하듯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훈계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라났을것이다. 흔히 일본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제일먼저 《오아시스》를 가르친다지 않는가. 《오하요 고자이마스》(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리가도 고자이마스》(고맙습니다), 《시쯔레이 시마스》(실례합니다), 《스미마셍》(미안합니다)의 첫 글자를 딴 《오아시스》는 남에게 제대로 인사할줄 알고 고마워할줄 알고 사과할줄 알면 인간세상이 오아시스가 된다는 의미일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철부지적부터 그렇게 주입받아온 인간들이 어떻게 지난날 숱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몸서리치는 재난을 들씌우고서도 《조선을 침략한것이 아니다!》, 《남경대학살은 날조다!》 하는따위의 망언을 아무 거리낌없이 쭤쳐댈수 있는것일가. 가루베와 같은자들에게 있어서 《오아시스》는 한갖 남을 얼려넘기기 위한 겉치레에 불과하다는건가, 아니면 속통좁은 자국일

변도의 배타주의에 빠진 나머지 타민족에게는 그런 도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건 아닌지… 그런자들이 여전히 이 땅의 대로를 뻐젓이 활보하고있기에 아직까지도 일본은 아시아의 고아로, 도덕적미숙아로 남아있는것이 아닌가.

치밀어오르는 분기를 누를길 없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처 걷기만 하던 리경식은 뒤늦게야 함께 왔던 히사꼬에게 생각이 미쳤다.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고개를 떨군채 따라오는 히사꼬가 눈에 띄였다. 생기를 잃은 처녀의 창백해진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경식의 마음속에 한줄기 련민의 정이 스며들었다.

걸음을 늦추고 히사꼬를 지켜보던 경식은 그가 다가오자 다소 누그러든 어조로 물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하오?》

히사꼬는 희미한 미소를 지어보일뿐 대답이 없었다. 순진한 기대와 랑만을 머금고 즐겁게 반짝이던 처녀의 두눈이 재빛하늘아래 누워있는 텅 빈 호수마냥 공허하게 가라앉아있었다. 처녀의 눈가에 어려있는 슬픈 그늘이 경식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두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걷기 시작하였다.

행인들로 붐비는 거리를 걷던 그들은 인적이 뜸한 간다강기슭으로 들어섰다. 석양녘의 적막한 봄볕이 강물우에 일렁이고있었다. 강바람에 실려온 심정화의 진한 향기가 물비린내와 어울려 폐부를 적셔왔다. 목가적인 정경이 심금을 건드렸던지 이윽해서 히사꼬가 혼자말을 하듯 쓸쓸하게 속삭인다.

《좀전에 본 그런 사람들은 추하고 볼꼴없는데 자연은 왜 이토록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경식은 강변을 따라 늘어선 나무들의 가지마다에 고즈넉이 내려앉는 석양빛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음만 옮기고있었다. 그러는데 비

애에 잠긴 히사꼬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오는것이였다.

《진리는 좋은것이지만 어떤 때는 너무도 쓰디쓴가 봅니다. 조선사람들은 영원히 일본의 존재를 식민지기억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겠지요?》

그것은 물음이라기보다 자기자신에게 하는 대답 같았다. 경식은 처녀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조용히 말했다.

《억지로 잊는다는건 기억하는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괴롭게 새여나오는 히사꼬의 한숨섞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전 지금 일생의 십자가를 걸머진 심정입니다. 다 우리 일본인들의 자업자득이지요.》

리경식은 맥없이 고개를 떨구고 걷는 히사꼬를 물끄러미 눈여겨보았다. 전세대가 지어놓은 죄의 그늘에 갇혀 넓디넓은 하늘을 마음껏 쳐다보지 못하는 한 일본처녀를 보니 절로 마음이 서글퍼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처녀에게 걸발린 소리를 하고싶지는 않았다.

걸음을 멈추고 히사꼬에게로 돌아선 경식은 처녀를 마주보며 진심을 터놓았다.

《지나간 일들가운데는 자랑스러운것들도 있지만 부끄러운것들도 있기마련이지. 그렇다고 과거를 단물만 빨아먹고 뱉아버리는 껌처럼 대한다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거라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자기라는 존재의 일부이니까. 진정으로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신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려면 우선 히사꼬 같은 청년들부터가 과감히 어지러웠던 과거를 돌이켜볼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게 중요하지 않겠소.》

어디선가 새크무레한 풀냄새가 풍겨왔다. 경식은 연두빛순이 아련

하게 돋아나고있을 봄날의 새 생명을 그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난 히사꼬가 조선사람들에 대해 옳게 인식하기 바라오. 우리가 혐오하는자들은 가루베 같은 철면피한들이지 결코 일본인민이 아니요. 우리 두 나라 인민이 진정한 화해와 우애를 도모해나갈 때 조선민족과 일본민족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래일을 함께 나누게 될 거요. 히사꼬,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길이 시작된다고 난 믿소.》

경식은 처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히사꼬의 두눈에 석양의 뜨거운 반사광이 비껴돌았다. 가슴속에서 훈훈한 희망이 솟아나는것을 느끼며 경식은 처녀를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5. 《다마무시주점》 주인

《여보게, 나까야마라는 사람을 찾았네.》

흥분을 누르며 알려주는 엄길호의 말을 리경식은 선뜻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누구라구요?》

《<조선향악보>를 가진채 행적을 감췄다던 그 사람 말일세.》

엄길호가 되풀이해서야 경식은 귀가 번쩍 뜨였다. 경식은 총련 도꾜도본부의 청사안이라는것도 잊고 엄길호의 두팔을 와락 부둥켜잡으며 소리치다싶이 물었다.

《그게… 그게 정말입니까? 대관절 나까야마 모리오가 어디에 숨어있답니까?》

너무도 놀랍고 반가운 나머지 우물을 통채로 들고 마실듯 덤벼치는 경식의 모습앞에 엄길호는 빙그레 웃다가 다음 말을 이었다.

《오사까부본부에서 알려온데 의하면 나까야마는 현재 오사까에서 살고있다고 하네. 헌데 성은 나까야마가 아니라 시미즈라고 바꿨다더구만.》

《시미즈라구요?》

경식이 허거픈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런줄도 모르고 지금껏 나까야마라는 성을 가진 사람만 찾아헤맸으니 어처구니가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뿐이였다. 뒤미처 불안스러운 위구가 모든것을 지워버리며 그의 마음속에 밀려들었다.

(과연 나까야마가 아직까지 향악보를 가지고있을가? 만일 그도 니시다처럼 향악보를 누군가에게 넘겨버렸다면…)

조마조마한 생각에 가슴이 무죽해오는데 경식의 심정을 읽기라도 했는지 엄길호가 슬며시 덧붙이는것이였다.

《걱정하지 말게. 그 사람에게 분명 향악보가 있다는구만. 그걸 알려주자고 자넬 찾았네.》

《그래요?!》

리경식은 그 말을 확인이라도 하려는듯 엄길호를 찬찬히 눈여겨보았다. 엄길호의 온 얼굴에 퍼져나가는 느긋한 웃음발을 알아보았을 때 저도 모를 흥분으로 하여 경식의 두눈구석에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식은 엄길호의 두손을 부여잡은채 고맙다는 말만 거듭거듭 외웠다. 기쁨의 파도가 피줄을 퉁기며 부풀어올랐다. 니시다를 만난 이후 넉달이 넘는 기간 나까야마의 행방을 찾느라고 겪은 그 모든 고생과 피로움이 삽시에 씻은듯이 사라져버리는것만 같았다.

《고맙다는 인사는 오사까동포들에게 하게.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 총련조직에서 호소하자 오사까동포들이 제일처럼 떨쳐나서 나까야마를 찾느라고 수고가 많았네.》

희열이 번진 경식의 얼굴을 미덥게 지켜보던 엄길호가 조용히 일러주는 말이였다. 그 말은 천근같은 무게로 경식의 가슴에 실려왔다. 총련조직과 동포들이 그를 떠밀어주고있었다. 그 기대와 믿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텐데… 경식이 이런 생각으로 속을 끓이는데 넌지시 묻는 엄길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어떻게 할 생각인가?》

경식은 사지에 뻗쳐오르는 왕성한 힘을 의식하며 주저없이 대답했다.

《어떻게 하다니요?! 이제 당장 오사까에 뛰여가야지요!》

《하하하…》

벌써부터 장마철 강물처럼 서둘러대는 경식의 그 모양이 즐거웠던지 엄길호가 눈이 없어지도록 한바탕 웃었다.

도꾜도본부에서 나온 경식은 그길로 집에 달려가 대충 행장을 꾸져가지고 역전으로 나갔다.

도중에 히사꼬와 마주쳤다. 협회로 들어가던 히사꼬는 어디론가 급히 떠나는 경식을 보더니 무슨 일인가고 묻듯 살눈섭을 쳐들었다. 그간 향악보때문에 곁에서 왼심을 많이 써온 처녀를 보니 희소식을 함께 나누고싶은 충동이 뭉클 솟구쳐올랐다. 경식은 히사꼬에게 사연을 간추려 설명해주었다. 그러자 히사꼬가 손벽을 치며 탄성을 올리는것이였다.

《야, 선생님! 끝내 해내셨군요!》

금시에 해바라기처럼 환해진 처녀의 얼굴을 보니 경식의 기쁨도 곱절로 더해지는것 같았다. 허나 그러고만 있을 겨를이 없었

다. 향악보를 실제 찾아오기라도 한듯 소녀애같이 좋아하는 히사꼬에게 몇가지를 부탁하고나서 경식은 바삐 달음쳐 오사까행 렬차에 올랐다.

그가 오사까에 도착한것은 이튿날 오후였다. 리경식은 7월의 열기로 지글거리는 시내의 한복판에 들어섰다. 붐비는 행인들의 살김과 땀내가 배기가스냄새와 버무러져 찜가마같이 물쿠는 도시공기속에 어지러이 떠돌고있었다. 쇠울타리를 둘러친 은행들과 귀중품들이 번쩍거리는 보석상점들, 큰길가에 내다 세운 광고용인형들과 공중전화실들에 붙어있는 상품화된 녀자들의 사진들, 료리점들과 유흥업소들이 겨끔내기로 비집고 앉은 부산한 골목길들이며 진렬창마다에 만화처럼 꾸며놓은 형형색색의 초밥들과 과자들… 무더위와 매연에 찌들어 때이르게 퇴색해가는 나무잎새들을 보느라니 화려한 포장뒤에서 문드러져가는 자본주의사회의 뒤모습이 떠올라 한편 속이 거북하기도 하였다.

경식이 제일먼저 찾아간 곳은 총련 오사까부본부였다. 미리 련락을 받았는지 본부의 젊은 일군 한명이 나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라고 불러주십시오.》

남방샤쯔차림의 키가 껑충한 그 청년은 척 보기에도 씨원씨원해보였다. 조동수는 대뜸 경식에게 이꾸노구의 조선시장으로 가자고 이끌었다. 경식이 의아해하자 그가 설명했다.

《나까야마를 찾아낸 동포가 바로 거기서 살고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제서야 까닭을 안 경식은 쾌히 청년을 따라나섰다. 오사까시내의 이꾸노구에는 쯔루하시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앉아있는 조선시장을 경식은 잘 알고있었다. 경식이 길을 걸으면서 찾아가는

동포에 대해 묻자 조동수는 생각을 고르는듯 하더니 벙그레 웃으며 이런 말을 들려주는것이였다.

《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우달근이라고 고향은 제주도인데 현재 지역상공회 부회장을 하시는분입니다. 오사까동포들은 흔히 그를 가리켜 <만나면 시끄럽고 만나지 못하면 보고싶어지는 사람>이라고들 한답니다. 고국에 대한 향수가 남다른분이여서 동포들의 결혼식에서조차 그 례식이 조금이라도 우리 풍속과 어그러지면 큰소리로 호통을 치시군 하지요. 장사일로 일본인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도 그 사람들이 좋다고 환장하는 사시미(생선회)대신에 기어코 된장찌개를 찾아 자시는분이랍니다. 하하하…》

리경식도 소리없이 따라웃었다. 더 듣지 않아도 우달근의 됨됨을 넉넉히 알것 같았다.

어느덧 조선시장으로 들어서는 경식의 눈앞에 그전과 다름없는 낯익은 풍경들이 비쳐들었다. 시장거리를 따라가며 《평양랭면》, 《전주관》, 《고려탕약방》 같은 간판들이 즐비하게 내걸려있는데 개중에는 화려한 색갈의 치마저고리들을 진렬한 조선옷점이며 지어 조선글로 《사랑》이라는 간판을 새기고 재일조선인처녀총각들을 짝무어주는 결혼상담소까지 눈에 띄운다. 시뻘건 양념으로 버무린 김치며 식혜, 젓갈 같은 조선음식들이 눈길을 끄는가 하면 어물전의 좌판우에서도 일본인들의 식성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조기며 칼치, 대구 같은것들이 저저마끔 싱싱함을 다투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한쪽의 떡가게에서는 시루에서 금방 쪄낸듯 한 흰설기떡이 무럭무럭 김을 피워올리고있었고 다른쪽의 지짐집에서는 록두지짐을 부치는 구수한 냄새가 오가는 사람들의 군침을 돋구고있었다. 들려오는 말들도 하나같이 우리 말들이고 가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한번 본듯 한 친숙한 모습들이니 가히 조선시장은

일본속의 조선이라 할만 하였다.

《장사가 잘되는가요?》

옆에서 걷던 조동수가 땀에 젖은 이마를 얼추 문지르며 김치가게 녀인에게 무랍없이 건네는 말이다. 발깃한 방울코에 몸집이 오동보동한 녀인이 누긋한 충청도말씨로 청년의 말을 받았다.

《아유, 무더워서 그런지 김치가 놓기 바쁘게 척척 팔려나가는 걸유.》

《듣자니 요즘엔 일본사람들도 김치를 만들어 판다면서요?》

《그래두 김치맛 내는디서야 우릴 당할가유. 호호호…》

조동수는 녀인과 웃음을 나누며 가던 걸음을 이어갔다. 몇걸음 걸어가니 이번에는 콩나물이며 록두나물을 차려놓은 가게가 나졌다.

인상이 푸짐해보이는 녀인 하나가 손님들에게 콩나물을 덤으로 한줌씩 더 뽑아주며 설설하게 웃고있었다. 조동수는 기분이 흥그러웠던지 이번에도 그냥 지나칠념을 않고 아는체를 하는것이였다.

《아주머니, 콩나물을 참 잘 키웠습니다.》

그러자 녀인의 입에서 억양이 센 전라도사투리가 튀여나온다.

《에그마, 이 아저씨가 볼줄 안당께. 남정네들 물건은 길구 굵어야 좋다카디만 콩나물은 알맞춤히 길러야 제맛이지라오.》

녀인이 흩뿌리는 껄쭉한 롱담에 둘러섰던 사람들속에서 와그르르 웃음보가 터져올랐다. 모두가 생의 의욕에 넘치는 활기로운 모습들이다. 이역땅에서 갖은 차별과 랭대에 시달리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동포들, 그들의 고단하면서도 대견스러운 모습들을 바라보느라니 경식은 절로 마음이 후더워났다.

오사까는 일본안에서 동포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도시다. 거기서도 조선시장이 위치한 이꾸노구일대에 수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이 밀

집해서 살게 된데는 쓰라린 사연이 깔려있는것이다. 원래 이꾸노구의 남북으로 흐르는 히라노강은 뱀처럼 꾸불꾸불해서 큰비가 올때마다 연안의 주민들에게 홍수피해를 들씌우군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수해방지책으로 새로운 운하를 파기 시작했는데 일제는 공사를 위해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에서 농토를 빼앗긴 수많은 농민들을 무리로 일본에 끌어왔다. 결국 히라노운하는 조선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로 건설되게 되였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조선사람들은 이꾸노구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였고 그러한 이민1세들이 모여든 곳이 웬만한 일본인들은 저습지대여서 살기 꺼려하던 쓰루하시였다.

2차대전이 끝난 직후 귀국하기 위해 오사까에 몰려들었다가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주저앉은 동포들로 하여 쓰루하시일대의 조선인수는 급격히 불어났다. 그 시기 동포들이 연명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란 밀주나 암거래밖에 없었다. 일본경제가 완전히 파괴되였던 때인지라 물건만 있으면 부리나케 팔리워나갔지만 일단 경찰에 들키는 날에는 돈이고 물건이고 다 빼앗기고 밑천까지 송두리채 털리워야만 했다. 그런 속에서도 형편이 좀 나아진 동포들이 쓰루하시에 하나둘 구멍가게를 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번성하여 현재의 조선시장을 형성하였던것이다.

새삼스럽게 조선시장의 래력을 더듬어보던 경식은 문득 야릇한 기분에 휩싸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오늘날 조선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이 이꾸노구일대는 중세기 전기간 《구다라벌》, 《구다라군》으로 불리우던 고장이였다. 그뿐인가. 왜정시대에 조선사람들의 피땀으로 개수된 히라노강도 원래는 《구다라강》이라고 부르던 강이 아니였던가.

돌이켜보면 오사까는 조선해협과 잇닿은 세또안바다의 동쪽기슭에 자리잡고있는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일본에 건너오는 조선사람

들의 중요상륙지점으로, 조선문화의 주되는 류입구의 하나로 되여왔었다. 백제의 학자 왕인이 일본인들에게 문자를 가르쳐주기 위해 와닿은 곳도 지금의 오사까였고 에도막부시절 문예부흥의 원동력이 되였다는 선진문물을 가지고 조선통신사(일본에 보내던 조선봉건정부의 사신)일행이 당도하군 하던 곳도 다름아닌 오사까의 옛 나루터였다. 이꾸노구일대가 그전에 《구다라》로 불리워온것도 먼 옛날 백제인들이 여기서 집단적으로 살고있었다는데서 유래된것이라 한다.

한때 도요또미 히데요시의 본거지였고 그후 에도시대에는 일본최대의 상업도시로 번창했던 오사까, 오늘도 이 나라에서 도꾜 다음가는 도시로 일러주는 오사까의 발전력사는 그러고보면 일찍부터 이 땅에 흘러들어온 조선문화를 밑거름으로 하여 시작되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조상들이 개간하고 문명의 씨앗을 뿌려가던 오사까의 이 구다라들판우에서 천수백여년이 지난 오늘에는 그 후손들이 삶을 이어가고있으니 실로 력사의 기묘한 인연이라고 경식은 생각했다.

《인젠 다 왔습니다.》

조동수가 알려주는 소리에 경식은 상념에서 깨여났다. 청년은 《아리랑》이라는 간판을 단 2층집으로 경식을 안내했다. 들어가보니 빠찡꼬를 운영하는 점포였다. 주인에게 전갈을 보내고난 그들은 백여대의 빠찡꼬기계들이 탁탁 메마른 쇠소리를 내고있는 1층에서 잠시 주인을 기다리며 서있었다.

얼마 안 있어 호기스럽고 꺽지게 생긴 50대의 사나이가 웃층에서 내려왔다. 조동수가 경식을 소개하자 사나이는 대뜸 반색을 하며 괄괄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는것이였다.

《오신다는 련락을 받구 기다렸수다. 우달근이라고 하우다.》

짧게 깎아올린 네모진 머리와 툭 불거져나온 동가슴, 귀밑에서부터 턱밑까지 성글고 뻣뻣한 수염터가 잡힌것이 성미가 보통 아닐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익살기가 어린듯 한 부리부리한 눈이며 주눅좋아보이는 넙적한 코집에서는 어딘가 후더분한 맛이 느껴지기도 하는 모습이였다.

우달근과 마주서자 경식은 저도 모르게 고맙다는 인사부터 나갔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할 일을 대신해주셨으니 무슨 말로 인사를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식의 진정어린 인사에 달근은 제편에서 펄쩍 뛰였다.

《그게 무슨 당치않은 말씀이시우. 그래 조상의 유산을 되찾는 일이 리선생 혼자만의 일이란 말씀인가요.》

달근은 노여워하는 빛을 숨기지 못하며 이마살을 찌프렸다. 경식이 난감해서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우달근은 손을 내저으며 그루를 박아 말했다.

《그런 섭섭한 소린 두번다시 하지 마시우다. 말이야 바른대루 경우를 따지문야 인사는 내가 아니라 리선생이 받아야 합지요. 그래도 우리야 장사라두 하면서 살아가지만 선생은 애국사업에 모든걸 바치구있다니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부회장아버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조동수까지 머리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바람에 경식은 속이 뭉클해와 더 말을 할수가 없었다. 얼마후 청년이 분위기를 바꾸려는듯 달근에게 묻는다.

《참, 이번에 교육회 부회장사업도 겸임하셨다면서요?》

그러자 우달근은 게면쩍게 웃으며 넙적한 주먹코를 쓸어만졌다.

《허, 그리됐수다.》

《정말 중요한 일을 맡으셨습니다.》

경식이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자 달근이 성큼 말을 받았다.

《그래서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걸요. 터놓구 말해서 학교운영자금을 보태는 일 같은건 상공인들이 합심해서 그럭저럭 해나갈수 있겠지만 생각이 모자라는 동포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게 과연 조련치 않구만요. 글쎄 내 안 그런다 하면서도 어제 한 동포네 집에 가서 또 큰소리를 치구말았수다. 나하군 그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어 잘 아는 사람인데 요즘에 와서 이 량반이 만나면 날더러 한탄이우다. 자식들에게 죄를 지었다는거지요. 하긴 그런 소리가 나올만두 하겠습데다. 그 집에선 아이들을 모두 일본학교에 보냈는데 중학교에 다닌다는 맏이녀석만 봐두 아부지라는 말만 내놓구는 제대로 번지는 우리 말이 없다는게 아니웨까. 그것두 애비라는 사람이 아이가 어렸을적부터 아부지라 해야 10엔이라도 쥐여줬다니 그 정도지요. 허 참, 그래 내 어제 그 집에 찾아가서 자식들을 모두 우리 학교에 보내라구 하니까 부모란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취직도 그렇구 애들의 장래를 봐서 별수없이 일본학교에 그대로 다니게 해야 할것 같다는게 아니겠수. 그 말에 그만 부아통이 터져서 나도 모르게 호통이 나갔수다. 허허허…》

우달근은 짐짓 웃어보였지만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가슴이 아픈 이야기였다. 다른 나라들에서 사는 해외동포청소년들보다 재일동포청소년들이 류별나게 모국어에 서툰 리유도 따지고보면 일본사회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민족차별근성때문이라고 경식은 생각했다. 중국이나 유럽에서 사는 동포들은 자기가 조선사람임을 떳떳이 드러내놓고 살고있지만 재일동포들의 경우에는 조선사람이라면 덮어놓고 천시하려드는 일본사회의 분위기에 눌려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숨기고 일본사람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나니

자식들의 대에 와서는 조선사람도 아니고 일본사람도 아닌 얼치기가 되여버리고마는것이다.

경식이 느닷없이 찾아든 우울한 생각에 잠겨있는데 달근은 살림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자며 그들을 잡아이끌었다. 하지만 경식은 그럴 겨를이 없었다.

《그보다도 지금 당장 나까야마부터 만날수 없을가요?》

금시 떠날 잡도리로 서둘러대는 경식을 보고 달근이 만류했다.

《만나더라두 올라가 땀이나 좀 들이구 떠나는게 어떠시우? 나까야마에 대해서 해줄 소리도 있는데…》

그래도 경식은 여전히 고집이다.

《가면서 들려주십시오.》

《하하…》

우달근은 어쩔수 없다는듯 두손을 들었다.

《거 성미가 나랑 같아서 좋수다. 아무렴, 소뿔은 단김에 빼랬다구 이길로 떠납시다! 대신 일을 보구선 꼭 우리 집에 와야 하우다.》

《그러겠습니다.》

경식이 선선히 동의하는데 조동수가 슬며시 끼여든다.

《될수록 부회장아버님과 밤에는 마주앉지 마십시오.》

《어째서요?》

조동수는 영문을 몰라하는 경식에게 능청스럽게 귀띔해주었다.

《부회장아바인 다 좋은데 술만 마신다 하면 끝을 모르는분이랍니다.》

《하하하…》

폭소가 터졌다. 잠시후 청년이 자못 미안해하며 경식에게 말했다.

《저도 함께 가면 좋겠지만 다른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도와드릴 일이 생기면 아무때건 알려주십시오.》

경식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청년과 헤여졌다. 달근이 부채 두개를 들고나와 그중 하나를 경식에게 쥐여주는데 조금후 택시가 도착했다. 두사람은 시미즈를 찾아 떠났다.

《헌데 나까야마를 어떻게 찾아내셨습니까? 참, 시미즈라고 성을 바꿨다면서요?》

차안에서 경식이 이렇게 묻자 우달근은 벌씬 웃으며 사연을 말하는것이였다.

《전쟁이 끝나서 몇해동안 내가 오사까교외의 토목공사장에서 일한적이 있었는데 어느해인가 하루는 동포인부들이 날 찾아와 하소연을 합데다. 그들의 말인즉 자기네 함바주인이 나까야마라구 몇달전에 도꾜쪽에서 왔다는자인데 인부들의 품삯을 가지구 어찌나 롱간을 부리는지 언제 한번 임금을 제대로 쥐여본적이 없다는것이였수다. 더구나 조선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습게 보구 더 그런다는거우다. 하는짓이 괘씸해서 동포인부들이 사리를 따지며 들이댔더니 그자는 되려 깡패들을 부추겨 폭행을 가했다는게 아니웨까. 그 말을 들으니 부아통이 터져옵데다. 난 동포인부들에게 당장 함바를 옮기라구 이르고는 그길로 동료들과 함께 달려가 나까야마와 깡패놈들을 되게 혼내주었수다. 그러구나서 나까야마에게 두번다시 공사장근처에 얼씬했다간 뼈도 못 추릴줄 알라고 을러멨구요. 그때 난 한창시절이였던지라 완력이 괜찮았수다. 인부들속에서 어지간히 신망도 있던 까닭에 공사장의 감독들도 슬금슬금 내 눈치를 보는 형편이였지요. 그만에야 함바문을 닫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 된 나까야마는 다음날부터 매일같이 나한테 찾아와 손이야 발이야 빌더군요. 난 다신 인부들에게 못된짓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거듭 받

구서야 그자를 용서해줬수다. 그뒤로 나까야마는 퍼그나 조심스러워졌구 더우기 동포인부들과 관계되는 일들은 나한테 꼭꼭 물어보구야 처리하군 했다우.》

달근은 그 시절을 돌이켜보며 껄껄 웃더니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한해쯤 지나서 나까야마는 시내의 한 려관주인네 집에 데릴사위루 들어갔수다. 그 집에 과년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원체 약아빠진 작자였던지라 장인의 려관을 탐내 들어간거우다. 그때 나까야마는 장인의 성을 따서 시미즈라구 변성했지요. 그후 장인이 려관을 물려주구 교외로 옮겨가자 시미즈는 려관을 술집으로 바꿔 지금까지 운영해오구있수다. 얼마전에 본부일군에게서 사람을 찾아보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대뜸 시미즈가 짚이더군요. 그래 슬그머니 그자의 리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더니 리선생이 찾는 나까야마가 틀림없습데다.》

《그렇게 됐군요.》

리경식은 알만 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였다. 결국 나까야마가 성을 바꾼것은 데릴사위는 처가집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일본풍습에 따른것이였다. 뿌리와 성씨에 대한 집착이 류달리 강해서 《성을 갈겠다.》는 말을 제일 드팀없는 장담의 표시로 여기는 조선사람들의 관념에서 볼 때 일본인들의 성씨관념은 후레자식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이다. 실례로 력대 일본《천황》은 성조차 없는가 하면 도요또미 히데요시도 본래의 성이 《기노시따》였지만 상전인 오다 노부나가로부터 신하중의 신하라는 의미의 《도요또미》라는 성을 하사받았다는것이다. 전후 7년 남짓이 총리로 집권해있은 요시다 시게루 역시 성이 《다께우찌》였지만 남의 집안의 양자가 되면서 《요시다》로 변성하였다 한다. 하기야 귀족이나 무사들을 제외한 절대다

수의 서민들이 명치유신이후에야 비로소 국가의 불호령에 못이겨 벼락치기로 수다한 성들을 만들어 달았으니 자기네들의 성에 애착이 있을리는 만무한것이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내키는대로 성을 바꿔버리는 일본인들이고보면 지난날 조선사람들에게 거리낌없이 《창씨개명》을 강요했던 황당한 짓거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리해가 가는 일이였다.

잠시 동안이 흐른 뒤 경식이 또다시 달근에게 물었다.

《정말로 시미즈가 여적 향악보를 가지고있을가요?》

《그자가 직접 나한테 말했는걸요.》

달근의 거침없는 대답이였지만 그래도 경식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달근의 얼굴을 근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런 속마음을 넘겨다봤는지 우달근은 경식의 어깨를 허물없이 두드리며 호방하게 웃는것이였다.

《하하하… 걱정마시우다. 시미즈가 어떻게 쉽사리 그런걸 털어놨는가싶어 미심쩍어하시는가본데 그럴 연고가 있수다. 이전부터 그자가 하는 술집이 신통치 않았수다. 결손을 보는게 례상사인데다 어쩌다가 흑자를 낸다 해도 워낙 주색을 밝히는 시미즈인지라 남아나는게 별루 없었으니까요. 장인령감은 자기가 긁어모은 재산을 사위놈이 다 날려버린다구 늘쌍 야단을 쳤다질 않수. 언제부터던지 시미즈는 보잘것없는 싸구려술집을 걷어치우구 빠찡꼬기업을 해보겠다구 무던히도 안달아했수다. 아닌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쓸것 없이 그저 기계하구 1대1로 대하면 되는 빠찡꼬야말로 섬나라근성이 센 일본사람들의 성미에 그중 알맞는 노름놀이지요. 오사까의 적지 않은 우리 동포들이 빠찡꼬 같은 유기업으로 한밑천을 잡을수 있은것두 기본은 그 점을 적절히 리용했기때문이우다. 시미즈도 그 흉내를 내보려구 작년에 빠찡꼬점이라는걸 하나 차려

놓았더랬지요. 헌데 밑천두 못 찾구 쫄딱 녹아나는통에 빚더미만 걸머졌수다. 그도 그럴것이 빠찡꼬운영이라는게 보기엔 그러루해보여도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빠찡꼬장사를 거덜내구나서 시미즈가 불쑥 날 찾아와 한다는 말이 몇달동안 우리 빠찡꼬점의 운영비중 얼마를 자기가 부담할터이니 나와 동업을 하게 해달라는거우다. 그자의 속셈인즉 동업이라는 간판을 걸고는 내게서 빠찡꼬영업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뽑아내자는거였지요. 난 대번에 걷어차버렸수다. 눈꼽자기만 한 돈을 내밀구 남의 염통을 빼먹겠다는 심보두 얄미웠거니와 평소부터 제 뼈땀은 흘리지 않구 남을 등쳐먹을 궁리만 하는 그자를 탐탁치 않게 보아왔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찰거마리같은 그자는 문돌쩌귀가 닳도록 우리 집에 드나들면서 그전날의 인연을 봐서 찾아왔으니 다문 한달만이라도 동업을 하게 해달라구 애걸복걸하더군요. 그러겠으문 그러구 그깐 소린 들은체두 않구 지내오는데 시미즈가 리선생이 찾는 나까야마라는걸 안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집데다. 며칠전에 시미즈가 또 찾아왔기에 난 그자에게 <조선향악보>란 책을 가지고있다는게 사실인가고 직방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그자는 어떻게 그걸 아는가구 눈이 퀭해하는거우다. 난 속으로 됐다 하구 무릎을 치구나서 내 친구 한사람이 요구해서 그러니 그 책을 넘겨주면 그쪽의 부탁을 생각해볼거구 그러지 않으면 아예 말도 말라는 식으로 들이댔수다. 시미즈는 웬 떡이냐구 좋아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 제의를 답삭 받아물었지요. 허허… 돈만 알구 머리에 든건 쥐뿔도 없는자이니 그럴수밖에요. 그러면서두 얼마간의 사례금은 받아야겠다고 잊지 않구 뒤를 달더군요. 처음엔 그자가 요구하는 사례금을 즉석에서 찔러주구 향악보를 찾아오려구 했었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했수다. 원체 내가 고서물계를 잘 모르는데다가 까나리도 밸을 따구 먹을 좀

상스런 그자가 무슨 잔꾀를 부릴지 모르겠더란 말이우다. 그래 시미즈에게 인차 내가 친구를 데리고 갈터이니 그때까지 책간수를 잘하라구 든든히 오금을 박아놨지요. 여하튼 나한테 붙지 못해 달이 뜬자이니 약속을 어기진 못할거우다.》

그제서야 경식은 안도의 숨이 나갔다. 우달근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더우기 깊어져 그는 궂은일에 장알이 박힌 달근의 손을 잡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슴이 달아올랐다. 이런 미더운 동포들이 일본땅 곳곳에 있는데 두려울게 무엇이랴 하는 생각에 경식의 심장은 북처럼 쿵쿵거리고있었다.

요도강을 건너 요도가와구에 얼마쯤 들어섰을 때 우달근은 차를 세우게 했다. 차에서 내린 경식은 우달근을 따라 어느 한 골목으로 들어갔다. 대기는 쏟아지는 땡볕속에 여전히 찌물쿠고있었다. 종이등과 작은 기발들을 내건 점포들과 포장마차들을 지나 휴지와 담배꽁초들이 행인들의 발길에 채워 나딩구는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불현듯 달근이 걸음을 멈추고 앞을 가리켜보이는것이였다.

《저게 시미즈의 술집이우다.》

그가 가리키는 곳에 제정때 흔하던 구식의 벽돌건물이 알락달락한 색유리로 《다마무시주점》이라고 새긴 간판을 달고 서있었다. 경식은 우달근과 함께 그리로 다가갔다. 허나 온 정신이 시미즈에게만 쏠려있던 나머지 그 시각까지도 경식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있었다. 오사까에 들어선 첫 순간부터 줄창 뒤를 밟고있는 누군가의 지꿎은 눈초리를…

골목길과 면한 주점의 입구에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쓴 두개의 류선화화분이 문지기마냥 놓여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접대부 하

나가 사르르 눈웃음을 치며 다가와 물었다.

《어디로 안내해드릴가요?》

우달근이 쥘부채를 꺼내여 주르르 펼쳐들며 위엄있게 말했다.

《안내할건 없구, 거 주인한테 가서 <아리랑>주인이 왔다구 이르게.》

《예.》

접대부는 공손히 대답하더니 사뿐사뿐 잔걸음으로 어디론가 사라졌다. 경식은 훌훌 부채질을 하며 주점안을 둘러보았다.

주점은 일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오밀조밀하게 꾸며져있었다. 축음기에서 인생을 영탄하는 남성가수의 노래소리가 지루히 흘러나오고있었는데 실내 한켠에는 캬바레를 본딴듯 무도장 비슷한 공간까지 차려져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탁에만 손님들이 있을뿐 주점안은 퍼그나 한적해보였다. 어디선가 남녀의 축축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나는쪽을 바라보니 술집 작부인듯싶은 녀자가 여드름투성이의 새파란 녀석을 끼고 나무계단을 따라 2층에서 내려오고있었다.

《웃층에도 방들이 있는게지요?》

경식이 이렇게 묻자 달근은 입가에 쓴웃음을 실으며 대답했다.

《영업이 시원치 않으니까 저렇게 녀자들까지 팔아가면서 고객들을 끌어보려는거지요. 2층에 그런 별실들이 여러개 되우다.》

《경찰에서 가만 놔두는가요?》

《경찰두 한통속인걸요. 이런 색주가가 어디 한두개라구요. 시미즈가 한다는 장사라는게 전부 이러루한거우다.》

달근의 말을 들으니 한때 적산물자를 빼내기 위해 미군장교들에게 전처까지 섬겨바쳤다는 시미즈의 구저분한 과거가 떠올랐다. 돈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로 수단을 가리지 않는자이니 단단히 잡도

리를 해야겠다고 경식이 마음을 굥그르고있는데 저쪽에서 비린청으로 반기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굴러왔다.

《핫하하…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뜬게 아닙니까. 우상이 이렇게 나를 다 찾아오실줄이야…》

조막만 한 머리에 반들반들 기름을 발라 가리마를 탄 일본인이 작달막한 몸을 경망스럽게 달랑거리며 이리로 오고있었다. 그자가 다름아닌 시미즈 모리오라는것을 경식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시미즈는 와이샤쯔바람에 나비넥타이를 조여매고 가슴에 란초꽃을 꽂고있었는데 녀자용같이 사치한 은테안경을 걸친 해반지르르한 얼굴에서는 짧은 코수염이 달싹대고있었다.

《내 그러지 않던가, 인차 오겠다구.》

시미즈가 가까이 왔을 때 우달근은 거드름스레 한마디 던지고나서 경식을 소개했다.

《인사하게. 전번에 이야기한 내 친구네. 도꾜의 중요한데서 리사를 하시는분이지.》

달근이 그럴듯하게 소개하자 시미즈는 목구멍에서 짜낸듯 한 웃음소리를 내며 머리를 갑삭거리는것이였다.

《하하… 우상의 친구분이시라니 참말로 반갑습니다. 마시기 좋기는 묵은 술이요 믿기 좋기는 오랜 친구라던데 실은 저도 우상과는 오래전부터 연분이 두터운 친구올시다. 그렇지 않소이까, 우상?》

시미즈의 낯간지러운 소리에 우달근은 고개를 외로 틀며 이마살을 찡그렸다. 하건만 시미즈는 오뉴월 쉬파리 찜쪄먹을 비위살로 달근의 팔을 잡아이끌었다.

《자, 모처럼 이렇게들 오셨는데 어서 웃층으로 올라갑시다. 어서요.》

달근이 그러는 시미즈를 제지시켰다.

《가만, 우린 바쁘네. 여기서 잠간 용건을 얘기하지.》

《뭘 그러시오, 우상!》

《글쎄 그렇게 하자니까.》

달근의 태도가 단호한것을 본 시미즈는 별수없다는듯 두사람을 구석진 곳의 식탁으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좀전에 사내를 바래주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작부에게 분부조로 이르는것이였다.

《오이, 하나꼬. 여기 차를 좀 내오라구.》

그러거나말거나 우달근은 자리에 앉기 바쁘게 활활 부채질을 하며 시미즈를 다몰아댔다.

《일전에 나와 약조한건 잊지 않았을테지.》

《아, 그 고서 말인가요. 아무렴, 우상의 부탁인데 여부가 있겠습니까.》

시미즈는 연신 웃음을 남실거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너무도 일이 순조롭게 돼가는 바람에 경식은 저으기 얼떨떨할 지경이였다. 우달근과 거의 비슷한 년배 같은데도 《우상, 우상!》 하며 상전이나 섬기듯 갑신거리는 시미즈를 보니 한편으로는 우스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는데 시미즈가 넌짓 경식에게 묻는다.

《그 책이 퍽 희귀한 물건인가 봅니다. 우상이 이다지도 관심하시는걸 보니…》

엑스광선마냥 훑어보는 시미즈의 약빠른 눈길에 리경식은 버쩍 정신을 차리지 않을수 없었다. 달근의 퉁명스러운 대꾸가 그를 도와주었다.

《친구의 부탁이라서 그런다질 않아. 그새 혹 마음이 달라졌다면 더 긴말할것 없네. 여기 아니라도 우린 가볼데가 또 있으니까.》

우달근이 부채를 접으며 몸을 움쭉하자 시미즈가 황급히 만류했다.

《아, 우상! 이거 왜 이러시오. 이 시미즈가 신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나이라는거야 우상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작부가 차를 가지고 나왔다. 시미즈는 다소 긴장된 공기를 눅잦혀보려는지 터져나갈듯이 풍만한 작부의 육체를 할끔거리며 딴전을 부렸다.

《오늘은 하나꼬가 차를 자주 끓이는구나.》

주인의 은근한 수작질에 그 녀자는 습관처럼 방긋이 웃음의 분칠을 해보이고는 소리없이 들어가버렸다.

《자, 차라도 좀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지요.》

시미즈는 곰살가운 어조로 두사람에게 차를 권하더니 자기가 먼저 차 몇모금을 홀짝홀짝 들이켰다. 그리고는 해말쑥한 얼굴에 반지럽게 다스려진 미소를 그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것이였다.

《기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책으로 말하면 이전에 내가 빚을 준 대신 저당으로 잡아놓았던 물건입니다. 그때 본 손해가 워낙 약차해놔서 쉬이 내놓고싶지 않지만 하하… 우상과의 남다른 연분도 있고 해서…》

《얼마면 되겠나?》

시미즈의 잔사설을 무질러버리며 달근이 데설궂게 내뱉는 물음이였다. 순간 작고 동그란 은테안경속에서 시미즈의 눈알이 팔팔 돌아갔다. 잔머리를 굴리는지 얼마동안 코수염만 만지작거리던 시미즈는 이윽고 얄망스러운 표정을 띠우며 선심이라도 쓰듯 대답한다.

《에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상의 친구분에게 5만엔이상이야 부를수 없지요.》

《5만엔?》

달근의 한쪽눈이 찌붓해졌다. 그 당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월급쟁이의 첫 임금이 대체로 1만엔안팎이였으니 5만엔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였다. 우달근은 부리부리한 눈망울을 뚜부럭거리며 시미즈를 향해 어성을 높였다.

《허, 사람을 뭘루 보구 그래. 5만엔이면 웬간한 빠찡꼬가게 하나를 차릴수 있는 돈이야!》

그러는 달근에게 시미즈가 또다시 설레발을 치며 수다를 부리기 시작했다.

《하ー 우상, 아무러면 내가 우상에게 실없는 소리를 하리까. 실제 5만엔이라는게 내가 입은 손실액의 1할도 못되는 액수올시다. 마음 같아선 우상의 친구분에게 거저 드리고싶지만 내 처지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거야 우상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로선 우상의 체면을 봐서 최대한 헐값으로 부른겁니다.》

그때였다. 리경식의 웅글은 목소리가 시미즈의 줄사설을 누르며 들려왔다.

《5만엔을 내겠습니다.》

너무도 성큼 튀여나온 대답에 우달근도 시미즈도 어리둥절해서 경식을 바라보았다.

사실 오사까에 오면서 경식은 그 정도의 차비는 해가지고 떠났었다. 물론 그에게 있어서도 5만엔이라는 돈은 결코 보잘것없는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가 시미즈같이 천박한 시정배들의 입에 흥정거리로 오르내리는것을 그대로 지켜보기만 할수 없었던것이다. 경식은 주저없이 자기가 한 말을 다시한번 힘주어 되뇌였다.

《우리가 찾는 고서가 틀림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5만엔을 내놓겠습니다.》

시미즈의 얼굴에 금시 희색이 떠올랐다. 시미즈는 입가에 차오르는 쾌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경식에게 침발린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역시 우상의 친구분이 다릅니다. 늘 이런분들과만 거래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핫하하…》

하긴 5천엔 대신 잡아두었던 저당물을 앉은자리에서 5만엔에 팔게 되였으니 시미즈로서는 횡재라고 생각할만도 할 일이였다. 시미즈의 그런 꼴이 얄미웠던지 우달근이 버럭 역정을 냈다.

《거 호들갑은 그만 떨구 빨리 책을 내오지 못할가!》

《지… 지금 당장 말입니까?》

《이자 말을 못 들었어? 틀림이 없으면 당장에 값을 치르겠다질 않아!》

어찌된 영문인지 시미즈가 선뜻 움직일념을 못하고 얼버무리기만 했다. 달근이 거듭 재촉해서야 시미즈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사정을 터놓는것이였다.

《하? 아무래도 오늘 당장은 곤난할것 같습니다. 실은 현재 그 물건을 장인에게 맡겨놔서…》

《무어라구!》

달근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시미즈는 급해맞아 허둥지둥 설명했다.

《그런게 아니라 우상, 내 말 좀 들어주시오. 우상도 아다싶이 내가 이래저래 장인의 돈을 얻어쓰느라 별수없이 적지 않은 물건들을 처가에 담보로 맡겨놓지 않았습니까. 내 장인이란 두상이 제가 싼 똥도 남주기 싫어하는 성미올시다. 당신네 하고 이렇게 간단히 말이 끝날줄 알았더라면 일찌감치 그 책을 찾아오는건데 참말로 죄송하게 되였습니다.》

시미즈는 연송 고개를 갑신갑신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련발했다. 경식의 심정은 여간만 뒤숭숭하지 않았다. 기름쥐마냥 반지러운 이 인간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좀처럼 가늠할수가 없었다. 경식은 의혹과 불신이 가득찬 눈길로 시미즈를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다가 그자에게 물었다.

《처가가 어데 있는가요?》

시미즈가 교외의 구마또리에 있다고 대답했다. 구마또리라면 예서 퍼그나 떨어진 곳이다. 경식은 며칠후 다시 와줄수 없겠느냐고 간청하는 시미즈에게 쇠빛이 번쩍이는 눈길을 던지며 단호히 말했다.

《이제 곧바로 구마또리에 갑시다.》

《그게 좋겠수다.》

달근이 대뜸 호응해나섰다. 그러자 시미즈가 황겁해서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우상, 이렇게까지 서두를거야 있습니까. 지금은 한창 영업중이여서 참말로 내가 움직이기 곤난한데요.》

《그럼 우리끼리라두 가야지.》

우달근의 이그러진 대꾸에 시미즈는 더욱 바빠하며 통사정을 했다.

《당신네끼리 가봐야 장인하고 말이 통하지 않을겁니다. 아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중으로 련락을 취해 가져다놓겠으니 래일 아침에 다시 와주십시오.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소이다.》

시미즈가 애원하다싶이 매여달리는 바람에 경식은 잠시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시미즈의 말대로 자기들끼리 가봤댔자 사위가 맡겨놓은 물건을 낯모를 사람들에게 닝큼 내주지 않으리라는것은 뻔한 일이였다. 경식이 난감한 눈빛으로 달근을 바라보았다.

우달근도 같은 생각인지 뚫어지게 시미즈를 노려보다가 부채질을 활활 하며 감때스러운 어조로 따져묻는것이였다.

《분명 오늘안으로 가져다놓겠단 말이지?》

《예 예, 물론입지요, 물론입지요. …》

시미즈는 거퍼 장담을 쏟아놓으며 시설을 떨었다. 달근의 묻는듯한 눈길이 경식에게로 향해졌다. 한동안 생각을 해보던 경식은 시미즈에게 일렀다.

《좋습니다. 돈을 가지고 래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 순간 시미즈의 얼굴에 언제 그랬냐싶게 다시금 해사한 웃음발이 감돌았다. 시미즈는 입이 벌어져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꼽작거렸다.

《고맙습니다, 그리해주신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부탁합니다.》

눈치를 보니 정말로 시미즈는 5만엔이라는 돈을 놓치기 싫은 모양이였다. 경식이 어느 정도 안심을 하는데 달근이 눈을 부릅뜨고 시미즈에게 오금을 박았다.

《래일 아침에 또 헛소릴 하면 나하구 인연은 그것으루 끝인줄 알게!》

《원 그럴리 있겠습니까? 믿어주십시오. 래일 아침엔 어김없이 물건을 보게 될겁니다.》

두사람은 시미즈의 알랑거리는 소리를 등뒤에 남긴채 주점을 나섰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안에서 날째게 한마디 덧붙이는 시미즈의 비린청이 들려온다.

《우상, 나하고 동업하기로 한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달근은 대답대신 쾅하고 문을 후려닫았다.

《저런 작자가 부른 값을 그대로 성큼 받아들이다니요. 리선생

두 참 고지식하시우다.》

밖에 나서자마자 달근이 투덜거리는 소리였다. 리경식은 허허 하고 웃기만 했다. 달근은 속이 내려가지 않는지 푸념을 그치지 않았다.

《내 5만엔이 아까와서 그러는게 아니우다. 리선생이 찾자는 그 책인즉 왜놈들이 우리 나라에서 도둑질해간 재물이 아니웨까. 그깟 놈들 귀통을 한바탕 후려갈기구 뺏어와도 시원찮을 일인데 달라는 대루 돈까지 치러줘야 하니 허 참…》

생각할수록 화가 치미는노릇에 우달근은 씩씩 황소숨을 몰아쉬였다. 그의 기분이 리해되였다. 경식은 서근서근한 어조로 달근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 심정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쩌겠습니까. 잃어버렸던 보물들을 되찾자니 그만한 대가는 각오할수밖에요. 그나저나 부회장 아버님이 애써주신 덕에 예상외로 이번 일이 순탄하게 풀려가는것 같습니다.》

《그런 말 마시우.》

우달근의 뚝한 대꾸다. 경식은 그러는 그에게 의문스러운 점을 물었다.

《헌데 향악보를 처가집에 저당잡혔다는 시미즈의 말이 정말일가요?》

경식의 물음에 달근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천천히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럴수 있수다. 번번이 처가집을 등쳐먹자니 그런 식으루 이것저것 수중의 물건을 억지루 떠맡기구는 돈을 뜯어내군 했다니까요.》

《그래요? 헌데 우리끼리 처가에 가겠다니까 왜 그리도 바빠나

했을가요?》

《허, 거야 불보듯 뻔하지요. 제 장인앞에선 항상 우는소리를 하는자인지라 처가에 돈냄새를 피우기 싫은데다가 거래를 제가 독차지하려구 그러는거겠지요. 그 정도루 좀상스런 녀석이여서 지금에 와선 시미즈의 장인도 사위를 쓴외 보듯 한답데다.》

《…》

경식은 고개를 지수굿한채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겼다. 그러는데 우달근이 그의 속마음을 짐작한듯 주먹코를 어루쓸며 헌헌히 말하는것이였다.

《거 내 생각 같아선 별루 근심할게 없어보이우다. 원체 시미즈가 돈이라문 체면이구 뭐구 다 구겨박는 위인인데다 노상 빚군들한테 시달리는 형편인지라 다른 생각을 할리 있나요. 아마 오늘중으로 책을 가져다놓으려구 벌써부터 눈에 황달이 떴을거우다. 게다가 이 틈을 타서 나와 동업까지 성사시키려는 작자가 아닌가요. 허허허…》

달근의 우선우선한 소리를 들으니 경식의 마음도 얼마간 개운해졌다. 달근은 그길로 경식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갔다.

조동수의 말대로 우달근은 여간한 대주가가 아니였다. 그날 경식은 달근에게 붙잡혀 밤이 지새도록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지만 향악보를 찾게 되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경식은 좀처럼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쉬기에는 너무도 흥분되여있어 그는 온밤을 뜬눈으로 새우고말았다.

6. 미궁속을 헤치며

다음날 아침 리경식은 우달근과 함께 약속대로 시미즈를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실에 들어서는것을 본 시미즈는 전날과 다름없는 갑신거리는 태도로 살이라도 떼줄것처럼 아양을 떨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

《약속은 지켰을테지?》

느긋이 주먹코를 쓸어만지며 던지는 우달근의 물음에 시미즈는 고자같이 야위고 카랑카랑한 비린청으로 수선을 피웠다.

《하하… 우상의 호령에 놀라 어제 오금에서 불이 일 정도로 뛰여다녔다니까요. 글쎄 땀을 쭐쭐 뽑으면서 처가에 갔더니만 장인령감이 사찰에 불공하러 간다고 금방 문을 나서는 참이 아니겠습니까. 그 령감이 늘그막에 보살이 되려고 작심했는지 이즈음에 와선 한달이 멀다하게 드나들군 합니다요. 조금만 걸음이 늦었어도 나무아미타불이 될번 했지요. 겨우 령감을 붙들어 앉히고 장시간 씨름질하다가 돌아오니 자정이 다 돼오더란 말입니다. 아이구, 지금도 막 온몸이 지근지근 쑤셔나는게…》

시미즈가 자기 수고를 알아달라는듯 어깨며 팔을 마구 주물러대면서 아부재기를 쳤다. 경식은 쿵당거리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가지고 온 돈 5만엔을 시미즈의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자, 인젠 고서를 내놓으시오.》

그런데 이상한 일이였다. 한동안이 지나도록 시미즈는 묘한 미소를 입가에 띠운채 돈을 보기만 할뿐 선뜻 집으려 하지 않는것이

아닌가. 그자의 안경알에서 반사된 빛이 해석하기 어려운 도형마냥 책상우에 어른거렸다.

(입만 벌리면 돈타령을 하던 인간이 갑자기 웬 일인가?)

경식이 시미즈를 바라보며 저으기 이상쩍어하는데 곁에 있던 달근이 참지 못하고 눈을 부릅떴다.

《넨장헐, 뭘 그리 꾸물거려? 빨리 책을 내오지 않구!》

그바람에 시미즈가 손사래를 바삐 치며 우는소리를 한다.

《하, 우상, 너무 그렇게 몰아대지 마시오. 우상이 눈을 부릅뜰 때마다 오금이 저려들어서 어디 말이나 변변히 해보겠습니까.》

《말? 도대체 무슨 할 말이 또 있다는거야?》

달근이 괄괄한 목소리로 더욱 곤두세우자 시미즈는 떠듬적대며 급급히 입을 열었다.

《예 예, 인제… 인제… 말씀드립지요. 실은…》

시미즈의 말소리가 점점 기여들어갔다. 끙끙 갑자르며 두사람의 동정을 할끔할끔 살피던 시미즈는 한참만에야 시르죽은 소리로 사연을 터놓는것이였다.

《실은… 어제 장인한테 갔다가… 하, 그만 빈손으로 와놔서…》

《무엇이?》

우달근의 입에서 벼락같은 소리가 튀여나왔다. 너무도 뜻밖의 일인지라 리경식도 아연해서 돌처럼 굳어지고말았다. 그들이 뿜는 서슬푸른 기세에 질려 시미즈는 허겁지겁 변명을 늘어놓았다.

《우상, 제발 화부터 내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어제 장인에게 얼마가량 돈을 내놓으면서 그 책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대뜸 도리를 젓는게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서 꾸어간 돈을 전부 갖다바치기 전엔 어떤 물건이든 찾을 생각을 말라는겁니다. 허 참, 그 두상이 로망을 하는지 돈이라면 인젠 사위고 뭐고 없다니까요.

아무리 사정사정해도 말귀에 념불외우기더란 말입니다. 령감이 사찰에 갔다가 사흘후에 내려온다기에 하는수 없어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때 다시 오마 하고 돌아서긴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신용을 어겨서 뭐라고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말로 죄송합니다.》

시미즈는 죄스럽다는 표정을 얼굴 한가득 바른채 두손을 모두어 잡고 연송 머리를 조아렸다. 경식의 우묵한 두눈에 침울한 불길이 이글거렸다. 배를 채우고 본능을 즐기는것을 생활의 전부로 알고있는 이런 인간들에게 있어 《조선향악보》와 같은 겨레의 문화재는 한갖 손끝에서 튕겨진 주산알에 불과할거라는 생각이 단쇠쪼각처럼 그의 마음을 지져왔다. 경식은 저도 모르게 몰숨을 터치며 시미즈에게 물었다.

《대관절 장인에게 갚아야 할 빚이 모두 얼마인데요?》

경식의 그 물음에 시미즈는 반지르르하니 갈라붙인 가리마를 새끼손가락으로 살살 비다듬다가 슬쩍 말을 내비친다.

《한 20만엔가량…》

순간 소대가리만치나 험궂은 우달근의 주먹이 꽝ㅡ 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달근은 시미즈의 조막만 한 머리를 구멍이 뚫어지도록 쏘아보며 목에 피대가 동해올라 고함을 질렀다.

《뭐가 어째! 그러니 처가집에 진 빚을 통채로 우리한테 덮어씌우겠다는 소리야?》

《그런게 아니라… 우상!》

《걷어치워!》

달근이 밸통이 뒤집혀 펄펄 뛰는데 시미즈가 잔뜩 울상을 해보이며 엄부럭을 떨었다.

《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상! 아… 아무렴 내가 우상한테

감히 그럴리 있겠습니까. 나로서야 우상과 한 약속을 조금도 드티지 않을 생각이였지만 장인령감이 그렇게까지 나올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도 속이 빠질빠질 타서 죽을 지경이올시다.》

시미즈는 자기도 애간장이 마른다는듯 포동포동한 손으로 가슴을 쓸어만졌다. 분노로 맥박치는 침묵이 흘렀다. 참을수 없는 혐오감이 흉벽을 쾅쾅 두들겼지만 경식은 그 모든것을 강잉히 눌러삼키며 잠시후 시미즈에게 쓰겁게 한마디 뱉았다.

《계속 이렇게 말이 바뀌니 그쪽의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 말에 시미즈가 그지없이 억울하다는 시늉을 하며 노죽을 부렸다.

《하ー 이거 나로선 진심으로 애쓰느라 아득바득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말로 섭섭합니다. 정 내가 못미더우시면 직접 곤고산 사찰에 가서 그 령감을 만나보시지요. 아마 그러면 내 말이 틀림없다는걸 믿게 될겁니다.》

《여러말할것 없어. 지금 당장 갈터이니 앞서라구!》

시미즈의 말끝을 거머채며 우달근이 결패사납게 몰아대는 소리였다. 그러자 주춤거릴줄 알았던 시미즈가 제편에서 팔을 부르걷으며 냉큼 앞장에 서는것이였다.

《에라, 좋습니다. 영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오늘 우상한테 이 시미즈의 진정을 보여주고야말겠소이다. 자, 어서 떠납시다!》

세사람은 그 즉시로 택시를 불러타고 오사까부와 나라현의 접경에 자리잡은 곤고산으로 향했다. 가보니 과연 시미즈의 장인이 있었다. 시미즈의 말대로 늙은이의 태도는 여간만 완고불통이 아니였다.

《긴말할것 없이 사흘후에 20만엔을 사위에게 보내시오. 그럼 당장 그 책을 돌려드릴테니.》

칼로 베듯 이렇게 잘라매고 돌아서는 늙은이에게 리경식도 우달근도 다른 말을 더 붙여볼새가 없었다.

《보십시오, 우상! 내 뭐라든가. 공연히 날 의심하시면서 쯧쯧…》

돌아오는 차안에서 시미즈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건네오는 말이였다. 달근은 입을 꽉 다문채 험상스러운 눈길로 시미즈를 흘겨볼뿐이다. 그러는데 경식이 누구에게라 없이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니 장인이 사흘후엔 집에 온다는거지요?》

시미즈의 꾀죄죄한 눈에서 불꽃이 방끗한다.

《예 예, 그렇다니까요. 아무튼 사흘후에 가선 어떻게 해서든지 물건을 찾아와야 할텐데… 후유? 워낙 장사형편이 시원칠 않다보니 참…》

경식은 기름기가 반질반질 흐르는 시미즈의 좁은 이마를 지켜보며 묵묵히 그자의 속셈을 헤집고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5만엔을 부르던 시미즈의 입에서 어떻게 돌연 20만엔이라는 소리가 튀여나왔을가?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이자가 갑자기 향악보의 가치를 알아차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면 장인과 한통속이 되여 이 기회에 더 많은 돈을 울궈보려는 걸탐사나운 욕심에서 그러는건지도 모른다. 어떻든간에 명백한것은 시미즈네가 향악보의 대가로 20만엔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였다. 그렇다. 20만엔을 지불하기만 하면 향악보를 찾을수 있다는 희망이 이 시각 경식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것이였다.

리경식이 이런 생각을 달리고있는데 시미즈가 그의 속마음을 떠보려는듯 살금살금 말을 걸어왔다.

《하, 지내 조급해마십시오. 설사 사흘후에 못 찾아온다 해도

내가 맡겨놓은 물건을 령감이 함부로 처분하기야 할라구요. 사흘이 아니라 석삼년이 걸리더라도 우상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 최선을 다하겠으니 헤헤… 그리 아시고 얼마간 더 기다려보시는게…》

시미즈의 야살스러운 수작질에 그만 부아통이 터져오는지 우달근의 입안에서 끄으응ㅡ 하는 된신음소리가 새여나왔다. 경식은 곁에 앉은 달근의 부르쥔 주먹을 슬그머니 움켜잡았다. 여하튼 지금은 모든것을 묵새겨야만 했다. 비록 제 장인에게 저당잡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향악보가 시미즈의 소유로 되여있는 조건에서 무난히 목적을 이루자면 어차피 시미즈를 통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는가.

경식은 마음을 도스르고나서 시미즈에게 말했다.

《사흘후에 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시미즈가 재빨리 눈알을 굴리며 되묻자 경식이 사흘후에 20만엔을 가지고 오겠다고 다시금 분명히 말했다.

그 말을 알아듣는 순간 시미즈의 코수염이 흥에 겨워 춤을 추는것만 같았다. 시미즈는 희색이 만면해서 몸을 촐싹대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것이였다.

《핫하하… 그렇게만 되면 걱정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참말 황송하기 이를데없습니다. 내가 변변치 못하다나니 우상의 친구분께 갑절로 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참말로 죄송합니다. …》

경식은 연신 고개를 갑삭거리는 시미즈에게 든든히 뒤를 다져두었다.

《대신 사흘후엔 나와 함께 장인을 만나야 합니다.》

《하, 그야 여부가 있습니까. 내 목을 걸고 장담하리다. 선생은

사흘후에 어김없이 책을 손에 넣을겁니다. …》

시미즈는 침방울을 튕기며 걸발림한 말들을 연방 쏟아놓았다. 너무도 흡족해서 비좁은 차안이 소란스럽게 잔망을 떨던 시미즈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달근의 노기등등한 눈길에 부딪쳐서야 그만에 목을 움츠리뜨렸다.

차에서 내려 시미즈와 갈라진 다음에도 시꺼멓게 질린 우달근의 얼굴은 좀처럼 개일줄 몰랐다. 모름지기 이번에도 시미즈에게 쉽사리 양보한것이 노여워서일거라고 생각하며 경식이 말없이 나란히 걷는데 불현듯 달근의 볼부은 소리가 들려왔다.

《나살이나 건사했다는게 일처리를 이 꼴루 했으니… 리선생한테 정말 볼낯이 없수다.》

그제서야 경식은 달근이 자기자신에게 화를 내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만사를 제쳐놓고 도와나선 년장자에게 오히려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달근은 분기를 누를수 없는지 또다시 투덜거리는것이였다.

《넨장헐, 이럴줄 알았더라면 어제 그녀석을 끌구 직방 처가집에 달려가는건데…》

경식은 그러는 그에게 헌거로운 태도를 지어보이며 위안삼아 말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현재로선 시미즈와 교섭을 적절히 하는게 그중 나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자가 그 정도로나마 나오는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 어쨌든 전 이길로 곧장 도꾜에 가겠습니다.》

《도꾜엔 왜요?》

달근이 영문을 몰라하자 경식은 스스럼없이 대답했다.

《가서 20만엔을 가져와야 할게 아닙니까. 사흘후에 다시 오겠

습니다.》

그 말을 듣자 우달근의 얼굴이 노기로 하여 푸들푸들 뛰였다.

《돈을 가지러 도꾜에 간다구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우. 그래, 리선생만 조선사람이구 우린 조선사람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오사까에 있는 조선사람들치구 제 조상의 유물을 찾겠다는데 돈을 아까워할 사람은 하나도 없수다. 정말 섭섭하우다. 대체 오사까동포들을 어떻게 보구…》

노여운 생각에 숨이 컥 막혀 말끝도 채 맺지 못하는 그앞에서 경식은 당황한 나머지 쩔쩔매기만 했다.

《그런게 아니라… 저도 동포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경식이 황황히 설명하려는데 달근이 결패스럽게 손을 내저으며 그의 말을 밀막았다.

《잘 안다면 더 말씀 마시우다. 20만엔이 아니라 200만엔이라두 우리가 감당하겠으니 리선생은 그대루 내 집에 머무르다가 고서를 찾은 다음에 떠나시는게 좋겠수다.》

우달근의 말은 부탁이라기보다 호령조에 가까웠다. 경식은 뜨거운 피가 울컥 목을 치받는 바람에 선뜻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얼마간 동안이 흐른 뒤 경식은 쿵덩쿵덩 가슴벽을 두드리는 심장의 뿌듯한 박동소리를 느끼며 달근에게 말했다.

《아버님의 심정은 충분히 리해됩니다. 헌데 제 심정도 좀 리해해주십시오. 전 오래지 않아 귀국하게 됩니다. 향악보를 찾는 일은 이 일본땅에서 민족을 위해 제가 해야 하는 마지막일입니다. 제가 다문 얼마라도 더 떳떳한 마음으로 조국땅을 밟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리경식의 호소는 절절하였다.

《사람두 참…》

우달근은 그만 말문이 막혔던지 험험 헛기침만 툐았다.

도꾜에 도착하자마자 경식은 물질문화보존협회부터 들렸다. 이미 전부터 향악보를 구입하기 위해 마련은 해왔지만 20만엔을 채우자면 아직 자금이 모자라는지라 그는 자기가 수집하여 협회에 보관하고있던 일본관계서적들을 팔기로 결심하였던것이다. 히사꼬를 비롯한 회원들이 그를 도와나섰다. 회원들과 함께 고서점들과 고객들을 찾아다니며 하루낮이 기울도록 책을 팔던 경식은 늦저녁이 되여서야 마침내 돈을 다 장만할수가 있었다.

수고를 아끼지 않은 회원들에게 인사를 거듭하고나서 집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돌아보니 히사꼬였다. 처녀의 얼굴은 발깃하니 상기되여있었다.

《무슨 일이요, 히사꼬?》

경식이 의아해하자 히사꼬가 다가와 스스럼없이 그의 팔을 끼며 말했다.

《저도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히사꼬의 두눈이 응석기를 머금고 명랑하게 반짝인다. 경식은 허허 웃고는 처녀와 함께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고보니 협회에 들어선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금때문에 신경쓰느라 히사꼬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건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새 다른 일은 없었소?》

경식의 물음에 히사꼬가 기다렸다는듯 두서없는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오사까로 떠나면서 경식이 부탁한대로 사료들을 조사한 이야기며 협회에 찾아왔던 상담객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새로 써보았다는 단시에 이르기까지 처녀의 입에서는 퍼내고퍼내도 마를줄 모르는 샘물처럼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잇달아 쏟아져나왔다. 마

치 며칠이 아니라 몇년세월을 리경식과 떨어져있었던듯이.

하건만 히사꼬가 이야기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식의 생각은 어느결에 다른 곳으로 달리고있었다. 이 몇달어간 향악보의 행방을 찾아다니는 과정에 만났던 인물들이 그의 눈앞으로 주마등처럼 엇바뀌며 흘러갔다. 니시다의 절망에 찬 모습이 허우적대며 되살아나기도 하고 가루베의 철면피한 낯바닥이 흐물흐물 다가들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기름쥐마냥 반질거리는 시미즈며 장인의 꼴도 불안스럽게 떠올랐다.

향악보를 찾으려고 처음 나설 때만 해도 오죽이나 막연했던가. 차라리 풀숲에서 바늘을 찾는게 나을것 같았다. 더구나 니시다를 찾아갔다가 헛물을 켜고 돌아설 때에는 말그대로 앞이 캄캄하지 않았던가. 겨우 찾아쥔 한가닥 실마리마저 놓쳐버리고 끝모를 미궁속에서 허둥지둥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죽해온다. 그러던 자기가 불과 몇달만에 향악보를 눈앞에 두게 되였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꿈만 같이 여겨지기도 하였다. 생각할수록 동포들과 벗들이 고마웠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무슨 수로 자기가 첩첩난관을 뚫으며 예까지 올수 있었으랴. …

《참, 선생님이 오사까로 떠나신 뒤에 인츰 친구 한분이 찾아왔댔습니다.》

상념에 잠겨있는 경식의 귀전에 히사꼬의 청랑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경식은 생각에서 반쯤 깨여나며 중얼거렸다.

《친구?》

그러자 흥오른 히사꼬의 대답이 뒤따랐다.

《예, 박상열이라고 언젠가 선생님이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고서업을 하신다는 그 친구분…》

《박상열이라구?》

대번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경식은 어리둥절해서 그 이름을 외우며 히사꼬에게 눈길을 모았다. 처녀가 자신있게 되뇌였다.

《분명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박상열이라고. 그의 말이 향악보와 관련해서 선생님과 꼭 만날 일이 있다더군요. 친구분인데다 몹시 바빠하시는것 같기에 선생님이 오사까로 간 사연을 그한테 대드렸는데 혹 제가 잘못한건 아닌지…》

히사꼬는 말끝을 흐트리며 경식의 눈치를 살폈다. 자기가 경솔하게 처신하지나 않았는지 걱정이 되는 모양이였다.

경식은 얼떠름한 속에 히사꼬가 한 말을 되새겨보았다. 박상열이 어떻게 별안간 찾아왔댔을가? 향악보와 관련해서 꼭 만날 일이란 대체 뭔데? 그렇게 바쁜 일이라면 히사꼬가 대준대로 오사까로 달려왔을텐데 거기서 그를 본적은 없지 않은가? 하긴 그 넓은 오사까에서 사람을 찾는다는게 쉬운노릇은 아니지. …

아무튼 반가웠다. 무슨 일로 찾아왔댔는지는 알수 없지만 필경 박상열이 약속을 지켜 민족의 재보를 찾는 일에 발벗고 나섰으리라는 생각에 코허리가 시큰해왔다. 경식은 반색을 감추지 못하며 처녀에게 말했다.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주길 잘했소. 그러고보니 벌써 소식을 보냈어야 하는걸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만.》

바야흐로 향악보를 손에 넣게 되였다는 사실을 그 불같은 친구가 안다면 얼마나 기뻐 날뛰랴. 인제 당장 그에게로 달려가고싶은 충동이 불끈 솟았지만 시미즈와 약조한 시간이 경식의 발목을 붙잡고있었다. 가슴이 설레였다. 향악보를 찾으면 박상열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 그간 쌓인 회포를 실컷 풀리라 속다짐하며 경식은 걸음을 다그쳤다.

얼마쯤 더 걸어 갈래길이 나졌을 때 히사꼬가 문득 걸음을 멈

추었다. 처녀는 끼였던 팔을 살며시 뽑더니 한쪽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전 이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 오늘 정말 수고가 많았소.》

경식은 처녀에게 진심으로 사례했다. 헌데 웬 일인지 히사꼬가 선뜻 움직일념을 안했다. 처녀는 뭔가 말할듯말듯 머무적거리다가 잠시후 들고있던 손가방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는것이였다.

《이건?…》

경식이 영문을 몰라하자 히사꼬가 주밋거리며 봉투를 내밀었다.

《선생님, 2만엔입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향악보를 찾는데 보태주십시오.》

경식은 아연해지고말았다. 히사꼬에게 있어서 2만엔은 적은 돈이 아니였다. 수입이라야 아버지가 받는 많지 않은 원고료와 히사꼬자신이 번역이며 자료조사 같은것을 위탁받아 벌어들이는것이 전부인, 게다가 병약한 어머니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무슨 여유가 있어 2만엔을 내놓는단 말인가. 십중팔구 살림을 위해 애써 모아온 돈이거나 애용해오던 물건이라도 팔아서 마련한 돈이 분명했다. 경식은 눈뿌리가 저려드는것을 느끼며 처녀를 나무랐다.

《히사꼬, 성의는 알겠소만 이러면 안되오.》

그러거나말거나 히사꼬는 한사코 봉투를 건네주려 한다.

《선생님, 받아주십시오.》

별수없이 경식이 어성을 높이고말았다.

《대체 날 뭘루 만들자는거요?!》

성난 그의 모습앞에 히사꼬가 한순간 주춤거렸다. 너무 몰인정하게 군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처녀의 성의를 뿌리치자니 어쩌는 도

리가 없었다. 경식은 울상이 되여 굳어진 히사꼬를 외면한채 단호히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잠시후 히사꼬가 따라와 앞을 막아나서는것이 아닌가. 고개를 가로저어 뺨에 드리운 머리칼을 다급히 걷어내며 히사꼬는 애원하듯 경식을 쳐다보았다.

《선생님, 저때문에 화가 나셨다면 용서하세요. 전 단지 선생님을 돕고싶어서…》

새소리처럼 맑던 처녀의 목소리가 서운함과 안타까움에 눌려서인지 저으기 흐려있었다.

경식은 우두커니 멈춰선채 히사꼬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금시 울음이라도 터칠것 같은 처녀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선뜻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 속에서도 가슴이 찌르르해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좋은 처녀였다. 돈이 가장 값비싼 명함장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도금칠한 떡쇠같은 위선과 기만의 자본주의세상에서 저렇듯 의로움을 위해 진심을 쏟는다는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더우기 타민족에 대한 배타의식이 우심한 이 섬나라 땅에서 량심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민족적편견의 장벽을 과감히 뛰여넘은 처녀가 마음속으로는 장하기 그지없었다. 그런 처녀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돈까지 받을수 있단 말인가.

받아서는 안되는 돈이였지만 그렇다고 처녀의 성의에 찬물을 끼얹기도 난감해 경식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데 서글픔에 잠긴 히사꼬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려왔다.

《보잘것없는 돈인줄 압니다. 그래도 힘자라는껏 선생님을 돕고싶습니다. 선생님, 그렇게도 제 도움이 부담스러우신가요. … 선생님이 이 돈을 물리치시면 전… 다신 선생님앞에 나설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불시에 처녀의 목소리가 떨려났다.

경식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본의아니게 자기가 히사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가슴을 때렸던것이다. 그는 눈길을 허둥거리며 처녀를 불렀다.

《히사꼬!》

가느다랗게 좁혀진 처녀의 깜장눈에 눈물이 가랑거렸다. 하얀 브라우스에 곤색치마를 받쳐입고 하소하듯 버티고 서있는 처녀의 모습에서는 단지 서러움만이 아닌 야속함과 오기가 내풍기고있었다. 그 모양이 똑 고집스러운 녀학생같아 경식은 그만에야 빙그레 웃고말았다. 사랑스러운 처녀였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타인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뛰여드는 처녀의 그 당돌함도 사랑스러웠고 인간의 지성과 량심을 무조건 믿는 청춘다운 그 량만도 사랑스러웠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처녀의 손을 부여잡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싶었지만 경식은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허나 공연한 노력이였다. 어느새 그런 심정을 눈치챘는지 히사꼬가 재빨리 경식의 손에 봉투를 쥐여준것이다. 눈깜빡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였다. 경식이 황황히 봉투를 도로 주려 했건만 처녀는 벌써 저만치로 달아나고있었다. 그러던 히사꼬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더니 경식을 향해 상큼 머리숙여 인사한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는 빨갛게 타는 얼굴을 감추면서 다시금 종종걸음을 놓는것이였다. 즐거운 의무를 수행한듯 통통 튀여오르며 멀어져가는 처녀의 뒤모습을 경식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고맙다고 하던 히사꼬의 말이 별스레 귀전에서 그냥 맴돌이쳤다. 뭐가 고맙

다는건가? 성의를 받아주어 고맙다는건가?… 자기가 해야 할 인사를 되려 처녀가 먼저 했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허거픈 웃음이 나왔다. 처녀의 따뜻한 진정에 후더움을 느끼며 경식은 그대로 돌아서지 않을수 없었다.

허기증이 쓰리도록 빈속을 쥐여뜯었다. 그제서야 경식은 자기가 점심도 건너뛰며 정신없이 돌아쳤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 인제는 시미즈가 두말 못하고 향악보를 내놓게 되였다는 생각에 가슴은 흐뭇해서 마냥 높뛰기만 하였다.

집안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한달음에 아버지한테 안겨드는데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던 순분이 물기묻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총총히 올라왔다. 경식은 조바심어린 눈빛으로 남편의 기색을 살피는 안해에게 벙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여보, 인젠 귀국신청을 해도 될것 같소.》

경식의 말에 안해의 얼굴이 금시 환해졌다.

《그러니 그 책을 찾게 되였다는 말씀이세요?》

경식은 헌헌히 머리를 끄덕여보이고나서 홰치는 수탉의 울음처럼 기운차게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우리도 인젠 조국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아이들이 좋아라 다랑귀를 뛰며 어쩔줄 몰라한다. 맏딸 수영이가 대뜸 조국에 가면 자기도 피아노를 배울수 있는가고 물었다. 길을 가다가도 어디서 피아노소리가 들려오면 부러움과 호기심에 시간가는줄 모르고 귀를 기울이군 하는 딸애였다. 경식은 봄무지개마냥 아롱다롱한 꿈들로 가득찬 딸애의 령롱한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기꺼운 어조로 대답했다.

《그렇구말구. 조국에 가면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공부도 하고 피아노도 배울수 있단다.》

《야!—》

수영이는 너무 좋아 손벽까지 짜락짜락 치는데 누나의 그 모습에 승벽이 동했던지 막내인 수남이녀석도 피아노를 배우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칭얼대기 시작했다. 자식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경식은 오래간만에 시름을 잊고 마음껏 껄껄거렸다. 안해도 한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즐겁게 웃었다. 그러는 부모들을 더 기쁘게 해주고싶었던지 수영이가 쪼르르 방 한가운데 나서더니 봄시내물처럼 숫되고 랑랑한 목소리로 학교에서 배운 시를 외우는것이였다.

그 돈을 보세요
누가 보내주셨나
우리 말을 배우라고
아버지원수님께서
보내주신거랍니다

이역에 핀 꽃망울이
마음에 걸려
바다너머 조국에서 보내온
교육원조비랍니다

아 잊지 않을래요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여도 잊지 않을래요
귀한 돈을 보내주신
원수님의 그 사랑을

꿈결에도 꿈결에도
잊지 않을래요

언젠가 조선학교 새 교사건설장에 연예활동을 나왔던 소녀애가 작은 가슴을 들먹이며 저 시를 읊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소녀의 울먹거리는 시랑송을 들으며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눈시울을 적셨던가. 조국이 준엄한 전쟁을 치르고있을 때 피 한방울도 바치지 못한 재일동포들이였다. 재더미를 가시고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느라 아직은 한푼한푼의 돈이 천금같이 귀한 조국이였다. 그런데 그렇듯 어려운 속에서도 이역만리의 자식들을 조선사람으로 당당히 키우라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마련한 돈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으로 아낌없이 보내주군 하니 정녕 어머니조국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헌신을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뜨거운 사명감으로 하여 경식의 심장은 온몸에 피를 뿜어내며 더욱 힘차게 고동쳤다. 그는 자식들을 가슴에 껴안고 안해에게 후덥게 말했다.

《여보, 우리 조국에 가서 힘껏 일하기요.》

《예.》

남편을 바라보는 순분의 눈길속에 따스한 애정과 소망이 노을처럼 소리없이 일렁이고있었다. …

7. 오사까의 비뿌리는 밤에

드디여 시미즈와 약속한 날이 왔다. 리경식은 오사까에 도착하는 길로 《다마무시주점》부터 찾아갔다. 해가 퍼그나 솟아오른 늦은아침무렵이였다.

주인에게 전갈을 띄우고 기다리고있느라니 접대부가 나와 그를 2층으로 데려갔다. 1층과 달리 2층은 일본식으로 꾸려져있었다. 누비돗자리를 깐 어느 한 방으로 경식을 안내한 접대부는 잠간 기다려달라고 말하고는 미닫이문을 열어놓은채 허리를 굽히고 사라져버렸다. 이윽고 시미즈가 허리를 갑신거리며 들어섰다.

《아, 오셨습니까. 기다리게 해서 참말로 죄송합니다.》

금방 목욕을 하고 나왔는지 시미즈는 유까다우에 겹옷을 걸치고 넓은 띠를 배우에 둘둘 말았는데 화장비누냄새가 풍기는 창백한 얼굴에서는 밤생활에 포만된 지친 기색이 떠돌고있었다.

참대로 만든 자그마한 탁자를 사이에 두고 시미즈와 마주앉자마자 경식이 먼저 말을 뗐다.

《약속한대로 20만엔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시미즈의 해반지르르한 얼굴이 흡족해하는 웃음속에 흐물흐물 녹아들어가는듯싶었다.

《하하… 과연 신용이 있구만요. 선생 같으신분들과라면 난 어떤 거래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참말로 열성이 대단하십니다.》

경식은 호들갑스럽게 연방 들까불며 접대부에게 차를 내오라고 분부하는 시미즈에게 무뚝뚝한 어조로 말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장인에게나 갑시다.》

그 말에 시미즈가 냉큼 고개를 조아린다.

《예 예, 어서 그래얍지요. 사나이가 인정하고 의리를 빼면 귀베고 불알뺀 하늘소나 다름없다던데 영업이고 뭐고 인제부턴 선생이 분부하시는대로만 하겠습니다.》

시미즈는 해낙낙해서 이런 말까지 늘어놓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마후 그들은 구마또리로 떠났다. 시미즈의 처가에 이르니 정말로 장인이 사찰에서 내려와있었다. 하오리에 하까마(가랭이가 넓어서 치마처럼 된 일본인들의 아래옷)를 입고 굽높은 게다를 끌며 마당에 나온 장인의 태도는 자못 도고하였다.

경식이 약속대로 돈을 가져왔다고 말하자 장인은 애앰ㅡ 하고 목기침을 툐아올렸다. 다음순간 령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리경식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생각이 달라졌소. 사실 20만엔이라는게 사위가 가져간 빚의 원금에 지나지 않소. 나도 늘그막인지라 여생을 생각지 않을수 없는즉 아무래도 리자까지 가산해서 받는게 옳을상싶소.》

경식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여 령감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령감이 물고 씹어주듯 다시한번 곱씹어 외워서야 경식은 사태를 깨달을수가 있었다. 몸안에서 뭔가 뭉클하고 올라오더니 숨이 꺽 막혀왔다. 한동안 눈길을 허공에 던진채 아연실색해있던 경식은 모욕감을 꿀꺽 삼키며 장인령감에게 항변했다.

《아니 여보시오, 말바꾸기를 해도 분수가 있지 이거야 너무하지 않소?!》

하건만 령감은 튕기면 소리가 날듯 낯가죽이 댕댕해서 오히려 제편에서 어성을 돋구는것이였다.

《천만에, 너무한건 되려 저 사위녀석이요. 세상에 남의 돈을 빌려갔다가 리자도 안 물고 본전만 반환하는 법이 어데 있소? 돈계산에 들어선 부자지간도 남남이랬는데 그래, 내가 못할 말을 했는가요?》

시미즈가 자벌레같이 발딱발딱 뛰며 지랄발광을 피웠지만 령감은 네깟놈은 말도 말라는 식으로 사위따위는 아예 상대조차 할념을 안했다.

경식은 부르르 몸을 떨며 불이 튀는 눈으로 그자들을 노려보았다. 조상의 유산이 략탈당한것만도 원통한노릇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속물들의 롱락물로 다시금 릉멸을 당하고있다고 생각하니 단박에 모든것을 부시여버리고 짓쳐들어가 향악보를 뺏아내오고싶은 무분별한 욕구가 사납게 꿈틀거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어금이를 으깨물며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난 경식은 고서를 한번 보게라도 해달라고 장인령감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령감은 그마저도 도리질을 했다.

《물건이 진짜인지 확인해보려고 그런다면 그 점은 안심해도 되오. 사위가 그 책을 가지고 하도 수다를 떨기에 내 식자있는 사람들에게 두루 알아봤는데 당신이 찾고있는 고서가 분명하오.》

장인령감의 자신만만해하는 말은 경식을 대번에 긴장시켰다. 령감이 향악보에 대한 소리를 여기저기 늘어놓고 다닌다는것이 여간만 께름하게 들리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다가 가루베 같은자들에게 알려질수도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마음이 뒤숭숭해오는데 경식의 그런 내심을 눈치챈듯 령감이 얄궂은 미소를 흘리며 뒤말을 달았다.

《마음놓으시오. 만일 당신이 내 사위가 진 빚을 말끔히 청산해줄 의향이라면 구태여 다른 사람과 거래해서 사위를 난처하게 만들 생각은 없으니까. 어쨌건 사위와 쨈을 해서 차후에 값을 다시

부를터이니 수락한다면 어느때건 날 찾아오시오. 허지만 명심해두시오. 그 물건을 욕심내는 고객은 당신뿐이 아니라는걸 말이요.》

령감은 제법 의기양양해서 바람을 일구며 들어가버렸다.

《훼, 돈독이 올라도 더럽게 오른 두상태기같으니라구. 어찌다가 내 저런 두상을 장인으로 만나가지고 이런 망신을 당하는지, 하 참…》

령감이 사라진쪽에 대고 비린 목청으로 욕질을 퍼부어대던 시미즈는 무서울 정도로 이글거리는 경식의 충혈된 눈을 알아보고서야 주춤 오그라들었다.

경식은 얼굴이며 팔뚝으로 뜨겁게 내리쬐는 폭양속에 몸을 내댄채 장승인양 마당 한가운데 우뚝 버티고 서있었다. 더이상 그 어떤 흥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격노의 웨침이 턱을 치받으며 그의 가슴속에서 마구 골풀이쳤다. 허나 성급해서는 안된다는 리성의 준절한 당부를 거절할 도리가 없어 령감이 들어간 집쪽만 고집스럽게 노려보고있는데 코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차겁고 약빠른 눈길로 경식의 동정을 엿보던 시미즈가 잠시후 주섬주섬 말을 붙여왔다.

《참말 죄송하기 이를데없습니다. 령감이 저렇게 망녕을 부릴줄 알았더라면 애당초 그런걸 맡기지부터 않는건데 쯧쯧… 어찌겠습니까, 사람이 하는노릇이라는게 다 이런건데. 하고싶어도 할수 없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할수 있어도 하고싶지 않는 일이 있기마련 아닌가요.》

아리숭하게 이런 소리를 떠벌이는 시미즈의 눈가에 무언가 면밀히 저울질해보는듯 한 타산적인 표정이 떠돌고있었다. 그러면서도 그자의 입가에서는 곰살맞은 미소가 그려붙인듯이 떠날줄을 몰랐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내 인제 따라가 장인령감과 다시 얘기해볼테니 먼저 돌아가 기다려보시는게 어떨는지. 헤헤…》

《래일 다시 오겠으니 그리 아시오.》

경식은 시미즈의 상판을 보지도 않은채 납덩이처럼 무겁게 이 한마디를 내뱉고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며 마당을 나와버렸다.

오사까시내로 돌아오는 그의 심신은 천근만근으로 무겁기만 하였다. 단지 한껏 부풀어올랐던 꿈이 일시에 허물어진데서 오는 좌절감때문만이 아니였다. 시미즈와 대상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가는 풀 길 없는 의혹이 그의 마음속에서 어지럽게 맴돌고있었던것이다.

처음에는 5만엔으로도 감지덕지해하던 시미즈네가 20만엔을 치르겠다는 마당에 와서까지 이 피탈 저 피탈을 해가며 딴죽을 치는 까닭이 무엇일가? 그렇게 늘어진 흥정을 걸 배짱이 별안간 어디서 생겨난걸가? 시미즈가 부른 값을 너무도 쉽게 받아물었기때문인가? 그러나 그자는 빠찡꼬일로 우달근에게 고삐를 매인 처지가 아니였던가?

불현듯 향악보를 욕심내는 고객이 한사람뿐이 아니라고 못박던 장인령감의 소리가 경식의 뇌리를 때렸다. 금시 혈관의 피가 얼어버리는것만 같았다. 령감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태는 훨씬 심각한것이였다. 과연 그 소리가 진실일가? 아니면 저들에게 유리하게 흥정을 몰아가려고 령감이 짐짓 꾸며낸 허튼소리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착잡하게 갈마드는 불안과 위구들을 시끄러운 파리마냥 애써 물리치면서 경식은 그달음으로 우달근을 찾아갔다.

경식에게서 이야기를 듣고난 달근은 낯빛이 시뻘개지다 못해 꺼멓게 질려버려 버럭 고함을 치는것이였다.

《그래, 그런 뻔뻔스러운자들을 그냥 놔뒀단 말이웨까? 대체 그놈들이 조선사람을 뭘루 보는가 말이우다!》

경식은 당장에 결딴내겠다고 일어나는 달근을 겨우 붙들어 앉

혔다.

《사실 제 심정도 부회장아버님과 다를바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긴 일본땅이 아닙니까. 우리 문화재가 뻐젓이 시미즈의 사유재산으로 법의 인정을 받고있는 세상에서 향악보를 되찾자면 신중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자들이 우리와 거래를 하자는걸 봐선 좀더 흥정해보려는 심산 같은데…》

무겁게 꺼내는 경식의 말에 달근은 다른 말을 못하고 황소숨만 몰아쉬였다.

이튿날 경식은 우달근과 함께 또다시 시미즈의 장인을 찾아갔다. 장인령감의 태도는 여전하였다. 달근이 도대체 얼마를 더 달라느냐고 눈을 부릅뜨며 다우쳐묻자 령감은 그 문제는 사위가 잘 아니 사위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애매하게 발뺌을 하는것이였다.

《시미즈 그 작자가 맞대놓구 나한테 그러질 못하겠으니까 제 장인을 내세워 야바위를 치는거우다. 넨장헐, 내 그 야시꼬운 놈팽일 가만 놔두지 않겠수다!》

헛물만 켜고 돌아오는 길에서 달근이 분기를 누르지 못해하는 소리였다. 그의 말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리경식도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의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우달근과 동업하지 못해 그처럼 안달복달하던 시미즈가 아니였던가. 그러던 그자가 향악보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배심좋게 나오는데는 필경 곡절이 있는것이 분명하였다. 경식은 자기가 직접 시미즈를 만나 따져묻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경식은 시미즈를 찾아나섰다. 우달근이 함께 가자고 따라섰지만 쇠도끼같은 그의 성미에 시미즈를 만나면 무슨 일이라도 낼듯싶어 경식은 겨우 달근을 떼여놓고 혼자서 길을 떠났다.

해는 이미 서쪽하늘가너머로 힘겨웁게 넘어갔는데 오사까만쪽에

서 밀려든 거먹구름이 락조의 검붉은 잔광을 삼키며 때이르게 침울한 어둠을 공중에 드리우고있었다. 비라도 쏟아지려는지 대기는 찌는듯이 물쿠었다.

도시의 거리들에 부산스러운 밤풍경이 하나둘 떠올랐다. 끊임없이 도섭을 피우는 네온등들과 우줄우줄 춤을 추는 광고장식등들, 화려한 기모노로 단장한 기녀들이 공작어처럼 하느작거리는 유곽거리며 집없는 사람들이 신문지쪼박을 깔고 밤잠차비를 하는 지하도의 어둑컴컴한 구석구석…

어느덧 경식은 시미즈의 주점이 있는 요도가와구의 골목에 이르렀다. 《다마무시주점》이라고 씌여진 네온간판이 알라꿍달라꿍 둔갑을 피워대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홀리고있었다. 어째서인지 지금따라 《다마무시》라는 간판이름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경식의 눈을 찔렀다.

《다마무시》는 비단벌레를 가리키는 일본어이다. 딱장벌레의 한 종류인 이 벌레는 예로부터 《살아있는 보석》으로 불리울만큼 아름다운 빛갈로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명치유신이후까지도 일본인들속에서는 비단벌레를 옷장에 넣어두면 새 옥이 생긴다는 미신이 퍼져있었고 일본 법륭사에는 비단벌레 1 200마리의 날개를 박아넣은 《다마무시즈시》라는 궤가 신주를 놓아두는 국보로 오늘날까지 전해져오고있다. 비단벌레의 날개빛처럼 광선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빛갈을 일본인들은 《다마무시이로》(비단벌레색)라고 하는가 하면 어느쪽으로든 적당히 해석할수 있는 애매한 답변을 가리켜서도 《다마무시이로 답변》이라고들 말한다.

아닌게 아니라 적지 않은 일본인들은 《다마무시이로 답변》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름지기 겉과 속을 분간하기 힘든 애매성과 은폐성이 일반적인 자기 표현방식으로 굳어져있는 그

들 특유의 습성에서 오는 현상일것이다. 그렇다면 늘쌍 걸발린 웃음을 짓고 살이라도 떼줄것처럼 설레발을 치는 시미즈의 수선뒤에는 어떤 본심이 도사리고있는것일가? 경식은 착잡하게 뒤엉킨 의혹의 실타래를 풀려고 애쓰며 주점안으로 들어갔다.

퇴근시간이 지나서인지 술군들로 꽤 붐비는 주점안은 질탕거리는 쟈즈음악과 술냄새, 담배연기로 하여 틉틉하고 후덥지근했다. 여기저기 식탁들에서 혀꼬부라진 소리들과 추저분한 롱지거리들, 쥐여박을듯 으르대는 성난 소리들이 어지러이 들려오는데 술집 한켠의 불그스레한 조명아래서는 귀청을 째듯 쿵쾅거리는 쟈즈의 폭음에 휘둘리며 한 무리의 남녀들이 뒤엉켜 롱탕을 쳐대고있었다. 뿌잇하니 서려도는 먼지,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들, 저마끔 흔들어대는 팔다리들과 야하게 휘둘러대는 엉덩이들… 자극적인 탄성을 연방 내지르며 원시적인 열정에 미쳐나있는 취객들의 광란을 보느라니 패전후 급속도로 밀려든 쟈즈문화의 홍수속에서 자기의 고유문화를 잃은채 허우적대는 그들의 얼빠진 모양이 저으기 볼성사납게 여겨지기만 하였다.

경식이 접대부를 불러 주인을 찾으니 주인이 없다는것이였다. 어디에 갔느냐고 다시 물으니 영업관계일로 밖에 나갔는데 오늘 밤 들어오지 못할것 같다는것이 아닌가. 경식의 얼굴에 미심스러워하는 기색이 력력했다.

(시미즈가 인젠 나를 피하자는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미즈를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경식이 제잡담 웃층에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려는데 기모노차림의 웬 중년녀인이 찬바람을 일구며 내려오는것이였다.

《아무튼 주인에게 똑똑히 이르세요! <아라이스시>에 진 부채를 월말까지 청산 못하면 법에 고소해서 술집을 차압할테니 그리 아

시라고요!》

뒤따르는 접대부에게 서슬차게 쏘아붙이는 녀인의 말이였다. 우달근의 말대로 시미즈가 빚군들한테 여간 시달리는것 같지 않았다. 경식이 올라가보니 사무실에는 정말로 쇠가 채워져있었다.

차가운 외면의 기운이 서린채 굳게 닫겨있는 문을 보느라니 경식의 심장은 돌처럼 무겁고 써늘해왔다. 차압이라는 소리까지 날 정도로 빚독촉에 쫓기우는 시미즈가 어째서 향악보를 놓고 요리조리 시간을 끌고있는걸가? 분명 그자가 오그랑수를 쓰고있다는 확신이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더 가슴을 후벼파고들었다. 과연 그자의 꿍꿍이가 무엇일가? 한시바삐 시미즈의 속셈을 간파하고 그자가 옴짝달싹 못하게 새로운 방책을 마련해야 할 시각이였다. 그래서 마음을 도사려먹고 왔건만 어느새 낌새를 알아차렸는지 시미즈가 기름쥐마냥 매끄럽게 빠져달아났으니 실로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일이였다.

리경식이 초조감에 휩싸여 웃층에서 내려오는데 느닷없이 그를 찾는 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만 일전에 <아리랑>주인님과 함께 오셨던분이 아니세요?》

눈길을 돌려보니 춤군들쪽에서 20대의 웬 녀자가 그에게로 걸어오고있었다. 금방 춤을 추다가 나왔는지 그 녀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향수내와 얼버무려진 녀인의 땀냄새가 풍겨왔다. 뒤늦게야 경식은 주점에 처음 왔을 때 차를 내왔던 그 작부를 알아보았다.

《무슨 일이요?》

어리둥절해서 경식이 이렇게 묻자 녀인은 반가움에 눈꼬리를 치며 대답했다.

《전 여기서 일하는 하나꼬라고 합니다. 실은 선생님에게 긴히

여쭐 말씀이 있어서…》

경식은 의아해서 그 녀자를 바라보았다. 하나꼬의 얼굴에 어수선한 주위를 경계하는듯 한 빛이 엿보였다. 경식은 말없이 녀인을 따라 구석진 곳의 외딴 식탁에 가 마주앉았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꼬를 유심히 살펴볼수가 있었다.

그 녀자는 팔이며 어깨살을 농염하게 드러내놓은 연분홍빛달린 옷을 입고있었다. 긴 머리칼은 뒤로 묶어 한쪽어깨앞으로 늘어뜨리고있었는데 퍼르스름한 눈확언저리며 풀어진 입귀에서는 도색에 지친 피로와 공허가 떠돌고있었다. 경식은 나직이 녀인을 재촉했다.

《어서 말하시오.》

그러자 하나꼬는 긴장에서 오는 오한인듯 가볍게 몸을 한번 옹송그리고나서 망설이는 어조로 묻는것이였다.

《저, 우리 주인님을 만나러 오셨는가요?》

경식이 대답대신 머리를 끄덕이자 왜서인지 하나꼬의 봉긋한 입술사이로 엷은 한숨이 새여나왔다. 갑자기 하나꼬가 애원에 찬 눈길로 경식을 쳐다보며 속삭이듯 간청한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다시는 여기로 찾아오지 마세요.》

경식의 두눈섭이 찌붓해졌다. 묻는듯 한 그의 눈길이 하나꼬의 눈길을 붙들고 좀처럼 놓아주지 않았다. 하나꼬는 얼굴을 약간 붉힌채 고개를 떨구더니 잠시후 조심조심 소리를 죽여가며 말을 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께 전하라고 이르더군요. 우리 주인님을 계속 찾아다니시면 저… 선생님의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거라고…》

륵골밑에서 심장이 흠칠 높뛰였다. 경식은 창졸간에 어안이 벙벙해져 하나꼬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였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시미즈를 찾아다니는건 오로지 향악보때문이 아닌가. 하다면 내 신상을 위협해야 할 정도로 향악보에 눈독을 들이고있는자들이 있단 말인가?)

가슴이 조여드는 불안감을 애써 숨기며 경식은 하나꼬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그렇게 말했다는 사람들이 누구요?》

허나 하나꼬는 당황해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건…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전 다만 선생님께 그 말을 전하라는 분부만 받았을뿐인걸요.》

(분부를 받았다고? 대관절 이 녀자에게 그런 분부를 할만 한자가 누군가? 시미즈인가? 아니면?…)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보아도 선뜻 짚이는데가 없어 경식이 이리저리 궁싯거리는데 하나꼬의 간절한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선생님, 그 사람들은 인정사정을 모른답니다. 혹 선생님이 불상사라도 당하시면 주인님의 립장이 얼마나 난처해지겠나요. 제 말을 믿으시고 다신 우리 주인님을 만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경식은 도무지 알아들을수 없는 말만 되풀이하는 하나꼬를 이윽토록 지켜보았다. 어쩐지 진정이 비낀듯 한 그 녀자의 눈길뒤에 무엇인가 알지 못할 어둑시그레한 심연이 도사리고있는것 같은감이 들었다.

(날더러 시미즈를 다신 만나지 말라구?)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말했다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왜서 그걸 원하는지 아직은 알길없어도 한가지만은 명백했다. 리경식에게 있어서 시미즈를 만나지 말라는것은 결국 향악보를 포기하라는 말외에 다른 아무런 의미도 없는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경식의 이마우에 혈관이 부풀어올랐다. 그는 세차게 푸닥거리는 맥박을 가다듬으며 단호히 말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하시오. 공연히 녀자뒤에 숨어서 그러지 말고 내게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하라고 말이요. 그리고 내가 여기로 다니건 어쨌건간에 그건 내 일이니 쓸데없는 상관은 하지 말라고 이르시오.》

살가워보이던 하나꼬의 눈꼬리가 한순간 까부장해졌다. 그러나 녀인은 이내 찰찰 넘치도록 눈가에 교태를 실으며 감동조로 속살거렸다.

《어마,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전 선생님같이 사내다운분들과 마주앉아있느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군 해요.》

그 녀자의 음성이 어느새 비를 맞은듯이 축축해지고있었다. 하나꼬가 깍지낀 두손우에 얼굴을 올려놓더니 애틋하게 상글거리며 이쪽을 바라본다. 혀끝으로 가벼이 입술을 추기며 흐릿한 눈길로 쳐다보는 하나꼬의 표정에서 경식은 이성을 꼬드기는 매소부의 불꽃을 느꼈다.

문뜩 무덥고 소란스러운 술집의 분위기가 지겨워났다. 경식은 좀더 앉아있어달라고 매달리는 하나꼬의 청을 거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버렸다.

어두워진 밖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비가 내리고있었다. 가로세로 비스듬히 뿌려치는 비발을 보며 경식이 잠시 서성거리는데 하나꼬가 우산을 들고 따라나와 그를 찾았다.

《선생님,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가십시오.》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경식이 한사코 마다했지만 하나꼬는 울상을 해보이며 그예 우산을 들려주고야말았다.

《주인님을 찾아오셨던분이여서 이럴뿐이니 달리 생각지 말아주

십시오. 혹시나 기회가 생기면 저도 힘자라는껏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십시오.》

하나꼬는 이런 말을 남긴채 미처 어쩔새도 없이 바람처럼 들어가버렸다. 경식은 별수없이 우산을 들고 길에 나섰다.

멀리서 번개불의 여광이 구름속을 파헤치며 소리없이 펀뜩거렸다. 빨갛고 푸른 네온등불빛의 차거운 무늬가 비내리는 골목길을 얼른얼른 비쳐댄다. 무겁게 걸음을 옮기는 경식의 마음속에서도 종잡기 어려운 그림자가 번거롭게 얼른거리고있었다.

아무래도 예감이 불안했다. 돈이라면 지옥길도 마다하지 않을 시미즈가 까닭없이 피하는것도 그렇고 돌연히 이상한자들이 협박을 가해오는것도 그렇고 무엇인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이 암암리에 리면에서 벌어지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혹시 가루베가 어떻게 눈치를 채고 여기까지 따라온것은 아닐가? 하건만 그런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여태 이 일을 심중하게 처리해오지 않았던가. 어떻든 이런 형편에서 돌파구를 찾자면 시급히 총련조직의 도움을 받는외에 다른 길은 없을것 같았다.

우뢰질소리가 차츰 가까와졌다. 굵어진 비방울들이 점점 더 앙칼스럽게 우산을 두드려댔다. 경식은 이밤으로 당장 총련 오사까부 본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걸음을 다우쳤다.

리경식이 골목길을 얼마쯤 지나왔을 때였다. 난데없이 앞에서 불퉁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는것이였다.

《오ㅡ이!》

눈길을 쳐드니 검정색유까다를 걸친 네댓명의 무리들이 어느 가게의 처마밑에 우르르 몰켜서서 이쪽을 노려보고있었다. 두어놈의 손에 야구방망이가 들려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우리랑 말 좀 하자구.》

무리가운데서 담배를 피우던자가 건방지게 턱짓을 하며 반말조로 던져오는 수작이였다. 껌뻑거리는 네온등불빛에 그자의 자태가 언뜻언뜻 비쳐왔다. 그자는 몸집이 앙바틈한 땅딸보였는데 활짝 열어제낀 옷섶사이로 털이 부수수한 앞가슴에 입묵한 《메 산》자가 퍼렇게 두드러져보였다. 경식이 의아해서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요?》

그러자 땅딸보는 시꺼먼 입에 늘어지게 담배가치를 꼬나문채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뇌까리는것이 아닌가.

《이봐, 당신 하나꼬와 무슨 관계야?》

《하나꼬?》

경식은 아연해진 낯빛으로 술집 작부의 이름을 되뇌였다. 그야말로 아닌밤중에 홍두깨였던것이다. 경식이 어리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있는데 이번에는 땅딸보의 옆에 서있던 키다리가 불량스럽게 흰자위를 희번덕거리며 말곁을 달았다.

《오이, 어째서 그 녀자를 건드리는가? 그 녀잔 우리 오야붕(두목)의 녀자란 말이다!》

너무도 황당한 소리에 경식은 어이가 없어 웃고말았다.

《허허허… 이것 보오. 뭔가 오해한것 같은데 난 그 녀자와 우연히 만났을뿐이요.》

경식의 대답에 땅딸보는 빈정거리듯 담배연기로 동그라미를 뱉아보였다. 그러더니 조롱조로 이죽거린다.

《신수는 멀쩡해보이는데 속은 여간만 구리지 않군그래. 이자 방금 그 녀자와 지분거리는걸 다 봤는데도 거짓말인가. 당신이 쓰고있는 그 우산도 하나꼬의것 같은데…》

비로소 경식의 눈길이 물방울무늬가 어룽어룽한 하나꼬의 우산에 가 미쳤다. 잘못 걸려들었다는 느낌이 머리를 치는데 위협하듯

박아지르는 땅딸보의 목소리가 거칠게 뒤를 이었다.

《긴소린 제쳐놓고 이후로 하나꼬가 있는 술집에 다신 발길을 안 하겠다는것만 이 자리에서 맹세하라구. 그럼 곱게 놓아줄테니…》

경식은 억이 막혀 그자에게 어성을 높였다.

《여보시오, 내가 거기에 드나드는건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지 그 녀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요. 좋소, 당신들이 정 그렇게 마음놓지 못하겠다면 앞으로 거기에 드나들어도 그 녀자와는 마주서지 않겠다는걸 약속하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땅딸보는 여전히 코웃음만 칠뿐이였다.

《흥, 영 알아먹지 못하는군그래. 녀자를 보러 가든 주인을 보러 가든 <다마무시주점>엔 아예 얼씬도 하지 말란 말야! 어떻나, 그렇게 하겠나?》

불시에 호흡이 가빠왔다. 그제서야 경식은 하나꼬를 통해 자기에게 협박을 가해온자들이 다름아닌 이자들이라는것을 직감했다. 도대체 어디서 별안간 굴러온자들이기에 시미즈와 만나는것을 그리도 기를 쓰고 막아나서는건가? 지그시 괴한들을 노려보는 경식의 두 눈에 서늘한 기운이 떠돌았다. 그는 하나꼬에게서 받은 우산을 내동댕이치며 땅딸보에게 결연히 대답했다.

《걷어치우오! 당신들의 진속이 무언지는 모르겠소만 난 볼장을 다 보기 전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물러서지 않겠다?》

땅딸보가 입에 물었던 담배를 사납게 내뱉더니 처마밑에서 어슬렁어슬렁 기여나왔다. 그자에게서 풍겨오는 살기띤 호흡과 독한 술냄새로 하여 경식은 팽팽 소리가 나도록 긴장해졌다. 험상궂은 분위기에 질겁한 행인들이 슬금슬금 비켜가는데 어느새 땅딸보가 비물을 훔치며 경식의 앞에 바싹 다가섰다. 매몰스러워보이는 그자의

꼬부장한 눈에서 잔인한 불꽃이 방끗방끗 튀는듯 하였다.

《그럼 사등뼈를 분질러놓을수밖에…》

앙다문 입술새로 내뱉는 땅딸보의 소리였다. 다음순간 바람을 가르며 그자의 매서운 손이 경식의 볼을 강타했다. 련이어 두번째, 세번째 타격이 복부며 가슴에 사정없이 날아든다. 그만에야 경식은 중심을 잃고 비칠거렸다.

《어때? 아직도 물러서지 않겠나?》

땅딸보가 시까스르는 소리였다. 시꺼매지고 비에 젖은 경식의 볼편이 분노로 하여 경련을 일으켰다. 명치끝이 막혀드는 아픔에 한동안 배를 그러쥐고있던 경식은 억제할길 없는 격렬한 힘이 온몸을 휘감아버리는것을 느끼며 불끈 치솟아 땅딸보의 동가슴을 어깨박죽으로 냅다 떠다박질렀다. 뜻밖의 타격을 받은 땅딸보가 허궁 들리워 길바닥에 개처럼 나동그라졌다. 그러자 패거리들이 살기를 뿜어대며 달려들었다. 비발치는 어둠속에서 어지러운 란투가 벌어졌다. 경식은 으르렁거리며 덤벼드는 놈팽이들을 치고 받아넘기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싸웠다. 그러던 그는 둔중하게 머리를 후려치는 야구방망이세례에 그만 정신을 잃고 거꾸러지고말았다. …

8. 야꾸자의 소굴을 찾아

리경식이 정신을 차린것은 다음날 오전이였다. 눈을 떠보니 병원인듯싶은 어느 한 방에 자기가 누워있는것이 아닌가.

《인제야 정신이 드셨군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머리맡에 앉아 기쁨을 금치 못하며 제일먼저 반기는 사람은 오

사까부본부의 조동수였다. 그의 말을 듣고서야 경식은 어제 밤 마음이 놓이지 않아 따라왔던 우달근이 골목길에 쓰러져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여기로 데려왔다는것이며 소식을 받고 달려온 총련조직의 일군들이 병원에서 그를 지켜 온밤을 지새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끼쳐드려서 면목이 없습니다.》

경식이 심중의 흥분을 묵새기며 이렇게 말하자 조동수가 그의 손을 부여잡고 머리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돕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겁니다.》

그럴 때 우달근이 방안에 들어왔다.

《깨나셨군요. …》

그는 안도의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경식이 누워있는 곁에 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웨까?》

경식은 생각을 더듬으며 간밤에 벌어졌던 일들을 자초지종 이야기해나갔다. 그가 골목길에서 괴한들의 습격을 받던 일을 말하자 달근이 대뜸 격한 어조로 다우쳐묻는것이였다.

《대체 그게 어떤 놈들이웨까?》

《혹시 시미즈라는자의 작간은 아닐가요?》

조심스럽게 자기 의견을 내비치는 조동수에게 우달근이 무겁게 머리를 흔들어보였다.

《그러지 않아두 한바탕 그자를 다불렀다세우구 오는 길이우다. 헌데 내 보기엔 시미즈가 한짓 같진 않수다. 그런짓까지 저지를만큼 담통이 큰 작자는 아닌걸요.》

금방 혼미상태가 가셔진 속에서도 시미즈소리가 나오자 경식은

궁금증이 치밀어올랐다.

《시미즈가 다른 소린 안했습니까?》

경식의 물음에 달근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그 좀생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게 들어보나마나 뻔하지요. 가시애비는 제 사위에게 밀어던지더니 사위녀석은 또 장인령감과 합의를 볼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나요. 분명 어제 저녁에두 일부러 리선생을 피한 눈치 같습데다. 허 참, 통 무슨 감투끈인지 모르겠다니까요. 나한테 들어붙질 못해 그렇게두 안달아하던자가 이 핑게 저 핑게 둘러대면서 살살 꼬리만 사리려드니 말이우다. 워낙 눈앞의 리익만 밝히는자여서 목돈을 쥘것 같으니까 인젠 빠찡꼬따윈 안중에도 없다는건지…》

리경식의 얼굴이 어두컴컴해졌다. 시미즈가 그리도 늑장을 부리는 까닭이 어데 있을가? 단지 상대의 조바심을 기껏 부추겨서 이 기회에 한몫 톡톡히 잡아보려는 욕심때문인가? 어제 밤에 습격해온 자들이 시미즈와 무관한자들이라면 과연 그자들은 어떤자들인가?…

경식이 꼬리를 물고 갈마드는 의문부호들을 그러안고 씨름질을 하고있는데 생각에 잠겨 침중히 말하는 조동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폭행을 가해온 괴한들의 정체부터 밝혀내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옳았다. 아무래도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그자들에게서 찾아야 할것 같았다. 경식은 자기가 본 놈팽이들의 인상특징을 생각나는대로 두사람에게 알려주었다. 그가 땅딸보의 인상을 설명할 때 우달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달근은 부리부리한 눈망울이 튀여나올것처럼 두눈을 지릅뜨며 경식에게 따지고들었다.

《분명 가슴에 <메 산>자를 입묵한 놈이였겠수다?》

《예.》

경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달근은 주먹으로 무르팍을 떡메치듯 하며 부르짖는것이였다.

《야나가와꾸미의 야마따라는 놈이 틀림없는것 같수다!》

《야나가와꾸미?》

경식이 의아해하자 달근의 설명이 뒤따랐다.

《오사까에 그런 이름을 가진 야꾸자패가 있수다. 수년전에 경쟁세력을 완전히 풍지박산내구 지금은 오사까에서 제노라고 활개치는것들이지요. 그 패거리의 두목이 야나가와 지로라는자인데 야마따는 호위원격으로 야나가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놈이우다.》

달근의 이야기는 경식의 머리를 더욱 착잡하게 만들었다.

(대관절 야꾸자패거리가 무엇때문에 여기에 끼여들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석연치 않아 답답한 숨만 몰아쉬는데 우달근이 치받쳐오르는 산같은 뱔을 도저히 누르지 못하겠는지 벌떡 일어섰다.

《에익ㅡ 내 당장에 그놈들과 회계를 까야겠수다!》

그러는 그를 조동수가 덩둘해서 쳐다보았다.

《아니, 혼자서 말입니까? 그러다가 무슨 일을 당하시려고…》

하건만 달근은 검붉어진 두볼을 푸들푸들 떨며 물러설념을 안한다.

《그깟놈들 무서울거 없수다. 나두 한때 노가다판에서 어지간히 굴러봤는지라 그러루한 놈들은 능히 다뤄낼 자신이 있수다.》

그래도 조동수의 얼굴에 근심스러워하는 빛이 가셔지지 않자 우달근은 호기있게 한손으로 허공을 내그으며 괄괄스럽게 말했다.

《너무 걱정마시우다. 나두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거우다. 이 고

장 야꾸자들의 속내를 좀 알기도 하거니와 야나가와꾸미의 행동대장이 다나까 고다로인데 실은 남창수라구 나처럼 제주도에 고향을 둔 <민단>계동포지요. 고향에 있을 때부터 그 사람 부친과 난 호형호제하며 지내온터라 창수도 날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수다. 그녀석이 비록 야꾸자가 돼버리긴 했지만 어릴 때 일본에 건너와 부친을 잃구 고생개나 해선지 인정두 있구 량심적인 면두 좀 남아있다구 할지. 거기다가 어느 정도 능력두 있구 해서 요즘엔 두목의 오른팔노릇을 하면서 야나가와꾸미에서 무시할수 없는 실권을 차지하고있다더군요. 원체 야나가와꾸미에 그 사람 같은 <민단>동포들이 적지 않수다. 이전에도 몇번인가 나쁜 놈들의 사촉을 받구 총련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걸 되게 닦아세운적이 있더랬지요. 근래에 와선 좀 얌전해졌다 했더니 허 참, 이런 일이 생길줄이야… 좌우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내 당장 가서 그놈들의 토설을 받아내구야말겠수다!》

듣고보니 우달근도 속궁리가 있어서 하는 말이였다. 경식은 마음속으로 그의 말을 수긍하였다. 달근의 말대로 자기를 습격한자들이 야나가와꾸미의 깡패들이 맞다면 화가 도리여 복이 된셈이다. 지금의 정황에서 가장 촉박한 과제는 향악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흑막속의 일들을 시급히 알아내는것이였다. 그것을 모른채 시미즈를 쫓아다니며 달구어봤댔자 개구리대가리에 찬물끼얹기가 아니겠는가. 야나가와꾸미것들은 저질러놓은 죄가 있는 놈들이라서 덜미를 단단히 틀어쥐고 족쳐댄다면 분명 승산이 있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미즈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새로운 궁리가 나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경식의 얼굴에 긴장된 힘이 실려왔다. 그는 끙ㅡ 하고 상반신을 일으켜 앉으며 달근에게 말했다.

《나도 부회장아버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자 우달근도 조동수도 퍼들쩍 놀라며 만류했다.

《아니, 그 몸으루 어델 가신다는거요?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 두 마소.》

《우리가 모든 대책을 취하겠으니 마음놓으시고 당분간은 안정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식은 고집스럽게 도리머리만 흔들뿐이다.

《아닙니다. 내가 꼭 가야 합니다.》

좀처럼 자기 뜻을 굽히려 하지 않는 그에게 결국은 두사람 다 손을 들고야말았다.

《좋수다. 그럼 나하구 같이 그놈들을 만나러 갑시다.》

우달근이 어쩔수 없다는듯 승낙을 해버리자 조동수가 신중한 낯빛으로 뒤를 달았다.

《상대가 폭력단인것만큼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대비책은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조청원들로 호위도 조직하구요.》

조동수는 그 자리에서 몇가지 방비책을 내놓았다. 시원스럽고 상냥한 청년인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여간 치밀하고 차근차근한 일군이 아니였다.

그날 오후였다. 지난밤에 비가 쏟아져내렸건만 하늘은 여전히 찌뿌둥해있었다. 리경식은 우달근과 함께 야꾸자패거리들을 찾아 떠났다. 대추방망이처럼 단단해보이는 조청원 여럿이 멀찌감치에서 그들의 뒤를 따랐다. 성심성의껏 자기를 도와나선 동포들의 모습에 경식은 마음이 든든해왔다.

큰길에 나선 달근의 행색은 여느때와는 류다른데가 있었다. 무더운 여름철인데도 회색양복에 넥타이를 미끈하게 받쳐매고 금고리를 박은 단장까지 짚고있는 그는 풍채만으로도 위엄을 느낄만큼

자못 도고해보였다. 야꾸자들을 위압하기 위해 일부러 차림새에 신경을 쓴것 같았다.

오사까의 기따구로 간 그들은 《야나가와예술》이라는 간판을 내건 흥행업소앞에 이르렀다. 그곳이 바로 야나가와꾸미의 소굴이였다. 우달근의 설명에 의하면 오사까에서 세력권을 확고히 다진 뒤 야나가와꾸미는 자금마련을 위해 가무와 영화, 류행음악 등 흥행분야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우달근이 묵직한 몸놀림으로 현관문을 넘어섰다. 그들이 현관안에 들어서니 경비원인듯싶은 두 녀석이 시시덕거리며 잡담을 하다가 이쪽으로 눈길을 돌린다. 달근은 그자들의 눈길을 턱으로 눌러버리며 거드름스럽게 분부했다.

《어이, 다나까 고다로를 불러라.》

그러자 새파란 녀석 하나가 질겅질겅 껌을 씹으며 건방을 떠는것이였다.

《당신 누군데?》

순간 우달근의 입에서 벼락같은 욕설이 터져나왔다.

《뭣이 어째? 이 알부랑자같은 놈아!》

달근은 당장에 그놈을 쳐죽일듯이 단장을 치켜들고 건물이 떠나가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이놈! 야꾸자들은 례의와 의리를 목숨으로 안다더니 다 개나발이란 말이냐? 이놈! 이 불상놈같으니! 제 애비벌 되는 사람보구 뭐 당신? 이놈아, 너희네 두번째 두령을 이름으로만 부른것을 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안 가느냐? 이 후레자식같은 놈!》

우달근이 어찌나 기세를 부렸던지 두 녀석은 대번에 독수리앞의 메추라기꼴이 돼버렸다. 놈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자 달근은 눈을 끔뻑해보이며 경식에게 말했다.

《도깨비한텐 홍두깨가 제일이라구 그저 이따위것들은 처음부터 된매로 다스려야 하우다.》

그 말을 들으니 경식은 창황중에도 웃음이 나왔다. 사실 여기로 올 때는 마음 한구석에 근심도 없지 않았건만 시작부터 우달근이 깡패들을 되게 달구어대는걸 보니 은근히 배심이 든든해지는것이였다.

잠시후 검은색티샤쯔를 입은 사나이가 앞의 두 녀석을 거느리고 현관에 나타났다. 녀자같이 갸름한 얼굴에 입술이 얄팍하고 눈찌가 매서운 사나이였는데 구리로 부은듯 고르롭게 발달된 근육들이 혈기에 넘쳐 샤쯔안을 팽팽하게 채우고있었다.

사나이는 달근을 보자 황급히 달려와 절을 했다.

《아니 삼촌, 기별도 없이 웬 일이십니까?》

그가 다름아닌 남창수였다. 오줌을 싸듯 엉거주춤이 서있던 졸개녀석들은 자기네 부두령의 입에서 삼촌이라는 말이 나오자 기가 질려 뺑소니를 치고말았다. 우달근이 기다렸다는듯 단장으로 바닥을 두들기며 이번에는 조선말로 호통을 뽑았다.

《창수 이놈아! 도대체 애새끼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내가 이런 대접을 받게 하느냐, 엉! 건방진 놈같으니… 저것들이 분수를 모르는걸 보니 네가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게 아니냐?》

분기가 충천해서 꾸짖는 우달근의 질책앞에 남창수는 어쩔바를 몰라 쩔쩔매기만 했다.

《삼촌, 고정하십시오. 아래것들이 잘못했나 봅니다. 제가 잘 다스려놓겠으니 마음을 푸십시오. 헌데 같이 오신분은?》

《내 친구되는분이다.》

《아, 그렇습니까. 다나까 고다로라고… 아니, 남창수라고 불러주십시오. 자, 어서 제 방으로 가십시다.》

달근은 그러는 조카를 거들떠보지도 않은채 성난 수탉처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앞장서 들어갔다. 방안에 들어선 그들이 자리에 앉기 바쁘게 남창수가 성급히 물었다.

《그런데 졸지에 무슨 일이십니까?》

《집에선 다 무고하냐?》

우달근이 틀스럽게 안부부터 물어서야 창수는 뒤늦게 실책을 깨닫고 바빠했다.

《아이구, 이거 죄송합니다. 덤벼치다나니 그만 인사가 늦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너두 점점 그 알부랑자들을 닮아가는구나.》

삼촌이 지청구를 늦구지 않자 조카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하소연을 한다.

《그 말씀은 너무하십니다. 제 마음이 어떻다는거야 삼촌이 잘 알지 않습니까. 저의 량심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고향에 있는 친척들때문에 제가 <민단>에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사람의 도리야 잊겠습니까. 총련사람들만 정의롭고 량심이 있는게 아닙니다. <민단>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을 터놓는 창수의 말에 우달근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금 가라앉은 어조로 이야기를 꺼냈다.

《그렇다면 말 좀 하자. 난 그래두 너만은 이 험한 판에서두 정직하구 깨끗하게 살자구 애쓰는줄 알았다. 헌데 갑자기 무슨 도깨비바람이 불어서 감히 동족을 해치려구 드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창수가 뻥뻥해서 되묻는 소리였다. 그바람에 달근이 옆에 앉은 경식을 가리키며 다시금 어성을 올렸다.

《너 이놈! 어제 밤 이분이 요도가와구에서 너희네 야나가와꾸

미것들한테 테로를 당했는데두 시치미를 뗄터냐? 이 날불한당같은 놈들!》

시뻘겋게 달아오른 우달근의 얼굴에서 쥐가 풀떡거렸다. 창수는 아연실색하여 사정하다싶이 말했다.

《삼촌, 정말이지 전 금시초문입니다.》

경식은 남창수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보아하니 정말로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있는것 같았다. 그러거나말거나 우달근의 노기충천한 기세는 좀체로 수그러들줄 몰랐다.

《이놈아! 내 형벌 되시는 너의 아버님이 왜놈들에게 매를 맞구 작고하신걸 생각하면 지금두 치가 떨리는데 아들이란 놈이 인젠 원쑤 왜놈행세를 하면서 제 동족의 피를 보지 못해 날뛰다니, 그래 내가 가만있게 됐느냐! 당장 바른대루 이르거라! 지난번처럼 또 나쁜 놈들한테서 총련사람들을 해치라구 부추김을 받았느냐? 대체 어떤 놈이 그렇게 하라구 시키더냐? 너 이놈! 나두 총련사람이다! 그러니 네놈이 이 삼촌까지 해치겠다는거냐? 이 고약한 놈 같으니라구.》

우달근은 황소숨을 내불며 거세게 씩씩거렸다. 내찌르기라도 하듯 일어선 꿋꿋한 그의 눈섭우에 손가락같은 피줄이 무섭게 뻗쳐올랐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고 개몰리듯 몰리던 창수가 볼멘소리로 투덜거린다.

《삼촌, 삼촌한텐 내가 그런 놈으로 보이십니까? 속시원히 말씀좀 해주십시오. 우리 야나가와꾸미에서 어떤 놈이 그따위짓을 했다는겁니까?》

잠자코 있던 경식이 조용히 물었다.

《여기 야마따라는자가 있소?》

《야마따요? 그는 오야붕의 사람인데요.》

남창수가 얼떠름해하자 우달근이 눈을 부릅뜨고 뚱겨주었다.

《간밤에 이분을 해하려던자가 바루 그놈이다!》

그 말에 창수의 얄팍한 입술이 돌처럼 굳어져버렸다.

《그럼 오야붕이?》

입안으로 이런 소리를 뭉개던 그는 믿어지지 않는지 도리질을 쳤다.

《아니, 오야붕이 나와 한마디 상론도 없이 그런짓을 할리 없습니다. 분명 무슨 오해일겁니다.》

《뭐라구?》

그만에야 우달근의 부아통이 또다시 터졌다. 달근은 곁에 세워두었던 단장을 거머쥐며 벌컥 역정을 냈다.

《화를 당한 당사자가 제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두 오해라구? 창수 이놈! 가슴에 <메 산>자를 새기구 다니는 깡패가 오사까에 야마따말구 또 있단 말이냐? 정신을 차려라, 이놈!》

창수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말았다. 멍하니 삼촌의 얼굴만 바라보는 그의 두볼에 검푸른 피가 서서히 솟구쳐 퍼져가고있었다. 한동안 머리를 싸쥐고 모지름을 쓰던 그는 마침내 얼굴이 해쓱해서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에잇, 갑시다. 당장 오야붕한테 가서 빠개고맙시다!》

남창수는 그길로 두사람을 데리고 오야붕의 방에 갔다. 사무실앞에 이른 그는 주먹으로 문짝을 때려열고 들어갔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오야붕인 야나가와 지로는 가죽을 씌운 커다란 쏘파에 앉아 류행잡지를 뒤적거리고있는 참이였다.

짤막하게 두사람을 소개하고난 창수가 야나가와앞에 뻗지르고 서서 따지듯 물었다.

《어제 밤 요도가와구에 야마따를 보냈댔소?》

《…》

《총련계사람을 해치라고 당신이 시켰는가 말이요? 미리 말해두는데 날 얼려넘길 생각은 마오.》

남창수의 두눈이 매섭게 번뜩이며 웃었다. 허리가 꼿꼿해질 정도로 들이대는 비수같은 질문에 야나가와는 얼어붙은듯 떠듬적거리기만 했다.

《어, 사실은 그게…》

더 묻지 않아도 그자의 얼굴에 모든것이 씌여져있었다. 리경식이며 우달근이 일시에 그자에게 눈초리를 도사리는데 별안간 남창수가 앞에 놓여있던 응접탁을 냅다 발길로 떠박지르는것이 아닌가.

그 서슬에 탁이 뒤집어지고 재털이며 차잔들이 어지럽게 방바닥에 나딩굴었다. 야나가와가 허둥대며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다… 다나까상!》

남창수는 분노에 찢어질듯 한 눈찌로 야나가와를 노려보며 야멸차게 들이댔다.

《당신 우리한테 뭐라고 훈시했소? 우리 야나가와꾸미는 도의와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제아무리 강하고 단단하게 보이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런것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하지 않았나?! 한데 아무런 죄도 없는 조선사람을 건드렸다는게 대체 뭐요? 당신이 말한 도의와 정의라는게 조선사람과는 상관없다는건가? 난 그래도 당신을 믿고 당신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았는데 인제와선 야마따 같은 자식이나 끼고돌면서 날 따돌리는구려. 흥, 그러니 나도 센징이라는거지.》

《다나까상, 그런게 아니라…》

야나가와가 급해맞아 손사래를 친다. 하지만 이미 단솥에 물 붓기였다. 창수는 힘줄이 불거진 얼굴을 푸들대며 목통이 찢어지도

록 고함을 쳤다.

《에잇, 난 절대로 가만있을수가 없어! 발길로 네 배때기에 구멍을 내겠단 말이야. 그래 이 야나가와꾸미가 너의 마음대로 움직여줄것 같은가?!》

달아오를대로 달아오른 사나이의 억센 골격에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야성적인 박력이 뿜어나오고있었다. 야나가와는 낯이 온통 흙빛이 되여 남창수를 달래려고 안깐힘을 다했다.

《다나까상, 제발 좀 참으라구.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어. 옛친구의 부탁을 뿌리칠수가 없어서 그만…》

《옛친구의 부탁이라니?》

야나가와의 말을 무지르며 우달근이 성급히 묻는 소리였다. 야나가와는 손수건을 꺼내 목덜미에 내밴 땀을 문지르더니 맥빠진 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나까상의 삼촌이시라니 믿고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나니와구에 있는 강무관을 아시는지요?》

《유술구락부말인가?》

우달근이 반문하자 야나가와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옳습니다. 실은 강무관의 권회장이 오래전부터 나와 교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가 나를 찾아왔더군요. 그의 말이 이찌가와라는 자기 친구가 일본땅을 샅샅이 뒤지면서 탐문하고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거의 찾게 된 지금에 와서 난데없이 조총련계 사람 하나가 나타나 훼방을 논다는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럴념을 못하게 따끔히 훈계해달라는 부탁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단>계인 권회장에게서 그런 청탁을 받으니 왠지 께름직하더군요. 자기네가 직접 나서기 곤난하니까 우리 손을 빌리자는게 아닙니까. 하지만 이전에 권회장에게서 신세를 진 일도

있고 해서 종당에 난 그의 부탁을 수락하고말았습니다. 처음엔 다나까상과 상론할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을건 뻔한 일이여서 하는수없이 야마따를 조용히 불러 일을 맡겼던겁니다. 진작 다나까상의 삼촌분과 관계되는 일이라는걸 알았더라면 애당초 손을 대지 않는건데… 정말 후회가 큽니다.》

야나가와가 다시금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는데 우달근이 울컥해서 기염을 뿜어댔다.

《나와 관계되든 안되든 야나가와꾸미가 주대도 없이 나쁜 놈들의 말에 놀아난단 말인가? 이역땅에 와서까지 제 동족을 물어메치려구 날뛰는 그런 얼간이들에게 면박은 주지 못할망정 되려 손발노릇을 하다니, 그래가지구서야 야나가와꾸미의 체면이 뭐가 되겠나! 여기 같이 온분이 바루 어제 밤에 화를 당한분이네. 리선생두 말씀하실게 있으면 하시우다.》

경식을 돌아보던 달근의 눈길이 의아해졌다. 리경식이 고개를 짓수굿한채 무슨 생각엔가 골몰해있었던것이다.

《아니 리선생, 왜 그러시우?》

우달근이 이렇게 물어서야 경식은 생각에서 깨여났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식은 대충 얼버무리고나서 야나가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권회장의 친구라는 사람의 이름이 분명 이찌가와라고 했는가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야나가와가 떠름해서 하는 대답이다.

경식은 심장의 다급한 박동소리를 듣고있었다. 이찌가와라면 가루베에게 자기에 대해서 자상히 말해주었다던 그 사람이 아닌가. 좀전에 야나가와의 입에서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순간 경식은 돌

연히 시퍼런 칼날이 등골을 내리긋는 선뜩함을 느꼈다. 이찌가와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따라왔는가? 그럼 가루베도 시미즈에 대해 알고있다는건가? 홀연 이마전에 식은땀이 내돋는데 경식의 그런 내심을 알리 없는 야나가와가 목을 꺾으며 깍듯이 사죄를 하는것이였다.

《아무튼 야나가와꾸미의 명분을 흐려놓은데 대해 부하들과 여러분앞에서 통렬한 책임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믿어주십시오. 야나가와꾸미는 앞으로 조선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절대 없을겁니다. 사나이로서 일구이언 안한다는것을 약속하겠습니다.》

9. 쓰라린 대결

얼마후 두사람은 그곳을 떠났다.

《헌즉 시미즈의 태도가 아리숭해진게 이찌가와인지 하는 사람과 련관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웨까.》

길을 좀 걷고났을 때 우달근이 혼자말처럼 외우는 소리였다. 경식은 생각에 잠겨 머리를 끄덕였다.

《그런가 봅니다. 아무래도 시미즈한테 이찌가와의 입김이 미친것 같습니다.》

경식의 대답에 달근은 얼굴을 흐렸다.

《으음ㅡ 헌데 그 이찌가와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경식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선뜻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사실 향악보를 찾아 헤매는 나날에 묘한 모퉁이마다에서 불쑥불쑥 튀여

나오군 하는 이름이였지만 경식은 여직껏 그 인물에 대해 얼굴조차 모르고있지 않는가. 자기자신에게 화가 치미는것을 견딜수 없어 불한숨만 토하는데 달근의 우선우선한 목소리가 격려하듯 들려왔다.

《걱정하실거 없수다. 내 인제 가서 알만 한 연줄을 다 밟아서라두 그 이찌가와라는 사람의 정체를 꼭 발가내구야말겠수다. 시미즈한테두 단단히 오금을 박아놓구요.》

그 말을 들으니 잠시나마 마음이 개운해졌다. 이 시각 리경식에게는 달근의 그런 말 한마디도 천금맞잡이였다. 얼마쯤 걸어가던 경식은 부본부에 들렸다가겠다고 말하고 우달근과 헤여졌다.

또다시 비꽃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막걸리를 풀어놓은것처럼 뿌연 하늘이 육중한 덩어리마냥 머리우를 지겹게 내려누르고있었다. 철버덕거리며 오가는 행인들, 귀따갑게 찌릉대는 자전거들, 광고용 프랑카드를 치마인양 두른채 비말을 튕기며 달려가는 차량들… 포장길에 고인 탁한 물우에서 비오는 거리의 어수선산란한 정경이 뒤집힌 모습으로 비쳐온다.

경식은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머리에 받은 타박의 후유증이 아직 가셔지지 않아서인지 벌써부터 몸이 무거워났다. 하지만 피로에 지친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향악보에 대한 생각이 떠날줄을 몰랐다.

번거로운 상념은 다시금 이찌가와에게로 모아졌다. 니시다에게 찾아가 향악보의 행처를 물었다는 이찌가와, 나까야마(시미즈)의 행방을 알아냈다는 엉뚱한 헛말로 가루베의 이목을 경식에게 쏠리게 했던 이찌가와. 그런데 시미즈로부터 향악보를 거의나 넘겨받게 되였던 이 대목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이찌가와가 또다시 찬물을 끼얹고 나선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호두속과 같이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

었다.

(이찌가와! 이찌가와! 과연 어떤자일가?)

이찌가와에 대해 경식이 아는것이란 《동양음악을 연구하는 아마츄어전문가》라는 정도가 전부라면 전부였다. 거기에 비하면 가루베의 말을 상기해봐도 이찌가와는 이쪽을 손금보듯 꿰뚫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찌가와가 오래전부터 어둠속에 숨어 자기의 일거일동을 주시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때늦은 생각이 경식의 뇌리를 쳤다.

가슴이 써늘해졌다. 어째서 지금껏 가루베를 경계하면서도 이찌가와라는 미지의 인물에 대해서는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던가? 이찌가와에게 향악보를 구입할 능력은 없는것으로 묘사하던 가루베의 소리를 저도 모르게 믿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면 풋낯도 모르는자이니 이쪽에서 하는 일에 대해 무얼 더 알수 있으랴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심해왔던것은 아닌지?… 혹 이찌가와의 그 모든 행동을 가루베가 뒤에서 조종하고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경식은 자신의 실책에 혀라도 깨물고싶은 심정이였다. 그러나 후회나 하고있을 경황이 아니였다. 총련조직과 상론하여 빨리 일을 바로잡아야 했다. 시미즈에게 뻗쳐온 이찌가와의 촉수를 차단하고 한시바삐 민족의 재보를 간상배들의 손에서 되찾아야 했다.

촉급해오는 마음을 그러안고 걷던 경식은 불현듯 자기를 찾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길옆에 있는 어떤 료리점에서 접대부 하나가 쪼르르 달려나와 그에게 이르는것이였다.

《저ㅡ 실례합니다만 리선생님이 아니신지요?》

경식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접대부는 상글거리며 료리점을 가리켜보였다.

《안에서 손님 한분이 기다리고계십니다.》

《나를?》

경식은 의아쩍은 눈길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누굴가? 대뜸 이찌가와거나 가루베가 아닐가 하는 예감이 뇌리를 찌르고들었다. 저들이 아무리 수단을 부린다 해도 우달근과 같은 동포들이 시미즈를 든든히 압박하고있는 조건에서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것이다. 지난밤의 사건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었다. 일단 저들의 기도가 수포로 돌아간것만큼 어차피 한번쯤은 자기와 직접 맞서려들것이 십분 가능한 일이였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잘된셈이였다. 경식은 관자노리의 혈관이 높뛰는것을 느끼며 접대부를 따라 료리점안으로 들어갔다. 종종걸음을 놓으며 어느 한 별실앞에 이른 접대부가 나부시 끓어앉더니 《손님 모셔왔습니다.》 하고 알리면서 소리없이 미닫이문을 열었다.

경식은 그러쥔 주먹처럼 긴장해서 방안에 들어섰다. 다음순간 그는 못박힌듯 그 자리에 굳어져버리고말았다.

두손으로 차잔을 움켜쥔채 식탁앞에 돌미륵마냥 앉아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박상열이 아닌가. 리경식의 입에서 놀라움에 찬 소리가 튀여나왔다.

《아니, 자네가 어찌된건가?》

어안이 벙벙한 속에서도 뭉클 반가운 생각부터 솟구쳤다. 만난지 반년이 넘었지만 이따금 마음속에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며 떠오르군 하던 상열이였다. 언제 봐도 열기가 팔팔 끓던 오달진 그의 모습이 그리웠고 총기어린 작은 눈을 깜빡이며 쉴새없이 쏟아놓던 그의 달변이 그리웠다. 어찌 그뿐이랴. 민족을 부둥켜안고 울고웃으며 고서더미속에 파묻혀 젊음을 태워가는 그의 의기와 뚝심이 문득문득 그리워질 때가 있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이

시각 뜻하지 않게 여기서 박상열을 만나게 될줄이야…

자리에서 일어난 상열이 어설프게 웃으며 다가온다. 경식은 칠칠야밤 심심산속에서 벗을 만난것만 같은 심정이 되여 상열의 손을 와락 다그어잡았다.

《대체 웬 바람이 불어서 여기에 나타났나? 참, 요전날 날 만나러 협회에 찾아왔댔다면서. 하하하…》

여느때없이 연신 벙글거리며 희색을 감추지 못하는 경식에게 박상열은 어딘가 당황해하면서도 애써 반가운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렇게 됐네. 창밖을 내다보느라니 자네가 눈에 뜨이더군. 아무튼 만나니 반갑구만.》

대모테안경을 추스르며 이렇게 얼버무리고난 상열은 서둘러 경식을 식탁으로 이끌었다. 두사람은 식탁앞에 마주앉았다. 잠시 경식의 수척해진 모습을 훑어보던 상열은 이윽해서야 눈길을 떨구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게구만.》

경식이 대답대신 빙그레 웃기만 하는데 이미 주문을 했었는지 접대부가 들어와 안주가 담긴 접시들을 식탁우에 차려놓았다. 상열이 경식에게 물었다.

《날씨도 으쓸한데 우리 배갈이나 하는게 어떤가?》

아닌게 아니라 이런 때 박상열을 마주하고보니 이전처럼 그와 어울려 취하도록 마시고싶은 충동이 리경식의 마음속에서 불끈 솟구쳐올랐다. 경식이 선선히 동의하자 상열은 짐짓 기세를 올리며 접대부에게 배갈을 내오라고 일렀다. 그러는 그에게 경식이 궁금한 물음을 던졌다.

《헌데 오사까엔 온지 오랜가?》

상열은 어름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 며칠 됐네.》

믿음어린 경식의 눈길이 친구를 더듬었다. 문득 박상열이 향악보와 관련해서 급히 만날 일이 있다고 했다던 히사꼬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대관절 무슨 일일가? 무슨 급한 일이기에 여기 오사까에까지 찾아왔을가? 혹시 가루베나 이찌가와의 움직임과 관계되는 소식은 아닐가? 수수께끼의 열쇠를 박상열이 가져왔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온몸이 긴장되여왔다.

어떻든 고마운 친구였다. 겨레의 유산을 되찾는 일이라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뛰여다니는 상열의 모습에 약해졌던 마음이 다 강해지는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찾아 여러날째 헤맸을 친구의 고생을 생각하니 미안한 감정이 뒤따르는것도 어쩔수가 없었다.

접대부가 배갈을 가져왔다. 상열은 경식의 잔에 넘치도록 술을 가득 부으며 말했다.

《자, 골치 아픈 일들은 일단 접어두고 지금은 나와 마시기나 하세. 살다가 보면 가끔 술힘으로 괴로움을 이겨내야 할 그런 때도 있지 않나. 허허…》

진정이 담겨진 그의 말을 들으니 훈훈한 온기가 가슴속에 미쳐왔다. 경식이 그의 손에서 술병을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상열이 거절했다.

《아니, 내 술은 내가 부어 마시겠네. 왜 그런지 오늘은 자네가 부어주는 술을 받을 용기가 나지 않는구만.》

뜻모를 소리로 웅얼거리는 박상열의 얼굴에 자신을 비웃는듯 한 회의적인 미소가 떠돌았다.

그러고보니 어쩐지 이전같지 않은 모습이다. 목소리도 여느때의 그 챙챙하던 어조가 아니였고 금방 튀여오른 고무공처럼 압축된 힘이 넘쳐나던 몸도 왜서인지 지금은 김빠진 공마냥 후줄근해있었다.

(이 친구 오늘은 웬 일인가?)

경식은 별스럽게 의기소침해있는 상열의 모습을 의아스레 살펴보다가 그를 따라 말없이 술잔을 들었다. 한모금을 들이키는 순간 목줄기를 태우는듯 한 독한 술기운이 서서히 사지의 끝까지 퍼져나갔다. 워낙 배갈인데다가 좀전까지만 해도 잔뜩 긴장했던탓인지 인츰 취기가 느껴졌다. 밖에서는 비방울들이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리고있었다.

《향악보는 아직 찾지 못했나?》

한동안이 지난 뒤 상열이 머뭇거리며 물어오는 말이였다. 경식은 기다렸던듯 그간의 사연들을 상열에게 모두 이야기해주었다. 니시다와 가루베를 만나던 일이며 오사까에 와서 시미즈와 상대하던 일들을 거쳐 이찌가와에 대한 소리가 나왔을 때 경식의 어조는 은연중 달아올랐다.

《정말 모를 일이야. 생면부지의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까지 속속들이 알고있는걸가? 실지로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처신이 바르겠는데 뒤골목에서 야꾸자들이나 부추기는걸 보면 분명 뒤가 떳떳치 못한자같네. 어떤가? 자넨 이찌가와라는 이름을 들은적이 있나?》

박상열은 들고있는 술잔을 대번에 비워버렸다. 그리고는 담배 한대를 꺼내물더니 성냥을 득ㅡ 그었다. 불이 잘 달리지 않았다. 탁탁 성냥을 그어대는 그의 손끝에 짜증기가 묻어났다. 성냥개비를 몇개나 분지르고서야 상열은 겨우 담배불을 붙일수가 있었다. 아마도 경식의 말에 어지간히 흥분한것 같았다.

연거퍼 담배만 들이빨던 상열의 입에서 불쑥 이런 말이 튀여나왔다.

《자네 지금 그 이찌가와라는 작자가 두드려패고싶도록 증오스

럽겠구만.》

담배연기속에 휩싸인 그의 동그란 얼굴은 퍼그나 지치고 우울해 보였다. 경식은 묵묵히 술만 들이켰다. 더 말해서 무엇하랴. 이찌가와만 아니였더라면 모름지기 향악보를 손에 넣고도 남았을것이였다. 모든것이 그 유령같은 이찌가와때문이였다. 대관절 어떤자이기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도 여태 얼굴 한번 드러내지 않는걸가?

경식이 식도를 따라 번져가는 열기를 묵새기며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상열은 비여있는 술잔에 다시금 술을 쏟아부었다. 또다시 술잔을 입에 가져가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우뚝 굳어져버린다. 다음 순간 상열은 소리가 나도록 술잔을 식탁우에 내려놓으며 누구에겐지 모를 화를 벌컥 터뜨렸다.

《에익, 졸렬한 같으니!》

해쓱해진 그의 입술이 열병환자마냥 떨리고있었다. 경식은 영문을 알수가 없어 상열의 별스러운 거동을 어리둥절해서 지켜보았다.

상열은 머리를 직수그린채 화끈한 입김만 연방 내뿜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고개를 버쩍 쳐들며 넉두리같은 소리를 쏟아놓는것이였다.

《제길할, 뭘 더 숨기겠나. 자네 이찌가와를 보겠다는거지. 그러이, 지금 자네앞에 앉아있는 놈팽이가 바로 이찌가와네. 자네가 서슬이 퍼래서 찾고있는 그 이찌가와란 말일세!》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경식이 망연한 눈길로 상열을 바라보는데 열에 뜬 그의 목소리가 거듭하여 귀전에 후려쳐왔다.

《내 말을 못 들었나? 야꾸자들까지 부추겨서 자네를 욕보인 이찌가와가 바로 나란 말이야!》

《?》

난데없이 머리에 물벼락을 맞은것만 같았다. 얼굴의 피가 한시에 빠져버린듯 창백하게 질려있던 경식은 그만에야 허거프게 웃고말았다.

《허허… 이보게, 난 지금 롱담을 나눌 경황이 없네.》

상열은 경식의 그런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무룩한 미소를 지었다. 하건만 그 미소는 알지 못할 내심의 아픔으로 인해서인지 이내 이지러지고말았다. 그는 맥없이 중얼댔다.

《하기야 쉽게 믿어지지 않을테지. 그렇지만… 내 말은 진실이네.》

그 어떤 어두운 사연이 방금 쏟아져내릴 소낙구름처럼 엉켜있는 상열의 흐릿한 눈을 알아보는 순간 경식은 저도 모르게 취기가 사라지는것을 느꼈다. 금시 방안이 써늘하게 얼어들었다. 비바람에 창문이 가늘게 삐걱거리는데 얼마후 상열의 침울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내 다 말하지. 자네한테 모든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으니까. 자네에게서 <조선향악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난 뒤 난 어떻게 해서든지 자넬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네. 민족문화재에 쏟아붓는 자네의 진정과 겨레를 위해 정성을 바쳐가는 자네의 의로움에 나 역시 열백번 공감을 느꼈거던. 난 향악보의 행처를 찾기 위해 내나름으로 사방에 수소문을 해보았네. 일본전국은 물론이고 서울에까지 줄을 놓았더랬지. 그러던중 서울의 문교부에 있는 친구한테서 회답편지가 날아왔더구만. 해방전 리왕직아악부에서 향악관계자료를 조사하던 니시다라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권고였네. 그 소식을 읽는 순간 난 막 환성이라도 올리고싶은 심정이였네. 희소식을 받고 기뻐할 자네의 모습이 눈앞에 방불하더란 말일세. 하지만 그런 감정이 일순간에 불과할줄이야. …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가느라니 차츰 마음이 무거워졌네. 그 친구는 뒤이어 쓰기를 그처럼 귀중한 민족의 유산을 어떻게 이북에 넘겨줄수 있는가, 진정으로 민족을 위하겠거든 향악보를 먼저 찾아 서울로 보내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평생 회한에서 벗어나지 못할거라고 일장 열변을 토하지 않았겠나. 바다건너에서 서뿔리 가르치려드는 친구의 훈시가 비위에 거슬리기는 했지만 그 편지는 들떠있던 나의 가슴을 무거운 돌처럼 지지눌렀네. 난 자기가 하려는 일을 두고 깊이 고민해보지 않을수 없었네.

이보게 친구, 난 자네가 지금껏 향악보를 찾기 위해 고심참담한 노력을 해왔다는걸 모르지 않네. 자네의 속되지 않은 뜻과 거짓없는 사람됨에 대해서도 잘 알고있고… 그러나 민족을 생각하는 자네의 마음이 아무리 진국이라 할지라도 종당에 자네가 향악보를 찾아가지고 가야 할 곳은 다름아닌 이북이 아닌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내가 자네를 좋아하는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북의 체제와 리념까지 용납할만 한 용기는 나지 않더구만. 자네를 도와 향악보를 북에 보내는게 정녕 민족을 위한 옳은 일인가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허… 난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고말았네. 그때 내 마음 한쪽에선 자네를 도와야 한다는 의리감이 세차게 꿈틀거렸지만 다른 한쪽에선 인정에 눈이 멀어 대의를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꾸짖음이 호되게 온몸을 채찍질하고있었네.

난 서울에서 온 편지를 곱씹어 읽어보며 번민을 거듭했네. 그러다가 마침내 결심을 내렸네. 내가 직접 향악보를 찾아나서기로 말일세. 결국 니시다에 대한 소식을 자네에게 전해주려던 생각은 포기하고말았지. 일본땅에서 나보다 먼저 향악보를 찾기 시작했고 그에 대해서도 내게 처음으로 이야기해준 자네에겐 참말 못할짓을 하는 심정이더구만.

제발 부탁인데 그 점만은 오해말라구. 난 결코 명성을 탐하거나 견물생심에서 그런 마음을 먹은게 아닐세. 단지 자네에게 원망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민족을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을뿐이네. 물론 자네 역시 나름대로 민족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있다는걸 아네. 그렇지만 어쩌겠나. 자네나 나나 한피줄을 물려받은 동족이건만 선택한 정견과 제도는 엄연히 상극이 아닌가. 아무리 피가 통하는 친구지간일지라도 이데올로기가 다르면 결국엔 갈라설수밖에 없는 분단의 랭혹한 현실이 그때처럼 내 마음을 아프게 후벼파본적은 없었더랬네. 어쨌든 인간이 현실을 초월해서 살수야 없지 않나. 난 달리는 할수가 없었네.》

리경식의 입은 비통하게 꽉 다물려있었다. 그는 텅 빈 시선으로 컴컴하게 죽은 상열의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불현듯 박상열의 모습이 멀고 낯설게 여겨졌다. 이 인간이 이렇듯 우매하고 협애한 소인이였던가. 믿어지지 않는 일이였다. 스스로 자기를 《구다라징》이라고 부르며 왜놈들의 민족차별에 맞서 항거하던 도고한 그 자존심도 그리고 불의를 보면 화약처럼 분노를 터뜨리군 하던 불같은 그 정의감도 《반공》이라는 타성앞에서는 한갖 물거품에 불과한것이였단 말인가. …

얼음같이 차고 휑뎅그렁한 공허가 가슴속으로 허전하게 퍼져갔다. 경식은 쓰려오는 심정을 지그시 누르며 상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난 곧 니시다의 행처를 탐문하기 시작했네. 얼마 안 있어 주소를 알아낸 나는 한달음에 달려가 이찌가와라는 가명으로 니시다를 만났더랬지. 후날에라도 자네와 얼굴뜨겁게 부딪치는게 제일로 두려웠으니까. 하건만 자네도 아다싶이 그에겐 향악보가 없더구만. 첫 걸음부터 헛탕이였지. 그래도 다행히 실머리만은 끊어지지 않았네.

니시다에게서 향악보를 넘겨받은 인물이 나까야마라는 사실을 알아냈거던. 난 눈에 등불을 켜달고 나까야마를 찾아 돌아쳤네. 알만한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부탁을 했구 행여 어디서 비슷한 소리라도 들려오면 만사를 제치고 직접 달려가보군 했네. 지어는 수천리 혹가이도에까지 찾아갔더랬지. 그렇게 극성을 부렸는데도 나까야마의 행방은 좀처럼 알길이 없더구만.

혹시나 그동안에 다른 소식은 없는가 해서 난 니시다를 다시 찾아갔었네. 그런데 니시다의 말이 내가 왔다간 뒤로 두사람이 또 향악보때문에 다녀갔다는게 아닌가. 한사람은 어느 대학 강사이고 또 한사람은 오구라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것이였네. 난 자네가 왔었다는걸 알았네. 그때의 불안하던 심정이란 참… 향악보를 손에 넣기 전엔 절대로 자네가 물러서지 않으리라는걸 난 조금도 의심치 않았네. 아라기의 별장에 다닐 때부터 자네의 끈질긴 성미를 너무도 잘 알고있었으니까. 더군다나 자네뒤엔 조총련이라는 든든한 세력이 있지 않나. 십중팔구 나까야마를 자네가 먼저 찾아낼거라는 예감에 난 안절부절을 못했네.

그렇게 골을 썩이는데 어느날 내앞에 불쑥 대학 강사라는자가 나타나질 않았겠나. 내가 자기보다 한발 앞서 니시다를 만났다는걸 알고 찾아왔다는거였네. 소개를 들어보니 가루베라고 해방전 공주에서 백제고분들을 전문으로 도굴했다는 그자더구만. 자네도 상대해봤으니 잘 알테지만 정말 낯판대기에 철갑을 두른자였네. 어찌된 건지 그자는 나뿐아니라 자네에 대해서랑 그리구 우리가 아라기의 장서를 정리한 사실까지도 이미 알고있더군. 그자가 찾아온 목적인즉 우리가 향악보의 행방을 어느 정도로 추적했는지 타진해보자는 거였네. 가루베 같은자가 향악보를 손에 넣으려구 기승을 부리는 꼴을 보니 어떻게나 밸굽이 요동치던지… 그런 속에서도 위구심은

더욱 커졌네. 자네만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날도적까지 덤벼드는 판국이 되였으니 왜 안 그러겠나.

생각다 못해 난 변통수라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네. 난 가루베에게 실은 나도 향악보에 흥미가 동해서 리경식이란 사람을 얼마간 따라다녔는데 오늘 당신이 나선걸 보니 승부가 명백해졌다, 이후부턴 당신을 은밀히 도울테니 향악보를 입수하거들랑 선참으로 열람이나 할수 있게 해달라고 둘러쳤네. 처음에 그자는 내 말을 넙적 받아물려 하지 않더구만. 아마 내가 자네와 한통속이라고만 여겨왔던 모양이야. 무슨 수를 써서든 가루베의 이목을 따돌려야겠기에 난 그자에게 자네와는 거래과정에 우연히 알게 됐을뿐이라고 루루이 설명했지. 그제서야 그자는 구미가 동했던지 나한테 달라붙기 시작하더군. 난 가루베에게 자네의 형편을 알려주면서 자네가 나까야마의 행방을 알아냈다는 소문도 있으니 한시바삐 직접 만나서 흥정을 해보라고 부추겼네.

물론 자네가 그런자의 흥정에 말려들거라고 생각한건 결코 아닐세. 무엇보다 난 가루베를 통해서라도 자네가 나까야마에게 어느만큼 접근했는지 꼭 알고싶었네. 그런데다가 가루베를 내세워 자네와 그자가 서로 견제하게 하면 나로선 두사람의 주목에서 벗어나기가 쉽고 또 유리한 기회도 먼저 차지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했거던. 이를테면 두 경쟁자가 겨루는 틈에 어부지리를 얻자는 속셈이였다 할가. …

자넨 지금 쳐죽이고싶도록 내가 증오스러울테지.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가루베 같은자까지 꺼들이면서 자넬 따돌릴 생각을 할수 있었는지 나로서도 놀랍기만 하네. 터놓고 말해 그때 내 마음속에서 이여의 감정은 이미 뒤전에 밀려나있었네. 어떻게 하나 자네보다 먼저 향악보를 손에 넣어야 한다는, 민족의 귀중한 자산

을 이북에 뺏겨서는 안된다는 그 한가지 승벽심만이 걷잡을수 없는 행동에로 날 떠밀었지. 그렇네, 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누군가의 말을 수없이 위안삼아 외우면서 날마다 자네와 보이지 않는 결투를 벌렸네. 그리고 그때마다 괴로운 심정으로 자네에게 용서를 빌었구.》

갑자기 창문에서 시퍼런 번개불이 날았다. 창유리에 뿌려진 비방울들이 서슬푸른 빛의 파편들인양 작렬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하늘을 뒤마는듯 한 우뢰소리가 구울러온다.

경식의 심장은 살에 맞은 새처럼 푸들거리고있었다. 욕지기마냥 치미는 쓰디쓴 배신감을 씻어버리고싶어 그는 힘겹게 술잔을 비웠다. 상열은 금시라도 폭발할듯싶은 경식의 모습을 불안스러운 눈길로 지켜보다가 마른침을 모아 삼키고나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후 일은 내가 생각한대로 비슷하니 번져가더구만. 자네에게 면박을 당하고 온 뒤 가루베는 지독스런 앙심을 품고 달려들었네. 어찌나 기승스러운지 마치 향악보가 아니라 자기를 모욕한 조선사람한테 분풀이를 하는게 목적인것 같더라니까. 그자는 향악보를 찾느라 눈이 시뻘개서 싸돌아쳤네. 그러면서 날더런 후하게 사례할테니 자네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말구 살펴서 알려달라더구만. 자네에게서 향악보와 관련한 사소한 기미라도 포착되면 선손을 쓰겠다는 심산이였지. 물론 난 쾌히 응했네. 가루베의 경계밖에서 그자의 움직임을 어렵지 않게 장악할수 있었으니까. 역시 제일 근심스러운건 자네였네. 난 나까야마의 행방을 내나름으로 계속 추적하면서 자넬 주시했네. 거래하고있던 동업자들까지 끌어들여서 말일세.

그러고있는데 얼마전에 한 동료한테서 소식이 날아오질 않았겠나. 급작스레 자네가 만사를 제쳐놓구 역전으로 뛰여갔다는거였네. 대뜸 나까야마의 행처를 알아냈을거라는 직감이 머리를 후려쳤네. 한

발 뒤졌다는 생각에 눈앞이 새까매지더군. 앞뒤를 잴 사이가 없었네. 혹여나 실낱같은 단서라도 잡히지 않을가 해서 난 무작정 자네의 그 협회로 달려갔더랬지. 거기서 난 한 처녀를 만났네. 히사꼬라고 했던가. … 헌데 내가 자기소개를 하니 뜻밖에도 처녀가 반색을 하는게 아니겠나. 자네한테서 박상열이라는 친구얘길 들었다는것이였네. 그 순간의 심정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꼭 못할짓을 하다가 들킨것처럼 식은땀이 났지만 별수가 없었네. 난 처녀에게 향악보일로 자네와 급히 만날 일이 있어 왔다고 말했지. 거짓으로 대하기엔 낯이 뜨거울만치 순진한 처녀더군. 날 자네처럼 믿었던지 처녀는 선뜻 내게 모든걸 알려주었네. 처녀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난 나까야마가 시미즈로 성을 바꾸고 오사까에서 산다는것과 자네가 오사까로 달려갔다는걸 비로소 알게 됐네. 위기가 기회라더니 곤경속에서 그런 행운을 만날줄이야… 히사꼬라는 그 처녀에겐 언제건 꼭 사과할 생각이네만…》

상열은 말끝을 흐트러뜨리고말았다. 경식의 얼굴에 서려도는 쓰거운 환멸의 빛을 알아보았던것이다. 하기야 천진스러운 처녀를 기만하면서까지 벗을 유린한 위선에 누군들 혐오를 느끼지 않으랴. 얼마후 박상열은 처져내리는 어깨죽지를 애써 살구며 다시 입을 열었다.

《협회를 나서자바람으로 난 오사까에 있는 동업자 한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네. 그는 나와 한고향내기인데다 워낙 거래관계가 깊어놔서 믿을만 한 친구였지. 더구나 몇달전 우리 집에 들렸다가 자네와 내가 고마무라에서 찍은 사진까지 보았던지라 자네의 얼굴도 알고있었거던. 난 그에게 자네가 오사까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는지 살펴봐달라고 부탁했네. 그리고는 부리나케 자네의 뒤를 쫓아갔지. 물론 가루베한테 그 모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건 더

말할 필요가 없구…

오사까로 가는 도중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하더구만. 혹 한발 앞서간 자네가 향악보를 먼저 손에 넣을지도 모른다는 위구때문이였네. 그러나 난 길고짧은건 대봐야 한다고 자신을 격려했네. 가루베의 말마따나 향악보의 가치로 봐서 쉽사리 흥정이 이루어지긴 힘들거라고 믿고있었으니까.

난 오사까에 당도하자마자 고향친구부터 만났네. 그 친구가 무던히 애를 썼더랬지. 그를 통해 난 자네가 몇시간전에 <다마무시주점>이라는 술집에 들렸댔다는것과 술집주인의 성이 시미즈라는걸 알았네. 여태껏 찾던 나까야마가 바로 <다마무시주점>의 그 시미즈라는걸 난 조금도 의심치 않았네. 드디여 목표를 확정했다는 생각에 속이 울렁거리더구만. 난 초조한 마음을 부여안구 시미즈를 찾아갔네. 내가 <다마무시주점>에 이르니 그자는 금시 어디론가 떠나려는 참이더구만. 난 시미즈를 붙들어 앉히고 단도직입으로 들이댔네. <조선향악보>를 나한테 넘기라고 말일세. 그자는 덴겁을 해서 나자빠지더군. 이미 5만엔을 받고 넘겨주기로 자네와 약조가 돼있다는것이였네. 허나 그쯤은 이미 각오하고 들어갔던지라 난 일도량단하고 그 자리에서 10만엔을 불렀네. 그러자 시미즈의 눈이 화등잔만 해지는게 아니겠나. 하긴 뭔지 모를 옛날 물건때문에 하루사이에 두사람씩이나 뛰여들었으니 무식한 그자로서야 대경실색할 수밖에. 어리뻥뻥해있던 시미즈의 얼굴에 차츰 묘한 미소가 떠올랐네. 그자는 약아빠진 눈길로 나를 훑어보다가 마침내 다음날 저녁녘에 와보라고 귀띔하더구만. 자네한테 이렇게 말하긴 뭣하네만 그 순간 난 속으로 장훈을 불렀네. 바라는게 너무도 빨리 이루어지는것 같아 선뜻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였지. 헌데 그날 밤은 왜 그리도 마음이 뒤숭숭하던지…

막상 향악보를 손에 넣는다고 생각하니 그때껏 가슴속 밑바닥에 눌려있던 자네에 대한 죄의식이 무섭게 머리를 쳐드는것을 어쩔 수가 없었네. 이북에 갈번 했던 문화재를 빼내서 서울로 보낸다면 거기선 날 애국자라고 추어주겠지. 하지만 자네한테 난 비렬한 배신자임이 틀림없었네. 너무도 가혹하게 자넬 우롱했다는 자책감에 속이 떨려왔네. 그래도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네. 민족앞에 지닌 대의명분을 다하고 국민된 본분을 지키자니 싫든좋든 감수해야 할 숙명이라 할수밖에. 난 온밤 자신과 끝없이 싸웠네.

이튿날 저녁무렵이 되자 난 시미즈를 찾아갔네. 그런데 그자의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나올줄이야… 자네가 향악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20만엔을 지불하겠다고 했다는것이였네. 눈앞이 아찔했네. 사실 고서점이나 운영하는 내 형편에서 20만엔이라는 돈은 어지간히 힘에 부치는 액수였거던. 그렇지만 물러앉고싶지는 않았네. 난 시미즈에게 그렇다면 30만엔을 내겠노라고 큰소리를 쳤네. 졸지에 그 많은 돈을 마련할 뾰족한 방책이 있었던건 아닐세. 단지 젖먹은 힘까지 다 내서라도 자네를 앞서야만 한다는 무분별한 승부심 때문이였지. 시미즈는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구만. 난 그자에게 수일내로 돈을 가져올테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도꾜로 돌아왔네. 말은 그렇게 쉽게 뱉았지만 정작 그 많은 돈을 갑자기 취한다는게 어디 쉬운 일인가. 땀으로 미역을 감으면서 허둥지둥 돌아치던 난 사흘만에야 겨우 고서점을 담보로 삼고 돈을 얻을수가 있었네.》

경식은 무언가 목에 걸린듯 하여 질식할것만 같았다. 당장에 고함이라도 치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허거픈 웃음이라도 터뜨려야 속이 후련할상싶었다. 우롱당한것은 자기만이 아니였다. 상열이 역시 시미즈의 잔꾀에 넘어가 바보노릇을 하지 않았는가. 우달근의 환심

을 사보려고 그리도 안달아하던 시미즈가 어째서 돌연 배부른 흥정을 걸어올수 있었는지 경식은 그제서야 확연히 깨달을수 있었다.

실로 기막힌 일이였다. 벼락처럼 터져나오는 울분을 간신히 눌러삼키느라 경식은 머리를 지르숙인채 어금이를 꽉 깨물었다. 그러는 그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열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내가 돈을 구해가지고 시미즈앞에 다시 나타난건 어제 아침이였네. 난 보란듯이 그자앞에 30만엔을 내놓았네. 그랬더니만 글쎄 그자가 한다는 소리가 허 참… 자네쪽과 아직 흥정이 끝나지 않았으니 좀더 기다려보라는게 아닌가. 결국은 값을 더 올리겠다는 암시였네. 난 그만 밸이 불끈 치밀어서 한바탕 그자에게 욕설을 퍼부었구만. 그러자 그자는 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제편에서 목을 빼들고 나오는것이였네. 그때에야 비로소 난 자네와 나사이에 경쟁을 부채질해서 한껏 폭리를 얻으려는 시미즈의 간계를 알아차렸네. 그야말로 <나의 살점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추리라.>는 사무라이속담 그대로인셈이지. 그자의 얄미운 꼴에 복통이 터져와 죽을 지경이였지만 더이상 어쩔 도리가 없더구만. 난 시미즈에게 다시 오겠다는 맥빠진 소리를 남긴채 일단 자리를 뜨고말았네.

빈손으로 되돌아오자니 어찌나 발길이 무겁던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불리해지리라는건 불보듯 뻔한 일이였네. 다행히 그때까진 자네가 가루베에게만 신경을 쓰고 이찌가와라는 인물에 대해선 관심밖이였기에 무난히 일을 벌려올수 있었지. 하지만 그런 상태가 줄곧 지속될수야 없지 않은가. 또 가루베도 언제 낌새를 채고 덤벼들는지 모르는 일이고. 그럴바엔 차라리 자네를 찾아가 흉금을 터놓는게 어떨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네만 이내 난 머리를 흔들고말았네. 너무도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던. 속이 타들었네. 난 속수무책으로 멍해있는 자신에게 갖은 욕을 다 퍼부

으면서 오사까의 거리를 향방없이 헤매다녔네.

그러던 난 어느 골목길에서 낯익은 한 동포와 맞다들렸네. 시내에서 유술구락부를 경영한다는 권회장이라고 언젠가 친구의 집에 들렸다가 면식을 익힌 사람이였네. 처음 대면했을 때 어딘가 우직하다는 인상을 받았었는데 그처럼 괴롭던 시각엔 이역의 길가에서 느닷없이 만난 구면동포가 왜 그다지도 반가웁던지… 이 오사까에 친지들이 없는것도 아니였지만 난 마치 무인도에서 혈육을 만난것만 같은 심정이 돼서 그에게 답답한 사연을 하소연했네. 권회장은 내 말을 듣더니만 대번에 성난 황소 영각하듯 기염을 토하더구만. 그런 보물을 두눈이 시퍼래가지고 이북사람들에게 뺏긴다는게 대관절 말이나 되느냐는걸세. 권회장이 <민단>관계일로 남쪽에도 자주 드나든다는 말을 들었더랬는데 그래서인지 이북에 대한 그의 배타심은 여간 격렬해보이지 않았네. 어떻든 나로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것 같아 반갑기 그지없었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난 권회장에게 무슨 용빼는 수가 없겠느냐고 매달렸더랬지. 권회장은 있는 힘을 다해 날 돕겠노라고 다짐을 곱씹는것이였네. 그러는 그가 어찌나 고맙던지… 난 권회장에게 내가 머물러있는 숙소를 알려주고 그와 헤여졌네.

헌데 오늘 아침에 권회장이 날 찾아왔더구만. 범잡은 포수마냥 의기양양해서 그가 하는 소리가 간밤에 시미즈를 만나 단단히 오금을 박아놓았다는걸세. 게다가 글쎄… 야꾸자패거리를 시켜 <다마무시주점>에 찾아갔던 자네한테까지 손을 봤다는게 아니겠나. …》

상열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해쓱하니 질린 그의 얼굴에 경련의 파도가 여울처럼 일었다.

《순간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네. 마른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해도 그렇게까지 놀라진 않았을거네. 난 그만에야 속이 한줌만해

서 자네가 어떻게 됐느냐고 다그어댔네. 그랬더니 권회장은 지금쯤 자네가 얼혼이 빠져서 병원에 누워있을거라고, 이 틈을 타서 기어코 향악보를 손에 넣어야 한다고 침을 튕기면서 력설하지 않겠나. 너무도 억이 질려 말이 나오질 않았네. … 내가 자네에게 도의를 지키지 못한건 사실이네. 그렇지만 향악보를 차지하고싶은 생각이 아무리 지독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자넨 아무튼 친구였고 동족이였네. 난 왜놈들의 손을 빌어 동족에게 테로를 가하면서까지 욕심을 채우는 비렬한은 아니란 말일세! 저도 모르게 난 권회장에게 그건 졸렬한짓이라고 고함을 질렀네. 그러자 그 사람은 붉으락푸르락하면서 되려 날 시까스르더구만. 반공의식이 그렇게 어정쩡하니까 여직껏 조총련계사람의 뒤꽁무니나 쫓고있다나. 이북과의 대결에서 이기자면 동족관념따윈 일찌감치 쥐버려야 한다는것이였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더 할수 있었겠나. 권회장의 머리속엔 온통 서리찬 반공구호들만 들어차있는것 같았네. 반공을 위해서라면 동족을 물어뜯어도 무방하다는 무지하게 단순한 그 론리앞에 난 등골이 서늘해지는걸 어쩔수가 없었네.

난 마음속으로 미친듯이 부르짖었네. 그건 내가 한짓이 아니라고 말일세! 하건만 다른 일들에 대해선 죄다 변명을 한다 해도 이 일만은 도저히 변명할 도리가 없더구만. 비록 내가 모르게 저질러진 짓이라 해도 권회장 같은 사람에게 그런 빌미를 준건 결국 나였으니까. 그렇네, 자네에게 그런짓을 한건 권회장이 아니라 바로 나였네. 나야말로 자네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놈이란 말일세!》

상열은 주먹을 부르쥐고 자기의 가슴팍을 쾅쾅 두들겼다. 자신을 모질게 학대하려는 욕구가 그의 마음속에서 미친듯이 날뛰고있는것 같았다.

《난 허둥지둥 자네를 찾아나섰네. 자네에게 용서라도 빌지 않

으면 평생 머리를 쳐들고 살것 같지 못했네. 오전내껏 여기저기를 헤매다니다가 점심무렵에야 겨우 자네가 들었던 병원을 찾았네. 헌데 자넨 거기 없더구만. 맥이 풀려 되돌아나오는데 웬 사람이 다가와 무슨 일로 자넬 찾는가고 묻지 않겠나. 알고보니 자네때문에 병원에 왔던 조총련간부였네. 보건대 이 일을 잘 알고있는 사람 같아서 난 그에게 향악보때문에 찾아왔다고, 자네에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 아무쪼록 좀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네. 그 사람은 한참동안 날 유심히 살펴보더니만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자네가 간 곳을 대주는것이였네. 그렇게 돼서 이리로 와 자넬 기다리고있던 참이였네. …

부탁이네. 이 자리에서 속이 후련하게 내 면상이라도 후려갈기라구. 설사 자네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해도 난 할 말이 없는 놈일세. 그렇지만 여보게, 이것만은 믿어주게. 난 결코 권회장 같은자는 아니네. 아무리 내가 이북에 동조하지 않는다 해도 제 동족의 뒤잔등에 칼을 박으면서까지 반공을 부르짖는 미치광이는 아니란 말이야!》

숨도 돌리지 않은채 이런 말을 뱉아버리고난 상열은 짜증스럽게 독한 술을 꿀꺽꿀꺽 들이켰다.

창대같은 비발이 유리창에 어룽어룽 파도무늬를 그리며 좔좔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암울하게 흐려진 경식의 눈길이 창밖에 붙박혀 움직일줄을 모른다. 이 시각 그에게 들려오는것은 을씨년스러운 비소리도, 위협하듯 울부짖는 우뢰소리며 바람소리도 아니였다. 다만 울분에 찬 심장의 박동소리만이, 혈관을 찢어던질듯 온몸의 피가 아프도록 맥박치는 소리만이 귀전을 사납게 두드려대고있을뿐이였다.

쓰디쓴 고배였다. 동족간의 대결이 낳은 쓰라린 비극이였다. 차라

리 가루베 같은자에게 당한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통분하지는 않았을것이다. 여태껏 그림자처럼 맴돌면서 향악보를 찾는 일에 음으로 양으로 헤살을 놓은 장본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박상열이라는 억에 받치는 사실앞에서 경식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지는것만 같았다.

《지금 내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박상열이 아니라 정말로 이찌가 와였다면 이렇게까지 분하진 않을거네.》

리경식의 입에서 신음소리마냥 새여나온 소리였다.

박상열은 고개를 짓숙인채 묵묵히 안주를 씹고있었다. 울근불근 씰룩거리는 그의 볼편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돋쳐있었다. 또다시 상열이 술병을 거머잡았다. 괴로운듯 낯을 찡그리며 두사람의 잔에 술을 붓고난 그는 자기의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키더니 다시금 빈 잔에 술을 붓는것이였다. 마치 술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번열을 쏟아붓는것 같았다. 잔에서 넘쳐난 술이 식탁우에 어지러이 번져흘렀다. 얼마후 변명하듯 중얼거리는 소리가 상열의 입에서 힘겹게 흘러나왔다.

《자네 심정을 리해하네. 나 같은 놈과 마주하고있기가 무척 고통스러울테지. 옳네, 난 우정을 배신한 놈일세. 허나… 허나 민족을 배신하진 않았네. 자네앞에선 내가 낯뜨거운 죄인임이 분명하네만 민족앞에선 떳떳하단 말일세!… 여보게, 간밤의 일에 대해선 자네한테 무슨 말로 죄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네. 하지만 지금껏 자넬 속여야만 했던 일들을 두고 말한다면 나로선 정말 어쩔수 없는 선택이였네. 숨김없이 말하건대 두번다시 이런 일에 맞다들린다 해도 난 민족을 위해서라면 같은 선택을 할거네. 굳이 내가 치욕감을 무릅쓰구 자넬 만나러 온것도 실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네에게 내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마음이 좀 편안할것 같더구만. 달리는 말하지 못하는 날 용서하라

구. 나 역시 괴롭네. 이렇게 자네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슬프기 그지없단 말일세!》

창유리에 얼비치는 번개불의 백광이 상열의 안경알에 부딪쳐 세차게 펀뜩거렸다.

경식은 시꺼멓게 질린 얼굴을 돌려 상열을 바라보았다. 아연함과 경악, 울분과 고통으로 뒤엉킨 격렬한 빛이 리경식의 우묵한 두눈에서 거세게 튀여나왔다. 무지와 편견이 이렇게까지 인간을 눈뜬 소경으로 만들수 있단 말인가. 숨막히는 압박감에 심장이 터져나갈것만 같았다. 거칠어지는 숨결을 가까스로 고루며 경식은 상열에게 대고 거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뭐 민족앞에 떳떳하다구? 자네 말끝마다 민족을 운운하는데 자기와 정견이 다르다 해서 동족을 멀리하고 반목하는것도 민족을 위해서라는건가? 그렇게 해서 얻어진게 대체 뭔가? 동족사이에 원한만 불거지고 시미즈 같은자에게 어부지리를 준것밖에 뭐가 더 있는가 말일세. 그러고도 민족앞에 떳떳하다구? 민족공동의 리익이 왜놈간상배들에게 롱락당하는것도 가려보지 못하는 자네가, 타성에 포로돼서 제 동족부터 따돌리려드는 자네가 그런 소리를 입에 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자네의 그 바보스러움에 몸서리가 쳐지네. 동족대결에 환장한자들한테 속아 청맹과니노릇을 하는 자네가 불쌍하기 짝이 없단 말이네!》

박상열의 목언저리에 퍼런 동맥이 무섭게 드러났다. 얼어붙은듯 굳어져버린 그의 온몸은 깨지기 쉬운 질동이마냥 잘못 건드리면 단박에 산산쪼각이 나버릴것만 같았다. 치미는 부아를 삭이기 힘든지 상열이 또 술을 들이킨다. 그러던 그는 배갈을 입에 머금은채 음울하게 웃었다. 뻘겋게 달아오른 그의 되박이마에 간신히 억누르고있는 고집과 승벽심이 내비치고있었다.

《흠, 내가 불쌍한 청맹과니라…》

상열은 침울한 야유조로 이렇게 중얼대더니 이윽고 심술궂은 미소를 띠우며 뒤를 잇는것이였다.

《속단이 너무 지나친것 같구만. 하긴 성급했던 나머지 내가 바보처럼 시미즈에게 얼리운건 사실이네. 또 자네에게 화를 끼친것도 사실이구. 그렇긴 해도 난 덮어놓고 남의 장단에 춤추는 얼뜨기는 아닐세. 내게도 내나름의 주견이 있어. 구태여 이 자리에서 자네와 언쟁할 생각은 없었네만 이왕 소리가 나왔으니 내 성깔에 숨김없이 터놓겠네. 여보게, 난 겨레에게 바치는 자네의 충정이 헛되이 되는게 두렵네. 물론 이북도 내 민족이 살고있는 땅인건 분명하지. 하건만 그곳엔 민족보다 계급을 더 우에 놓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겨레의 유산이나 전통보다 혁명이니, 투쟁이니, 청산이니 하는 말들을 더 즐겨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향악보를 가져다 바치는게 정말로 민족을 위한거라고 생각하나? 아니, 눈이 먼건 내가 아니라 자넬세. 민족을 위한다면서 민족의 귀한 재부를 서슴없이 평양으로 가져가려는 자네야말로 경솔한 청맹과니가 아니고 뭔가?!》

《닥치라구!》

경식이 노성을 터치며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났다. 상열을 노려보는 그의 두눈이 격노로 이글거렸다. 경식은 흉벽을 치받으며 솟구치는 폭풍같은 힘을 걷잡을수가 없어 상열을 향해 불을 뿜듯 웨쳤다.

《쥐뿔두 모르면서 감히 우리 공화국을 삿대질해! 똑똑히 말해주지. 내가 공화국을 조국으로 받들게 된 리유를 설명하는데 긴말이 필요없네. 그건 바로 왜놈들을 쳐무찌르고 민족을 해방시켜주신 절세의 애국자가 세우고 이끄시는 나라가 우리 공화국이기때문

일세. 겨레의 진정한 어버이품이 그곳에 있기때문이란 말이야! 헌데 이남땅은 어떤가? 외세가 주인행세를 하구 민족을 반역한 친일파들이 살판치고있는 꼴을 자넨 보지 못하나? 거기에 무슨 민족의 얼이 살아있고 희망이 있다는건가? 억이 막히는노릇일세. 그런 곳을 조국이라고 믿고 의지하려는 자네가 서글프기 그지없네.》

《뭣이?》

튀여난 용수철마냥 부르르 떨며 상열이도 벌떡 몸을 일으켰다. 수치와 곤욕을 견디기 어려운듯 그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이지러져있었다. 벼락불빛이 번쩍했다. 비수같은 섬광이 금시 멱살이라도 잡아쥘것처럼 마주 노려보는 두 사나이의 모습을 처절하니 비쳐주었다. 온 하늘이 통채로 무너져내리는듯 무시무시한 굉음이 메아리친다.

《으음— 결국 우리사이의 인연은 여기까지가 끝인가보군.》

한참만에야 상열이 모지름을 쓰며 내뱉는 말이였다. 차디차게 울리는 그 말은 그대로 서리발같이 랭혹한 결별의 선언이였다. 상열은 후들거리는 손으로 안경을 치켜올리며 고집스럽게 덧붙였다.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네. 허나 명심하라구. 난 향악보만은 절대로 포기할수가 없어! 왜냐구? 자네와 기어코 엇서자고 해서가 아닐세. 자네에겐 자네의 길이 있듯이 내게도 내 길이 있기때문이네. 누가 진정 겨레를 위하는 참다운 길을 걸었는가 하는건 후세들이 심판해줄걸세!》

관자노리가 뻐근하도록 아파났다. 리경식은 가슴속에서 타번지는 분노의 불길을 그러모아 상열에게 채찍을 내리치듯 부르짖었다.

《부디 겨레앞에 죄인이 되지 말길 바라네!》

시뻘겋게 충혈진 상열의 두눈이 독을 발산하며 불꽃을 튕기였다. 상열은 험악한 기세로 숨을 다그어쉬다가 사납게 미닫이문을 열어제치고 나가버렸다.

갑자기 피로와 두통이 덮쳐들었다. 짓타는 눈길로 상열이 나간 쪽을 바라보던 경식은 잠시후 허청거리는 다리를 끌고 료리점을 나섰다.

밖에서는 비가 한창 내려붓고있었다. 얼음쪼각처럼 차거운 비줄기들이 사정없이 뺨을 갈겨댔다. 경식의 온몸은 삽시에 흠뻑 젖어버렸다. 비단 몸만 젖은것이 아니였다. 억수로 쏟아져내리는 찬비에 가슴속까지 온통 젖어드는것만 같았다. 저 멀리 비발속으로 데굴데굴 구르듯이 멀어져가는 박상열의 모습이 보였다. 왜서인지 무작정 울고만싶어졌다. 경식은 저도 모르게 흐느껴우는 심장을 그러안고 이역의 비오는 거리를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다.

제 3 장

1. 《바나나족》

《선주후면이라구 자, 쭈욱 냅시다.》

문성민의 앞에서 량볼이 두둑하고 걸걸해보이는 북쪽기자가 남쪽기자에게 술을 권하고있었다. 남쪽기자가 두손을 내흔들며 바빠나 한다.

《아유, 이거 감홍로군요. 난 이렇게 센 술은 자신없는걸요. …》

길다란 목에 귀도 어깨에 드리울만큼 길다란 부처님의 귀를 가진 그 남쪽기자는 술에는 퍽 약골인것 같았다. 성민의 곁에 앉아있던 박인규가 잘 아는 사이인듯 시물시물 웃으며 그에게 말을 건넸다.

《이봐요 손기자, 평양에 왔다가 감홍로맛도 못 보고 가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고 쭈욱 내봐요. 거 옛날 어느 현자가 그랬다던가요. 술 석잔이면 큰 도에 통하고 한말이면 자연과 어우러진다고.》

박인규까지 그럴듯하게 합세하는 바람에 남쪽기자는 그만에야 울상이 돼버렸다.

《아이구, 이거 박형까지 왜 이러십니까. 큰 도는커녕 저라는게 워낙 두세번을 오바이트하면서 마셔야 겨우 사람과 통할가말가 하다는걸 박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술잔을 나누었다.

훈훈한 즐거움이 식탁 한가득 번져흘렀다. 비단 그들의 식탁뿐이 아니였다. 토론회를 마치고 대동강반의 옥류관에서 점심을 함께 하는 북남학자들모두의 얼굴마다에 모처럼 한솥밥을 나누게 된 식솔들인양 봄의 훈기와도 같은 웃음과 화기가 떠돌고있었다.

감색비로도를 휘감은 애틋한 접대원처녀가 대리석두리기둥을 감돌아 나타나더니 술을 못한다는 남쪽기자에게부터 쟁반국수를 날라왔다. 그러자 방금전까지 우는소리를 하던 남쪽기자는 언제냐싶게 바싹 다가앉아 량손에 쟁반을 받쳐들고 육수부터 훌쩍훌쩍 들이키는것이였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탄성이 튀여나왔다.

《어ㅡ 시원하다! 거 듣던바대로 평양랭면은 육수맛이 일품입니다! …》

감심어린 빛을 감추지 못하는 그에게 곁의 사람들이 싱글벙글하며 말깃을 달았다.

《하하하… 역시 조선사람치고 국수 싫어하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니까요.》

《아무렴, 한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입맛인데 갈데 있을라구요. …》

무엇인가 찌르르한것이 바람을 만난 봄불마냥 성민의 가슴에 퍼져왔다. 절로 피가 설레이는것을 느끼며 그도 한마디 끼여들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퍼그나 많은 종류의 문화가 있기마련이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생명력이 끈질긴게 아마 음식문화인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음식문화야말로 모든게 다 변한다 해도 쉬이 변하기 힘든 인간의 바탕문화라고 할가요.》

《지당한 표현입니다.》

그 말에 흥분한듯 박인규가 운을 다는 소리였다. 그는 들고있던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나서 재빨리 이야기에 뛰여들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김치나 된장찌개생각이 간절해지는것도 왜 그렇겠습니까. 마치 너나없이 대뜸 애국자라도 된듯이 말입니다. 하하… 다들 아시는것처럼 김치라는게 삭혀 먹는 음식이 아닙니까. 김치를 포함해서 우리 민족의 3대음식으로 꼽군 하는 장과 젓갈도 다 삭혀 먹는 음식이지요. 이 세가지에 공통적인 맛이 뭐냐면 다름아닌 익은 맛, 삭은 맛이라 해야 할겁니다. 바로 이 익은 맛, 삭은 맛이야말로 우리 민족만이 창조하고 향유해온 독특한 미각이라 할수 있지요. 외국에 가서 바로 그 이튿날부터 김치맛이 그리워지는것도 우리가 어머니의 배속에서부터 맛들여온 익은 맛, 삭은 맛이 그 나라의 음식들에는 없어서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국이라도 몇끼를 연거퍼 먹으면 물리기 십상이지만 김치나 된장국은 평생을 먹어도 물린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바로 김치맛이나 장맛이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우리의 피와 살속에 유전인자처럼 깊게 슴배여있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흥이 오른 박인규의 달변에 북쪽기자도 성수가 나서 한몫 끼웠다.

《옳습니다. 그런 실례를 들자면 재미난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름지기 국에다 밥을 말아먹는 민족은 세계에서 유독 우리 민족 하나뿐일겁니다. 서양에 수프가 있고 일본에 미소시루(된장국)가 있어도 거기다 빵이나 밥을 말아먹는다는 소릴 들으신적들이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민족은 국을 좋아한다는 의미겠습니다. 저부터도 밥상우에 국그릇이 없으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걸요. 또 거기다가 뭐든지 많이 넣고 오래 끓이면 탕이라고 하지요. 탕을 꼽아보아도 그 종류가 오죽이나 많습니까. 추어탕, 잉어탕, 메기탕, 설렁탕, 두부탕, 족탕… 하여튼 어떤 식품이든 우리 민족에겐 국거리가 되지 않는게 없는것 같다니까요. 한번은 제가 어느 유럽

기자랑 함께 설렁탕을 먹은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탕국을 맛보더니만 눈이 퀭해지는게 아닙니까. 하하하… 하긴 그 사람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내버리는 뼈를 가지고도 우린 고기국 못지 않은 훌륭한 국이나 탕을 만들어 먹으니 놀랄수밖에요. 소뼈는 설렁탕을 해먹고 돼지뼈는 감자탕을 해먹지요. 고기가 주식이라는 서양인들도 그 맛을 한번 보고는 자기네보다 한수 우라면서 혀를 내두르더라니까요.》

《하하하…》

좌석에 흐드러져퍼지는 웃음소리를 타고 남쪽기자가 들썩거리며 맞장단을 친다.

《그 말을 들으니까 불쑥 떠오르네요. 어느 글에선가 우리 민족을 가리켜 그러지 않았습니까. <탕민족>이라고요. 하하하… 어떻습니까, <탕민족>! 제법 익살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북쪽기자의 입담에 어지간히 흥알이 풀어졌는지 유난히 긴 남쪽기자의 귀바퀴마저 신바람이 나서 우쭐우쭐하는것만 같았다. 그 모습을 보며 문성민도 웃고 박인규도 웃고 모두가 웃었다.

웃음소리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충주에서 왔다는 남쪽학자가 이야기를 이었다.

《헌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음식이든 외모든 제건 덮어놓구 촌스럽다 하니 돌부처라도 웃을노릇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화인의 첫번째 표징으로 내드는게 뭔가 하면 서양흉내를 얼마나 더 방불히 내는가 하는겁니다. 매개 민족의 문화라는게 다 나름대로의 유래와 타당성이 있는 법인데 자기를 서양식으루 바꾼다면서 죽을둥살둥 모르구 헤덤비는 못난 사람들을 보면 참…》

《그래서 <바나나족>이라는 말까지 생겨난게 아닙니까.》

어느새 국수 한그릇을 다 비우고 접대원이 가져다주는 덧국수

그릇을 푸접좋게 끌어당기던 남쪽기자가 기꺼이 동감이라는듯 또 말참네를 했다.

《북에서야 처음 듣는 말일테지요. 껍질은 노랗지만 속은 허연 바나나처럼 덮어놓고 서양인흉내를 내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을 남쪽에선 그렇게 부른답니다. 먼데서 찾을것 없이 우리 집에도 그런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요전에 집에 들어가니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 아들녀석이 어느 인기가수가 부르던 노래가락을 흥얼거리는데 글쎄 <싸랑하는 끄대와 므안나미연 오엔즈이 모르게 씨올레는 가씀…> 허, 이러더란 말입니다.》

폭소가 터졌다. 제 아들의 꼴을 방불하게 흉내내는 아버지의 너스레도 우스웠거니와 모국어발음마저 영어처럼 들리게 하려 애쓰는 아이들의 들뜬 도섭이 더욱 사람들을 웃기였던것이다. 그러거나말거나 잇달으는 남쪽기자의 말이 또 걸작이다.

《하기야 인기가수라면 오줌누는 모양까지 본따지 못해 고민하는 요즘애들인지라 이상할것도 없지요. 그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난 아들녀석에게 내게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던 시절이 있었다만 그때 너희네처럼 <오엔즈이 모르게 씨올레는 가씀>을 느껴본적은 없는것 같다고 한마디 일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석 한다는 소리가 허허… 참, 세계화시대에 아버지처럼 편협하고 옹졸해서야 되겠느냐고 점잖게 꾸지람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아졌다. 그러는데 웃을 일이 아니라는듯 박인규가 서글픈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희극이라 해야 할지 비극이라 해야 할지… 신문이나 방송들이 온통 외래어로 매닥질되고있는것도 모자라 일반대중가요에까지 뻐젓이 영어가 삽입되는 형편이니 구태여 아이들을 탓할것도 못되지요. 탐욕스럽기 그지없는 문화제국주의의 침략앞에 인제 와서는 우

리의 모국어마저도 여지없이 희롱당하고있습니다. 민족어라는게 뭐겠습니까. 그 민족의 령혼을 담는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럴진대 <라이스>가 <밥>을 비웃고 <와이프>가 <안해>를 몰아내는 풍토에서 무슨 민족의 장래를 운운할나위나 있겠습니까. …》

박인규의 볼멘소리가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발을 거두어갔다. 그러는 사이에 술잔들이 비고 접대원들이 국수를 날라오는통에 분위기는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하지만 국수를 들고있는 동안에도 남쪽사람들이 하던 말은 문성민의 뇌리에서 떠날줄을 몰랐다.

문득 아프리카의 흑인녀성들속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던 피부표백이 떠올랐다. 흰 살결을 좋아하는 흑인남성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적지 않은 흑인녀성들이 신체에 몹시 해롭다는 의사들의 경고도 마다하고 그리고 《검은것이 아름답다.》고 수없이 웨쳐대는 흑인해방운동가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앞을 다투어 피부표백에 나섰다고 한다. 무엇이 흑인들로 하여금 자기 고유의 피부색까지 경멸하며 그토록 흰것을 동경하게 만들었던가? 성민은 좀전에 박인규가 입에 올렸던 《문화제국주의》라는 낱말을 마음속으로 외워보았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제국주의렬강들이 지구상에 저들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퍼부은 노력은 세인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현란한 광고로 포장되고 자본의 《위력》으로 무장된 서방문화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유구한 세월속에 형성된 전통문화와 민족의식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리고있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인기배우들의 《매력》앞에 민족의 자랑으로 전해오던 영웅들과 위인들은 빛을 잃어갔고 어지럽게 란무하는 쟈즈의 광란앞에 전통음악과 예술은 박물관의 석기유물같은 처지로 전락되고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훌륭한 민족음식을 내팽개치고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찾고있었으며 심지어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추함도 서방의 미의

식을 유일한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고있었다.

그것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이 군함과 대포로는 도저히 거둘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전과가 아닐수 없었다. 오죽하면 문화를 앞세워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는 20세기 후반기의 제국주의를 두고 《문화제국주의》라는 새로운 술어까지 생겨났겠는가.

큰 민족이든 작은 민족이든 매개 민족이 창조해온 문화는 인류의 진보를 위해 하나같이 소중히 여겨져야 할 값비싼 경험이고 자산이라 해야 할것이다. 과거 일제가 그처럼 없애버리려고 광분했던 조선글이 그 과학성과 합리성, 독창성으로 하여 오늘날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고 미래의 세계공통어로 주목받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을 뚜렷이 알수 있다. 만일 약육강식의 론리에 떠밀리워 각이한 민족들의 다양한 전통문화가 깡그리 사멸되고 지구상에 힘센자의 획일적인 문화만이 판을 치게 된다면 인류의 문화는 얼마나 빈곤하고 초라해지겠는가. 그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엄청난 재난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남쪽사람들의 이야기는 문성민에게 아프리카에서 류행한 피부표백이 결코 흑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것을 우울하게 상기시켜주었다. 뿌리를 망각한 민족, 문화적자존심을 잃은 민족은 결국 망할수밖에 없다는것이 인류사가 가르쳐온 평범한 진리이다. 《세계화》의 광풍이 어지럽게 휘몰아치고있는 오늘 민족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온 겨레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도 북남학자들의 이번과 같은 회합은 자주 열려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어느덧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문성민은 박인규와 함께 동포녀인부터 찾았다. 토론회가 끝난 뒤 리교수가 그들을 찾아 서만옥녀인에게 꼭 만나고싶다는 의향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던것이다.

《리교수님이 어째서 그 어머님을 만나시려는걸가요? 어찌 보면

두분사이에 무슨 사연이 얽혀있는것 같기도 하고… 문선생은 뭐 짐작되시는거라도 없습니까?》

궁금함과 의혹이 섞갈려도는 표정으로 박인규가 물어오는 말이였다.

《글쎄요?》

문성민도 알수 없다는듯 머리만 기웃거렸다. 아닌게 아니라 박인규의 추측이 영 엉뚱한것 같지는 않았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교수와 녀인사이에 흐르는 이상야릇한 긴장을 성민도 느꼈던것이다. 대체 무슨 사연일가?…

아무튼 교수의 의향을 녀인에게 전해주어야겠기에 그들은 토론회 참가자들속을 이리저리 누비고 다녔다. 그러던 그들은 역시 누군가를 찾고있는듯 왔다갔다하는 안내원처녀와 마주치게 되였다.

《저, 리경식선생님을 보시지들 못했습니까?》

안내원이 묻는 말이였다. 문성민이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안내원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혼자말인양 중얼거리는것이였다.

《서만옥동포가 리선생님에게 면담을 요청해왔는데 어딜 가셨을가?》

문성민과 박인규는 대번에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그러니 동포녀인도 리교수를 만나고싶어한단 말인가. 그 어떤 사연이 있는게 틀림없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 궁금해났다.

하건만 어디로 갔는지 동포녀인은 보이지 않았다. 분명 아까 녀성들속에 끼워 식사하던 서만옥녀인의 모습을 보았었는데… 한동안 녀인을 찾아 헤매다니던 그들은 불현듯 옥류관 로대쪽에서 들려오는 리경식교수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본화제는 여전히 민족이지요. …》

그쪽을 바라보니 리교수가 전남대학교의 강교수와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그들은 리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헌데도 남쪽학계에서 왕왕 민족이나 민족주의에 대해 거부적인 주장들이 튀여나오군 하는것은 좀처럼 리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민족주의를 두고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사조>라고 한다든가 <민족보다도 인류공동의 관심사와 보편적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들은 사실상 미국학계의 론조를 그대로 받아외우는게 아닙니까?》

리교수의 물음에 강교수가 무겁게 머리를 끄덕인다.

《미국학계의 권위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우리 학계에 적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다인종사회여서 민족을 국가형성이나 사회적결합의 1차적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력대로 미국인들이 민족주의라는 말보다 패트리어티즘(애국주의)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해오는것도 그때문이겠지요. 허나 좀더 파고들면 민족이나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미국학자들의 태도가 단순히 저들의 사회력사적인 환경에만 기인되는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미국이 지금껏 우리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를 따져봐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봅니다. 가쯔라ㅡ타프트협정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것처럼 태평양전쟁이전만 해도 그들의 립장은 우리 민족의 존재자체를 묵살해버리는게 아니였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나라 민족주의세력은 일본의 <문명화>시책을 거부하는 말썽군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태평양전쟁이 터지니까 미국은 당면한 대일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시아의 민족운동세력과 손을 잡기 시작했지요. 허지만 일본이 패망하고나자 미국은 걷잡을수 없이 분출하는 아시아민족운동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민족주의세력에 대해서도 일면 리용하고 일면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대표적실례가 백범의 경우일겁니다. 초기에 독립운동가로서의 백범의 명성을 저들의 점령통치와 반쏘, 반공정책에 써먹으려던 미국은 점차 격렬해지는 그의 반외세성향에 위구를 느끼게 되였습니다. 더우기 백범의 남북련석회의참석은 그와 미국과의 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은 결정적계기가 되였지요. 결국 미국은 백범을 가차없이 제거해버렸습니다. 1950년대 후반 북에 호응하여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조봉암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4.19이후 혁신세력의 통일론의가 실천운동으로 번져가는 시점에서 5.16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놓고보면 미국은 민족주의세력이 저들의 대아시아전략의 틀안에 갇혀있는 한해서는 관용을 베풀었지만 저들의 랭전이데올로기를 부인하고 련북과 통일을 지향할 때에는 무자비하게 짓밟아왔다는걸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민족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미국은 우리 민족의 리익이 아니라 철두철미 저들의 국익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일본에 있는 조선문화재들을 반환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당시 일본점령군 사령관을 하던 맥아더가 취한 태도만 돌이켜봐도 자신있게 그런 결론을 내릴수 있습니다. 그때 맥아더는 조선문화재를 내놓기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불만으로 저들의 군정통치가 흔들릴가봐 반환을 완강히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6.15를 환영하는척 하지만 뒤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합심해서 밀고나가는 통일사업들을 사사건건 방해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외세의 진면모를 까밝힐 대신 <민족에 대한 담론은 철지난 외투와도 같다.>느니, <민족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중심>이라느니 하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외우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말 기가 막혀서…》

화가 치받치는듯 강교수는 입을 다물고말았다. 강교수의 심정이 그대로 문성민에게도 옮겨왔다.

(민족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중심이라?…)

그럴듯한 말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인간이란 어느때 어디에서 살고있는 인간들인가. 미지의 세계에서 온 우주인들을 념두에 둔걸가. 아니면 민족이라는 말을 거치장스러워진 낡은 옷처럼 여기는 그런 인간들을 가리키는것일가. …

문제는 현실이다. 우리의 현실을 떠난 론리와 자대로 우리를 말할수 없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의 분렬로 인해 반세기가 넘도록 수난을 겪어온 이 땅우에서 민족의 운명과 동떨어져 과연 그들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수 있단 말인가.

리경식교수의 침중한 목소리가 귀전에 울려왔다.

《남에 대한 환상이 골수에 배기면 그렇게 자기 존재마저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가 봅니다. 민족의 단합된 힘이 그 어느때보다 절박한 이때 민족을 론하지조차 말라니 그게 외세의 론리지 어디 우리의 론리입니까. 외세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믿을건 자기 민족입니다. 동족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로교수의 말이였다. …

2. 고백하고싶어지는 때

박상열과의 대결이 있은 다음날 또 한차례의 예상치 못했던 일이 터져 리경식을 더 큰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날 한낮이 기울어가던무렵 우달근이 꺼멓게 질린 낯빛을 해가지고 경식의 앞에 나타났다.

《시미즈가 없어졌수다!》

밑도 끝도 없이 내뱉는 달근의 소리에 경식은 홀연 뻥뻥해지고말았다. 치미는 화를 누르느라 연신 헐근거리며 달근이 사연을 터놓아서야 리경식은 차츰 모든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어제 저녁에 급작스레 시미즈가 우달근을 찾아왔다. 어찌나 황황급급해하는지 꼭 천둥소리에 놀라 집에 뛰여든 개모양이였다.

《우상, 리선생이 가져온 돈 20만엔을 선불금으로 먼저 넘겨주시면 내 어떻게 하나 장인령감을 설득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차차 상론해서 정하는걸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난데없이 뛰여들자마자 선심이라도 쓰듯이 던지는 시미즈의 수작이였다. 달근은 당장에 주먹부터 나가는걸 겨우 참고 그자에게 내뱉았다.

《네 말은 콩으루 두부 만든대두 곧이들리지 않으니 먼저 향악보부텀 가져다놔라. 그럼 돈을 줄테니.》

그러자 댕댕해보이던 시미즈의 낯판이 대번에 우그러들더라는것이였다.

《우상, 난 우상과의 신의를 지키자고 이러는겁니다. 시간을 끌면 그 두상이 또 무슨 망녕을 부릴지 어찌 알겠습니까. 제발 이번만은 내 말을 믿어주소이다.》

사실 향악보때문에 가슴이 숯등걸로 돼버린 달근으로서는 처음에 시미즈의 말대로 할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니 시미즈가 덤벼치는 꼴이 수상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렇게도 간을 말리며 야지랑을 떨던 좀생이가 부랴부랴 흥정을 서둘러대는것도 이상했거니와 엊그제 20만엔을 들고 갔는데도 코방귀만 뀌였다는 장인령감을 별안간 무슨 수로 얼렁뚱땅 넘겨보겠다는건가. 돌배나무에 사과알이 달린다는 소리나 같았다. 필경

시미즈가 등치고 간빼먹으려는 수작질이라고 생각하니 달근의 움켜쥔 주먹이 우들우들 떨려왔다.

당장 일이라도 칠듯싶은 우달근의 험상궂은 기상에 시미즈는 그만 자라목이 되고말았다. 그자는 별수없다고 생각했는지 턱을 들까불며 애걸했다.

《조… 좋습니다, 우상. 당신들이 바라는 물건을 래일 아침까지 틀림없이 가져다놓을테니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시미즈는 이런 말을 남기고는 수염에 불달린 놈마냥 황급히 사라져버렸다. 달근은 그러는 그자를 지릅뜨고 바라보다가 내심 무릎을 쳤다.

(옳지, 인제야 저녀석이 바빠난가보군.)

요즘 시미즈가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느라 홍찌를 갈기고 다닌다는 말을 자주 듣군 하는 그였다. 그러고보면 돈에 기갈이 날대로 난 시미즈가 급해맞은 나머지 20만엔이라도 먼저 손에 넣고보자고 생각을 바꿔먹었는지도 모른다. 허나 사위놈한테 독이 오를대로 오른 장인령감이 호락호락 움직여줄가. 하긴 승냥이도 제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는데 아무리 모진 두상이라 해도 물에 빠진 딸사위의 꼭뒤를 누를 생각까지는 차마 못할는지도 모르지.

정말로 시미즈가 향악보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우달근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일이 그리된다면 오죽이나 좋으랴. 뭐니뭐니해도 리경식이 기뻐할 생각을 하니 석달장마끝에 해빛을 본 것처럼 저도 모르게 기분이 후더분해왔다. 그 량반이 나쁜 놈들한테 테로까지 당하면서 여북 곡경을 치렀던가.

(내가 향악보를 척 들구 나타나면 리선생이 펄쩍 놀랄테지. …)

이런 상상까지 해보느라니 자연 마음이 싱숭생숭해와 달근은 그날 밤 제대로 눈을 붙일수가 없었다.

날이 밝자 우달근은 웬걸 하면서도 행여나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시미즈가 나타나길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헌데 천만뜻밖에도 시미즈대신 그자의 장인령감이 들이닥칠줄이야…

아침에 그 령감이 낯이 새파래가지고 뛰여들었다고 한다. 어찌나 다급했던지 하오리의 끈이 풀어진것도 모른채 달려온 령감은 다짜고짜로 사위놈한테서 받은 고서를 내놓으라고 생야단을 쳤다는것이 아닌가.

《당장 사위놈을 내놔라! 그놈이 가져온 고서를 내놓으란 말이다! 그 개백정같은 놈이 고서를 훔쳐가지구 이리루 온걸 내가 모를줄 아느냐, 이놈들!》

령감은 두발을 쾅쾅 구르며 입에 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쳐댔다. 어떻게도 두상이 기광을 부리는지 달근은 한동안 령감의 악다구니질을 어벙벙해서 듣기만 하였다. 령감이 고아치는 소리를 한참 듣고서야 그는 대충 사연을 짐작할수 있었다.

…간밤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시미즈가 술꾸레미까지 척 들고 령감을 찾아왔더라는것이다. 먹을알이 없으면 이마빼기도 디밀지 않는 노랭이사위인지라 처음엔 령감도 바짝 긴장했더랬는데 사위란 녀석이 지독히도 살갑게 달라붙는통에 그만 마음이 헐렁해져서 주는 술을 다 받아마셨다고 한다. 그러다가 취해서 꼬꾸라지고 말았는데 눈을 떠보니 어뜩새벽이였다. 느낌이 불길해서 허리춤을 뒤져보니 아니나다를가 금고열쇠가 없었다. 령감이 허겁지겁 금고를 열어보니 금고는 텅 비고 그안에 있던 향악보랑 귀중품들이랑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는게 아닌가. 그제서야 사위녀석의 간계를 알아차린 령감이 집안사람들을 다그어대니 조금전에 사위가 부랴부랴 떠나갔다는것이였다. 령감은 눈알이 뒤집혀 지랄발광을 했다. 그러던 령감의 뇌리에 문뜩 향악보일로 사위를 무섭게 달고친

다는 우달근이 떠올랐다.

(분명 사위놈이 그자한테루 갔을게야. 그자가 향악보를 손에 쥐려구 사위놈과 짠게 틀림없어.)

이렇게 넘겨짚은 령감은 그달음으로 우달근의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정신없이 사위를 쫓아왔던것이다. …

어쨌건간에 생사람 놓고 지랄쳐대는 꼴이 밉광스러워서 달근은 두상한테 도둑놈을 붙잡겠거들랑 다른데나 가보라구 욱박아줬다. 그랬더니 령감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을러멨다는것이다.

《좋다, 이놈들! 내 이길루 당장 사위놈을 경찰에 고소하지 않나 봐라. 남의 재물에 손을 댄 놈들이 얼마나 발편잠을 자나 두구보잔 말이다, 이놈들!…》

령감이 사라져버리자 한시바삐 시미즈의 행방부터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우달근의 머리를 쳤다. 간사한 족속들인지라 장인사위가 짜고 한바탕 연극을 노는지 누가 알랴. 달근은 주먹을 부르쥐고 시미즈네 술집으로 달려갔다. 가보니 아닌게 아니라 시미즈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데 어느새 알았는지 빚군들이 몰려와서 주인을 내놓으라고 악마구리 끓듯 끓고있는것이였다.

그 모양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는것이다. 시미즈가 빚더미에 깔려있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그 정도로까지 남의 돈 떼먹기를 례사로 일삼으며 돌아친줄은 우달근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달근의 이야기를 듣는 리경식의 온몸은 잠간사이에 다 타버린 석탄덩이마냥 푹 꺼져들고말았다. 시미즈가 향악보를 가지고 사라지다니… 눈앞이 캄캄해왔다. 목적한 산봉우리에 거의 가닿다가 불시에 천길나락으로 굴러떨어졌다 해도 이다지는 참담할것 같지 않았다. 귀속에서 피가 소란스레 맥박치는데 그사이로 우달근의 열기띤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난 시미즈가 숨을만 한델 알려구 점원들이랑 말해보면서 얼마쯤 술집에 머물러있었수다. 그러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는게 아니웨까. 시미즈의 장인이 정말루 제 사위를 경찰에 고발한거우다. 그 령감이 도둑맞힌 물건도 물건이려니와 사위녀석이 달아빼면 빚군들의 행패질을 대신 겪어야 할게 더 끔찍해서 선손을 쓴것 같수다. 이를테면 자기두 같은 피해자라는거겠지요. 술집사람들을 불러서 주인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이 나한테두 말을 걸치더군요. 이름을 묻길래 대주니 대번에 경찰서에 함께 가줘야겠다나요. 보나마나 그 령감이 나까지 용의자루 몰아 경찰에 고해바쳤겠지요. 그깟 두상 그러겠으문 그러구 내가 꿈쩍할 까닭이 뭐겠수. 에라, 마침이다. 이 기회에 시미즈의 행처나 더 알아보자 하구 경찰서에까지 갔댔수다. 허 참, 거기 가서 난데없는 졸경을 치를줄이야…》

우달근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후들거리는 손으로 담배를 붙여물었다. 볼이 꺼지도록 담배를 들이빨던 그는 얼마후에야 소태씹은 인상이 되여 이야기를 계속했다.

…경찰서에 간 달근이 어느 한 방에 들어서니 채권자인듯싶은 몇 사람이 먼저 와서 시미즈를 고발하느라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고있었다. 달근은 자세한 형편을 파악하느라 애쓰며 시미즈와의 관계를 꼬치꼬치 캐묻는 경찰에게 적당히 답변했다. 그러는데 한옆에 앉아 오가는 말들에 귀를 도사리고있던 일본녀인 하나가 돌연히 눈에 쌍불을 켜달고 끼여들더라는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 댁이 바로 빠찡꼬점 주인이신가요? 그러지 않아도 찾아가려던 참이였는데 면바로 만났군요. <다마무시주점> 주인이 지금 어데 있는가요? 내 돈을 협잡해먹은 그 사기군이 어디에 숨었는지 터놓으세요. 어서요! 그러지 않으면 아예 이 자리에서 그 댁까지도 사기죄로 고소하고말겠어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얻어들었는지 우달근을 시미즈의 단짝인줄로 여기고 달려드는 모양이였다. 척 보기에도 암차고 영악스러워보이는 녀인이였다. 어떻게나 독이 올라 시악을 부리는지 녀인의 기세를 담기에는 방안이 다 비좁아보일 지경이더라는것이다. 달근이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쳐도 모자라 나중에는 경찰까지 달라붙어서야 겨우 녀인을 제지할수 있었다고 한다.

우달근이 뒤늦게 알아본즉 쯔루하시역전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는 과부인데 명색은 《아라이스시》라는 초밥집간판을 내걸었지만 안방에 틀고앉아 고리대업을 주업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녀인이였다. 그런데 풍문을 들으니 그 녀자가 돈을 빌려주는 진짜의도라는게 리자보다도 채무자들이 담보로 내건 부동산을 뺏는데 있다니 참으로 지독스럽다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우정 시미즈같이 용렬하고 뒤가 뻔한 작자들만 족집게로 고르듯 골라가지고는 돈을 빌려주는데 채무상환기일이 지나기 바쁘게 빚담보로 삼았던 점포나 토지 같은것들을 가차없이 강제집행에 넘겨 삼키군 한다는것이다. 제아무리 뻔뻔하고 끈덕진 작자들이라도 그 녀인에게 한번 걸리면 종당에는 뼈속물까지 다 빨리운채 빈껍데기만 남고말았다. 여북했으면 동전 한잎을 받아내기 위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는 그 녀인을 두고 《벼룩가죽 벗길 녀자》라는 말까지 떠돌겠는가.

아무튼 그처럼 모질고 악바르게 고리대를 한 덕분에 녀인은 오사까에 발을 붙인지 10년도 못되지만 벌써 초밥집을 내놓고도 여러개의 점포들과 적지 않은 땅을 손에 넣었다고 한다. 시미즈의 《다마무시주점》도 그 녀자의 덫에 걸려든 먹이였다.

하지만 이번만은 사정이 달랐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수 없게 된 시미즈가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그 녀자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술집을 담보로 하여 돈을 호려냈던것이다. …

《결국 시미즈의 술집 하나를 놓구 두 채권자가 싸움질해야 할 판이니 그 내인이 독을 쓰게두 됐지요.》

리경식은 어수선해진 마음을 다잡지 못한채 달근의 말을 듣고 있었다.

(《아라이스시》?)

그저께 시미즈를 만나러 갔다가 본 한 녀인의 독이 오른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 녀인의 입에서 《아라이스시》라는 이름이 튀여나왔었지. 그러니 시미즈가 그 녀자때문에 그렇게 바빠했는가. 하긴 채무상환기일은 박두해오고 사기행위는 들통이 나게 되였는데 장인령감은 령감대로 호락호락 향악보를 내놓으려 하지 않으니 바빠날수밖에 없었을테지. …

번거로운 생각을 달리는 경식의 귀전에 우달근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리선생, 거기서 내가 또 누굴 본지 아시우? 다름아닌 이찌가와를 보았수다. 야나가와꾸미에 갔다가 들은 그 사람말이우다.》

순간 경식은 전류에라도 감전된것처럼 흠칠 놀랐다. 이찌가와라니? 그러니 박상열이 또 나타났단 말인가? 가슴을 지지는듯 한 아픔이 되살아나는 속에 관자노리가 툭툭 뛰는것을 느끼며 경식은 우달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경찰에 불리워온걸 보니 시미즈의 장인이 이찌가와란 사람두 용의자루 고발한것 같더군요. 들은바대루 그 사람두 향악보때문에 시미즈와 꽤나 련계가 있었던가보우다. 헌데 기가 차서… 글쎄 시미즈가 어제 이찌가와한테두 찾아가서 나한테 한것과 꼭같은 소릴 줴쳤다질 않수. 돈을 넘겨주면 향악보를 가져다놓겠다구 말이우다. 그런 얕은 꾀에 이찌가와라구 넘어갈리가 없지요. 그렇게 되니까 시미즈는 향악보가 다른데 넘어갈지두 모르니 자길 탓하지 말라구

내뱉구는 사라지더라나요. 에익, 사람질 못할 놈 같으니… 시미즈가 나한텐 맞대놓구 말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향악보를 미끼루 량쪽 다 뜯어내려구 롱간질한거우다. 비록 그 약아빠진자가 제 장인까지 제껴놓구 혼자 해먹으려다 헛물을 켜긴 했지만…》

《시미즈가 향악보를 이찌가와에게 가져간건 아닐가요?》

리경식이 불안스럽게 묻는 말이였다. 우달근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것 같진 않수다. 경찰서에 갔을 때 보니 이찌가와란 사람두 시미즈의 행방을 알지 못해 속이 뒤집혀있는것 같던데요. 여하튼 이거 난사는 난사우다. 시미즈 그 작자만 붙들면 어떻게든 향악보를 손에 넣겠는데 경찰서에까지 걸음을 해봤지만 통 기미를 챌 수가 있더라구요. 경찰쪽에선 되려 내나 이찌가와를 통해 뭘 좀 알아내려다가 소득이 별루 신통칠 않으니까 돌려보내구맙데다.》

경식의 수척해진 얼굴에 착잡한 기색이 떠돌고있었다. 벌어진 일들로 미루어 시미즈는 처가집에 저당잡혔던 향악보를 훔쳐내오다가 령감이 하두 다급하게 뒤쫓는 바람에 급해맞아서 몸을 사린것 같았다. 기회를 엿보다가 소동이 가라앉으면 향악보를 가지고 다시 거래를 걸어보려는 속셈이였을수도 있었다. 하지만 본래 코앞의 리해관계에만 급급해하는자인지라 제 장인이 사위를 경찰에까지 고발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모양이다. 예상외로 일이 험하게 번져져 경찰이 수배에 나서고 장인령감이며 빚군들이 이를 갈면서 윽벼르는 형편에서 좀스러운 위인이 과연 여기에 나타날 엄두나 낼수 있을가? 간혹 시미즈가 도적고양이처럼 살그머니 나타난다 해도 이쪽이 아니라 박상열이나 다른 누군가에게로 찾아간다면?…

혈관을 조이는듯 한 촉박감이 다시금 경식을 일으켜세웠다. 그길로 리경식은 시미즈를 찾아나섰다. 우달근을 비롯한 오사까의 동

포들이 경식을 도와나섰다. 이전부터 시미즈와 거래하고있던 사람들도 만나보았고 행여 다른 소식은 없는가 해서 경찰에도 줄을 놓아 탐문을 계속하였다. 지어 시미즈가 자주 다니던 색주가들까지 수소문해서 가보았다. 하건만 땅으로 잦아들었는지 시미즈의 행방은 좀처럼 알길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불안과 위구는 더욱더 리경식을 힘겹게 압박해왔다. 시미즈가 오사까를 아예 떠나가버린것은 아닐가? 이미 향악보의 가치를 알고있는자이니 타고장에 가선들 리속을 못 채우랴 하는 제딴의 배심도 없지 않을것이였다. 하긴 빚독촉에 쫓겨 막다른 궁지에 몰리우자 장인에게서 향악보를 훔쳐내가지고는 줄행랑을 놓겠다고 애초부터 작정하고있었던지도 모른다. 시미즈는 열번도 더 그럴수 있는 인간이였다. 혹시 그자가 어느 틈에 박상열과 거래한것은 아닌지? 허나 상열이쪽에서도 시미즈를 찾느라 여간 분주하지 않다는걸 봐서 사정은 다를바없는것 같았다.

이러다가 끝내 시미즈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어쩐단 말인가. 모든것을 령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아니면 구만영선생이며 엄길호, 우달근을 비롯한 동포들과 처자앞에서 그리고 조국인민들앞에서 있는 힘껏 애썼지만 별수없었다고 맥빠진 변명을 늘어놓아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경식은 한밤중에도 후닥닥 일어나 랭수를 벌컥벌컥 들이키군 하였다.

그러는 속에 보름 남짓한 시일이 흘러간 어느날 도꾜에서 귀국날자가 박두했으니 빨리 돌아오라는 련락이 경식에게로 날아왔다. 여느 동포들이라면 환희에 넘쳐 받아안았을 그 소식이 리경식에게는 왜 그리도 가슴 철렁하게 들려왔던가. 마치 시험답안을 채우지 못한 학생이 시험의 마감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는 심정이였다 해야 할지…

《오늘중으로 리선생을 보내라고 엄길호회장이 신신당부를 해왔습니다.》

련락을 가져온 조동수의 말이였다. 곁에 있던 우달근도 어떻게든 자기들이 기어이 향악보를 찾아 보내겠으니 여기 일은 걱정말고 어서 귀국하라고 등을 떠미는것이였다.

고마운 마음들이였다. 그런데도 경식은 그들의 꾸밈없는 말들이 자기의 무능함을 후려갈기는 채찍질처럼 여겨져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정녕 이대로 귀국해야 하는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몸으로 어떻게 떳떳이 조국의 흙을 밟을수 있단 말인가. 설사 탓하는 사람은 없다 해도 뼈아픈 죄책감은 평생토록 마음을 괴롭힐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게 살수는 없다는 격렬한 웨침소리가 경식의 가슴벽을 아프게 두드려왔다.

그러나 다음순간 지금쯤 조국에 갈 차비를 하고 가장이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있을 안해와 아이들이 떠올랐다. 귀국선에 오를 날만 손꼽아 세여보며 희망에 부풀어있을 그들에게 인제 와서 귀국을 미루어야겠다는 말을 차마 어떻게 또 할수 있단 말인가. 이번 길에는 틀림없이 향악보를 손에 넣을줄로만 알고 서둘러 안해에게 귀국신청을 내게 한 자기가 아니였던가.

홀연 종아리가 아파왔다. 고향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이런 꼴을 보았더라면 또다시 자신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치게 하셨으리라. 경식은 거칠게 새여나오는 신음소리를 가까스로 눌러삼켰다. 이다지도 자기라는 인간은 조국과 겨레에게도, 처자들에게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단 말인가. 생각하고 또 할수록 무기력한 자신이 환멸스럽기 그지없었다. 걸음걸음 밀려드는 모진 번뇌와 쓰라린 좌절감에 시달리며 경식은 그날 도꾜로 가는 렬차에 몸을 실었다.

도꾜에 도착한 리경식은 엄길호가 있는 귀국대책위원회로 발길을

향했다. 엄길호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전번처럼 또 귀국을 미루겠다고 말할가? 아니면 어쩔수없어 먼저 귀국하니 향악보를 부탁한다고 낯뜨거운 소리를 해야 하는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자신도 종잡을수가 없었다. 오로지 모든것을 터놓고싶은 심정뿐이였다. 당장에 엄길호를 만나 가슴속에서 끓어번지는 번열을 송두리채 쏟아놓아야만 잠시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날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귀국대책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경식은 아무말도 꺼낼수가 없었다. 엄길호가 동포들에게 에워싸여 한바탕 곤경을 치르고있었던것이다.

《이번엔 양보 못하겠으니까 귀국명단에 우릴 넣어주셔유.》

《우째 우리 집만 쏙 뽑았능기요?》

《회장, 내는 말이지 이번까지 보내주지 않으문 귀국선에 매달려서라두 기어코 가겠당께로.》

서로 가로채며 겨끔내기로 법석대는 모양들로 보아 귀국명단에 들지 못해 안달이 난 동포들같았다. 경식은 한동안 문가에 우두커니 서있을수밖에 없었다. 귀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된 후로 사람단련에 못 견디겠다는 푸념을 엄길호에게서 종종 들어왔지만 막상 대하고보니 간단치가 않았다.

사람들에게 들볶이느라 쩔쩔매던 엄길호가 쉬여버린 목소리로 통사정을 한다.

《자 자, 한사람씩 차례로 말해야지 도무지 이거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가만, 분회장은 왜 또 나타난거요?》

둘러선 사람들중 한 사나이에게 눈길을 박으며 엄길호가 던지는 물음에 기다렸다는듯 사나이의 입에서 지청구가 터져나왔다.

《회장은 참으로 너무합니다. 그렇게까지 손이야 발이야 사정했

는데도 끝내 날 빼놓는단 말입니까?》

귀국문제가 거론되는 이런 마당에서 분회장의 체면이나 돌보고 있을 경황이 못된다는듯 사나이의 태도는 여느 동포들과 조그만치도 달라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엄길호도 더 참기 힘든지 버럭 역정을 내고야말았다.

《정말 답답하구만. 분회장이란 사람까지 이리 생떼를 쓰니 어디 일을 해먹겠소. 간부들이 너도나도 선참으로 귀국해버리면 총련은 어떻게 유지하고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은 누가 돌본단 말이요? 어차피 60만이 한꺼번에 몽땅 귀국할수야 없는노릇이 아니요? 아무리 고집이 소발통이기로서니 그만큼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

비단 분회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들으라는듯 엄길호가 기세를 올리는 소리였다. 그래도 분회장은 순순히 물러설 잡도리가 아니다.

《나더러 소발통이라 해도 좋고 리기주의자라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내 말을 들어줄 때까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테니 어디 누가 견디나 두고봅시다!》

《허 참,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건가.》

엄길호가 쓴입만 다시는데 누군가가 또 사람들을 비집고 주춤주춤 나섰다.

《이보이소, 회장어른!》

무뚝뚝한 령남말씨로 이렇게 부르며 나선 사람은 청자색양복에 나비넥타이까지 받쳐매고있어 제법 신수가 멀쩡해보이는 사나이였다. 사나이를 알아본 엄길호의 얼굴에 어리둥절해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아니, 캬바레주인이 어떻게?》

문가에 서있던 리경식도 그 사람을 알아보았다. 도꾜의 번화가에

서 캬바레를 운영하는 그는 장사눈치가 빨라서 여느 동포들이 손대기 저어하는 까다로운 접객업만 골라서 해왔고 그것으로 돈을 모은 사람이였지만 동포사회에서는 감기고뿔도 남주기 싫어하는 린색한으로 랭대를 받고있는 인물이였다.

《꼭 드릴 부탁이 있어 찾아왔심니더.》

《뭔데요?》

《지 아들 두눔얼 공화국에 보낼수 없심니꺼?》

《?》

엄길호의 두눈이 대뜸 뎅그래졌다. 모여섰던 사람들도 덩둘해져서 캬바레주인을 쳐다보았다. 엄길호에게 퉁을 먹고 부어있던 분회장이 저으기 의아쩍어하며 되묻는다.

《아니, 그 댁이야 <민단> 아니요?》

퉁명스럽게 던지는 그 물음에 캬바레주인의 얼굴은 금시 얼어버리고말았다. 그 모양을 보는 경식의 마음속에서도 의혹의 파문이 일고있었다.

남쪽국적을 가지고있는 《민단》동포가 자식들을 북에 보낼 생각을 하다니? 분렬주의자들의 끈덕진 반북선전에 넘어가 적의와 편견의 시각으로 공화국을 바라보는 그들이 아닌가. 더군다나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조국이나 민족에 대해서는 아예 외면하다싶이 하며 살아온 저런 사람이 대관절 무슨 속궁냥으로 느닷없이 아들을 둘씩이나 북에 보내려고 하는건가?…

다들 영문을 몰라하는데 당황해서 허둥거리던 캬바레주인이 얼마후 더듬더듬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렴치불고하다카실줄 알지만도 딴 도리가 없어 찾아왔심니더. … 우짠 팔잔지 지 아들 두눔이란게 다 깡패질을 허구 돌아칩니더. 만날 싸움질이구 칼부림인게라 경찰한테 늘 쫓기는 신센기요. 지나

마누라넌 자식눔들때문에 속이 타서 인젠 재만 남았심니더. 그눔들얼 친척들이 사는 이남땅에 보낼 생각두 해봤지만도 세상 험악하기사 거기락고 일본과 다를게 뭐가 있겠심니꺼. 믿을덴 이북밖에 없심니더. 이대루 자식눔들얼 일본땅에 그대루 둬두문 야꾸자질이나 계속하다가 신세럴 망치던가 아니문 기껏해서 나 같은 돈벌레밖에 더 되겠심니꺼. 회장어른, 지발 부탁입니더. 그눔들얼 사람만들게 이북에 좀 보내주시이소.》

캬바레주인의 두눈에서 물기가 떨었다. 불현듯 방안에 침묵이 깃들었다. 절절하게 울리던 그의 하소연을 되새기며 리경식도 선자리에서 움직일줄을 몰랐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미더웠으면 저렇듯 《민단》 동포들까지 자식들만은 이북에 맡기겠다고 기를 쓰고 나서는것이랴.

사실 귀국을 희망하여나선 동포들의 절대다수가 고향을 남녘땅에 두고있는 사람들이였다. 선조의 유골도 거기에 묻혀있었고 일가친척들도 거기서 살고있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남으로 갈수 있는 그들이건만 한결같이 공화국에로의 귀국을 갈망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심지어 《민단》의 극우보수분자들속에서도 남쪽으로 귀국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지 않는가.

후더운것이 밀려드는 경식의 마음속에 귀국선의 자태가 우렷이 다가왔다.

귀국사업이 벌어지던 초시기 조국에서 보내준 귀국선은 울라지보스또크항에 선적을 둔 쏘련려객선들이였다. 방금 전쟁을 끝낸 나라에서, 아직은 경제토대가 미약하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던 나라에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근 10년간이나 돈을 주며 외국의 대형려객선들을 빌려쓴다는것은 말처럼 헐한 일이 아니다. 하건만 공화국은 벽돌 한장이 귀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잃었던 자식들을 찾아오는 심

정으로 온갖 로고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던것이다.

그렇듯 크나큰 사랑을 기울이면서 조국이 언제 한번 우리에게 대가를 바란적이 있었던가. 이역땅의 자녀들을 떳떳이 내세우라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어김없이 보내주면서도, 한푼의 외화가 귀중한 때에 숱한 외화를 들여 외국의 큰 배들을 귀국선으로 용선하면서도 재일동포들에게 단돈 한푼 요구한적이 없는 사회주의조국이였다.

참된 사랑이란 그런것이다. 값이 정해져있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벌써 거짓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때문일것이다. 새들이 해볕을 찾아 보금자리를 틀듯이 진정을 따르는것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고향을 남에 둔 수많은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을 어머니품으로 여기며 그 품에 운명을 의탁하는것이 아니랴.

나무뿌리의 즙이 가지들로 솟아오르듯이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그 어떤 열렬한 힘이 불시에 온몸으로 미쳐왔다. 그것은 긍지였다. 수천수만번의 곤경속에서도 부서지지 않을, 자신에겐 어머니라 스스럼없이 부르는 진정한 조국이 있다는 가슴벅찬 자부심이였고 믿음이였다.

개인의 운명만을 생각하는 인간은 나약해지기마련이다. 자신의 운명을 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결합시킬 때 인간은 강해지며 삶의 보람과 사명을 찾게 되는것이다.

리경식은 자기가 엄길호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를 높뛰는 심장으로 깨달았다. 하여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자 그는 주저없이 엄길호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님, 전 향악보를 찾기 전엔 절대로 귀국하지 않겠습니다.》

엄길호의 눈섭꼬리가 움씰 들리웠다. 그는 휘우듬한 입을 꾹 다

물고 물끄러미 경식을 바라보다가 한마디 던지는것이였다.

《그럼 처자들은?…》

리경식의 묵직한 얼굴에 동요하는 빛이 떠돌았다.

안해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나저제나 조국으로 갈 날만을 고대하고있을 그들에게 자기를 기다려 무한정 일본땅에 남아있으라고 할수는 없는 일이였다. 아니, 그래서는 안된다. 그들만이라도 한시바삐 조국의 품에 안기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것이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경식은 생각했다.

고개를 수굿한채 생각에 잠겨있던 경식이 결연히 대답했다.

《아무래도 처와 아이들부터 먼저 귀국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엄길호는 천천히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물그물 피여오르는 담배연기사이로 무거워진 그의 안색이 비쳐왔다.

경식은 흥분을 누르며 묵묵히 엄길호를 지켜보았다.

(이 형님이 내 심정을 알아줄가? 날더러 가족들과 함께 귀국해야 한다고 설복하려들지도 모르지. 아무튼 그리할수는 없다. 조국을 위해 내 할바를 다하지 못한채 어떻게 떳떳이 귀국선에 오를수 있단 말인가.)

벌써부터 엄길호앞에 쏟아놓을 불같은 말들이 가슴속에서 고패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는데 담배 한대를 다 태우고난 엄길호가 불쑥 경식에게 묻는다.

《이 사람 경식이, 자네 찌꾸호탄광때가 생각나나?》

《?…》

한순간 경식은 어리둥절해졌다. 찌꾸호탄광! 그곳은 왜정말기 경식이 끌려갔던 죽음의 징용터였다. 토목공사장에서 일하던 엄길호도 거기에 끌려가 경식이와 함께 짐승보다 못한 징용살이를 치르지 않았던가. 헌데 갑자기 그런 말은 왜 꺼내는가?…

경식이 의아해하는데 혼자소리처럼 뇌이는 엄길호의 처연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우린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신세들이였지. 피눈물인들 좀 많이 흘렸나.》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쳐지는 세월이였다.

간데라불빛이 어둠속으로 빨려들어가던 시커먼 굴길, 탄가루와 땀에 범벅이 되여 사람인지 석탄인지 분간조차 할수 없던 반벌거숭이의 앙상한 몸뚱이들, 무너진 갱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동포들의 절망에 찬 곡성들…

걸핏하면 《빠가나 조센징》(바보같은 조선인)이라고 패대면서 사람을 소나 말만치도 여기지 않는 살인적인 노예로동도 참기 힘들었고 허기진 창자를 채우려고 다이나마이트까지 먹지 않으면 안되였던 지독한 굶주림도 참기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어느날 남양전선에 끌려나갔던 탄광마을의 일본청년들이 《<천황>페하를 위해 순사한 전몰장병》들이 되여 돌아왔다. 하얀 보자기로 싼 유골함들이 단우에 놓여지고 유족들과 탄부들이 빙 둘러서서 죽은 혼들을 바래웠다. 탄투성이가 된 해골같은 얼굴에 두눈들만 멍청하니 데룽거리는 조선인징용자들도 그 자리에 끌려나왔다.

일본인들은 전쟁을 겪느라 지쳐빠졌지만 《가미가제국민》답게 빳빳이 서서 군가 《우미 유까바》를 울며 합창했다. 조선사람들도 따라불러야 했다. 바다에 가면 물에 잠긴 주검, 산에 가면 풀에 묻힌 주검, 페하를 위해 죽는 이 몸 뒤도 돌아보지 않으리…

덧없이 허공중을 때리며 애절하게 거듭되는 군가를 따라부르느라니 왜서인지 경식은 눈물이 왈칵 솟구쳐나왔다. 왜놈들의 일에 조

선사람이 웬 눈물이냐는듯 곁에 있던 엄길호가 눈을 부릅떴지만 경식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을수가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엄길호앞에서 가슴을 두들기며 오열을 터뜨렸다.

《형님, 그래두 저것들은 죽으면 울어줄 나라라도 있지 않나요. 내게두 그런 나라가 있으면 열번을 죽더라두 한이 없겠수다. 그게 서러워서 우는겁니다. 대관절 우리가 사람인가요, 짐승인가요? 살아도 의지할데가 없구 죽어도 슬퍼해줄 나라가 없는 우리 같은것들이 사람이 맞긴 맞는가 말입니다?!》

비분에 절어 울부짖는 경식을 부여잡고 엄길호도 꺽꺽 흐느끼지 않았던가.

세상살이에는 배고픈 설음도 있고 혈육을 여읜 설음도 있다. 허나 설음설음해도 가장 큰 설음은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나라가 없는탓에 사람으로 태여나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망국노의 쓰라린 설음이였다.

《왜놈의 종살이를 한 조선사람치구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은 사람이 어데 있겠나. 그래서 제 나라를 더 소중해하는거지. 아무렴, 도리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엄길호의 말이였다. 경식은 그의 얼굴에 비껴흐르는 한줄기의 미소를 보았다.

(그러니 내 심정을 다 읽었다는건가?)

불덩이마냥 달아오른 경식의 뜨거운 눈망울을 바라보며 엄길호는 찬동하여 도장이라도 찍듯 고개를 끄덕였다. …

하지만 집에 들어간 경식은 자기를 반겨맞는 처와 아이들에게 선뜻 결심을 털어놓을수가 없었다.

안해는 벌써 이사짐을 거의다 싸놓고있었다. 수영이와 수남이도 아버지에게 매달려 배를 타게 되였다고 좋아라 두발을 동동 구르

는것이였다.

향악보를 찾았는가고 묻는 안해에게 경식은 엉겁결에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그러자 가량가량한 순분의 얼굴가에 안도의 기색이 피여올랐다. 남편의 일을 두고 무척도 속마음을 조여온 모양이였다.

순분은 조국으로 갈 때 남편에게 입히려고 사온 새 양복을 꺼내놓았다. 경식의 낯빛이 어둑하니 흐려졌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안해에게 새옷 한벌 변변히 사주지 못한 그였던것이다. 새 생활에 대한 기대와 기쁨으로 부풀어있는 안해에게 차마 실망을 안겨줄 용기가 나지 않아 경식은 끝내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말았다.

그날 밤이였다.

밤늦도록 재깔거리며 들떠있던 아이들은 어느새 부모들 짬에 끼여 쌔근쌔근 코를 골고있었다. 자리에 누워 그간의 집안일을 두서없이 전하던 안해 역시 어지간히 곤했던지 이야기를 채 마치지도 못한 채 잠들어버린지 오랬다. 어디선가 우동장사군의 입나팔소리가 간간이 들려오는데 창유리로 비쳐드는 희푸른 달빛이 불꺼진 방안을 호젓이 어루더듬고있었다.

하건만 경식은 뜬눈으로 그밤을 보내고있었다. 막상 가족과 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황혼의 조수물처럼 허전한 느낌이 자꾸만 가슴속으로 밀려들었던것이다.

아버지없이 가게 된다는걸 알면 아이들이 얼마나 서운해하랴. 남편과 기약없는 리별을 해야 할 안해의 심정은 또 어떻고… 그래, 기약없는 리별이랄수밖에. 지금의 형편에서 향악보를 인츰 찾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지 않는가. 이러다가 정말 오래동안 가족과 떨어져있게 되는건 아닌가. …

이런 생각을 거듭하느라니 그동안 쌓인 무거운 피로에도 불구하

고 좀처럼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번거로이 엇갈리는 시름들을 뿌리치며 이리저리 뒤척이던 경식은 얼핏 저켠에 누워자는 안해를 보았다. 안해는 수남이와 한이불을 덮고있었는데 아들애가 갈개잠을 자는통에 홑이불이 반나마 벗겨져있었다.

경식은 슬그머니 일어나 그리로 다가갔다. 안해와 아들애를 다시 덮어주고 이불깃을 여며주던 경식의 눈길이 달빛에 드러난 순분의 얼굴에 가멎었다.

안해는 무거운 짐을 부린 운반부마냥 고단하게 자고있었다. 하긴 오늘도 하루종일 삯빨래를 하였다니 퍼그나 지쳤을것이다. 그렇게 아글타글 모은 돈으로 새 양복도 사왔을테지. 풋사과인양 청초하던 처녀때의 자태가 석양빛처럼 희미해져가는 순분의 모습을 경식은 우두커니 내려다보았다.

확실히 안해에게서 홍안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얼굴에는 군데군데 잡티가 생겨나고 곤하게 노그라져서인지 입에서도 단내가 났다. 그제서야 경식은 비로소 안해의 눈귀며 입귀에 때이르게 박히기 시작한 가시주름을 알아보았다. 어째서 안해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인제야 문뜩 깨닫게 되였을가? 처에게 너무도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갈마들었다.

경식은 안해의 이마우에 흐트러져 드리운 몇오리의 머리카락을 조심히 쓸어올려주었다. 남편의 체온이 닿자 굳잠에 녹아든줄 알았던 안해의 눈이 가슴츠레 떠진다. 잠기가 무겁게 실린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던 안해는 행복한 꿈이라도 꾸듯 살풋이 웃으며 다시금 스르르 눈을 감는것이였다. 어린애같이 남편의 손을 더듬어잡고 고르게 숨을 쉬면서… 허옇게 닳아있는 안해의 소매끝이 경식의 눈을 아프게 찔러왔다.

마음이 쓰라렸다. 귀국을 눈앞에 둔 오늘까지도 험한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안해였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말없이 바치기만 해온 그 나날에 안해의 고생인들 오죽했으랴. 그래도 안해는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로지 남편의 사랑 하나면 고생도 락으로 여기는 녀자였다.

그런 안해에게 이날이때껏 해준것이 무엇이였던가. 사랑한다는 말조차 제대로 해준적이 없는것 같았다.

정말 그랬다. 안해와 처음 만날 때에도 경식은 그 말을 하지 못하였다. 세상에는 사랑이란 말을 노래처럼 외우는 사람들도 많건만 왜서 경식은 그 말을 입에 올리기 그리도 힘들어하였던가. 쑥스러워서였던가 아니면 가슴속에 품고있는 소중한 감정을 함부로 내보이기 저어해서였던가.

미안했다. 고생하는 안해에게 자그마한 기쁨을 안겨줄 살뜰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이 후회스러웠다. 과연 자기가 안해를 사랑하지 않았던가. 아니, 사랑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안해를 사랑했고 고맙게 여겼다. 궂은 길을 걸을 때나 마른 길을 걸을 때나 그가 바라보던 곳에는 언제나 어머니조국과 함께 안해와 자식들이 있지 않았던가.

경식은 남자들의 손만치 거칠어진 순분의 손등을 뜨겁게 어루만졌다. 안온하고 애정깊은 표정이 안해의 잠든 얼굴가에 고즈넉하게 어려있었다. 그지없이 청순한 모습이였다.

불쑥 이 시각 안해에게 고백하고싶은 욕망이 불길마냥 솟구쳐올랐다. 사랑한다고 말하고싶었다. 지금껏 터놓지 못한 그 모든 진정을 다 담아서, 안해를 대할 때마다 밀려들군 하던 그 모든 미안함과 고마움을 다 담아서 사랑한다고 심장으로 고백하고싶었다.

그것은 생활의 첫 기슭에서 보라빛꿈을 꾸며 터치는 청춘들의 고

백이 아니였다. 다난한 세파에 부대끼면서 서로를 리해하고 공감한 숯불같은 중년의 고백이였다. …

얼마후 경식은 달아오른 가슴을 식히려고 밖으로 나갔다. 군청색 밤하늘에서 하많은 뭇별들이 제나름의 만단사연을 하소연하듯 쉬임없이 깜빡이고있었다. 경식은 담배를 태우며 오래도록 그 별들과 마음속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3. 어둠속에서 번뜩이는 비수

전화종이 울렸다. 히사꼬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에서 쉬지근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쯔보이 히사꼬양을 찾습니다.》

《제가 히사꼬인데요.》

처녀가 대답하자 저쪽에서 대뜸 반기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 히사꼬양이요.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구만. 날 모르겠소?》

《저, 누구신지?》

《허, 유감인데. 가루베 신조를 벌써 잊었을린 없을텐데…》

순간 히사꼬는 뱀이라도 본것처럼 흠칠했다. 《백자》차집에서 본 대머리가 떠오르면서 등우로 벌레 같은것이 스멀스멀 기여오르는듯한 느낌을 뿌리칠수가 없었다. 처녀가 전화기를 든채 굳어져있는데 상대는 자못 걱정하는 어조로 다음 말을 이었다.

《참, 듣자니 남동생이 탈가를 했다면서.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겠구만. 히사꼬양에게 그런 고충이 있는줄은 미처 몰랐는걸.》

난데없이 불미한 집안일이 튀여나오는 바람에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주위를 살폈다. 협회사무실은 조용했다. 저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회원 두사람의 모습만이 눈에 띄울뿐이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도오뗀의 일을 알고있는걸가? 어리둥절해진 히사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듯 가루베가 흔연스레 뒤를 달았다.

《오늘 누굴 만났더랬는데 히사꼬양의 안부를 묻다가 우연히 알게 됐소. 내 성미에 그런 소식을 듣구서야 어디 가만있을수 있더라구. 똘스또이의 말이던가. 이제 할수 있는 선행을 래일로 미루지 말라구. 허허… 건 그렇구 히사꼬양이 거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도울수 없을가 해서. 남동생이 대학에 다니면서 학비걱정을 안해도 되게 내가 후원단체 같은걸 하나 소개해줄수 있는데 히사꼬양의 의향은 어떤지?》

히사꼬는 금시 거절한다는 말이 튀여나가는것을 겨우 참았다. 단마디로 물리치기에는 집안형편이 지내 딱했던것이다. 입술을 옥물고 침묵만 지키는 처녀에게 끈덕진 유혹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달리 생각할건 없소. 난 단지 히사꼬양에 대한 호감때문에 이렇게 나서는거요. 동의한다면 오늘 저녁 6시에 우리가 만났던 <백자>차집에서 기다리겠소. 그때 만나 상세한걸 의논해봅시다. 아 참, 리선생에겐 아직 이런 얘길 하지 않는게 좋을듯싶겠는데. 혹시 괜한 오해라도 살가봐서 그러는거요. 그럼 저녁에 다시…》

가루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전화기를 놓았다. 보나마나 거절하지 못할거라는 오만한 태도였다. 히사꼬의 얼굴이 모멸감으로 확 달아올랐다. 왜서 가루베의 넉적은 소리에 면박 한마디 안기지 못했는지 스스로도 놀랍기 그지없었다. 그러면서도 어쩔수없이 시계에 눈길이 가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처녀는 와락 치밀어오르는 설음

과 분함을 삼키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

가루베는 히사꼬에게 이른 시간을 30분 앞두고 《백자》차집에 들어섰다. 빈자리로 찾아가 무너지듯 무겁게 주저앉은 그는 목을 졸라맸던 넥타이를 늦구고나서 더위에 벌그레해진 부얼부얼한 얼굴을 손수건으로 꼼꼼히 닦기 시작하였다. 한참 그러고있을 때 차가 나왔다. 가루베는 차 한모금을 훌쩍이고나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고풍스러운 차집의 분위기는 이전이나 다름이 없었다. 축축히 울려나오는 느린 음악, 소곤거리며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한적한 모습… 창문으로 비껴들어오는 석양볕이 벽에 진렬된 조선의 옛 백자들을 감빛으로 물들이고있었다.

《<순백의 아름다움>이라…》

저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중얼대던 가루베는 후뜰 놀라고말았다. 몇달전에 히사꼬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외우고있었던것이다. 그러고보니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도 그때의 그 자리였다. 어찌된 영문인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잠재의식이라도 작용했는가?

갑자기 입안이 쓰거워났다. 가루베는 차종을 내려놓고 담배를 붙여물었다. 푸실대며 흩어지는 담배연기사이로 불이 펄펄 일던 리경식의 눈빛이 섬찟하니 다가들었다. 자기를 가리켜 《호리야》라고 꾸짖던 격노의 그 웨침이 또다시 머리우로 가차없이 떨어질것만 같았다. 뒤덜미가 뻣뻣해왔다. 그때 일을 생각하니 더위에 지쳐빠졌던 심장이 불시에 독거미마냥 꿈틀거렸다.

(리경식, 네가 감히 나를 개 꾸짖듯 했단 말이지. …)

가루베의 입귀가 사납게 일그러졌다.

《조선향악보》를 기어이 가져다놓겠다고 아라기앞에서 장담할 때 그는 자기의 금력과 인맥을 발동하면 그까짓 조선인들을 얼마든지 밀어제낄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있었다. 총독부관계자들

을 훑어나가던중 니시다를 찾아냈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던가. 행운의 문들이 차례로 척척 열려지는것 같은 현훈증에 사로잡혀 가루베는 수일어간에 향악보를 가져간다고 아라기의 서기에게 전화까지 걸지 않았던가.

니시다를 찾아갔던 일이 허사로 되고나서야 그는 자기가 너무나 쉽사리 장담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니시다에게 찾아와 향악보의 행방을 물었다는것과 이찌가와라고 소개한 그자인즉 다름아닌 아라기의 장서를 정리해간 조선인중 한사람인 박상열이라는것을 알아냈을 때 가루베의 놀라움과 불안은 이만저만한것이 아니였다.

상대하는 조선인들이 록록치 않다는것을 늦게나마 통감한 가루베는 그들이 어느 정도 앞서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다고 작정하고 박상열을 찾아가 만났다. 그런데 예상밖의 일이 벌어졌다. 박상열이 제편에서 먼저 협력을 자진해오는게 아닌가. 가루베는 처음에 조선인들이 무슨 오그랑수를 부리는가 해서 선뜻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한동안 말이 오가서야 그는 리경식이라는 조선인과 한통속인줄 알았던 박상열이 속으로는 딴 궁리를 하고있다는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 어째서 박상열이 자기의 본명이나 가네다라는 통명대신에 이찌가와라는 왕청같은 가명을 내대고 향악보를 찾아다니는지도 짐작되는바가 있었다.

하긴 그럴법도 한 일이였다. 같은 조선인이지만 그들은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를 선택하고있었던것이다. 게다가 박상열의 말마따나 가루베 신조라는 거물이 나섰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엄두를 낼수 있으랴. 협력을 자진해나선 박상열의 제의는 현실을 바로 보고 자그마한 리득이나마 얻어보려는 약삭바른 타산에서 나온것이 분명한 듯싶었다. 가루베는 쾌심에 겨워 속으로 《반자이》를 부르짖었다.

철옹성으로 여겼던 적의 성곽이 별안간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는 장수의 심정이였다고 할가. …

박상열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가루베의 이목은 당연히 리경식에게 집중되게 되였다. 일본땅에서 《조선향악보》를 처음으로 찾기 시작했다는 리경식, 고물수레를 끌며 막바지인생길을 톺으면서도 조선문화재를 수집해왔고 귀국도 미룬채 향악보를 찾아다니고있다는걸 보면 여간한 집념의 사나이같지 않았다. 제아무리 그렇다한들 황금의 힘앞에서야 무슨 용빼는 수가 있으랴.

박상열을 손쉽게 걷어쥐는 바람에 기고만장해진 가루베는 배를 퉁기며 이번에는 리경식을 찾아갔다. 박상열의 말대로 리경식이 정말 나까야마의 행방을 알아냈는지 살펴보고 어디 한번 흥정도 걸어보자는 심산에서였다. 허나 심한 오산이였다. 건방지기 짝이 없는 그 조선인앞에서 가루베는 여지없이 발가벗기우고 만신창이 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그날 리경식의 입에서 뿜어나오던 증오의 웨침들이 되살아날 때면 가루베는 지금도 뒤덜미가 뻣뻣해오고 사지가 가드라들군 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 일은 가루베의 가슴속에 리경식이라는 조선인을 불구대천의 숙적으로 새겨넣었다. 어떻게든 리경식을 이겨야 앙갚음을 할수 있었고 출세와 영달의 꿈을 이룰수 있었다. 가루베는 필사의 힘을 다해 기승을 부렸다. 그는 향악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인맥이란 인맥은 총동원하는 한편 눈에 쌍심지를 켜고 리경식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죽을 수가 닥치면 살 수가 생긴다더니 박상열이 그 일을 쾌히 맡아나섰다. 개인적인 리해관계도 있었거니와 남조선계였으니 향악보와 같은 귀중한 문화재가 북조선으로 넘어가는것을 결단코 방관할수 없었던 모양이였다. 가루베로서는 입이 가로 터질만큼 좋아할

일이 아닐수 없었다. 리경식이 여적 제 친구의 속심을 모르는 조건에서 박상열만큼 그의 거동을 가까이에서 살펴볼만 한 사람은 없다고 보았던것이다. 그러고보면 리경식을 만났을 때 이찌가와라는 가면을 쓴 박상열의 정체를 적당히 묻어두었던것이 얼마나 잘한노릇이였던가싶었다. 가루베는 박상열의 활약을 기대하며 그에게 갖은 달콤한 약속을 아낌없이 쏟아보였다. 허, 헌데 이런 기막힐데라구야! 글쎄 박상열이 감쪽같이 자기를 업어넘겼다는것이 아닌가!

박상열이 자기에게 알리지도 않은채 리경식을 뒤쫓아 오사까로 뛰여갔다는것을 가루베는 뒤늦게야 알게 되였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촉한 그는 부랴부랴 흥신소(일본에서 남의 위탁을 받아 개인의 소행이나 재산따위를 비밀리에 조사하는 사설탐정기관)를 고용하여 박상열의 행적을 조사하게 하였다. 결과는 경악할 지경이였다. 지금껏 박상열이 리경식과 자기사이에 끼워 얼렁수를 쓰면서 안속을 채웠을뿐아니라 오사까에 가서 향악보를 놓고 리경식과 대판 암투까지 벌렸다는것이 아닌가.

당장에 송편으로 목이라도 따야 할 일이였다. 그런줄도 모르고 여태 박상열에게서 소식이 날아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니 제 꾀에 제가 넘어간것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제노라 하던 자기가 《센징》들한테 보기 좋게 엿을 먹은것이다. 분통이 터져왔다. 가루베는 늘어진 볼살을 푸들푸들 떨며 길길이 날뛰였지만 이미 행차뒤나발이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가루베는 박상열이 자기나 리경식만 못지 않게 눈에 홰불을 켜달고 향악보를 노려왔다는것을 쓰거움속에 깨달았다. 박상열의 진짜속내는 놓쳐버린채 단지 그가 리경식의 성공을 달가와하지 않는 점만 흐뭇이 구경해온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면 북이냐 남이냐를 치렬하게 다투던 끝에 두 조선인이 모처럼 찾아든 기회를 바보처럼 잃고만것이라

할는지. … 허지만 지금 언제 그런 위안이나 하고있을 계제인가.

돌연 역증이 가루베의 심장을 비틀었다. 그는 채 피우지 못한 담배를 짜증스럽게 비벼껐다.

바로 며칠전에 있은 일이였다. 가루베는 아라기 사다오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고마무라의 별장으로 찾아갔었다. 지금 형편에서 아라기의 앞에 나서는것이 염라대왕앞에 나서는것만치나 끔찍했지만 사소하게라도 늙은이의 고까움을 살가봐 두려웠던것이다.

이태동안 어김없이 치르어온대로 품들여 마련한 생일선물을 들고 별장으로 가니 서기가 대뜸 주인에게로 잡아이끄는것이였다. 가루베는 급해맞지 않을수 없었다. 늙은이를 만나는것이 두려워 진상품이나 내려놓고 얼른 돌아설 작정으로 우야 이른아침시간을 골라 찾아온 그였으니 그럴수밖에. 서기로부터 자기가 나타나면 데려오라고 주인이 분부했다는 소리를 전해듣고서야 가루베는 별수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마냥 서기를 따라나섰다. 령감은 삼나무껍질로 지붕을 얹은 자그마한 차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있었다. 가루베는 아라기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로군.》

들고 온 진상품은 거들떠보지도 않은채 아라기가 던지는 첫마디였다. 가루베는 그 말속에서 금방 일을 칠것처럼 기세를 떨더니 그래 어찌되였느냐고 묻는 늙은이의 속대사를 읽었다. 쪽박쓰고 소낙비를 피하랴. 딴 도리가 없어 가루베는 그간에 있은 일들을 자초지종 상전에게 아뢰였다.

아라기는 차를 마시며 잠자코 듣기만 하였다. 조는듯이 무표정한 늙은이의 얼굴우에서 강파르게 패인 주름살들이며 비수마냥 치들린 카이제르수염이 이따금 무슨 곁말이라도 주고받는것처럼 움씰움씰하였다. 그 모양을 불안스럽게 지켜보며 가루베는 간신히 사설을

끝맺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폭풍직전의 정적이라 할지. 이제 저 정적을 깨치며 벼락이 떨어지든가 매몰찬 야유의 소나기가 쏟아질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였다. 가루베는 간이 록두알만 해서 상전의 하회를 기다렸다. 그런데 얼마후 아라기의 입에서는 이런 질문이 흘러나오는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 두자가 서로 다른 패당이였다는건가?》

뜻밖의 질문을 받은 가루베가 어정쩡해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각하. 아시다싶이 일본의 패전과 함께 38도선이라는게 생겨나면서부터 조선인들은 북과 남으로 갈라져 호상 반목하고있지 않습니까. <조선향악보>를 찾고있는 그자들 역시 하나는 북조선계이고 다른 하나는 남조선계이니 사정은 마찬가지일거라고 보아집니다.》

늙은이의 부석부석한 눈시울이 먼 옛날을 돌이켜보듯 가느스름히 쪼프려졌다.

《38도선이라…》

아라기는 독백이라도 하듯 이렇게 되뇌더니 어딘가를 쳐다보며 먼지낀 그림처럼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는것이였다.

《새삼스럽구나. 내가 38도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던게 아마 <황군>에서 복무하기 시작하던 초시기였을게야. 일청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놓구 제정로씨야와 치렬한 각축전을 벌렸더랬지. 그무렵에 야마가따륙군대장이 <천황>폐하의 특사로 로씨야황제대관식에 참석한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로씨야외상 로바노브와 만나 38도선을 경계로 조선을 분할지배하자구 제기했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 그때 로바노브의 반대로 야마가따의 제기는 무산되였지만 지난 세기말에 일본이 처음으로 들고나왔던 그 38도선이 오늘날에 와서 반도의 현대사를 좌지우지하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결국엔 렬강들 틈에 끼여있는 반도의 숙명이라 해야 할테지. 흠…》

흥미있다는듯 코웃음을 치고난 아라기는 말머리를 돌렸다.

《그래 차후책은 있는가?》

가루베는 후닥닥 놀랐다. 그는 정신을 바싹 차리며 령감의 물음에 대답했다.

《예, 현재 향악보를 가지고 사라졌다는 시미즈란자의 행적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는중입니다. 사처에다 줄을 늘였고 경찰에도 협력을 부탁해놓았습니다. 한편으론 향악보에 눈독을 들이는 두 조선인들에게 면밀한 추적을 붙여놓았습니다. 각하, 념려마십시오. 아무리 그래야 이 일본땅에서 조선인들이 날고뛴들 별수가 있겠습니까.》

가루베의 흰소리에 늙은이가 랭소를 지으며 빈정거렸다.

《그게 단가?》

《?…》

《내 보건대 이번에두 또 자넨 그자들에게 얼려넘어가든가 아니면 선손을 떼울것 같은데.》

가루베는 한순간에 입이 얼어붙고말았다. 이 령감이 대체 뭘 말하자는거야? 그쯤하면 내 솜씨따윈 더 볼나위도 없다는건가? 슬그머니 당황해난 가루베가 안경을 매만지며 조마조마해하는데 아라기는 차를 다 마시고나서 느릿느릿 말하는것이였다.

《예로부터 적을 알고 자기를 알아야 이길수 있다구 했어. 조선놈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해보이는가. 센징들을 꺾자면 그놈들의 약점을 물고늘어져야겠는데 자네 같은 허영배들은 무턱대구 단방치기 승부만 노리고들거던.》

자기를 썩은 짚오래기만큼도 여기지 않는 상전의 하대에 울화가

벌컥 치밀었지만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리인지라 가루베는 감히 내색조차 할념을 못했다. 불현듯 늙은이가 회색빛눈망울을 이상하게 번뜩이며 물어왔다.

《그래, 시미즈인가 뭔가 하는 오사까의 그 사기군이 센징들을 어떻게 골탕먹였다구?》

《예? 아, 그자가 노린것인즉 조선인들끼리 기껏 경쟁시켜서 폭리를 얻자는것이였다고 합니다. 장사치의 잔꾀랄지… 다행히 그 결과로 조선인들의 기도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만은…》

가루베가 떠듬적거리며 대답하자 아라기는 들고있던 빈 차잔을 소리가 나게 탁자우에 내려놓았다.

《옳아, 바루 그거야. 자네도 아까 말했지. 38도선이 생겨나면서 조선인들이 량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고있다구.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란 말이야. 그러구보면 오사까의 그 작자가 일부러 그랬던, 얼결에 그랬던 센징들의 그런 약점을 리용해서 리속을 차릴 생각을 했다니 한갖 장사치라도 자네보다 얼마나 수가 높은가.》

가루베의 살찐 얼굴이 삶은 문어대가리처럼 시뻘개졌다. 속이 뒤틀렸지만 인정할수밖에 없는 사실이였던것이다. 어째서 자기는 그런 수를 쓰지 못했던가. 정말로 자기가 오사까의 그 사기군보다도 지둔하단 말인가. 아니, 기본은 상대를 너무 우습게 보고 접어든데 있었다. 리경식도 그래, 박상열도 그래 그렇게까지 완강하고 검질긴자들일줄이야 어찌 짐작이나 했으랴. 쓰디쓴 패배감과 수치감이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랐다. 가루베가 설익은 개살구 먹은 상이 되여 죄인처럼 웅크리고있는데 아라기의 기광스러운 목소리가 정수리를 후려쳐왔다.

《조선놈들의 내분과 불화를 할수 있는껏 부채질해야 해. 뭐니뭐니해도 센징들을 누르자면 그게 최상의 방책이거던. 자넨 그 두놈

이 끝까지 마음을 합치지 못하게 리간시키구 서로 물고뜯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해. 그리되면 바라는 물건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건 시간문제가 아니겠는가.》

천백번 지당한 훈시였다. 비록 병적일만치 자기주장을 과신하며 무작정 남을 가르치려드는 오만무도함이 있어도 이 령감의 사고방식에는 권모술수로 일생을 흘러보낸자만이 지닐수 있는 랭혹함과 로회함이 비껴있다는것을 가루베는 부인할수가 없었다. 그래, 권력을 잡으려면 저렇게 랭혹해야 한다. 일본의 정치인이 되려면 저렇게 무자비해야 한다. 가루베는 비둔한 몸을 뱀처럼 도사리며 아라기의 훈시에 화답했다.

《실로 이 자리에서 깨닫는바가 엄청납니다, 각하!》

그러나 아라기의 훈시는 끝이 나지 않았다.

《난 단지 조선의 고서따위때문에만 이런 소릴 하는게 아니야. 중요한건 우리뒤를 이을 젊은것들이 아시아와 세계를 주무를수 있는 지혜를 깨닫는거야. 영국인들이 그랬던가, <분렬하여 통치하라.>구.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반도가 두쪼각으로 갈라진건 하늘이 아직 우리 일본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 할수 있어. … 조선인들이 둘로 갈라져서 싸우는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린 힘을 길러가지구 다시 일떠서야 해.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단 말일세. 그 길에서 <분렬하여 통치하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가 되새겨보군 해야 할 유익한 금언으로 될거야.》

아라기의 울대뼈가 흉물스럽게 불끈거렸다. 늙은이의 온몸에서 뻗쳐나오는 거센 기운에 휘말려들며 가루베는 다시금 목청을 돋궈 화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각하!》

마감무렵에 가서 아라기는 느닷없이 이런 말을 흘렸다.

《지방의회선거가 래년 봄에 있더라?》

광기로 번뜩이던 령감의 눈빛이 어느새 의뭉스러운 빛으로 바뀌여있었다. 가루베는 벌떡 신경을 곤두세웠다. 엉큼한 령감이 자기 속을 뻔드름히 들여다보고있었던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선거가 닥쳐오고있었다. 어떻게 하나 이 기회에 정치인으로 환골탈태하고싶은것이 가루베의 굴뚝같은 욕심이였다. 그러자면 이 늙은이의 후원이 결정적으로 필요했다. 모든것이 늙은이의 결심여하에 달려있었다. 가루베는 네거리에서 교통신호등을 지켜보는 기분으로 상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상전은 거드름스레 그루를 박았다.

《정치를 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나약하거나 무능한자들은 결코 정계에 오래 살아남지 못하지. 자네에게 정치인이 돼볼 야심이 있다면 미리부터 뜻을 벼리구 기회를 행운으로 바꿀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해. 그리구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구. 만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두 돌아가 창부나 껴안든가 아니면 어느 뒤골목에 들어가서 호떡장사나 하는게 나을걸. 인생이란 건 와떼를로싸움터야. 패하면 나뽈레옹처럼 쫓겨갈뿐이지. … 물러가게. 조선고서를 가져오기 전엔 다시 내앞에 나타나지 말게.》

아라기가 내뱉은 마지막말이다. 해내지 못하면 모든것을 포기하고말라는 매몰찬 최후통첩이였다.

그 일이 있은 뒤로 가루베는 불난 강변에 덴 소 날뛰듯 더욱 헤덤벼쳤다. 고기는 물을 타고 새는 바람을 타고 사람은 때를 탄다고 했지. 아라기가 준 마지막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 문제는 인제 누가 먼저 시미즈를 찾는가 하는것이였다. 가루베는 시미즈가 숨어있는 곳을 찾기 위해 유들유들한 낯이 더위에 시뻘겋게 익는줄도 모르고 헐떡거리며 뛰여다녔다. 하루가 멀다하게 경찰관계자들을 찾아다녔고 여기저기에 돈을 뿌려가며 청탁을 놓는가 하면 불

독촉을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리경식과 박상열에게서 잠시라도 눈을 뗄가봐 자기가 고용한 흥신소사람들을 매일같이 들볶아댔다.

그중에서도 가루베가 눈에 피발을 세우고 노려보는 대상은 리경식이였다. 《조선향악보》에 제일먼저, 제일 가까이 다가갔던자가 바로 리경식이였다는 리유도 있었지만 보다는 그자에게서 당한 모욕을 반드시 되갚겠다는 사무친 앙심때문이였다. 가루베는 리경식의 말소리 하나, 숨소리 하나라도 놓칠세라 어둠속의 도적고양이처럼 귀를 강구고 눈을 밝혔다. 그 과정에 흥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리경식이 시미즈를 찾아 오사까로 갔다는것을 박상열에게 알려준 인물이 다름아닌 히사꼬라는것이였다.

어안이 벙벙해졌다. 히사꼬야 리경식의 협회에서 일하는 처녀가 아닌가. 《백자》차집에서 만났을 때 받은 느낌도 그렇고 협회를 조사한 흥신소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리경식을 남달리 따르는 처녀가 분명한데 어떻게 그럴수가?… 모름지기 박상열의 얼림수에 넘어간것이 틀림없었다. 하다면 히사꼬가 자기의 실수를 알고나 있을가? 그리고 리경식은?… 처녀가 그 사실을 알면 금시 울상이 될테지. …

와락 구미가 동했다. 히사꼬를 끌어당길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렇게만 되면 리경식의 일거일동을 손금보듯 장악할수 있지 않는가. 가루베는 히사꼬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파헤쳐보았다. 그러던 그는 도오뗀이라는 히사꼬의 남동생이 한주일전에 집을 뛰쳐나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고등학교 졸업반생인 도오뗀은 최근에 의학대학입학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되였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입학시기가 박두해오자 도오뗀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문약한 선비이고 어머니는 지병으로 늘 병석에 누워있어 연약한 누이가 시집도 안 가고

집안의 부담을 혼자서 감당해나가고있었다. 그런 형편에서 자기까지 어떻게 누이의 등에 업힐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동생의 발목을 붙들어맸다는것이다. 히사꼬가 피나게 마련한 입학금까지 손에 쥐여주며 제발 대학공부를 하라고 사정사정했지만 동생은 한사코 뿌리쳤다. 입학금은 그렇게 메꾼다 해도 수업료며 실험실습비 등 잡다한 명목의 학비는 무슨 수로 꼬박꼬박 대며 앓는 어머니는 어떻게 돌보겠느냐면서. 온 집안이 달라붙어 도오뗀을 꾸짖고 타이르자 그 녀석은 기어이 제힘으로 돈을 벌어 누이부터 시집보내겠다면서 외삼촌이 산다는 홐가이도의 어촌으로 뛰쳐나갔다는것이였다.

가루베는 쾌재를 불렀다.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라도 붙잡는다는데 그렇게까지 급박해진 정황이라면 일은 제대로 되여가는셈이 아닌가. 히사꼬의 성정으로 보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마다하랴. 이런 생각으로 가루베는 다급스레 히사꼬에게 전화를 걸었던것이다. …

하건만 약속한 시간이 반시간이나 넘도록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루베는 연신 궁둥이를 들썩거리며 이제나저제나 하고 출입문쪽만 지켜보았다. 히사꼬가 끝내 오지 않으려는가? 어째서? 그 알량한 자존심때문에? 그게 아니면 리경식과 무슨 꿍꿍이라도 있었는가?…

불안스럽게 갈마드는 초조와 위구속에 안절부절 못하던 가루베의 입이 갑자기 헤벌어졌다. 히사꼬가 문가에 나타난것이다.

(그러면 그럴테지.)

가루베는 육중한 몸을 엉거주춤 일으키며 반색을 지어보였다.

《어, 히사꼬양. 이리루!》

4. 인생을 다스리는것

차집안을 둘러보던 처녀가 가루베를 알아보았는지 이쪽으로 걸어온다. 랑만기가 넘쳐흐르던 여느때의 모습이 아니였다. 따뜻하고 발랄한 광채가 흘러나오던 처녀의 두눈은 생기를 잃은채 피로와 번민에 잠겨있었고 맑은 웃음이 피여나군 하던 입가에도 설음의 그늘이 어둡게 비껴있었다. 처녀의 얼굴은 가까스로 빛을 내는 별마냥 창백하고 희미해보였다.

그래도 예쁘장한 처녀였다. 희고 반드러운 뺨을 가리운 검은머리발도 예뻤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결치는 봉긋한 앞가슴도 예뻤다.

저도 모르게 가루베는 처녀의 곤색치마자락을 타고 드러나군 하는 다리의 고운 선을 눈여겨보다가 헛기침을 하며 눈길을 돌려버렸다.

처녀가 다가오자 가루베는 너스레를 부리며 반겨맞았다.

《허, 이거 히사꼬양이 들어서니 차집의 운치가 한결 살아나는것 같구만.》

가루베는 흐무러진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처녀에게 자리를 권했다. 잠시 망설이던 히사꼬가 가루베의 맞은켠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상처입은 자존심때문이여선지 처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가루베는 능청스러운 눈길로 처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무렴, 이런게 바로 돈의 힘이라는거야. 꿈으로 인생을 채워가

는 이 천진란만한 처녀야, 가난뱅이에겐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걸 인젠 알겠느냐? 돈은 사람들에게 존경할걸 명령한다는 진실을 인젠 알겠는가 말이다!)

흐물흐물 웃음집이 흔들거리는것을 겨우 참으며 가루베는 짐짓 딴전을 부렸다.

《이거 정말 반가운데. 우리가 만난지 몇달 되던가. 이렇게 반가운걸 보니 혹시 내가 히사꼬양한테 남다른 감정이라도 품고있는게 아닌지 모르겠소. 흐하하…》

가루베가 느끼하게 껄껄거리자 히사꼬는 오한이라도 만난듯 몸을 옹송그렸다. 처녀의 앞에 차가 놓여졌다. 그래도 히사꼬는 긴장으로 굳어진 몸을 좀처럼 풀지 않는다. 처녀를 눙쳐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가루베가 다시 입을 열었다.

《참, 지금도 계속 조선도자기를 연구하고있겠구만. 고상한 취미요. 그래서 그런지 히사꼬양을 볼 때면 산중에 숨어있는 사찰의 분위기라고 할가. 하여튼 그런게 느껴지거던. 흐흐…》

속이 텅 빈 가루베의 웃음소리가 처녀를 건드렸다. 교회당의 종소리같이 끈덕지고 위선적인 그 웃음소리가 듣기 괴로웠던지 야무지게 맺혀있던 처녀의 입술사이로 마침내 가느다란 소리가 새여나왔다.

《저, 용건을 말씀해주실수 없겠는지요?》

랭기가 느껴지는 어조였다. 그러면서도 이른 서리를 맞은 나팔꽃마냥 생기를 잃어버린 목소리였다. 가루베는 뚱뚱한 배를 쑥 내밀고 소리없이 웃다가 뜨직뜨직 본론을 꺼냈다.

《용건이라는게 별다른건 아니고 아까 전화로도 이야기했지만 히사꼬양의 동생문젤 의논해보자는거요. 도오뗀이라고 했던가, 남동생이름이?… 일이 참 딱하게 됐더구만. 의학대학입학시험에서 합격

이 되였는데도 가정사정때문에 포기했다면서? 거참, 히사꼬양의 집안에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걸 아니 내 마음이 다 쓰리더라니까. 생각 같아선 내가 직접 나서서 도오뗀의 학비를 대주고싶지만 공연히 히사꼬양이나 집안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릴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겠구… 그래 좀 궁리해봤는데 도꾜의 어느 사립병원이나 의학연구단체에 부탁해서 동생의 후원단체로 나서게 하면 어떻겠소? 이전에 내가 의사노릇을 한적도 있는지라 그 계통에 연줄이 좀 있거던. 게다가 동생은 똑똑하고 학업성적도 우수하다니 내 얼굴이 깎일 일도 없을거구. 어떻소, 히사꼬양의 생각은?》

히사꼬는 대답이 없었다. 잠자코 차종만 만지작거리는 처녀의 손등에서 파란 정맥이 가늘게 뛰고있었다. 가루베는 처녀의 그 모양을 능글거리며 지켜보다가 탄식조로 뒤를 달았다.

《공부라는것도 다 때가 있는건데 한창 배워야 할 애가 가난탓에 꿈을 포기하다니, 쯧쯧… 가슴아픈 일이지. 그애의 전도를 위해서도 그렇구 집안을 추세우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대학공부는 시켜야 하지 않겠소. 좀 고달프긴 해도 의사라는게 그만하면 수익은 괜찮은 직업이지. 동생이 의대를 나오면 가정형편도 한결 펴일게요.》

《동정》과 《친절》이 끈적끈적하게 묻어나오는 말이였다. 그래도 히사꼬가 한마디 응대도 하지 않자 가루베의 얼굴가에 흡족해하는 기색이 넘실거렸다. 처녀의 침묵을 제나름으로 어림짐작한것 같았다.

《흐흐… 하기야 친누이의 생각이 어련할라구. 그럼 동생일은 그리하는걸로 하지.》

그 말에 히사꼬가 반발하듯 고개를 쳐들었다. 가루베를 쳐다보는 처녀의 두눈에서 싸늘한 의문과 경계의 빛이 튀여나왔다. 처녀는 미심쩍어하는 어조로 불안한 속마음을 내비쳤다.

《어째서 저에게 그런 호의를 베푸시는지 알고싶습니다.》

히사꼬의 의문에 가루베는 히벌쭉이 웃더니 느적느적 대머리를 긁적거리며 대답하는것이였다.

《허ㅡ 이미 말했던것 같은데, 단지 히사꼬양에 대한 호감때문에 나섰다구. 사실 난 처음 만난 순간부터 히사꼬양에게서 남다른 인상을 받았더랬소. 사색하는 일을 고역처럼 여기는 요즘 젊은이들과는 영 딴판이거던. 입만 벌리면 돈소리나 하고 군입질하듯 성욕이나 채우는걸 쾌락의 전부로 아는것들을 보면 가소롭다 해야 할지, 측은하다 해야 할지. 헌데 히사꼬양은 그런 부류의 천박한 젊은이들과는 취향이 다르더란 말이요. 인간적인 감정들이 랭각되여가는 이 황막한 세상에서, 더군다나 각박한 생활난에 시달리면서도 선과 아름다움을 두고 감동할줄 안다는게 어디 쉬운 일이요. 아마 그래서 내가 히사꼬양을 더 좋아하는것 같아. 흐허허…》

가루베는 연신 능글대며 병아리를 덮치려는 먹구렝이마냥 슬금슬금 처녀에게로 조여들었다.

《보다싶이 나라는게 이러루한 사람이요. 사람이건 물건이건간에 한번 마음이 끌리면 좀체 자길 걷잡지 못하거던. 터놓고 말해 근간에 난 히사꼬양이 내 방조자로 되여줄순 없을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군 하오. 히사꼬양처럼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처녀가 내곁에 있어준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겠소. 흐흐… 그리만 된다면 나만 리를 보는게 아니지. 히사꼬양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보수를 받게 될게요. 히사꼬양, 말이 난김에 이 자리에서 내 조수가 되겠다고 약속해줄순 없을가?》

가루베의 요청은 속에 품었던 욕망을 그대로 내보인것이였다. 단지 향악보를 찾는 일에 히사꼬를 써먹자는 타산때문만이 아니였다. 히사꼬같은 똑똑한 일본처녀가 조선인을, 그것도 자기가 제일 증오

하는 리경식을 따라다니다니. 문화재분야에서의 권위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대관절 자기가 그 조선인보다 깔리우는것이 무엇인가. 허영에 찬 가루베의 자존심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일이였다. 게다가 이 처녀는 아릿다운 용모까지 가지고있지 않는가.

가루베의 추근추근한 눈길이 히사꼬의 아래우를 탐욕스레 더듬었다. 고개를 숙인채 가지런히 무릎을 모으고 앉은 처녀의 생신한 육체가 그의 눈앞에 있었다. 백자기의 겉면처럼 희고 고운 살결과 바다풀인양 싱싱한 머리칼, 백설같이 하얀 브라우스에 보기 좋게 감싸여있는 처녀의 젊고 건강한 앞가슴… 처녀가 숨을 들이그을 때마다 들떠오르군 하는 아름다운 젖가슴의 륜곽이 가루베의 거슴츠레해진 눈을 찌르고들었다. 그만에야 온몸의 피가 화끈해왔다. 녀성편력에서도 《호리야》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해온 호색한에게 있어서 히사꼬의 모습은 지글거리는 수욕을 한껏 불러일으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가루베의 뭉실뭉실한 몸에서 풍겨오는 이상한 열기를 감촉한듯 히사꼬가 무릎우에 놓인 치마자락을 불안스럽게 쓸어내린다. 그러는 처녀를 지켜보며 가루베는 음충맞게 느물거렸다.

《리선생에게는 미안스러운 일이라는걸 나도 리해하오. 허지만 그의 형편에서 아무리 히사꼬양을 돕고싶어도 한계가 있다는거야 자명한노릇이 아니요. 모름지기 히사꼬양이 곤궁에서 벗어날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기꺼이 동의해나설거요. 안 그런가?》

히사꼬의 두볼에서 피기가 점점 사라져갔다. 대답을 기다리는 검측스러운 눈길이 거마리마냥 처녀의 얼굴에 달라붙어 떨어질줄을 몰랐다. 마침내 처녀가 고개를 쳐들며 확인이라도 하려는듯 나직이 묻는것이였다.

《그러니 말씀의 뜻은 도오뗀을 도와주시는 조건부로 제가 리선

생님의 협회에서 나와야 한다는…》

가루베는 가슴이 덜컹했다. 히사꼬가 자기의 배속을 환히 들여다보고있었던것이다. 《선량한 자선가》는 당황함을 숨기느라 애쓰며 처녀를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괴로움과 번민에 타는 처녀의 눈길이 따져묻듯 자기를 곧바로 쳐다보고있었다. 민감한 처녀였다. 이런 처녀와는 쓸데없이 에두를 필요가 없는것이다. 가루베는 넉살좋게 입가에 친절을 게바르며 넌지시 본론으로 넘어갔다.

《하하… 역시 히사꼬양과는 대화를 나누기가 즐겁거던. 사실 그리해준다면 나로서야 더 바랄게 없지. 허나 인지상정을 어찌 두부모 베듯 할수 있겠소. 당분간은 리선생곁에 그대로 남아있어도 좋소. 대신 내 일을 좀 도와주었으면 하오. 뭐 별건 아니고 협회에 있으면서 <조선향악보>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면 곧바로 나한테 알려달라는거요. 난 남의 수고를 몰라보는 사람이 아니요. 구태여 히사꼬양에게 긴 설명은 필요없을테지.》

호인같은 미소를 간판처럼 붙이고 하는 말이였어도 가루베의 어조에서는 자기 말을 따르는외에 별도리가 없을거라는 장담이 짙게 내풍기고있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히사꼬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실례입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뜻밖의 대답이였다. 가루베의 퉁방울눈이 안경뒤에서 올챙이처럼 불어났다.

히사꼬는 눈길을 내리깐채 더 말이 없었다. 그러는 처녀에게서 오연한 랭기가 풍겨왔다. 금시 얼음으로 변해버린 처녀를 멍청히 바라보던 가루베는 아래입술을 삐죽이 내밀며 쓴웃음을 지었다.

(흥, 살아가는 일의 태반을 공상으로 메꿔가는 이런 풋내기들이야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볼줄 모르지. 어리석은것 같으니…)

가루베는 손가락에 낀 다이야몬드반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다가 제법 인생의 년장자연한 느긋한 미소를 지으며 히사꼬에게 설교를 펼쳤다.

《음, 알만 하오. 리선생때문에 그러는거겠지. 아무렴, 사람이 도의를 중히 여길줄 알아야 하구말구. 하긴 융통수는 좀 부족해도 리선생한테 끌리는 점이 있는건 사실이요. 그만하면 일가견이 있는데다 뜻도 범속하지 않고 지조가 강한 사람이랄가. 히사꼬양 같은 젊은이들로선 관심을 가질만도 하지. … 아무튼 히사꼬양의 그 청춘이 부럽소. 비록 감정이 턱없이 과장되고 생활을 온통 시처럼 감수하는 시절이긴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대로 세계를 마음껏 그려볼수 있으니까. 나 역시 그 나이땐 숨을 쉬면 자연히 폐속에 산소가 들어가듯이 자신에게도 얼마만치의 행복이 저절로 차례지게 될거라고 생각했더랬지.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야 세상은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걸 깨닫게 됐소. 사실상 지조나 량심을 운운하는게 인간의 실생활에선 아무런 소용도 없더란 말이요. 그런건 작가나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환영이라고나 할지. 히사꼬양도 시간이 흐르면 차츰 깨닫게 될거요. 인간생활에선 만가지 도의나 명분보다 한쪼각의 빵이 더 귀중하다는걸 말이요. 그러고보면 인생이라는건 결국 <할수 없지.> 하는데 귀착되는것 같아. 흐허허…》

덧없는 인생에 도통한 도사인양 허구픈 웃음을 흘뿌리던 가루베는 요긴한 말이라도 하려는듯 히사꼬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히사꼬양, 이 년장자의 조언을 새겨듣기 바라오. 이 세상은 정의와 사랑과 량심을 황금보다 더 소중하다고 믿는 가난한 사람들로 꽉 차있소. 그런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지어 처절하다는 생각까지 들군 하지. 허나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그런걸 위해 배

까지 곯아야 할 리유가 대체 뭐겠소. 인간이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싫든좋든 현실을 인정해야 하오. 인생을 다스리는건 애정이나 리상이 아니라 바로 돈이라는걸 말이요.》

《인생의 철리》를 력설하는 가루베의 훈시는 자못 엄숙했다. 히사꼬는 처음 보기라도 하듯 가루베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가늘게 좁혀진 처녀의 눈시울이 파르르 떨린다. 경악과 의분, 혐오의 불꽃이 처녀의 두눈에서 세차게 튕겨나왔다. 얼마후 히사꼬는 가루베의 낯을 외면하며 낮으나 랭랭한 어조로 잘라말했다.

《전 이손저손으로 아무런 지조없이 떠돌아다니는 돈처럼 살고싶지는 않습니다.》

능청대던 가루베의 얼굴에 한줄기 노기가 스쳐갔다. 닭알껍질만큼이나 연약해 보이던 처녀에게 이렇게까지 옹골찬 속대가 들어있을줄이야. 심사가 뒤틀렸는지 입귀를 실룩거리며 킁킁 코그루만 박던 가루베는 초조히 담배 한대를 꺼내여 붙여물었다.

(요것 봐라. 이렇게 그냥 호인행세만 하다간 애숭이한테 망신이나 당하고말겠는걸. 흠, 어디 두고보자.)

잠시 히사꼬를 노려보던 가루베는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이거 섭섭한데. 그래도 난 히사꼬양을 생각해서 흉금을 터놓고 한 말인데. 좋소, 인간의 지조나 량심이 돈보다 더 중하다는 고결한 견해에 경의를 표하는바요. 하다면 하나 묻기요. 이러나저러나 간에 히사꼬양은 일본처녀겠지? 정녕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자기 조국인 일본부터 먼저 생각하는게 떳떳한 지조이고 량심일듯싶은데. 문화재경우도 그렇지 않소. 리경식이 같은 사람은 조선인이니 제 민족의걸 찾자고 모지름쓰는게 당연하지만 우리 일본인들로서야 경위가 어떻든지간에 선배들의 피땀이 묻은 식민지시절의 전리품들을 응당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지 않을가. 결코 누구에게도 돌려줄수

없는 일본의 재부이고 영광이거던. 헌데도 히사꼬양은 조선인들에게 동조하면서 선배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국익을 해치고있으니 과연 이게 일본인의 지조와 량심이 있는 행동인가 말이요? 만일 도오뗀이 이 사실을 안다면 자기 누이를 어떻게 생각할가? 조선인들에 대한 이른바 도의감때문에 친동생의 전도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누이를 그애가 과연 원망하지 않을가?》

히사꼬의 낯빛이 해쓱해졌다. 동생의 일이 처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것 같았다. 고개를 숙인채 괴로움을 묵새기던 히사꼬는 이윽고 한쪽뺨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맥없이 걷어올리며 구슬프게 말하는것이였다.

《제 동생은 더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동생일을 생각하면 저도 슬픕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슬픈건 일본의 현실입니다. 남을 짓밟고 마음에 상처를 남겼으면 진심으로 사죄하는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죄나 가책은커녕 지난날의 부끄러운 일들을 자랑스럽게 찬미하는 일본사람들을 볼 때면 전 도저히 리해가 가지 않습니다. 묻고싶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것이 일본인의 지조와 량심을 지키는 길입니까. 우리가 남들의 인간성과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의 인간성과 존엄을 존중해주겠습니까. 정말이지 낯이 뜨겁습니다. 제가 태여난 조국이 철면피한들의 나라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마다 일본인으로 태여난것이 부끄러워 견딜수가 없습니다.》

가루베의 코구멍이 악에 받쳐 잔뜩 부풀어올랐다. 처녀의 말은 그대로 추상같이 자기를 단죄하던 리경식의 노성으로 뒤울려왔던것이다. 비록 괴로움에 흐려있지만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는듯 도고함을 잃지 않은 처녀의 눈빛에서 가루베는 자기의 기도가 무참히 깨여져나간것을 보았다.

(발칙한 년, 네년도 날 《호리야》라고 릉멸하는구나.)

가루베는 퉁겨나온 눈알을 횡포하게 디룩거리며 잡아먹을듯이 히사꼬를 쏘아보았다.

갑자기 손가락이 뜨거워났다. 담배불이 타들어가면서 손가락을 지져놓은것이다. 가루베는 신경질적으로 담배불을 비벼끄더니 비틀어진 입술에 비웃음을 띠우며 이죽거렸다.

《허ㅡ 대단해. 히사꼬양이 이렇게 자기 조국까지 타매할만큼 코가 센줄은 몰랐는걸. 허나 충고하건대 세상만사를 너무 장담하고 나설 필요는 없는거요. 모든 일에는 다 낮과 밤의 량측면이 있는 법이니까. 례컨대 히사꼬양을 놓고봐도 그렇지. 리경식의 일이라면 그렇게도 발벗고 나서는 히사꼬양이건만 때로는 그 사람의 잔등에 칼을 박기도 했으니 참 사람의 일이란 얼마나 오묘한가 말이요.》

순간 히사꼬의 얼굴이 조각인양 굳어져버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크게 뜨인 처녀의 두눈이 아연함에 질려 가루베를 마주보았다.

가루베가 심술궂게 웃었다. 자기에게 면박을 준 히사꼬에게, 아니 그보다는 리경식에게 앙갚음하고싶은 사나운 충동이 가슴속으로 들물마냥 쓸어들었다. 가루베는 순간이나마 찾아온 복수의 기회를 한껏 즐기고싶었다. 하여 그는 처녀에게 대답할 대신 놀라움과 의혹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이는 히사꼬를 흐물흐물 구경하며 천천히 차종을 들어 입에 가져다댔다. 그러는 그의 두터운 금테안경속에서 조롱하는듯 한 눈빛이 춤을 추고있었다.

힘겨운 침묵이 흘렀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차를 다 마신 가루베는 느릿느릿 수건을 집어 입을 훔쳤다. 그러더니 숨을 죽인채 자기를 주시하는 처녀에게 느물대며 입을 여는것이였다.

《아직 모르는게지. 히사꼬양이 존경하는 그 리선생이 오사까에

갔다가 왜 헛물을 켰는지. 박상열이라고 기억날텐데. 고서점을 운영한다는 리선생의 그 친구말이요. 명색이 친구라지만 기실 박상열은 동상이몽하는 사람이요. 이를테면 리선생의 경쟁자랄가. 그 사람이 이번에 오사까에 가서 향악보를 놓고 리씨와 대판 암투를 벌렸다더군. 나중엔 일이 틀려지니까 야꾸자들을 시켜서 리씨한테 테로까지 가했다던지… 허, 다된 밥에 재를 뿌린셈이지. 그통에 리씨는 거의 손에 넣었던 향악보를 놓쳐버리구 물우에 그림그린 격이 되였다는거요. 덕분에 어부지리는 내가 보았지만. 흐흐… 헌데 참 놀랍더구만. 리선생이 향악보때문에 오사까에 갔다는걸 박상열에게 대준 장본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히사꼬양이라니 말이요.》

《믿어지지 않는군요. 어쩜 그럴수가…》

히사꼬의 떨리는 말이였다. 터져나오려는 웃음때문에 목구멍이 간질거리는것을 겨우 참으며 가루베는 계속 빈정거렸다.

《그러니 리선생이 아직 내색을 안한게로군. 놀랍기로야 그 사람이 더할테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히사꼬양에게서 뒤통수를 얻어맞을줄이야 꿈엔들 생각했을라구. 모름지기 요즘 리선생은 배신감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게요.》

가루베는 처녀의 얼굴빛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것을 안경너머로 흡족해서 지켜보고있었다.

《아, 진정하오. 물론 히사꼬양으로서야 본의아닌 실수였겠지.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만큼 잘 속는 법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리씨의 실망이 여북하겠소. 향악보를 찾으려고 귀국까지 미루어가면서 뛰여다닌 사람이 아니요. 아마 다시는 히사꼬양에게 속을 주지 않을게야. 더군다나 히사꼬양은 조선인들이 불구대천의 숙적으로 간주하는 일본의 한 처녀가 아닌가.》

히사꼬가 강잉히 머리를 흔들었다.

《리선생님은 결코 그런분이 아닙니다!》

《흐하하하…》

가루베는 받은 목을 제끼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고통에 몸서리치는 히사꼬를 보니 십년 묵은 체증이 조금이나마 꺼져내리는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리경식에 대한 믿음을 끝끝내 버리지 않는 처녀가 가증스럽기 그지없어 가루베는 악의에 찬 웃음을 미친듯이 뿜어댔다. 한참만에야 가루베는 벌겋게 짓물린 눈구석을 문지르고나서 심술사납게 처녀를 시까슬렀다.

《실로 눈물겹군. 하긴 서로 찍어누르려고 날치는 이 쟝글사회에서 타산없이 쏟아붓는 그런 믿음이나 순정은 어찌 보면 존경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지. 허지만 이보오, 히사꼬양. 혹 리씨가 이번 일을 용서한다쳐도 어차피 그는 일본을 떠날 사람이 아닌가. 그래 그 사람의 마음속에 히사꼬라는 한낱 일본처녀가 어느만큼이나 차지하고있을것 같소? 그는 오직 자기 조국 하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지금은 쓸모가 있으니까 일본처녀를 리용하고있지만 필경 귀국하고나면 씻은듯이 잊어버릴걸. 헌데도 히사꼬양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런 조선인을 따르겠다니 쯧쯧…》

가루베는 참으로 딱하다는듯 혀를 털었다. 히사꼬의 눈가에 가랑가랑 눈물이 맺혀돌았다. 참기 어려운 분함과 서러움이 처녀의 얼굴을 짓태우고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시금 가루베가 음침하게 능글거렸다.

《너무 락심할건 없소. 인간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열번이고 백번이고 다시 선택할 권리가 있거던. 대체 아무 뜻도 없는 도의니, 량심이니 하는 말에 인생을 얽매일 까닭이 뭔가 말이요. 내가 딴 속이 있어 이런 권고를 하는게 아니요. 무엇보다도 같은 일본인으로서 히사꼬양의 난감한 처지를 동정해서 이러는거요. 부디 현실

적으로 판단하기 바라오. 히사꼬양의 립장으로서야 응당 부모님들과 동생부터 생각해야지. 리경식은 히사꼬양에게 아무것도 줄게 없지만 난 많은것을 해줄수 있다는걸 알아야 해. 그러고보면 히사꼬양이 이 가루베 신조를 알게 된것도 하늘이 점지해준 연분일는지 몰라. 흐흐흐…》

가루베의 끈적끈적한 눈길이 처녀의 몸을 또다시 더듬적거린다. 히사꼬가 살을 떨며 일어섰다. 감출길 없는 혐오의 불꽃이 처녀의 두눈에서 일었다.

《저에겐 그런 동정이 필요없습니다.》

히사꼬는 불같이 이 한마디를 내쏘고는 자리를 떠났다.

《흥, 미련한것. 그렇게 한사코 리경식이를 쫓아다니다간 보기 좋게 신세를 망치고말걸!》

악에 치받쳐 씨벌여대는 가루베의 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왔다. 처녀는 비렬한의 마수에서 순간이라도 빨리 벗어나려는듯 숨가삐 차집을 나서버렸다. …

히사꼬는 정신없이 반달음을 놓기 시작했다. 어디로 발길이 향하는지 그자신도 몰랐다. 그저 온몸이 자기의 육신같지 않게 덜덜 떨려나기만 할뿐이였다.

찌물쿠던 하늘에서는 땅거미와 함께 밀려든 구름이 가랑비를 뿌리고있었다. 가로세로 비스듬히 내리는 가랑비가 처녀의 이마전이며 두뺨에 어지러이 흩뿌려지군 했다. 하건만 처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머리며 옷이 비물에 젖어들고 발길에 뭔가 채워 비칠거리면서도 허겁지겁 그냥 내걷기만 했다.

비웃음을 띤 가루베의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질줄 몰랐다. 《인생의 철리》를 떠벌이던 가루베의 역겨운 소리가 아직도 귀가에서 어지러이 맴돌아쳤다. 인생을 다스리는건 돈이라구? 열물마냥 쓰거

운것이 치밀었다. 돈을 긁어모으고 써버리는것외에는 아무런 정신적인 리상도, 인간적인 감동도 없이 살아가는게 과연 행복일가? 남들의 피땀으로 배를 기름지으고 남들의 눈물로 환락을 누리는게 기쁨의 전부라면 그런 삶이야말로 짐승과 다를게 뭐란 말인가. 그래도 명색이 문화재전문가라는 가루베가 어떻게 그런 시정배의 소리를 후배앞에서 거리낌없이 할수 있을가? 후배가 그렇게까지 보잘것없이 보였을가? 가루베에게는 자기라는 처녀가 돈 몇푼을 위해 아무 곳에서나 웃으며 옷을 벗어주는 길가의 창녀처럼 비쳐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모닥불을 뒤집어쓴것처럼 얼굴이 홧홧해왔다.

무슨 정신에 자기가 가루베를 만날 결심을 했었는지 스스로도 아연하기만 했다. 애오라지 동생때문이였다. 원하지 않던 곳에서 뜻하지 않게 내뻗친 손길이 께름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소중했기에 히사꼬는 별수없이 용단을 내렸던것이다. 하건만 가루베는 남의 불행으로 제 배를 채우려는자였다. 그런자에게 한가닥이나마 기대를 걸었던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걸음마다 수치를 씹으며, 걸음마다 자신을 저주하며 히사꼬는 발길이 닿는대로 걷고 또 걸었다.

《빌어먹을! 눈이 멀었어?》

처녀와 부딪칠번 한 행인 하나가 버럭 역정을 내는 소리였다. 히사꼬가 걸음을 멈추고 급급히 사죄했다.

《미안합니다.》

지나쳐가는 행인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있던 히사꼬는 문득 자기가 울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땀과 비물이 흘러내리는 두볼로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리고있었던것이다.

처녀는 가슴속에서 새여나오는 이상야릇한 흐느낌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차렸다.

그러고보니 자기가 지금 지요다구로 들어가는 어구에 서있지 않는가. 어째서 저도 모르게 이리로 발길이 향했던가?

(그래, 리선생님의 친구라는 사람이 여기서 살고있다고 했었지. 지요다구의 《구다라서림》… 그날 박상열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분명 그리 일렀어.)

박상열이라는 이름이 되살아나자 다시금 처녀의 가슴이 활랑거렸다. 아무리 생각해봐야 가루베의 말을 도저히 믿을수 없었다.

(리선생님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니? 어떻게 친구라는 사람한테서 테로까지 당할수 있을가? 참말 친구가 옳긴 옳을가? 혹시 내가 그 사람의 속임에 넘어간거나 아닌지?…)

다음순간 히사꼬는 도리를 저었다.

(아니, 확실히 리선생님의 친구분이였어. 내가 박상열이라는 이름을 꺼냈을 때 선생님이 얼마나 반가와하셨다구. 그런 친구가 제 민족을 위해 애쓰는 리선생님의 일에 재를 뿌렸다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람! 틀림없이 그 철면피한이 꾸며낸 말일거야. 가루베가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황당한 거짓말을 꾸며낸게 분명해.)

히사꼬는 그렇게 믿고싶었다. 그러나 백에 하나 가루베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박상열이란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고 그런 사람에게 속을 준 자기의 경솔함때문에 리선생이 곤경에 빠진것이 사실이라면?…

상상만 해도 속이 떨려왔다. 정녕 그리되였다면 어쩌나 하고 생각하니 온몸의 피가 일시에 빠져버리는듯싶었다. 처녀는 피나게 입술을 깨물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아니! 있을수 없는 일이야. 절대로 그럴수는 없어!)

한시바삐 거짓을 까밝히고싶었다. 박상열을 만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가루베의 너울을 속시원히 벗기고싶었다. 히사꼬는 세차

게 방망이질하는 가슴을 부여안고 또다시 걸음을 다그쳤다.

그가 《구다라서림》앞에 이른것은 늦은저녁무렵이였다. 고서점은 이미 닫겨있었다. 뒤로 돌아가 초인종을 누르니 일여덟살쯤 된 총각애가 나와 아침에 나간 아버지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하는것이 아닌가.

히사꼬는 삽시에 맥이 풀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총각애가 앞에 없다면 금방이라도 주저앉아버릴것만 같았다. 허나 그대로 돌아갈수는 없었다. 그러기에는 처녀의 가슴이 너무도 졸아붙어있었던것이다. 어떻게든 이밤으로 박상열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에 처녀는 총각애가 문을 닫고 들어간 뒤에도 한참동안이나 마당가에서 서성거렸다.

가랑비는 여전히 지꿎게 내리고있었다. 하지만 이미 온몸이 호졸곤히 젖어있었던지라 처녀는 굳이 비를 그을념을 안했다. 그렇게 반시간가량 기다렸을 때였다. 어둠속에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가까와오더니 우산을 든 사나이 하나가 비청걸음을 하며 마당으로 들어서는것이였다. 어지간히 취한 모습이였다. 사나이의 코노래가 귀에 익어 가만히 들어보니 리선생에게서 몇번인가 들었던 《아리랑》이라는 조선민요였다.

속이 후두둑 떨렸다. 마침내 집주인이 나타났다는것을 처녀는 육감으로 알아차렸다. 히사꼬는 긴장에서 오는 경련을 느끼며 총총히 사나이앞으로 나섰다.

《저, 실례지만 박상열선생님이 아니십니까?》

《뉘시오?》

거나한 목소리와 함께 우산이 제껴졌다.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에 사나이의 모습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오달진 자태, 동그란 얼굴, 테가 굵은 안경속에서 깜빡거리는 자그마한 눈… 틀림없이 협

회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였다. 얼근해진 눈길로 처녀를 건너다보던 사나이도 어리벙벙해서 중얼거린다.

《엉? 히사꼬양이 여길 어떻게?》

한순간에 취기가 사라져버리는듯 기우뚱거리던 사나이의 몸이 말뚝처럼 꼿꼿해졌다.

히사꼬는 선뜻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맴돌아치던 무수한 말들이 한꺼번에 솟구쳐올라 목을 꽉 메웠던것이다. 얼마후에야 히사꼬는 불덩이 같은것을 간신히 삼키고나서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한가지 묻고싶은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박상열은 비에 흠뻑 젖은 처녀를 아연히 바라보았다. 처녀의 돌발적인 출현에 저으기 놀란듯 불안한 기색이 그의 얼굴에 력연히 떠돌고있었다. 히사꼬가 떨리는 목소리로 가슴속에서 태질하던 의문을 쏟아놓았다.

《박선생님이 오사까에서… 리선생님을 테로했다는게… 그 말이 사실입니까?》

울대뼈가 꿀꺽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등골이 서늘해질만큼 올곧은 그 물음에 박상열은 그만 얼나간 사람모양이 되고말았다. 히사꼬가 조바심을 치며 뒤를 달았다.

《제발 성내지 말아주세요. 저도 가루베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친구분들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전 단지 박선생님에게서 직접 확인하고싶었을뿐입니다. 선생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가루베씨가 제게 거짓말을 한게 틀림없지요?》

부디 그렇다고 대답해달라는듯 애원에 찬 처녀의 두눈이 박상열을 지켜보고있었다. 불안과 초조로 타드는, 그러면서도 인간의 도의와 량심을 믿는 선명한 눈빛이였다. 처녀의 그 눈빛을 마주보기

가 힘겨웠던지 상열은 고개를 돌려버리고말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우산이 맥없이 내리워졌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부슬부슬 비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오는데 이윽고 고통에 짓눌리운듯 한 사나이의 허굳은 소리가 울려왔다.

《가루베의 말은 사실이요.》

《?》

히사꼬의 눈길이 허공에서 얼어붙어버렸다. 사실이라니?… 그럼 정말로 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해치려 했단 말인가? 어떻게 그럴수가… 혹 취중에 헛말을 하는건 아닐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한동안 멍해있던 히사꼬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조이며 박상열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말씀인지… 선생님이 리선생님의 일을 방해했다는게 사실이란 말씀입니까? 그래서 리선생님이 향악보를 찾아오지 못했다는게 사실인가 말입니다?!》

히사꼬의 두눈에서 흥분의 물기가 바르르 떨었다. 박상열이 그만하라고 맥빠진 손짓을 했다. 그의 얼굴은 모진 동통을 참고있는듯 괴롭게 이그러져있었다. 처녀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거세게 한숨만 몰아쉬는 상열에게 히사꼬는 애타게 간청했다.

《아니, 그럴수 없습니다. 리선생님의 벗이라면 결코 그런분일수 없습니다. 선생님, 부탁합니다. 저에게 진실을 들려주세요!》

더 참기 힘들었던지 박상열은 버럭 화를 터뜨리고야말았다.

《제길할, 사실이 그렇다는데 왜 자꾸 사람을 못살게 구는거요?!》

취기때문이 아니였다. 히사꼬의 순진한 모습이 그의 마음속 가장 아픈 상처를 못견디게 건드려놓았던것이다. 상열은 분별을 잃고 쓰라린 고뇌를 마구 쏟아놓기 시작했다.

《그래그래, 모조리 다 사실이요. 내가 리경식의 뒤다리를 잡아당긴것도 사실이구 나때문에 그 사람이 향악보를 놓치구 피눈물을 흘린것도 다 사실이요! 친구들끼리 어떻게 그럴수 있는가구? 허허… 옳아, 우린 친구지간이지. 서로 붙안고싶지만 결국에 가선 갈라져야 할 슬픈 친구들이란 말이요! 이 세상엔 그런 친구들도 있다는 걸 히사꼬양 같은 일본처녀야 알턱이 없지. 허허허…》

박상열은 실성한 사람같이 넋없이 웃어댔다. 사나이의 눈구석이 번쩍거렸다. 마당에서 터져오른 고함소리를 듣고 집사람들이 달려나왔지만 박상열도 히사꼬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삭일길 없는 울분과 번뇌에 몸부림치듯 상열의 입에서 또다시 사나운 절규가 터져나왔다.

《날 경멸할테면 하라지. 어서 실컷 그러란 말이요! 히사꼬양의 눈에야 리경식이만 의로와보일테지? 하지만 천만에! 이 박상열이한테도 제나름의 뜻이 있고 도가 있소! 나한테도 렴치가 있고 량심이 있단 말이요!》

동가슴을 두드리며 이렇게 부르짖던 상열은 그만에야 입을 다물었다. 경악에 차서 자기를 쳐다보는 처녀의 눈길과 마주쳤던것이다. 히사꼬의 얼굴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하여 새파랗게 질려있었다. 불꼬리마냥 파들파들 떨리는 처녀의 눈빛에서 상열은 얼음보다 더 싸늘해진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였다. 인간의 진정을 롱락당한데서 오는 짓타는 혐오였고 환멸이였다.

그제서야 박상열은 리성을 되찾고 처녀에게 때늦은 사과를 했다.

《미안하오. 히사꼬양에겐 정말 볼낯이 없게 됐소. 언제건 꼭 한번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였소. 하지만… 하지만 그때로선 별도리가 없었더랬소.》

납덩이같이 무거워진 상열의 목소리였다.

히사꼬는 금시 무너져버릴것 같은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서있었다. 모든것이 엄연한 사실이였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억이 막히는 진실이였다. 결국 친구라는 사람때문에 향악보를 찾기 위해 고심분투해온 리선생의 모든 노력이 졸지에 물거품으로 되고만것이다. 더우기 그런 기막힌 일이 다름아닌 자기때문에 빚어졌다고 생각하니 처녀는 눈앞이 아뜩해졌다.

그러고보니 오사까에 다녀온 뒤로 리선생의 낯빛이 그리도 컴컴해있는 까닭을 알것 같았다.

(헌데 어째서 리선생님은 한마디도 내게 귀띔하시지 않았을가? 분명 모든걸 다 아셨을텐데… 정말 가루베의 말대로 더이상 날 믿지 않으시는걸가? 아니, 아니야! 절대로 그러실수 없어. 필경 내가 충격을 받을가봐 혼자서 모든걸 묵새기고계실거야.)

살을 에이는 후회의 아픔이 심장에 미쳐왔다. 그럴수록 눈앞에 서있는 박상열이란 사람이 더더욱 원망스러웠고 의아스럽기 그지없었다. 서로 붙안고싶지만 결국엔 갈라져야 할 친구들이라니? 그때로선 별도리가 없었다니 그건 무슨 뜻인가? 그때처럼 지금도 겉과 속이 다른 소리를 하고있는건가? 혐오감이 점점 더 짙게 서려오르는것을 느끼며 히사꼬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리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에게 리선생님의 친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족문화재를 찾자고 애쓰는 같은 동포라고 분명 그러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던분이 어째서 굳이 친구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까지 향악보를 찾는 일에 찬물을 끼얹어야만 했는지 전 정말 리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처녀의 말에 상열은 할 말을 못 찾고 거친 숨만 연방 내뿜었다. 시꺼멓게 질린 그의 얼굴이 푸들푸들 경련을 일으켰다. 얼마후 머리를 짓숙인채 침통하게 중얼거리는 상열의 말소리

가 들려왔다.

《히사꼬양은 일본사람이니 리해하기가 힘들거요. 우린… 우린 두동강이 난 민족이야. 제아무리 우정이 중하고 뜻이 통한들 뭘 하겠소. 국토분렬의 현실앞에서 어차피 남과 북으로 갈라서지 않으면 안되는게 우리 겨레의 서글픈 숙명이니까. 그 점에서 리경식이라고 나와 뭐 다른줄 아오. 흥, 내가 반쪽짜리듯이 그가 그토록 몸바치는 조국이나 민족도 따지고보면 반쪽에 불과하단 말이요.》

그러니 리선생이 총련계여서 등을 돌렸단 말인가. 히사꼬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수 없었다. 북과 남으로 갈라진 조선의 현실을 그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민족분렬의 서리찬 실상에 직접 부닥치고보니 가슴이 섬찍해왔다. 뿌리깊은 대결관념에 빠져 편협해질대로 편협해진 한 인간의 암둔성에 소름이 끼치는것을 어쩔 수 없었다.

히사꼬의 눈앞에 문득 리경식의 모습이 떠올랐다. 리선생이 북을 마음의 기둥으로 따르는것은 틀림없었다. 하지만 자기 겨레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리선생의 마음이 결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반쪽짜리가 아니라는것을 히사꼬는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리선생이 《민단》계동포인 박상열의 민족적량심에 대해 그리도 자랑스럽게 자기에게 들려줄수 있었으랴. 북과 남을 가리기 전에 민족전체의 리익부터 앞세우는 리선생이기에 향악보와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도 《민단》계동포에게 서슴없이 터놓을수 있었을것이다. 비단 제 민족에 한해서만 그런것이 아니였다. 인간의 지성과 량심을 사랑하고 인류공동의 문화재보를 존중할줄 아는 헌거로움에 감복해서 하또리 류따로 같은 명망있는 일본지식인들도 리선생과의 교제를 귀중히 여기고있지 않는가. 자기가 리선생을 존경하는것도 아마 웅심깊은 그 인간됨때

문일거라고 히사꼬는 생각했다.

그런 마음을 두고 함부로 반쪽이라고 비웃다니. 저도 모르게 처녀의 입에서 강개한 소리가 튀여나왔다.

《전 두분의 일에 대해서 다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리선생님이 평소에 박선생님에 대해 얼마나 소중한 감정을 품고계셨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협회에 찾아온 박선생님에게 향악보의 행방을 대드렸다는걸 알고 리선생님이 얼마나 반가와하신줄 압니까. 정말로 반쪽마음을 가지신분이라면 어떻게 그럴수 있겠습니까. 단언합니다. 리선생님의 마음속에서 선생님은 남쪽사람이기 전에 분명 피를 나눈 동족이였습니다. 그런분의 진정이 모욕당하는걸 보니 일본사람인 저로서도 분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처녀의 두눈에서 눈물이 가랑거렸다.

《히사꼬양.》

박상열의 입에서 맥빠진 파렬음마냥 새여나온 소리였다. 하건만 히사꼬에게는 상열의 그 부르짖음도, 허겁지겁 끼여들며 안주인이 만류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들려오는것은 고막을 울리는 심장의 성난 흐느낌소리뿐이였다. 처녀는 자신의 의지에 전혀 순응하지 않는 무서운 격정에 전률하며 박상열을 향해 의분의 불길을 날렸다.

《놀랍기만 합니다. 친구라는분이 어쩌면 그렇게도 리선생님을 모르실수 있습니까. 전 리선생님의 의로움을 믿습니다. 그의 지향과 량심을 존경하기에 그가 사랑하는걸 저도 사랑하고싶고 그가 타매하는걸 저도 타매합니다. 그런분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심장속에도 과연 뜨거운 피가 흐르고있을는지 전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인간의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이 무엇인지 보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한생토록 불신과 편견의 수렁속에

서 헤여나지 못할거야.)

처녀의 까만 두눈이 분노를 머금고 활활 불탔다.

《부탁입니다. 다시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리선생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히사꼬는 바람을 가르듯 새되게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번열을 토하듯 거칠게 헐떡거리는 박상열의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처녀는 그달음에 비내리는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리고말았다.

5. 샘물은 퍼낼수록 깨끗해진다

《어마나!》

예리한 아픔에 순분은 소스라쳐 놀랐다.

귀국하는 날 아이들에게 입힐 옷가지들을 손질하다가 얼결에 바늘로 손가락을 찔렀던것이다. 방안에서 놀던 수영이와 수남이가 엄마 손에서 피가 나온다고 울상이 되여 야단을 쳤다.

얼른 손끝에서 돋아나오는 피방울을 훔치며 아이들을 안심시킨 순분은 하던 일을 대충 거두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오늘 내가 왜 이럴가?)

순분은 한손으로 쿵쿵거리는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너무 힘든 하루였다. 종일토록 무거운 상념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날줄을 몰랐다. 무슨 일을 해도 손에 일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저자를 보고 돌아올 때에는 길을 헛갈려 왕청같은 골목에서 헤매기도 하였다.

창밖에서는 저무는 해의 치마자락이 서쪽하늘가를 맥없이 불태

우고있었다.

한동안 얼친 사람모양 멍하니 서있던 순분은 이윽해서야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차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늘 하던대로 곤로불을 지피고 밥솥에 물부터 잡았다. 그리고는 부엌의 서늘한 구석에 놔두었던 대바구니를 꺼냈다. 바구니안에는 물이 싱싱한 숭어 두마리가 얼음주머니우에 놓여있었다.

오사까에서 돌아온 남편의 모습은 여느때없이 수척해보였다. 눈확은 푹 꺼지고 마른 살갗이 얼굴에 덮였는데 입맛까지 잃었는지 때식도 굼때는둥마는둥하는것이였다. 그래서 오후에 일부러 어물전에 가서 사온 숭어였다.

순분은 숭어를 도마우에 올려놓고 손질하기 시작하였다.

고향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동강숭어소리를 빼놓지 않고 올리군하는 남편이였다. 달밝은 밤이면 대동강의 번뜩이는 수면우로 팔뚝만 한 숭어들이 쭐버덩쭐버덩 뛰여오른다는 이야기며 대동강숭어국이 어찌나 유명했던지 예로부터 평양에 다녀온 사람을 만나면 의례히 《숭어국맛이 좋든가?》고 첫 인사말을 건넸다는 이야기 그리고 원래 숭어국은 숭어토막을 찬물에 두고 통후추알과 함께 끓여야 제맛이 난다는 이야기들을 순분은 남편에게서 얼마나 익히 들어왔던가. 그처럼 두고 온 고향을 못 잊어하는 남편이였기에 밥그릇을 시원히 비우지 못하다가도 숭어국을 보면 어린애같이 좋아하며 식탁앞에 다가앉군 하였을것이다.

비늘을 깨끗이 벗기고나서 숭어를 보기 좋게 토막내기 시작하는데 방안에서 수영이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다.

《이건 대동강! 이건 모란봉!》

아이들이 아버지가 가져다준 《조선》화보를 들여다보는 모양이였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와서 인젠 수영이는 물론이고 다

섯살 난 수남이까지도 평양의 웬간한 명승지들은 척척 입에 올리는 정도이다.

구김살없는 아이들의 청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순분은 어렴풋이 웃었다. 하지만 웃을 때조차 그의 눈에서는 그늘이 사라질줄 모른다. 오늘 아침 남편이 집을 나서며 하던 말이 또다시 머리를 무겁게 내리눌렀다.

《여보, 당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귀국하는게 어떨가?》

처음에 순분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선뜻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귀국하라니?… 영문을 몰라 얼떠름해있는데 마른침을 넘기며 남편이 힘겹게 터놓는것이였다.

《실은 향악보를 아직 찾지 못했소.》

순분은 아연해서 남편을 쳐다보았다. 향악보를 못 찾았다는 남편의 말이 무거운 메아리를 일으키며 가슴속에 퍼져갔다. 애써 눈길을 피하는 남편의 컴컴해진 낯빛을 알아보는 순간 그는 남편이 진실을 말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럼 혼자 여기 떨어지고 나와 아이들만 먼저 가라는건가? 어쩜 그런 생각을…)

순분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져버렸다. 너무하다는 말이 혀끝에 매달려 파르르 떨었건만 노여움과 설음이 한데 뒤엉켜 목안을 꽉 메우는 바람에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안해의 그런 심정을 알기나 하는지 남편은 그리 알고 준비하라는 말을 남기고는 어디론가 나가버렸다. 문을 열고 나가는 남편의 등모습이 어찌 그리도 야속해보이던지. …

시뿌연 안개가 낀것처럼 눈앞이 흐려왔다. 이날이때껏 남편을 떠난 가정에 대해, 자기자신에 대해 상상조차 해본적이 없는 그였다. 이역살이의 모진 풍파를 헤쳐오면서도 두려운줄 몰랐던것이 무엇때

문이였던가.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앞날은 즐거울거라는 꿈을 늘쌍 간직해올수 있었던것이 과연 무엇때문이였던가. 다름아닌 언제나 곁에 남편이 있다는 믿음때문이 아니였던가.

그에게 있어서 남편은 의지할 기둥이였고 눈비를 막아주는 지붕이였으며 얼어든 몸을 녹여주는 온돌이였고 세상을 내다보는 마음의 창문이기도 하였다. 헌데 그런 남편과 별안간 기약없는 리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무서운 고독이 심장을 내리누르는것을 견딜수가 없었다.

그랬다. 기약하기 어려운 리별이였다. 인제 얼마나 더 시간과 품을 기울여야 향악보를 찾게 될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였다. 하건만 남편은 귀국날자가 박두한 오늘까지도 그 일에서 절대로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10년이고 20년이고 향악보를 찾을 때까지 그냥 여기서 헤매겠다는건가.

가슴이 떨렸다. 남편이 하는 일이 조국을 위한 일이라는것을 모르는 순분이 아니였다. 하지만 남편과 마찬가지로 조국을 위한 일이라면 고생도 락으로 여기는 동포들이 이 일본땅에 어디 한둘인가. 설사 남편이 이대로 떠난다 해도 그 일을 맡아나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것이다. 남편이야 지금껏 잃어버린 고국의 보물들을 되찾으려고 외진 길을 혼자 뛰여다니며 고생인들 좀 많이 해왔던가. 그런 수고를 잘 알기에 총련에서도 어서 귀국하라고 남편을 떠미는것이 아니랴. 헌데도 굳이 물러설념을 않으니 생각할수록 야속하게만 여겨졌다.

정말로 남편에게는 가족이 소중하지 않단 말인가. 여태껏 기둥으로 믿고 살아온 가장의 마음속에서 안해나 자식들은 고작 그 정도의 자리밖에 차지하고있지 못했었나 하는 의문까지 들자 순분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렇게 의혹과

실망, 외로움속에 모대긴 하루였다. …

《엄마, 물끓어요!》

부엌사이문을 열며 수영이가 떠들어서야 순분은 상념에서 깨여났다. 아닌게 아니라 어느새 밥솥에서 물끓는 소리가 요란스러운데 자욱한 김발이 부엌에 뽀야니 서려돌고있었다.

정신을 차린 순분은 서둘러 밥솥에 쌀을 안쳤다. 어머니의 그런 안색이 별스러워보였던지 수영이가 문설주곁에 오도카니 선채 움직일줄을 모른다.

《들어가 동생하구 놀아라.》

흔연한 낯빛을 애써 지으며 수영이를 들여보낸 순분은 손질을 끝낸 숭어토막들을 대접에 무드기 담아놓고나서 이번에는 도라지를 물에 불군 양은소랭이를 내놓았다. 그 도라지도 오늘 시장에 나가 사온것이였다. 집에서 차려주는 음식들가운데서 도라지생채를 제일로 꼽군 하는 남편이였다. 아마 도라지특식이 소문난 강원도내기여서인지 주부의 솜씨가 류별났던 모양이다.

순분은 물에 불구어 부근부근해진 도라지들을 굵직굵직하게 찢기 시작하였다. 그러느라니 오후에 겪은 일이 다시금 뇌리에 아프게 되살아나는것이였다.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였다. 남편생각에 골몰해서 길을 걷던 순분은 흥이 나서 주고받는 녀인들의 귀익은 목소리를 듣게 되였다.

《어유, 술이라문 역정부터 내시던 형님이 오늘은 웬 일이슈? 바깥어른 술심부름을 다 하시구.》

《그러기 말이네. 다른 때 같으문사 어림도 없는 일이지비. 하지만 제 나라 땅을 밟게 됐다구 그리두 좋아하는 령감을 보니까 요사인 암만 술을 찾아두 바가지 긁을 생각이 아이 난다이.》

《참 성님도 모르신당께. 왜 술심부름만 하신다는깁니껴. 뭐라뭐라해도 난 밤에 서방님하고 마주앉아 의좋게 술을 나누는 맛이 천하제일이지라오. 호호호…》

입을 싸쥐고 키득대는 웃음소리에 순분은 눈길을 들었다. 한동네에 사는 동포녀인들이 한발 먼저 반찬감을 사들고 앞서가고있었다. 눈여겨보니 자기네처럼 다들 귀국신청을 낸 집들이였다.

기쁨에 흥뜬 그들의 심정이 순분의 가슴에도 물결쳐왔다. 이역땅에서 함께 고생해온 이웃들이였다. 모진 차별과 설음, 생활고에 시달리느라 그늘이 가셔질줄 모르던 그들의 얼굴마다에 봄볕을 머금은듯 웃음꽃이 피여난것을 보니 순분의 마음도 자연 훈훈해졌다. 녀인들이 주고받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근데 이봅세 동생, 엊그저께 시삼촌이 왔댔다메?》

《에그ㅡ 성님, 말씀마시소. 한바탕 생야단을 치다가 갔지라오.》

《시삼촌이라문 북규슈에서 석탄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다는 그 삼촌말이유?》

《그렇지라오.》

《거참, 조카네가 총련계라구 발길 한번 안한다던 그 삼촌이 어째 별안간 뛰여와 야단합데?》

《우리가 공화국으로 간당께 그랬지라오. 글쎄 시삼촌말이 <느네들 철없어서 그런당께. 왜정때 내가 벌이하러 가봐서 아는데 북쪽은 맨 산이구 맨 돌뿐이드라. 겨울에 밖에 나가서 침얼 뱉으문 얼음덩이가 돼서 눈우에 떨어지구 오줌얼 누문 대번에 얼음줄기가 따라올라오는데랑께. 곡식이 제대루 될끄나 과수가 제대루 될끄나. 더군다나 전쟁때 미군이 깡그리 폭격해놔서 재더미만 남았다는 소릴 느네두 들었제? 그런 곳에 뿌득뿌득 찾아가선 어쩔끄나?> 하면서 당장 귀국신청을 취소하라는게라오.》

《기차라. 대체 시삼촌은 무시기 쏴놔서 그리두 삐뚤어진 소릴 합데?》

《말로는 우리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지만 딴은 그게 아니지라오. 시삼촌이 이남과 거래가 많다더니만 조카네가 북으로 갔다는 소문이 나면 장사에 지장이 있을가봐서 그런다는걸 우리가 왜 모르겠십니껴. 암만 지청구를 해도 주인이랑 내랑 끄떡도 하질 않으니깨 시삼촌이 이번엔 우리 영호를 얼리는게라오. 귀국선 타지 않고 일본에 남겠다면 인제부터 학비랑 용돈이랑 자기가 전적으로 대주겠다는둥 래일 당장 하꼬네산에 놀러 가자는둥 대학공부꺼지 시켜주고 승용차랑 사주겠다는둥… 에그나? 우리가 고생고생할 땐 본체도 않던 시삼촌이 어찌나 달짝지근한 말들을 쫘르르 쏟아놓던지 귀가 다 간지럽더랑께.》

《그래 영호가 뭐랬수?》

《글쎄나 난 깜짝 놀랐당께. 이제사 아홉살밖에 안되는 녀석이 고렇게 올차게 댑변할줄은 참말 몰랐서라오. 시삼촌이 하도 다그어대니깨 우리 영호가 댑변하기를 <작은할압시, 우리 걱정은 마십시오. 조국에 가면 돈 한푼 받지 않고 중학공부도 시켜주고 대학공부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새 집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서빨리 **김일성**원수님의 품에 안겨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러는게라오.》

《원, 녀석두…》

《그녀석 속시원히 말 잘했다이!》

《아닌게 아니라 영호말을 들으니깨 눈물이 팍 쏟아질것 같더랑께. 여적 철따구니없는줄만 알았던 아들자식한테서 그런 말을 듣게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서라오. 어찌나 대견스럽던지 내 자식같아보이지 않더랑께요. 참말 우리 학교에서 배운 힘이 그렇게꺼지 클줄

은 생각도 못했서라오. …》

이웃들의 목소리에서는 구김새 한점 없는 생기가 풍겨왔다. 순분의 유순한 얼굴에 웃음이 피여났다. 불쑥 그들과 어울려 웃고 얘기하고싶은 충동이 갈마들었다. 잠시나마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자랑거리를 함께 들어주면서 만단시름을 털어버리고싶었다. 순분의 발걸음이 이웃들을 향해 절로 빨라졌다. 그러는데 어눌한 말씨로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느닷없이 귀전에 후벼들었다.

《헌데 참 형님, 거… 수영이네 얘기 못 들으셨어유?》

《무스거?》

《듣자니깐 수영이 아부지가 자길 이번 귀국명단에서 빼달라구 그랬다나봐유.》

《왕청같이 무슨 소린기오. 귀국할 때 남편 입힌다고 수영이 엄마가 새 양복꺼지 사오는걸 요전날 내가 봤당께로.》

《아무튼 수영이 아부지가 처자식들을 이번에 먼저 보내구 자긴 나중에 따라가겠다구 그랬다던데유.》

《저런…》

순분은 불에 덴것처럼 흠칫 놀라며 걸음을 멈춰버리고말았다. 이웃들이 자기 집 소리를 하고있었던것이다. 당황한 나머지 몸둘 곳을 몰라하는데 그런줄도 모르고 아낙네들은 계속해서 수군대며 가고있었다.

《정말 알다가두 모를게 남정들 속이라니깐. 혹시 그 집주인이 딴맘을 먹은건 아닐가유?》

《에그머니나, 설마하니 수영이 아버지가 아무렴…》

《그러지 않구서야 어쩌문 졸지에 처자식들과 떨어지겠다는 말을 꺼낸단 말이유?》

《하긴 남자들 소가지는 구렝이 한가지랑께.》

《쯧쯧, 입방아들일랑 그만 찧구 날래 가기나 합세.》

쥐여박는듯 한 북관사투리에 수군대던 목소리들은 움츠러들고말았다.

순분은 낯빛이 해쓱하니 질린채 한자리에 얼어붙어있었다. 녀인들의 구설에 남편이 오르는 순간 날카로운 고통이 온몸에 굽이쳐 흐르고 홀연 눈물이 눈까풀을 아프게 찌르며 두볼로 주르르 흘러내리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숨이 막히는것 같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금시 새여나올것만 같은 울음소리를 간신히 참고있었다. …

그 일을 생각하느라니 다시금 설음 같은것이 치밀어올라 숨이 가빠왔다. 순분은 싸늘해진 손으로 맥없이 도라지를 찢으며 이웃들이 수군거리던 소리를 몇번이고 곱씹어보았다.

(정말 수영이 아버지가 딴마음을 먹은걸가?)

이런 물음을 던져볼 때마다 그는 세차게 도리를 흔들군 하였다. 아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다. 하늘이 무너져도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였다.

몇해전 남편이 조선문화재를 손에 넣으려고 혼자 사는 어느 일본녀인의 집에 여러번 찾아갔던적이 있었다. 그 일을 두고 주변에서 《과부와 뜨거운 사이》라는 소문이 나돌 때에도 순분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남편을 잘 알고있었다. 비록 아기자기한 잔정을 모르는 툭한 성미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을 품고 사는 남편의 웅심깊은 사람됨을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그는 남편을 굳게 믿고있었다.

이 시각 순분이 괴로워하는것은 결코 남편에 대한 평소의 믿음이 흔들려서가 아니였다. 그처럼 믿는 남편이 남들의 말밥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자기와 자식들이 소견머리 좁은 사람들의 눈에 가장한테 버림받은 외로운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그것이 분

하고 서러워서였다. 또 그럴수록 한마디 의논도 없이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짐을 떠맡긴 남편의 처사가 더더욱 야속하고 무정하게 여겨져서였다. 순분은 쓰리고 허영거리는 자기의 심정을 남편에게 하소연하고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저녁차비를 마쳤을 때까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밥상을 차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가장을 기다리던 순분은 밤이 깊어지자 애들에게 먼저 저녁을 먹이고 혼자서 남편을 계속 기다렸다.

어느덧 벽시계가 아홉점을 쳤다.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이제나저제나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순분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어둠이 무겁게 드리운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금껏 남편이 늦게 들어온적이 한두번이 아니였건만 오늘따라 왜 이리도 별스럽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알수 없었다.

순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다가갔다. 집앞에 난 골목길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부나비 한마리가 불빛이 얼비치는 창유리를 안타까이 두드리고있었다. 어둠속 어디서 길잃은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구구구 들려온다.

불안스러운 긴숨을 조용히 쏟으며 순분은 창문너머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스라한 별들이 도시의 색날은 밤하늘에서 어슴푸레 빛을 뿌리고있었다. 습하고 뿌연 대기를 넘어 먼 동네의 등불들인양 가물거리는 별빛들을 쳐다보느라니 차츰 마음이 고즈넉해지고 까닭모를 그리움이 느껴졌다.

문득 남편과 함께 겪어온 나날들이 추억의 물이랑을 타고 눈앞에 어른거렸다. 고생스러웠던 세월이였다. 그래도 남편이 곁에 있어 꿈과 힘을 잃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였다.

순분은 어둠이 비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채 지나간 나날들을

돌이켜보았다.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처음 살던 빈민촌 막바지골목의 판자집이 떠오른다. 누비돗자리 두장을 깐 새둥지같은 단칸방에 세간이라야 옷가지며 살림붙이들을 건사하는 귤상자 두개와 그우에 동그마니 얹혀있는 이불 두채 그리고 자그마한 사각밥상과 앉은뱅이화로가 전부였었다. 비가 좀 오면 방바닥에 소랭이 같은것을 받쳐놔야 했고 바람이 세지면 밖에 나가 천막을 치듯 네 기둥을 비끄러매야 하는 집이였다. 그렇게 가난에 덜미잡혀 시작한 살림이였어도 거기에는 뙤창에 돋은 별들을 세여보며 앞날을 함께 그려보던 꿈이 있었고 서로의 고단한 심사를 정을 얹은 말 한마디로 나누어갖던 따뜻한 위로가 있었다.

허나 생활은 험난했다. 그들부부는 매일매일 끝없는 파도처럼 밀려드는 곤궁과 싸워야 했다. 남편이 수레를 끌고 고물행상에 나서면 순분은 삯빨래감들을 얻으러 나섰고 남편이 어뜩새벽부터 생선을 팔러 뛰여다닐 때 안해도 골목골목을 헤매다니며 콩나물을 팔았다. 때로는 둘이 함께 옛 토목공사장에 가서 온종일 땅을 파헤치며 파철을 긁어모으기도 하였다.

손부리가 모지라지도록 아득바득했지만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면서 다달이 덮씌워지는 방세며 물세, 전기세 같은것들을 감당해나가기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였다. 아이들이 태여나자 짐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들은 한푼한푼을 쪼개서 써야 했고 시장에서 무우를 살 때에도 옹근 한개를 살 돈이 없어 세등분으로 나눈 한토막을 사지 않으면 안되였다. 먹는것도 점심은 번지다싶이 하고 아침 저녁으로만 까만 보리밥에 절임무우 몇쪼각으로 때식을 굼때는것이 례사였다.

그런 속에서도 남편은 조상의 유물을 찾는 일이라면 만사를 제

쳐놓군 하는것이였다.

한번은 고물을 모으러 다니던 남편이 이사짐을 싸는 집과 맞다들게 되였는데 어지간히 해묵은 집이였던지 내버리는 물건들을 다 모아놓으니 자그만치 세 달구지분이나 되였다. 남편은 그 물건들을 되팔아 적지 않은 돈을 손에 넣을수가 있었다. 그날 남편이 내놓는 돈을 보는 순간 순분은 숨이 나갔다. 그만한 량이면 밀렸던 집세를 무는것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숨을 돌릴수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기뻐하는 빛을 감추지 못하는 안해를 바라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남편은 요긴한데 쓸데가 있어 그러니 그 돈을 먼저 쓰는게 어떤가고 묻는것이 아닌가. 순분이 영문을 몰라하는데 어느새 양복을 갈아입은 남편이 내놓았던 돈을 품안에 다시 걷어넣고 어디론가 바삐 나가는것이였다.

남편은 퍼그나 밤이 깊어서야 종이두루마리 같은것을 손에 들고 돌아왔다. 희색이 만면해서 남편이 그것을 펼쳐보였을 때 순분은 그만 어안이 벙벙해지고말았다. 뜻밖에도 색이 바랜 옛날 그림이였던것이다. 남편의 설명을 듣고서야 순분은 그것이 해방전 일본인들이 빼내간 조선의 옛 그림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드디여 찾아왔거던. 이 그림을 찾지 못해 내가 얼마나 속을 앓았는지 아오.》

양복소매에 먼지가 묻는것도 아랑곳없이 그림족자를 어루더듬고 또 어루더듬던 남편은 한참만에 퍽 미안쩍어하며 건사해둔 돈이 있으면 좀 내놓으라고 사정조로 이르는것이였다. 아무래도 족자를 새로 표구해야겠다는것이였다.

순분은 기가 막혀 무슨 말을 할수가 없었다. 그림 한장때문에 요행 들어온 묵돈을 가뭇없이 날려보내고도 모자라 집에 남아있는 얼마 안되는 돈까지 마저 내놓으라고 하니 도대체 생각이 있기나

한건가? 하루가 멀다하게 들볶아대는 빚단련도, 날마다 호구지책에 쫓겨 살아야 하는 숨가쁜 처지도 그 시각 남편의 안중에는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열백번 더 안된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아쳤지만 그림을 얻고 그렇게도 좋아하는 남편의 들뜬 기분에 차마 찬물을 끼얹을 용기가 나지 않아 순분은 그날 푼전을 아껴가며 모아두었던 돈까지 고스란히 내놓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였다. 정말 모를 일이였다. 고국의 문화재와 관계된 일이라면 가정을 돌보는것도 잊고 억척스럽게 달라붙는 남편의 진속이 무엇인지, 고심겹게 찾던 문화재를 손에 넣으면 온밤 들여다보고 쓸어보며 뜬눈으로 지새우는 그 심정이 과연 어떤것인지 순분으로서는 처음에 선뜻 알수가 없었다.

한해두해 세월이 흘러서야 그는 차츰 남편을 리해하기 시작하였다. 부모형제없이 혈혈단신으로 살아온 순분에게 남편은 조국을 알게 해주었다. 순분은 남편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역만리에까지 와닿는 어버이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나날에 자기에게 친정어머니처럼 의지하고 따를 조국의 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사람들에게는 조국앞에 지켜야 할 중한 도리가 있다는것을 배우게 되였다.

그러고나니 처자식들을 먹여살리기도 바쁜 형편이건만 그토록 주저없이 문화재들을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것 같았다.

돈에 의해 사람의 금새가 매겨지는 일본땅에서 비록 고물수레를 끌어도 뜻을 세우고 당당히 살아가는 남편이 순분에게는 저으기 어려우면서도 한편 자랑스럽게 여겨졌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의 그 의로움과 떳떳함에 그늘을 남기고싶지 않았다. 순분은 남편의 뜻을 따르는 길이 안해된 본분이고 조국의 품에 부끄럽지 않게

안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말없이 집살림을 혼자서 지탱해나갔다.

녀자의 몸으로 그렇게 한다는것이 얼마나 힘에 겨웠던가.

식구들을 먹여살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았다. 아라강에 나가 자갈을 춰내기도 하고 파솜이나 파천을 주어다가 솜을 튀기고 실을 뽑기도 하였으며 손달구지를 끌고 교외농촌에 가서 고구마며 참대순 같은것들을 넘겨받아와 팔기도 하였다. 공장지구에 쌓인 탄재더미들을 헤치며 타다 남은 석탄덩이들을 줏느라 남자인지 녀자인지 분간 못할 지경으로 탄가루를 뒤집어쓴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밤에는 또 밤대로 졸음을 깨물며 삯바느질을 하였다.

그렇게 모지락스럽게 번 돈으로 쌀 한봉지를 사들거나 련탄 서너장을 새끼에 꿰여들고 땅거미속에 긴 그림자를 끌며 집으로 돌아올 때면 두다리가 휘청거리고 온 누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것 같았다. 그래도 마음만은 개운했다. 자기가 애를 쓸수록 남편의 일이 잘되고 아이들이 주눅 안 들고 자란다는 보람이 있어 삶은 고되였어도 순분은 즐겨 살았다. 그런 그들부부의 모습을 보며 이웃들도 《찰떡궁합》이라고 부러워들 하였다.

하지만 서럽고 가슴아픈 일들도 있었다.

수남이가 돌을 갓 넘겼을 때였다. 탈없이 잘 자라던 아이가 코물을 좀 흘리는것 같더니 갑자기 폐염으로 넘어갔다. 아이들의 병은 시각을 다투는 법이다. 불덩이같이 달아오른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니 당장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것이였다.

눈앞이 새까매졌다. 남편은 문화재일로 규슈에 나가있었는데 수중에는 입원비를 치를만 한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전에 남편이 옛날 사찰에서 쓰던 향로(향불을 피우는 작은 화로)를 찾아온다면서 집안의 돈을 다 걷어내갔던것이다. 어찌할지 몰라 허둥지둥하던 순분은 창황중에 집으로 달려와 남편이 얼마전에 찾아온 향

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크기가 한뽐정도 되는 자그마한 놋향로였는데 하늘을 쳐다보며 서있는 원앙새의 모양을 신통히 본딴것이였다.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순분은 향로를 싸들고 병원으로 달려가 입원비대신 내놓았다. 향로를 찬찬히 눈여겨보고난 일본인의사는 입이 헤벌어져서 수남이를 쾌히 입원시켰다. 그리고는 갖은 왼심을 다 써가며 특별히 돌봐주는것이였다. 결국 아들은 무사할수 있었다. 남편이 제 살점보다 더 중히 여기는 유물에 상론없이 손을 댄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무튼 자식을 살려냈다고 생각하니 어느정도 위안이 되였다.

그런데 며칠후 집에 돌아온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벼락치듯 노성을 지르는것이 아닌가.

《당신 제정신이요? 어디다 함부로 손을 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남편을 본적이 없었다. 순분은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하였으나 입술이 떨려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저이가 정말 아이들의 아버지가 옳긴 옳은가? 어쩜 저리도 무정하실수 있을가? 옛날 물건들이 암만 중해도 어떻게 자식보다야 더 중할수 있담?

억이 막혔다. 참을길 없는 서러움이 그의 목을 내리눌렀다.

남편이 그처럼 애지중지하는 물건들이 조국으로 보내야 할 귀한 보물들이라는것을 몰라서가 아니였다. 허나 처자식들이 있고서야 보물도 있고 애국사업도 있는게 아니랴. 과연 저이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모든것을 견디여나가는 녀자의 수고를 하다못해 절반만이라도 헤아리실가? 자식들에게 빵 한개 변변히 못 사먹이던 그 쓰라림과 식구들의 밥그릇에 자기 밥을 덧얹어주고는 랭수 한사발로 빈 배를 채우며 도슬러먹던 그 강심을, 탄가루와 땀에 얼룩진

여윈 뺨을 비추어보며 세수물우에 떨구던 그 눈물을 저이가 어떻게 다 알랴.

순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나가는것만 같았다. 남편이 시꺼멓게 질린 낯빛으로 어디론가 나가버리자 순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면서 세차게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시집을 온 이후 그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인것 같았다. 가슴속에 응어리져있던 설음과 고뇌, 남편에 대한 고까움이 일시에 탕수마냥 터져흐르는것을 걷잡을수가 없었다.

지금껏 그가 단 한번이라도 남편에게 매여달린적이 있었던가. 안타깝고 고달파도 탓하거나 군소리 한마디 없이 홀로 모든것을 감당해오지 않았던가. 남편이 모아들인 문화재를 한두점만 내다 팔아도 궁색한 처지는 면할수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건만 그런 미련은 꼬물만치도 둔적이 없었다. 남편의 피땀이상 소중한것이 순분에게는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렇지만 자식들의 운명이야 어찌 외면할수 있단 말인가. 무정했다. 그저 오직 문화재 하나밖에 안중에 없는 남편이 너무도 무정스러워 순분은 하염없이 흐느껴울고 또 울었다.

그날 남편은 밤이 늦도록 들어올줄을 몰랐다. 때로는 마음속으로 항변도 해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문설주에 기대앉아 남편을 기다리던 순분은 그만에야 지쳐버려 혼곤히 잠들고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지. … 잠결에 어깨를 껴안는 더운 손길을 느끼며 순분은 눈을 떴다.

남편이였다. 숨가삐 뛰여다니며 향로를 되찾아온 남편이 곁에 앉아 안해의 어깨를 어루쓸고있었다.

《내가 너무했소. 모든게 다 내탓이요. …》

남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있었다. 목이 콱 메여왔다. 무엇을 더 바라랴. 남편의 투박한 말속에 안해가 바라는 그 모든 애정과

위로가 다 들어있는데야. 행복이라는게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일가. 순분은 드세차고 열렬한 힘의 사품에 끌리워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말았다. …

지나온 나날을 더듬는 순분의 눈가에는 호젓한 미소가 떠돌고있었다. 되돌아보면 남편과 같이 살아오면서 눈물도 많았고 속타는 일도 많았었다. 그러면서도 괴롭고 힘겨울 때마다 제일먼저 떠오르던 사람은 다름아닌 남편이 아니였던가. 땅속깊은 곳에서 뿜어오르는 지열마냥 진실하고 웅심깊은 남편의 애정을 굳게 믿었기에 순분은 남편을 위해 모든것을 기꺼이 바쳤고 남편이 확신에 넘쳐 이야기해주는 래일의 생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마침내 귀국의 배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부부의 환희는 얼마나 컸던가. 설음많은 이국살이와 작별하고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는 열뜬 행복감에 겨워 순분은 밤이 지새도록 남편과 기쁨을 나누고 또 나누지 않았던가. 그런데 막상 귀국을 눈앞에 둔 지금에 와서 뜻밖에도 남편과 떨어지게 될줄이야 어이 상상이나 했으랴.

허전해진 순분의 가슴속에 외로움과 쓸쓸함이 또다시 밀려들었다. 일찌기 부모형제를 잃고 낯설은 이역의 골목골목을 홀로 헤매던 그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것은 외로움이였고 그래서 더더욱 남편은 소중했다. 아무리 험한 가시밭길이라도 남편과 함께라면 견디여낼 자신이 있었지만 남편이 곁에 없다면 평탄한 큰길이라도 혼자 걸을 자신이 없었다. 그런 심정을 남편은 한번이라도 생각해봤을가?

순분은 두손으로 볼을 싸쥐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였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불현듯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걸음걸음 눌러딛는듯 한, 힘과

묵직함이 느껴지는 소리였다. 순분은 눈앞에 드리운 머리카락을 성급히 밀어내며 어둠속을 내다보았다.

남편의 낯익은 자태가 뜨락에 들어서고있었다. 그 순간 반가운 생각부터 앞서 순분은 서둘러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다.

《아직 자지 않소?》

이렇게 물으며 방안에 들어서는 남편에게서 습관된 체취가 뭉클 안겨왔다. 순분은 달아오르는 얼굴을 숙이며 대답을 피하고는 얼른 부엌으로 내려가 밥과 국을 다시 덥혔다. 얼마후 저녁을 차려들고 방에 들어가니 남편은 아이들의 자는 모양을 들여다보며 묵묵히 앉아있는것이였다. 순분은 그러는 남편을 밥상으로 불렀다.

《시장하실텐데 어서 드세요.》

남편이 밥상앞에 나앉자 순분은 뽀야니 뜬김이 서린 남비뚜껑을 열었다. 물씬 김을 뿜는 숭어국이 푸짐하고 맛갈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남편은 눈이 둥그래졌다.

《갑자기 웬 일이요? 숭어국에 도라지생채라… 게다가 술까지?》

순분이 남편앞에 남비를 가져다놓으며 말했다.

《요새 많이 상하신것 같은데 오늘은 좀 푹 쉬세요.》

그리고는 주전자에 데운 소주를 한잔 따라서 남편에게 권했다.

《헌데 당신 밥은 왜 보이지 않소?》

훈훈해진 기색으로 술잔을 받아들던 남편이 의아해서 묻는 말이였다. 별로 밥생각이 없어 순분이 먼저 먹었다고 얼버무렸지만 남편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지 말구 어서 저녁을 가져오오. 당신 언제 나보다 먼저 저녁을 든적이 있더랬소?》

별수없이 순분은 자기 밥그릇을 가져오지 않을수 없었다. 남편은 안해에게 숭어국까지 듬뿍 덜어주고나서야 술잔을 들었다. 그

러는 남편의 떼꾼해진 눈이며 터갈린 입술이 순분의 눈에 아프게 미쳐왔다. 가슴이 저려났다. 정작 그런 모습을 대하니 방금전까지 마음속에서 고패치던 원망어린 말들은 뒤로 물러나고 대신 남편에 대한 측은한 생각이 밀려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순분은 숭어국을 달게 드는 남편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기만 하였다. 그러는데 불쑥 남편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묻는다.

《귀국할 차비는 다됐소?》

가슴이 흠칫했다. 홀연 아픈 곳을 찔리운 순분은 숨을 죽이며 황황히 눈길을 떨구었다. 남편도 안해의 속마음을 읽었는지 이윽토록 말이 없다가 숟가락을 멈추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는것이였다.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오. 늘 당신한테 고생만 시키누만.》

순분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가까스로 억누르고있던 서러움과 하소연들이 금시라도 남편앞에서 터져나올것만 같았다.

(저이는 내 마음을 다 아셔. 알면서두 고지식한 성미때문에 저러시는거야. 필경 저인 그 책을 찾기 전엔 절대로 여길 떠나려 하지 않으실테지.)

불시에 순분의 심장이 남편을 붙잡아야 한다고 울보채며 아프게 들뛰기 시작하였다. 여직껏 남편에게 온넋을 의지하고 남편의 뜻을 고스란히 따르기만 해온 그였다. 그러나 이 순간만은, 다만 이 순간만은 남편을 향해 《안돼요!》라고 도리를 치고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남편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얄망궂은 위구심이 온몸을 사정없이 짓태웠다.

얼굴을 숙이고 손가락으로 애꿎은 방바닥만 안타까이 허비던 순분은 마침내 주저주저하며 남편에게 말을 떼였다.

《저어… 묻고싶은게 있는데…》

《?…》

남편이 눈길을 들어 안해를 바라본다. 잠시 망설이던 순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여나왔다.

《혹시… 우리가 싫어지신건 아닌가요?》

《엉?》

너무도 뜻밖의 소리였던지 남편은 대번에 덩둘해지고말았다. 순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떻게 말도 안되는 그런 소리가 자기 입에서 서슴없이 튀여나올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놀라웠다. 수다스러운 이웃들에 대한 반발심에서였던가 아니면 무정한 남편에 대한 토라진 마음에서였던가. 아무래도 좋았다. 이왕 입을 연바엔 남편앞에서 마음속 고통을 죄다 쏟아놓고싶었다. 울고 강짜를 해서라도 남편을 붙들고싶었다. 순분은 난생처음 남편에게 엇서려는 자기를 느끼고 부끄러워하면서도 다잡기 힘든 충동에 떠밀리워 도담하게 뒤말을 이었다.

《혹시나 딴맘이 계시거든 속시원히 얘기해주세요. 그럼 제 속이 이렇게까지 타진…》

순분의 말끝이 울음기에 잠겨 흐트러지고말았다. 남편은 서러움과 노여움에 해쓱하니 질린 안해의 모습을 어리벙벙해서 바라보다가 어이없는듯 허거프게 웃었다.

《허허 참, 그러니 내가 딴살림이라도 차리려구 그러는것 같다는거요? 허허허…》

남편의 웃음소리는 한동안 그칠줄 몰랐다. 그러던 남편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술을 한잔 부어 순분에게 권하는것이였다.

《자, 오늘은 당신도 한잔 내오.》

순분은 당황했다. 아직까지 술이라는것을 한번도 입에 대보지 못한 그였다. 못한다고 거듭 도리질했건만 남편이 하도 권하는 바람

에 순분은 어쩔수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술을 먹으면 마음이 커진다지. 이 술 한잔으로 시름을 모두 가실수만 있다면, 이 술 한잔으로 남편의 마음을 돌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싶어 순분은 머밋머밋 술 한모금을 억지로 넘겼다. 대번에 얼굴이 홧홧 달고 숨이 차올랐다. 순분이 힘들어하는것을 보고 남편이 얼른 술잔을 넘겨받았다.

《역시 당신은 안되겠구만.》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남은 술을 단숨에 들더니 너누룩하고 애정깊은 어조로 안해에게 진정을 터놓았다.

《여보, 내겐 당신이상 소중한 사람이 없소. 당신과 아이들 없이 내가 어떻게 살수 있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분은 눈물이 왈칵 솟구쳐올랐다. 툭하고 말이 적은 남편에게서 그런 고백을 들어보기는 처음이였던것이다. 남편의 꾸밈없는 고백은 삽시에 알콜처럼 피줄을 타고 퍼져 번민으로 모대기던 그 녀자의 마음속에 눈물겹도록 감동의 파문을 일으켰다. 순분은 터져나오는 목멘 울음소리를 간신히 누르며 남편의 그 진정에 정신없이 매여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수영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날이때껏 수영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군말없이 따르려고 애썼어요. 헌데 수영이 아버지, 이번만은 제 말을 들어주시면 안되겠어요? 함께 귀국해요. 수영이 아버지와 떨어져서 우리끼리 아무리 락을 본들 어떻게 발편잠을 잘수 있겠어요.》

끝끝내 흐느낌소리가 튀여나왔다. 순분은 고개를 떨군채 입술을 물어 흐느낌소리를 죽여가며 서럽게 울었다. 우두커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도 침침해졌다.

안해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흐느낌소리와 뒤섞여 계속 들려왔다.

《수영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라고 왜 모르겠나요. 하지만 수영이 아버지야 여태 조국을 위해서 할수 있는껏 다하시지 않았어요. 수영이 아버지가 어디 먹고 남아서 그 일을 해오셨나요. 그렇다구 우리한테 애국사업을 하라구 따로 돈을 보태준 사람도 없지 않나요. 수영이 아버지가 남들보다 못 먹구 못 입으면서두 조국을 위해 애써오셨다는걸 누군들 모르겠어요. 그런걸 잘 알기에 총련에서도 우리더러 어서 귀국하라구 등을 떠미는게 아니겠어요. … 정말이지 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총련도 있고 동포들도 많은데 왜 부디 수영이 아버지 혼자서 마지막까지 애쓰셔야 하는건지… 제발 부탁이예요. 이번만이라도 저와 아이들생각을 좀 해주세요.》

순분은 타는듯 한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러는 안해를 마주보기가 헐치 않았던지 남편의 눈길이 은신처를 찾듯 향방없이 허둥거렸다. 긴 침묵이 흘렀다. 도간도간 새여나오는 안해의 흐느낌소리를 들으며 돌덩이마냥 굳어져있던 남편은 한참만에야 혼자소리를 하듯 중얼거리는것이였다.

《하긴 내가 아니라도 그 일을 맡아할 사람이야 있겠지. 총련조직에 제기하면 자금문제도 지금보다 수월하게 풀수 있을거구. 아마 내가 가족과 함께 래일 당장 귀국한다 해도 굳이 탓할 사람은 없을게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츰 무거워졌다.

《아닌게 아니라 나도 당신처럼 생각한적이 있더랬소. 그래도 나야 지금껏 조국을 위해 애써오지 않았던가, 그러니 응당 남먼저 귀국할 자격이 있다 하고 말이요. 헌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생각한 나자신이 철부지로밖에 여겨지지 않더구만.》

순분의 속이 거문고줄처럼 떨려왔다. 마침내 남편이 그렇게 듣고싶었던 진심을 터놓으려 한다는 예감에 가슴이 조여들었던것이다.

그는 온몸을 옥조이며 웅글게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생각 좀 해보오.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생각을 한다 해도 어찌 자식들을 걱정하는 부모마음에야 비길수 있겠소?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라고 조국에서 보내주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만 놓고봐도 그렇지. 아마 당신은 다 모를게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불현듯 남편이 더운 숨을 몰아쉰다. 그리고는 흥분어린 어조로 이야기를 계속해나갔다.

《몇해전 정월에 평양에선 수령님의 지도밑에 그해 국가예산초안을 토의하는 내각회의가 열렸댔다오. 아침에 시작된 회의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였다더군. 오랜 시간동안 일군들과 함께 예산초안의 세부항목까지 하나하나 따져가시던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항목은 왜 없는가고 물으시였다는거요. 한 일군이 그이께 재정형편이 너무 긴장해서 국가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림시외화계획에 따로 넣어 집행하려 한다고 말씀올렸다오. 전쟁이 끝나 금방 재더미를 털고 일어서던 때였으니 조국의 재정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는지는 당신도 짐작이 갈게요. 페허우에 용광로들도 다시 일떠세워야지, 무너진 발전소언제들도 다시 쌓아야지, 관개공사도 하고 주택들도 짓고 학교랑 병원들도 건설해야 했으니 한푼한푼의 자금이 오죽이나 귀했겠소.

그런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수령님께서는 장내를 둘러보시며 아니다, 보내주어야 한다, 당장 보내주어야 한다, 우리가 공장 한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셨다는게 아니요. 그날 그이께서는 이것은 한두번 보내주고 그

만둘 일이 아니라 일본에 우리 동포가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 한 계속 보장해주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국가예산에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새로 내오고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는거요. 그렇게 돼서 공화국의 국가예산에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본적 없는 해외동포자녀들을 위한 재정항목이 별도로 생겨나게 되였다오.》

비를 맞은듯 젖어들던 남편의 목소리가 격정의 덩어리에 컥 막혀 끊어지고말았다. 순분은 뜨거운것이 남편의 눈구석에 고여있는것을 알아보았다. 목젖너머가 그들먹해왔다. 그토록 남편을 목메이게 한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이 심장을 울리며 그의 가슴속에도 여울쳐왔다.

얼마후 남편은 격해진 심정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금 말을 이었다.

《여보, 우리에겐 이런 어버이가 계시오. 이런 조국이 있단 말이요. 지난날 우리 처지라는게 어떤거였소. 고향은 있어도 조국이 없어서 조선사람으로 태여난걸 슬퍼하지 않으면 안되던 망국노신세가 아니였소. 그러던 우리한테 지금은 조국이 있소. 어머니라고 심장으로 찾는 은혜로운 조국이 말이요. … 당신 말대로 내가 먹고 남아서 문화재를 수집해온건 아니요. 허지만 조국의 고마움을 생각하면 사람으로서 너무도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소. 당신이나 내나 조국에 가서 무료교육이랑 무상치료받을 생각에 기뻐하면서두 자식들을 위해 허리띠를 조여매고 고생하는 어머니조국의 그 수고를 과연 얼마만큼이나 생각해봤소?》

불같은 이 물음을 남편은 안해가 아니라 자기자신에게 던지고있는듯싶었다. 남편은 분연히 머리를 흔들며 진심을 토했다.

《아니, 난 도리를 모르는 인간으론 살고싶지 않소. 조국앞에, 사람들앞에 떳떳이 나서고싶소. 당신과 내 아이들이 부끄럼없이 조국땅을 밟게 하고싶단 말이요!》

번열에 타는 남편의 열기가 그대로 자기의 온몸을 활활 불태우는것만 같아 순분은 견딜수가 없었다. 좀전까지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던 서러운 고백들과 애원의 말들은 어느새 썰물마냥 아스라하니 멀어져가고있었다. 남편의 그 뜻과 웅심을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부치는 자기를 한탄하며 순분은 맥빠진 숨을 조심히 모아쉬였다.

잠시 흥분을 묵새기며 숨을 고루던 남편은 다소 가라앉은 어조로 생각에 잠겨 조용히 뇌였다.

《당신도 차츰 알게 될게요. 마음속에 의지할 조국이 있다는게 얼마나 행복한건지…

여보,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할 가장 귀중한게 뭐겠소? 돈이나 명예 같은걸가? 아니, 난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크고 귀중한건 없다고 생각하오.》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에서는 수난에 절은 이역살이를 치르면서 억세게 자리잡은 신념이 강렬스럽게 내비치고있었다. 남편의 눈빛은 그전보다 더 성숙하고 깊어보였다.

순분은 남편을 붙잡으려던 자기의 욕망이 헛된 꿈이라는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더이상 물으려고도, 항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여 거짓없이 터놓는 남편의 고백을 막상 듣고나니 푸근한 겨울날 밤 숫눈길우에 깔린 달빛을 호젓이 밟을 때처럼 마음이 가분해오는것을 느꼈다.

아이들을 앞세우고 남편과 나란히 조국에 가고싶은 열망은 지금도 변함이 없건만 어찌하여 외진 길을 끝까지 가려는 남편앞에서

이렇듯 더 말을 못하고있는걸가.

순분은 남편이 소중히 심장속에 새겨안고있는 말을 속으로 가만히 외워보았다.

(조국! 조국!)

그에게도 조국이라는 말은 결코 수평선에 어른거리는 신기루같이 막연하고 어렴풋한 낱말이 아니였다. 그것은 얼어든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봄날의 훈기와도 같은것이였다. 해빛 따사로운 대지에서 남편과 함께 꾸려갈 새 생활이였고 구김살없이 자라날 아이들의 름름한 모습이였다. 그것은 그대로 고마움이였고 따스함이였으며 희망의 설레임이였고 가슴부푸는 래일이였다. 하기에 아무리 남편과 헤여지기 싫고 함께 귀국하고싶은 마음이 간절했어도 그 모든 욕념들은 남편이 절절히 상기시켜준 조국에 대한 감정보다 더 앞에 놓일수가 없었다.

허우룩하면서도 개운한 체념이 순분의 마음속에 저녁노을처럼 내려앉았다. 어쩔수 없는 남편이였다. 가정을 이룬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고달픈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곁눈 한번 팔지 않고 외곬길을 꿋꿋이 걸어온 남편이였다. 남편을 원망하며 남몰래 흘린 눈물은 얼마였던가. 허나 마음 한켠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였다.

어지러운 이 일본땅에서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속물들을 혐오속에 볼 때마다 순분은 뜻과 기개를 굽히지 않고 도고하게 살아가는 남편을 돋보지 않을수 없었다.

문득 어릴 때 본 옹달샘이 떠올랐다. 그 옹달샘은 순분이 간직하고있는 유일한 고향추억이였다. 나지막한 흰 바위아래 차랑차랑 넘쳐흐르던 맑은 샘물, 그우에 동동 떠있던 예쁜 표주박 하나… 새끼손가락이나 겨우 드나들 조그마한 샘구멍으로 그침없이 퐁퐁

솟구치던 파아란 샘물은 얼마나 신비로웠던가. 겉보기엔 작고 소박한 샘이였건만 퍼내고퍼내도 마를줄 모르고 퍼낼수록 더 정가로워질수 있었던건 필경 땅속깊은 곳에 크나큰 원천을 품고있었기때문일테지. 남편이 말한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도 바로 그런것이 아닐가 하고 순분은 생각했다.

고즈넉한 정적이 방안에 깃들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밤새의 울음소리가 부부의 생각을 조심스러이 이어주는데 불쑥 남편이 다가와앉더니 안해의 자그마한 손을 다정히 감싸쥐는것이였다.

《미안하오. 당신 나한테 시집와서 가슴아픈 일도 많았구 눈물도 속으루 많이 흘렸지. 어찌겠소, 나 같은 사내를 만난것두 다 연분이겠는데. 허허…》

남편의 인정어린 말을 들으니 금시 눈앞이 부옇게 흐려왔다. 순분은 남편의 후더운 손길에 손을 맡긴채 얼굴을 붉히며 나직이 말했다.

《제가 눈물흘리구 속썩이는것두 다 수영이 아버지가 있으니 믿고 그러는거지요.》

눈물이 밴 안해의 목소리는 행복하게 울렸다. 남편의 믿음어린 응대가 뒤를 따른다.

《고맙소!》

얼마뒤 식사를 마친 남편은 웃방으로 올라갔다. 조금 지나서 상을 거둔 순분이 그리로 올라가보니 남편은 평소의 습관대로 앉은뱅이책상우에 고려청자를 올려놓고 바라보고있었다. 고요한 흥분이 우렷이 떠오른 남편의 눈에 청자의 푸르른 빛이 은은히 비껴돌았다. 밤도 깊었는데 쉬여야 하지 않겠는가고 순분이 걱정하자 남편은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별스럽게 오늘따라 할아버님생각이 자꾸 나서 그러오. 그날

나더러 자신의 종아리를 치게 하시던 할아버님모습이 눈에서 떠나지 않는구만.》

종종 안해에게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군 하던 남편이였다. 그 심정이 리해되여 순분은 말없이 남편의 곁에 앉았다.

《얼마전에 인편으로 들으니 할아버님은 지금도 정정해계신다는구려. 당신이 조국에 가면 여기서 내가 수집한 민족문화재들을 할아버님께 꼭 가져다 보이오. 그리고 할아버님께 전해주오. 이 막내손자는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할아버님이 쥐여주시던 그 회초리를 항상 마음속에 안고 산다고 말이요.》

남편의 우묵한 두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순분의 눈가에도 이슬이 떠돌고있었다. 잠시후 남편은 여전히 고려청자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버릇처럼 외우는것이였다.

《여보, 이런 때가 내겐 제일 좋구만. 금덩이나 진주보석을 본다 한들 이렇게 고려청자 하나를 바라볼 때만큼이야 흐뭇하겠소. 하하하…》

시름없이 웃는 남편의 얼굴은 어린애처럼 순진하고 선량해보였다. …

며칠후 순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귀국의 길에 올랐다. 남편이 수집해온 민족문화재들이 그가 가지고 가는 짐속에 들어있었다.

기쁨과 감격, 석별의 열파가 귀국선이 떠나는 니이가다항에 끓어넘쳤다. 부두를 뒤덮은 오색테프의 물결들과 사람들의 머리우로 꽃바다인양 떠오르는 공화국기발들, 드높이 울려퍼지는 취주악에 맞추어 동포들이 목청껏 부르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멀어져가는 부두를 향해 손나팔을 대고 웨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떠나가는 귀국선을 바래우며 공화국기를 내흔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부모의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이역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처녀애의 모습도 보였다.

허나 배에 오른 순간부터 순분의 눈길은 허둥지둥 한곳으로만 내닫고있었다. 남편이 있는 곳이였다. 순분은 남편의 모습을 잠시라도 놓칠가봐 란간을 꼭 부여잡고 부두쪽에 눈그루를 박은채 돌미륵마냥 움직일줄을 몰랐다.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틈에 끼워 발돋움하며 가족을 바래우는 남편의 웃는 얼굴이 점점 눈앞에서 멀어져만 갔다. 수영이와 수남이가 울먹거리며 아버지를 찾고 또 찾는다.

《아버지! 빨리 와요—》

《기다릴게요—》

순분이도 아이들을 따라 남편을 소리쳐불렀다. 그렇지만 눈물에 목이 잠겨 흐느낌소리만 새여나올뿐이였다. 차츰차츰 희미한 점으로 사라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애타게 더듬어찾으며 순분은 마음속으로 거듭 외우고있었다.

《기다리겠어요, 기다리겠어요. 수영이 아버지!》

어느덧 뭍은 수평선너머로 잦아들었어도 순분은 아이들과 함께 갑판에서 떠날줄 몰랐다. 허전해진 부두가에 우두커니 서있다가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돌아서는 남편의 모습을 그도 아이들도 볼수가 없었다. …

6. 진도집녀인

겨울밤이 깊어가는무렵이였다.

리경식은 지친 다리를 끌며 협회로 돌아왔다. 가족을 떠나보낸뒤 집을 팔고 그곳에서 자취를 하고있었던것이다.

이전 같았으면 오지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지나가는 발소리마다 귀를 강구고 기다렸을 안해의 모습도, 들어서기 바쁘게 달음쳐와 안기며 웃음배를 채워주던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불꺼진 빈방만이 그를 기다리고있을뿐이였다.

경식은 불을 켜고 사무실에 들어섰다. 방안은 싸늘히 얼어붙어있었다. 성에가 불린 덧창문이 바람에 가늘게 삐걱거리고있었다. 화로에 불을 지피고난 경식은 허우룩한 공허가 드리운 방안을 둘러보며 책상앞에 마주앉았다.

일에 부대끼며 바삐 돌아치다가도 이렇게 밤에 홀로 앉아있을때면 허전함과 그리움이 숨막힐듯 온몸을 사로잡군 한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소중한 그 모든것에 대해 왜 그리도 무심했던가. 그리웠다. 온 식구가 동그랗게 모여앉던 따스한 아래목도 그리웠고 시름없이 방안에 감돌던 처자들의 웃음발도 그리웠다. 그뿐이랴. 잠들어있는 아이들의 고르로운 숨소리도 그리웠고 늘쌍 숫저운 애정과 소망이 밝은 배경색처럼 비껴있던 안해의 순한 눈매도 그리웠다.

경식의 눈길은 책상우에 놓여진 사진에 가멎었다. 얼마전에 조국에서 안해가 보내온 사진이다. 안해와 아이들이 모란봉의 최승대에 올라 웃고있는 그 모습을 들여다보느라니 문득 봄볕같이 훈훈한 기운이 가슴속으로 퍼져왔다. 그윽한 가을날이다. 하늘은 가없이 푸르고 바람은 건들거리는데 황금빛으로 물든 나무잎들사이로 투명한 가을해살이 무수한 빛가루로 부서져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최승대의 란간에 매달려 좋아라 웃고있는 아이들, 안해의 두눈에 조용히 반짝이는 기쁨의 잔물결… 그들의 머리카락이 불어오는 미풍에 가벼이 나붓긴다. 그 모습을 보니 경식은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자기도 가족과 함께 모란봉의 가을바람에 머리칼을 나붓겨

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안해는 사진과 함께 그간의 사연도 편지에 적어보냈다. 보통강기슭에 새 집을 받은 이야기며 수영이가 학교에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수남이가 유치원에서 빨간별을 탔다는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적어보냈다. 글줄마다에 담긴 사연들도 경식을 흥분케 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의 가슴을 달아오르게 한것은 보이지 않는 글줄의 여백마다에서 떠오르군 하는 안해와 아이들의 모습이였다.

하여 안해의 편지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기쁨과 함께 자기가 마치 먼 우주의 외진 공간에 홀로 뿌려진것 같은 고독감으로 하여 온밤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안해와 아이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조국으로 가고싶은 생각이 불같이 치밀었다. 그러나 조국과 겨레앞에 한 다짐은 어찌한단 말인가.

가족을 귀국시킨 후 오늘까지 여러달동안 경식은 시미즈를 찾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왔다. 오늘도 행여 무슨 단서라도 찾을가 해서 미야기현에 있는 시미즈의 고향에 가서 보름이 넘도록 연고자들을 툐다가 돌아오는 길이였다. 하건만 시미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였다. 대관절 이자가 어디로 종적을 감춘것일가? 시미즈가 지금도 향악보를 가지고있을가? 혹시 그사이 어딘가에 팔아치우기라도 했다면?…

그런 생각을 거듭할수록 마음이 뒤숭숭해와 견딜수가 없었다. 자기가 고생하는것은 별문제였다. 뒤에서 도와주고있는 총련조직과 동포들의 수고를 생각하니 더더욱 마음이 조여들었다. 경식은 답답한 마음을 풀 길 없어 연방 줄담배만 피웠다.

그러고있는데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엄길호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서는것이 아닌가.

《에크, 이거 곰 잡겠군.》

방안에 가득 서린 담배연기에 엄길호가 낯을 찡그리며 하는 말이였다. 리경식은 어리둥절해서 그를 맞았다.

《한밤중에 웬 일이십니까?》

그가 영문을 몰라하는데 엄길호는 방안을 한바퀴 휘둘러보더니 중얼거렸다.

《허, 홀아비살림이 말이 아니군.》

그리고는 경식이 권하는 자리에 앉자마자 불쑥 그믐밤에 홍두깨 내밀듯 말을 꺼내는것이 아닌가.

《여보게 경식이, 드디여 나타났네!》

경식은 엄길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타나다니? 대체 뭐가 나타났다는건가? 혹시?… 다음순간 경식은 뇌리를 치는 생각에 부르르 떨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시미즈가 나타났습니까?》

경식이 숨넘어갈듯이 다우쳐묻자 엄길호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조선향악보>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단 말일세.》

그만에야 경식은 어안이 벙벙해지고말았다. 대체 시미즈말고 향악보를 가지고있는 사람이 누군데? 그럼 벌써 시미즈가 향악보를 팔아버렸단 말인가? 도무지 갈피끈을 찾을수 없어 경식이 우두커니 서있는데 엄길호는 그를 끄당겨 도로 앉히고나서 사연을 설명했다.

《오사까부본부에서 련락이 왔네. 오사까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는 한 녀자가 시미즈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갖은 신고끝에 끝내 그자를 붙들었다는구만. 붙들구선 어떻게나 되게 다불렀다세웠는지 급해난 시미즈가 가지고있던 향악보를 울며 겨자먹기로 내놓았다는게 아닌가. 그자한테 남아있는거라군 그것밖에 없는데다 경찰에 넘겨봤댔자 더 어째볼 여지도 없었던지라 그 녀잔 향악보라도 뺏었

다는거네. 그 책이 돈개나 나간다는 시미즈의 소리가 미덥지 않았던지 그 녀잔 향악보를 들고 다니면서 알만 한 사람들한테 금새를 물어보았다더군. 다행히 그 사람들가운데 우리 동포가 하나 끼워있어 부본부에 사실을 알려왔다고 하네. …》

소식을 전하는 엄길호 역시 어지간히 흥분한 기색이였다.

리경식의 머리속에서 사색이 맹렬하게 뒤설레고있었다. 초밥집을 운영하는 녀자… 대뜸 우달근에게서 들은 《아라이스시》 녀주인이 떠올랐다. 놀랍기 그지없었다. 기름쥐처럼 반지러운 그 사기군을 어떻게 녀자의 몸으로 붙들수 있었는가? 그것도 홀로 사는 녀자가? 모질고 악바르다는 말을 듣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아귀찬 녀자인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엄길호의 다음 말이 더욱 경식을 놀라게 했다.

《헌데 참 기막힌 일이더군. 글쎄, 그 녀자가 겉으로는 일본사람 흉내를 내고있지만 실은 조선사람이라는구만.》

《조선사람이라구요?》

경식은 자기가 잘못 듣지 않았나 해서 엄길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녀인이 조선사람이라니? 결국 시미즈에게서 향악보를 빼앗아낸 사람이 다름아닌 조선녀인이란 말인가? 아연한 속에서도 뭉클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그 녀인이 조선사람이라면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아무리 일본인행세를 하고있다 할지라도 그 녀인 역시 한조상의 자손이 분명할진대 민족의 재보가 이 역땅에서 떠돌고있는것을 어찌 모른다 할수 있으랴.

뜻하지 않은 행운앞에 경식이 희색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길호의 얼굴에 무슨 까닭인지 한가닥 그늘이 비껴돌고있었다. 엄길호가 근심스러운 어조로 뒤를 이었다.

《마음을 놓긴 이를것 같네. 그 녀자가 지금 향악보를 경매에 붙

이겠다구 고집한다누만.》

《경매라니요?》

저도 모르게 경식이 큰소리를 내지르고말았다. 녀인이 그 정도로까지 돈에 눈이 멀었단 말인가. 정말로 향악보가 경매에 붙여진다면 그야말로 야단이 아닌가. 가루베 같은 모리배들이 뛰여들어 저저마다 값을 부르는 판국이 펼쳐진다면 일이 어찌될지 누가 장담할수 있으랴.

경식은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났다.

《당장 오사까에 가야겠습니다.》

《이길로 말인가?》

《예, 어떻게 하나 향악보가 경매에 붙여지는걸 막아야 합니다.》

엄길호가 따라 일어서며 경식을 붙잡았다.

《이 사람, 가더라도 우리 집에 들렸다 가게. 자넬 데리구 오기전엔 집에 들여놓지 않겠다구 로친네가 으름장을 놨어.》

다급한 속에서도 고마운 생각이 솟구쳤다. 가족이 귀국한 뒤 자기더러 귀국할 때까지 함께 살자고 그토록 설복하던 그들내외였다. 허나 지금 어디 그런걸 생각할 겨를이 됐는가. 경식은 한사코 떠나겠다고 고집했지만 엄길호가 짐짓 눈까지 부릅뜨며 정 그러면 상대도 않겠다고 나오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따라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가는 도중에 엄길호가 불쑥 물어왔다.

《박상열과는 그뒤 한번도 만나지 못했나?》

뜻밖의 물음이였다. 오사까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갈라진 뒤로는 여태 만난적이 없는 상열이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슴쑤시는 아픔속에 이따금 그의 얼굴이 떠오르군 하던것은 무엇때문일가. 소문을 들으니 그쪽에서도 시미즈를 찾느라고 무던히 애를 쓰는 모양이였

다. 경식이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자 엄길호가 말했다.

《자네 말을 들어보니 그도 제딴엔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들과도 마음을 합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아무쪼록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더 힘써야 할것 같네.》

엄길호의 어조는 진지했다. …

다음날 오사까에 도착한 경식은 엄길호가 일러준대로 우달근부터 만났다.

《에익, 돈밖에 모르는것 같으니. 그 내인소리가 나오니 입이 다 쓰거워집니다.》

우달근이 우락부락하며 내뱉는 첫마디였다.

《이거 리선생을 또 수고시키게 됐수다. 전번에 리선생과 함께 다닌 리력두 있구 해서인지 이번에도 부본부에서 나한테 일을 맡깁디다. 시미즈란자를 찾아내지 못해 밥을 먹어두 모래알을 씹는것 같았는데 향악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찌나 기운이 솟던지. 난 그길루 그 내인을 찾아갔더랬수다. 헌데 이런 소귀에 념불 외우기가 어데 있겠소. 아무리 설복을 했건만 줄창 일본사람행세를 하면서 향악보를 경매에 붙이겠다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외우는게 아니웨까. 원 그런것두 동포라구 믿구 찾아갔던 내가 어리석었지. 생각다 못해 그 내인이 시미즈네 술집에 눈독을 들였던게 떠올라서 난 우리 상공회산하에 있는 건물 하나를 헐값에 내주겠다구 들이댔수다. 그 집으루 말한다면 모양두 번듯한데다가 번화가에 위치하구있어놔서 숱한 사람들이 군침을 흘리는데지요. 그렇게 해서야 겨우 좀더 생각해보겠다는 말미를 받아놓을수 있었지요. …

아무튼 리선생 볼낯이 없수다. 실은 이번엔 어떻게 하나 내 손으루 향악보를 찾아가지구 리선생한테 안겨주자던노릇이 허 참… 이러다간 또 전번처럼 일을 그르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별수없이

부본부에 보고를 했더랬지요.》

우달근은 혹시 자기가 처신을 잘못하지나 않았나 해서 안절부절을 못했다. 경식은 그러는 달근을 안심시키고나서 물었다.

《그런데 그 녀인이 시미즈를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전번에 리선생한테두 얘기했지만 그 내인의 됨됨이 오죽이나 암차다구요. 허지만 시미즈가 쥐숨듯 꼬리를 감추는통에 졸지에 닭쫓다 울타리 넘겨다보는 꼴이 되고말았지요. 글쎄 빚군들이 저저마다 몰려들어서 지랄발광 네굽질을 하는 판에 어데 가서 해본단 말이웨까. 그래두 법을 좀 낀것들은 시미즈의 료리집이며 살림집 같은것들을 날쌔게 타고앉았지만 그 내인은 울바자없는 과부신세인지라 끈떨어진 뒤웅박신세가 될수밖에요. 악에 받친 내인은 가산을 다 털어서라두 기어코 사기군을 붙잡아서 보상을 받아내구야말겠다구 강심을 먹었다우다. 그래서 숱한 돈을 날려가면서 수소문을 하구 사람을 써서 끝내 시미즈를 붙들었다는게 아니웨까. 참 지독한 내인이지요. …》

말을 듣고보니 여간한 녀인이 아니였다. 그런 녀인의 마음속에 정말로 조선사람이라는 자각이 털끝만치도 남아있지 않을가? 그것이 의문스러워 경식은 또다시 달근에게 물었다.

《그 녀인이 자기가 조선사람이라는걸 그렇게까지 감추더란 말입니까?》

그 물음에 달근은 대뜸 이마살을 찌프렸다.

《원 말두 마시우. 글쎄 조선말은 아예 입에 올리지두 않더라니까요. 자긴 조선사람들과 아무런 인연두 없다나요. 허 참… 부본부에서 그 내인의 행적을 좀 알아보니 현재는 아라이 기요시라는 일본녀자루 행세하고있지만 본래는 고향이 진도랍디다. 본명은 알수 없지만 그 내인의 근본을 아는 동포들속에선 지금도 그 집을

진도집이라구 부르고있구요. 헌데두 그 내인은 길가에서 고향사람들을 만나두 아는체조차 안한다질 않소. 남편은 왜정때 징용으루 끌려와 도호꾸의 어느 주물공장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얻은 규폐증으루 일찍 저세상사람이 되였다더군요. 그뒤 내인은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젖도 떼지 못한 두 자식을 혼자힘으루 키워왔다우다. 과부로 일생을 살아가느라면 한숨이 구만구천두라는데 그래서 그리두 심보가 이지러졌는지. 쯧쯧…》

(진도집녀인…)

경식은 속으로 무겁게 외워보았다. 가히 짐작이 가는 일이였다. 이역땅에서 의지가지할데 없는 녀성의 몸으로 갖은 생활고와 민족적차별을 견디여나가야 했으니 모질어진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쓰라린 비분이 독을 뻗치고있는것이랴. 그런 강심살이속에서 조국과 점점 아득히 멀어져가고 민족적감정마저 희미해져가는 사람들을 리경식 역시 적지 않게 보아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살구나무에 벚꽃이 필수 없듯이 근본이야 어디 가랴. 경식은 녀인의 마음속에 한가닥이나마 남아있을지도 모를, 아니 분명 불씨마냥 살아있을 조선사람의 넋에 기대를 걸고싶었다.

그들은 그길로 녀인을 찾아 떠났다. 서리발을 품은 하늬바람이 으르렁거리며 불어왔다. 한겨울의 차디찬 해가 시퍼렇게 얼어붙은 허공에 외로이 걸려있었다.

쯔루하시역전에 이르니 《아라이스시》라는 간판이 눈에 띄였다. 초밥집이라고 해서 보잘것없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생울타리까지 두른 꽤 큰 음식점이였다. 울안에 들어서니 조그마한 안뜰이 나졌다. 뜰 한가운데로는 돌포장길이 깔려있었는데 길 량쪽에 동백이며 란초, 석창포 같은것을 심은 화분들이 줄을 맞춰 놓여있었다. 그리고 그옆에는 손바닥만 한 련못들과 시내물, 성냥개

비 같은 다리들이 장난감처럼 배치되여있었다.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순 일본식으로 꾸며져있었다.

초밥집에 들어선 두사람은 곧바로 주인의 방으로 향했다. 한번 왔던 곳이여선지 앞장서서 걸어가는 달근의 거동은 거침이 없었다. 그들이 주인의 방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안에서 매섭게 욕을 퍼붓는 녀인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나왔다.

《이녀석아, 왜 또 학교에서 싸웠니? 왜 싸웠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셨댔다. 널 보고 불망종이래. 아유, 이거야 화가 치받쳐서. 야, 그따위 소릴 듣고 다닐바엔 아예 콱 죽어라, 죽어!》

그러자 골딱지가 나서 대드는 총각애의 소리가 뒤따랐다.

《힝, 그깐 선생소린 하지두 마세요. 그 선생이 애들앞에서 날 더러 뭐랬는지 아나요? 마늘냄새가 나지 않게 조심하라구 그랬단 말이예요.》

《뭘? 너야 어디 마늘이란걸 입에 대기나 하냐?》

《엄만 것두 모르시겠나요? 내가 쫑꼬라구 비꼬는거란 말이예요.》

《뭐 쫑꼬?…》

그만에야 억이 막히는지 말이 끊어졌다. 그러다가 항변하듯 주어섬기는 녀인의 맥빠진 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그건 선생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거야. 내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똑똑히 이를테다. 우린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구.》

《쳇, 그런다구 누가 속아넘어간대요. 나두 알아요. 엄마두 아버지두 다 쫑꼬였다는걸.》

찢어지는듯 한 녀인의 소리가 터졌다.

《입다물지 못하겠어! 건 그렇구 애들하군 왜 싸웠어?》

《그 마스노새끼 내 책상에다 락서질을 했어요. 쫑꼬새끼라구.》

녀인이 가까스로 분을 참느라 씨근거린다. 잠시후 악에 받쳐 내

쏘는 녀인의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누구든 그따위 소릴 또 줴치거들랑 혼쌀을 내줘라! 다신 못 그러게 혼찌검을 내란 말이야! 이겨라! 그런것들한텐 기어코 이겨야 해! 이기지 못하면 집에 얼씬두 말어!… 됐어. 이 돈을 가지구 가서 오뎅(일본음식의 한가지)이나 사먹어라.》

듣고보니 녀주인과 아들애사이에 벌어지는 대화였다. 얼마후 얼굴이 찢기고 부어오른 총각애 하나가 방에서 나왔다. 제 엄마에게서 받아든 돈을 들고 좋아라 뛰여가는 총각애의 뒤모습을 경식은 이윽토록 지켜보았다. 그러는 그의 눈가에 서느러운 기운이 지르르 흐르고있었다.

결혼식장을 쓰려다가 거절당한 어느 한 동포의 일이 생각났다. 그때 결혼식장 경영주의 거절리유라는게 다른것이 아니고 신부가 입고 나오려는 치마저고리가 일본의 전통풍습과 맞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우습게도 그 결혼식장에서 면사포를 쓴 서양식결혼례복에 대해 문제시한적은 없었다. 만일 타국에서 사는 일본인신부가 저희네 민족옷차림으로 결혼식장에 나서려다가 거절당했다면 그 심정이 어떠했을가. 결혼식장의 경영주라면 겨우 밥벌이나 근근히 하는 서민에 불과할진대 그런 사람들까지 이 정도이니 일본인들의 머리속에 조선민족에 대한 배타의식이 얼마나 타성으로 굳어져있는가 하는것을 가히 짐작할만 한것이다. 하긴 요시다 시게루 같은 한 나라의 총리라는자의 입에서 《소수민족은 배속의 벌레》라는 망언이 백주에 튀여나오는 판이니 일반국민들의 사고가 달리야 될수 있으랴.

그처럼 혹심한 민족차별에 견딜수가 없어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일본인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허나 그것이 과연 어떤 길인가. 흔히 귀화신청을 내면 신청자의 생활양식을 조사하러 법무성 관리가 오는데 집에서 김치냄새가 나거나 치마저고리가 눈에

띄우면 불합격이 된다고 한다. 결국 조선사람스스로가 자기의 민족성을 철저히 부정할 때에만 귀화가 허락된다는것이다. 설사 그러한 굴욕을 감수하며 귀화를 한다 해도 사정은 매한가지이다. 귀화한지 거의 10년째 되여오는 누군가는 자기를 완전한 일본인으로 착각하고있었건만 최근에 조선사람이였다는것이 드러나면서 일본청년과의 혼례를 앞두고있던 딸자식이 별안간 파혼을 당했다지 않는가.

문득 《못생긴 오리》라는 안데르쎈의 동화가 떠올랐다. 우연히 오리알에 끼여 까나온탓에 오리새끼들의 무리속에서 《미운 오리새끼》로 따돌리우던 백조새끼가 어느날 자기가 아름다운 백조임을 깨닫고 기쁨에 넘쳐 공중으로 날아올랐다는 그 이야기처럼 인간도 자기의 뿌리를 망각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을 때 자긍심에 넘쳐 존엄있게 살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때문에 수많은 재일동포들이 온갖 민족적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면서도 죽으면 죽었지 일본인만은 되고싶지 않다고 입버릇처럼 외우고있는것이라고 경식은 생각했다.

《무슨 생각을 그리하시우?》

곁에서 우달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서야 생각에서 깨여난 경식은 달근을 따라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방에 들어섰을 때 녀주인은 누비돗자리우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며 수판알을 굴리고있었다. 척 보기에도 억척배기라는것이 알리는 30대의 녀인이였다.

《돈나 고요데쇼까?(무슨 용건이십니까?)》

인기척을 듣고 녀인이 수판알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건네는 말이였다.

우달근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안녕하시우. 내가 또 왔수다.》

그제서야 달근을 알아본 녀인이 좀전의 흥분기를 애써 가시며 일어났다. 하건만 녀인의 입에서는 여전히 일본말이 흘러나왔다.

《이랏 샤이마세.(어서 오십시오.)》

두리두리한 얼굴에 둥글면서도 매단단하게 생긴 어깨가 김치돌 같이 묵직해보이는 녀인이였다. 팔소매와 옷자락에 벚꽃을 물들인 기모노만 입고있지 않았더라면 본모습은 조선의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용모였다. 허나 모진 세월이 녀인의 얼굴에 너무도 때일찍 흔적을 남기고있었다. 이 세상 모든것에 대한 불신과 적의가 깊숙이 가라앉아있는 두눈, 바늘로 그은듯 때이르게 잔주름이 잡힌 눈귀, 그런가 하면 사내처럼 악마디가 진 손… 주방일을 하다가 들어온듯 녀인의 손에 쌀가루가 묻어있었다.

달근이 녀인에게 경식을 소개하고나서 찾아온 사연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리경식을 쳐다보는 녀인의 눈빛은 랭랭했다. 단조롭고 무표정한 그 얼굴에서 경식은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으려는 완고함과 조심스러운 경계의 빛을 보았다.

녀인은 손님들에게 자리를 권하고 차를 내오게 했다. 소금에 절인 벚꽃을 띄운 차였다. 차잔을 들여다본 달근이 쓴입을 다시더니 녀인에게 경식을 가리키며 말했다.

《주인, 이분은 여태 그 고서를 찾느라구 귀국까지 미루면서 고생해오셨다우. 처자들과두 헤여지지 않으면 안되였지. 오늘은 이분의 이야길 좀 들어보우다.》

경식은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는 녀주인에게 조선말로 심정을 터놓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저 하나 고생하는거야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가슴아픈건 하루빨리 조국에 돌아가야 할 민족의 재보가 이역땅에서 정

처없이 떠돌고있는겁니다.》

《오, 하나시쥬 시쯔레이데스가…(저, 말씀중에 실례입니다만…)》

녀인이 도중에 강대꺾듯 말을 꺾으며 일본말로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것이였다.

경식은 그만 할 말을 잊어버린채 녀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는 그의 목에서 울대뼈가 꿀꺽 오르내렸다. 방금전까지만도 아들애가 당한 민족적멸시를 두고 치를 떨던 녀인이 아닌가. 옷도 일본옷을 입고 말도 일본말로만 하는 녀인, 자기가 조선사람임을 이다지도 완강히 거부하는 녀인의 넋속에 과연 민족의 얼이 어느만큼이나 남아있을가? 애오라지 녀인의 민족적량심에 기대를 걸고 왔던 경식으로서는 시작부터 락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별수없이 그들의 대화는 일본말로 진행되였다. 경식은 녀인에게 향악보가 일본으로 건너오게 된 사연과 반드시 겨레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데 대해서 그리고 지금껏 그 고서를 찾기 위해 동포들이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온데 대해 안타깝게 설명했다.

그러나 경식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녀인에게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 매몰찼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쪽분들의 사정이고 제가 관심하는건 책을 내놓으면 저한테 어느만큼의 대가가 차례지는가 하는것뿐입니다.》

그러니 돈을 내놓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것이다. 조국이란것도 민족이란것도 돈앞에 놓을수는 없다는 그 녀인의 지극히 단순명백한 대답에 경식은 말이 나가지 않았다. 우달근이 눈섭꼬리를 푸들푸들 떨며 끼여들었다.

《이보시오 주인, 전번에 와서두 내 말했지만 돈을 모아서 많이 꿍져넣는다구 50년 살걸 100년 사는것두 아니구 남달리 잘 먹구 잘 입는다구 거부기같이 300년을 사는것두 아니지 않수. 아무

리 생활에 악착스러워지기로서니 사람으루 세상에 났으면 사람값을 치러야지. 제 조국 중한줄두 모르구 제 민족 귀한줄두 모르구 알쭌히 저 하나 호강할 궁리만 한다면야 그게 무슨 사람이겠수. 짐승 한가지지.》

조는듯이 눈길을 내리우고 앉아있던 녀인이 듣기 지겹다는듯 나른히 손을 들었다놓았다.

《저한테 그런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고 수차 말씀드린것 같은데요. 사람노릇 다하고 돈을 어떻게 모읍니까. 돈을 모으려면 욕을 먹으라는 말이 공연히 나왔겠습니까. 절더러 자꾸 돈밖에 모른다고 몰아대시는데 대체 이 일본땅에서 돈보다 더 중한게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돈없이야 한발자국인들 움직일수가 있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 한그릇 얻자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댁에서도 기업을 하신다는데 돈이 그렇게 소용없으면 뭣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겁니까?》

녀인의 반박에 달근은 어이없는 웃음을 짓고말았다.

《난 돈을 버는걸 탓하는게 아니우다. 돈을 벌든 무슨 일을 하든 우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우다.》

리경식의 절절한 목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가지고계시는 그 고서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입니다. 이를테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넘겨준 가보라고 할가요. 헌데 지난날 나라를 잃었던탓에 그걸 강도들에게 빼앗겼댔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주인의 품에 되돌려져야 할게 아닙니까.》

그러나 녀인의 표정은 여전히 랭담했다. 경식은 열에 뜬 자기의 말들이 녀인의 차디찬 심장에 부딪쳐 돌부스레기마냥 흩어지는 소리를 듣는것만 같았다. 녀인이 피도 감정도 없는 인형인양 단조롭

기 그지없는 어조로 말했다.

《거래와 관계없는 이야긴 듣고싶지 않습니다. 전 그 책을 훔쳐내지도 않았고 협잡으로 얻은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불한 비용과 제가 당한 손실의 대가로 정정당당하게 손에 넣었을뿐입니다. 절더러 채권자의 권리를 포기하라는겁니까? 서로 잡아먹을내기를 하는 이 세상에서 저 하나만 손해를 보고 넘어질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국이 어찌됐건 민족이 어찌됐건 그런건 알바 아니라는건가?》

우달근이 참다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람이 그래선 못쓰우다, 못써! 아무튼 태를 묻은 제 조국이구 피를 나눈 제 동포들인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수. 부끄럽지두 않수? 이역살이가 아무리 고달파두 조선사람으루 태여났으면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라두 가슴펴구 조선사람답게 살아야지 왜놈들한테 수모란 수모는 다 받아가면서 반쪽발이루 사는게 그리두 편한가 말이우다. 후날 애들이 뭐라겠수?》

순간 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짙은 눈섭이 들려오르면서 깊고 차거운 주름살이 엇비듬히 이마를 파고들었다. 가늘게 쪼프린 녀인의 두눈에서 푸르스름한 원한이 독을 뿜는다. 녀인은 일그러진 입가에 경멸을 띠우며 넉두리마냥 설음을 터뜨렸다.

《대체 조국이란건 뭐고 민족이란건 뭔가요? 그런게 저한테 뭘 해줬느냐 말입니다! 전 어머니의 배속에서부터 배고픔을 타고난 팔자였어요. 날마다 배가 고파 허덕거렸지요. 찔레순이건 송기건 봄에 돋아나는 모든게 다 끼니거리였어요. 별식이라야 기껏해서 섣달 그믐밤에 어머니가 한개씩 삶아주시던 닭알맛이 전부였구요. 눈물인들 좀 많이 흘렸다구요. 오죽했으면 아이적에 이런 생각까지 해봤답니다. 사람의 눈물이 짭짤하지 말구 달달했으문, 그러문 배고

픈줄도 모를텐데…》

《그게 다 제 나라가 없었던탓이 아니겠습니까.》

갈린듯 한 경식의 목소리였다. 녀인이 세차게 도리질을 했다.

《나라라구요? 나라가 아니라 돈이 없었기때문이지요. 돈이 있었더라면 제가 왜 그런 설음을 당했겠나요. 일본땅에 와서 거지처럼 천대받고 멸시받던걸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떨립니다. 조센징이란 소릴 듣기가 죽기보다 더 싫은걸 어떡해요. 그래서 전 조국이니, 민족이니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건 단지 돈뿐이예요. 전 앙심을 먹었답니다. 도적질을 내놓고선 무슨짓을 해서라도 돈을 모아야겠다구요. 개같이 벌어서라도 기어코 내 새끼들을 정승같이 먹이겠다고 돌아간 남편의 무덤앞에서 맹세했단 말입니다!…》

녀인의 두눈에서 눈물이 사납게 번쩍였다. 리경식도 우달근도 아연해서 녀인을 바라보았다. 숨막히는듯 한 침묵이 흘렀다. 조국과 겨레를 외면하는 한 인간의 랭혹함에 분노하면서도 녀인의 불우한 과거가 두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근본까지 잊을수 있단 말인가. 어찌 보면 빼앗기고 잃어버린것보다 더 서글픈 일은 이 녀인처럼 잊어버리고 사는것이 아닐가고 경식은 생각했다.

얼마쯤 지나 녀인은 손수건으로 눈꼬리를 찍으며 고집스럽게 되뇌였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하는건 단 하나, 합당한 대가를 받는겁니다. 책을 경매에 붙이겠다는것도 그때문이구요.》

그바람에 우달근의 낯이 다시금 오만상이 돼버렸다.

《또 그 소린가. 그래서 우리가 시미즈의것보다 얼싸한 건물을 헐값에 넘겨주겠다는게 아니우.》

《…》

녀인은 대답이 없었다. 그러는 녀인의 입술은 바싹 졸라맨 돈주머니모양 영악스레 다물려있었다.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는듯 달근이 솥뚜껑같은 손바닥으로 제 무르팍을 북치듯 두드렸다.

《좋수다. 그럼 우리가 건물을 거저 넘겨주겠수다. 그 건물의 시가가 얼마쯤 되리라는건 아마 아주머니두 모르지 않을거우다. 어떠시우?》

그 말을 듣자 녀인의 눈이 차겁게 반짝였다. 득실을 타산하듯 한동안 말이 없던 녀인은 경계의 빛을 늦추지 않은채 달근에게 묻는것이였다.

《래일중으로 양도증서를 만들수 있겠는지요?》

건물을 거저 내놓는다는 말에 녀인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것 같았다. 우달근이 씨원스럽게 대답했다.

《그럽시다. 그러니 증서를 만들구 도장을 누르면 고서를 내놓겠다는거우다?》

녀인은 랭정하게 뭔가 따져보는듯 하더니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도증서에 덧붙여서 50만엔을 가져와야 합니다.》

《50만엔?》

두사람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번화가에 자리잡은 노란자위건물을 꿀꺽하고도 모자라 50만엔이라는 금액까지 덧부르는 녀인의 탐욕에 어안이 벙벙해졌던것이다. 《벼룩가죽 벗길 녀자》라더니 정말로 그런 소리를 들을만도 했다. 그들의 심리를 눈치챘는지 녀인이 뒤를 달았다.

《저도 다 알아봤는데 그만한 가치는 나가는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전 정직한 거래만 합니다. 정당한 가격이상으론 한푼도 더 부

르지 않습니다. 혹시 지나치다고 생각하신다면 얘기는 여기서 끝낼수밖에요.》

매정하게 잘라매는 녀인의 말이였다. 경식은 쓰거운것을 연신 삼키고있었다. 이런 녀인에게 한가닥 기대를 걸고 왔던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싶었다. 50만엔이라… 그는 잠시 망설였다. 가족들을 귀국시킨 뒤 집을 판 돈까지 다 합쳐도 그만한 액수가 안되였던것이다. 그러나 길게 생각할 일이 아니였다. 피마르게 찾던 향악보가 눈앞에 있지 않는가. 경식은 성큼 녀인에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래일중으로 양도증서와 함께 50만엔을 가져오겠습니다.》

우달근도 기꺼이 화답했다.

《틀림이 없을거우다.》

그들은 녀인에게 래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방에서 나왔다.

(모자라는 돈을 한시바삐 채워야 한다.)

녀인을 만나고 돌아선 순간부터 경식은 이 생각 하나만 줄곧 곱씹으며 걸었다. 곁에서 걷던 우달근이 잠간 들렸다 갈데가 있으니 먼저 자기 집에 가서 기다려달라고 이르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우달근과 헤여지자 경식은 곧바로 시장으로 나갔다. 거기서 그는 자기의 양복과 손목시계를 어렵지 않게 팔수 있었다.

경식이 입고있던 양복은 귀국할 때 입으라고 안해가 마련한 새 양복이였다. 어떻게 되여 그가 오사까로 올 때 그 양복을 입고 왔던가. 필경 이번 길에는 어떻게 하나 향악보를 찾아가지고 조국으로 가겠다는 열망때문이였을것이다. 그런 양복을 팔자니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우물쭈물할 경황이 없었다. 양복은 못 입고 가도 그렇게 찾던 향악보를 들고 가면 안해도 기뻐할거라고 위안하면서 그는 서슴없이 새 양복을 벗어놓았다. 그리고는 값눅은

바지 하나를 사입고는 와이샤쯔바람에 외투만 걸친채 찬바람이 휘파람을 부는 거리에 나섰다.

그랬건만 돈은 아직 턱없이 부족했다. 모자라는 돈을 채울 궁리에 전념하며 경식이 달근의 집에 이르니 어느새 벌써 주인이 들어와있었다.

《어딜 갔다 인제야 오시우?》

달근이 어리둥절해서 묻는 소리에 경식은 벙그레 웃기만 했다. 뒤미처 경식의 행색을 눈여겨본 달근이 입고있던 양복을 어떻게 했는가고 다우쳐물었다. 경식은 할수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두말할것없이 우달근은 펄쩍 뛰였다.

《새 양복을 팔다니? 대체 왜 그러시우? 그렇게두 우리가 못미덥수?…》

달근은 노여움에 숨이 막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의 심정이 리해되여 경식은 묵묵히 침묵만 지켰다. 한참후에야 달근은 어쩔 도리가 없는지 황소숨을 몰아쉬고나서 돈뭉치를 꺼내놓는것이였다. 50만엔이였다.

《우리 상공회 회원들이 향악보를 찾는데 써달라고 모은 돈이우다. 어서 받으시우다. 그리구 건물양도증서두 래일중으루 넘겨주게 의논이 됐수다.》

영문을 몰라하는 경식에게 달근이 하는 말이였다. 후더운것이 치밀어올랐다.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나서는 동포들의 진정을 받아안고보니 녀인때문에 무거워졌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것만 같았다. 돈을 받아쥐고 흥분을 묵새기던 경식은 이윽고서야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그러자 달근이 이마살을 찌프린다.

《또 그런 당치않은 말씀이시우. 정 그러문 이번엔 진짜 성을 내겠수다.》

《예,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경식은 웃으며 서둘러 자기 말을 거두었다.

《하지만 부족되는 액수만 채우면 됩니다. 아버님이야 제 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식의 의견에 우달근은 한사코 머리를 내흔들었다. 그러다가 경식이 《그러시면 저도 진짜로 성을 내겠습니다.》 하고 말해서야 별수없이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어쩌다가 찾아온 즐거움에 파묻혀 두사람은 시름을 놓고 웃었다. …

그무렵 가루베는 흥신소 주인으로부터 리경식이 향악보의 행방을 알아냈다는 전화를 받고있었다. 흥신소 주인은 향악보를 가지고있다는 녀인의 신상자료와 함께 리경식이 급히 오사까로 갔다는 소식까지 빠짐없이 보고했다.

가루베의 얼굴가에 득의한 미소가 피여올랐다.

《요로시ㅡ》

가루베는 잠간 퉁눈을 굴려보더니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이보게, 한가지 일을 더 해줘야겠네.》

《예, 말씀만 하십시오.》

《지체하지 말구 지금 당장 그 소식을 박상열이 알게 해야겠네.》

《예? 그리되면?…》

《글쎄 시키는대로 하라니까.》

가루베는 전화를 놓았다. 불쑥 아라기령감의 말이 떠오른다.

《분렬하여 통치하라.》

가루베는 그 말을 입속으로 웅얼거리다가 벌쭉 웃고말았다.

7. 판가리시각을 앞두고

다음날이 되였다.

아침술을 놓기 바쁘게 우달근은 서둘러 집을 나갔다. 상공회에 가서 건물양도증서부터 작성해가지고 오겠다는것이였다. 어린애처럼 설쳐대는 그의 모습을 보니 리경식의 마음도 마냥 설레였다.

오늘은 정말 향악보를 손에 넣게 될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좌절을 겪으며 예까지 왔던가. 그래서인지 향악보를 거의 찾게 된 이 시각까지도 경식은 좀처럼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부디 모든 일이 순조로와야 할텐데. 어제 《아라이스시》 녀주인의 마지막태도로 보아서는 이쪽에서 부른 조건에 어지간히 만족해하는 눈치가 분명했었다. 하지만 하루밤사이에 혹시 마음이 변하기라도 했는지 누가 알랴. 그리고 그보다 더 우려되는것은 가루베 같은자들의 움직임이였다. 엄길호에게서 련락을 받은 다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채 조용히 오사까로 달려왔지만 향악보가 조선으로 되돌아갈가봐 피눈이 되여 날뛰는 그자들이 팔짱을 끼고있을리는 만무한노릇이였다.

그런가 하면 경식의 눈앞에 박상열의 모습도 떠올랐다.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있을가? 여전히 가루베의 리용물이 되여 헤매고있을가? 아니, 그럴리야 없을테지. 엄길호의 말대로 이런 때 그런 사람들과도 마음을 합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번거로운 상념은 끝없이 갈마들었다. 그렇게 반나절쯤 시간이 흘렀을 때 우달근이 돌아왔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안에 들어서

는 그를 보는 순간 경식은 가슴이 철렁했다. 달근의 얼굴이 온통 흙빛으로 질려있는것이 아닌가. 아니나다를가 달근의 입에서 기막힌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내인이 상공회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왔수다. 사정이 생겨 오늘은 만날수가 없으니 후날 다시 련락하겠다나요. 허 참…》

경식은 온몸이 금시 나른해졌다.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겼단 말인가? 정말로 밤새 녀인의 마음이 변한걸가? 만일 가루베가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등골로 전류 같은것이 찌르르 치달았다.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며 하루를 보내고난 경식은 이튿날이 되자 아침밥도 번진채 달근과 함께 녀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서둘렀다. 그들이 막 집을 나서려는 때였다.

총련 오사까부본부의 조동수가 신문을 들고 뛰여드는것이였다.

《아, 다들 계셨군요. 이 신문을 좀 보십시오.》

조동수는 다급히 손에 든 신문을 그들앞에 펼쳐보였다. 《오사까마이니찌》 조간신문이였다. 조동수가 가리키는 광고란을 들여다보던 두사람은 다같이 신음소리를 흘렸다. 다음과 같은 광고가 그들의 눈을 비수마냥 찔러왔던것이다.

《공시

14세기말～20세기초의 조선향악곡들을 기록한 고문헌 <조선향악보>를 경매합니다. 경매는 소유자인 아라이 기요시의 요구에 의하여 진행합니다.

장소: 오사까증권거래소

시간: 1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

경매사: 증권거래소 회원 나까무라 시게지》

경식은 손으로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심장이 목굽을 치받는듯

한 충격을 느꼈던것이다. 그러니 녀인이 끝내 향악보를 경매에 붙였단 말인가. 도대체 그 녀인을 만나고 온 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가루베의 마수가 뻗쳤을가? 아니면 박상열이 또다시 찬물을 끼얹고 나선것은 아닌지?…

《에익, 돈벌레같으니. 그런것두 동포라구 믿구 찾아갔던 우리가 미련했수다!》

달근의 입에서 사나운 욕설이 마구 터져나왔다. 경식도 목구멍까지 치밀어오르는 분격을 간신히 눌러 삼키고있었다. 지독한 수전노였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랭혹한 리기주의로 무장한, 조선사람다운데라군 쥐뿔도 찾아볼수 없는 녀인이였다. 온몸이 그대로 분노의 폭탄이 되여 당장이라도 그 녀인한테로 달려가고싶은 충동을 걷잡기 힘들었다.

《아무래도 경매는 피할 길이 없을것 같습니다.》

조동수의 침착한 목소리였다. 그제서야 경식은 정신을 가다듬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보기 시작하였다. 조동수가 말한대로 인제는 경매장에서 판가름을 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다. 경매날까지는 앞으로 사흘이 남아있었다. 일단 신문에 광고를 냈으니 향악보에 흥미를 가지는 인물들이 경매장으로 모두 모여들건 뻔한 일이고 그런 인물들중에는 두말할것없이 가루베도 있을것이다. 그곳에서 향악보가 누구의 손에 넘어가는가를 결정하는 판가리싸움이 벌어질것이다.

그렇다. 분명 판가리싸움으로 될것이다. 가루베와 같은 파렴치한들이 향악보를 뺏기 위해 필사의 힘으로 달려들것은 자명한 일이였다. 과연 그런자들과 맞서 기어이 향악보를 손에 넣을수 있을가?

조마조마한 위구심이 천근만근의 무게로 경식의 두어깨를 짓눌러왔다. 그런 심정을 짐작한듯 곁에서 달근이 격한 어조로 부르짖

었다.

《까짓거 경매를 할테면 하라지요. 내 온 재산을 통채로 들이밀어서라두 기어쿠 조상의 유물을 되찾구야말겠수다. 아니! 나 혼자뿐이 아니웨다. 이 소식을 알면 오사까의 동포들이 몽땅 들구일어날거우다.》

그러자 조동수도 의기양양해서 곁을 달았다.

《왜 오사까동포들뿐이겠습니까.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모두가 리선생을 응원할겁니다.》

《아무렴!》

불등걸처럼 이글거리는 그들의 눈빛을 보니 리경식의 가슴도 투지로 끓어올랐다. 백번 옳은 말이였다. 그의 뒤에는 조국이 있었다. 애국에 불타는 동포들이 있었다. 하거늘 두려워할것이 대체 뭐란 말인가. 경식은 사지에 뻗쳐오는 충만한 힘을 의식하며 우달근과 조동수에게 기운차게 말했다.

《그 말씀들을 들으니 힘이 솟구칩니다. 그렇구말구요! 마음을 합치면 하늘을 이긴다는데 동포들이 뭉친 힘으로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뭐겠습니까. 아마 하늘의 별도 따올겝니다.》

《하하하…》

세사람의 호기스러운 웃음소리가 집안을 흔들었다. …

드디여 경매가 열리는 날이 왔다.

얼마나 더디게 흘러간 사흘간이였던가. 동포들을 만난다, 자금을 마련한다 하며 오금에서 불이 날 지경으로 바삐 돌아치는 속에서도 경식에게는 이 사흘간이 석삼년맞잡이로 여겨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사흘후에 모든것이 결판난다는 긴장감때문이였다. 향악보의 운명도, 그것을 찾기 위해 기울여온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도 사흘후에 가서는 결말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것 같았고 자리에 누워도 쉬이 눈을 붙일수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사흘어간에 경식의 얼굴은 눈에 띄게 헐끔해졌다. 과연 최후의 승부는 어떻게 될것인가?

시간이 되자 리경식은 우달근과 함께 경매장으로 떠났다. 겨울의 짧은 해가 서쪽하늘가에서 불그스레한 락조를 피우기 시작한무렵이였다. 살얼음에 쌓인 거리는 싸늘한 랭기를 풍기고있었다. 땅을 핥으며 불어온 칼바람이 외투자락을 물어뜯었다.

정장차림에 허연 입김을 씩씩 뿜으며 걸어가는 우달근의 모습은 전장으로 나가는 전함인양 자못 엄엄해보였다. 아침부터 점포일도 보는둥마는둥하며 경식의 주위에서 공연히 서성대던 그였다. 때없이 방안을 드나들기도 하고 까닭없이 마누라를 들볶아대기도 하면서 화로에 엿을 놓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던 그의 심정을 경식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리경식은 짐짓 웃어보이며 달근에게 롱삼아 말했다.

《허허… 부회장아버님을 보니 꼭 결전장에 나가는 무사같습니다.》

그러자 달근이 열적은 웃음을 띠우며 말을 받았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 내 심정이 그것과 비슷하우다. 암, 결전장이다마다요. 뭇사람들이 지켜보는 결전장이 아니웨까. 우리가 오늘 향악보를 되찾지 못하면 남들이 뭐라구 하겠수. 저것들 제 조상이 넘겨준 유물두 찾아가지지 못하는 못난 자손들이라구 비웃을거우다. 그뿐인가요. 향악보를 다시는 찾을 길이 막막해질는지도 모르지요. 그걸 생각하니 죽을힘을 다해서라두 꼭 경매에서 이겨야겠다는 생각뿐이우다.》

우달근의 말은 승전에로 부르는 북소리마냥 커다랗게 울리며 경식의 가슴을 쿵쿵 두드려왔다.

수많은 동포들과 일본사람들이 경매를 지켜볼것이다. 그것은 돈과 돈의 대결이기 전에 주인과 날강도의 대결이 될것이다.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 될것이고 량심과 철면피의 대결로 될것이다. 만일 그 대결에서 진다면 민족과 겨레앞에서 평생토록 머리를 들지 못할것이고 우리 후손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귀중한 유산을 영영 볼수 없게 될것이다. 이겨야 한다. 세상사람들에게 정의와 량심은 끝끝내 승리한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조선사람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

무엇인가 열렬하고 드세찬 기운이 줄기차게 솟구쳐오르는것을 느끼며 리경식은 발걸음을 다우쳤다.

어느덧 그들의 앞에 서양식으로 지은 장방형의 낡은 건물이 나졌다. 그곳이 바로 경매가 진행될 오사까증권거래소였다. 그들이 건물로 다가가는데 누군가가 경식을 불렀다. 눈길을 돌려보니 뜻밖에도 하또리 류따로가 그들에게로 다가오는것이 아닌가.

《리선생을 여기서 만날줄 알았다니까.》

경식은 그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아니, 하또리선생님이 여기에 어떻게?…》

급히 왔는지 헐근헐근 숨을 몰아쉬던 하또리가 사연을 설명했다.

《오사까종합대학에 초빙강의를 하러 왔다가 신문에 난 광고를 보았소. 리선생이 그토록 찾던 <조선향악보>인데 경매에 붙인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냥 지나칠수가 있더라구. 그래 만사를 제쳐놓구 달려오는 길이요.》

그때에야 사유를 안 경식은 반색을 하며 하또리의 손을 잡았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또리선생님까지 오시니 한결 힘이 솟습니다.》

경식의 꾸밈없는 말이였다. 이렇듯 결정적인 시각에 사심없는 진

정을 안고 달려온 한 량심인의 마음이 고마워 경식은 하또리의 손을 부여잡은채 놓을줄을 몰랐다. 그러는데 하또리가 근심스러운 빛을 감추지 못하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린다.

《신문에 광고를 냈으니 경매에 참가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텐데…》

그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경매에서 이길수 있겠는가고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우달근이 그런 마음을 짐작한듯 우선우선한 어조로 말했다.

《너무 걱정마시우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구 이렇게 좋은분들이 진심을 쏟아붓는데 산인들 떠옮기지 못할라구요.》

그 말에 하또리는 구레나룻을 쓰다듬으며 흔쾌하게 웃었다.

《하하하… 옳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난 당신들의 뜻이 성취되기만을 마음속으로 빌겠습니다.》

벗의 뜨거운 성원에 사의를 표하고나서 경식이 경매장으로 들어가려는데 하또리가 조용히 불러세우는것이였다. 웬 일인지 좀전과 다른 심각한 빛이 그의 얼굴에 떠돌고있었다. 경식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달근을 먼저 들여보내고 하또리와 마주섰다. 잠시후 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다.

《리선생, 그저께 히사꼬양이 테로를 당했소.》

《뭐라구요?》

너무도 돌발적인 소식에 경식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또리의 뒤따른 말이 무서운 진실을 확인해주었다.

《밤에 집으로 돌아가댔는데 어떤 괴한들이 달려들어서 폭행을 가했다고 하오.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다가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요행 위급한 고비는 넘겼다더구만.》

경식은 얼나간 사람처럼 말이 없었다. 아연함과 의혹에 사로잡

혀 못박힌듯 굳어져있던 경식은 이윽고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하또리에게 물었다.

《대체 어떤자들이 무엇때문에 그런짓을 했다는겁니까?》

하또리는 뭔가 생각해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보나마나 우익깡패들이 한짓일게요. 히사꼬양의 글이 저희네 비위에 거슬렸겠지.》

《글이라니요?》

경식이 얼떠름해하자 하또리가 의아한 표정을 보였다.

《아니, 아직 모르고있소? 며칠전에 히사꼬양의 글이 신문에 났소.》

하또리는 성급히 외투깃을 제끼더니 품에 간수했던 신문 한장을 꺼내주었다. 신문을 펼쳐드는 경식의 눈앞에 고지크체의 글제목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일본의 량심을 묻습니다!》

경식은 흥분속에 히사꼬의 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것이 일본의 슬기라고들 말합니다. 잘못한것에 대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는것이 일본인의 지조이고 량심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고많습니다. 전쟁이 끝난지 15년이 넘는 오늘날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세인들은 우리 일본인들을 가리켜 겉과 본심이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은 도덕적미숙아로, 인류의 보편적리상과는 멀리 동떨어진 후진국으로 세인의 비웃음을 받고있는가 봅니다. 식민지시기에 일본에 들어온 조선의 수많은 문화재들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작부터 일본의 량심을 비수같이 찌르고드는 글이였다. 히사꼬

는 글에서 조선의 문화재들을 파괴하고 강탈한 일제의 죄행에 대해서, 가루베와 같은자들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량심있는 일본인들이라면 마땅히 과거의 죄행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고 조선문화재에 대한 반환의무를 스스로 걸머지고 나서야 할것이라고 의분을 토로하고있었다.

글을 읽고나니 사태가 짐작되였다. 히사꼬의 글이 가루베 같은 철면피한들의 비위를 사정없이 긁었으리라는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였다. 그래서 그처럼 순진한 처녀에게 테로까지 감행했단 말인가. 경식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뢰소리와도 같은 굉음이 무겁게 메아리쳐왔다.

지금껏 향악보를 찾는 길에서 기쁨과 피로움을 함께 나누어온 히사꼬였다. 가랑비가 내리던 몇달전 여름밤 박상열을 만나고 온몸이 비에 젖어 뛰여왔던 처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자기가 경솔했다고, 박상열이 그런 사람일줄은 몰랐다고 흐느끼며 용서를 빌던 처녀. 쓰라린 뉘우침에 허덕이는 처녀의 그 모습에서 경식은 거짓없는 한 인간의 량심을 보며 이런 말만 거듭 외우지 않았던가.

《그러지 마오. 히사꼬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겠소. … 히사꼬에겐 잘못이 없소. …》

그날 밤 경식은 처녀와 한우산을 쓴채 분렬된 조선민족의 고통에 대하여, 조국통일의 절박성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며 비내리는 밤거리를 오래도록 걷고 또 걸었었다. 그때 샘물처럼 끓어넘치는 맑은 두눈에 순정을 담으며 조선사람들의 벗이 되고싶다고 고백하던 히사꼬의 목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처녀를 해치려고 하다니.

분노가 사나운 파도마냥 태를 쳤다. 비렬하기 그지없는자들이였다. 배타주의와 국수주의에 극도로 환장한 그런자들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의 고아로 치부되고있는것이고 조일 두 나라사이에 가로놓인 불신과 대립의 장벽은 나날이 높아지기만 하는것이 아닌가. 히사꼬를 테로한 악한들에게, 과거의 망령을 되살리려고 날뛰는 사무라이의 후예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정의와 진리의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경식은 불같이 달아오른 숨을 한껏 다그어쉬고나서 하또리와 함께 경매장으로 들어갔다.

8. 《조선인들의 일이니까요》

경매장에 들어서던 경식은 주춤 멈춰서버렸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너렁청한 홀안에서 웅성거리고있었던것이다. 지어 그들중에는 사진기를 메고 서성거리는 기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모름지기 대다수가 경매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일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일반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옛 악보집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앞에 경식은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신문에 경매를 공개해서일가? 하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경매가 벌어지군 하는 이 오사까에서 그런 일은 례상사가 아닌가. 곁에 있는 하또리의 심정도 마찬가지인것 같았다.

경식이 더욱더 커지는 중압감에 눌려 우두커니 서있는데 저쪽에서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을 바라보니 조동수가 벌써 와서 우달근과 함께 그를 기다리며 서있었다. 경식은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놀랍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니…》

경식이 불안한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리자 조동수가 의연히 웃어

보이며 말하는것이였다.

《도꾜에서 엄길호회장이 몇번이나 전화를 걸어왔댔습니다. 리선생에게 꼭 전하라더군요. 총련과 동포들이 든든히 뒤를 받쳐주고있으니 배심을 가지고 내밀라고 말입니다.》

경식은 그 말에 정신을 버쩍 차렸다.

(아무렴, 향악보를 탐내는 경쟁자들가운데 나만큼 뒤가 든든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라구.)

순간이나마 주춤거렸던 자신을 다잡으며 경식은 경매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홀의 한가운데 권투경기장처럼 네모지게 란간이 둘러져있었다. 란간안에는 비단천을 씌운 큼직한 탁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주위로 여러개의 의자들도 놓여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경매가 벌어지게 되는것이다.

경매시간이 가까와오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란간주위로 모여들었다. 학자풍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돈냄새를 물씬물씬 풍기는 호사스러운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호기심에 끌려온듯싶은 새파란 젊은이들과 유한부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운다. 일본인들도 많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여기저기서 조선말들도 적지 않게 들려왔다. 경식은 같이 온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며 란간가까이로 자리를 옮겼다.

마침내 시간이 되자 경매사가 나무마치를 들고 나타났다. 그뒤로는 남빛기모노를 방정하게 차려입은 녀인 하나가 따르고있었다. 《아라이스시》 녀주인이였다. 녀인을 알아본 경식은 낯을 돌리고 말았다. 쓰디쓴 환멸감이 치밀어오르는것을 견딜수가 없었던것이다.

녀인과 함께 란간안으로 들어간 경매사가 탁자앞에 나섰다. 이윽고 경매사의 새된 목소리가 경매장을 울렸다.

《에ㅡ 지금부터 <조선향악보>에 대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신문과 방송을 통해 대략 소개가 되였습니다만 <조선향악보>는 조선의 유서깊은 향악곡들을 수록한 고악보집이올시다. 그럼 경매에 참가하실분들은 이안으로 들어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바람터진 숲처럼 장내가 술렁대고 경매에 나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둘 란간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경식의 심장이 북치듯 높뛰기 시작했다. 곁에서 누군가가 자기 손을 꽉 쥐였다 놓는것을 얼결에 의식하며 리경식도 성급히 란간안으로 들어갔다.

여라문명의 사람들이 란간안에 모여들었다. 그들의 모습을 둘러보던 경식의 눈길은 그만에야 우뚝 굳어져버리고말았다. 자기가 겨루어야 할 경쟁자들속에 다름아닌 박상열이 끼여있는것이 아닌가.

홀연 날카로운 아픔이 온몸에 미쳐왔다. 박상열이 나타나리라고 짐작하지 못한것은 아니였지만 막상 오늘 또다시 그와 맞서고보니 억이 막히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박상열도 어두운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고있었다. 경식은 상열에게로 다가갔다.

《끝내 여기까지 찾아왔나?》

흐려진 어조로 이렇게 묻는 경식에게 상열은 침울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이. 운명이 나와 자네를 끝까지 맞서게 하는구만. 아마 우린 서로 악연인가보네.》

경식은 비통한 심정으로 상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작고 동그란 상열의 안경알이 랭랭하게 번뜩이고있었다. 드넓은 세상을 내다보기에는 그 안경이 지내 답답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숨이 컥 막혀왔다. 어째서 한조상의 유산을 찾으러 나선 후손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이렇게 서로 악연으로 만나야만 하는가. 분렬의 비극은 이다지도 참혹하단 말인가. 두 사나이사이에 괴로운

침묵이 흘렀다.

그럴 때 둥근 운송모를 쓴 사나이 하나가 포장한 책꾸레미를 들고 들어왔다. 사나이는 포장을 헤치더니 책들을 탁자우에 가지런히 올려놓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앞에 차려놓은 고서들이 바로 <조선향악보>입니다. 경매에 참가하실분들은 먼저 경매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군들의 웅성이는 소리가 높아지는 속에 란간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우르르 탁자를 에워쌌다. 경식도 서둘러 그리로 다가섰다.

탁자우에 여러권의 고서들이 놓여있었다. 경식은 울렁거리는 마음을 안고 고서 하나를 손에 들었다. 누렇게 색이 바랜 겉가위우에 붓글로 씌여진 제명이 한눈에 안겨왔다.

《조선향악보》

순간 울음이 터질듯이 가슴이 벅차올랐다. 경식은 떨리는 손으로 책의 갈피갈피를 조심조심 번져보았다. 아직도 먹향기가 사라지지 않은듯 한 참지우에 정간보(우리 나라의 고유한 옛 악보)형식으로 력대로 전해져온 《거사련》, 《취화평》, 《발상》과 같은 수많은 향악곡들의 선률과 가사, 장단이며 악기들이 표기되여있었다. 틀림없는 우리 나라의 향악보였다.

눈앞이 흐려왔다. 선조들의 희로애락과 세월의 풍상을 고스란히 껴안은 향악보가 물밑에서 흐느적거리는것 같았다. 얼마나 찾고찾던 민족의 재보인가. 지금껏 민족문화재들을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느끼군 하던 그 모든 감동들을 다 합쳐도 이 순간의 환희에는 비길것 같지 못했다.

리경식은 터져나갈듯 한 기쁨에 온몸을 떨며 저도 모르게 박상열쪽을 바라보았다. 향악보를 들여다보는 상열의 얼굴에도 희열의

빛이 끓고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이 뭉클했다. 이 행복한 순간을 동족과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으랴. 생각할수록 창자가 끊어질 일이였다. 국토를 두동강낸 분렬의 비운은 겨레의 기쁨과 환희마저 이렇듯 두동강으로 갈라놓고있었던것이다.

얼마후 그들은 탁자를 중심으로 빙 둘러앉았다. 탁자와 제일 가까운 의자에는 경매를 요구한 《아라이스시》 녀주인이 자리를 잡았다. 녀인은 둥그스름한 눈까풀밑에 깊숙이 눈을 감추고 앉아있었다. 그러면서도 무릎우에 모아얹은 녀인의 손가락들은 수판알을 튕기듯 쉬임없이 꿈틀대고있었다. 랭혹한 타산과 억척스러운 고집의 빛이 조는듯이 무표정한 녀인의 얼굴에 비껴돌았다. 어느 한순간 녀인은 리경식과 피끗 눈이 마주쳤건만 랭담하게 인츰 눈길을 피해버렸다. 미안해하는 빛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모습이였다. 하긴 저 녀인한테야 향악보라는게 한갖 돈벌이수단에 불과할거라고 생각하니 경식은 절로 쓴웃음이 나왔다.

그런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뒤웅박 신고 얼음판에 선것처럼 불안했다. 경매에 나선 사람들중에 가루베의 얼굴이 없었던것이다. 이상한 일이였다. 가루베가 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 승냥이가 날고기를 사양했다는것만치나 괴이쩍기 그지없었다. 혹시 그자가 향악보를 포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그날 《백자》차집에서 헤여질 때 가루베가 짓던 악의에 찬 웃음을 경식은 똑똑히 기억하고있었다. 그렇다면 경매에 대해 아직 모르고있기라도 한건가. 그것 역시 있을수 없는 일이였다. 박상열이나 히사꼬에게까지 추파를 던지면서 이쪽의 일거일동을 피눈이 되여 주시해온 가루베가 아닌가. 아무리 따져봐도 께름한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쳐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신호종소리처럼 울리는 경매사의 목소리가 번거롭게 흐르던 경식

의 생각을 흔들어깨웠다.

《그럼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가격은 100만엔! 자, 어서 경매에 참가해주십시오.》

구경군들속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흔히 부르는 고서의 값치고는 처음부터 예상을 훨씬 뛰여넘었던것이다. 누군가가 주저없이 값을 부른다.

《난 110만엔을 내겠소!》

그러자 경쟁하듯 다른 소리들도 뒤를 따랐다.

《난 120만엔!》

《130만엔!》

《140만엔!》

리경식도 드세차게 사품치는 격렬한 힘에 떠밀리워 폭풍의 중심으로 빨리워들어갔다. 그는 웅글은 소리로 웨쳤다.

《150만엔을 내겠소!》

하지만 련이어 튀여나오는 소리들이 거침없이 그의 소리를 삼켜버렸다.

《그럼 난 160만엔!》

《난 170만엔!》

《180만엔!》

서로 덮치고 밀막으며 어찌들 승벽을 부리는지 누가 얼마를 부르는지 분간키조차 어려웠다. 부르는 값이 올라갈 때마다 구경군들은 와와ㅡ 환성을 올리며 고아댔다. 지어 프로레스링장면을 구경하기라도 하는듯 발까지 구르며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경식은 온몸이 징징 소리를 내는듯 한 긴장을 느끼며 또다시 값을 불렀다.

《200만엔을 부르오!》

순식간에 경매가격이 두배로 뛰여올랐다. 그런데도 달아오른 열기는 좀처럼 식을줄 몰랐다.

《210만엔!》

《230만엔!》

…

《아라이스시》 녀주인의 얼굴은 흥분에 북받쳐 빨갛게 달아올랐다. 경매판이 이렇게까지 크게 번져질줄은 그 녀인도 미처 생각지 못한 모양이였다. 온 경매장이 사람들의 왁작거리는 소리로 하여 펄펄 끓고있었다. 경식은 축축하게 젖어든 살쩍을 훔치며 더 높은 값을 불렀다.

《250만엔!》

우달근이며 조동수가 주먹을 흔들어보이며 연방 격려를 보낸다. 그들을 보니 배심이 두둑해왔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자기 몸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기어이 향악보를 찾아야 한다는 그 한가지 일념만이 경식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가격이 300만엔계선으로 육박하자 경쟁자들이 하나둘 떨어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300만엔계선을 넘어섰을 때에는 불과 너덧명의 경쟁자들만이 남게 되였다.

《320만엔!》

《325만엔!》

《330만엔!》

…

가격이 오를수록 부르는 소리들은 점점 줄어들고 동안도 떠졌다. 경식은 온몸이 땀에 떠서 계속 값을 불러나갔다.

《350만엔!》

뒤따르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경매사가 나무마치를 집어들

며 열기띤 소리로 물었다.

《자, 350만엔! 더 부르실분이 없습니까?》

조금 있더니 도전하듯 부르는 누군가의 소리가 뒤를 따랐다.

《360만엔!》

경식은 향악보가 놓여있는 경매탁에만 온 정신을 집중한채 다시금 값을 불렀다.

《370만엔!》

그런데 얼마간 침묵이 흐르다가 좀전의 목소리가 또다시 뒤를 따르는것이 아닌가.

《380만엔!》

불시에 가슴이 무직해왔다. 너무도 귀에 익은 목소리였던것이다. 비로소 경식은 자기와 그 한사람만이 남았다는것을 알았다. 그러고보니 그렇게 법석대던 구경군들도 언제부터인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경매를 지켜보고있었다. 경식은 천천히 눈길을 돌려 자기의 마지막경쟁자를 바라보았다.

아니나다를가 승부심에 불타는 박상열의 눈초리가 이쪽을 주시하고있었다. 고집스럽게 두드러진 되박이마우에 튀여나올듯 곤두선 피줄이며 잔뜩 도사린 어깨근육에서 경식은 그를 사로잡고있는 팽팽한 긴장감을 대뜸 느낄수가 있었다. 경식은 가빠오르는 숨결을 애써 고루고나서 값을 다시 불렀다.

《400만엔!》

《400만엔! 400만엔을 불렀습니다!》

경매사가 신바람이 나서 소리쳤다. 그러자 상열도 거치른 기세로 맞받아 부른다.

《난 450만엔을 낼테요!》

《450만엔! 아, 이번엔 450만엔을 불렀습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아라이스시》 녀주인이 멍해진 눈빛으로 두사람을 쳐다보았다. 구경군들도 또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과연 저 두 사나이는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렇듯 엄청난 돈을 부르며 한사코 물러서지 않는걸가고 수군거리는것 같았다.

경식의 마음은 쓰라린 고뇌로 하여 갈가리 찢겨져나가는것 같았다. 어찌하여 한피줄을 이은 자손들이 한조상의 유물을 두고 이렇게까지 다투어야만 하는가. 저기서 구경하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할것이며 동포들의 심정은 또 어떠하랴. 진정 저 사람들앞에서 우리 겨레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수는 없단 말인가.

불한숨이 나갔다. 가슴속에서 뒤울려오는 거센 울부짖음소리가 억누를길 없는 힘으로 목에 차올랐다. 경식은 피타는 눈길로 상열을 바라보았다. 상열의 눈빛도 저으기 떨리고있었다. 하건만 굳어질대로 굳어진 대결의 타성에서 벗어나기 힘겨웠던지 대뜸 그가 고개를 외로 틀어버린다.

두 사나이의 겨룸을 기껏 부채질하려는듯 경매사가 더욱 새되게 목청을 올렸다.

《자, 450만엔입니다! 인젠 더 부르실분이 없습니까?》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저쪽에서 컬컬하고 쉬지근한 목소리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1 000만엔이요! 가루베 신조가 1 000만엔을 낼테요!》

순간 장내의 이목이 그리로 쏠렸다. 모직외투를 입은 대머리신사가 단장을 슬쩍슬쩍 짚으며 란간안으로 들어오고있었다. 가루베였다. 번쩍번쩍 윤기가 흐르는 얼굴에 의기양양한 빛을 띠우고 가루베가 거드름스레 이리로 오고있었다.

리경식의 두눈이 칼날같이 번뜩였다. 경매가 막판에 이른 이 시각에 저자가 돌연히 나타나다니. 경식의 관자노리에서 손가락같은 굵은 피줄이 툭툭 튀여올랐다.

가루베는 곧바로 경매탁으로 다가가더니 탁우에 놓여있는 고서들을 걸탐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그러는 그자의 두터운 금테안경속에서 모듭뜬 퉁방울눈이 탐욕스럽게 희번덕거리고있었다. 멍청해서 서있던 경매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듯 따져물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이자 1 000만엔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가루베가 여봐란듯이 배를 불쑥 내밀며 방금 한 말을 곱씹어 외우는것이였다.

《그렇소. 1 000만엔이요! 1 000만엔!》

폭음같은 탄성이 경매장에 터져올랐다. 1 000만엔이라니? 그만한 돈이면 도꾜나 오사까의 번화가에 번듯한 료정을 하나 차릴만한 액수가 아닌가. 일반평민이 서너해를 놀고먹고도 남을 돈을 눈섭 하나 까딱않고 부르는 가루베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벌리지 않을수 없었다. 더우기 《아라이스시》 녀주인의 놀라움이 이만저만 아닌것 같았다. 가루베를 쳐다보는 녀인의 얼굴에 의혹과 반신반의, 아연함이 착잡하게 엉켜돌고있었다. 한갖 시미즈의 자그마한 술집이나 노리다가 이런 굉장한 횡재를 하게 된것이 녀인으로서도 선뜻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였다. 경악에 질린 경매사의 목소리가 장내를 흔들고있었다.

《1 000만엔! 놀랍게도 1 000만엔을 불렀습니다!》

가루베가 부른 1 000만엔이라는 금액앞에 리경식도 당황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언젠가 우달근으로부터 교육회사업에 기부할 100만엔을 얻기 위해 기업과 가산을 죄다 저당잡혔었다는 말을 들

은 기억이 났다. 그런 실례가 말해주듯이 일본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동포상공인들의 경우에도 1 000만엔은 결코 쉽게 부를수 있는 금액이 아니였다. 물론 조국을 위한 일이라면 동포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설것이다. 하지만 끝끝내 가루베가 향악보를 포기하지 않고 재력을 휘두르며 발악적으로 나온다면?… 이런 생각을 하니 경식의 호흡은 저도 모르게 다급해났다.

가루베는 그러는 리경식의 모습을 흐무러진 웃음속에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이 시각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얼마나 많은 공력을 쏟아부었던가.

리경식이 오사까의 한 녀인을 만나러 갔다는 정보를 흥신소 주인으로부터 받고 가루베는 처음에 얼른 쫓아가 녀인에게서 향악보를 빼아내야겠다고 서둘렀었다.

녀인의 신상자료로 보아 리경식의 설복이 무른 땅에 말뚝 박듯 쉽사리 먹어들진 않을것이고 따라서 자기가 녀인에게 엄청난 돈을 내보이기만 하면 향악보는 절로 품안에 굴러떨어질것이라고 타산했던것이다.

허나 다음순간 아라기령감이 바라는게 단지 향악보나 가져다 바치는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뒤골을 때렸다. 조선의 고서보다도 중요한건 아시아와 세계를 주무를수 있는 지혜를 깨닫는거라고, 《센징》들을 누르자면 그들의 내분과 불화를 할수 있는껏 부채질해야 한다던 령감의 살기찬 목소리가 귀바퀴를 후려갈겼다. 이번이 마지막기회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는 자기의 능력을 령감에게 확고히 인정받아야만 했다. 한동안 머리를 쥐여짜던 가루베는 마침내 그럴듯한 대본 하나를 완성했다.

가루베는 리경식에 대한 정보를 박상열에게도 알리도록 했다. 그러면 박상열이 틀림없이 오사까로 뛰여올것이고 두 조선인사이에는

향악보를 둘러싸고 또다시 치렬한 쟁탈전이 벌어질것이다. 한편으로 가루베는 향악보를 가지고있다는 《아라이스시》 녀주인에게로 달려갔다. 그가 조선인이라는게 좀 꺼림직했지만 흥신소가 알아본 바대로 일본인행세를 하면서 돈에만 눈을 밝히는 녀인이 분명했다. 가루베는 녀인에게 향악보를 경매에 붙이라고 꼬드겼다. 그렇게 되면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고 그들중에는 부자들도 있어 틀림없이 횡재를 하게 될거라고 극구 장담했다. 아무리 리경식과 사전에 오간 말이 있었다 할지라도 돈에 눈이 어두운 녀인이였으니 마침내는 가루베가 던진 미끼를 받아물고야말았다.

가루베는 쾌재를 올리며 그길로 경매준비에 달라붙었다. 자기가 앞에 나서면 리경식이나 박상열이 기미를 챌가봐서 그는 뒤에서 은밀히 조종하였다. 녀인의 명의로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시간과 장소를 빨리 선정하게 하였으며 지체없이 경매광고를 신문과 방송에 내도록 하였다. 그러느라고 경매주최측을 대신하여 돈도 많이 뿌렸다. 하지만 가루베에게 있어서 그런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문제는 리경식이네가 손쓸새없이 일을 일사천리로 내미는것이였다. 일단 경매가 벌어지기만 한다면야 자기의 승리는 떼놓은 당상이 아닌가. 결국 모든 일이 그가 꾸민 각본대로 착착 맞물려왔던것이다.

구경군들의 왁작대는 소리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경매장의 관심이 온통 가루베 한사람에게만 쏠려있는것 같았다. 그는 히벌쭉이 웃으며 구경군들을 둘러보았다. 여느 경매보다 퍼그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경매판이 이렇게 커지기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빌고 또 빌었던가. 가루베가 갖은 품을 들여가며 오사까시민들의 관심이 늘쌍 집중되는 증권거래소를 경매장소로 택하게 한것도, 신문과 방송에 광고를 내고도 모자라 인맥까지 총발동하여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경매장에 모여들도록 기를 쓴것도

바로 그때문이 아니였던가.

만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선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한바탕 들날리자는것이 가루베가 노리는 진의도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리경식과 박상열에게서 당한 모욕을 톡톡히 되갚아주고 아라기의 신임을 얻어 멀지 않아 있게 될 선거때 령감의 적극적인 후원을 끌어내자는것이였다.

《자, 1 000만엔입니다! 더 부르실분들이 없는지요.》

주위를 휘둘러보며 묻는 경매사의 말뒤에는 이미 물음표가 없었다. 벌써부터 기자들이 가루베를 향해 사진기의 초점을 맞추고있었다. 가루베는 부얼부얼한 얼굴에 함박웃음을 한가득 실으며 기자들을 바라보았다.

래일 아침이면 보기 드물게 치렬했던 이 경매에 대한 소식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파다하게 퍼져갈것이다. 가루베의 이름과 얼굴이 《일본의 긍지를 지켜낸 애국적인 사나이》로 한껏 포장되여 사람들의 눈길을 모을것이다. 당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있는 가루베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더 좋은 광고가 어데 있겠는가. 그렇게 보면 이 인기극의 연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매장에 기자들을 불러들이고 경매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에 자기가 등장한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싶었다.

가루베의 육중한 몸이 콘트라바스마냥 기분좋게 떨려났다. 드디여 그렇게도 눈독을 들이던 《조선향악보》가 제 손에 들어오게 된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아라기의 뜻대로 조선인들의 내분이 경매를 통해 극도에 이르렀고 자기는 자기대로 하늘에 닿을만치 인기를 올렸으니 이거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둥지털어 불땐 격이 아닌가.

(필경 아라기에게도 이 소식이 가닿을테지. 인젠 그 두상도 이 가루베 신조를 세살 먹은 아이 대하듯 하진 못할걸.)

이런 생각을 하니 자꾸만 흐드득흐드득 웃음이 솟구쳐오르는것을 견딜수가 없었다. 가루베는 리경식에게로 눈길을 되돌렸다.

길쑴하고 묵직한 리경식의 얼굴이 터질듯 한 긴장으로 하여 돌처럼 굳어져있었다. 가루베의 늘어진 볼이 웃음으로 떨렸다. 자기를 《호리야》라고 단죄하며 릉멸을 퍼붓던 사나이, 그 사나이가 지금 피할 길 없는 패배의 고배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고있는것이다. 가루베는 승리자의 쾌감으로 하여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그래, 이런걸 두고 바로 승리자의 쾌감이라고 하지. 바야흐로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는 적수를 어르듯 가루베는 리경식의 앞에 다가가 빈정거렸다.

《리선생, 내가 이미 말했더랬지요. <조선향악보>는 어차피 내 손에 들어오고만다구요. 강약이 부동이라는 소리가 괜히 생겨났겠습니까. 핫하하하…》

가루베가 치솟는 쾌감을 도저히 누를길 없는지 밭은 목을 제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득의만면해서 어쩔줄 몰라하는 그자의 꼴을 보면서 경식은 그 시각 사정없이 자신을 매질하고있었다. 아이적에 할아버지가 쥐여주던 그 회초리로, 지금껏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온 그 회초리로 피가 터지도록 자기의 종아리를 치고 또 치고있었다.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아픔에 온몸이 푸들거렸다. 할아버지를 격노케 했던 그날의 원한이 경식의 가슴에 쓰라리게 되살아났다.

허파가 뒤집히도록 너털대던 가루베가 이번에는 박상열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자는 무시무시하게 이그러진 박상열의 얼굴을 알아보더니 흐뭇한 조소를 던졌다.

《아, 박상열씨도 오래간만인데요. 전번엔 날 멋있게 업어넘기더니만 오늘은 웬 일이시오? 이렇게 보따리를 바꿔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꿀은 달지만 벌은 쏜다는 말이 있는가보지요. 흐흐흐…》

박상열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소리가 새여나왔다. 가루베를 노려보는 그의 두눈에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렸다. 경매사가 셈을 세는 소리가 들려왔다.

《1 000만엔, 두번째!…》

서서히 울려오는 승전고를 듣는듯 가루베의 얼굴가에 희색이 넌즈러져흘렀다. 가루베는 승리의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싶었다. 하여 그자는 보란듯이 경매탁앞에 나서더니 오만한 랭소를 입가에 띠우며 리경식과 박상열을 향해 다시금 이죽거렸다.

《당신들의 심정이 지금 어떠하리라는걸 나도 짐작합니다. 그동안 두분이 고생해온걸 생각하면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허나 아무리 당신들이 모지름을 쓴들 달리될수야 있겠습니까. 조선인들의 일이니까요. 흐하하하…》

가루베가 또다시 경매장이 떠나가게 웃음을 터뜨렸다. 어찌나 너털거리며 웃어대는지 그자의 눈이며 입이며 코가 유들유들한 살속에 빠져 온통 흐물거리는듯싶었다.

리경식의 우묵한 눈확에서 시퍼런 섬광이 튀여나왔다. 노도인양 격렬한 기운이 가슴속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불끈 솟구쳐오르며 무섭게 태질을 했다.

흔히 북과 남사이에 끼여들어 어부지리를 얻은 일본인들이 조선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저렇게 말하군 한다.

《조선인들의 일이니까요.》

민족분렬의 쓰라림과 통한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 지껄임을 이 시각 가루베에게서 듣는 순간 경식은 참을길 없는 아픔과 분노에 숨이 멎는것만 같았다. 경식의 목언저리에 피줄이 부풀어올랐다. 사납게 묻는듯 한 그의 눈길이 차디찬 밤하늘을 찢는 번개마냥 상열에게로 날아갔다. 박상열 역시 피발이 선 두눈을 부릅뜬채 경식

을 마주보고있었다. 서로를 지르보는 두 사나이의 눈길이 허공에서 부딪쳐 맹렬한 불꽃을 일으키는듯 했다.

《1 000만엔, 세번째!…》

마지막셈을 세는 경매사의 목소리에서는 더이상 아무런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경매를 지켜보는 대다수 사람들의 얼굴에도 결말은 보나마나하다는듯 방심한 기색이 떠돌고있었다. 아까부터 우달근이 뭐라고 안타까이 소리치고있었지만 구경군들의 번잡스러운 말소리들에 묻혀 좀처럼 가려들을수가 없었다.

경매사가 서서히 나무마치를 쳐들었다.

《드디여 <조선향악보>가 1 000만엔에 경매되였음을 알립니다!》

이렇게 고아대며 경매사가 마치로 경매탁을 치려는 순간이였다. 별안간 웅글은 고함소리가 벽력마냥 장내에 울려퍼졌다.

《가만!》

리경식의 고함소리였다. 경식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 경매사를 제지시키며 웨쳤다.

《경매는 아직 끝나지 않았소!》

나무마치를 든 손이 허공중에서 굳어져버렸다. 경매사가 어리둥절해서 경식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설마 더 부르시겠다는…》

아연실색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마무리지 못하는 경매사에게 경식은 서슬찬 기상으로 결연히 웨쳤다.

《그렇소, 더 부르겠소. 2 000만엔이요!》

그 순간 웅성거리던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2 000만엔이라니?… 잘못 들은거나 아닐가?… 구경군들모두가 눈이 휘둥그래지고말았다. 방금전까지도 가루베에게로만 쏠려있던 뭇눈길들이 일시에 리경식에게로 집중되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긴장한 숨소리만

이 장내에 엉켜도는데 얼나간 모양으로 멍하니 서있던 가루베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경식에게 말을 걸어왔다.

《허허 리선생, 누굴 놀리시는거요. 대관절 당신에게 그 많은 돈이 어데 있다는겁니까?》

능글거리며 비웃는 가루베에게 대고 경식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있소! 난 박상열씨와 함께 2 000만엔을 내겠소!》

너무도 뜻밖의 대답이였다. 경식은 불이 펄펄 이는 눈빛으로 상열을 바라보았다. 돌이라도 녹여낼듯 한 절절한 호소가, 쇠물보다 더 뜨거운 확신이 그 눈빛에 담겨져있었다.

상열은 가슴속에 쌓였던 번열을 토하듯 어깨숨을 몰아쉬고있었다. 이대로 계속 리경식과 대결하다가는 향악보가 가루베의 손에 넘어가고말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였다. 그가 모진 고뇌속에 시달리면서 친구와의 대결마저 서슴지 않은것도 결국은 자기나름으로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였던가. 할진대 아무리 반공을 《국시제1주의》로 삼는 이남의 국민이라 해도 겨레의 소중한 재보가 왜놈간상배의 손에 들어가는것이야 어떻게 용납할수 있단 말인가. 언젠가 자기더러 겨레앞에 부디 죄인이 되지 말라고 웨치던 리경식의 부르짖음소리가 바위를 들부시는 파도소리마냥 귀전에 메아리쳐왔다.

경식을 향해 쳐들린 상열의 안경알에 조명빛이 부딪쳐 백광으로 부서진다. 마침내 그가 용수철마냥 부르르 떨며 암팡진 몸을 일으켜세웠다. 그리고는 경식을 바라보며 소리높이 화답하는것이였다.

《그렇소! 우린 함께 2 000만엔을 낼테요!》

경식은 눈뿌리가 확 달아오르는것을 느끼며 상열을 마주보았다. 분명 그날의 모습이였다. 비운의 시절 왜놈들과 피투성이싸움을 벌리는 자기를 온몸으로 막아나서던 친구, 상열의 불같던 그 모습을 경식은 20여년만에 다시 보았던것이다.

장내의 여기저기서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 탄성들이 터져나왔다.

《잘한다!—》

《아무렴, 그래야지!》

그것은 조선말들이였다. 구경군들속에 있던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들을 내두르며 격정을 터뜨리는 소리들이였다. 그 목소리들은 그대로 힘찬 기운과 열이 되여 리경식과 박상열의 흉벽을 쾅쾅 두드려왔다. 그렇다. 이 시각 동포들에게는 북과 남이 따로 없었다. 창자를 찢는 분렬의 아픔이, 용암처럼 터져나온 민족적의분과 자존심이 삽시에 그들모두를 하나로 만들어버린듯 싶었다. 동포들의 그런 모습앞에 일본인들도 감동을 금치 못했다.

《아라이스시》 녀주인이 바늘방석에 앉은것처럼 안절부절을 못한다. 무릎우에 얹혀있는 녀인의 손가락들이 얼어붙은듯 가드라든 채 꼼짝도 안하는데 횡재의 기쁨에 달아있던 녀인의 낯빛은 그 무엇인가에 위축된듯 해쓱하니 질려있었다.

《요로시—》

가루베가 입술을 앙다물며 내뱉는 소리였다. 그자의 실한 목에서 힘줄이 사납게 불거져나왔다. 얼굴에 피가 번져 자기의 적수들을 노려보던 가루베는 미친듯이 거쉰소리를 내지르며 달려들었다.

《당신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좋소. 난 5 000만엔을 내겠다는걸 선포하는바요!》

사람들의 얼굴이 일시에 하얗게 굳어졌다. 시간마저 경악에 질려 우뚝 멈춰서버린것 같았다. 허나 그것은 잠시뿐이였다. 얼어붙었던 경매장의 분위기를 깨뜨리며 구경군들속에서 고함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리선생, 기운을 내시우다!》

《1억엔! 1억엔을 부르시오!》

우달근을 비롯한 동포들이 목터지게 부르짖는 소리였다. 경식과 상열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불덩이 같은것을 삼키는데 가루베가 발작이라도 하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것이였다.

《흥! 1억엔이구 10억엔이구 얼마든지 부를테면 부르시오! 당신들이 1억엔을 부른다면 난 10억엔을 부르겠소! 당신들이 10억엔을 부르면 난 100억엔을 부르겠단 말이요! 제아무리 죽을 기를 써봤댔자 당신들, 조선인들이 우리 일본인들의 재력을 당해낼것 같은가! 흐하하핫…》

좀전까지만 해도 신사연하던 가루베의 얼굴은 무모한 광기에 사로잡혀 미친듯이 울골질을 하는 야수의 상통으로 돌변해있었다. 증오에 타끓는 수많은 눈길들이 서리찬 비수인양 그자에게로 날아들었다. 그러거나말거나 가루베는 입에서 침방울이 튀는것도 아랑곳않고 그냥 악청을 뽑아대고있었다.

《자, 또 불러보시오! 어서들 불러보란 말이요! 유감스럽게도 여긴 웅변대회장이 아니요. 돈으로 모든게 결판나는 경매장이거던. 당신들이 열백번 혀를 깨문들 어쩌겠소. 경매물의 소유자인 아라이 기요시상은 오로지 제일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만 소유권을 양도할테니까. 리경식씨, 박상열씨! 인젠 이 가루베 신조의 승리를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요? 가혹한 진실을 말한다면 당신네 같은 조선인들이 과연 <조선향악보>를 만져볼 날이라도 있겠는지 모르겠군요. 흐하흐하…》

뚱뚱한 배집을 들썩거리며 갈가마귀소리로 껄껄대던 가루베가 자기의 승리는 기정사실이라는듯 서슴없이 향악보에 손을 가져갔다.

그 순간이였다. 서리발같이 매몰찬 목소리가 가루베의 머리우에 떨어졌다.

《다치지 마세요!》

뜻밖에도 녀인의 목소리였다. 리경식도 박상열도 어안이 벙벙해서 소리가 난쪽을 바라보았다. 분명 그 녀인의 목소리가 아닌가.

《아라이스시》 녀주인이 창백하게 굳어진 얼굴로 못박힌듯 앉아있었다. 피기가 사라져버린 파리한 뺨, 지그시 악물린 입술, 린광이 차겁게 끓는 두눈… 무엇인지 선뜻 가늠할수 없는 어둡고 착잡한 빛이 녀인의 얼굴가에 세차게 회오리치고있었다.

녀인의 둥근 어깨가 숨겹게 오르내린다. 이윽고 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뭇사람들의 의아한 눈길을 모으며 경매탁앞에 나섰다.

《아, 그러고보니 아라이상도 한말씀하실 때가 된것 같군요.》

뻥뻥해서 서있던 가루베가 그제서야 녀인의 의도를 알겠다는듯 넝큼 자리를 내주며 하는 말이였다. 녀인은 한동안 자기가 경매에 붙인 고서들을 새삼스럽게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러는데 그 모양을 지켜보던 가루베가 능글거리며 또다시 말을 거는것이였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경매결과가 아라이상의 마음에 드실테지요?》

하건만 녀인은 아무 대답도 없이 여전히 고서들에서 눈길을 뗄줄 몰랐다. 그러다가 마음속 울혈을 송두리채 날려버리려는 사람인양 깊은숨을 내긋더니 분연히 머리를 쳐들었다. 다음순간 녀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터져나왔다.

《여러분, 난 이 경매를 포기하겠다는걸 알려드립니다!》

술렁대던 사람들이 별안간 폭탄이라도 맞은것처럼 입들을 다물었다. 경매를 포기한다구? 경매사도 구경군들도 동지달에 무지개를 보기나 한것처럼 얼떨떨해서 멍하니 서로 얼굴들만 마주보았다. 가루베가 퀭해진 눈으로 녀인을 보며 혀뻐드러진 소리를 질렀다.

《포, 포기라니? 갑자기 그, 그건 무슨 소리요? 아라이상, 난 당신에게 5 000만엔을 내겠단 말이요. 5 000만엔! 설마 5 000만엔을

포기하시겠다는 뜻이야 아닐테지요?》

그러자 랭랭한 증오가 번뜩이는 녀인의 눈길이 가루베에게로 향해졌다.

《옳아요. 난 5 000만엔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선사람을 우습게 아는 당신 같은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으렵니다. 난 이 책들을 저분들에게 무상으로 넘겨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도 뜻밖이였다. 녀인이 가리켜보이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리경식과 박상열이였던것이다. 그러니 녀인이 조선사람들에게, 그것도 무상으로 고서를 넘겨준단 말인가. 고막을 압박하는듯 한 정적이 경매장에 깃들었다.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리경식이였다. 돈밖에 모르는 녀인이 아니였던가. 민족을 짐으로 여기고 살아가던 녀인이 아니였던가. 그런 녀인의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다니.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사실 앞에 경식이 얼떠름해있는데 눈섭꼬리를 우악스럽게 치켜올린 가루베가 게거품을 물고 고아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아라이상! 대체 어찌된 일이요? 당신은 돈을 원하지 않았는가! 내가 당신에게 제일 비싼 가격을 부르지 않았는가! 엉!》

녀인은 머리를 흔들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비싼 가격은 저분들이 이미 치르었는걸요. 난 아는건 별로 없어도 금새만은 헛보는 법이 없답니다.》

가루베에게 이렇게 내쏘고난 녀인은 이번에는 리경식과 박상열에게로 돌아섰다.

《왜 그러고들 계십니까. 어서 이 책들을 가져가십시오. 전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에게 이 책들을 양도하겠습니다.》

경매장의 여기저기서 감동의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흥분에 넘쳐 웨쳐대는 격한 조선말들이 천길폭포에서 흩뿌려지는 비말처럼

녀인을 향해 날아갔다.

《장하오!》

《진도집아주머니! 정말 반갑습니다!》

《과시 단군의 후예로다!》

부르는 소리, 환호소리, 흐드러지게 번져가는 통쾌한 웃음소리…

그 소리들이 경식의 귀전에 웅ㅡ 웅ㅡ 메아리쳐왔다. 저런 녀인을 너무나 때이르게 속단했던 자신이 뉘우쳐졌다. 녀인의 마음속에 불씨마냥 남아있는 겨레의 얼을 보지 못한 자신이 후회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도 녀인에게 무엇인가 웨치려고 하였다. 허나 목이 꽉 메여 종내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가루베가 바짝바짝 말라드는 목너머로 마른침을 넘기느라 애쓰는지 울대를 씰룩거린다. 충혈된 퉁방울눈을 광포하게 흡뜨며 그자는 악에 받쳐 기승을 부렸다.

《아라이상, 내 당신을 법에 고소할테요! 당신은 계약을 어긴 책임을 톡톡히 져야 할걸. 이 자리에서 목숨걸고 장담하건대 내 기어코 당신을 알거지로 만들지 않나 두고보지!》

그러나 녀인은 가루베의 위협을 암차게 되받아쳤다.

《얼마든지! 난 주최측에 위약금을 지불할 각오가 돼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명심해두십시오. 이 책의 처분권은 아직 나한테 있다는걸 말입니다. 설사 당신이 날 알거지로 만든다고 해도 난 절대로 당신 같은 사람들한텐 이 책을 넘겨주지 않겠어요!》

녀인의 두눈에는 억척스러운 고집과 결심이 드놀지 않는 바위마냥 굳어져있었다.

《옳습니다!》

구경군들속에서 누군가가 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식은 저으기 상기되여 열변을 토하는 하또리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조선향악보>는 마땅히 주인인 조선사람들의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인간의 초보적인 량심에 비추어봐도 과거 식민주의시대의 청산과 함께 오래전에 이미 주인들에게 반환되였어야 마땅하지요. 그러한 조선의 문화재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일본의 경매장에서 거래의 대상으로 오르내리고있다는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일본인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응당 수치를 느끼고 분개할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리선생!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일본의 량심은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천정에 매달린 조명등이 흔들거릴 정도로 폭풍같은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동포들도 그리고 적지 않은 일본인들도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었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그 박수소리들을 들으며 경식은 터지려는 오열을 꿀꺽 삼켰다. 하건만 뜨거운 물기가 눈시울을 지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처럼 찾고찾던 《조선향악보》를 손에 넣었기때문만이 아니였다. 그보다 더 경식의 마음을 울렁이게 하는것은 세인들에게 조선민족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가슴벅찬 그 사실이였다. 자기와 박상열이 제일 비싼 가격을 치르었다고 단언하던 녀인의 말이 떠올랐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줄 알았던 녀인이 어쩌면 그리도 신통한 소리를 하였을가. 정녕 녀인의 말이 옳았다. 우리 겨레의 하나된 마음이야말로 천만금과도 비길수 없는 가장 값비싼 재부가 아니겠는가.

누군가가 다가와 경식의 손을 그러잡았다. 박상열이였다. 땀이 배고 흥분한 그가 경식을 보며 중얼거린다.

《축하하네, 이 사람아.》

그러는 그의 두눈굽에 눈물이 번쩍거렸다. 리경식도 눈허리가 시큰해오는것을 느끼며 상열에게 말했다.

《자네도 축하하네.》

그러고나서 이슬이 고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녀인에게도 목메여 웨쳤다.

《축하합니다, 진도집아주머니!》

터질듯 끓는 심장의 뻐근한 고동소리를 들으며 두 사나이는 서로의 어깨를 힘껏 다그어안았다. 박수소리가 더욱 커졌다. 기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렌즈에 담느라 바삐 돌아치고있었다.

《음ㅡ 그러구보니 너희들 조선인들이 서로들 짜구 날 우롱했구나.》

가루베의 입에서 비명소리처럼 길게 찢어져나오는 소리였다. 휘황찬 승리감에 도취되여 개선장수인양 허파가 잔뜩 부풀어있던 그자의 몰골은 지금에 와서 마치 비맞은 장닭같이 초췌해있었다.

경식은 써늘한 쇠빛눈으로 가루베를 굽어보며 기운차게 말했다.

《주인이 도적맞혔던 제 물건을 도로 찾아갈뿐이요. 어쩌겠소, 가루베씨. 당신의 말대로 조선사람들의 일이 아니요. 하하하…》

리경식과 박상열이 우렁찬 목청으로 함께 웃는 소리가 장내에 울려퍼졌다.

9. 그들이 함께 부른 《아리랑》

경매가 끝났다. 수많은 사람들속에 휩싸여 축하의 인사를 받느라 여념이 없던 경식은 뒤늦게야 진도집녀인을 찾아보았다. 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증권거래소 역원에게 물으니 녀인이 거래소안에 있는 간이차집에 들어갔다는것이였다. 리경식은 여러권의

《조선향악보》를 박상열과 함께 나누어들고 녀인이 들어갔다는 간이차집으로 들어갔다. 우달근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차집안은 조용했다. 진도집녀인은 희여스름한 앵초꽃화분이 놓인 창문결에 허탈한 사람인양 눈을 감고 앉아있었다. 창문으로 비껴드는 석양볕이 저으기 지쳐보이는 녀인의 얼굴을 어설프게 비쳐주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녀인에게로 다가갔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경식과 상열이 이런 말을 해서야 녀인은 눈을 뜨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우달근도 부리부리한 두눈에 감동의 빛을 숨기지 못하며 미안한 심정을 쏟아놓았다.

《이전엔 내가 좀 지나쳤던것 같수다. 원체 내 성미가 못돼놔서 그런거니 너무 고까와하지 마시우다. 허허…》

가슴을 찔리운듯 녀인의 얼굴이 금시 창백해졌다. 당황함과 면구스러움을 감추려는지 녀인은 황황히 창문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얼마후 녀인이 누구에게라 없이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녀인에게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우리 말이였다.

《전 그런 인사를 받을만 한 인간은 못됩니다. 갑자기 제가 무슨 애국자로 돌변이라도 해서 그랬던건 아니니까요. … 오늘 큰애의 담임교원을 만나려고 학교엘 갔댔습니다. 거기서 일본아이들이 우리 애를 <쬬꼬>라고 몰아주는걸 봤어요. 일본아이들은 모두매를 맞고 쓰러진 우리 애를 짓밟고 서서 <반자이>를 부르더군요. …》

녀인의 목소리는 흐느낌같은 소리에 삼키워지고말았다. 창밖을 내다보는 녀인의 둥그런 어깨가 쓰라린 아픔으로 하여 경련을 일으키고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모두가 굳어져있는데 한참만에야 눈물을 훔친 녀인이 다시금 말을 계속하는것이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매가 시작되여서도 제 머리속엔 오로지 돈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난 뒤 줄곧 그렇게만 살아왔는걸요. 돈을 벌려면 체면도 의리도 정도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땐 넝마옷을 걸치고 남정들속에 끼워 토목건설장에서 일해보기도 하고 어떤 땐 보리밥 한줌에 양파로 빈 배를 채우면서 부두에 나가 오끼나까시(배짐을 싣고부리우는 인부) 노릇을 해보기도 했지요. 정말이지 무슨 일인들 못해봤겠나요. 그렇게 한푼두푼 제 청춘을 팔아서 돈을 모았고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건 단지 돈뿐이라고 생각해왔기에 전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조국밖에 모르는 멍청이들>이라고 속으로 비웃었답니다. 하지만 가루베라는 그 일본인이 조선사람들을 놀려대면서 날치는걸 보니 눈꼴이 사나와서 견딜수가 있더라구요. 이 땅에 끌려와서 일본인들한테 당해온 수모가 생각났어요. 우리 애를 몰아준 일본아이들도 그런자들의 말을 듣고 조선사람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니 더구나 참을수가 없더군요. 전 아들애의 앙갚음을 하고싶었어요. 그래서 경매를 포기하겠다고 한겁니다. 초가삼간이 다 타버린대도 빈대 죽는걸 보니 시원하다는 격이였겠지요.》

리경식은 거세게 울려오는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으며 녀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고보면 진도집녀인 역시 겨레의 피가 흐르는 조선사람임이 분명했다. 조선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져있는 수난의 상처와 울분이 녀인의 가슴속에도 피못으로 짓박혀있었다. 그런줄도 모르고 자기는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라고 너무도 쉽게 녀인을 속단해버리지 않았던가. 이 세상 그 어디서 무엇을 하든 조선사람들의 마음속 밑바닥에 철심처럼 뿌리박혀있는 민족의 얼을 보지 못한것이다. 그 얼이 있기에 박상열도 마지막순간에 자기와 손을 잡은것이고 진도집녀인도 끝끝내는 민족의 편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하니 경식은 피줄을 튕기며 솟구쳐오르는 흥분을 좀처럼 진정할수가 없었다.

그러는데 서글픔에 잠긴 녀인의 목소리가 또다시 그의 귀에 울려왔다.

《제가 왜 <아라이>라는 일본성을 쓰는지 아십니까? 물론 남편의 성을 딴거지요. 그인 생전에 늘쌍 <아리랑>을 흥얼거리군 했답니다. 그래서 통명으로 쓰는 성도 <아리랑>의 <아라리요>에서 따와서 <아라이>라고 달았더랬지요. 왜 그런지 오늘따라 남편생각이 간절해지는군요. … 일본이 싫습니다. 이 섬나라 땅에서 살기가 막지긋지긋합니다.》

진도집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흐트러진 녀인의 머리칼이 피기가 사라진 이마며 피로에 잠겨 푹 꺼져들어간 눈을 가리우고있었다. 녀인은 슬픈 빛이 감도는 얼굴을 숙이며 조용히 인사를 하더니 차집을 나서는것이였다. 녀인의 괴로워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혼자 있고싶어하는 그 마음이 리해되여 누구도 선뜻 녀인을 불러세우지 못했다. 경식은 언제건 한번 녀인을 꼭 다시 찾아보리라 마음먹으며 두사람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였다. 정문앞에서 기다리고있던 하또리 류따로가 반가움이 넘쳐흐르는 얼굴로 다가오는것이 아닌가.

《하하하… 리선생! 정말 통쾌했습니다. 난 오늘 당신들에게서 조선민족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하또리는 리경식과 박상열의 손을 부여잡고 연방 찬사를 터뜨렸다. 경식은 후더워오는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실한 벗이였다. 지금껏 조선문화재반환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한 그를 마주하고보니 이 시각 기쁨을 함께 나누고싶은 생각이 절로 솟구쳐 경식은 하또리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그토록 찾던 <조선향악보>를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또리가 대번에 활기를 띠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이거 정말 고맙소. 실은 나도 향악보를 구경하고싶은 생각이 굴뚝같던 참이였는데 리선생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만.》

희색이 만면해서 덤벼치는 하또리를 보며 박상열도 동의하듯 미소를 지어보였다. 우달근은 볼일이 있다고 떨어지고 경식과 상열이 하또리를 근처의 차집으로 안내했다.

경식은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하또리에게 향악보를 펼쳐보였다. 하또리의 달아오른 눈길이 향악보의 갈피갈피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는 그의 얼굴에서 감동과 흥분의 불길이 벌겋게 타오르기도 하고 사색과 명상의 안개가 고즈넉하게 내려앉기도 했다. 이윽고 하또리는 머리를 쳐들더니 탄복을 금치 못하는것이였다.

《정말 귀한 문화재군요. 당신들은 실로 큰일을 하셨습니다.》

뭔가 깊이 생각해보는듯 구붓한 구레나룻을 천천히 쓰다듬던 하또리가 불쑥 경식에게 말을 꺼냈다.

《리선생, 내가 당신들한테 한가지 의견을 내놓아도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경식은 갑자기 심중해지는 그의 얼굴을 의아하게 바라보며 선선히 승낙했다.

《별말씀을, 어서 말씀하십시오.》

하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묻는것이 아닌가.

《리선생, 우리 이 고서를 가지고 한 이삼년간 장사를 해보지 않으렵니까?》

너무도 뜻밖의 제의인지라 리경식도 박상열도 한순간에 어리벙벙해지고말았다.

《장사라니요?》

경식이 놀라운 어조로 반문하자 하또리가 자기 생각을 숨김없이 터놓았다.

《이 책은 그야말로 동양의 보물입니다. 중세동양음악을 리해하는데서 사료적가치가 매우 큰 고서라는게 한눈에 알립니다. 만일 우리가 이 책을 복사해서 도꾜대학이나 윈대학, 소르본느대학 같은 세계의 이름있는 대학들과 학술기관들에 소개하겠다고 제의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들은 그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제의에 응해나설겁니다.》

생각만 해도 벅찬듯 하또리는 드레진 가슴을 부풀리며 한껏 숨을 들이그었다가 다시금 말을 이었다.

《리선생, 이런 말을 한다고 날 무슨 간상배처럼 생각지는 마십시오. 물론 조국애는 이 세상 그 어떤 도리보다 강하지요. 하지만 명예도 얻고 량심도 지키면서 실리까지 얻는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북조선이 사회주의제도라 해도 돈은 역시 필요할겝니다. 덕을 베풀려면 자기부터 족해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앞으로 리선생이 애국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고국에 가서 생활을 하자고 해도 그렇고 돈이 있어서 나쁠거야 없지 않습니까. 장담하건대 만일 리선생이 한 2년쯤 귀국을 미루고 나와 함께 있어준다면 선생은 큰 재부와 명예를 다 얻어가지고 처자들앞에 나설수 있을겁니다. 또 조선민족의 귀중한 재부가 세상에 널리 소개되기도 할거구요. 두말할것없이 나의 이 제의는 박선생에게도 동시에 하는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또리의 기대가 담긴 눈길이 경식과 상열의 얼굴을 초조히 더듬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만 살아온 그로서는 제나름의 선의와 진정에서 그런 제의를 했다는것을 경식은 잘 알고있었다. 허나 그것

은 받아들일수 없는 제의였다.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던 경식은 한참만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이 책은 한 개인의 물건이 아니라 우리 겨레의 유산이고 조국의 재부입니다. 어찌 자식이 어머니의 재부를 팔아 제 리속을 채울수가 있겠습니까. … 우리가 왜 그리도 자기 조국을 첫자리에 놓는지 일본사람들은 다는 리해 못할겁니다. 추위에 얼어본 사람이 태양의 귀중함을 더 잘 아는 법이니까요. 돈으로도 결코 살수 없기에 돈보다 더 중한것이라 할가. … 나나 여기 앉아있는 박상열씨나 모든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국이란 바로 그런겁니다. 선생님, 우리한텐 돈보다도 조국이 더 귀중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식의 얼굴에서는 인생의 다난한 체험에서 얻은 값비싼 신념이 후광마냥 강렬하게 빛발치고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상열의 눈망울에 열기가 어려 번뜩였다. 하또리도 이윽토록 경식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다가 입속으로 중얼거린다.

《리선생…》

얼마후 하또리는 자리를 떴다. 그를 바래주고 제자리로 돌아온 경식은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상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어디로 갔을가?)

그들이 둘러앉았던 탁자우에는 향악보가 전부 그대로 놓여져있었다. 경식은 자리에 앉아 한동안 상열을 기다렸다. 하건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는 나타날줄을 몰랐다. 점점 의아한 생각이 경식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경매가 끝난 이후 좀처럼 말이 없던 상열이였다. 어둡고 우울하던 그의 기색이 경식의 눈앞에 자꾸 밟혀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웬 일일가? 혹시 경매를 치르고나니 향악보의 뒤처리 때문에 고민스러웠던걸가? 돌이켜보면 향악보가 북으로 가는것을 막

기 위해 지금껏 눈에 피발을 세우고 따라다닌 상열이였다. 하다면 어째서 향악보는 고스란히 내여놓은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을가?

사실 경매가 끝난 뒤 리경식도 차후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은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경매장에서 동족의 부름에 불같이 호응해나서는 상열의 민족적량심을 목격했던지라 경식은 그 문제도 민족공동의 리익의 견지에서 대범하게 해결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과연 박상열이 끝까지 화합의 길로 나올수 있을가?

상열은 종내 나타나지 않았다. 별수없이 경식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도꾜로 돌아와 엄길호를 만나고난 경식은 그길로 히사꼬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또리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내내 마음 한구석에서 떠날줄을 모르던 히사꼬였다.

(제발 다른 일은 없어야 할텐데…)

바야흐로 어둠이 깃든무렵이였다. 모든 일이 무사하기만을 빌며 히사꼬가 든 병실에 들어서던 경식은 그만 전기에라도 감전된것처럼 한자리에 굳어져버리고말았다. 다름아닌 박상열이 자기보다 먼저 와서 히사꼬의 침상곁에 앉아있었던것이다.

《자네가 어떻게…》

경식의 입에서 창황중에 튀여나온 소리였다. 그제서야 경식을 알아본 상열이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어지간히 당황해하는 기색이였다.

《왜 그리 놀라나? 난 뭐 히사꼬양을 만나면 안되는 사람인가?》

묻는듯 한 경식의 눈길을 피하려고 허둥대며 상열이 데퉁스럽게 내뱉는 말이였다. 경식은 벌기우리하니 상기된 그의 얼굴을 어리벙벙해서 바라보았다. 오사까에서 간다온다 말도 없이 홀지에 사라져버렸던 상열이였다. 그러한 그가 뜻밖에도 히사꼬앞에 나타날줄

이야 꿈엔들 생각이나 했던가. 더우기 상열은 자신의 불미스러웠던 행동으로 하여 히사꼬의 반감을 사고있는 처지가 아닌가.

선뜻 갈피를 잡을수가 없어 경식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는데 히사꼬의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니 히사꼬가 반가움에 겨워 찾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애쓰고있었다. 경식은 황황히 처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러지 말고 누워있소, 히사꼬.》

처녀를 도로 눕히며 경식은 그의 모습을 유심히 눈여겨보았다. 히사꼬는 아직 머리에 붕대를 감고있었다. 언제 보나 눈은 꿈으로 가득차있고 심장은 다정다감하였던 처녀, 다채로운 랑만과 발랄한 성격을 부채살인양 펴들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던 처녀가 별안간 상처입은 새모양이 되여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경식은 그만 목이 꺽 메여오는것을 견딜수가 없었다. 바른소리를 했다고 처녀를 이 모양으로 만들다니… 입을 꾹 다문 그의 얼굴에 가증스러운 악한들에 대한 분노가 서려돌았다. 이윽해서야 경식은 눈시울이 붉어지는것을 애써 감추며 히사꼬에게 물었다.

《아직 상처가 많이 아프오?》

히사꼬가 입가에 연한 웃음을 띠우며 고개를 가로흔든다. 따뜻하고 약동하는 특유의 광채가 처녀의 깜장눈에서 흘러나왔다. 히사꼬는 기쁨에 넘쳐 경식을 쳐다보며 말하는것이였다.

《축하합니다, 선생님! 드디여 향악보를 찾으셨다지요?!》

《벌써 다 알고있는게구만.》

경식이 얼떨떨해하자 히사꼬가 알려주었다.

《박선생님이 제게 자세히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경매이야기랑 리선생님의 호소에 박선생님이 기꺼이 응해나섰다는거랑 모든걸 이야

기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향악보를 찾으신것도 기쁘지만 그보다도 전 두분이 다시 친구로 만났다는 소식이 더 기쁩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령롱한 이슬방울같이 맑고 구김이 없었다. 넘쳐흐르는 기쁨이 생기로 충만된 처녀의 눈동자에서 불꽃이 되여 날리고있었다. 경식은 상열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상열이 열적은 태도로 경식에게 설명했다.

《자네가 전해줘야 할 희소식을 내가 먼저 전했다구 섭섭해말게. 실은 히사꼬양에게 지나간 일들에 대해 용서도 빌겸 해서 찾아왔더랬네.》

불시에 눈굽이 달아올랐다. 그제서야 경식은 히사꼬를 찾아온 상열의 마음을 심장으로 깨달을수가 있었던것이다. 히사꼬에게 터놓았다는 상열의 이야기는 그대로 리경식에게 터놓은 진심의 고백이기도 하였다. 경식은 가슴속에서 부풀어오르는 행복감을 누를길 없어 와락 상열을 그러안으며 부르짖었다.

《잘 왔네, 친구! 잘 왔어!》

마침내 박상열이 어제날의 친구가 되여, 정의와 량심으로 온몸을 불태우는 그날의 《구다라징》이 되여 경식의 앞으로 되돌아온것이다. 그런줄도 모르고 경식은 오사까에서 사라져버린 상열의 난데없는 행동을 두고 얼마나 속을 태웠던가. 혹 그가 또다시 마음을 돌려먹고 대결로 나오려는건 아닌지? 아니면 자기자신에게 환멸을 느낀 나머지 모든것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은둔해버린것은 아닌지?…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했었다.

허나 상열은 결코 겨레의 믿음을 저버린것이 아니였다. 분렬주의자들에게 맹종맹동했던 지난날을 뉘우치며, 동족과 어깨겯고 애국애족의 길을 걸어갈 새로운 각오를 가다듬으며 그는 단연코 민족대단결의 드넓은 광장에 들어선것이다.

히사꼬의 말이 정말 옳았다. 향악보를 찾은것도 기쁜 일이였지만 그보다 더 기쁜것은 리경식과 박상열이 민족을 위한 길에서 친구로 다시 만난것이라 해야 할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절대로 헤여질수 없는,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할 친구들이였고 혈육들이였다.

경식과 상열이 서로 그러안고 진정을 나누는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히사꼬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떨고있었다.

얼마후에야 두 사나이의 눈길은 다시금 히사꼬에게로 모아졌다. 경식이 중년의 사려깊은 손길로 히사꼬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그런 글을 신문에 내기가 무섭지 않았소? 일본의 우익폭력세력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거야 히사꼬도 잘 알지 않소?》

그러자 처녀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마냥 차분히 가라앉았다. 히사꼬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더니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며 나직이 말하는것이였다.

《때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일본인으로 태여난게 무서울 때가… 지금도 저의 아버진 과거의 제정시절을 괴롭게 돌이켜보시군 한답니다. 악과 불의앞에서 <아니다.>라고 항거하지 못한 그 나날들을 말입니다. 그때마다 아버진 저한테 옳지 못한것앞에서 침묵을 지키는건 긍정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명한 진리를 곱씹어주시군 합니다. 패전후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이 땅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속에 몰아넣었던 과거의 악과 불의가 뻐젓이 날치고있습니다. 무서운건 폭력단이나 가루베 같은 철면피한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말로 무서운건 많은 일본사람들이 악과 불의를 보고도 침묵을 지키는게 아닐가요. 그런 비굴한 침묵과 묵인이 결국은 이 땅우에 몸서리치는 과거를 또다시 되살려놓을가봐 그게 무섭습니다.》

처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경식은 자기 손에 쥐여진 히사꼬

의 손가락들이 축축히 젖어드는것을 느꼈다.

고통스럽게 실려오는 중압에 눌려 경식이 울대뼈를 불근거리는데 상열도 주먹을 부르쥐며 벌컥 화를 터뜨리고야말았다.

《에익, 비렬한들!》

침통하게 굳어진 사나이들의 얼굴을 보고 히사꼬가 당황해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만 선생님들의 기쁨을 흐려놓았는가봐요.》

경식과 상열은 그러는 처녀앞에서 더 말을 할수가 없었다.

의로운 처녀였다. 죄많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무리들에게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고 《아니다.》라고 웨친 처녀의 도담한 그 용기가 눈물겨웠다. 인간의 초보적인 량심을 지키라고 애젊은 처녀까지 나서서 절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현실이 저주로웠다.

경식이 가슴속에 차오른 번열을 묵새기고있을 때 불현듯 히사꼬가 환성을 터뜨렸다.

《어마나! 눈이 오네요.》

처녀가 가리키는대로 창밖을 내다보니 아닌게 아니라 밤하늘에 버들꽃같은 함박눈송이들이 소담하게 날리고있었다.

《야! 꼭 벌떼들이 날아다니는것 같아요!》

히사꼬는 손벽까지 치며 어린애마냥 좋아했다. 그러는 처녀를 보고 경식과 상열이 빙그레 웃는데 얼마후 히사꼬가 꿈속을 헤매는듯 랑만에 겨워 속삭이는것이였다.

《전 눈이 오는 밤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에 설레는 눈발속에 홀로 서있느라면 문득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리워지군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나란히 거닐면서 뭔가 고백하고싶은 충동이 든다 할지 혹은 등불이 켜진 어느 가로등기둥에 호젓이 기대선채 눈을 맞으면서 가없는 명상에 잠겨보고싶기도 하

구요. 제가 아직 철부지소녀지요. 호호호…》

경식의 입가에 미소가 희끗거렸다. 언젠가 눈이 내리던 밤 히사꼬의 간청에 못이겨 산보를 나갔던 일이 생각났던것이다. 그때 고개를 젖혀 온 얼굴에 눈을 맞으며 새소리같이 맑은 웃음을 터뜨리던 처녀의 모습이 어제런듯 안겨왔다. 왜서 이 처녀는 그렇게도 눈을 좋아하는걸가. 아마 조선의 옛 백자처럼 순백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정가로운 그 성정때문인지도 모른다.

갑자기 경식을 쳐다보는 히사꼬의 눈빛이 구슬퍼졌다.

《향악보를 찾으셨으니 선생님은 인츰 조국으로 가시겠지요. … 그걸 생각하면 겁이 납니다. 저 혼자 있기엔 이 땅이 너무나 추우니까요.》

가까스로 흐느낌소리인양 속삭이는 처녀의 말이였다.

그 모습을 보니 경식의 마음도 에이는듯 아팠다. 불시에 뜨거운 눈물이 목구멍으로 꽉 차올랐다. 경식은 슬프게 깜박이는 처녀의 두눈을 들여다보며 힘들게 입을 열었다.

《히사꼬, 뜻이 같은 벗들사이엔 작별이란 없는 법이요.》

상열도 목메여 한마디 한다.

《몸이 추서면 우리 함께 발이 시리도록 눈길을 산보해봅시다.》

깨끗하고 단아한 히사꼬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고맙습니다.》

리경식과 박상열은 밤이 어지간히 깊어서야 병원을 떠났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있었다. 차들이 붐비는 도로우에도, 숨막히게 밀집된 지붕들우에도 그리고 오가는 행인들의 머리우에도 함박눈이 소복이 내려쌓이고있었다. 온갖 어지러운것들을 하얗게 덮어버리며 내리는 눈을 보니 저도 모르게 고즈넉한 평온과 개운함이 마음속에 깃들어왔다.

얼마쯤 길을 걷느라니 공원이 나졌다. 두 사나이는 눈내리는 이 밤길을 좀더 걷고싶어 약속이나 한듯 공원으로 들어섰다.

공원안은 한적했다. 그들은 호호히 숫눈으로 덮인 길우에 나란히 발자욱을 남기며 걸어갔다. 이따금 지나치는 가벼운 바람이 부드럽고 가는 눈발을 날렸다. 함함한 눈덩이들이 나무가지들마다를 레스장식마냥 단장하고있었다. 그들의 발밑에서 눈밟히는 소리가 고요를 깨뜨리며 들려왔다.

《우리 고향에도 지금 눈이 내리고있을가?》

불쑥 상열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다. 그 말은 산허리에 피여오르는 엷고 따스한 아침안개발처럼 야릇한 파문을 일으키며 경식의 가슴속에 퍼져왔다. 경식이 조용히 미소하며 대답했다.

《글쎄… 아마 고향마을엔 지금쯤 달이 떠있는지도 모르지.》

눈길우에 찍어가는 상열의 발자욱이 점점 깊어졌다. 이윽하여 추억에 잠긴 그의 목소리가 꿈결에서 들리듯 들려왔다.

《달이라… 달이 떴으면 아마 보름달이 떴을거야. 아, 어릴적에 본 고향의 달밤이 눈에 삼삼하구만. 동천에 뾰주름히 달이 떠오르면 뜰안은 온통 달빛으로 가득차군 했지. 이슬이 내린 감나무잎사귀마다에랑 장독대 가장자리에 껑충하게 서있던 접시꽃우에랑 그리구 동네아주머니들의 얌전한 어깨우에랑 푸른 달빛이 구슬처럼 부서져 흘러내리군 했는데…》

상열의 이야기를 듣는 경식의 두눈에도 고향의 정겨운 달밤이 유정히 비껴흐르고있었다. 달과 호박이 걸린 초가집, 푸름한 달빛이 비단필마냥 비쳐들던 앞의 시내물과 뒤산의 솔숲, 한아름 둥근 달을 바라보며 동심의 무지개를 펼쳐보던 소꿉시절의 조무래기들…

이상한 일이였다. 눈발이 날리는 이역의 이밤에 어릴적에 본 고향의 밝은 달밤이 못견디게 안겨오는것은 무엇때문일가?

눈덮인 긴의자가 앞에 나졌다. 그들은 대충 눈을 털어내고 의자우에 시름없이 자리를 잡았다. 어깨너머로 나무가지 하나가 손에 잡혔다. 무언지 모를 신선한 힘이 온몸에 샘솟는것을 느끼며 경식은 장난궂은 소년시절로 되돌아간듯 나무가지를 힘껏 잡아흔들었다. 가지들우에 쌓여있던 눈가루들이 폭포수의 물보라처럼 뽀얗게 흩날려 떨어졌다. 두 사나이는 삽시에 눈사람이 돼버리고말았다. 눈내리는 밤공중에 창쾌한 웃음이 터져올랐다.

허파가 흔들거리도록 터져나오던 웃음이 사라지자 상열이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경식이, 내 자네에게 터놓고 말하지. 사실 경매가 끝난 뒤 내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었네. 차마 향악보를 가루베에게 뺏길수가 없어 자네의 손을 덥석 잡았지만 막상 경매에서 이기고보니 또다시 내 마음은 상극으로 갈라져 피투성이싸움을 벌렸네. 한쪽에선 더이상 동족을 괴롭히지 말라고 서슬푸르게 꾸짖는데 다른 한쪽에선 절대로 북에 밀려선 안된다고 모질게 나를 쥐여흔들었네. 정말이지 고통스러웠네.》

경식은 상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피가 진 눈이며 꺼칠해진 뺨에서 고뇌에 모대긴 그의 마음이 풍겨오는것 같았다. 그러는데 상열의 무거운 목소리가 다시금 귀전을 울렸다.

《헌데 별스럽더군. 이북과 끝까지 해봐야 한다는 고함소리가 기승을 부릴수록 내 마음은 점점 자네에게로만 끌려가더구만.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말일세. … <물각유주>라고 만물엔 제각기 임자가 있다고 했지. 아무리 봐도 <조선향악보>는 자네가 가져가야 할것 같네.》

경식은 처음 보기라도 하듯 상열의 얼굴을 찬찬히 눈여겨보았다. 상열이 히죽이 웃어보였다.

《왜 그렇게 놀라나? 찰거마리처럼 따라다니면서 못되게 굴던 박상열이가 갑자기 웬 일인가 하는거겠지. 허허… 인젠 나도 알만 하네. 자네처럼 진정 겨레를 생각하는 마음이 대쪽같은 사람들에게 향악보를 가져가는것이라면 내가 무엇때문에 굳이 자네를 방해하겠나. 사실 <조선향악보>야 자네가 먼저 찾아나서지 않았나. 나도 인젠 깨달을만큼 깨달았네. 자네에 대해서 그리고 이북에 대해서 말일세. 지금껏 자네를 괴롭혀온걸 용서하라구.》

환희에 끓는 피의 설레임이 경식의 두눈에 끓어올랐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상열의 손을 뜨겁게 부여잡았다. 마주잡은 손들을 통해 툭툭 울려오는 혈육의 맥박이 서로의 심장에 가닿았다.

그대로는 헤여지기 싫은 밤이였다. 상열은 근처의 점포에 뛰여가 소주를 가득 받아왔다. 그날 그들은 밤새도록 마주앉아 술을 나누며 억세고 짙푸른 우정을 나누고 또 나누었다.

《곧 귀국할텐가?》

시간이 퍼그나 흘러갔을 때 상열이 묻는 말이였다. 경식이 고개를 끄덕이자 상열은 누구에게라 없이 중얼거린다.

《그곳에도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는 내 겨레가 살고있을테지.》

그리고는 먼동이 푸름푸름 밝아오는 동녘하늘가를 바라보며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는것이였다. 진도집녀인의 남편이 늘쌍 흥얼거렸다는 《아리랑》이였다. 리경식도 함께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들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의 휘파람소리가 새벽하늘가로 은은히 울려가고있었다. …

10. 모두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어둠이 깃든지도 퍼그나 지났다. 하건만 양각도호텔의 전망대에 오른 북과 남의 력사학자들은 쉬이 자리를 뜰념을 안했다. 토론회의 흥분을 좀처럼 가라앉힐수 없었고 날이 밝으면 다시 헤여져야 할 석별의 정이 서로의 발목을 붙잡았던것이다.

우수가 지나서인지 훈기가 느껴지는 대동강의 밤이였다. 강물은 큰 갈기를 휘저으며 웅실웅실 흘러가는데 높다랗게 솟은 호텔의 불기둥이 물결우에 부딪쳐 길길이 부서진다. 머리우에서는 은하수가 웅장하게 흐르고있었다.

가슴에 새겨진 나날이였다. 서로 만나 허심하게 뜻과 정을 나누며 일제가 남겨놓은 력사의 상처를 뼈아프게 되짚어보고 반세기가 넘도록 쌓이고쌓여온 민족분렬의 응어리를 잠시나마 풀어본 나날이였다. 통일로 가는 길우에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은 나날이였다.

《지명 역시 소중한 문화재라고 봅니다. 배나무골, 밤고개, 양지, 범바위… 우리가 무심히 부르는 그런 지명들에도 다 제나름대로 력사의 숨결과 사연들이 얽혀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북의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하자 남쪽학자가 선뜻 화답한다.

《동감입니다. 우리 고향마을은 예로부터 <긴마을>이라고 불러왔는데 지도에는 장촌(長村)으로 표기되여있습니다. 어째서 굳이 그렇게 표기를 했는지 리해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쪽에서도 열변을 토하는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온다.

《경제발전이라는거야 10년이나 20년만에도 이룩할수가 있지요. 허나 문화가 성숙하는데는 수백년, 아니 수천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헌데도 전통문화의 귀중함을 리해하지 못하고 그걸 낡은것이라고 외면하거나 기껏해서 골동상품정도로나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속이 막 뒤집혀집니다. 우리가 폐수처럼 쓸어드는 서방문화의 홍수에 밀려 자기 문화를 쥐버린채 록크나 디스코에만 취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들은 뿌리없는 조선사람이 돼버리고말게 아닙니까. …》

한편 또 다른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도 오가고있었다.

《에짚트가 <루브르대첩>을 이루겠다구 필사적으로 달라붙고있다더군요.》

《<루브르대첩>이라니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고대에짚트의 무덤벽화조각 5점이 있는데 그걸 기어코 돌려받겠다는거지요. 그래서 요즘엔 루브르박물관측은 말할것도 없구 프랑스정부까지도 퍼그나 곤경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에짚트는 영국에 있는 로제타석(고대에짚트문자와 그리스문자가 씌여진 비석)과 도이췰란드에 있는 네페르찌찌조각(고대에짚트의 왕비를 형상한 조각)의 반환까지도 강력하게 요구하고있다는 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전 식민주의 략탈국들과의 일대 유물전쟁을 선포한셈이지요.》

《거 정말 귀맛이 도는 소리군요. 하긴 영국의 대영박물관도 이란과 나이제리아로부터 유물반환압박에 시달리고있고 중국도 프랑스가 략탈해간 청나라유물들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있다는 소식을 나도 들었습니다. 서방에서 입이 닳도록 <세계화>를 떠들어댈수록 민족적자각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는게 오늘의 현실인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면 우리도 일제의 략탈문화재들을 돌려받기 위

해 하루빨리 거족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밤이 깊어가는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고있었다. 희망에 불타는 눈망울들, 흥분으로 불깃불깃해진 얼굴들과 활달한 몸짓들, 열정을 내뿜는 목소리들… 전망대의 네온등이 활기에 넘친 학자들의 얼굴을 뜨겁게 조명해주고있었다.

문성민과 박인규도 리경식교수를 둘러싸고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었다.

《선생님, 다음번에 방북하면 고구려유적지들을 답사해볼 생각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꼭 동행해주셔야 합니다.》

리경식의 팔을 부여잡고 이렇게 간청하는 박인규의 어조에는 무랍없는 응석기가 섞여있었다. 리경식은 그러는 박인규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보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정말로 세월은 류수와 같이 흘러왔다. 박상열과 울며웃으며 향악보를 찾기 위해 뛰여다니던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의 아들이 입김 뜨거운 장부가 되여 자기앞에 서있는것이다. 인규며 성민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는 리경식의 얼굴에 미소가 벙끗거렸다.

《나야 늙은 몸이 아닌가. 인젠 자네나 문실장 같은 젊은 사람들이 우릴 대신해야지. 안 그런가.》

믿음과 기대가 무겁게 실린 로교수의 당부였다.

그들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있을 때였다. 안내원이 다가와 리교수에게 서만옥동포가 찾아왔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순간 교수의 허연 눈섭이 구핏했다. 성민과 인규도 불시에 굳어져 안내원이 가리키는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만옥이 이쪽을 바라보며 서있었다.

리경식은 천천히 녀인에게로 다가갔다. 량귀가 벗어진 교수의 이마며 우묵한 눈확에서 들물마냥 밀려오는 추억의 파도인듯 주름살

들이 소리없이 일렁거렸다. 경식은 안경을 벗어든채 눈에 힘을 모아 녀인을 바라보았다. 비록 류랑살이의 고단함과 방랑인의 애수가 짙게 슴배여있어도 서만옥의 두리두리한 얼굴에서 경식은 그 시절의 낯익은 모습을 찾아볼수가 있었다. 틀림없는 그 녀인이였다. 교수의 가슴속에서 묵직한 산골짜기의 메아리와도 같은 소리가 울려나왔다.

《혹시 고향이 진도가 아닌가요?》

그러자 서만옥이 눈시울을 가벼이 떨며 대답한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절 알아보시는군요.》

눈허리가 시큰해왔다. 경식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엉킨 어조로 웅글게 부르짖었다.

《그러니 진도집아주머니가 틀림없구만.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과거의 문이 열리듯 그날의 광경이 다가들었다. 득의양양해서 날치는 가루베에게 경매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던 녀인의 그 모습이, 설사 알거지가 되더라도 조선사람을 우습게 아는자들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던 사나운 그 웨침이 어제런듯 생생히 되살아왔다. 조국에 와서도 경식은 녀인을 잊을수가 없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종종 소식을 알아보군 하였다. 그런데 경매가 있은 뒤 얼마후 녀인은 돌연히 오사까를 떠나버렸다는것이 아닌가.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녀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길이 없었다. 그렇게 헤여졌던 녀인을 인생말년에 이른 오늘 여기 평양에서 만나게 될줄이야.

문성민과 박인규도 커다란 충격속에 서만옥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러니 이 녀성이 바로 진도집녀인이란 말인가. 스승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전해들은 그 시절의 이야기가 지나간 세월의 푸르스름한 원경속에 저녁별처럼 비쳐왔다. 그들은 봄시위같이 터져나오는 격정을 걷잡지 못한채 저마끔 녀인의 손을 부여잡고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손수건을 꺼내 눈언저리를 닦는 서만옥의 얼굴가에도 감동의 물결이 여울쳐 설레이고있었다. 리경식은 눈구석이 젖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녀인에게 물었다.

《대체 그때 왜 그리도 갑자기 오사까를 떠났었습니까?》

서만옥은 흥분을 가라앉히려는듯 잠시 동안을 두더니 마음속에 꿍져두고있던 어두운 사연의 실꾸리를 주섬주섬 풀어보이는것이였다.

《그때 가루베가 경매장에서 한 말은 빈말이 아니였습니다. 경매가 끝나기 바쁘게 그자는 무섭게 저한테 앙갚음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를 <경매법위반자>로 재판에 걸었는가 하면 제가 가지고있던 거래선들을 차단하고 지어는 영업소들과 땅까지 모두 빼앗으려고 날뛰였답니다. 그야말로 저를 알거지로 만들자는 잡도리였지요.

허지만 제가 불쑥 오사까를 뜰 결심을 한건 그때문만이 아니였습니다. 뭐라고 할지… 더이상 일본땅에서 살기가 지겨웠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일본인행세를 하기가 지겨웠구요. 생각해보면 제게서 남편을 뺏어간 일본이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의 피눈물로 살이 지고 한숨으로 배가 불러온 일본이였습니다. 경매장에서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시는 리선생님의 의기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전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애들에게 돈을 물려주기 전에 인생을 비굴함이 없이 떳떳하게 살아나갈수 있는 뿌리를 심어주는게 어머니로서, 아니 그보다는 돌아간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한 일이라는걸 깨달았습니다. 저자신은 둘째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새 출발을 하고싶더군요. 그래서 전 일본을 떠났던겁니다.》

서만옥이 이야기를 멈추고 깊은숨을 몰아쉰다. 네온등빛이 주름깊은 녀인의 얼굴을 빛과 그늘로 부각하며 쉬임없이 얼른거리고있

었다. 얼마후 녀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일본을 떠난 전 서유럽에서 살고있던 이모를 찾아갔더랬지요. 그곳에 가서도 전 죽기내기로 돈을 벌었답니다. 허나 그때 이미 전 아라이 기요시가 아니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지어준 서만옥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거든요. 물론 아이들에게도 다 조선사람의 이름을 되찾아준건 더 말할것도 없구요. 남들이 서만옥이라고 불러주는 소리를 오래간만에 다시 들었을 때 왜 그리도 가슴이 울렁거리던지. 그런걸 보면 저한테도 조선사람의 피가 얼마만큼은 남아있었던가 봅니다.

헌데 아무리 돈을 모은다, 자식들을 먹여키운다 하며 눈코뜰새 없이 돌아쳤건만 마음 한가운데가 텅 빈것 같은 허전한 느낌만은 좀처럼 지워버릴수가 없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느낌은 점점 커만 갔습니다. 아마 노상 조국에서만 살아오신분들은 잘 모를겁니다. 이역만리의 도시에서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문득 깨여났을 때의 그 쓸쓸한 감정을 말입니다. 그런 때면 꼭 자기가 무인도에 혼자 내던져진것만 같아서 금방 숨이 막혀오군 했습니다. 고향집 창호지에 비껴 흐르던 푸른 달빛이 보고싶더군요. 섬돌밑에서 밤을 새우던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랑 선들바람에 문풍지 울던 소리랑… 그런게 듣고싶어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나무잎도 가을이 되면 뿌리로 돌아간다더니 사람도 철이 들면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언제부턴가 전 유럽에 널려있는 우리 문화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고국의 문화재들을 한점한점 수집해가는 나날은 정처없이 헤매던 이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할가요. 전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다름아닌 조선사람이라는걸 재삼 확인했지요. 후에 카나다에 옮겨와 살면서도 전 문화재수집을 계속했습니다. …》

리경식은 눈시울이 뜨뜻해오는것을 느끼며 녀인의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서만옥, 처음으로 들어보는 녀인의 본명이였다. 부모가 지어준 성도 이름도 버린채 일본인흉내를 내며 살아가던, 재일동포들의 표현대로라면 민족적량심을 전당포에 잡히고 살아가던 녀인이 아니였던가. 그러던 녀인이 마침내 자신의 몸속에 맥맥히 흐르고있는 조선사람의 피를 깨닫고 겨레를 위한 길에서 스스로 책임을 맡아나섰다는 사실앞에 경식은 감개무량해오는 심정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러고보면 일본에서 뵈웠던 리선생님의 모습이 저한테 강한 인상을 남겼던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내며 서만옥이 진심을 터놓는 말이였다.

문성민은 가슴속에서 울려오는 피끓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스승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생애의 마감을 생애의 시작과 떳떳이 련결시킬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의 닻을 올릴 때는 누구나 높은 리상과 포부에 부풀어있기마련이다. 그러나 모진 풍파에 부대끼고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는 과정에 나약하고 성실치 못한 사람들은 동요하게 되고 처음 정했던 항로를 변경하게 되는것이다. 오로지 참되고 강의한 사람들만이 인생의 파도가 거세질수록 자신을 끊임없이 승화시키며 신념의 항로를 따라 끝까지 가는것이다. 리교수도 그런 사람들중 한사람이라고 성민은 생각했다. 자신의 운명을 조국과 민족이라는 크나큰 품에 의탁하고 겨레에 대한 사랑으로 삶을 불태워왔기에 교수는 저렇듯 떳떳한 모습으로 사람들앞에 나설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리교수님이 일본에 계실 때 우리 문화재들을 찾느라고 고생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몇년전에 학술토론때문에 일본엘 다녀온적이 있는데 거기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추억하고있더군요.》

언제부터 와서 이야기를 듣고있었는지 전남대학교의 강교수가 경의를 담고 하는 말이였다. 그 말에 리경식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40여년전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 혼자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기 있는 박인규선생의 아버지나 진도집아주머니나 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니, 비단 세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애국애족에 불타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모두의 이야기라 해야 옳을겁니다.》

교수는 잠시 자기가 한 말을 묵묵히 음미해보더니 확인이라도 하듯 다시금 그루를 박는것이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한사람이 만드는 이야기는 기껏해서 옛말에 머무르겠지요. 허나 모두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서사시가 되고 끝내는 력사가 될것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리교수가 한 말을 되새겨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다. 그러는데 강교수가 드레진 어깨를 들먹이며 흥분된듯 중얼거렸다.

《모두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력사가 된다!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마음만 합친다면야 못해낼 일이 뭐겠습니까. 그러자면 뭐니뭐니해도 제 민족의 힘을 믿고 민족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겠다는 마음가짐이 요구되는데 우리 남쪽의 현실을 보면 외세에 대한 사대의식이 뿌리깊게 남아있는게 문젭니다. <한미동맹강화>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그 꼴을 보다못해 쓴소리 한마디라도 날리면 미국물을 잔뜩 먹은 전문가, 관료라는 사람들이 대번에 눈을 부릅뜨면서 목청을 올립니다. <미국없이 우리가 살수 있어?>…허 참, 솔직한 심정으로 그럴 때면 통일의 날이 망망대해의 수평선처럼 아득해보이기만 합니다.》

강교수의 이마우에 밭이랑같은 주름발들이 살아올라 꿈틀거렸다.

바위같은 침묵이 깃들었다. 리경식은 미간에 가로주름을 모으며 멀리로 눈길을 향했다.

굼니는 물결우에 가로등빛이 쉬임없이 부서지는데 강변의 유보도로 한쌍의 처녀총각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어른거린다. 두 젊은이는 자기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지는것을 보며 즐겁게 웃고있는것 같았다. 리경식의 얼굴가에도 소년같은 웃음이 떠올랐다.

얼마후 리교수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은 얼굴을 사람들에게로 돌리며 낮으나 기운차게 말하는것이였다.

《그래도 난 력사의 힘을 믿습니다. 반만년의 민족사를 꿋꿋이 이어온 우리 겨레의 자랑스러운 힘을 말입니다.》

리경식의 두눈이 안경속에서 힘있게 광채를 뿜었다. 웅글은 종소리마냥 로교수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머리우로 울려퍼졌다.

《40여년전 오사까의 경매장에서 난 그 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조선향악보>의 운명이 경각을 다투던 마지막순간에 어떻게 되여 우리가 손을 잡을수 있었겠습니까. 사상과 정견이 같아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민족의 귀중한 재보를 날강도들에게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공통된 지향때문이였습니다. 오늘의 토론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제도하에서 각이한 리념과 정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일제가 남겨놓은 피맺힌 상처앞에서 우리는 꼭같이 괴로움과 민족적의분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말그대로 분계선이 없는 토론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의주장은 달라도 민족의 운명을 두고 함께 울고웃는것이 겨레의 진정일진대 우린 서로 믿음을 나누고 민족적아량을 베풀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 민족을 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앞세운다면 북과 남은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락관합니다! 통일조국의 밝

은 앞날을 확신합니다! 하하하…》

호기롭게 웃는 리경식의 모습이 네온등의 강렬한 화광속에 비쳐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후련해오는 심정을 느꼈다. 강교수도 서만옥도 그리고 문성민이며 박인규도 리교수와 함께 소리내여 웃었다.

그러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리교수가 하던 말이 심혼의 독백으로 뜨겁게 이어지고있었다.

교수의 말이 옳았다. 분계선이 없는 오늘의 토론회였다. 겨레의 가슴속에 피멍으로 새겨진 뼈아픈 상처를 돌이켜보며 북의 학자이건 남의 학자이건 마음과 목소리를 합쳐 울분을 터뜨리지 않았던가.

민족의 문화재는 조상의 얼이고 숨결이다. 심산유곡의 사찰터에 외로이 서있는 이끼덮인 돌부처에도, 인적없는 무인도의 지명에도 다 우리 선조들의 삶의 자취가 어려있고 후손들에게 남기고 간 혼이 깃들어있다. 그것은 돈으로는 헤아릴수 없는 민족공동의 긍지이며 민족문화발전의 바탕으로 되는 귀중한 유산이다. 그것은 우리 겨레모두가 계층과 세대를 넘어 함께 나눌수 있는 소중한 추억거리인것이다.

하기에 이 땅의 문화재들을 파괴하고 략탈한 일제의 죄행은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통한으로 새겨진 쓰라린 상처이다. 그 상처는 오늘날까지도 아물지 않고 후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있다. 일제가 무참히 도굴해간 고구려의 옛무덤들앞에서 남에 사는 사람인들 치를 떨지 않을수 있으며 왜적들이 략탈해간 백제의 기와들과 신라의 돌탑들을 보며 북에 있는 사람인들 어찌 주먹을 부르쥐지 않을수 있으랴.

아픔이 개인의것이면 상처에 그치지만 민족이 함께 나누면 힘이

되고 력사가 된다. 북이건 남이건 그 어데서 살건 분렬의 아픔을 안고 사는 이 겨레의 한 성원이라면 어느때건 마음을 가다듬고 력사의 그 상처앞에 한번 서보시라.

그러면 그대들은 저도 모르게 하나의 생각을 달리게 될것이다.

애국애족의 리념아래 온 민족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치는 길만이 력사의 아픈 상처를 하루빨리 가시는 길이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활로라는 이 시대의 진리에 대해 다시금 새겨보게 될것이다. …

대동강은 두리의 온갖 불빛들을 담아싣고 유유히 흐르고있었다. 소리는 없으나 거창한 흐름이였다.

장편소설 력사의 상처앞에

저 자	장 수 봉
편 집	리 창 식
표 지	김 영 일
교 정	안 순 광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1판발행	주체102(2013)년 11월 27일
2판인쇄	주체107(2018)년 11월 12일
2판발행	주체107(2018)년 11월 19일

ㄱ－1413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01-2